

발간 등록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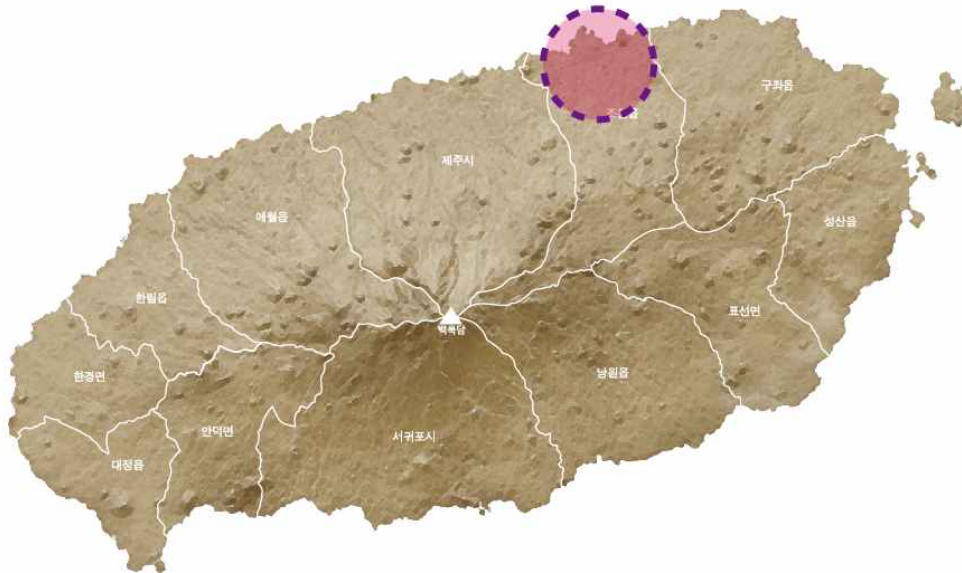
79-6500000-000477-01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조천읍 함덕리

구술: 한아섭 이용진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미진

# 11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

-조천읍 함덕리

## 목 차

###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4
3. 밭일 .....	48
4. 들일 .....	92
5. 바다일 .....	122
6. 의생활 .....	150
7. 식생활 .....	212
8. 주생활 .....	331
9. 신앙 .....	378
10. 통과 의례 .....	386



# 1.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홍,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ᄃ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ㄴ’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렁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II. 구술 자료

(@: 김미진, #1: 한아섭, #2: 이용진)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함덕은 어떻 행 만들어졌저 허는 말 잇수과?(이 함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말 있습니까?)

101001 #1 그건 몰라.(그건 몰라.)

101001 @ 이름은 어떻 행 함덕이렌 지왔저 허는 거.(이름은 어떻게 해서 함덕이라고 지었다 하는 거.)

101001 #1 우린 몰라.(우린 몰라.)

101001 @ 그런 말 안 들어봤?(그런 말 안 들어봤어?)

101001 #1 나난 그자 함덕이렌 허난 함덕서 사는 것만 함덕이주.(나니까 그자 함덕이라고 하니까 함덕에서 사는 것만 함덕이지.)

101001 #2 그런 문서는 전혀 모르고. 우리가 왜정 때는 함덕이렌 허민 미나수루도꼬<sup>1)</sup>라고 해서 일본말은 우리가 참 알았주만은. 이 우리말도 해방된 후에도 스삼이여 뭐여.(그런 문서는 전혀 모르고. 우리가 왜정 때는 함덕이라고 하면 ‘미나수루도꼬’라고 해서 일본말은 참 알았지만. 이 우리말도 해방된 후에도 사삼이다 뭐다.)

101001 #1 이 함덕은 벨호<sup>2)</sup>가 었어. 북춘도 보민 이젠 북춘이엔 해도 옛날엔 뒷개<sup>3)</sup>엔 허고이.(이 함덕은 별호가 없어. 북춘도 보면 이젠 북춘이라고 해도 옛날엔 뒷개라고도 하고.)

101001 @ 거난 이딘 그런 이름 었어?(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이름 없어?)

101001 #1 그런 이름 었어. 또 조천도 조천이엔 허는디 옛날 우리 클 때는 조천관. 신흥도 옛개<sup>4)</sup>, 신흥이엔 안 행 옛개엔. 함덕은 그런 벨로가 었다고.(그런 이름 없어. 또 조천도 조천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클 때는 조천관. 신흥도 ‘옛개’, 신흥이라고 안 하고 ‘옛개’라고. 함덕은 그런 별호가 없다고.)

101001 @ 그런 이름이 었어.(그런 이름 없어.)

101001 #2 함덕은 본래 본관.(함덕은 본래 본관.)

101001 @ 옛날부터 함덕?(옛날부터 함덕?)

1) ‘미나수루도꼬’는 ‘みな(모두)’+‘する(하다)’+‘どこ(어느 곳)’의 합성어인 듯하며 이 마을의 이름을 일본어로 이렇게 말한 것 같다.

2) ‘벨호’는 ‘별호(別號), 별명(別名)’을 말하는 것으로 ‘벨량, 벨리, 벨호’라고도 한다.

3) ‘뒷개’는 제주도 조천읍 북촌리의 옛 지명이다.

4) ‘옛개’는 제주도 조천읍 신흥리의 옛 지명이다.

101001 #1 함덕이엔 현디 벨호 말이 엇언. 나이 든 어른덜은, 옛날 어른덜은 이 서나신디사 우린 그런 말 안 들어봤.(함덕이라고 한데 벨호 말이 없었어. 나이 든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있었는지 우린 그런 말 안 들어봤어.)

101001 @ 함덕도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름 이수게.(함덕도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이름 있잖습니까?)

101001 #2 아, 그런 동네 있주.(아, 그런 동네 있지.)

101001 @ 무신 동네, 무신 동네 이수과?(무슨 동네, 무슨 동네 있습니까?)

101001 #2 일, 이, 삼, 스, 오구<sup>5)</sup>까지 시니까 함덕이. 일, 이, 삼, 스, 오구까지 이시민 그 일구, 이구, 삼구, 스구, 오구.(일, 이삼, 사, 오구까지 있으니까 함덕은. 일, 이, 삼, 사, 오구까지 있으면 그 일구, 이구, 삼구, 사구, 오구.)

101001 #1 것사 신식 말이주만은 옛날은.(그것이야 신식 말이지만은 옛날은.)

101001 @ 옛날 이름은 무신 동네, 무신 동네 엇수과?(옛날 이름은 무슨 동네, 무슨 동네 없습니까?)

101001 #1 웰막<sup>6)</sup>.('웰막'.)

101001 @ 웰막?('웰막'?)

101001 #2 팽사동.(팽사동.)

101001 @ 팽사동이 웰막?(팽사동이 '웰막'?)

101001 #1 응.(응.)

101001 @ 또?(또?)

101001 #1 저 이견 일구엔은 그냥 일구로 그자 들어오는 디난 허고 이딘 이구 렌.(저 이견 일구라고는 그냥 일구로 그저 들어오는 데니까 하고 여긴 이구라고.)

101001 #2 이구에는 동네 하. 펄못<sup>7)</sup> 동네, 거룻굴<sup>8)</sup> 동네, 가시남<sup>9)</sup>루 이런 것들은 다 있어.(이구에는 동네 많아. 펄못 동네, 거룻굴 동네, 가시남<sup>9)</sup>루 이런 것들은 다 있어.)

101001 @ 무신거? 할아버지, 다시 한 번.(뭐? 할아버지, 다시 한번.)

101001 #2 이구에 와서는 요디 허면 펄못 동네, 펄못 동네 김칩이라고 유명.(이구에 와서는 요기 하면 '펄못' 동네, '펄못' 동네 김씨집이라고.)

101001 #1 이디는 거룻굴 동네.(여기는 '거룻굴' 동네.)

101001 @ 무사 거룻굴 동네?(왜 '거룻굴' 동네?)

101001 #1 물이 이서났어이, 옛날. 이 노인당 지신 디가 물 메와된에.(물이 있었어, 옛날. 이 노인당 짓은 데가 물 메워두고.)

101001 #1 2 물통, 물통. 소 먹이는 물통.(물통, 물통. 소 먹이는 물통.)

101001 #1 소 먹이곡. 옛날은 거기서 빨래도 허곡 다 헤나신디 메와된.(소 먹이

5) '일, 이, 삼, 스, 오구'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는 1구, 2구, 3구, 4구, 5구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다

6) '웰막'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마을 이름으로 '팽사동'이라고도 한다.

7) '펄못'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구의 지명이다.

8) '거룻굴'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구의 지명으로 제보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다. '거룻굴'은 현재의 함덕2구 노인당 자리의 연못을 이르는 지명이기도 하다고 제보자는 설명한다.

9) '가시남<sup>9)</sup>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구의 지명이다.

고. 옛날은 거기서 빨래도 하고 다 했었는데 메워두고.)

101001 @ 거난 그 못 이름이?(그러니까 그 못 이름이?)

101001 #1 거룻굴, 거룻굴.('거룻굴, 거룻굴'.)

101001 @ 갯 이디가 거룻굴 동네?(그래서 여기가 '거룻굴' 동네?)

101001 #2 응 거룻굴. 저 앞에는 펄못 동네. 그디도 물통.(응, '거룻굴'. 저 앞에는 '펄못' 동네.)

101001 @ 그디도 물통?(거기도 물통?)

101001 #2 이구 안네도 거 펄못. (이구 안에도 거 '펄못'.)

101001 @ 물통 이름이 펄못?(물통 이름이 '펄못'?)

101001 #2 펄못.('펄못'.)

101001 #1 막 하. 다 몰르난 허주. 요 삼구엔 가민 솟두못<sup>10</sup>가라 솟두못.(아주 많아. 다 모르니까 하지. 요 삼구에는 가면 '솟두못'가야, '솟두못'.)

101001 @ 솟두못?('솟두못'?)

101001 #1 게도 이런 못이라난 디 메완 이제 막 길덜.(그래도 이런 못이었던 데 메워서 이제 막 길들.)

101001 @ 바닷가 쪽에는?(바닷가 쪽에는?)

101001 #1 바닷가 요디 물에 가민 세기마래<sup>11</sup>여 고냉이성창<sup>12</sup>이여.(바닷가 요기 물에 가면 '세기마래'다 '고냉이성창'이다.)

101001 #2 올렛여<sup>13</sup>.('올렛여'.)

101001 #1 드름<sup>14</sup>이여, 올렛여여, 느릿질<sup>15</sup>이여 경행 막 세여 가지.('드름'이다, '올렛여'다, '느릿질'이다 그렇게 막 세어 가지.)

101001 #2 건 다 잇는 거, 참.(그건 다 있는 거, 참.)

101001 @ 그 동네 이름으로예. 이 동네는 큰 오름이나 내창이나 이런 게.(그 동네 이름으로요. 이 동네는 큰 오름이나 내나 이런 게?)

101001 #2 이딘 엇고 저 앞이 서머봉.(여긴 없고 저 앞이 서우봉.)

101004 @ 무슨 오름?(무슨 오름?)

101004 #2 서머봉.(서우봉.)

101004 @ 서머봉?(서우봉?)

101004 #2 함덕 저 거자 봐지는 거 해수욕장 저, 서머봉이 큰 뭐, 그거 하나, 오름이란 건.(함덕 저 거의 보이는 거 해수욕장 저, 서우봉이 큰 뭐, 그거 하나, 오름이란 건.)

101004 @ 내창은?(내는?)

101004 #1 내창 엇어.(내 없어.)

10) '솟두못'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구의 지명이다.

11) '세기마래'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12) '고냉이성창'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13) '올렛여'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14) '드름'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15) '느릿질'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의 지명이다.

101004 @ 내창은 엇고 나는 물은 이실 거 아니꽈? 옛날엔 물 질레 어디레 가낫 수과?(내는 없고 나는 물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엔 물 질러 어디로 갔었습니까?)

101004 #1 스레물<sup>16)</sup>.('스레물'.)

101004 @ 스레물은?(‘소레물’은?)

101004 #2 생수. 삼구에 그디 삼구에 강 보민.(생수. 삼구에 거기 삼구에 가 보면.)

101004 #1 삼구에 그 막 운동기계 이신 디 그것이 스레물.(삼구에 그 막 운동기계 있는 데 그것이 ‘소레물’.)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2 거 생수 나와.(그거 생수 나와.)

101004 @ 아, 거 나는 물이꽈?(아, 그거 나는 물입니까?)

101004 #2 어, 생수, 생수.(어, 생수, 생수.)

101004 #1 소문난 물.(소문난 물.)

101004 #2 고ծ물<sup>17)</sup>에 가민 삼구 잇잖여게, 삼구에. 스구 해수욕장 내려가는 디 그것도 여자 물통 생수. 두 군디가 있어. 남즈 물통, 여즈 물통. 그 물덜은 알아주고.(‘고ծ물’에 가면 삼구 잇잖아, 삼구에. 사구 해수욕장 내려가는 데 그것도 여자 물통 생수. 두 군데가 있어. 남자 물통, 여자 물통. 그 물들은 알아주고.)

101004 #1 함덕물이 젤 맛있넌 허지.(함덕물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

101004 @ 계난예. 함덕이 물 좋텐.(그러니까요. 함덕이 물이 좋다고.)

101004 #1 스레물도 잘도 존 물.(소레물도 아주 좋은 물.)

101004 #2 그 물덜은 알아주고. 우리 어린 때.(그 물들은 알아주고. 우리 어린 때.)

101004 #1 수도덜 낭 해부난 물이 우로 어떻 제스 받아신디 물이 죽어. 옛날ㄱ 추록 우리 두린 때 물 나듯 안 나.(수도들 나서 해버리니까 물이 위로 어떻게 제나 받았는지 물이 죽어. 옛날처럼 우리 어린 때 물 나듯 안 나.)

101004 #2 요디 저 큰덥물<sup>18)</sup> 현 디 그디도 생수가 나오고 있어, 바당물.(요기 저 ‘큰덥물’ 한 데 거기도 생수가 나오고 있어, 바닷물.)

101004 #1 이건 바당으로 나는 거. 바당 고냥으로 다 납니다게. 생수사 다 나주 게.(이건 바다로 나는 거. 바다 구멍으로 다 나던데요. 생수야 다 나지.)

101004 #2 생수도 드문드문 잇고.(생수도 드문드문 잇고.)

101004 @ 바당 고냥으로 나는 물도 이름 잇수과?(바다 구멍으로 나는 물도 이름 있습니까?)

101004 #2 큰덥물.(‘큰덥물’.)

101004 #1 큰덥물. 들음.(‘큰덥물’.)

16) ‘스레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구의 샘물 이름이다.

17) ‘고ծ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구의 샘물 이름이다.

18) ‘큰덥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101004 @ 큰덕물, 함덕이 큰 덕인가?('큰덕물, 함덕이 큰 덕인가?)

101004 #2 뭐 덕제사 부쳐신디 몰라도 큰덕물이엔.(뭐 덕자야 붙였는지 몰라도 '큰덕물'이라고.)

101004 @ 아, 큰덕물이엔.(아 '큰덕물'이라고.)

101004 #2 여즈 물통 잇고, 남즈 물통.(여자 물통 잇고. 남자 물통.)

101004 #1 큰덕물, 큰덕물 헛주. 요딘 남즈통, 요딘 여즈통.('큰덕물, 큰덕물' 했지. 요긴 남자통, 요긴 여자통.)

101004 #2 여즈 나는 디 물 나고.(여자 나는 디 물 나고.)

101004 #1 이디 담 당 그자 옛날엔 밧디 강 와도 그디 강 모옥해 오고. 물이 들면은 짱 아니 가곡 물 썬 때는 그냥.(여기 담 쌓아서 그저 옛날엔 밧에 가서 와도 거기 가서 목욕해 오고. 물이 들어오면 짜서 안 가고. 물 썬 때는 그냥.)

101004 #1 2 유명허지, 참.(유명하지, 참.)

101002 @ 기구나예. 이디 함덕은 무신 성씨가 합니까?(그렇군요. 여기 함덕은 무슨 성씨가 많습니까?)

101002 #2 거는 이장덜신디 들어보시민 알주만은.(그거는 이장들에게 물어보면 알지만은.)

101002 #1 우리 생각으론 한씨가 함직헤베.(우리 생각으론 한씨가 많을 거 같아.)

101002 @ 한씨 하마씨?(한씨 많아요?)

101002 #2 이 이구는 아 저, 함덕은 근래 와서 몇 십 년은 각종 성이 집결웨 난.(이 이구는 아 저, 함덕은 근래 와서 몇 십 년은 각종 성이 집결돼 와서.)

101002 #1 전화 책에 보민 김씨가 하.(전화 책에 보면 김씨가 많아.)

101002 @ 어디가나 김씨가 하.(어디 가나 김씨가 많아.)

101002 #2 게메 뭇이 잇잖여게, 김이박이라고, 김이박. 건 한국 성 다 박아진 거.(글쎄 뭇이 있잖아, 김이박이라고, 김이박. 그건 한국 성 다 박혀있는 거.)

101002 @ 특히 함덕에 한씨가 그래도 많이 있구나예.(특히 함덕에 한씨가 그래도 많이 잇군요.)

101002 #1 한씨 하. 김녕도 가민 한씨가 하.(한씨 많아. 김녕도 가면 한씨가 많아.)

101002 #2 쥔 하긴 아메도 김씨가 하. 전화번호 책에 보민 흰히 나타나는디, 이디.(쥔 많긴 아마도 김씨가 많아. 전화번호 책에 보면 흰히 나타나는데, 여기.)

101002 #1 게메 김씨가 하.(글쎄 김씨가 많아.)

101002 @ 이 동네 옛날부터 무신 성씨가 하낫저, 영허는 건 엇구나예?(이 동네 옛날부터 무슨 성씨가 많았었다, 이렇게 하는 건 없군요?)

101002 #1 이건 엇고.(이건 없고.)

101002 @ 경해도 혹시 특별히.(그래도 혹시 특별히.)

101002 #2 특별헌 건 엇고.(특별한 건 없고.)

101002 @ 선흘<sup>19)</sup>은 가난 선흘 안칩이가 유명허텐 허멍. 김칩이도 많텐.(선흘은 가니까 선흘 안씨 집이 유명하다고 하면서. 김씨 집도 많다고.)

101002 #2 그딤 훗수가 얼마 안 돼니까 뭐, 알아보는 거고. 교래리<sup>20)</sup>니 머 이섯 자 멧 십 가오 안 돼니까. 함덕이 젤. 건물도 막 해 노니까 인구가 늘어나 불었어. (거긴 호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알아보는 거고. 교래리니 머 있어도 몇 십 가호 안 되니까. 함덕이 제일. 건물도 막 해 놓으니까 인구가 늘어나 버렸어.)

101003 @ 이디 함덕은 주로 무신거 허멍 살아났수과?(여기 함덕은 주로 뭐 하면서 살았었습니까?)

101003 #2 옛날 뭐 잡곡 농스주 뭐.(옛날 뭐 잡곡 농사지 뭐.)

101003 #1 옛날에사게 잠데 메웁고, 소에 잠데 썩왕 밧 갈곡, 보리 갈곡, 조갈곡, 콩광 거 두 가지, 세 가지베피 엇어. 감저도 농곡, 그거, 그거.(옛날에야 쟁기 메우고, 소에 쟁기 썩워서 밧 갈고, 보리 갈고, 조 갈고, 콩과 그거 두 가지, 세 가지 밖에 없어. 감자도 심고, 그거, 그거.)

101003 #2 콩도 좀 허고, 야채도 좀 허고. (콩도 좀 하고, 야채도 좀 하고.)

101003 @ 할머니 해난 탕근도 허고?(할머니 했던 탕건도 하고?)

101003 #2 아, 거, 옛날. 그 배추, 무수 아니 헐 때. 아주 박헐 때.(아, 거, 옛날. 그 배추, 무 안 할 때. 아주 박할 때.)

101003 #1 그때는이 늬 무 일덜도 엇인 때라. 탕근을 주로 주장 삼앙 헛지. 겐디 탕근 못허는 이도 하. 탕근 못허는 이가 못허민 막 두드려 불멍 부모네가.(그때는 남 무 일들도 없을 때야. 탕건을 주로 으뜸 삼아서 헛지. 그런데 탕건 못하는 이도 많아. 탕건 못하는 이가 못하면 막 두드려 버리면서 부모가.)

101003 @ 주로 농사짓고예?(주로 농사 짓고요?)

101003 #1 저 산에 강 낭도 케레덜 강.(저 산에 가서 나무 케러들 가서.)

101003 #2 농사도 엇고.(농사도 없고.)

101003 #1 이젠 과수원 나가난 그자 그런 거 저런 것덜 뭐.(이젠 과수원 나와 가니까 그저 그런 거 저런 것들 뭐.)

101003 #2 장사라는 것이 엇엇주. 사람이 곤란해.(상사라는 것이 없었지. 사람이 곤란해.)

101003 #1 못, 못전디게 살안. 밥 먹기가 곤란헐 뭐 밥만, 보리밥만 먹어져도 좋주만은. 우리 그런 야식밥을 안 먹엇주만은 속밥이여, 툔밥이여.(못, 못전디게 살았어. 밥 먹기가 곤란해서 뭐 밥만, 보리밥만 먹을 수 있어도 좋지만은. 우리 그런 야식밥을 안 먹엇지만은 썩밥이다, 툏밥이다.)

101003 #2 옛날 왜정 때. 공출 막 해가 부니까. 그때 말을 허민 눈물이 안 나와?(옛날 왜정 때. 공출 막 해가 버리니까. 그때 말을 하면 눈물이 안 나와?)

101003 @ 예.(예.)

19) '선흘'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를 말한다.

20) '교래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를 말한다.

101003 #1 그런 때는 우리 혼 열뒤 술 돼실 거라.(그런 때는 우리 한 열뒤 살 돼을 거야.)

101003 #2 그때가 켈 고비, 해방 직후, 해방 전. 말 못해. 피눈물 나주, 피눈물. (그때가 켈 고비, 해방 직후, 해방 전. 말 못해. 피눈물 나지, 피눈물.)

101003 #1 우리 열 서너 술 난 때주.(우리 열 서너 살 난 때지.)

101003 #2 아이고, 아이고. 사난 살았주.(아이고, 아이고. 사니까 살았지.)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큰 바위나 굴도 잇수과?(이 마을 주변에 큰 바위나 굴도 있습니까?)

101004 #2 함덕은 그런 거 엇어.(함덕은 그런 거 없어.)

101004 @ 그런 건 엇어예.(그런 건 없어요.)

101004 #1 내도 엇어, 내도 엇어.(내도 없어, 내도 없어.)

101004 #2 내창 이런 것도. 산으로 내려와야 내가 잇주, 엇어.(내 이런 것도. 산으로 내려와야 내가 있지, 없어.)

101004 #1 시에레 가는 디 베릿내<sup>21)</sup> ㄴ쁜 디 그런 내덜이, 그 내덜은 어디 화북<sup>22)</sup>더레 빠진 내가 이시킨 그런 내엔 허주만은 함덕은 그런 거 엇어.(시로 가는 데 ‘베릿내’ 같은 데 그런 내들이, 그 내들은 어디 화북으로 빠진 내가 있으니까 그런 내라고 하지만은 함덕은 그런 거 없어.)

101004 @ 그런 것도 엇고예.(그런 것도 없고요.)

101004 #1 함덕도 내가 있다. 뽕뽕<sup>23)</sup>디서 오릿물<sup>24)</sup> 터정 저 북춘더레 터져. 그 물이 북춘더레 터져.(함덕도 내가 있다. ‘뽕뽕’에서 ‘오릿물’ 터져서 저 북춘으로 터져. 그 물이 북춘으로 터져.)

101004 #2 선흘서 내려오는 것이 뽕뽕이라고 이서. 뽕뽕. 글로 해서 해동<sup>25)</sup>으로 해서 막 나가는 거 그것뿐.(선흘에서 내려오는 것이 ‘뽕뽕’이라고 있어. ‘뽕뽕’. 그리로 해서 ‘해동’으로 해서 막 나가는 거 그것뿐.)

101004 #1 함덕은 내가 엇어, 그 내가 해동더레 빠져.(함덕은 내가 없어. 그 내가 해동으로 빠져.)

101004 #2 것도 우리 조천 관리지만은 그런 내가 터져 붙어. 함덕 마을엔 안 들어오고.(그것도 우리 조천 관리지만은 그런 내가 터져 버려. 함덕 마을엔 안 들어오고.)

101005 @ 이 마을 특별한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잇는 게 이수과?(이 마을 특별한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잇는 게 있습니까?)

101005 #2 무신 기관?(무슨 기관?)

101005 @ 옛날에 이시킨 거나,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잇고예?(옛날

21) ‘베릿내’는 제주시 화북동을 거쳐 바다로 빠지는 내라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22) ‘화북’은 제주시 화북동을 말한다.

23) ‘뽕뽕’은 제주시 조천읍의 지명이다.

24) ‘오릿물’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내려와서 제주시 조천읍 북춘으로 빠지는 건천의 이름이다.

25) ‘해동’은 제주시 조천읍의 지명이다.

에 있었던 거나,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요?)

101005 #2 건 다 있고. 고등학교 신흥<sup>26)</sup> 요 앞이 있고, 중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그건 다 있고. 고등학교 신흥 요 앞에 있고, 중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101005 #1 고등학교 옛날엔 엇어났주.(고등학교 옛날엔 없었었지.)

101005 #2 조천읍에서 함덕이 어떻사 해신디 몰라도.(조천읍에서 함덕이 어떻게 야 했는지 몰라도.)

101005 #1 신춘<sup>27)</sup>중학교 짓언 신춘서. 함덕 중학교 이선 요 고돛물<sup>28)</sup>더레 이서 나고.(신춘 중학교 지어서 신춘서. 함덕 중학교 있어서 요 ‘고돛물’쪽에 있었었고.)

101005 #2 함덕은 고등학교까지 다 이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함덕은 고등학교까지 다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1005 #1 내 생각으로 함덕 마을이 보통으로 촌에서 켈 크지.(내 생각으로 함덕 망르이 보통으로 촌에서 제일 크지.)

101005 #2 켈 크지. 범위가 커.(제일 크지. 범위가 커.)

101005 @ 판 딴 가민 일리 이리 나누는디.(다른 덴 가면 일리, 이리 나누는데.)

101005 #2 이딘 오구, 오구.(여긴 오구, 오구.)

101005 @ 이딘 오구로 나눠가지고.(여긴 오구로 나눠 가지고.)

101005 #2 오개 구. 상당허주. 겨고 요즘 건물덜 막 중국사람덜 투자행 집덜 난 디엇이 막 지서불언.(오개 구. 상당하지. 그리고 요즘 건물들 막 중국사람들 투자해서 집들 난데없이 막 지어버려서.)

101005 @ 호텔도 지섬십디다.(호텔도 짓던데요.)

101005 #2 아이고 말로 못해. 생각지 안헌 땅에 막덜 호텔덜. 아이고 이 함덕은 무신 승시가 이신디사.(아이고, 말로 못해. 생각지 않은 땅에 막들 호텔들. 아이고 이 함덕은 무슨 흥사가 있는지야.)

101005 @ 마을이 살기가 좋안.(마을이 살기가 좋아서.)

101005 #2 평당 백만 원이여 뭐여 허난 뭐. 이백만 원 아이고.(평당 백만 원이 다 뭐다 하니까 뭐. 이백만 원 아이고.)

101004 @ 함덕은 해수욕장이 켈 유명허주예, 아멩해도예.(함덕은 해수욕장이 켈 유명하지요. 아무래도요.)

101004 #2 응, 아멩해도 유명허고, 그래서.(응, 아무래도 유명하고, 그래서.)

101004 #1 콘도 이서부난.(콘도 있어버려서.)

101004 #2 겨난 해수욕장에 건물이 고층 건물 팔 층까지 막 짓언 땅이 없어, 이 켜.(그러니까 해수욕장에 건물이 고층 건물 팔층까지 막 지어서 땅이 없어, 이 켜.)

101004 @ 옛날도 함덕 해수욕장에서 많이 놀아났수과?(옛날도 함덕 해수욕장에서 많이 놀았었습니까?)

101004 #1 해수욕장이엔 안 해서.(해수욕장이라고 안 했어.)

26) ‘신흥’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를 말한다.

27) ‘신춘’은 제주시 조천읍 신춘리를 말한다.

28) ‘고돛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고도물’이라고도 한다.



101004 @ 옛날에 어린 때.(옛날에 어릴 때.)

101004 #1 어린 때 해수욕장이엔 현 말 었어났어.(어릴 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말 없었어.)

101004 #2 한모살<sup>29)</sup>, 이렇게.(한모살, 이렇게.)

101004 #1 그때는, 줌줌 이십서. 저 이제 해수욕장에 그 막 차덜 차고 현 디가, 차덜 현디가 종합, 국민학교 집이라났어. 집이라나신디 해수욕장은 었고 그디 민작현 모살 동산이라났어이. 모살 동산인디 옛날도 그디 어느 디서 전장을 함덕서 완 전쟁을 헛덴 허여이.(그때는, 잠잠하고 계세요. 저 이제 해수욕장에 그 막 차들 차고 한 데가, 차들 한 데가 종합, 국민학교 집이었었어. 집이었었는데 해수욕장은 없고 거기 밋밋한 모래 동산이었어. 모래동산인데 옛날도 거기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함덕에 와서 전쟁을 했다고 해.)

101004 @ 아, 전쟁을?(아, 전쟁을?)

101004 #1 응, 전쟁을 함덕서.(응, 전쟁을 함덕서.)

101004 @ 몽고군?(몽고군?)

101004 #1 몽골, 몽골. 우리가 두린 땐 그땐 함덕이 막 땔을 처거리민 그냥 땔 물리왕 모살 위에 널영 거름허젠 행 텡기당 보민이 요만씩헌 해골 바가지가 이서 이.(몽골, 몽골. 우리 어린 때 그땐 함덕이 막 땔치를 처뜨면 그냥 땔치 말려서 모래 위에 널어서 거름하려고 해서 다니다 보면 요만큼씩헌 해골 바가지가 있어.)

101004 #2 막 이서, 막 이서.(막 있어, 막 있어.)

101004 #1 모살 불려가민 그 빠다귀덜이 다 나왕 막 빠다귀 한 걸 우리가 봐난. 우리 두린 때니까이 그 빠다귀덜 어떤 거는이 바가지 닮은 것이 셔. 조끄만 현 거 이. 거 막 우리가 심언 모살 담양 걸로 장난도 해난. 분시 몰르니까.(모래 날려가면 그 빠다귀들이 다 나와서 막 빠다귀 많은 걸 우리가 봤었어. 우리 어린 때니까 그 빠다귀들 어떤 거는 바가지 같은 것이 있어. 조그마한 거. 그거 막 우리가 잡아서 모래 담아서 그걸로 장난도 했었어. 분수 모르니까.)

101004 @ 재난.(그러니까.)

101004 #1 경허명 해난. 해수욕장이엔 현 건 었어나신디 요 땔 년 전에부터사 해수욕장 말도. 거기 ㄴ라 땔팻<sup>30)</sup>, 땔팻 헤여.(그렇게 했었어. 해수욕장이라고 한 건 없었었는데 요 땔 년 전에부터야 해수욕장 말도. 거기보고 ‘땔팻’, ‘땔팻’해.)

101004 @ 땔팻.(‘땔팻’.)

101004 #1 셋사십<sup>31)</sup>, 큰사십<sup>32)</sup>이렌 현 건 펡사동 오름 앞이가 큰사십. 이제 바로 해수욕장은 셋사십 헤영. 해수욕장으론 안 해난. 이제는 그런 해수욕장이여 무시 거여 해도.(‘셋사십, 큰사십’이라고 한 건 펡사동 오름 앞에가 ‘큰사십’. 이제 바로 해수욕장은 ‘셋사십’ 해서. 해수욕장으로는 안 했었어. 이제는 그런 해수욕장이다 무

29) ‘한모살’은 함덕 해수욕장 모래밭을 이르는 말이다.

30) ‘땔팻’은 ‘땔치밭’의 뜻으로 지금의 함덕 해수욕장 모래톱을 이르는 말이다.

31) ‘셋사십’은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해수욕장 지명이다.

32) ‘큰사십’은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 앞의 해수욕장을 말한다.

엇이다 해도.)

101004 @ 계난 해수욕장 이신 디가 뭇뻗, 큰사슴은?(그러니까 해수욕장 있는 데가 뭇치밭, ‘큰사슴’은?)

101004 #1 또 넘어강 그 믱르 넘어 산 저디가 큰사슴.(또 넘어가서 그 마루 넘어 서서 저기가 ‘큰사슴’.)

101004 @ 작은사슴은?(‘작은사슴’은?)

101004 #2 건 엇고.(그건 없고.)

101004 #1 작은사슴은 엇어. 작은사슴이 영뵈<sup>33)</sup>인 쟁이라. 영뵈디.(‘작은사슴’은 없어. ‘작은사슴’은 ‘영뵈’인 모양이야, ‘영뵈’에.)

101004 @ 큰사슴 허고 무신 사슴?(‘큰사슴’하고 무슨 사슴?)

101004 #1 셋사슴.(‘셋사슴’.)

101004 @ 셋사슴은 어디라 계난?(‘셋사슴’은 어디야 그러니까?)

101004 #1 이디 해수욕장.(여기 해수욕장.)

101004 @ 지금 해수욕장 허는 디가?(지금 해수욕장 하는 데가?)

101004 #2 그디가 중심.(거기가 중심.)

101004 @ 그디가 더 큰디 셋사슴이라, 큰사슴 아니고?(거기가 더 큰데 셋사슴 이야, 큰사슴 아니고?)

101004 #2 응, 큰사슴은 서모<sup>34)</sup> 앞이.(응, ‘큰사슴’은 서우봉 앞에.)

101004 @ 조글락헌 해수욕장예. 흐뵈 작은 디?(조그마한 해수욕장요. 조금 작은 데?)

101004 #2 쟁사동 서모 앞이. 그디가 제라헌 디.(쟁사동 서우봉 앞에. 거기가 제대로 된 데.)

101004 #1 셋사슴에 뭇 그물 등겨왓저 허민 막 가주. 그물 임제덜은 뭇 타레. 경해났어, 우리 두린 때.(‘셋사슴’에 뭇치 그물 당겨온다 하면 막 가지. 그물 임자들은 뭇치 따러. 그랬었어, 우리 어린 때.)

101004 @ 서우봉은 옛날도 서우봉이라났수과?(서우봉은 옛날도 서우봉이었었습니까?)

101004 #2 아, 옛날부터 저건.(아, 옛날부터 저건.)

101004 @ 옛날 이름 엇어?(옛날 이름 없어?)

101004 #2 없어, 없어. 저거 서무봉.(없어, 없어. 저거 ‘서무봉’.)

101004 #1 두린 때부터 듣는 말이 서무오름<sup>35)</sup>, 서무오름 허여. 서무봉이엔 안행 서무오름.(어린 때부터 듣는 말이 ‘서무오름’, ‘서무오름’ 해. ‘서무봉’이라고 안하고 ‘서무오름’.)

101004 @ 서무오름?(‘서무오름’?)

101004 #2 응, 서무오름.(응, ‘서무오름’.)

33) ‘영뵈’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지명이다.

34) ‘서모’는 ‘서무’, ‘서무오름’, ‘서무봉’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서우봉을 말한다.

35) ‘서무오름’은 ‘서무’, ‘서모’, ‘서무오름’, ‘서무봉’이라고도 하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서우봉을 말한다.

101004 @ 이젠 서우봉 허는다.(이젠 ‘서우봉’ 하는데.)

101004 #1 서우봉. 서우오름 가자, 서우오름. 이 추석 때 아이들 그때는 옛날덜 놀러 갈 때는 서우봉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이제는 막 질도 좋았는디 그때는 그냥 어레<sup>36)</sup>라 만딱 동산 굴렁헌 디 허민 저 꼭대기 가민 잔디밭이 펜펜허여. 그디 강 놀당 와.(‘서우봉’. ‘서우오름’ 가자, 서우오름. 이 추석 때 아이들 그때는 옛날덜 놀러 갈 때는 ‘서우봉’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이제는 막 길이 좋았는데 그때는 그냥 ‘어레’야 모두 동산 구렁진 데 하면 저 꼭대기 가면 잔디밭이 평평해. 거기 가서 놀다가 와.)

101004 @ 올라가젠 허민 무신거라?(올라가려고 하면 뭐라?)

101004 #1 어레라.(‘어레’라.)

101004 @ 어레가 무신거?(‘어레’가 뭐?)

101004 #1 돌팍구덜게.(돌밭들.)

101004 @ 돌팍덜?(돌밭들?)

101004 #1 질이 엇인 디라노난 그냥 몽쿨몽쿨 막 오름이니까 내로 만딱 씻어부난 이추룩 헌 딜로 울통불통헌 딜로 그 일로 트다가고 절로 트다가명 그 질곰<sup>37)</sup>이 시난 그레 올라가.(길이 없는 데라서 그냥 몽글몽글 막 오름이니까 내로 모두 씻어버리니까 이렇게 한 데로 울통불통한 데로 그 이리로 뜯어가고 저리로 뜯어가면서 그 ‘질곰’이 있으니까 그리 올라가.)

101004 @ 그제 어레엔 험니까?(그제 ‘어레’라고 합니까?)

101004 #1 것이 어레텔 건가? 질이 굿이니까. 그 어레로 올라간 영.(그것이 ‘어레’ 될 건가? 길이 굿으니까. 그 어레로 올라가서 이렇게.)

101004 #2 질이 엇이니까 그냥 길 형체만 다 돌팍만.(길이 없으니까 그냥 길 형체만 다 돌밭만.)

101004 #1 질이 엇어. 이 중간에는 그디가 질을 조금 멘드난에 어린아이 국민학생덜은 소풍을 그디만 가. 소풍을 그디만 그디 또 산으로 나는 물 닳은 물이 셔. 게민 글로 그 물이 이서부난 학생덜 그레 소풍을 가는 거라.(길이 없어. 이 중간에는 거기가 길이 조금 만드니까 어린아이 국민학생들은 소풍을 거기만 가. 소풍을 거기만 거기 또 산으로 나는 물 같은 물이 있어. 그러면 거기로 그 물이 있어버리니까 학생들 그리 소풍을 가는 거야.)

101006 @ 이 마을에 계나 접이나 축 짜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잇수과? 마을 계나 계 모임 같은 거 마을에 잇수과?(이 마을에 계나 ‘접’이나 ‘축’ 짜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있습니까?)

101006 #1 계 모임이 아니고 개인 것이 잇주. 줍, 줍 빠는 거. 두 밧딜 거라. 함덕에도 지네끼리 기계로 지네 집에.(계 모임이 아니고 개인 것이 있지. 줍, 줍 빠는 거. 두 군델 거야. 함덕에도 자기네끼리 기계로 자기네 집에.)

36) ‘어레’는 울통불통한 돌밭을 말한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37) ‘질곰’은 산이나 들에 사람이 다녔던 길의 흔적을 말하는 것 같다.

101006 @ 함덕에 두 밭디?(함덕에 두 군데.)

101006 #1 응, 두 밭디라.(응, 두 군데야.)

101006 @ 그건 어떻 허는 거마씨?(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1006 #1 거 그냥 이 무신 칩, 칩뿌리라도 앓아가민 그디서 줍 짱 나오고, 이 양파라도 앓아가민 줍 짱 나오고, 염소라도 잡아강 줍 빠 도렌 허민 그걸로 짜주멍 나오고.(거 그냥 이 무슨 칩, 칩뿌리라도 가져가면 거기서 줍 짜서 나오고, 이 양파라도 가져가면 줍 짜서 나오고, 염소라도 잡아가서 줍 빠 달라고 하면 그걸로 짜주면서 나오고.)

101006 @ 줍 짜는 거 말고 할머니 친목, 계 같은 거?(줍 짜는 거 말고 할머니 친목, 계 같은 거?)

101006 #2 친목 계.(친목 계.)

101006 #1 이제는 그런 친목, 옛날에는 막 하나신디.(이제 그런 친목, 옛날에는 아주 많았었는데.)

101006 #2 상당히 많아나신디.(상당히 많았었는데.)

101006 @ 옛날에 막 하난마씨?(옛날에 아주 많았었어요?)

101006 #2 우리 혼 여남은 개 이서났는디.(우리 한 여남은 개 있었는데.)

101006 #1 막 하낫어. 건디 이제는 헛자 소용 엇주만은 젊은 사름덜도 옛날ㄴ치 하지 안헌 거 다향.(아주 많았었어. 그런데 이제는 해도 소용 없지만 젊은 사람들도 옛날처럼 하지 안는 거 같아.)

101006 @ 옛날엔 그런 계허민 뭐 해?(옛날엔 그런 계하면 뭐 해?)

101006 #1 큰일칩이도 막 모여들멍 해주고, 막 해줘. 부주덜토 허곡 막 친허게 생각헿, 겐디 이제는 그런 일이 드몰어.(큰일 집에도 막 모여들면서 해주고, 막 해줘. 부조들도 하고 아주 친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드몰어.)

101006 @ 친척들끼리 말고 그냥 동네 사름끼리예?(친척들끼리 말고 그냥 동네 사람끼리요?)

101006 #1 예를 들영 우리 집이 잔칠 허쟁 허믄이 동네서가 막 겔 모여노난. 이 녁 가가리<sup>38)</sup>가 다 잇어이. 그릇 씻는 구지<sup>39)</sup>, 밥허는 구지. 다 해영 다 모다들영 돌아가멍 다 해줘.(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잔칠 하려고 하면 동네에서가 막 계를 모여 놓으니까. 자기 담당이 다 있어. 그릇 씻는 조, 밥하는 조. 다 해서 다 모여들어서 돌아가면서 다 해줘.)

101006 @ 그릇 씻는 무신거 구지?(그릇 씻는 무엇 ‘구지’?)

101006 #1 구지게.(‘구지’.)

101006 #2 구미<sup>40)</sup>, 구미, 조별.(‘구미’, ‘구미’. 조별.)

101006 #1 그릇 씻는 구별허고 밥해주는 딴 밥허고. 옛날엔 물도 이런 수도 엇

38) ‘가가리’는 ‘가かり’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담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39) ‘구지’는 어떤 일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조’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구미(くみ)’라는 일본어와 동의어라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40) ‘구미’는 일본어 ‘くみ’이며 어떤 일을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조’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일 땐 물도 길어다다 줘.(그릇 씻는 구별하고 밥해주는 텐 밥하고. 옛날엔 물도 이런 수도 없을 땐 물도 길어다 줘.)

101006 @ 다 계로 해근에, 계엔 안 행 다른 거엔 굴아낫수과?(다 계로 해서. 계라고 안 해서 다른 거라고 말했었습니까?)

101006 #1 친목이엔만 해.(친목이라고만 해.)

101006 @ 할머니넨 친목은 몇 개나 들어낫수과?(할머니네는 친목은 몇 개나 들었었습니까?)

101006 #1 아이고. 만해낫주. 부모나 죽으믄이 정신이 었어.(아이고, 많았었지. 부모나 죽으면 정신이 없어.)

101006 @ 거민 한 집에서 친목을 여러 개 들어?(그러면 한 집에서 친목을 여러 개 들어?)

101006 #1 구미가 으라 군데 친목이지. 포<sup>41)</sup> 드는 디도 잇고, 포 드는 딴 이디 허여난 디도 딴 고지로 부뜨민 이디도 또 부뜨고, 으라가지가 돼지.(조가 여러 군데 친목이지. 중복해서 드는 데도 있고, 중복해서 드는 텐 여기 했었던 데도 다른 가지로 붙으면 여기도 또 붙고. 여러 가지가 되지.)

101006 @ 포 드는 건 무신거?(‘포 드는’ 건 뭐?)

101006 #1 지허고 나허고 들어나신디 딴 고지에서 모집허영 일로 세여가민 또 나도 이 고지에 강 부떠신디 이디 부떠부난 또 포 들어진 거지 둘이가. 예를 들렁 부줄 허젠 허믄 이쪽에서도 나가 부주 내어주고 저쪽 고지에서도 부주 내어주고 허난 포 든 거지.(자기하고 나하고 들었었는데 다른 가지에서 모집해서 이리로 세여가면 또 나도 이 가지에 가서 붙었는데 여기 붙어버려서 또 중복해서 가입한 거지, 둘이가. 예를 들어서 부조를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도 내가 부조 내어주고 저쪽 가지에서도 부조 내어주고 하니까 ‘포 든’ 거지.)

101006 @ 아, 그제 포든 거파?(아, 그제 ‘포 든’ 겁니까?)

101006 #2 겹쳐졌다는 거지, 겹쳐져.(겹쳐졌다는 거지, 겹쳐져.)

101007 @ 함덕에 내려오는 풍습이나 다른 마을허고 다르게 허는 거 잇수과?(하묵에 내려오는 풍습이나 다른 마을 하고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101007 #2 풍습 이런 건 벨다른 거 었고. 이 함덕에 이렇게 어린 때부터 살았는데 함덕 마을은 상당히 인심이 좋아. 전라도 사람이 와도 시알이가 없어. 이 조천<sup>7</sup> 뜰 딴 상당히. 전라도 오민.(풍습 이런 건 벨다른 거 없고. 이 함덕에 이렇게 어린 때부터 살았는데 함덕 마을은 상당히 인심이 좋아. 전라도 사람이 와도 시샘이 없어. 이 조천 같은 텐 상당히. 전라도 오면.)

101007 #1 단체가 세여.(단체가 세.)

101007 @ 함덕이 크고 잘사는 마을인데.(함덕이 크고 잘사는 마을인데.)

101007 #1 조천으로는 함덕이 유명허게 달벤이 뻬지. 조천 질은, 질도 강 보민이 족아이. 함덕 질은 벨로 불편헌 디가 었이 흰허지. 조천으론 함덕이 아주 좋지.

41) ‘포’는 ‘거듭’의 옛말로 여기서 ‘포 들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하여 가입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덕 마을이엔사 허는 건지 몰라도.(조천으로는 함덕이 유명하게 ‘달변’이 됐지. 조천 길은, 길도 가서 보면 작아. 함덕 길은 별로 불편한 데가 없이 휼하지. 조천과 비교하면 함덕이 아주 좋지. 자기 마을이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

101007 #2 아까 말한 거 전라도 사람이 왔던 미국 사람이 와도 와신가 행 야점<sup>42)</sup>을 안 해. 절대 시알을 안 해.(아까 말한 거 전라도 사람이 오든 미국 사람이 와도 왔는가 해서 ‘야점’을 안 해. 절대 시샘을 안 해.)

101007 @ 잘살아지난 아니? 함덕 사름덜이 잘사난.(잘 사니까 아니? 함덕 사름들이 잘사니까.)

101007 #2 성격 자체가 폐까롭지 안해.(성격 자체가 까다롭지 않아.)

101007 #1 어딘 가든 잘사는 사름은 잘살고 못사는 사름은 다, 그런 로 살아도 어떤 마을이던지.(어딘 가면 잘사는 사름은 잘살고 못사는 사름은 다. 그런 대로 살아도 어떤 마을이든지.)

101007 #2 마음이 좀 여유롭고 순허게 지내어.(마음이 좀 여유롭고 순하게 지내.)

101007 @ 이디 마을제 같은 것도 지내주예?(여기 마을제 같은 것도 지내지요?)

101007 #1 마을제 지내주.(마을제 지내지.)

101007 @ 정월에?(정월에?)

101007 #2 정월에 서쪽이민 서쪽 끄트머리, 동쪽이민 동쪽 끄트머리, 이런 디서 허주. 가운데 별로 안 허여. 들어오는 동네.(정월에 서쪽이면 서쪽 끄트머리, 동쪽이면 동쪽 끄트머리, 이런 데서 하지. 가운데 별로 안 해. 들어오는 동네.)

101007 @ 거민 사구나 일구에서 해마씨?(그러면 사구나 일구에서 해요?)

101007 #1 포제, 포제.(포제, 포제.)

101007 #2 포제라고 해서.(포제라고 해서.)

101007 @ 이구는 안 험니까?(이구는 안 합니까?)

101007 #1 안 허여. 삼구도 안 허고 이디도 안 허여.(안 해. 삼구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해.)

101007 @ 이딘 시내구나게, 완전.(여긴 시내구나, 완전.)

101007 #2 하엿튼, 마지막 췌 번 이디서 포제를 허여. 그런 거 우린 몰라. 말만 들었주. 포제여 무시거여.(하엿튼, 마지막 췌 번 여기서 포제를 해. 그런 거 우린 몰라. 말만 들었지. 포제다 무엇이다.)

101007 @ 바다에 지내는 제나 이런 것도 엇고?(바다에 지내는 제나 이런 것도 없고?)

101007 #2 요즘 말로 바다에서 해녀들이 단합행 단체가 이서노난 바닷곳을 해녀덜이 주장행 해부니까 이디 사름은 그거에 관심도 엇고.(요즘 말로 바다에서 해녀들이 단합해서 단체가 있어서 바닷곳을 해녀들이 으뜸이 되어서 해 버리니까 여기 사름은 그거 관심도 없고.)

42) ‘야점’은 ‘야괴점’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물 같은 것을 얻어먹으려고 자꾸 배도는 것을 말한다.

10108 @ 함덕에 특산물? 뭐가 많이 납니까, 함덕은?(함덕에 특산물? 뭐가 많이 납니까, 함덕은?)

10108 #1 미깡이 많이 나고.(굴이 많이 나고.)

10108 @ 미깡은 아멩해도 남군 아닌가? 서귀포, 남군 이쪽이 하영 나지 안합니까?(굴은 아무래도 남군 아닌가? 서귀포, 남군 이쪽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0108 #1 남군 다음은 함덕에서 나는 거.(남군 다음은 함덕에서 나는 거.)

10108 @ 바닷고기나 뭐?(바닷고기나 뭐?)

10108 #2 바닷고기도 뭐.(바닷고기도 뭐.)

10108 #1 이젠 옛날ㄴ치 옛날은 성창이여 무시거여 허는디 이젠 저 방파제 흔곤데 가보난 그레도 잘 안 가난 어떻 웬지 몰라.(이젠 옛날처럼 옛날은 선창이다 무엇이다 하는데 이젠 저 방파제 한 군데 가보니까 그리도 잘 안 가니까 어떻게 됐는지 몰라.)

10108 #2 옛날에 고냉이 성창이여 뭐 해서 낫베덜 해서 등 돌아메서 나끄레 텅기고 햇주만은 자유당 시절에까진 이섯는디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 성창이고 뭐고 다 뭉덜 다 해.(옛날에는 고양이 선창이다 뭐 해서 낚시배들 해서 등 달아메서 낚으러 다니고 했지만 자유당 시절에까지는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것도 없어. 선창이고 뭐고 다 멸치들 다 해.)

10109 @ 이 마을에 자랑거리?(이 마을에 자랑거리?)

10109 #2 무시거 자랑거리.(무엇 자랑거리.)

10109 @ 함덕에 자랑거리 뭐가 잇수과? 다른 마을보다 아까 시알을 안 한다 그런 거라도.(함덕에 자랑거리 뭐가 있습니까? 다른 마을보다 아까 시샘을 안 한다, 그런 거라도.)

10109 #2 그런 건 좋아. 차별 안 허고, 원 절대 없어. 어디 외국이 왔든 전라도가 왔든 간에.(그런 건 좋아. 차별 안 하고, 원 절대 없어. 어디 외국에서 오든 전라도에서 오든 간에)

10109 #1 자랑거리는 마을도 크고.(자랑거리는 마을도 크고.)

10109 @ 땅도 비옥한가마씨? 농사도 잘돼고?(땅도 비옥한가요? 농사도 잘되 고?)

10109 #1 이 북촌으로 갈랑 또 이거 저 진드르렌 땅이 좋거든. 북촌드레 가민 땅이 족아이. 이젠 때가 좋아서 포크레인으로 막 밀멍 그걸 밧을 멘드난 헛주. 이 함덕 뽕밭이엔 헌디 넘어서든 토지덜이 막 좋아, 크고.(이 북촌으로 갈라서 또 이거 저 진드르 쪽엔 땅이 좋거든. 북촌으로 가면 땅이 작아. 이젠 때가 좋아서 포크레인으로 막 밀면서 그걸 밧을 만드니까 했지. 이 함덕 ‘뽕밭’이라고 한 데 넘어서면 토지들이 막 좋아, 크고.)

10109 @ 널르고.(넓고.)

10109 #1 조천드렌 가민 땅이 너미 찼해, 촌흙이라서 세여.(조천엔 가면 땅이 너무 진해. 찰흙이라서 세어.)

10109 @ 그른 농작물이 잘 안 자릅니까?(그러면 농작물이 잘 안 자릅니까?)  
 10109 #1 돼긴 돼는디 세여, 일허기가.(되긴 되는데 힘들어, 일허기가.)  
 10109 @ 일허기가 굿어.(일허기가 굿어.)  
 10109 #1 돼긴 돼는디 일허기가 세여. 비 오라낭 이삼일만 시민 땅이 캥캥해 불  
 민 검질매기도 굿어. 그런 것이.(되긴 되는데 일허기가 힘들어. 비 오고 나서 이삼  
 일만 있으면 땅이 땅땅해 버리면 김매기도 굿어, 그런 것이.)  
 10109 @ 근디 함덕은 틀려?(그런데 함덕은 달라?)  
 10109 #1 함덕은 조천 바른 디만 그런 땅이 있지 이레 가민 뜬 질 허꺼져부난  
 검질이 매기가 좋아.(함덕은 조천 곁에만 그런 땅이 있지, 이리 가면 ‘뜬 질’이 섞여  
 있어서 김이 매기가 좋아.)  
 10109 @ 뜬 질?(‘뜬 질’?)  
 10109 #1 뜬 땅, 뜬 땅. 반질레기.(뜬 땅, 뜬 땅. 반쪽짜리.)  
 10109 @ 반질레기?(‘반질레기’?)  
 10109 #1 춘흑도 아니고 뜬 흑도 아니고 허난 반질레기 돼민 곡식이 잘돼여.(찰  
 흑도 아니고 뜬 흑도 아니고 하니까 반쪽짜리 되면 곡식이 잘돼.)  
 10109 @ 아, 거난 함덕이 반질레기라?(아, 그러니까 함덕이 반쪽짜리야?)  
 10109 #1 반질레기 땅이 하. 일로 서쪽더렌 함덕 지경이라도 서쪽 더렌 가민 흥  
 꿈 땅이 세여이. 요 우트렌 가민 땅이 연허고 요만씩헌 잡티도 막 하고.(반쪽짜리  
 땅이 많아. 이리로 서쪽으로는 함덕 지경이라도 서쪽으로 가면 조금 땅이 세어. 요  
 위로 가면 땅이 연하고 요만큼씩헌 잡티도 아주 많고.)  
 10109 @ 땅이 좋구나예?(땅이 좋군요?)  
 10109 #1 김녕<sup>43)</sup>더레도 가민 땅이 좋아.(김녕쪽으로도 가면 땅이 좋아.)  
 10109 @ 김녕도 좋아마씨?(김녕도 좋아요?)  
 10109 #1 김녕도 땅이 좋아. 북춘<sup>44)</sup>, 동북<sup>45)</sup>더레가 땅이 빌레<sup>46)</sup> 끝에 돼연 빌  
 렫드르도 돼서 땅이 흥꿈 굿주, 김녕도 가민 땅이 좋아.(김녕도 땅이 좋아. 북춘, 동  
 북으로가 땅이 ‘빌레’ 끝이 되어서 ‘빌렛드르’도 되어서 땅이 조금 굿지, 김녕도 가  
 면 땅이 좋아.)

## 2. 제보자 일생

102001 @ 할머니는 함덕에서 낳고 자란 거잖아예. 할머니 어렸을 때 멧 남매  
 짜?(할머니는 함덕에서 낳고 자란 거잖아요. 할머니 어렸을 때 몇 남매입니까?)  
 102001 #1 우리 성제. 언니허고 나뿐.(우리 형제. 언니하고 나뿐.)

43)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를 말한다.

44) ‘북춘’은 제주시 조천읍 북춘리를 말한다.

45) ‘동북’은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를 말한다.

46) ‘빌레’는 암반지대를 이르는 제주어다.



102001 @ 둘뿐? 옛날인디 경 죽아?(둘뿐? 옛날인디 그렇게 적어?)

102001 #1 아버지가 인척 돌아가서 불언.(아버지기 일찍 돌아가서 버렸어.)

102001 #2 이 사람 임신된 때 돌아가 불언.(이 사람 임신된 때 돌아가 버렸어.)

102001 @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철?(아버지 얼굴도 못 본셈?)

102001 #2 뱃속에 잇는다.(뱃속에 있는데.)

102001 #1 불쌍허게 자랐지.(불쌍하게 자랐지.)

102001 @ 게메.(그러게.)

102001 #1 우리 짝시 동생이 하나 있지. 큰아버지 아덜이 우리 문막 초상덜 다 이장헤영, 공동장헤영 이장허는 디도 못 가왔져. 병원에 간 살아 부난. 꼭 보젠헤신디.(우리 뭇 동생이 하나 있지. 큰아버지 아들이 우리 모두 조상들 다 이장해서, 공동장해서 이장하는 데도 못 갔다왔어. 병원에 가서 살아 버리니까. 꼭 보려고 했는데.)

102001 #2 팔십육 년 만이 일어난 아버지를 못 뵈. 수술헿 와 부니까.(팔십육 년 만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못 뵈어. 수술해서 와 버리니까.)

102001 @ 아, 이장헿 때 강 아버지 보젠 헤신디.(아, 이장할 때 가서 아버지 보려고 했는데.)

102001 #2 임신헿 때 돌아가불어시니까. 그 하르방을 볼 건디 못 뵈.(임신한 때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 할아버지를 볼 것인데 못 뵈어.)

102001 @ 가도 관베끼 더 봅니까?(가도 관박에 더 봅니까?)

102001 #2 아니, 글썽 먹음이 어디라? 스춘 오레비가 양으로 들어사서 뭘 정정 당당허게 잘 보니까.(아니, 글썽 마음이 어디냐? 사춘 남동생이 양자로 들어서서 뭘 정정 당당하게 잘 보니까.)

102001 #1 혼 뱃 동기간보단도 낫고.(한 배 동기간보다도 낫고.)

102001 @ 스춘인디?(사춘인테?)

102001 #2 아, 양으로 들어사니까.(아, 양자로 들어서니까.)

102001 #1 누님도 안 버리젠 허고 동생도 나도 안 버리젠 허고 게 먹을 것도 시민 그레 줄줄 가정가, 또 먹을 거 시민 누님 읍서 허영 그냥 가고.(누님도 안 버리려고 하고 동생도 나도 안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먹을 것도 있으면 그리 줄줄 가져가, 또 먹을 거 있으면 누님 오세요 해서 그냥 가고.)

102001 @ 언니는?(언니는?)

102001 #1 언니는 돌아가고. 돌아간 지 혼 십 년 뵈저.(언니는 돌아가고. 돌아간 지 한 십 년 뵈어.)

102001 @ 뭇 살 차이파?(뭇 살 차이입니까?)

102001 #1 두 살 차이. 이제 살아시민 으든 으답.(두 살 차이. 이제 살았으면 여든여덟.)

102001 @ 쌍둥이처럼 자라시켜예.(쌍둥이처럼 자랐겠네요.)

102001 #1 언니도 잘살아.(언니도 잘살아.)

102001 @ 함덕 살아났수과? 언니도?(함덕 살았었습니까? 언니도?)

102001 #1 언니도 저 삼구에 살고.(언니도 저 삼구에 살고.)

102001 @ 다 조꼇디 살아났구나예?(다 곁에 살았었군요?)

102001 #1 언니도 아기가 칠 남매, 나도 육 남매. 성제 난 것이 어디 웨하르방 식게 때민 잔칫집 닳아. 외손지가 기냥 말도 못허게 하. 외손지에 거러가고 가쟁이 끼극 허민 잔칫집보단 더. 아버지가 아기는 못 나도.(언니도 아기가 칠 남매, 나도 육 남매. 형제 난 것이 어디 외할아버지 제사 때면 잔칫집 같아. 외손주도 그냥 말도 못하게 닳아. 외손자에 걸려 가고 가지 끼고 하면 잔칫집보다 더. 아버지가 아기는 못 낳아도.)

102001 @ 계난 두 명베끼 못 나도 자손이예.(그러니까 두 명밖에 못 낳아도 자손이요.)

102001 #1 경헌디 오레비가이 아덜이 다섯 개 딸이 세 개.(그런데 남동생이 아들이 다섯 개, 딸이 세 개.)

102001 @ 어느 오레비?(어느 남동생?)

102001 #2 양으로, 양으로, 양자.(양자로, 양자로, 양자.)

102001 #1 큰아버지 아덜. 우리 짝시 오레비가. 아덜 다섯 개.(큰아버지 아들. 우리 몫 남동생이. 아들 다섯 개.)

102001 @ 양자 온 거? 그디가 어떻?(양자 온 거? 거기가 어떻게?)

102001 #1 큰아버지 아덜이 아시, 아시 짝시로 논 거라. 거난 그 아덜이 아덜이 다섯 개, 딸이 네 개.(큰아버지 아들이 아우, 아우 몫으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들이 다섯 개, 딸이 네 개.)

102001 @ 아.(아.)

102001 #1 거난 우리도 나도 육 남매, 언니도 칠 남매. 계난 말도 못해. 하. 누게 말적 옛날 어른 동네 구기<sup>47)</sup>나, 우리 천지라.(그러니까 우리도 육 남매, 언니도 칠 남매. 그러니까 말도 못해. 많아. 누가 말하듯이 옛날 어른 동네 ‘구기’나, 우리 천지라. )

102001 #2 겐디 처아주망네도 경 돌아가고 우리도 처아주망도 계시주만은 남자 부부 잇영 가정 생활허는 집인 우리 둘밖에 엇어, 현재.(그런데 처형네도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도 처형도 계시지만 남자 부부 있어서 가정 생활하는 집은 우리 둘밖에 없어, 현재.)

102001 @ 할아버지덜 돌아가션?(할아버지들 돌아가셔서?)

102001 #1 이다 다 죽어 불언. 언니덜이, 밑에 스촌언니고 스촌동생이고 다. 엇어, 우리 둘이만 살아 잇주.(이다 다 죽어 버렸어. 언니들이, 밑에 사촌언니고 사촌동생이고 다. 없어, 우리 둘만 살아 있지.)

102001 @ 보통 남자들이 빨리 죽드라고마씨.(보통 남자들이 빨리 죽더라고요.)

102001 #2 현재 이 시간까지는. 육 남매고 팔 남매고 상관엇어.(현재 이 시간까

---

47) ‘구기’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여기서는 동네에 자기네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지는. 욱 남매고 팔 남매고 상관없어.)

102001 @ 켈 어른이구나예, 할아버지가예?(제일 어른이군요, 할아버지가요?)

102001 #2 아직은 같이 밥을 먹고 살아오니까.(아직은 같이 밥을 먹고 살아오니 까.)

102001 #1 동네서도 누게가 영 이녁 말이 아메도 후회 반앙 산 일이 었어이. 놈 안피 저거 아이고 저 사름 저거 허여 보진 안헐주. 저 사름 애기엔 헐다, 저 사름 애기덜 영 허엿젠 헐 말이 었어.(동네에서도 누가 이렇게 자기 말이 아무래도 후회 받아서 산 일이 없어. 남에게 저거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해 보진 았았지. 저 사람 애기라고 한다, 저 사람 애기들 이렇게 했다고 한 말이 없어.)

102001 #2 우리 노인당에서 할망 하르방네 꾀작 산 건.(우리 노인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꾀게 선 건.)

102001 #1 저 어른네ㄴ추룩 북 존 어른은 어디 서? 북은 무신 북게, 나영 골 명.(저 어른들처럼 북 좋은 어른이 어디 있어? 북은 무슨 북, 나 이렇게 말하면서.)

102001 #2 우리 고생은 많이 허고. 그자 삼시 먹고 살안.(우리 고생은 많이 하 고. 그저 삼시 먹고 살았어.)

102001 #1 욱 남매라도 그자 비방케 잘살지도 못살지도 안허영 그자 이제ㄴ지 나가 팔십으섯 나도록 살앗자 어머니, 아버지는 앞이 돌아가시는 거 봤주이. 외손이 고 이녁 손지고이.(욕 남매라도 그저 비범하게 잘살지도 못살지 았고 그저 이제까지 내가 팔십여섯 될 때까지 살아도 어머니, 아버지는 앞에 돌아가시는 거 봤지. 외손 주고 자기 손주고.)

102001 #2 아직은 짹 었어.(아직은 짹 없어.)

102001 #1 짹이 었은 게 아니고이 죽으는 걸 나 눈에 못 보여서 안죽. 경헌디 우리 집 저 바끄레 아덜 말이 어머니네ㄴ지 어머니 하나로 외손이고 징손이고 거려 논 게 오십두 명이렌.(짹이 없는 게 아니고 죽는 걸 내 눈으로 못 보여서 아직. 그 런데 우리 집 저 바깥채 아들 말이 어머니까지 어머니 하나로 외손자고 증손자고 거느려 놓은 것이 오십두 명이라고.)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1 게난 수정이 안 할 수가 이서? 잘도 세연.(그러니까 숫자가 안 많을 수 가 있어?)

102001 #2 마라도 뭐 차 대절헐 가난 운전수가 노래어. 이거 헐 가지파? 헐 가 지주. 허허허.(마라도 뭐 차 대절해서 가니까 운전수가 놀라. 이거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지. 하하하.)

102001 #1 게난게 나 헐나 거린 것이 사우, 손지, 징손 끼와 가난에게 원두 개 엔 허난.(그러니까요 나 하나 거느린 것이 사위, 손주, 증손 끼워 가니까 원두 개라 고 하니까.)

102001 #2 큰사우만 못 왔주. 일흔하난디 아파부난.(큰사위만 못 왔지. 일흔하난 데 아파서.)

102001 #1 나가 영 댜도 사우덜이고 딸이고 하나 짝 글른 것도 하나도 엇어.(내가 이렇게 되어도 사위들이고 딸이고 하나 짝 없는 것도 하나도 없어.)

102002 @ 집이 펜안허연예. 할머니 옛날에 어머니는 주로 무신 일 허명 살아낫 수과?(집이 편안해서요. 할머니 옛날에 어머니는 주로 무슨 일 하면서 살았었습니까?)

102002 #1 그때도 그게 그거라, 그때도. 이 나 곧듯이 헛 일이.(그때도 그게 그거야, 그때도. 이 내가 말하듯이 한 일.)

102002 @ 농사짓는 거?(농사짓는 거?)

102002 #1 농사 게, 당신 혼자 옛날은 그것베끼 엇지. 골갱이질 허고 텅기당 또 탕근허민 그자 장, 오일장허난에 오일 췌에 또 탕근 헤영 그거 다 멘들앙 장날에 풀레 갈 여산허곡.(농사 그러게, 당신 혼자 옛날은 그거밖에 없지. 호미질하고 다니다가 또 탕건하면 그저 장, 오일장하니까 오일 췌에 또 탕건해서 그거 다 만들어서 장날에 팔러 갈 궁리하고.)

102002 #2 상당히 박헌 거주.(상당히 박한 거지.)

102002 #1 박함이나마나 그뻔 다. 것도 허난 헛주, 못헌 사름이 천지라.(박함이나마나 그뻔 다. 그것도 하니까 했지, 못한 사람이 천지야.)

102002 #2 요즘 일당 오만 원 버는 게 펜안헤.(요즘 일당 오만 원 버는 게 편안해.)

102002 #1 그뻔 그런 것이 이서게? 탕근도 못허민 어멍네안피 욱만 들영 살았주.(그뻔 그런 것이 있어? 탕건도 못하면 어머니한테 욱만 들어서 살았지.)

102002 @ 어머니 혼자서 둘이 다 키운 거 아니? 힘들어서켜예.(어머니 혼자 둘이 다 키운 거 아니? 힘들었겠어요.)

102001 #1 무신 힘들어게. 그냥 그런 대로 밥만 먹으면 살아지는 거난. 공불 시켰어, 무시거 헛어? 이제ㄴ찌 무슨 중학꼴 시켰어, 대학꼴 시켰어, 국민학꼴 시켰어? 어둑을 때. 우리도 어둑으난. 그때는 학교 강 입학 증설 때 와사 나가 학교 들어갈 건디 입학 증서 때 오고렌 허난 돌아난 곱아 불언. 췌막 소곱에 강 곱아 부난 그때도 공불 헛 거주만은 못 헛 거라. 시기 놓천.(뭐가 힘들어. 그냥 그런 대로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니까. 공부를 시켰어, 무엇을 했어? 이제같이 무슨 중학교를 시켰어, 대학교를 시켰어, 국민학교를 시켰어? 어두울 때. 우리도 어두우니까 그때는 학교 가서 입학 증서를 때 와야 내가 학교 들어갈 건데 입학 증서 때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숨어 버렸어. 외양간 속에 가서 숨어버리니까 그때도 공부를 할 거지만 못 한 거야. 시기 놓쳐서.)

102001 @ 할머니가 곱아 불언? 무사?(할머니가 숨어 버렸어? 왜?)

102001 #1 곱아 불언. 안 허켄, 두런, 명청헌 생각으로.(숨어 버렸어. 안 하겠다고, 어리석어서, 명청한 생각으로.)

102001 @ 누게 가지 말렌 꼴읍디가?(누가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102001 #1 아니라, 아닌디 명청허게시리. 학교 간 입학 증설 때레 간 때 오고렌

허난 그냥 도망간 곱안 노시 안 나완 못 허연. 이녁냥으로도 명청헌 생각이나.(아니야, 아닌데 명청하게. 학교 가서 입학 증서를 떼러 가서 떼 온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서 숨어서 기어코 안 나와서 못 했어. 자기대로도 명청한 생각이나.)

102001 @ 가민 어떻 헌텐 누게가 곤 거 아니?(가면 어떻게 한다고 누가 말한 거 아니?)

102001 #1 몰라, 어떻게 해신디. 간세주게. 무시것도 잊이 그자 고향에덜만 살안 어디 땡겨나지 안허난 두루헌 생각으로사 아니사 해신디.(몰라, 어떻게야 했는지. 게으름이지. 무엇도 없이 그저 구멍에들만 살아서 어디 다니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으로야 아니야 했는지.)

102004 @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잊수과?(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2004 #1 기억나는 거 잊주게.(기억나는 거 없지.)

102004 @ 주로 어렸을 때 뭐 해낫수과?(주로 어렸을 때 뭐 했었습니까?)

102004 #1 어명이영 들라아정 밋디 가는 거허고, 어명 오줌허벅 저근앵이, 옛날엔 오줌향 반앙이 큰 향아리에 오줌을 물려이. 거름이라 것이. 이제 물허벅 닳은 걸로 지어 앗영 밋디 강. 들라아정 강. 그거베끼 잊어.(어머니랑 따라서 밭에 가는 거하고, 어머니 오줌허벅 저서, 옛날엔 오줌향아리 받아서 큰 향아리에 오줌을 말려. 거름이야 그것이. 이제 물허벅 같은 걸로 지어서 밭에 가서. 따라서 가서. 그거밖에 없어.)

102004 #2 도야지 인분 맥이명 도야지 길르면서. 그런 시절을 다.(돼지 인분 먹이면서 돼지 기르면서. 그런 시절을 다.)

102004 @ 게른 어므니 밋디 가민 집이서 무신거 해?(그러면 어머니 밭에 가면 집에서 뭐 해?)

102004 #1 할망 조름에 밋디 들랑 가지. 가근에 그냥 자파리허지. 돌맹이도 주성 자파리허고 검질도 하나씩.(할머니 콩무니에 밭에 따라 가지. 가서 그냥 장난하지. 돌맹이도 주워 장난하고 김도 하나씩.)

102004 @ 어므니영 밋디 강.(어머니랑 밭에 가서.)

102004 #1 밋디 들랑 가.(밭에 따라 가.)

102004 @ 밋디 강 무신거 허여?(밭에 가서 뭐 해?)

102004 #1 게메 그거베끼 잊어. 돌맹이 좇어당 소꿉장난ㄹ추룩 그거 앗앙.(그러게 그거밖에 없어. 돌맹이 주워다가 소꿉장난처럼 그거 앗아서.)

102004 @ 언니영 둘리?(언니랑 둘이?)

102004 #1 언니는 일 허고. 두나 차이니까.(언니는 일하고 두 살 차이니까.)

102004 @ 친구들이영은 안 놀아?(친구들이랑은 안 놀아?)

102004 #1 아이고, 친구가 어디 서?(아이고, 친구가 어디 있어?)

102004 #2 아이고, 한글허영 먹어져사 친구가 잇주.(아이고, 한가해서 먹어져야 친구가 있지.)

102004 #1 맞아, 우리는 그런 생활을.(맞아, 우리는 그런 생활을.)

102004 #2 옛날 말은 한탄할 정도주.(옛날 말은 한탄할 정도지.)

102004 #1 우리뿐 아니. 더 느나 엇이.(우리뿐 아니. 더 너나 없이.)

102004 @ 어렸을 때 할머니 아이덜이영 곱을락도 공기놀이도 허고 이런 것도 허지 안헐?(어렸을 때 할머니 아이들이랑 숨바꼭질도, 공기놀이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

102004 #1 땅뽐기도 허곡, 베틀레기도 허곡 그런 거 헛주게.(땅뽐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그런 거 했지.)

102004 @ 어떤 거, 어떤 거 해놔수과?(어떤 거, 어떤 거 했었습니까?)

102004 #1 영 네모나게 영 기려 낱 땅뽐아먹을락이 허고, 무신 그릇 벌러진 거 곱닥허게 동글락허게 돈ㄴ찌 멘들앙 돈치기ㄴ추룩도 허고. 다 해놔지. 베틀레기도 허고. 원 그릇 벌러진 거 봉가당 소꿉장난 어디 세간살이헐 영 막 솟 앓정 무신거 멘드는 척 다허고, 벗들이영.(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러 놓고 땅뽐기 하고, 무슨 그릇 깨진 거 곱게 동그랗게 돈처럼 만들어서 돈치기처럼도 하고. 다 했었지. 줄넘기도 하고. 원 그릇 깨진 거 주워다가 소꿉장난 어디 세간해서 이렇게 막 솟 안쳐서 무엇 만드는 척 다하고, 벗들이랑.)

102004 @ 소꿉장난?(소꿉장난?)

102004 #1 그거 이제 것덜은 정 멧진 걸로 허는디 그뎨 그릇 벌러진 거 봉가당 다 허여.(그거 이제 것들은 저렇게 멧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뎨 그릇 깨진 거 주워다가 다 해.)

102005 @ 일본 시대에는 젤 힘든 게 공출인가?(일본 시대에는 젤 힘든 게 공출인가?)

102005 #2 닥쳐 본 거니까.(닥쳐 본 거니까.)

102005 #1 공출허는 것도 우리도 시원하게 몰라. 해 가는 거 우리 육은 후제 보리 막 털어가부난 이디 함덕 막 부량헌 사람이, ○○이, 문딱 앓당 곱쳐도 무시거 곱진 거 훗아녕산디 시나징이엔 헨에이 먹으로 영.(공출하는 것도 우리도 시원하게 몰라. 해 가는 거 우리 큰 후에 보리 막 털어가 버리니까 여기 함덕 막 부량한 사람이, ○○이, 모두 가져다가 숨겨도 무엇 숨긴 거 찾아내어서인지 ‘시나징’이라고 해서 먹으로 이렇게.)

102005 #2 장○○이주.(장○○이지.)

102005 #1 장○○이파? 요 뒷어멍네 살아난 집이 ○○이. 중식이주. 영 시나징이엔 행 시염을.(장○○입니까? 요 뒷어머니네 살았던 집에 ○○이. ○○이지. 이렇게 시나징이라고 해서 수염을.)

102005 #2 먹으로게.(먹으로.)

102005 #1 경 몽니 부리멍, 질랑 늠으 거 다 털어 먹으멍 그 못웜 짓거리헌 사람이 이서. 해방 뒤편에 자연적으로 그냥 이추룩헌 몽텅이에 못 박앙 그놈을 막 때려 죽어 불어세.(그렇게 몽니 부리면서, 길러서 남의 거 다 털어 먹으면서 그 못된 짓거리한 사람이 있어. 해방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몽둥이에 못 박아

서 그놈을 막 때려 죽어 버렸어.)

102005 #2 유명허주.(유명하지.)

102005 @ 공출은 주로 뭐 험니까?(공출은 주로 뭐 합니까?)

102005 #1 보리.(보리.)

102005 #2 가마니에 무경 시경.(가마니에 묶어서 실어서.)

102005 #1 감저도 농앙 썰영 물령 빼떼기 멘들앙 막 이 함덕 국민학교 신 뎨 그냥 오름만씩 막 큰 저 오름만씩 데미고. 경해난. 이제 7째 더글 거 가빠<sup>48)</sup>덜이라 도 좋민 허주만은 막 해다낱 기냥 썰기명 걸 경 못전디게.(고구마도 농아서 말려서 절간 만들어서 막 이 함덕 초등학교 있을 뎨 그냥 오름만큼씩 막 큰 저 오름만큼씩 쌓고. 그렇게 했었어. 이제처럼 덮을 거 카파들이라도 좋으면 하지만은 막 해다 놓아서 그냥 썩이면서 그걸 그렇게 못전디게.)

102005 #2 공출이란 거 말 못해, 에이구 덜루와.(공출이란 거 말 못 해, 에이고 더러워.)

102005 @ 함덕 이구에서 얼마만이 바찌라 허민 다 모여근에 내는 거?(함덕 이구에서 얼마만큼 바쳐라 하면 다 모여서 내는 거?)

102005 #2 아니, 아니. 그 집이 농산물 다 조사허명. 가마니가 뎨 가마니 잇다는 거 다 조사허여.(아니, 아니. 그 집에 농산물 다 조사하면서. 가마니가 뎨 가마니 잇다는 거 다 조사해.)

102005 @ 그민 우리 보리헤네 열 가마니 농사헤네 헛다 허민?(그러면 우리 보리 해서 열 가마니 농사해서 헛다 하면?)

102005 #2 다 바찌.(다 바쳐.)

102005 @ 우리 먹을 건?(우리 먹을 건?)

102005 #1 거 털어가부난에게 하간 거이 양식이. 거 곱져 텡기당.(그거 털어 가 버리니까 모든 것 양식이. 그거 숨겨 다니다가.)

102005 @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엇인게.(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네.)

102005 #1 엇주만은 해야주. 경허당도 어떻 이녁 먹을 것도 어떻게 어드레. 경허명 살앗주.(없지만은 해야지. 그러다가도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어떻게 어디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102005 @ 일본 시대 때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엇수과?(일본 시대 때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2005 #1 엇어. 우리 두려 부난 몰라. 들은 말 우리, 저 조천 선두엔 헌 디 군대완, 완 뎨저 무시거 헌 말베끼 몰라. 일본 배 텡길 때 것도 짐녕 내사 간덴 헤네 일본도 가낫주.(없어. 우리 어리석어 버려서 몰라. 들은 말 우리, 저 조천 선두라고 한 데 군대와서 왔다 그랬다 뭐 한 말밖에 몰라. 일본 배 다닐 때 그것도 짐녕 내야 간다고 해서 일본도 갔었지.)

102005 @ 일본말도 배우고 해낫주예?(일본말도 배우고 했었지요?)

48) ‘가빠’는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으로 포르투갈어 ‘capa’에서 온 것이다.

102005 #1 아니, 학교 안 간.(아니, 학교 안 갔어.)  
 102005 #2 학교 안 했주게.(학교 안 했지.)  
 102005 @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 영 허는 건?(일본 이름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는 건?)  
 102005 #1 그때도 바꾸라 헨 일 었엇어.(그때도 바꾸라 한 일 없엇어.)  
 102005 #2 나가 일본 글 다 배완 졸업했주.(내가 일본 글 다 배워서 졸업했지.)  
 102005 #1 몰라, 일본 글도 몰라.(몰라, 일본 글도 몰라.)  
 102005 #2 나가 함덕 국민학교 졸업헨, 이혼디.(내가 함덕 국민학교 졸업해서, 이혼인데.)  
 102005 @ 함덕국민학교 이회?(함덕국민학교 이회?)  
 102005 #2 이회. 열여섯에 졸업헤연.(이회. 열여섯에 졸업했어.)  
 102005 @ 아 늦게 졸업했구나. 어뜨난 이혼가 헛수다.(아, 늦게 졸업했구나. 왜 이혼인가 했습니다.)  
 102005 #2 열 살에 들어간, 열 살에.(열 살에 들어갔어, 열 살에.)  
 102005 @ 열 살에 들어간.(열 살에 들어갔어.)  
 102005 #2 육 년 허니까 뒷해 열일곱 살에 해방웬. 소화 사년 일인디 천황폐하가 우리보다 같은 연수컬. 이 일본에, 천황 폐하 이마카미 덴노<sup>49)</sup>, 다 배운 거. 육 년 배운 거 다 나무아미타불.(육 년 하니까 뒷해 열일곱 살에 해방됐어. 소화 사년 일인데 천황폐하가 우리보다 같은 나이일걸. 이 일본에, 천황 폐하 이마카미 덴노, 다 배운 거. 육 년 배운 거 다 나무아미타불.)  
 102005 @ 할머니 야학 같은 디도 텡겨판?(할머니는 야학 같은 데도 다녀왔어?)  
 102005 #1 텡기당 그자 실핑 간세헨 안 헨 돌아텡기멍 장난허는 디만.(다니다가 그저 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워서 안 해서 돌아다니면서 장난하는 데만.)  
 102005 @ 무신 장난?(무슨 장난?)  
 102005 #1 이제도 장난허렌 허민 잘 허크라.(이제도 장난하라고 하면 잘 하겠어.)  
 102005 @ 게난 무신 장난?(그러니까 무슨 장난?)  
 102005 #1 그때도 무신 장난 셋주게. 곱을레기도 허레 돌아텡기고, 막 무시거 것 ㄴ라 무신거엔, 단스께<sup>50)</sup>도 허고 무시것도 허고.(그때도 무슨 장난 있었지. 숨바꼭질도 하러 돌아다니고, 막 무엇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단스께’도 하고 무엇도 하고.)  
 102005 @ 단스겐 뭇짜?(‘단스께’는 뭇니까?)  
 102005 #1 막 곱을락헨 돌아텡기는 거.(막 숨바꼭질해서 돌아다니는 거.)  
 102005 #2 손 잡아심서.(손 잡아두고.)  
 102005 @ 아, 그게 단스께. 일본말 담다예?(아, 그게 단수께. 일본말 같지요?)

49) ‘덴노’는 일본어로 ‘천황(てんのう)’ 이라는 뜻이고 ‘아마카미’는 사람 이름인 것 같다.

50) ‘단스께’는 일본어 ‘다스께’에서 만들어진 말로 어린아이들의 놀이의 하나인 것 같다.



102005 #2 일본말게 단스께. 다스겐<sup>51)</sup> 살려도렌 말이고 단스겐 손을 잡으라 허는 말. 단스께. 옛날 말 다 나오네. 말허민 다 알아먹어. 건디 이제 그것이 잊어 불언. 일본 책을 보고 잇는디 글 배왔다고 말 못해, 가다까나 히라까나도 다 못 써. (일본말 단스께. ‘다스께’는 살려달라는 말이고 ‘단스께’는 손을 잡아라 하는 말. 단수께. 옛날 말 다 나오네.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잊어 버렸어. 일본 책을 보고 잇는데 글 배왔다고 말 못해, 가타카나, 히라가나도 다 못 써.)

102005 @ 오래 돼수게게, 몇 년이파게?(오래 됐잖아요, 몇 년입니까?)

102005 #2 칠십 년.(칠십 년.)

102005 @ 칠십 년, 게난 어떻 안 잊어릅니까? 칠십 년이 지나신디 계속 써야 안 잊어불주.(칠십 년, 그러니까 어떻게 안 잊어버립니까? 칠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 써야 안 잊어 버리지.)

102005 #1 이젠 여녕이 잊어 불 때가 됐주. 저 하르방 곶양 놔두민 편편.(이젠 나이가 잊어 버릴 때가 됐지. 저 할아버지 말해 두면 편편.)

102005 #2 뇌 약을 먹어도 안 들어. 금방 가당도 멍 허영 샷당.(뇌 약을 먹어도 안 들어. 금방 가다가도 멍 해서 섰다가.)

102005 #1 영 말 곶 때만이주, 저 하르방 말 못 들어.(이렇게 말 할 때만이지, 저 할아버지 말 못 들어.)

102006 @ 게민 사삼사건 뎌?(그러면 사삼사건 뎌?)

102006 #2 이 사름덜은 잘 몰라.(이 사람들은 잘 몰라.)

102006 #1 우린 여즈니까. 여즈니까 그때는이 이 사름이 보춤막이 서이. 그거는 열아홉 뎌 때니까 골목골목마다 영 보춤막 이신디 보추 서렐 가.(우린 여자니까. 여자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보초막을 서. 그거는 열아홉 뎌 때니까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보초막이 잇는데 보초 서러 가.)

102006 @ 여자들도?(여자들도?)

102006 #1 응, 보추 사레 가민 증거가 뭐엔 허믄이 대차, 그 대 까강 영 칼ㄴ찌 영헌 거. 그걸 하나씩 주고 보추 사레 가렌 허여. 게민 붉으민 오고.(응, 보초 서러 가면 증거가 뭐라고 하면 대차, 그 대 깎아서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한 거. 그걸 하나씩 주고 보초 서러 가라고 해. 그러면 밝으면 오고.)

102006 @ 보춤막에 가근에 상 이서야 돼여?(보초막에 가서 서서 있어야 돼?)

102006 #1 그디 가도 그 초숫막에 뎌 시민 가와리허멍. 그 가름 가운데 무신 폭도가 들어오카부덴사 헤신디사 그뎌 경헛어.(거기 가도 그 초소막에 뎌 있으면 번갈아가면서. 그 동네 가운데 무슨 폭도가 들어올까봐 했는지 그뎌 그렇게 했어.)

102006 @ 다른 동네 사름덜도 이디 해변이난 웃드르 사름덜도 왔주예?(다른 동네 사람들도 여기 해변이니까 ‘웃드르’ 사람들도 왔지요?)

102006 #1 응, 우리 그때 당시는 조천서라이. 임시 조천 간 때니까 스삼사건 끝나갈 무렵에 해방된 무시거헌 때. 그때는 우리 측은 다 가름 가운데 골목 골목마다

51) ‘다스께’는 일본어로 ‘たすけ’로 살려 달라는 말이다.

초솟막은 지서나난 그걸 다 지켜사. 경 무시거 허게는 안 해도.(응, 우리 그때 당시는 조천서야. 임시 조천 간 때니까 사삼사건 끝나갈 무렵 해방된 무얼한 때. 그때는 우리쪽은 다 마을 가운데 골목 골목마다 초소막은 지었었어 그걸 다 지켜야. 그렇게 무엇 하게는 안 해도.)

102006 @ 그땐 할아버지영 결혼 안 한 때?(그땐 할아버지랑 결혼 안 한 때?)

102006 #1 응, 남즈덜은 이제 성 다운 바우에 초솟막에 남즈덜은 하르방덜은 다 직허고. 우린 가름 안에서. 이상현 세월 다.(응, 남자들은 이제 성 쌓은 가에 초소막에 남자들은 할아버지들은 다 지키고, 우린 마을 안에서. 이상한 세월 다.)

102006 @ 계난예. 사름덜 죽고 한 것도 봐납디가?(그러니까요. 사람들 죽고 한 것도 보셨었습니까?)

102006 #1 그런 건 안 봐보고.(그런 건 안 봤었고.)

102006 #2 난 다 봐신디.(난 다 봤는데.)

102006 @ 어떻 ㄱ튼 동네 안 살았수과?(어떻게 같은 동네 안 살았습니까?)

102006 #2 동네 살아도 말 안 허여.(동네 살아도 말 안 해.)

102006 #1 말을 헐 리가 셔게?(말을 할 리가 있어?)

102007 @ 계난 할아버지영 할머니영 어떻 행 결혼헐디가?(그러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결혼하셨습니까?)

102007 #1 중진허난.(중매하니까.)

102007 @ 누게가 중진 사수과?(누가 중매 셴습니까?)

102007 #1 동네 사름이.(동네 사람이.)

102007 #2 아니, 처부님허고 우리 아부지허고 사둔, 사둔, 동네서 농담이 진담웨여.(아니, 장인어른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사돈, 사돈. 동네에서 농담이 진담 되었어.)

102007 #1 딸 줍서, 사우 줍서 허멍.(딸 주세요, 사위 주세요 하면서.)

102007 @ 계난 결혼허기 전이도 알아낫수과?(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알았었습니까?)

102007 #2 알긴 다 알주.(알긴 다 알지.)

102007 @ 얼굴은 알고?(얼굴은 알고?)

102007 #1 이디서민 노인당 거리만이 살아시난.(여기서면 노인당 거리만큼 살았었으니까.)

102007 @ 집이 가까운 집. 게도 말은 안 해보고?(집이 가까운 집. 그래도 말은 안 해보고?)

102007 #1 말 헐 일이 엇주게.(말 할 일이 없지.)

102007 #2 절대 말 안 허여.(절대 말 안 해.)

102007 #1 그때까지 이 그때도 옛날이라서 경 해변지게 텅기지 안헐 때주. 놀레영 막 부수텅겨도.(그때까지 이 그때도 옛날이라서 그렇게 자유로이 다니지 않을 때지. 놀러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102007 @ 남저덜은 ㄱ치 안 땡겨?(남자들은 같이 안 다녀?)

102007 #1 다른 남저덜은 땡겨도 이 남저는 우리 노는 디 아니 와났어.(다른 남자들은 다녀도 이 남자는 우리 노는 디 안 왔었어.)

102007 @ 이 남자는 우리 노는 디 안 와난?(이 남자는 우리 노는 데 안 왔었어?)

102007 #2 난 안 땡겨난.(난 안 다녔었어.)

102007 @ 무사 할아버지 키도 크고 멋져나실 거 님은디.(왜 할아버지 키도 크고 멋있었을 거 같은데.)

102007 #2 건디 여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가 물러. 여성이 대화 말을 못해.(그런데 여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가 물러. 여성이 대화 말을 못해.)

102007 @ 할머니 막 으망져나실 거 님은디.(할머니는 아주 ‘으망’졌었을 거 같은데.)

102007 #2 에~에~ 똑답아.(에~에~ 똑같아.)

102007 #1 늬 현다 허는 것은 축삭거렁.(남 한다 하는 것은 출삭거리서.)

102007 #2 농담해 봤주. 어디 동네서 말 혼 마디 안 해봐신고 해근에. 그런 말을 나가 해봐.(농담해 봤지. 어디 동네서 말 한 마디 안 해봤었나 해서. 그런 말을 내가 해봤어.)

102007 #1 심심헌디 어디 가젠 허민 이 할망을 문여 첫자 놔. 어디 가는 디라도.(심심헌데 어디 갈래 하면 이 할머니는 먼저 첫말을 해. 어디 가는 데라도.)

102007 @ 할머니가 잘허난게.(할머니가 잘하니까.)

102007 #1 잘허고 못허고 몰라도 그냥 문여 아정 꺾어 아정 가.(잘하고 못하고 몰라도 그냥 먼저 가져서 끌고 가.)

102007 #2 아무튼 간에 이구에서는 이 할망이 같은 여녕에서는 귀도 몹고, 동작도 빠르고.(아무튼 간에 이구에서 이 할머니가 같은 연령에서는 귀도 맑고, 동작도 빠르고.)

102007 #1 질 빠르고 아직한 이 다리도 안 아프고.(제일 빠르고 아직한 이 다리도 안 아프고.)

102007 #2 수술만 안 해시민 더 썽썽헤실 건디.(수술만 안 했으면 더 생생했을 건데.)

102007 #1 정월로 이레 계속 병원 생활만.(정월로 지금까지 계속 병원 생활만.)

102007 #2 게도 약 먹으난 살암서. 약으로 살아. 명 길주.(그래도 약 먹으니까 살고 있어. 약으로 살아. 명 길지.)

102007 #1 이디 영해도 글렌만 허는 거라.(여기 이렇게 해도 가자고만 하는 거야.)

102007 @ 할머니가 잘허난. 성격도 좋으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네.(할머니가 잘하니까. 성격도 좋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네.)

102007 #1 노인 모임 허는디 저 한라체육관 ㄱ쁜 디 강 들을락도 헐 북군에서

일등. 상 타완.(노인 모임 하는데 저 한라체육관 같은 데 가서 달리기도 해서 북군에서 일등. 상 타왔어.)

102007 #2 북군서 일등했어. 상 이서.(북군에서 일등했어. 상 있어.)

102007 @ 달리기 잘하는구나, 할머니가.(달리기 잘하는구나, 할머니가.)

102007 #2 북군서 일등. 그건 자랑할 만하여. 북군서 일등하시니까.(북군에서 일등. 그건 자랑할 만해. 북군서 일등했으니까.)

102007 #1 에에.(에에.)

102008 @ 중진 살 때는 사주 뽕 허는 거주예?(중매 설 때는 사주 봐서 하는 거지요?)

102008 #1 봐야지.(봐야지.)

102008 #2 장인어른이나 우리 아버지는 친한 성 아시 허는 철이라부난 그것이 농담 비슷이 허다가 것이 성취가 됐는다. 중진 볼 정신이 엇엇주.(장인어른이나 우리 아버지는 친한 형아우 하는 사이라서 그것이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그것이 성사가 되었는데. 중매 볼 정신이 없었지.)

102008 @ 사주 같은 거 안 봐?(사주 같은 거 안 봐?)

102008 #1 무사 안 봐?(왜 안 봐?)

102008 #2 보기사 보는 체 했주만은. 구두계약이 댜 거. 동네, 불과 오십메다도 안 댜 디 살아시난.(보기야 보는 체 했지만은. 구두계약이 댜 거. 동네, 불과 오십미터도 안 댜 데 살았으니까.)

102008 #1 구두계약 댜댜 댜니까? 게도 어느 정도 맞이난 댜주. 그만 곱읍서. 구두계약 댜댜 게민 다 사돈 험니까? 대충을 맞추난 댜주. 말허지 맙서게. 하르방 말 곱아부난 더 말이 하.(구두계약 댜다고 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으니까 댜지. 그만 말하세요. 구두계약 댜다고 그러면 다 사돈 험니까? 대충 맞추니까 댜지. 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말해버리니까 더 말이 많아.)

102008 @ 어떻 안험니다. 옛날 말 곱명 재미나지 안험니까?(어떻게 안합니다. 옛날 말 하면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102008 #2 비우가 엇어노니까 남펜신디 공격할 댜 으망진디.(비위가 없어서 남편에게 공격할 댜 ‘으망진’데.)

102008 @ 다른 디도 완전 으망질 거 님아, 할머니 말 곱는 거 보니까예.(다른 데도 완전 ‘으망질’ 거 님아, 할머니 말하는 거 보니까요.)

102008 #2 남안픽 물리진 안허여. 나가 댜 할망 칭찬허는 것이 아니고. 들음박질도 북군서 일등헌 건 사실이고.(남에게 물리지는 님아. 내가 댜 할머니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도 북군서 일등한 건 사실이고.)

102008 @ 할머니 요기 아파신디도 들음박질헤저?(할머니 요기 아팠는데도 달리기할 수 있어?)

102008 #2 이십 년.(이십 년.)

102008 @ 수술허기 전이?(수술하기 전에?)

102008 #2 이십 년 전.(이십 년 전.)

102008 #1 계속 가. 그냥 게이트볼 치러도 일 년에 두 번씩 체육관에 가곡.(계속 가. 그냥 게이트볼 치러도 일 년에 두 번씩 체육관에 가고.)

102008 #2 널도 못해도 글렌 허는 거 봐.(내일도 못해도 가라고 하는 거 봐.)

102008 #1 안 가켄 해도 글렌만 햄시난게. 심어간, 노인당에 심어간.(안 가겠다고 해도 가자고만 하고 있으니까. 잡아갔어, 노인당에 잡아갔어.)

102009 @ 할머니 시집올 때 무신거 행 읍디가?(할머니 시집올 때 뭐 해서 오셨습니까?)

102009 #2 없어.(없어.)

102009 @ 아무것도 안 가정 와십디가? 그래도 이불은 행 와실 거 아니?(아무것도 안 가져서 왔던가요? 그래도 이불은 해서 왔을 거 아니?)

102009 #1 이불 두 개허고, 요 두 개허고, 베개허고. 옛날은 퀘.(이불 두 개하고, 요 두 개하고. 베개하고. 옛날은 퀘.)

102009 @ 아, 퀘도?(아, 퀘도?)

102009 #1 저런 거울.(저런 거울.)

102009 @ 경대?(경대?)

102009 #1 경대, 켜그만헌 거. 저추룩 크지 안헌 거.(경대. 조그마한 거. 저렇게 크지 않은 거.)

102009 @ 할머니 경해도 부제집이네, 퀘도 행 오고.(할머니 그래도 부잣집이네, 퀘도 해서 오고.)

102009 #1 부자명 말명 다 그때는 다.(부자면서 말면서 다 그때는 다.)

102009 #2 우리 장모님이 홀로 살명 정말 좋은 어르신이주.(우리 장모님이 홀로 살면서 정말 좋은 어르신이지.)

102009 @ 할머니가 처녀 때 벌어진 거?(할머니가 처녀 때 벌어서 한 거?)

102009 #2 무시거 벌어?(무엇 벌어?)

102009 #1 어멍 번 것이 뜰 번 거고, 뜰 번 것이 어멍 번 거지, 그때는. 그때는 시집 안 가니까 어제 식으로 탕근허명 다른, 이제 ㄹ추룩 늙의 일도 안허고 혈 일이 엿주, 느나 혈 거 엿이. 그거 헌 사름은 돈을 문직아서. 늙 꾸아도 주고. 돈 모왔다 근에 밧도 사고. 밧이 두 개나 샷주. 조천도 하나 잇고, 함덕도 큰 밧 저 해수욕장 즈꿏디.(어머니가 번 것이 딸 번 것이고, 딸 번 것이 어머니 번 거지, 그때는. 그때는 시집 안 가니까 어제 식으로 탕진하면서 다른, 이제처럼 남의 일도 앓고 할 일이 없지, 너나 할 것 없이. 그거 한 사름은 돈을 만져서. 남 꾸어도 주고. 돈 모왔다가 밧도 사고. 밧을 두 개나 샷지. 조천도 하나 잇고, 함덕도 큰 밧 저 해수욕장 곁에.)

102009 @ 예.(예.)

102009 # 겨난 어르니가 또 우리를 밧을 사준 거라. 시집간 살아가사 또 생각 행. 언니도 밧 사주고 나도 또로 밧 주고.(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우리를 밧을 사준

거야. 시집가서 살아가야 또 생각해서. 언니도 밭 사주고 나도 또 밭 사주고.)

102003 @ 계난 친정 어머니고 향이 어디?(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고 향이 어디?)

102003 #1 조천계, 조천.(조천, 조천.)

102003 @ 아, 친정 어머니가 조천. 응 거난 조천 왔다갔다하고 함덕도 완 살고 영 현 거구나예. 계난 할아버지안틴 뭐 받아수과? 시집올 때.(아, 친정 어머니가 조천. 응 그러니까 조천 왔다갔다하고 함덕도 와서 살고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는 뭐 받았습니까? 시집올 때.)

102009 #1 무시거 받아? 아무것도 받은 거 었지.(뭐 받아? 아무것도 받은 거 없지.)

102009 @ 뭐 해줬주예, 할아버지. 안 해줘수과?(뭐 해주셨지요, 할아버지. 안 해주셨습니까?)

102009 #1 뭐 해줘, 무신거 이서? 아무것도 었주.(뭐 해줘, 무엇 있어? 아무것도 없지.)

102009 @ 가락지도 안 해줍디가?(반지도 안 해주셨습니까?)

102009 #2 가락지.(가락지.)

102009 #1 그런 거 었어, 그땐.(그런 거 없어, 그땐.)

102009 @ 옷은 한 벌 해 줘실 거 아니파?(옷은 한 벌 해 줬을 거 아닙니까?)

102009 #1 응, 옷은 다 죽은시어명이고 예를 들렁 다 난 안 받았지만. 시누이도 밋에라부난 안 받고 죽은시어명, 셋시어명덜은 다 해줘, 그런 거.(응, 옷은 다 작은시어머니고 예를 들어 다 난 안 받았지만. 시누이도 밀이라서 안 받고 작은시어머니, 들췌시어머니들은 다 해줘, 그런 거.)

102009 @ 옷은예.(옷은요.)

102009 #1 옷은 다 해줘.(옷은 다 해줘.)

102009 #2 우린 그런 거 무관심해부난 모르크라.(우린 그런 거 무관심해서 모르겠어.)

102009 @ 무신 천으로 웬 옷 해 줘니까?(무슨 천으로 된 옷 해 줘니까?)

102009 #1 양단에 아래는 유동치메.(양단에 아래는 유동치마.)

102009 @ 아 유동치메, 유동치멘 무슨 색이파?(아, 유동치마, 유동치마는 무슨 색입니까?)

102009 #1 잉꼬 색깔.(잉크 색깔.)

102009 @ 거멍헌 거?(까만 거?)

102009 #1 잉꼬 색깔이니까 저 색, 저 색보다 더 진헌 거.(잉크 색깔이니까 저 색, 저 색보다 더 진한 거.)

102009 @ 진헌 퍼런 색.(진한 파란 색.)

102009 #1 그것에 우이 분홍예. 분홍 양단.(그것에 위에 분홍예. 분홍 양단.)

102009 @ 우엔 양단, 밑에는.(위엔 양단, 밑에는.)

102009 #1 잉꼬 색 치마, 양단, 저.(잉크 색 치마, 양단, 저.)

102009 @ 유동치매.(유동치마.)

102009 #1 유동치매.(유동치마.)

102009 @ 거 혼 불허고 다른 건, 다른 옷은?(그거 한 벌하고 다른 건, 다른 옷은?)

102009 #1 신발허고.(신발하고.)

102009 @ 신발은 어떤 신발? 고무신?(신발은 어떤 신발? 고무신?)

102009 #1 고무신인가 몰르키여. 신발허고 보선허고 이디 아래 바지 이제 7찌 무시거시 아니라. 그냥 옛날 바지, 영.(고무신인가 모르겠다. 신발하고 버선하고 여기 아래 바지 이제같이 무엇이 아니라. 그냥 옛날 바지, 이렇게.)

102009 @ 속바지?(속바지?)

102009 #1 응, 속바지 그런 바지. 또 선사옷 받는 거는 치마저고리만 받고 시어멍 해 주는 거는 속내의까지 다.(응, 속바지 그런 바지. 또 선사 받은 거는 치마저고리만 받고 시어머니 해 주는 거는 속옷까지 다.)

102009 #2 아이고, 옛날 말 해 보민 무시거.(아이고, 옛날 말 해보면 무엇.)

102010 @ 아. 결혼식은 어디서 헨마썬?(아, 결혼식은 어디서 했어요?)

102010 #1 결혼식? 집에서, 집에서, 시집이 오고. 사진 찍으는 것도 었어.(결혼식? 집에서, 집에서, 시집에 와서. 사진 찍는 것도 없어.)

102010 @ 사진 찍으는 것도 었어. 무사 옛날 마당에서 찍고 헨게 만든?(사진 찍는 것도 없어. 왜 옛날 마당에서 찍고 하던테?)

102010 #1 옛날에 그땐 사진이 벨로 었어, 어둡언.(옛날에 그땐 사진이 별로 없어, 어두워서.)

102010 #2 가메도 아니고 그자 걸어갔다.(가마도 아니고 그저 걸어갔다.)

102010 #1 보더부난 가메도 안 타고.(가까워서 가마도 안 타고.)

102010 @ 가메도 안 타고.(가마도 안 타고.)

102010 #2 십 메다 거런데, 십 메다.(십 미터 거런데, 십 미터.)

102010 #1 게도 멘사폰 이서서.(그래도 면사포는 있었어.)

102010 @ 멘사폰 해수과?(면사포는 했습니까?)

102010 #1 멘사포 켜에 그냥 이 집이서 이 집이 온 뿐.(면사포 써서 그냥 이 집에서 이 집에 온 것 뿐.)

102010 #2 걸언, 걸언. 걸음으로 끝. 그것이 기념.(걸어서, 걸어서. 걸음으로 끝. 그것이 기념.)

102010 @ 신부 둘레도?(신부 데리러도?)

102010 #1 둘렌 갓지게. 요쪽에서도 사람이 가고 저쪽에서도 사람이.(데리러는 갔지. 요쪽에서도 사람이 가고 저쪽에서도 사람이.)

102010 @ 우시도 해근에 가긴 헨?(위요도 해서 가긴 했었어?)

102010 #2 형식은 헨. 걸언.(형식은 했어. 걸어서.)

102010 #1 형식이 아니고 건 그때는 옛날은 예를 잘, 예를 막 출린 거라. 이쪽

에서도 우시 가고 들리리 가고 저쪽에서도 또 문 출렁 가고.(형식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는 옛날은 예를 잘, 예를 아주 차린 거야. 이쪽에서도 위요 가고 들리리 가고 저쪽에서도 또 모두 차려서 가고.)

102010 @ 계남 신희 살림은 어디서 해수과?(그러니까 신희 살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기냥, 기냥 군인 가불어서.(그냥, 그냥 군인 가버렸어.)

102011 @ 아, 할머니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시집완. 할아버지네 집이 살안?(아, 할머니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시집와서. 그 할아버지네 집에 살았어?)

102011 #1 바끄레.(바깥채.)

102011 @ 바끄레, 그디가 이딘 아니고?(바깥채, 거기가 여긴 아니고?)

102011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2011 @ 살아신디. 바끄리 사는디.(살았는데. 바깥채 사는데.)

102011 #1 살단 군인 간 완.(살다가 군인 갔다 왔어.)

102011 @ 몇 살에 결혼헐디가?(몇 살에 결혼하셨습니다?)

102011 #1 스물흔 살에.(스물한 살에.)

102011 @ 할머니 스물한 살, 할아버지 스물두 살에 결혼헐신디. 얼마 만이 군대 가불언?(할머니 스물한 살, 할아버지 스물두 살에 결혼했는데. 얼마 만에 군대 가버렸어?)

102011 #1 그냥 얼마 엇영 가불언.(그냥 얼마 있다가 가버렸어.)

102011 #2 육이오 일어나불언.(육이오 일어나버렸어.)

102011 @ 육이오 일어나불언.(육이오 일어나버렸어.)

102011 #1 일 년 전이 군인 가실 걸, 일 년 전이 갖지.(일 년 전에 군대 갔을 걸, 일 년 전에 갖지.)

102011 @ 일 년 돼기 전이?(일 년 되기 전에?)

102011 #2 육이오 일어나부난 방위 소집헐. 말을 못 해.(육이오 일어나버리니까 방위 소집했어. 말을 못 해.)

102011 @ 그믐 할머니 혼자 시집이 살안?(그러면 할머니 혼자 시집에 살았어?)

102011 #1 시집이도 살고 친정에도 갔다오고. 갔다왔다, 갔다왔다 허당 살단 바끄리서 시집 생활, 시집간 살던지가 딱 십일 년 만이 시집 베끗디 나왔어.(시집에도 살고 친정에도 갔다 오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살다가 바깥채에서 시집 생활, 시집가서 산 지 딱 십일 년 만에 시집 밖에 나왔어.)

102011 @ 집 짓언에?(집 지어서?)

102011 #1 집 산. 이제난 집 짓기가 쉽주, 그때는 집 짓기도 어려워. 묵은 집 살단 디덜 요디, 요디덜 집 지신디 그디 산 완 살단. 이젠 또 그때는 요집도 큰 집이라서. 그 집 폴아툼에 이디 산 완 살단 이젠 또 멜란 데껴된 이젠 이 집 짓언.(집 사서. 이제니까 집 짓기가 쉽지, 그때는 집 짓기도 어려워. 낡은 집 살던 데들 요기, 요기들 집 지었는데 거기 사서 와서 살다가. 이젠 또 그때는 요집도 큰 집이었어.)



그 집 팔아두고 여기 사서 와서 살다가 이젠 또 허물어서 던져두고 이젠 이 집 지었어.)

102011 #2 이디 온 디가 큰 오십 년 땀나?(여기 온 지가 큰 오십 년 땀나?)

102011 @ 아.(아.)

102011 #1 스십팔 년.(사십팔 년.)

102011 @ 이 집 지성 온 지가?(이 집 지어서 온 지가?)

102011 #1 아니, 짓기 전이 이 땅에, 이 터에 온 게.(아니, 짓기 전에 이 땅에, 이 터에 온 게.)

102011 @ 이 터에 온 게.(이 터에 온 게.)

102011 #2 게난 아주 아득허주.(그러니까 아주 아득하지.)

102012 #1 이 집이 완에 난 것이 마흔으담.(이 집에 와서 낳은 것이 마흔여덟.)

102012 #2 막내 아덜이 이제 마흔으담인가?(막내 아들이 이제 마흔여덟인가?)

102012 #1 스십팔.(사십팔.)

102012 @ 큰아인 멧 설이파?(큰아이는 몇 살입니까?)

102012 #1 저거 쉼다섯.(저거 쉼다섯.)

102012 @ 딸은?(딸은?)

102012 #2 딸은 예순넷.(딸은 예순넷.)

102012 @ 큰딸이 예순넷.(큰딸이 예순넷.)

102012 #2 셋딸은 예순, 족은딸은 마흔다섯, 막내.(둘째딸은 예순, 막내딸은 마흔다섯, 막내.)

102012 @ 마흔다섯. 막내영 동갑이구나예.(마흔다섯. 막내랑 동갑이군요.)

102012 #1 막둥이가 마흔다섯.(막둥이가 마흔다섯.)

102012 @ 이디 앞이 사는 게 큰아덜?(여기 앞에 사는 게 큰아들?)

102012 #2 응, 큰아덜이 쉼 젊어.(응, 큰아들이 제일 젊어.)

102012 #1 딸 두 개 나뉘 거 난 거.(딸 두 개 낳아두고 그거 낳은 거.)

102012 @ 아, 우에 딸 두 개 나뉘 아덜.(아, 위에 딸 두 개 낳아두고 아들.)

102012 #2 아덜 안 나부난 막 구속 반안, 피눈물 난.(아들 안 낳아버리니까 막 구박 받았어, 피눈물 났어.)

102012 @ 아덜 안 낳텐 뉘렌 곱읍디가?(아들 안 낳았다고 뉘라고 말하던가요?)

102012 #1 딸 두 개 낳단 아들은 세 겔 나난 할망이 믱숨이 노릇했주.(딸 두 개 낳다가 아들은 세 개를 낳으니까 할머니 마음이 노릇했지.)

102012 @ 아, 딸 둘에, 그다음 아들 셋에.(아, 딸 둘에, 그다음 아들 셋에.)

102012 #1 응, 말째도 또 딸.(응, 말째도 또 딸.)

102012 #2 딸 헉나.(딸 하나.)

102012 @ 딸 하나. 아 그믄 딸 셋, 아덜 셋이네예? 딱 좋네예.(딸 하나. 아 그러면 딸 셋, 아들 셋이네요. 딱 좋네요.)

102012 #1 딱 졸 거 무시거게? 아니 허긴 좋아. 일로도 읍서, 이레도 그릅서, 저

래도 그룹서 허난에. 이제 난 경해도 아으덜 두 개만 낫주, 두 개 낳 더 나지 말렌 해도, 최소한도 세 갠 나사주. 난 아기 하영 나는 것만 좋아 베난 두 개 더 낳게 허주. 세 개 이상 낳게 허주. 세 개 이상 나서 이제 손지덜도.(딱 좋을 거 뭐? 아니 하긴 좋아. 이리로도 오세요, 이리로도 갑시다, 저리도 갑시다 하니까. 이제 난 그래도 아이들 두 개만 낳았지, 두 개 낳아서 더 낳지 말라고 해도, 최소한도 세 개는 낳아야지. 나는 아이 많이 낳는 거만 좋아 보이니까 두 개 더 낳게 하지. 세 개 이상 낳게 하지. 세 개 이상 낳아서 이제 손주들도.)

102012 @ 계난 여섯 오누이에 아이덜이 다 세 명씩 난? 세 개 이상씩?(그러니까 여섯 오누이에 아이들이 다 세 명씩 낳았어? 세 개 이상씩?)

102012 #1 바끄레만이 것도 아덜 못 나부난이 딸 세 개에 아덜 하나. 경해부난.(바깥채만 그것도 아들 못 낳아버리니까 딸 세 개에 아들 하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102012 @ 이딘 네 개?(여긴 네 개?)

102012 #2 네 개. 막둥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둥이도 스물두 살 제대허영 와서, 해병대.(네 개. 막둥이 이제 군대 갔다 왔어. 막둥이도 스물두 살 제대해서 왔어, 해병대.)

102012 @ 어제 학생 보연게 만은?(어제 학생 보이던데?)

102012 #1 손지가 네 개. 학생은 죽은아덜 군인 가온 거. 이디 아덜. 학생 봐저 렌 현 건, 군인 간 온 거, 이제 스물 둘(손주가 네 개. 학생은 작은아들 군이 갔다 온 거. 여기 아들. 학생 보이더라고 한 건, 군인 갔다 온 거, 이제 스물둘.)

102012 @ 경 나이든 아이라낫수과? 난 어디 고등학생인가 해신디.(그렇게 나이든 아이였습니까? 난 어디 고등학생인가 했는데.)

102012 #2 오고 나왔어.(오고 나왔어.)

102012 @ 어제 자전거 타근에 오길래 난.(어제 자전거 타서 오길래 나는.)

102012 #2 오고 나완 바로 해병대 지원헐.(오고 나와서 바로 해병대 지원해서.)

102012 #1 해병대 간 완 올 스월덜에 완.(해병대 갔다 와서 올 사월에 왔어.)

102012 @ 큰아덜에 손지, 큰아덜에 아덜.(큰아들에 손자, 큰아들에 아들.)

102012 #2 아덜 막둥이. 막둥이가 스물둘.(아들 막둥이. 막둥이가 스물둘.)

102012 #1 계난 저 아덜이 손지가이, 외손지가 네 개라.(그러니까 저 아들이 손주가, 외손주가 네 개야.)

102012 @ 젊은 할아버지네.(젊은 할아버지네.)

102012 #1 응, 아덜 손지가 세 개. 딸 하나. 손지가 네 개.(응, 아들 손자가 세 개. 딸 하나. 손주가 네 개.)

102012 #2 아덜은 헉나씩베끼 엇어. 다 막둥이. 큰 거, 셋 거 헉 거 엇이.(아들은 하나씩밖에 없어. 다 막둥이. 큰 거, 둘째 거 할 것 없이.)

102012 @ 아덜 나지난 종주마씨게, 딸만 이신 집도 한디.(아들 낳을 수 있으면 좋지요, 딸만 있는 집도 많은데.)

102012 #2 게메, 우리 셋메누리 멧 설에 봐신디 모르크라.(글쎄, 우리 둘째며느리 멧 살에 봤는지 모르겠다.)

102012 #1 마흔셋에 죽은딸이 중학교 일학년 돼사 그 새에 똑 것이 나완. 경헌 것이 이제 으둡 설. 막 켌. 막 착혀여. 이제 흐뎡 이시민 학교 갓당 할망신디 와사. 지네 어멍 아방이 집이 엇어부난.(마흔셋에 작은딸이 중학교 일학년 돼야 그 사이에 꼭 그것이 나왔어. 그런 것이 이제 여덟 살. 아주 컸어. 아주 착해.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갔다가 할머니에게 와야. 자기네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없어버리니까.)

102012 #2 겐디 일학년덜이 한문 시험덜을 다 보니.(그런데 일학년들이 한문 시험들 다 보니.)

102012 @ 이제마씨?(이제요?)

102012 #2 뵙 와. 어뎡헨.(봐서 와. 어떻게 해서.)

102012 #1 시에ㄱ지 강 뵙 와.(제주시예까지 가서 보고 와.)

102012 #2 하나 틀린 거 답텐, 한문. 거 시험 본 거 다 적어 와서라. 지 아방이. 와, 일학년이 이런 걸 다 보나? 참, 뵙놈으 세상 다 나왔저. 게난 그 손지가 허는 말이 하나 틀렷 이점 감점 뵙젠. 구십팔점 나올 겨우텐. 거 어뎡사 헨디 요즘 아이덜 막 뵙라져.(하나 틀린 거 같다고, 한문. 그거 시험 본 거 다 적어 왔더라. 자기 아버지가. 와, 일학년이 이런 걸 다 보나? 참, 뵙놈의 세상 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하는 말이 하나 틀려서 이점 감점 뵙했다고. 구십팔점 나올 거라고. 그거 어떻게야 하는지 요즘 아이들 막 바라져.)

102012 #1 지냥으로 잘 알암신게.(자기대로 잘 알고 있더라.)

102012 @ 할아버지 이수다만은 옛날에 시어머니 시아버진 어뎡 해낫수과?(할아버지 있습니다만 옛날에 시어머니 시아버진 어떻게 했었습니까?)

102013 #2 아덜 못 나부난 구속 받안.(아들 못 낳아 버려서 구박 받았어.)

102013 @ 시집살이 하영 힘들게 헨?(시집살이 많이 힘들게 했어?)

102013 #1 힘들어.(힘들어.)

102013 #2 힘들엇주. 눈물 찰찰 나. 아덜 못 나부난.(힘들엇지. 눈물이 콧물 나. 아들 못 낳아버려서.)

102013 #1 아덜 못 난 것이 아니고 할망이 착혀여 재고. 게난 눈에 맞질 안혀여.(아들 못 낳은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착해, 빠르고. 그러니까 눈에 맞지 않아.)

102013 @ 무사 할머니만만 허민 돼주.(왜 할머니만큼만 하면 되지.)

102013 #1 할망이 곶을 말 아니고 흐뎡 늙으 정신을 가졌어이. 애기도 영 침도 줘주고, 빌어도 주고, 더러 늙으 정신 가져부난이 당신에 맞지 안허믄이.(할머니가 할 말은 아니고 조금 남의 정신을 가졌어. 아기도 이렇게 침도 주고, 빌어도 주고, 더러 남의 정신 가져 버리니까 당신에 맞지 않으면.)

102013 @ 할머니가 많이 힘들엇겔구나.(할머니가 많이 힘들엇겔구나.)

102013 #1 그것을 맞춥지 못헨 나가 힘들어.(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

102013 @ 십 년을 ㄴ치 살안? 시어므니영.(십년을 같이 살았어? 시어머니랑.)

102013 #1 십일 년이주.(십일 년이지.)

102013 @ 할아버지가 게도 알아줍수다예.(할아버지가 그래도 알아주시네요.)

102013 #2 알고말고. 아덜 못 난 나 각시도 헤 얻어낫저.(알고말고. 아들 못 낳아서 나 새시도 해서 얻었었어.)

102013 #1 힘드난이 아기를 할망이 각실 얻겨주켄, 각실 얻전. 어떻 뎡기당도 그 메뉴린 눈에 들 리가 이서? 그냥 나가 동네라부난 할망 이젠 나신디레만 오는 거라. 그 메뉴리 놔둑도. 내불렌 아멩도 허고대고 살지 안 행 이제 가불 거여, 가불 거여 허멍 서너 번 집이. 그냥 가불언.(힘드니까 아기를 할머니가 색시를 얻어 주겠다고, 색시를 얻었어. 어떻게 다니다가도 그 며느리는 눈에 들 리가 있어? 그냥 내가 동네여서 할머니 이젠 나에게만 오는 거야. 그 며느리 놔두고. 내버리라고 아무 리 하고 대고 살지 앓고 이제 가버릴 거야, 가버릴 거야 하면서 서너 번 집에. 그냥 가버렸어.)

102014 @ 여섯 오누인 다 시집 장게갓주예?(여섯 오누인 다 시집 장가갔지요?)

102014 #1 이 다 이 집이서 풀안. 다 이 집이서. 일레, 옛새씩 잔치허연.(이 다 이 집에서 팔았어. 다 이 집에서. 이레, 옛새씩 잔치해서.)

102014 @ 위로 딸 둘은 다 제주시 살암수과?(위로 딸 둘은 다 제주시 살고 있습니까?)

102014 #2 아니 김녕 살고, 도련 살고.(아니 김녕 살고, 도련 살고.)

102014 @ 아, 김녕 하나 살고, 도련 한 명 살고.(아, 김녕 하나 살고, 도련 한 명 살고.)

102014 #1 시에 하나.(제주시에 하나.)

102014 #1 막내딸은 시에.(막내딸은 제주시에.)

102014 @ 셋아덜은?(둘째아들은?)

102014 #2 셋아덜은 삼구.(둘째아들은 삼구.)

102014 #1 죽은아덜도 여기 살고.(셋째아들도 여기 살고.)

102014 @ 죽은아덜도 함덕 살고?(셋째아들도 함덕 살고?)

102014 #1 사구에 살암서.(사구에 살고 있어.)

102014 @ 그른 아덜 셋이 다 함덕 살암구나.(그러면 아들 셋이 다 함덕 살고 있구나.)

102014 #1 집을 상 가젠 헛자 함덕을 떠나구정을 안허텐 허는 거라.(집을 사서 가려고 해도 함덕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야.)

102014 #2 우리 셋메누리가 삼구에서만 살아노난 그 동네 떠나기가 싫텐. 시에 도 강 빌라 봐 아정 와도 ㅁ옴에 안 들텐. 공무원 생활 혼 이삼십 허는디 지금. 함덕고 나왕 지금 마흔아홉인가, 여덟인가.(우리 둘째 며느리가 삼구에서만 살아놓으니까 그 동네 떠나기가 싫다고. 제주시에 가서 빌라 보고 와도 마음에 안 든다고. 공무원 생활 한 이십삼 년 하는데 지금. 함덕고 나와서 지금 마흔아홉인가, 여덟인

가.)

102014 @ 아덜이영 딸이영 자랑해 봅서.(아들이랑 딸이랑 자랑해 보세요.)

102014 #2 자랑은. 다 잘해.(자랑은. 다 잘해.)

102015 #1 착허여. 동세가 세 개랏자이 눈도 힐끈 안 허여.(착해. 동서가 세 개라도 눈도 힐끔 안 해.)

102015 #2 아이, 좋아.(아니, 좋아.)

102015 @ 메뉴리덜이 좋구나, 착허고예.(며느리들이 좋구나, 착하고요.)

102015 #1 그럴 듯해 보여. 나 막 그냥은 참, 입으로 아니, 내울 말로 곤구정해도 나 경은 안 곤는다. 아이고 저렇게도 사이를 조카? 세 개가 코짱이. 어제도 와시난에 죽은동세 와시난 시아주방 와시난 이디서 밥행 먹게 허난 이젠 그 가분 때 바끄레 간덜 밥행 먹언 간게. 겐디 셋메누리는 지가 직장이 바쁘니까 경 못 해. 오민 이디 왕 밥은 먹어도 지가 왕 밥행 먹겐은 못 해, 바빠.(그럴 듯해 보여. 나 막 그냥은 참, 입으로 아니, 내보낼 말로 말하고 싶어도 나 그렇게는 안 말하는데. 아이고 저렇게도 사이가 좋을까? 세 개가 나란히. 어제도 왔길래 작은동서 왔으니까 시아주버니 왔으니까 여기서 밥해서 먹자고 하니까 이젠 그 가버린 때 바깥채 가서들 밥해서 먹고 가더라.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가 직장이 바쁘니까 그렇게 못 해. 오면 여기 와서는 밥은 먹어도 자기가 와서 밥해서 먹자고는 못 해, 바빠.)

102015 @ 도청 다닌텐 헨 메뉴리?(도청 다닌다고 한 며느리?)

102015 #2 시청이나 도청 근무가 경 박해.(시청이나 도청 근무가 그렇게 박해.)

102015 #1 막 박헌 거 닐아.(아주 박한 거 같아.)

102015 #2 함덕종고 나완 들어갓젠 헨 게 이거 멧 십 년이라.(함덕종고 나와서 들어갔다고 한 게 이거 멧 십 년이야.)

102012 @ 아덜덜은 무신거 행 먹영 살암수과? 미깡?(아들들은 무엇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까? 굴?)

102012 #1 미깡도 허고.(굴도 하고.)

102012 #2 우리 집이 큰아덜도 대우중공업에 잇단 십 년 허단 이디 제주도 완마도로스 생활도 허고 벨 지랄 다 했어.(우리 집 큰아들도 대우중공업에 있다가 십 년 하다가 여기 제주도 와서 마도로스 생활도 하고 벨 지랄 다 했어.)

102012 @ 배 타났구나예?(배 탔었군요?)

102012 #2 대우중공업에 십 년 해도 볼 것이 없어.(대우중공업에 십 년 해도 볼 것이 없어.)

102012 #1 육지 살당 할머니 돌아가셨저.(육지 살다가 할머니 돌아가셨어.)

102012 #2 자꾸 와.(자꾸 와.)

102012 #1 동생 풀암저.(동생 결혼한다.)

102012 @ 큰아덜이라부난.(큰아들이라서.)

102012 #1 아니 오민 그디 강 벌영 산다 첫자 갓다왔다 일 년에 제사 먹으레 오지, 소상 먹으레 오지. 그때는 뭐 대소상을 삼 년을 다 헐 때난 왔다갓다 왔다갓

다 허민 남아볼 거 었고. 오민 이딘 육지서 친구덜을 막 큰 멀리 댜고, 그냥 무시거  
혈 거난 제주 들어와 분덴 허영 제주 들어완.(안 오면 거기 가서 벌어서 산다고 해  
도 갔다왔다 일 년에 제사 먹으러 오지, 소상 먹으러 오지. 그때는 뭐 대소상을 삼  
년 다 할 때니까 갔다왔다 갔다왔다 하면 남을 게 없고. 오면 여긴 육지서 친구들  
을 막 큰 멀리 댜고, 그냥 무엇 할 거니까 제주 들어와 버린다고 해서 제주 들어왔  
어.)

102012 @ 언제 들어와수과?(언제 들어왔습니까?)

102012 #2 오랫동안. 하튼 대우서 십 년 켜 들어와 불언. 대우 중공업에.(오랫지.  
하여튼 대우에서 십 년 해서 들어와 버렸어. 대우 중공업에.)

102012 #1 장개가고 간 혼 이 년 살단 그냥 와 불었주. 경 완에 이 나이 댜고.  
이젠 큰 덤프트럭 것덜 몰암주. 죽은것도 그냥 그런 차 몰민 그자 지네 삶은 막 켜  
안허여. 아이덜이 스지<sup>52)</sup>해 노난이 그런 차에도 무신 구진 일이 었어.(장개가고 가  
서 한 이 년 살다가 그냥 와 버렸지. 그렇게 와서 이 나이 되고. 이젠 큰 덤프트럭  
그것들 몰고 있어. 작은아들도 그냥 그런 차 몰면 그저 자기네 삶은 아주 편안해.  
아이들이 차분하니까 그런 차에도 무슨 곳은 일이 없어.)

102012 @ 아까 무신거 스지해 부난? 소지가 뭐?(아까 무엇 ‘스지’해 버리니까?  
‘스지’가 뭐?)

102012 #1 아이덜이 얌전허게 므음이 잔잔허게 해부난 그런 큰 차를 몰아도, 집  
만이 헛 차를 몰아도 구진 일덜이 었어.(아이들이 얌전하게 마음이 잔잔하게 해버리  
니까 그런 큰 차를 몰아도, 집만큼 한 차를 몰아도 곳은 일들이 없어.)

102012 @ 성격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영 지켜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안  
에 켜안허게 해주니까, 아이덜이.(성격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지켜주니  
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아이들.)

102012 #2 경헌텐 댜여?(그런다고 댜?)

102012 @ 아이고, 아이덜은 다 어머니, 아버지 보멍 자라는 거 아니와?(아이고  
아이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102012 #2 주의 주젠은 허주. 다른 거에 욕심 부렸당은 사고 난다. 몸조심허라.  
(주의 주려고는 하지. 다른 거에 욕심 부렸다가는 사고 난다. 몸조심해라.)

102012 @ 예, 어렸을 때부터, 딱 배웁 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머니 아버지  
허는 거 보멍 크는 거주게.(예, 어렸을 때부터, 딱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 보면서 크는 거지.)

102012 #1 우리가 사주질 안해도 지네대로 다 집을 허멍 살아.(우리가 사주지  
않아도 자기대로 다 집을 하면서 살아.)

102012 @ 요즘에.(요즘에.)

102012 #2 셋아덜만 아직 집을.(둘째 아들만 아직 집을.)

102012 #1 아, 그런 차는 나감만 허민게 돈 칠팔십씩은 벌영 나오난.(아, 그런

---

52) ‘스지’는 마음이 잔잔하고 차분하다는 의미이다.

차는 나가기만 하면 돈 칠팔십씩은 벌어서 나오니까.)

102012 @ 요즘엔에 아덜 장개보내젠 허민 집도 사줘야 웬텐 허고예.(요즘엔 아  
들 장개보내려고 하면 집도 사줘야 된다고 하고요.)

102012 #1 그렇지. 집도 사주지 못 허민 전세집이라도 제라허게 빌어줘야지.(그  
렇지. 집도 사주지 못 하면 전세집이라도 제대로 빌려 줘야지.)

102012 #2 겐디 할 말은 아닌디 우리 셋아덜 경남대 경영학과 나와도 회사허민  
사장 죽어 불어, 부도나.(그런데 할 말은 아닌데 우리 둘째 아들 경남대 경영학과  
나와도 회사하면 사장 죽어 버려, 부도 나.)

102012 #1 운 안 테와부난. 수석으로만 웬 나와도 안 돼.(운 안 타고 나버리니  
까. 수석으로만 되어서 나와도 안 돼.)

102012 #2 또 학원 출령 십 년 했어. 경 혜왓자 아이덜 들어온 거, 그때부턴 농  
사 막. 만 평 처남 매부 막 크게 해.(또 학원 차려서 십 년 했어. 그렇게 해봐도 아  
이들 들어온 거, 그때부터는 농사 막. 만 평 처남 매부 아주 크게 해.)

102012 #1 고사리 사천 평 싱그고.(고사리 사천 평 심고.)

102012 @ 고사리? 고사리 싱급니까, 이제?(고사리? 고사리 심습니까, 이제?)

102012 #2 고사리 우리 한 삼천 오백 평.(고사리 우리 한 삼천 오백 평.)

102012 @ 고사린 드르에 강 캐지 안허영 밋디서 자라는구나예.(고사리 들에 가  
서 캐지 않고 밭에서 자라는군요.)

102012 #1 미깡 밧을 돈 안 주니까 혼 십 년 전에 막 매어 불엇거든. 돈 그때  
이십만 원인가, 이천만 원 보주 받안 폐원 해뒀, 보리 갈아봐도 벨로 이익이 었어  
이. 허난 이제 아덜이 어머니 고사리 싱급서, 고사리. 나 몰르켜 난 용시도 안허고  
나 몰르켜 헨 내부난.(굴 밧을 돈 안 주니까 한 십 년 전에 막 매어 버렸거든. 돈  
그때 이십만 원인가, 이천만 원 보조 받아서 폐원 해두고, 보리 갈아봐도 벨로 이익  
이 없어. 그러니까 이젠 아들이 어머니 고사리 심으세요, 고사리. 나 모르겠다 난  
농사도 안 하고 나 모르겠다 해서 내버리니까.)

102012 @ 예.(예.)

102012 #1 고사리 해단 싱그난 고사리도 잡용시 현 것보단 낫아이. 경행 그거  
싱그고 이젠 또 미깡 밧 허고 셋거는, 다른 것덜은 다 직장 베틀레 텡기당이라도  
베틀레 가는 거고. 건 과수원에 고사리에 그냥 해가는 거라. 이런 용시 닥지 안 행  
그자 검질도 안 메고.(고사리 해다가 심으니까 고사리도 잡농사한 것 보다 나아. 그  
래서 그거 심고 이젠 또 굴밭하고 둘째는, 다른 것들은 다 직장 벌러 다니다가라도  
벌러 가는 거고. 그건 과수원에 고사리에 그냥 해가는 거야. 이런 농사 같지 않아서  
그저 김도 안 매고.)

102012 #2 아이덜은 암전은 허여. 이것도 허고 저것도 허여 주는 성의는 고맙  
고. 마음대로 안 돼어. 관록도 안 돼. 배왓다고 돼는 건 아니. 절대 배왓다고, 대학  
나왔다고 무신, 절대. 우리 셋아덜 두 번 당헤 보니까 사장 죽어, 부도 나부난. 사름  
헐 짓 아니.(아이들은 암전은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주는 성의는 고맙고. 마음

대로 안 돼. 관록도 안 돼. 배웠다고 되는 건 아니. 절대 배웠다고, 대학 나왔다고 무슨, 절대. 우리 둘째 아들 두 번 당해 보니까 사장 죽어, 부도 나버리니까. 사람 할 짓이 아니.)

102012 @ 그게 사름 테우는 게예.(그게 사람 타고 태어나는 거요.)

102012 #1 테와야 허주. 배웠덴. 경영학과 수석으로 나와도 거기선 막 심젠 해도 에에, 아무것도 안 돼서. 에 배설은 독허고.(타고 태어나야지. 배웠다고. 경영학과 수석으로 나와도 거기선 막 잡으려고 해도 에에, 아무것도 안 됐어. 에 배설은 독하고.)

102012 @ 누게 답앙 독허파? 할아버지 답안?(누구 답아서 독합니까? 할아버지 답았어?)

102012 #2 성격이 불게.(성격이 불.)

102012 @ 할아버지 성격 흥뽀 답았구나.(할아버지 성격 조금 답았구나.)

102012 #2 비슷비슷은 허주. 우리도 영행 말은 순해도 골난 땐 급해, 급해져. 나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해. 와닥탁할 땐 뭐 어떻 앞뒤가 이서?(비슷비슷은 하지.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말은 순해도 골났을 땐 급해, 급해져. 나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해. 와당탕할 땐 뭐 어떻게 앞뒤가 있어?)

### 3. 밭일

103001 @ 옛날에 용시해난 얘기 흥뽀 곱아줍서예.(옛날에 농사했던 얘기 조금 말해주세요.)

103001 #2 보리농사, 조농사.(보리농사, 조농사.)

####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는 어떻게 지으는 거파? 보리 농사 준비허젠 허민.(보리농사는 어떻게 해서 짓는 겁니까?)

103002 #1 걸름 막 빠령, 옛날에 통시 서낫어이. 돼야지 질루는 디 그디 것덜 잇당 막 물리왕 이젠 저런 쉼막이엔 현 디 창고에 강 데멧당 이젠 시월, 구월 나가면은 구르마에 시경 몬 밧디 강 앓당 놔. 농앗당 이제 몬 밧을 그걸 뿌려. 뿌리민 고랑을 영 쳐. 보리 갈 고랑을. 쳐가민 이젠 그레 보리씨를 막 빼는 거라. 빼어노민 이제 무신거 꼬실퀴엔 현 거 이서이.(거름 막 뿌려서, 옛날에 돼지우리 있었었어. 돼지 기르는 데 거기 그것들 있다가 막 말려서 이젠 저런 외양간이라고 한 데 창고에 가서 쌓았다가 이젠 시월, 구월 나가면 달구지에 실어서 모두 밧에 가서 가져다 놔. 농았다가 이제 모두 밧을 그걸 뿌려. 뿌리면 고랑을 이렇게 쳐. 보리 갈 고랑을. 쳐가면 이젠 거기에 보리씨를 막 뿌리는 거야. 뿌려 놓으면 이제 무엇 꿈게라고 한 거 있어.)



103002 @ 예.(예.)

103002 #1 그걸로 지렁지렁 콧영 보리 더경 내불민 이제 이젠 검질 자게 나, 그냥 이젠 정월만 나가민 밧디 검질 메레 텅기는 거라. 검질 메사 보리가 되는 따문. 경행 놔두민 오월 나가민 보리 비는 거라. 그 비어나민 이제 또 혼 보름 놀다가 이젠 또 조 불리, 밧 갈앗당은에 조는 검질 안 해도 되고.(그것으로 ‘지렁지렁’ 끝어서 보리 덮어서 내버리면 이제 이젠 김 빨리 나, 그냥 이젠 정월만 나가면 밧에 김매러 다니는 거야. 김매야 보리가 되는 때문. 그렇게 놓아두면 오월 나가면 보리 베는 거야. 그 베어나면 이제 또 한 보름 놀다가 이젠 또 조 밟아, 밧 갈았다가 조는 김 안 해도 되고.)

103002 @ 보리부터 차근차근예. 보리 뿌리젠 허민 씨가 이서알 거 아니파예?  
(보리부터 차근차근요. 보리 뿌리려고 하면 씨가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103002 #1 이녁냥으로 다 허영 놔둬. 열연이.(자기대로 다 놔둬. 열려서.)

103002 @ 어떻 보관허여?(어떻게 보관해?)

103002 #1 아니, 아무디라도 놔둬도 돼여.(아니, 아무 데라도 놔둬도 돼.)

103002 @ 싹 나불지 안해?(싹 나버리지 않아?)

103002 #1 아니, 안 나. 몇 년이 가도 싹은 안 나.(아니, 안 나. 몇 년이 가도 싹은 안 나.)

103003 @ 걸름은 돛걸름?(거름은 돼지거름?)

103002 #1 돛걸름, 소걸름. 다 그런 거 이서. 비료도 흙썩 밋비료라고 행 비료도 흙썩 주고.(돼지거름, 쇠두엄. 다 그런 거 있어. 비료도 조금 밀비료라고 해서 비료도 조금 주고.)

103005 @ 비료 나기 전이예, 보린 몇 월에 뿌리는 거파?(비료 나기 전에요, 보린 몇 월에 뿌리는 겁니까?)

103005 #1 시월들, 구월들에.(시월, 구월에.)

103005 @ 음력 구월, 시월?(음력 구월, 시월?)

103005 #1 응, 파중이.(응, 파중이.)

103005 @ 게문 아까 밧을 갈지 않고 먼저 걸름을 뿌려?(그러면 아까 밧을 갈지 않고 먼저 거름을 뿌려?)

103005 #1 아니 갈아놓민 요만씩 갈아놓민 이 고랑더레 걸름을.(아니 갈아놓으면 요만큼씩 갈아놓으면 이 고랑에 거름을.)

103005 #2 잠대로?(쟁기로?)

103005 #1 잠대로.(쟁기로.)

103005 @ 보리씨는?(보리씨는?)

103005 #1 보리씨 거 걸름 다 쥐놓민 그냥 텅기멍 잘락잘락 빼어불면은 이런 끄실퀴로 영영 잣다왔다 콧어불민 씨가 고랑더레 다 기어들어.(보리씨 그거 거름 다 쥐놓으면 그냥 다니면서 ‘잘락잘락’ 뿌려버리면 이런 꿈계로 이렇게 이렇게 잣다왔다 다 끌어버리면 씨가 고랑으로 다 기어들어가.)

103005 @ 아, 계난 고랑 팡 그디 걸름을 먼저 뿌려. 그다음에 씨를 아무케나 뿌령 꼬슬퀴로 영 끄스는 거.(아, 그러니까 고랑 파사 거기 거름을 먼저 뿌려. 그다음에 씨를 아무렇게나 뿌려서 콩게로 이렇게 끄는 거.)

103005 #1 그 씨가 다 고랑더레 들어가. 경허민 오월 스월 나가민 그 보리가 익어.(그 씨가 다 고랑에 들어가. 그러면 오월, 사월 나가면 그 보리가 익어.)

103005 @ 보리씨는 아무나 뿌려도 돼여?(보리씨는 아무나 뿌려도 돼?)

103005 #1 아무나 뿌령도 안 돼주. 우린 보리씨를 못 뿌려봤어.(아무나 뿌려도 안 되지. 우린 보리씨를 못 뿌려봤어.)

103005 @ 계민 누가 뿌려?(그러면 누가 뿌려?)

103005 #1 하르방<sup>53)</sup>. 골루루 뿌려줘사 그 씨가 골루루 가지. 정 안 허민은이 서툰 사람 빠민 가는 딴 찢락찢락 강 막 좇이고, 안 될 거난 그자 것도 빠는 사람이. (할아버지. 골고루 뿌려줘야 그 씨가 골고루 가지. 그렇게 안 하면은 서툰 사람 뿌리면 가는 데는 ‘찢락찢락’ 가서 아주 좇고, 안 될 거니까 그저 그것도 뿌리는 사람이.)

103005 @ 잘 빠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잘 빠어났구나예?(잘 뿌리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잘 뿌렸었군요?)

103005 #1 여자도 빠어도 우린 믿음성 이서부난 빠어보진 안허고.(여자도 뿌려도 우린 믿음성이 있어버리니까 뿌려보진 않고.)

103004 @ 먼저 밭 갈앙 허는 거주예, 밭도 할아버지가 다 갈고?(먼저 밭 갈아서 하는 거군요, 할아버지가 다 갈고?)

103004 #1 소 이시니까. 농사허젠 손 질루는 거.(소 있으니까. 농사하려고 소는 기르는 거.)

103006 @ 보리 종류가 여러 개 잇수과?(보리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3006 #2 것보리, 솔오리.(겉보리, 쌀보리.)

103006 #1 것보리, 솔오리 헛자 우리 헛 때는 것보리를 잘 안 갈아. 요 중간에 사 맥주맥이여, 솔오리여. 맥주맥을 줄로 갈암주. 이제도 솔오리도 하영 가는 딴 엇어. 맥주로 하영 갈지.(겉보리, 쌀보리 해도 우리 할 때는 겉보리를 잘 안 갈아. 요 중간에야 맥주보리다, 쌀보리다. 맥주보리를 주로 갈고 있지. 이제는 쌀보리도 많이 가는 텐 없어. 맥주로 많이 갈지.)

103006 @ 이젠 맥주맥을 하영 갈아예, 옛날에는?(이젠 맥주보리를 많이 갈아요, 옛날에는?)

103006 #1 옛날에는 솔오리가 많이. 옛날에는이 그 껍데기가 두꺼우니까 거 까 끄는 것이 힘들지게. 솔오리는 물고랑 잇지, 물고랑은 물을 걸. 영 멧돌로 빙빙 돌아가는.(옛날에는 쌀보리가 많이. 옛날에는 그 껍데기가 두꺼우니까 그거 꺾는 것이 힘들지. 쌀보리는 연자매 있지, 연자매는 모를 걸. 이렇게 멧돌로 빙빙 돌아가는.)

103006 @ 연자매, 물고랑.(연자매, 연자매.)

53) ‘하르방’은 ‘할아버지’뜻이나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다.

103006 #1 응, 물고랑. 그런 디 강 골앗다근에 물류멍 허는 디 맥주맥은 껍데기 두터워부난 뱃기는 힘이, 힘들어 부난 건 잘 안 갈지. 술오리로만 주묵 갈아. 이 지금은 받아 가 불고 농협으로 받아 불고 혜부난 맥주맥을 하영 갈안 이런 거를 족게 갈안 여점 흐끔 먹젠 허는 것만 갈지.(응, 연자매. 그런 데 가서 갈았다가 말리면서 하는데 맥주보리는 껍데기 두꺼워버리니까 벗기는 힘이, 힘들어 버리니까 그건 잘 안 갈지. 쌀보리로만 주로 갈아. 이 지금은 받아 가 버리고 농협으로 받아 버리고 해 버리니까 맥주보리를 많이 갈아서 이런 거를 적게 갈아서 임시 조금 먹으려고 하는 것만 갈지.)

103006 @ 옛날에는 술오리를 하영예?(옛날에는 쌀보리를 많이요?)

103006 #1 그걸 주묵 갈았지. 이제는 개역이나 행 먹젠 그것들 햅주 경 안허민 안허주.(그걸 주로 갈았지. 이제는 미숫가루나 해서 먹으려고 그것들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하지.)

103007 @ 보리밭은 블라줘야 뻘니까?(보리밭은 밍아줘야 뻘니까?)

103007 #1 아니, 뜬 땅에이. 흐끔 좋은 땅에 간 딴 허고 흐끔 뜬 질에 가면은 봄 나면 눈 오라나민 땅이 북삭하게 들러지지, 켜영. 그러기 때문에 고랑으로 그냥 영영영영 블라줘, 사름으로라도. 또 경 안허민 경운기론가 구루마로라도 블라줘. 경 허민 땅이 든든허민 보릿밭<sup>54)</sup>이 든든허여.(아니, 뜬 땅에. 조금 좋은 땅에 간 데는 하고 조금 뜬 질에 가면은 봄 나면 눈 와가면 땅이 ‘북삭하게’ 들리지, 꺾어서. 그러기 때문에 고랑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밍아줘, 사름으로라도. 또 그렇게 안 하면 경운기로나 달구지로라도 밍아줘. 그렇게 하면 땅이 단단하면 ‘보릿밭’이 단단해.)

103008 @ 보리밭에 검질매는 건 뎡 번이나 뎡니까?(보리밭 김매는 건 뎡 번이나 뎡니까?)

103008 #1 두불. 초불, 두불.(두벌. 초벌, 두벌.)

103008 @ 정월에 초불 메고.(정월에 초불 매고.)

103008 #1 응, 이월 나가민 메고, 또 도라앗앙 또 그거 하영 갈민 또 뎡기당 또 뎡덜 빌영 강 메고 이 집이 거 메민 수눌영도 메주곡 행 허멍.(응, 이월 나가면 매고, 또 돌아왔아서 또 그거 많이 갈면 또 다니다가 또 뎡들 빌어서 가서 매고 이 집의 거 매면 품앗이해서도 매주고 해서 하면서.)

103008 @ 그때 막 추울 때 아니예?(그때 아주 추울 때 아니예요?)

103008 #1 추워.(추워.)

103008 @ 보리밭 검질 메젠 허민예.(보리밭 김매려고 하면요.)

103008 #1 추워, 추워.(추어, 추워.)

103008 @ 옛날에 검질 뎡 뎡 장갑도 었고.(옛날에 김뎡 뎡 장갑도 없고.)

103008 #1 아이고, 장갑이 어디 서?(아이고, 장갑이 어디 있어?)

54) ‘보릿밭’은 보리를 의인화하여 보리의 뿌리가 밍처럼 땅을 딛고 서있다고 생각하여 뿌리를 밍로 쓴 제주어이다.

103008 @ 막 추운디 어떻 험디가?(아주 추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103008 #1 장갑이 서? 그냥 손 실루와도 허멍 어떻 이런 구석에 가민, 불괵 낵 탱기당 라이타도 아니, 불괵 낵 탱기당 검질 흐끔 행 불살랑 추왕. 아침인 춥고 낮 돼가민 안 춥주. 이디 허민 막 그냥 보리밭디 가젠 막 목수건, 헌 옷덜 행 몬 야게 감아아지고 행 가주.(장갑이 있니? 그냥 손 시려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구석에 가면, 성냥 놓아서 다니다가 라이터도 아니, 성냥 놓아서 다이다가 검불 조금 해서 불 살라서 쬘어서. 아침엔 춥고 낮 되어가면 안 춥지. 여기 하면 막 그냥 보리밭에 가려고 막 목도리, 헌 옷들 해서 모두 목에 감아 가지고 해서 가지.)

103008 @ 추우난예?(추우니까요.)

103008 #1 이제는 좋은 기상 나부난.(이제는 좋은 세상 나버리니까.)

103008 @ 보리밭던 겨울에 검질 무슨 종류 검질이 하영 납니까?(보리밭엔 겨울엔 김 무슨 종류 김이 많이 납니까?)

103008 #1 소시락풀, 콩풀 경 그것이 대목 나.(‘소시락풀’, 개불알풀 그렇게 그것이 많이 나.)

103008 @ 그제 보리밭디는? (그제 보리밭에는?)

103008 #1 응.(으으.)

103010 @ 그른 보리가 다 자란예, 오월 돼가민 익읍니께, 익어가민 어떻 험니까?(그러면 보리가 다 자랐어요, 오월 되어 가면 익잖아요, 익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103010 #1 호미로.(호미로.)

103010 @ 호미로 강 비어?(호미로 가서 베어?)

103010 #1 비어.(베어.)

103010 @ 비영 어떻?(베어서 어떻게?)

103010 #1 영 다 모아. 몬허게 이디 저까지 비어가는양 조름에 똥ㄴ냥이 달라두서 비명 놔. 요만이 심영 영 영 비영 요디 놔똥 영 영.(이렇게 다 모아. 모두 여기 저까지 베어가는 대로 뒤에 꿈무늬에 따라서 베면서 놔. 이만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베어서 요기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103010 @ 경해근예?(그렇게 해서?)

103010 #1 경행 흔 사흘 물리민 무꺼가. 무경 이젠 모두왔당 그디 놀어.(그렇게 해서 한 사흘 말리면 묶어 가. 묶어서 이젠 모았다가 거기 가려.)

103010 @ 밧디?(밭에?)

103010 #1 응, 놀엇당은엔에 정운기로나.(응, 가렸다가 정운기로나.)

103010 @ 정운기 나기 전이.(정운기 나오기 전에.)

103010 #1 구루마로나 해영, 구루마도 하나 두 개만도 안 행 서너 개 빌영 그디 것덜 문딱 집이 시꺼다 놔. 집이 시꺼왕도 또 몬 놀어. 놀민 이제 또 남저놉이라도 어디 그뻘 서구포 사름덜 와, 빌영. 홀테, 홀테로 몬 우리 마당에 이만이 보리 홀타 노민 이젠 기계 빌어당 정운기 빌어당 보리 올리는 걸로 집이서 막 두들어.(달구지

로나 해서, 달구지도 하나 두 개만도 안 해서 서너 개 빌어서 거기 것들 모두 집에 실어다 놔. 집에 실어 와서도 또 모두 가려. 가리면 이제 또 남자 놈이라도 어디 그 댜 서귀포 사람들 와, 빌어서. 훑이, 훑이로 모두 우리 마당에 이만큼 보리 훑아 놓으면 이젠 기계 빌어다가 경운기 빌어다가 보리 올리는 걸로 집에서 막 두들겨.)

103011 @ 기계 나기 전인 어떻 해수과?(기계 나기 전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11 #1 두들어. 도끼로.(두드려. 도리깨로.)

103011 @ 밑에 무신거 낄앙?(밑에 무엇 깔아서?)

103011 #1 아무것도 아니. 마당이 이추룩 마당이 막 도끼질 해나민 이추룩 고와. 게민 마당일 허젠 허민 이디 검질을 낄앙 막 누루떠뒤. 경헛다근엥에 물리와근에 이제 도끼질 허민 더 좋아. 마당이 꼭 이추룩 허여. 게민 요런 디 민작허게. 튀어나카부텐이 덕석덜이고 무시거고 이 바우덜에 빙허게 돌아. 이 보리덜 어디레 튀영 돌아나카부텐 영 영 두드려 가민 튀어나카부텐. 낄아근엥이 헛당 장만행 거 걸으멍 이제 또 맥, 맥이 이서이. 맥에 이제 거 다 담앙 낄당 어느날 브름 존 날은 또 불려. 아이고, 징그럽다.(아무것도 아니. 마당이 이렇게 마당이 막 도리깨질 하고 나면 이렇게 고와. 그러면 마당일 하려고 하면 여기 검불을 깔아서 막 눌러뒤. 그랬다가 말려서 이제 도리깨질 하면 더 좋아. 마당이 꼭 이렇게 해. 그러면 요런 데 밋밋하게. 툇까봐 멍석들이고 무엇이고 이 가장자리들에 ‘빙하게’ 둘러. 이 보리들 어디로 튀어 달아날까봐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가면 툇까봐. 깔아서 했다가 장만해서 거 걸으면서 이제 또 먹서리, 먹서리가 있어. 먹서리에 이제 그거 다 담아서 놓았다가 어느 날 바람 좋은 날은 또 불려. 아이고, 징그럽다.)

103012 @ 불리는 건 어떻합니까?(불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103012 #1 줍팍<sup>55)</sup> 해근에 영 불리곡. 불린 것도 저디 열멩이도 선게, 열멩이로 영 영 치멍 우이 건 데껴불고.(‘줍팍’ 해서 이렇게 불리고. 불린 것도 저기 어레미도 있던데, 어레미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위의 건 던져버리고.)

103010 @ 아까 보리 비어근에 영 혼 못, 두 못 무끄주예, 건 무신걸로 무릅니까?(아까 보리 베어서 이렇게 한 못, 두 못 묶지요, 그건 무엇을 묶습니까?)

103010 #1 그 보리, 이것이 보리면은 영 영 심영.(그 보리, 이것이 보리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103010 @ 보리낭뎡이?(보릿대?)

103010 #1 아니, 이것이 보리면은 영 영 심영 요영행 데와당 영 놓민 요거 영 갈르민 영허민 보리가 똑 무껴져.(아니, 이것이 보리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해서 비틀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요거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하면 보리가 꼭 묶어져.)

103010 @ 따로 만들영 허는 게 아니고 그냥 보리낭으로?(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릿대로?)

103010 #1 발면은 보리가 이것이 영 허당 보민 고고리가 똑똑 다 꺼꺼지면은

55) ‘줍팍’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무시거 산뒤낭이라도 행이 나룩쩍이라도 행 깨 데왕 다 허리에 차들서 다 무끄고. 정 안허민 축축헌 때는 이 보리로 그냥 요영 데와다냥 영 갈르민 영 허민 무껴져. 가리쳐냥 꼭 찢러불어.(쇠면은 보리가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삭이 똑똑 다 꺾 어지면은 무엇 밭벗대라도 해서 벗짚이라도 해서 매끼 틀어서 다 허리에 차고 다 묶고. 그렇게 안 하면 축축한 때는 이 보리로 그냥 이렇게 비틀어다 놓고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하면 묶을 수 있어.)

103010 @ 옛날에 경운기 엇일 때 구루마도 나기 전인 쉼로도 행 날랐지예?(옛날에 경운기 없을 때 달구지도 나오기 전엔 소로도 해서 날랐지요?)

103010 #1 쉼로도 시꺼오고 등짐으로 많이 져지. 우리 두린 땀 쪼끔 짐지는 거 쪼끔베끼 안 봐서. 그땐 구르마로 대게. 소 신 집인 소로 시꺼오고. 에이고, 복잡허여.(소로도 실어오고 등짐으로 많이 져지. 우리 어린 땀 조금 짐 지는 거 조금밖에 안 봤어. 그땐 달구지로 대게. 소 있는 집은 소로 실어오고. 아이고, 복잡해.)

103011 @집에서 홀테로 영 다.(집에서 훑이로 이렇게 다.)

103011 #1 홀타.(훑아.)

103011 @ 보리홀테?(보리훑이?)

103011 #2 보리클이엔도 허고.(‘보리클’이라고도 하고.)

103011 @ 보리클이엔도 허고 홀테엔도 허고?(‘보리클’이라고도 하고 훑이라고도 하고.)

103011 #1 보리홀테.(보리훑이.)

103011 @ 도깨질은 멧 사름이나 상 험니까?(도리깨질은 멧 사름이나 서서 합니까?)

103011 #1 엇이민 이녁 혼자만도 허고. 수정이 하민 재미나게.(없으면 자기 혼자만도 하고. 숫자가 많으면 재미있게.)

103011 @ 노래도 불르멍?(노래도 부르면서?)

103011 #1 응, 이야홍 허멍 저디 둘, 이디 둘허민 이디 둘 상 ㄴ찌 이디여 두둘민 저디도 영 이디 영 들르고. 이디 두둘민 저디 영 들르곡 허멍.(응, ‘이야홍’ 하면서 저기 둘, 여기 둘하면 여기 둘 서서 같이 여기야 두드리면 저기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고. 여기 두드리면 저기 이렇게 들고 하면서.)

103011 @ 노래도 막 불르고 이야홍 이야홍 허멍?(노래도 막 부르고 ‘이야홍, 이야홍’ 하면서?)

103011 #1 거 저 어디 노래 허는 디 강 그거 그 소리엔 행 허주. 그거 지치고 그 소리 허미랑 말앙.(그거 저 어디 노래 하는 데 가서 그거 그 소리라고 해서 사지. 그거 지치고 그 소리 하기는 커녕.)

103011 @ 가운디서 영 데싸주는 사름도 이수과?(가운뎃 이렇게 뒤집어주는 사름도 있습니까?)

103011 #1 응, 이서.(응, 있어.)

103011 @ 그 사름은 혹시 뭇엔 곤는 거 잇수과?(그 사람 혹시 뭇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까?)

103011 #1 엇어. 그냥 아이덜이라도 시민 그 ㄴ슬 ㅎ뽀 거되주라게. 비치락행이 영 몬 튀어낭 벌겨진 거. 그 비치락으로 ㄴ ㅎ뽀 건으라게, 거뿔 뱅뱅행 곱닥허게 허민 그것이 또 두르려가민 또 튀어나민 또 거되주곡, 거되주곡. 공들게 살아왔주. 우리 살 때도 공 안 들언, 더 옛날에가 공 들어실테주.(없어. 그냥 아이들이라도 있으며 그 곡식 조금 거두어 주라. 빗자루 해서 이렇게 모두 튀어나가서 벌여진 거. 그 빗자루로 금방 조금 거뒀주고, 거뒀주고. 공들게 살았었지.)

103012 @ 보리 도깨질도 다 허연. 보리쌀 행 밥행 먹젠 허민 물고랑에 강 갈아와살 거 아니예?(보리 도리깨질도 다 했어. 보리쌀 해서 밥해서 먹으려고 하면 연자매에 가서 갈아와야 할 거 아니예요?)

103012 #1 껌데기 벗겨사.(껌데기 벗겨야.)

103012 @ 그건 어뎡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3012 #1 물 ㄴ랑에 강 곶아당 물 적저근엿에 물고랑에 강 곶아오민 그 껌데기 벗어지민 이젠 껌데기 벗어진 건 이레 퍼가멍 또 물 적진 건 요 물고랑 행 이레 놔가민 또 돌, 맷돌로 영영허민 내려온 건 또 담아불멍 헛당 집이 왕 널어. 축축헌 거.(연자매에 가서 갈아다가 물 적셔서 연자매에 가서 갈아오면 그 껌데기 벗겨지면 이젠 껌데기 벗겨진 건 이리로 퍼가면서 또 물 적신 건 요 연자매 해서 이리 놓아가면 또 돌, 맷돌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려온 건 또 담아버리면서 했다가 집에 와서 널어. 축축한 거.)

103012 @ 물 적진 거난.(물 적신 거니까.)

103012 #1 응, 축축헌 거 허민 그걸 불려, 그 껌데기를. 불령 이젠 널엇당 이젠 맷돌로 집이서.(응, 축축한 거 하면 그거 불려. 그 껌데기를. 불려서 이젠 널었다가 이젠 맷돌로 집에서.)

103012 @ 맷돌이엔 곱습니까?(맷돌이라고 말합니까?)

103012 #1 옛날 ㄴ레. ㄴ레로 이젠 불불불불 불르멍 이젠 또 채가 이서이, 그 채가 대체<sup>56)</sup>, 대체 아랫 거는 보리쌀이 뉘고 또 대체 우이 거는 또 ㅎ 불 불불 불라근엿에 또 허영 그 아래 또 그 아래 채는 또 즈쌀<sup>57)</sup> 처 앓아낭 또 보리 ㄴ르 청 데껴불어똥 그거 먹어 강.(옛날 ‘ㄴ레’. 맷돌로 이젠 ‘불불불불’ 뺏으면서 이젠 또 채가 있어, 그 채가 ‘대체’, ‘대체’ 아래 거는 보리쌀이 되고 또 ‘대체’ 위의 거는 또 한 벌 ‘불불’ 뺏아서 또 해서 그 아래 또 그 아래 채는 또 ‘즈쌀’ 처 가져다 놓고 또 보리가루 쳐서 던져두고 그거 먹어 가서.)

103012 @ 보리밥 ㅎ 번허젠 허민 멧 번이나 갈아야 되는 거파?(보리밥 한 번하려고 하면 몇 번이나 갈아야 되는 겁니까?)

103012 #1 두들지, 홀트지, 이젠 또 물고랑에 강 곶지, 물리와 놓민 이젠 돌 ㄴ레에 벌르지, 벌러나민 이젠 솟디 들어갈 거주. 거 다 장만허영. 돌 ㄴ레 아니 돌방에

56) ‘대체’는 구멍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체로 조나 보리 파위를 탁작하고 난 후에 어레미 다음으로 뉘를 쳐내는 도구이다.

57) ‘즈쌀’은 낱알이 으깨어져 버린 쌀로 잘게 갈린 보리쌀 등을 이르는 말이다.

강 그레에 강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이 그냥 보리 까끄지 안헌 것도 임시 먹젠 허문 약석이 떨어지민 그냥 돌그레에 벌렁 밥허민이 뽕뽕뽕뽕뽕 질겨. 이젠 중간 나가 난 이젠 기계가 존 거 나완에 보리 까끈다 허연에 보리 까끄난 우리도 보리 까까단 먹젠 허난 까끌까끌헌 밥 먹으난, 까끈 보리쌀로 밥을 허난 멘질멘질 그냥 내려가 부는 거라.(두드리지, 훑지, 이젠 또 연자매에 가서 갈지, 말려 놓으면 이제 돌멩이에 쪼개지, 쪼개고 나면 이젠 술에 들어갈 거지. 그거 다 장만해서. 돌멩이 아니 연자매에 가서 멩돌에 가서 갈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보리 깎지 않은 것도 임시 먹으려고 하면 양식이 떨어지면 그냥 돌멩이에 쪼개어서 밥하면 ‘뽕뽕뽕뽕뽕’ 질겨. 이젠 중간 나가니까 이젠 기계가 좋은 거 나와서 보리 깎는다 해서 보리 깎으니까 우리도 보리 깎아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까끌까끌한 밥 먹으니까, 깎은 보리쌀로 밥을 하니까 ‘멘질멘질’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야.)

103012 @ 이딘 물고랑이 마을에 하나씩 이서낫수과?(여긴 연자매가 마을에 하나씩 있었습니까?)

103012 #1 하. 물고랑 신 디 막 하. 다 곧지 못허지.( 많아. 연자매 있는 데 아주 많아. 다 말하지 못하지.)

103012 @ 할머니넨 어디 가근에 행 읍디가?(할머니네는 어디 가서 해서 왔었습니까?)

103012 #1 요디 셔낫어, 요디.(요기 있었어, 요기.)

103012 @ 그딘 이름이?(거긴 이름이?)

103012 #1 멀뭇 동네엔 행. 그디도 물고랑 두 개 아니꽈?(‘멀뭇’ 동네라고 해서. 거기도 연자매 두 개 아닙니까?)

103012 #2 아, 서편이 집안에 거 옛날.(아, 서편에 집안의 거 옛날.)

103012 #1 옛날이주게.(옛날이지.)

103012 @ 여러 사람이 쓰젠 허민.(여러 사람이 쓰려고 하면.)

103012 #1 하, 함덕은 막 하. 물고랑.( 많아, 함덕은 아주 많아. 연자매.)

103012 #2 물에도 메왕 굴곡, 쇠에도 메왕 굴곡.(말에도 메워서 갈고, 소에도 메워서 갈고.)

103012 #1 물로도 굴고.(말로도 갈고.)

103012 @ 사람으로도 허여?(사람으로도 해?)

103012 #1 사람으로 으라이. 질로 밀리고 일로 밀리고 허민. 쇠물 이신 사람이 경 쉬와?(사람으로 여러 명. 저리로 밀고 이리고 밀고 하면. 소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쉬워?)

103012 @ 물고랑 갈 땐 무신 거 앓앙 갑니까?(연자매 갈 땐 무엇 가지고 갑니까?)

103012 #1 비치락 아지고 물 길어다 낵. 저 돌로 도고리 닳은 걸 파이. 그레 물 낵 보리 들이청 구덕, 구덕으로 건지민 담아놓민 물 빠져. 물 빠진 거는 이제 그레 판<sup>58</sup>더레 놓는 거라. 정허멍.(빗자루 가지고 물 길어다 놓아서. 저 돌로 함지박 갈



은 것을 파. 거기에 물 놓고 보리 들여놔서 바구니, 바구니로 꺼내면 담아놓으면 물 빠져. 물 빠진 것은 이제 ‘ㄱ레판’에 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103012 @ 물고랑에 밑에 큰 돌 이십니께? 그건 이름 뭐고 돌리는 건 이름 뭐 파?(연자매에 밑에 큰 돌 있잖습니까? 그건 이름 뭐고 돌리는 건 이름 무엇입니까?)

103012 #1 몰라, 거는.(몰라, 그거는.)

103012 @ 물고랑에 무신거, 물고랑에 체경<sup>59)</sup> 이런 말 이수과?(연자매에 무엇, 연자매에 채 이런 말 있습니까?)

103012 #1 체경 말은 이실 거라. 들어나도 몰르크라.(‘체경’ 말은 있을 거야. 들어나도 모르겠어.)

103012 @ 밀리는 던 무신거, 잡는 디 이름이 다 잊지 안허파?(밀리는 데 무엇, 잡는 데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103012 #1 잊긴 이실 거라. 건 몰르크라. 들어나질 안해서. 골아가민 알아지주만 은 체경 말은 무시거엔 현 걸 몰라. 판데기에 둥그렁현 판데기에 그 곡석을 헉지 못허게 이거 판데기민 요 높이 뺑허게 세멘으로 멘들앙 넘어나지 못허게. 그건 헛저. 건디 체경, 체경. 이 밀려주는 거 체경. ‘물고레 체경 이레 앓당 찢르라, 영 밀려가게.’(잊긴 있을 거야. 그건 모르겠어. 들어나지 않았어. 말해 가면 알지마는 ‘체경’말은 무엇이라고 한 걸 몰라. 널빤지에 둥그런 널빤지에 그 곡식 섞지 못하게 이거 널빤지면 요 높이는 ‘빙하게’ 시멘트로 만들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그건 했어. 그런데 ‘체경, 체경’. 이 밀려주는 거 채. ‘연자매 채 이리 가져다 끼워라, 이렇게 밀게.’)

103012 @ 아, 밀리는 게.(아, 밀리는 게.)

103012 #1 원 즈락도 잇고 요딜로 고망 뜰랑 또 요만현 낭데기 앓앙 강 찢렁 체경 앓앙 오라 저 체경으로 밀리게, 영 현. 골아가난.(원 자루도 있고 요기로 구멍 뚫어서 또 요만한 나뭇조각 가져가서 끼워서 채 가져 와라, 저 채로 밀자, 이렇게 했어. 말해가니까.)

103013 @ 보리쌀은 주로 밥행 먹는 거지예?(보리쌀은 주로 밥해서 먹는 거지요?)

103013 #1 밥이지. 주로 밥. ㄱ실 들민 이제 조 골아당 이젠 좁쌀에 보리쌀에 허경 밥허고.(밥이지. 주로 밥. 가을 들면 이제 조 갈아다가 이젠 좁쌀에 보리쌀에 섞어서 밥하고.)

103013 @ 보리로 개역도? 개역행 먹을 보리도 잇긴 있어?(보리로 미숫가루도? 미숫가루해서 먹을 보리도 잇긴 있어?)

103013 #1 그때? 보리허민 막 그냥 낭도 엇인디 그냥 유채낭 해당 와닥와닥<sup>60)</sup>

58) ‘ㄱ레판’은 연자매의 아랫돌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높게 만들어 곡식이 바깥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되어 있다.

59) ‘체경’은 연자매 틀목에 마소의 줄을 매거나 사람의 손으로 밀도록 된 나무 자루를 말한다.

60) ‘와닥와닥’은 유채 대가 불에 타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다.

습으멍 땀 찰찰허멍 그때는 솟뚜쟁이가 이만이헌 솟뚜께 이서. 그레 낱 비치락 모지락지게 막 몽그라진 걸로 영 영 저시멍 보까지민 솔박 밧앙 영 영 썰어놓민 두 말도 보끄곡 흐 말도 보끄곡 허민 이제 중간엔 기계에 강 굴아왔주만은 돌궤로 굴앙 이젠 또 훌게 나민 줌진채로 청 우에 난 거는 또 굴멍 해낫저.(그때? 보리하면 막 그냥 나무도 없는데 그냥 유채 대 해다가 ‘와닥와닥’ 불 때면서 땀 뻘뻘 하면서 그때는 솟뚜쟁이 이만큼 한 솟뚜쟁 있어. 거기에 놓고 빗자루 모지락지게 막 몽그라진 걸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볶아지면 ‘솔박’ 밧아서 이렇게 이렇게 썰어놓으면 두 말도 볶고 한 말도 볶고 하면 이제 중간엔 기계에 가서 갈아왔지만 맷돌로 갈아서 이젠 또 굵게 나면 가는 체로 쳐서 위에 나온 거는 또 갈면서 했었어.)

103013 @ 경행 개역 멘들아?(그렇게 해서 미숫가루 만들어?)

103013 #1 이제ㄴ치 든 거 놓고 무신거 허여? 어떻 허당 사카린<sup>61)</sup>이나 와근엥에 어떻 어떻헛 헛주. 이젠 사카린이랑 말앙 무신 제라헌 든 걸 와도 너미 든 거 낫젠.(이제같이 단 거 놓고 무엇 해? 어떻게 하다가 사카린이나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지. 이젠 사카린은커녕 무슨 제대로 단 것을 와도 너무 단 거 낫다고.)

103013 @ 개역은 간식인가?(미숫가루는 간식인가?)

103013 #1 간식이멍 말멍 기자 밧디 간 때도 더우민 물에 확 카근에 확 드리싸고 집이서도 식은 밥 이신 때도 식은 밥에 버물엥 폭삭폭삭 먹고.(간식이면서 말면서 그저 밧에 간 때도 더우면 물에 확 타서 확 들이키고 집에서도 찬밥 있을 때도 찬밥에 버무려서 ‘폭삭폭삭’ 먹고.)

103013 @ 예.(예.)

103013 # 여름 나민 이 오월 장마 저 가민이 개역헛 여산베끼 안 허여. 간식이멍 말멍 기자 먹기도 좋고 시원함이지. 그땐 시원헌 물이 어디 셔? 저 스레물이엔 헌 디나 강 질어오지나 안허민 어디 시원헌 물이 질어당 와두민, 이젠 냉장고 놓민 시원헌 물이 나는 거주.(여름 나면 이 오월 장마 저 가면 미숫가루할 생각밖에 안 해. 간식이면서 말면서 그저 먹기도 좋고 시원함이지. 그땐 시원한 물이 어디 있어? 저 ‘스레물’이라고 한 데나 가서 질어오지나 앓으면 어디 시원한 물 질어다 와두면, 이젠 냉장고 놓으면 시원한 물이 나는 거지.)

103014 @ 보리대는 뭐에 쓰는 거꽈?(보릿대는 뭐에 쓰는 겁니까?)

103014 #1 거 대도 다 보리 홀테로 무꺼 나민 또꼬냥에서 다 무꺼. 경행 이젠 눌굽<sup>62)</sup>에 눌러. 눌엇당 저 걸름 내는 통시에 앳당 다 담으멍 걸로 거름으로, 거름으로.(그거 대도 다 보리 홀이로 묶고 나면 꿈무니에서 다 묶어. 그렇게 해서 이젠 ‘눌굽’에 가려. 가렸다가 저 거름 내는 돼지우리에 가져다 다 담으면서 그걸로 거름으로, 거름으로.)

103014 @ 통시에.(돼지우리에.)

103014 #1 걸름 내불민 또 그거 깎앙 그거 서근 중 알민 또 내영.(거름 내버리

61)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단 것으로 알려진 인공감미료다.

62) ‘눌굽’은 짚이나 풀 따위를 가릴 수 있게 바닥에 둥그렇게 돌 따위로 깔아놓은 바닥을 말한다.

면 또 그거 깔아서 그거 썩은 줄 알면 또 내어서.)

103014 @ 걸름허는 거 말곤 다른 디 쓰는 거 엇수과?(거름하는 거 말곤 다른 데 쓰는 거 없습니까?)

103014 #1 다른 디 쓰게 누게 도렌 해도, 도렌도 안허고 줄 것이 엇어. 이녁 걸름허젠 허민.(다른 데 쓰게 누가 달라고 해도, 달라고도 안 하고 줄 것이 없어. 자기 거름하려고 하면.)

103014 @ 마당에도 길꼭 안 해?(마당에도 깔고 안 해?)

103014 #1 마당에 깔아 놔도 또 화장실에 가. 변소에 가. 마당 곱게 허젠 깔아 낫다근엥에 또 통시에 들어가.(마당에 깔아 놓아도 또 화장실에 가. 변소에 가. 마당 곱게 하려고 깔아 놓아도 또 화장실에 가. 변소에 가. 마당 곱게 하려고 깔아 놓았다가 또 돼지우리에 들어가.)

103014 @ 주로 보리낭은 걸름으로.(주로 보릿대는 거름으로.)

103014 #1 불도 못 숨아.(불도 못 때.)

103014 @ 불도 못 숨아?(불도 못 때?)

103014 #1 불도 숨으는디 걸름힐 욕심으로, 딱딱딱딱 소리 나꼭 불도 잘 안 나.(불도 때는데 거름힐 욕심으로, 딱딱딱딱 소리 나고 불도 잘 안 타.)

103014 @ 아, 불이 잘 안 나.(아, 불이 잘 안 타.)

103014 #1 걸름힐 욕심으로, 불이야 가기야 가지만은 걸름힐 욕심으로 탄 거 해당 불 진주 걸로 불 안 진어.(거름힐 욕심으로, 불이야 가기야 가지만 거름힐 욕심으로 탄 거 해다가 불 때는 걸로 불 안 때.)

103014 @ 보리채엔 무신거 험니까?(보릿겨 무엇 험니까?)

103014 #1 도새기, 도새기 먹을 거.(돼지, 돼지 먹을 거.)

103014 @ 도새기 것?(돼지 먹이?)

103014 #1 도새기 채.(돼지 겨.)

103014 @ 보리채엔 안허고?(보릿겨라고 안 하고?)

103014 #1 보리채엔도 허고, 도새기채엔도 허고.(보릿겨라고도 하고, 돼지 겨라고도 하고.)

103014 @ 도깨질 해 나민 보리 고고리에 거 털어집니께. 그든 그 낭대기 닳은 거는?(도리깨질 하고 나면 보리 이삭에 그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막대기 같은 거는?)

103014 #1 곡메기<sup>63)</sup>?('곡메기'?)

103014 @ 곡메긴 잘 안똥 거?('곡메기'는 잘 안 된 거?)

103014 #1 이, 다 털어 앓아 나민 이만씩 홀타나민 곡메기. 것도 다 건 굴묵<sup>64)</sup> 짚을 더레 가이.(이, 다 털고 가지고 나면 이만큼씩 훑고 나면 '곡메기'. 그것도 다 그건 '굴묵' 땔 곳으로 가.)

63) '곡메기'는 낱알을 떨어낸 빈 이삭으로 '각메기, 강메기, 각메기'라고도 한다.

64)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를 말한다.

103014 @ 건 굴묵 진을 더레.(그건 ‘굴묵’ 땀 곳에.)

103014 #1 헤나민 보리 두들어 나민, 불리민 이디 다 나간 ㄴ시락은 다 굴묵 진을 걸로 새로 멘들아근에.(하고 나면 보리 두드리고 나면, 드리면 여기 다 나간 까끄라기는 다 ‘굴묵’ 땀 걸로 새로 만들어서.)

103014 @ ㄴ시락은 굴묵 진을 걸로. ㄴ시락 놔두는 디가 이수과?(까끄라기는 ‘굴묵’ 땀 걸로. 까끄라기 놔두는 데가 있습니까?)

103014 #1 통도 잇고이, 잘 비 안 들게 잘 헐 수도 있고 베끗디 영 어디 고랑챙이 ㄴ튼 디 놔도 비 안 들영 썩지 안허게 헐 수도. 거 썩으면 굴묵도 못 진을 거난 어떻 헐 거라.(통도 있고, 잘 비 안 들게 잘 할 수도 있고 밖에 이렇게 어디 고랑같은 데 놔도 비 안 들어서 썩지 않게 할 수도. 그거 썩으면 ‘굴묵’도 못 땀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103014 @ 통에 담양 놔?(통에 담아서 놔?)

103014 #1 쉼막이엔 현 디가 이신디 쉼막 속에 또 영 혼 구석에 놔. ㄴ시락 통65), ㄴ시락통 옛날엔 ㄴ시락통을 트로 허여 놔. 집 널른 딴. 쉼막 가운데 영 반벌렁 요건 ㄴ시락통. 경헛당 저실 들어가민 굴채 잇지. 굴채로 담아당 굴묵에 낫당 거 진어.(외양간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외양간 속에 또 이렇게 한 구석에 놔. ‘ㄴ시락통, ㄴ시락통’ 옛날엔 ‘ㄴ시락통’을 따로 해 놔. 집 넓은 텐. 외양간 가운데 이렇게 반 쪼개서 요건 ‘ㄴ시락통’. 그랬다가 겨울 되면 삼태기 잇지. 삼태기로 담아다가 ‘굴묵’에 낫던 거 때.)

103014 @ 굴묵 진을 걸로.(‘굴묵’ 때는 거로.)

103014 #1 낭도 안 내불고 ㄴ시락도 안 내불어.(나무도 안 내버리고 까끄라기도 안 내버려.)

103014 @ 계난에 보린 허민예.(그러니까요. 보리는 하면요.)

103014 #1 이젠 보린 허민 밧디서 두들민 밧디 빼영 내불민 밧디서 불 와르르허게 부져불민 마는디. 옛날은 헐 일이 많아.(이젠 보리 하면 밧에서 두드리면 밧에 뿌려서 내버리면 밧에서 불 화르르하게 붙여 버리면 마는디. 옛날은 할 일이 많아.)

103014 @ 보리로예?(보리로요?)

103014 #1 ㄴ시락도 썰 거, 보리낭도 쓰멍 걸름 만들어야 땀 거.(까끄라기도 썰 거, 보릿대도 쓰면서 거름 만들어야 땀 거.)

103015 @ ㄴ레에 보리 갈민 보리 가루도 나옵니께? 건 무신거엔 곱옵니까?(멧돌에 보리 갈면 보릿가루도 나오잖습니까? 그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3015 #1 보릿ㄴ르, 줌썰66). 대체 아랫 건이 먹을 보리썰이 돼고이 또 대체 아래 걸명체67)에 거는 무신거 줌썰이 나와. 막 줌질게 벌러진 거. 줌썰 방울 닮은 것이 나와.(보릿가루, ‘줌썰’. ‘대체’ 아래 건 먹을 보리쌀이 되고 또 ‘대체’ 아래 ‘걸명체’에 짓은 무엇 ‘줌썰’이 나와. 아주 잘게 쪼개진 거. 줌썰 방울 같은 것이 나와.)

65) ‘ㄴ시락통’은 까끄라기를 보관하는 작은 통이다.

66) ‘줌썰’은 낱알이 으깨어져 버린 쌀로 잘게 갈린 보리쌀 등을 이르는 말이다.

67) ‘걸명체’는 눈이 조금 굵은 체로 거름체를 이르는 듯하다.

103015 @ 건 무신거 해?(그건 무엇 해?)

103015 #1 이건 줌썰, 또 그 아래 나온 건 보릿ㄴ루.(이건 ‘즘썰’, 또 그 아래 나온 건 보릿가루.)

103015 @ 밥 먹는 보리썰이 있고, 줌썰이 있고, ㄴ루가 있고.(밥 먹는 보리썰이 있고, ‘즘썰’이 있고, 가루가 있고.)

103015 #1 보릿ㄴ루가 있고.(보릿가루가 있고.)

103015 @ 보릿ㄴ루는 뭐 험니까?(보릿가루는 뭐 험니까?)

103015 #1 데껴 불어. 도새기 것덜에 놔불어. 줌썰은이 보리밥 허당이 물이 흐끔 이신 중 알민이 줌썰 놓듯이 영영 허끄민 것더래 들어불민 밥도 포실포실허고 좋아.(던져 버려. 돼지 먹이에 놔버려. ‘돼지 것’들에 놔버려. ‘즘썰’은 보리밥 하다가 물이 조금 있는 줄 알면 줌썰 놓듯이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그것에 ‘들어불’면 밥도 ‘포실포실’하고 좋아.)

103015 @ 아, 따로 모아놨다가?(아, 따로 모아놨다가?)

103015 #1 응, 따로 낫다가. 보리밥이 보리밥만 행 물이 맞앙 좋암직헌 때는 허는디 물이 흐끔 익엄직헌 때는 줌썰 아상 강 영 영 낱 확 저서 불민 그 물이 줌썰 러래 먹어불민 물이 좋아.(응, 따로 놔다가. 보리밥이 보리밥만 해서 물이 맞아서 좋을 것 같을 때는 하는데 물이 조금 익을 것 같을 때는 ‘즘썰’ 가져 가서 이렇게 이렇게 놔서 확 저어 버리면 그 물이 ‘즘썰’에 먹어 버리면 물이 좋아.)

103015 @ 보리농사를 켈 하영 지었주예?(보리농사를 제일 많이 지었지요?)

103015 #1 그때사 느 나 헐 거 었어. 조고 보리고 느 나 헐 거 었어. 다 마찬가지. 우리 연세는 다 그런 거.(그때야 너 나 할 것 없어. 조고 보리고 너 나 할 거 없어. 다 마찬가지. 우리 나이에는 다 그런 거.)

103015 @ 특별히 보리농사 지을 때 다른 농사와 다르거나 기억나는 거 었수과?(특별히 보리농사 지을 때 다른 농사와 다르거나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3015 #1 그런 거 허단도 배추도 갈고이 무우도 갈고 허영 풀안. 맛이 워낙 좋은 밭덜이난. 것베긴 헐 일이 었주게.(그런 거 하다가도 배추 갈고 무도 갈고 해서 팔았어. 밭이 워낙 좋은 밭들이니까. 그것밖에 할 일이 없지.)

103015 @ 게민 그 보리농사 해 나민 다음에 또 보리 해야 돼니까 씨를?(그러면 그 보리농사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보리 해야 되니까 씨를?)

103015 #1 놔 뒤야지.(놔 뒤야지.)

103015 @ 어디 저 맥에 담앙 놔뒤?(어디 저 먹서리에 담아서 놔뒤?)

103015 #1 향아리, 고팡이엔 헐 디 가민 향아리가 막 하. 우리 향아리 나도 요자기도 낫단 두 개에 십오만 원 받앙 팔았는데.(향아리, 고팡이라고 한 데 가면 향아리가 아주 많아. 우리 향아리 나도 요마적도 놔두었다가 두 개 십오만 원 받아서 팔았는데.)

103015 @ 아.(아.)

103015 # 향아리가이 혼 섬이엔 허민 열닷 말이 혼 말이라이. 석 섬 드는 향아

리가 이서이. 고팡 문으로 들어가지 못허민 이런 축 트딩 담아. 이 집은 허젠 허난 이 그냥 문딱 뿔란 뿔아 불어신디.(항아리가 한 섬이라고 하면 열닷 말이 한 말이야. 석 섬 드는 항아리가 있어. 고팡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벽 뜯어서 담아. 이 집은 하려고 하니까 그냥 모두 찌그러뜨려서 뿔아 버렸는데.)

103015 @ 아.(아.)

103015 # 고팡 속에 항아리가 막 하. 고팡에 항 강 보민 부젓칩이다 현 것이 알아져. 항덜이 좋으면은. 그런 것에 다 놓민 보리쌀도 장만허민 팔월[팔월] 나가민 저실 먹을 양식을 문딱 장만허멍 다 고팡에 가. 항아리 더끄멍 다 놔뒤.(고방 속에 항아리가 아주 많아. 고팡에 항아리 가서 보면 부젓칩이다 한 것을 알 수 있어. 항아리들이 좋으면. 그런 것에 다 놓으면 보리쌀도 장만하면 팔월 나가면 겨울 먹을 양식을 모두 장만하면서 다 고팡에 가. 항아리 덮으면서 다 놔뒤.)

103015 @ 아.(아.)

103015 # 게민 씨 헐 거 항아리 하나가 탁 놔두지. 경행 보관해 뒀다근에 저실이 뒀면 거 끄집어내는 거지.(그러면 씨 할 거 항아리 하나를 딱 놔두지. 그렇게 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이 되면 그거 끄집어내는 거지.)

## 조 농사

103016 @ 게민 보리농사 다 끝났고예 조 농사는 어떻 험니까?(그러면 보리농사 다 끝났고요 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16 #1 조 농사는게 이 보리 낫당 흐뭇 쉬었다근엔에 그 보리 갈아난 그를 또 그냥 갈아. 갈앙 내불엇당 흐 보름 서 가민 또 검질 날 것도 다 나불곡 허민 또 조 불릴 시기 뒀민 유월절<sup>68)</sup> 가까와 가민 아이고 유월절이 메칠이다, 메칠날 조 불리게.(조 농사는 이 보리 끝나서 조금 쉬었다가 그 보리 갈았던 그루터기를 또 그냥 갈아. 갈아서 내버렸다가 한 보름 있어 가면 또 김 날 것도 다 나버리고 하면 또 조 밟을 시기 되면 유월절 가까워 가면 아이고 유월절이 며칠이다, 며칠날 조 밟게.)

103019 @ 조 씨는 언제 뿌립니까?(줍씨는 언제 뿌립니까?)

103019 #1 게메 유월절 중심 잡앙 허여이. 유월절이 널모리다 허민 오늘 조 불릴 수도 잇고 유월절 넘영 삼일 이성 조 불리기도 허고. 그 순간 절기 맞창 씨를 뿌려.(그러게 유월절 중심 잡아서 해. 유월절이 내일모레다 하면 오늘 조 밟을 수도 잇고 유월절 넘어서 삼일 있어서 조 밟기도 하고. 그 순간 절기 맞춰서 씨를 뿌려.)

103019 @ 유월절은 언제마씨?(유월절은 언제예요?)

103019 #1 유월절 드는 거 어디, 브려불어실 거라.(유월절 드는 거 어디, 찢어버렸을 거야.)

103019 @ 음력으로 메칠?(음력으로 며칠?)

103019 #1 음력은 오월, 오월들에도 뒀는 때가 잇고 유월들에도 뒀는 디가 서.

68) '유월절'은 7월7일 소서 전후를 이르는 절기이다.

(음력은 오월, 오월달에도 되는 때가 있고 유월달에도 되는 때가 있어.)

103019 @ 아, 유월절은마씨?(아, 유월절은요?)

103019 #1 응, 거민 유월절 중심 잡앙 조를 불러.(응, 그러면 유월절 중심 잡아서 조를 밝아.)

103019 @ 메칠 전이 허는 거라?(며칠 전에 하는 거야?)

103019 #1 유월절이 널모리다 허민 오늘 불릴 수도 잇고이 유월절 넘영 삼일 후제도 허고. 삼일 넘어 가민 초복이여 말복이여 해가민 조가 늦어.(유월절이 내일 모레다 하면 오늘 밝을 수도 있고 유월절 넘어서 삼일 후에도 하고. 삼일 넘어 가면 초복이다 말복이다 해가면 조가 늦어.)

103019 @ 유월절 지날 삼일 지나기 전까진 씨를 뿌려야 돼는구나.(유월절 지나서 삼일 지나기 전까지는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103019 #1 초복에 씨 그르쳐근에. 이 씨를 행 놔두면 그르칠 수가 이서이. 물 골라불민이. 그리치민 초복에 강 굽어도이 시원 안해, 그 용신. 줄고, ㄴ늘고. 게민 그자 비만 안 왕 밋이 준 딴 허민 제케로 돼어가지게, 그것이.(초복에 씨를 그르쳐서. 이 씨를 해서 놔두면 그르칠 수가 있어. 물 고여버리면. 그르치면 초복에 가서 굽어도 시원하지 않아, 그 농사는. 잘고, 가늘고. 그러면 그저 비만 안 와서 밋이 좋은 데는 하면 제대로 되어가지, 그것이.)

103019 @ 건 씨 어떻 뺨니까?(그건 씨 어떻게 뿌립니까?)

103019 #1 이건 것도 씨 막 즘질이 곱게 빼어. 건 무데기로 막 빼어. 그냥 여름 용시는 부념도 엇고 거름도 엇어. 이제는 허는 수도 이실 거라만은 그때는 엇어. 것도 막 빌영 저디 씨멧탱이<sup>69)</sup>에 막 쟁일 빌어당 골루루 이걸 막 빼어.(이건 그것도 씨 아주 잘게 곱게 뿌려. 그건 무더기로 막 뿌려. 그냥 여름 농사는 ‘부념’도 없고 거름도 없어. 이제는 하는 수도 있을 거지만은 그때는 없어. 그것도 아주 빌려서 저기 ‘씨멧탱이’에 막 전문가를 빌어다가 골고루 이걸 막 뿌려.)

103019 @ 씨 잘 빼는 사름을 빌어당? 씨 잘 빼는 사름은 뭇엔 곱읍니까?(씨 잘 뿌리는 사름을 빌어다가? 씨 잘 뿌리는 사름은 뭇라고 말합니까?)

103019 #1 뭇엔 곱아? 그자 이녁 친헌 사름이라도 누게 씨 흥뽀 빼어줘 허민 왕 빼어주곡 허는 거주.(뭇라고 말해? 그저 자기 친한 사름이라도 누가 씨 조금 뿌려줘 하면 오서 뿌려주고 하는 거지.)

103019 @ 혹시 씨와치엔은 안 곱읍니까?(혹시 ‘씨와치’라고는 안 말합니까?)

103019 #1 씨와치엔도 곧기야 곧주만은 거 장난 비스름이나 곧주. 아무라도 친 허민 곱아줘.(‘씨와치’라고도 말하기야 말하지만 거 장난 비슷하게나 말하지, 아무라도 친하면 말해.)

103019 @ 예.(예.)

103019 # 거민 그 씨 비어나민 이젠 누게네 몰테 완저이, 몰테 완저허민 몰테로

69) ‘씨멧탱이’는 짚으로 둥그스름하게 엮어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해서 목이 있게 만든 작은 먹둥구미로 씨앗을 넣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씨앗 주머니이다. ‘씨부게기, 췌부게, 부게기’라고도 한다.

그자 와릉와릉 담아놔 그 조를 막 불르멍 밧 니 구석을 빙빙 막 소리 걸치멍 몰블리는 소리허지이. 그처럼 허멍 서너 불 불려놓민 다 불린 거라. 땅이나 촉촉허민은 삼일만 돼가민 뽕족뽕족 나.(그러면 그 씨 뿌리고 나면 이제 누구네 말때 온다, 말때 온다하면 말때로 그저 ‘와릉와릉’ 담아놓고 그 조를 막 밟으면서 밧 네 구석을 빙빙 막 소리 치면서 말 밟는 소리하지. 그렇게 하면서 서너 벌 밟아놓으면 다 밟은 거야. 땅이나 촉촉하면 삼일만 되어 가면 뽕족뽕족 나.)

103021 @ 짝이?(짝이?)

103021 #1 짝이 낱. 삼사일 돼가민 이제 영 풀어져 가멍 허민 요만씩 헤가민, 요만이만 허민 이제 조를 방수 놓음[눔]으로이.(짝이 나서. 삼사일 되어가면 이제 이렇게 풀어져 가면서 하면 요만큼씩 헤가면, 요만큼만 하면 이제 조를 방수 놓음으로.)

103021 @ 예.(예.)

103021 # 막 즈진 것도 영 과작 해불민 문딱 메멍 뽕아 불어. 보리는 아니 뽕아도 돼는디 조는 손을 봐야 돼. 요만이 막 영 좇앙 영 나도 씨를 요만 거리만 놔이. 이 사이에 거는 다 메불어. 이 사이 것도 다 메고.(아주 잦은 것도 이렇게 ‘과작’ 해버리면 모두 매면서 뽕아 버려. 보리는 안 뽕아도 되는데 조는 손을 봐야돼. 요만큼 막 이렇게 잦아서 이렇게 나도 씨를 요만한 거리만 놓아. 이 사이의 것은 다 매어 버려. 이 사이 것도 다 매고.)

103021 @ 메는 게 더 하키여.(매는 게 더 많겠네.)

103021 #1 메는 게 더 하주게. 씨를 얼만이 잘 들어사고 안 들어산 걸 몰라서 씨를 하영 뺏어불민 씨 메기가 힘들어. 씨가 정씨로 강은 흐뭇 검질 메기도 쉽고 재기 멍 나가는디, 씨를 흐뭇 뺏어지지 안헌 디 있게, 잘 뺏젠 허민, 씨를 좇게 뺏어 불민은 그 메는 시간도 많이 걸려.(매는 게 더 많지. 씨를 얼마만큼 잘 들어서고 안 들어산 걸 몰라서 씨를 많이 뿌려버리면 씨 매기가 힘들어. 씨가 제대로 가서는 조금 김매기도 쉽고 빨리 매어서 나가는데, 씨를 조금 뿌려지지 않은 데 있게, 잘 뿌리려고 하면, 씨를 좇게 뿌려 버리면은 그 매는 시간도 많이 걸려.)

103017 @ 게메예. 조팠디도 걸름합니까?(그러게요. 조밭에도 거름합니까?)

103017 #1 걸름은 안 해봤어. 조가 요만큼 높으면 부넘은 흐뭇 해당 하나씩 데껴불어. 고고리 훑게, 조코고리 훑게.(거름은 안 해봤어. 조가 요만큼 높으면 ‘부넘’은 조금 해다가 하나씩 던져버려. 이삭 굵게, 조 이삭 굵게.)

103017 @ 비료?(비료?)

103017 #1 응, 비료. 흐뭇씩 행 뺏어.(응, 비료. 조금씩 해서 뿌려.)

103017 @ 비료 나기 전인?(비료 나기 전엔?)

103017 #1 비료 나기 전인 몰라. 우리 난 후제는. 비료 나기 전인 안 해실 거라, 할망덜.(비료 나기 전엔 몰라. 우리 난 후에는. 비료 나기 전엔 안했을 거야, 할머니들.)

103017 @ 걸름 안 허영.(거름 안 해서.)



103017 #1 우리 헐 때는 경 헤낫어. 검질 다 매두고 조가 요만큼 행 막 입 올릴 때는 흐끔씩 하영 안 행 흐끔씩.(우리 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 김 다 매두고 조가 요만큼 해서 막 앞 열릴 때는 조금씩 많이 안 해서 조금씩.)

103017 @ 경허민 조코고리가 흠어?(그러면 조이삭이 굵어?)

103017 #1 굵게, 굵게.(굵게, 굵게.)

103021 @ 조팏디 검질은 몇 번이나 맵니까?(조밭의 김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21 #1 두 벌. 아무 것도 두 벌 메지.(두 벌. 아무 것도 두 벌 매지.)

103021 @ 아까 소끄는 거 말고도 두 벌?(아까 숨는 거 말고 두 벌?)

103021 #1 그거까지 두 벌.(그거까지 두 벌.)

103021 @ 그거까지 두 벌만 허민 돼여?(그거까지 두 벌만 하면 돼?)

103021 #1 두 벌 메민 말채민 그자 텅기당 무신 마라지엔 현 것도 메곡 그냥저냥 내불엇당.(두 벌 매면 말채면 그자 다니다가 무슨 가라지라고 한 것도 매고 그냥저냥 내버렸다가.)

103022 @ 조팏디 많이 나는 검질은 마라지파?(조밭에 많이 나는 김은 가라지입니까?)

103022 #1 복쿨, 쉼비눔, 물풀.(깨풀, 쇠비름, 여뀌바늘.)

103022 @ 조팏디예?(조밭에요?)

103022 #1 복쿨, 물풀, 쉼비눔.(깨풀, 여뀌바늘, 쇠비름.)

103022 @ 복쿨, 물풀, 쉼비눔. 그게 하영 나예. 아까 가라지는?(깨풀, 여뀌바늘, 쇠비름. 그게 많이 나요. 아까 가라지는?)

103022 #1 마라지는 그 이 조 닻은 것이 이성 몰랑 못 멩 내불어. 조 닻은 건디 방울이 틀려. 게민 그거 나면은 마라지는 알아져. 조코고린 영 숙으는디 마라지는 거칠거칠 영 꼬작허민 텅기명 메불어사 씨가 털어지지 안허여. 마라지 털어지민 후년도 할 거고 씨덜 털어지민.(가라지는 그 이 조 같은 것이 있어서 몰라서 못 매어서 내버려. 조 같은 건데 방울이 달라. 그러면 그거 나면은 가라지는 알 수 있어. 조 이삭은 이렇게 숙이는데 가라지는 거칠거칠 이렇게 꼳꼳하면 다니면서 매버려야 씨 떨어지지 않지. 가라지 떨어지면 후년도 많을 거고 씨들 떨어지면.)

103023 @ 예.(예.)

103023 # 그거 끝나면은 조팏은 끝난 거지. 게민 마을 들어가민 비영 녹젓당 혼 사흘씩 물리민 이젠 영 모와당 호미 영 창 마고릴 다 툷아.(그거 끝나면 조밭은 끝난 거지. 그러면 가을 들어가면 베어서 눅혔다가 한 사흘씩 말리면 이젠 모아놓고 호미 이렇게 차서 이삭을 다 뜯어.)

103023 @ 밧디서 다 툷아?(밭에서 다 뜯어?)

103023 #1 응, 밧디서. 영 안아다 낵 이런 덕석 닻은 디서 안아당 낵도 툷을 수 잇고, 정 안허민 그 이디 비어논 조름에서 호미로 툷으멍.(응, 밧에서. 이렇게 안다 다 놓고 이런 멍석 같은 데서 안아다 놓아서도 뜯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여기 베어놓은 뒤에서 호미로 뜯으면서.)

103023 @ 호미로 영 툰아? 경행 어디레 답아?(호미로 이렇게 뜯어? 그렇게 해서 어디에 답아?)

103023 #1 이레 다 모다놔.(이리로 다 모아놔.)

103023 @ 것이 무신거라?(그것이 뭐야?)

103023 #1 덕석이나 가빠나 깔아논 디. 말째민 맥에 답아. 맥에 답앙 이젠 구르마로라도 시꺼와.(명석이나 카파나 깔아놓은 데. 말째면 먹서리에 답아. 먹서리에 답아서 이젠 달구지로라도 실어와.)

103024 @ 집이 시꺼와?(집에 실어와?)

103024 #1 시꺼왕 도께로 두들던지, 도께로 두들엇지. 기계가 잘 엇인 때니까.(실어와서 도리깨로 두드리든지, 도리깨로 두드렸지. 기계가 잘 없는 때니까.)

103024 @ 마당에서 보리허듯이 도께로 두들영.(마당에서 보리하듯이 도리깨로 두드려서.)

103024 #1 거 두들으민 끝난 거지, 장만허영 물리왕.(그거 두드리면 끝난 거지, 장만해서 말려서.)

103025 @ 줍쓸도 물고랑에 가?(줍쌀도 연자매에 가?)

103025 #1 이제는 기계 시난 안 허는디 그때는 물고랑에 가야 돼. 초불 곁아놓면은 이제 푸는 체로 저디 푸는 체도 이선게. 푸는 체로 퍼똥 이젠 아니 곁아진 줍쓸, 조가 이서부난 그거 또 두 불 낱 또 곁민 그 허나씩 이신 조 다 곁아지게시리 두 불을 ㄴ는 거라.(이제는 기계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때는 연자매에 가야 돼. 초벌 곁아놓으면 이제 키로 저기 키도 있던데. 키로 까부르고 이젠 안 곁아진 줍쌀, 조가 있어 버리니까 그거 또 두 벌 놓아서 또 갈면 그 하나씩 있는 조 다 곁아지게끔 두 벌을 가는 거야.)

103025 @ 물고랑 강 곁앙.(연자매 가서 곁아서.)

103025 #1 체 퍼똥.(키 까부르고.)

103025 @ 체 퍼똥.(키 까부르고.)

103025 #1 또 두 불도.(또 두 벌도.)

103025 @ 또 물고랑에 두 불차 곁아?(또 연자매에 두 벌째 곁아?)

103025 #1 경허믄 꾀, 것도. 경헤영 체로 청 쓸 멘들앙. 스레기 잇고. 줍쓸 스레기.(그러면 끝, 그것도. 그렇게 해서 키로 까불러서 쌀 만들어서. 싸라기 잇고. 줍쌀 싸라기.)

103025 @ 스레기? 스레긴 무신거?(싸라기? 싸라긴 뭐?)

103025 #1 줍쓸 스레기. 벌러진 거. 조 아니 툴 것도 몰명헌 건 줍쓸ㄴ치 훑지 안허영 족게 나오지게.(줍쌀 싸라기. 쪼개진 거. 조 안 된 것도 시원치 못한 건 줍쌀같이 굵지 안 해서 작게 나오지.)

103025 @ 그게 스레기.(그게 싸라기.)

103025 #1 줍쓸이엔 나 인척 곁앗지. 줍쓸ㄴ추룩.(‘줍쓸’이라고 나 일찍이 말했지. ‘줍쌀’처럼.)

103025 @ 보리는 줍쓸.(보리는 ‘줍쓸’.)

103025 #1 스레기가 그 식이라.(싸라기가 그 식이야.)

103025 @ 줍쓸은 스레기.(줍쌀은 싸라기.)

103025 #1 응, 스레기. 벌러진 거 나온 것이. 그 밋에 건 데껴불고. 도새기 주나.(응, 싸라기. 쪼개진 거 나온 것이. 그 밋에 건 던져버리고. 돼지 주나.)

103024 @ 줍쓸할 때 덩드렁마께<sup>70)</sup>로 두드립니까?(줍쌀할 때 ‘덩드렁마께’로 두드립니까?)

103024 #1 덩드렁마께로 할망덜 일엇이 앓앙이 무신 그레 곶아단 동골랑헌 거 이시민 독독독독 못으멍 털어지와.(‘덩드렁마께’로 할머니들 일없이 앓아서 무슨 멧돌 갈아다가 동그란 것 있으면 독독독독 마면서 떨어뜨려.)

103024 @ 도께질 해난 거?(도리깨질 했던 거?)

103024 #1 아니, 아니, 안 해난 것덜. 도께질 안 행 예를 들러 이거 덕석이면은 그레판 요레 앓다놓고 요거 마께민 이거 심영 독독독독 못으멍 또 앓다냥 못이곡 허민 허당 보면 멕으로 하나도 헐 수 이서.(아니, 아니, 안했던 것들. 도리깨질 안 하고 예를 들어 이거 멍석이면 멧돌짝 요리 가져다 놓고 요거 방망이면 이거 잡아서 푹푹푹푹 마면서 또 가져다 놓고 마고 하면 하다 보면 먹서리로 하나도 할 수 있어.)

103024 @ 도께질허는 거 대신에 허는 거파?(도리깨질 하는 거 대신 하는 겁니까?)

103024 #1 할망덜 일 엇영 그런 것도 못허민 어디 안 가지민 이런 덕석 우이 앓당 독독독독 파삭 돌르민 것도 쉬와. 뻗이나 잘 난 날은 것도 털기 쉬와.(할머니들 일 없어서 그런 것도 못하면 어디 안 가면 이런 멍석 위에 푹푹푹푹 바삭 마르면 그것도 쉬워. 뻗이나 잘 난 날은 그것도 떨기 쉬워.)

103025 @ 마당에 날레<sup>71)</sup> 너는 거는?(마당에 ‘날레 너는 거는?')

103025 #1 그거 해나민게 재기 양식을 만들젠 허민 널엇당 거는 기계방에도 강, 이제 중간엔 기계방에 강, 어둑어가민 이 시간 뉘민 담양 지어아정 가민 그냥 곶앙 오지.(그거 하고 나면 빨리 양식을 만들려고 하면 널었다가 그거는 공장에도 가서, 이제 중간에는 공장에 가서, 어두워지면 이 시간 되면 담아서 져서 가면 그냥 갈아 오지.)

103025 @ 뭉고랑 가기 전이 말령 가정 가는 거지예?(연자매 가기 전에 말려서 가지고 가는 거지요?)

103025 #1 응, 몰려사, 몰려사, 아무것도 몰려사. 공장에 가는 것도 몰리지 안허민 막 곶아져불영 스레기가 많아. 오골오골<sup>72)</sup> 잘 몰라사 오골오골.(응, 말려야, 말려야, 아무것도 말려야. 공장에 가는 것도 말리지 않으면 막 곶아져 버려서 싸레기

70)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다.

71) ‘날레’는 별을 쪼기 위해 멍석에 널어 놓은 곡식이다.

72) ‘오골오골’은 가볍게 일어나거나 솟아오르는 모양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곡식이 별에 잘 마른 모양을 표현하는 의태어이다.

가 많아. ‘오골오골’ 잘 말라야 ‘오골오골’.)

103025 @ 할아버진 날레 잘 들어 줘니까?(할아버진 ‘날레’ 잘 들어 줘니까?)

103025 #1 들어줘야주게. 버친 거 들러도 주곡.(들어줘야지. 힘든 거 들어도 주고.)

103025 @ 남자털 집이 시멍 날레도 안 들이고 헌텐 허멍.(남자들 집에 있으면서 ‘날레’도 안 들이고 한다고 하면서.)

103025 #1 거 멩텅헌 하르방. 꼭ㄴ치 나상 눅뜨는디 진 안 먹엄서? 지도 먹으니까 해야지. 나만 먹엄서?(그거 멩청한 할아버지. 똑같이 나서서 날뛰는데 자기는 안 먹고 있어? 자기도 먹으니까 해야지. 나만 먹고 있어?)

103026 @ 좁쌀론 뭐 행 먹읍니까?(좁쌀로는 무 해서 먹읍니까?)

103026 #1 보리밥에 부짱 내비엿 틸 채왓당 또 이젠 그 밥을 뿔루젠 허민 예를 들렁 사발로 하나민 사발로 하나 앓앙강 술술술술 허경 알로 불 솜아 가민 ㄴ냥이 뽕골뽕골 나. 게민 밥이 눈 거 닥으민 불 꺾당 흥꼰 뜸 들이면은 남죽<sup>73)</sup>으로 것이 남죽이라 영 젓어부는 것이. 경행 젓엇당 밥 퍼당 먹어, 것이 끝나는 거.(보리밥 끓어 넘쳐서 내버렸다가 뜸 들였다가 또 이젠 그 밥을 갖히려고 하면 예를 들어 사발로 하나면 사발로 하나 가져가서 살살살살 섞어서 아래로 불 때어 가면 구멍이 보글보글 나. 그러면 밥이 높은 거 같으면 불 꺾다가 조금 뜸 들이면 ‘남죽’으로 그것이 ‘남죽’이야 이렇게 젓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저엇다가 밥 떠다 먹어, 그것이 끝나는 거.)

103026 @ 좁쌀로만 밥은 안 허고?(좁쌀로만 밥은 안 하고?)

103026 #1 좁쌀로만도 허여.(좁쌀로만도 해.)

103026 @ 좁쌀로만도 허고 보리쌀 서경도 먹고.(좁쌀로만도 하고 보리쌀 섞어서도 먹고.)

103026 #1 주로 보리쌀 서경 먹는 것이 좋주. 좁쌀만은 캥캥<sup>74)</sup>행 굿고.(주로 보리쌀 섞어서 먹는 것이 좋지. 좁쌀만은 ‘캥캥’해서 나쁘고.)

103026 @ 캥캥해. 좁쌀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 (‘캥캥’해. 좁쌀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3026 #1 흐린좁쌀, 모원좁쌀. 조 이름도 하. 쉼시리<sup>75)</sup>여 무신, 쉼시리여. 굿사 곶아지크라라마는.(차좁쌀, 메좁쌀. 조 이름도 많아. ‘쉼시리’다 무슨, ‘쉼시리’다. 아까 말할 수 있겠더라마는.)

103026 @ 강돌와리<sup>76)</sup> 그런 거 잇지 안허파? (‘강돌와리’ 그런 거 잇지 않습니까?)

103026 #1 그거, 그런 거 이서. 강돌와리 쏘이여, 무신 쏘이여 다 곶아. 터럭조여, 강돌와리 무신거 이름 하.(그거, 그런 거 있어. ‘강돌와리’ 쌀이다, 무슨 쌀이다

73) ‘남죽’은 죽젓개를 이르는 제주어인데 밥주걱으로도 쓰였다.

74) ‘캥캥’은 찰떡이나 당이 말라 단단히 굳은 모양을 말한다.

75) ‘쉼시리’는 조 품종의 하나다.

76) ‘강돌와리’는 조 품종의 하나다.

다 말해. ‘터럭조’다, ‘강돌와리’ 무엇 이름 많아.)

103026 @ 모원좁쌀로는 무슨거 행 먹읍니까?(메좁쌀로는 무엇 해서 먹습니까?)

103026 #1 밥에 허깅. 사락사락 보리쌀에 밥을 허끄면 포실포실 맛있어. 복삭복삭.(밥에 섞어서. ‘사락사락’ 보리쌀에 밥을 섞으면 ‘포실포실’ 맛있어. ‘복삭복삭’.)

103026 @ 흐린조는?(차조는?)

103026 #1 흐린조로는 예를 들었 흐린조는이 보리쌀 삶는 디 팻 농곡이 흐린 좁쌀 낱 밥을 허영 놔두민이 밥이 더 맛이 좋아. 팻 농곡 행 밥을 허민. 이제민 나가 혼 사발은 먹어지켜, 그 밥.(차조로는 예를 들어 차조는 보리쌀 삶는 데 팔 놓고 차좁쌀 놔서 밥을 해서 놓아두면 밥이 더 맛이 좋아. 팔 놓고 새서 밥을 하면. 이제면 내가 한 사발은 먹을 수 있겠다, 그 밥.)

103026 @ 보리쌀허고 팻허고 좁쌀허고, 흐린좁쌀허고 낱 밥을 허민.(보리쌀하고 팔하고 좁쌀하고, 차좁쌀하고 놔서 밥을 하면.)

103026 #1 팻 삶양 밥을 허영. 이제라도 주민 막 맛 좋게 먹을 거여, 아무라도. 이시민 나 맛 좋게 밥 해주켜마는.(팔 삶아서 밥을 해서. 이제라도 주면 아주 맛있게 먹을 거야, 아무라도. 있으면 나 맛있게 밥 해주겠다마는.)

103026 @ 조로도 떡도 됩니까?(조로도 떡도 됩니까?)

103026 #1 시리떡. 제사해 먹젠 허민 예를 들렁, 혼 말이건 두말이건 켜 이젠, 이젠 기계방이 시난이주. 저 물고랑에 강 막 곁양 사름덜 빌영 강 곁양, 체로 치명 훑은 건 또 곁곡 경헛당 집이 왕 이젠 물 께왕 솔솔 막 밀영 시리에 청, 시리에 징징이 낱 혼 도리<sup>77)</sup> 놓민 숨메 낱, 또 좁쌀 ㄱ루 혼 도리 놓민 또 징 놔.(시루떡.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말이든 두 말이든 물에 담갔다가 이젠, 이젠 공장이 있으니까이지. 저 연자매에 가서 막 갈아서 사람들 빌려서 가서 갈아서, 체로 치면서 굵은 건 또 갈고 그랬다가 집에 와서 물 끓여서 살살 막 밀면서 시루에 찌서. 시루에 켜켜이 놓고 한 ‘도리’ 놓으면 고물을 놓아서, 또 좁쌀 가루 한 ‘도리’ 놓으면 또 켜를 놔.)

103026 @ 예.(예.)

103026 # 게민 멧 징 놓민 이젠 시리차 들렁 솟디 강 영 놔이. 솟디 강 영 놓민은, 이 시리가 영 놓민 요 바우 이젠 밀ㄱ루든 무시걸로든 요 바울 짐 못 나게 막아.(그러면 몇 켜 놓으면 이젠 시루째 들어서 솥에 가서 이렇게 놔. 솥에 가서 이렇게 놓으면, 이 시루가 이렇게 놓으면 요 가장자리 이젠 밀가루든 무엇으로든 요 가장자릴 짐 못 나게 모두 막아.)

103026 @ 예.(예.)

103026 # 일론 불 숨고 게민 이디 짐 올라가민 솥두까리 톱 더꺼불민 그 안에서 막. 어떻허당 옛날은 숭보면은 좁쌀떡 치당 숭보면은 그냥 일로 터정 팡팡 절로 터정 짐이 팡팡허민 그놈으 떡이 안 돼여. 설어. 요 짹은 익고 요 짹은 설고. 게민 떡이 안 돼여. 게민 떡 맛도 엇어.(이리론 불 때고 그러면 여기 짐 올라오면 솥두경

77) ‘도리’는 둘레를 둘게 겹을 쌓은 것으로 ‘두레’의 제주어다,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다

톡 떨어버리면 그 안에서 막. 어떻게 하다가 옛날은 흥보면 좁쌀떡 찌다가 흥보면 그냥 이리로 터져서 팡팡 저리로 터져서 김이 팡팡하면 그놈의 떡이 안 돼. 설어. 요쪽은 익고 요쪽은 설고. 그러면 떡이 안 돼. 그러면 떡도 맛도 없어.)

103026 @ 밀가루로 영 막는 건 무신거엔 굴아?(밀가루로 이렇게 막는 건 무엇이라고 말해?)

103026 #1 이거 솟이면은 이거 시리, 떡을 논 거난 영 놓면은 이거 막아사 솟 안에서 물 들러키는 것이 공기가 안 나가사 떡드레만 올 거 아니? 젠디 그놈의 것이 어떻 허당 숭을 보민 일로도 터정 막당 보민 일로 터지고 절로 터지고 허민 그놈의 떡이 안 돼여. 맛도 었어.(이거 솟이면은 이거 시리, 떡을 놓은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거 막아야 솟 안에서 물 날뛰는 것이 공기가 안 나가야 떡에만 올 거 아니? 그런데 그놈의 것이 어떻게 하다가 흥을 보면 이리로 터져서 막다가 보면 이리로 터지고 저리로 터지고 하면 그놈의 떡이 안 돼. 맛도 없어.)

103026 @ 친떡 말고 또 다른 떡도 허주예?(시루떡 말고 다른 떡도 하지요?)

103026 #1 오메기, 흐린좁쌀로 해영 오메기.(오메기, 차좁쌀로 해서 오메기.)

103026 @ 오메긴 술 허는 거 아니?(오메기는 술 하는 거 아니?)

103026 #1 아니, 아니, 이제 저 시에도 강 보민 오메기떡, 오메기떡 허지 안헤게. 오메기떡이 아니고 건 그냥 찹, 그냥 졸헤네 쑥 낱 오메기떡이엔 햄선게마는. 그냥 오메기떡이 있주.(아니, 아니, 이제 저 시에도 가서 보면 오메기떡, 오메기떡 하지 않니. 오메기떡이 아니고 그건 그냥 찹, 그냥 쌀해서 쑥 놔서 오메기떡이라고 하던데.)

103026 @ 건 어떻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3026 #1 영 허영 그디 양꼬<sup>78)</sup> 담아근에 영 허민 그거 오메기떡 허영 팻 숭앙 숭메 멘들앙 이젠 그 오메기떡 요만씩헌 거를 꼭꼭 누르뜨민 팻 무쳐지민 것이 오메기, 오메기햄지.(이렇게 해서 거기 소 담아서 이렇게 하면 그거 오메기떡 해서 팔 삶아서 소 만들어서 이젠 그 오메기떡 요만씩한 거를 꼭꼭 누르면 팔 묻혀지면 그것이 오메기, 오메기하고 있지.)

103026 @ 그건 이제 허는 거영 똑ㄴ파? 옛날도 지금 모양으로 험니까?(그건 이제 하는 거랑 똑같아? 옛날도 지금 모양으로 합니까?)

103026 #1 옛날 거나 이제 오메기엔 이름 지영. 재료만 틀려. 좁쌀 흐린 것이 어디 서? 기냥 저 찹줄이라도 헨 쑥에 낱 푼리롱허게 헨에 좁쌀색, 흐린좁쌀 색깔 멘들앙 오메기, 오메기햄주. 요자기도 오메기 먹어신디 그 오메기 속엔이 팻으로만 중국산 팻덜이난 싸난산디. 오메기 소곱에도 숭메 많이 놓고 이 껍데기에도 흐랑허게 낱 꼭꼭꼭꼭 물어노난 멘딱 숭메 천지. 게난 우리는 못 먹으크라고, 숭메가 너미한.(옛날 거나 이제 오메기라고 이름 지어서. 재료만 달라. 좁쌀 차진 것이 어디 있어? 그냥 저 찹쌀이라도 해서 쑥에 놔서 파르스름하게 해서 좁쌀색, 차좁쌀 색깔 만들어서 오메기, 오메기하고 있지. 요마적도 오메기 먹었는데 그 오메기 속에는 팔

78) '양꼬'는 일본어 'あんこ'에서 온 말로 떡이나 빵의 안에 든 팥을 말한다.

으로만 중국산 팔들이니까 싸니까인지. 오메기 속에 소 많이 넣고 이 쥬데기에도  
흐물흐물하게 놔서 꺾꺾꺾꺾 묻혀놓으니까 모두 고물 천지. 그러니까 우린 못 먹겠  
더라고, 고물이 너무 많아서.)

103026 @ 옛날은 어떻 해놔수과?(옛날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26 #1 옛날은 그자락 안했지. 원 식으로만 이젠 재를 부려서 그냥 돈 숨메  
로만 돈 누루명 꺾꺾 해부난 허고. 우리 해난 오메기는 동골락 허민 요디 양꼬 흐  
꼼 낱 영영허여근에 처 내영 숨메덜이나 꺾꺾꺾꺾 누르뜨민 그자 요만큼은 오메기  
뿐이 돼지. 이제 거덜은 가짜배기야, 멘드는 거, 옛날 멘드는 걸로 허민.(옛날은 그  
렇게 안 했지. 원 식으로만 이젠 재주를 부려서 그냥 모두 고물로만 모두 눌러서  
꺾꺾 해버리니까 하고. 우리 했던 오메기는 동그랗게 하면 요기 소 조금 넣고 이러  
게 이렇게 해서 쪼 내서 고물들이나 꺾꺾꺾꺾 누르면 그저 요만큼은 오메기 모양이  
되지. 이제 것들은 가짜배기야, 만드는 거, 옛날 만드는 걸로 하면.)

103026 @ 옛날은 컷수과? 지금 거보다.(옛날은 컷습니까? 지금 거보다.)

103026 #1 크지. 요만씩 허민, 그자 푹 미쳐가민 흐꼼 납지롱은 허지.(크지. 요  
만씩 하면, 그저 팔 무쳐가면 조금 납작은 하지.)

103026 @ 납작허여, 동고랑 안허고?(납작해, 동그랗지 않고?)

103026 #1 동고락허고 납지록허지. 이제 꺼는 몽골락허지 안허나?(동그랗고 납  
작하지. 이게 거는 몽톡하지 않니?)

103026 @ 예, 동골랑허게 사탕추룩. 옛날 거는 납작허게.(예, 동그랗게 사탕처  
럼. 옛날 거는 납작하게.)

103026 #1 동골락허게 멘들아도 푹을 영 영 미쳐가난 납작헌 게 쥬 거지.(동그  
랗게 만들어도 팔을 이렇게 이렇게 무쳐가니까 납작한 게 쥬 거지.)

103026 @ 오메기떡은 언제 행 먹는 거파?(오메기떡은 언제 해서 먹는 겁니까?)

103026 #1 아무 때라도 행 먹지. 옛날은 명질 때 쥬민 정월명질 쥬민 오메기떡  
도 허지, 골미떡도 허지.(아무 때라도 해서 먹지. 옛날은 명질 때 쥬면 정월명질 쥬  
면 오메기떡도 하지, 골무떡도 하지.)

103026 @ 골미떡은 무신거?(골무떡은 뭐?)

103026 #1 골미떡은 곤쫄ㄱ루로 행이 이제 떡 빼는 것이 골미떡이라. 집에서 손  
으로 만들어. 기계 엇인 때니까.(골무떡은 쌀가루로 해서 이제 떡 빼는 것이 골무떡  
이야. 집에서 손으로 만들어. 기계 없을 때니까.)

103026 @ 떡국허는 떡?(떡국하는 떡?)

103026 #1 응, 그것이 옛날에 골미떡.(응, 그것이 옛날에 골무떡.)

103026 @ 그게 골미떡?(그게 골무떡?)

103026 #1 그게 옛날은 골미떡. 반죽을 만들앙이 요만이 끈으민 영 영 영 영,  
요만 지레기 허민 다 멘들아이. 것이 골미떡. 게민 옛날에는 얼어놓니까 구들에 불  
화리 놓면은이 불화리 재가 돛아이. 그놈으 것이 땅땅허여. 놔두민, 오래 놔두민. 그  
불화리 옆이 재 파뒤근앵에 그놈으 떡을 묻으면 폭삭허게 익영이 톨랑톨랑.(그게 옛

날은 골무떡. 반죽을 만들어서 요만큼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만한 길이 하면 다 만들어. 그것이 골무떡. 그러면 옛날에는 추워서 방에 불화로 놓으면은 불화로 재가 따뜻해. 그놈의 것이 딱딱해. 놔두면, 오래 놔두면. 그 불화로 옆에 재 파서 그놈의 떡을 묻으면 폭삭하게 익어서 말랑말랑.)

103026 @ 재 안 묻어?(재 안 묻어?)

103026 #1 묻어도 그디 더우에 플라불민 푸푸푸푸 할망덜 영혜영 종이로라도 상빠로라도 찢어불민 벗어져. 깨끗인 안 벗어도. 그것이 경행 먹어.(묻어도 거기 더위에 말라버리면 푸푸푸푸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종이로라도 행주로라도 닦아버리면 벗겨져. 깨끗이는 안 벗겨져도. 그것이 그렇게 해서 먹어.)

103026 @ 아.(아.)

103026 # 정월 나민 골미떡이여, 오메기떡이여 그것이 경행. 계민 이 골미떡은 낫다가이 옛날은 메밀묵, 메밀가루가 항 메밀묵으로 이젠 국수 썰어놓민 이제 떡국 허는 식으로 요만씩 썰영 메밀국수에 것도 썰영 놓곡 해. 이제는 신식으로 잘 나와 부난덜 햐주. 옛날은 영 영 멘들아근에 그자 요것보다 햐끔 ㄴ늘게 영 영혜가지고 멘들민 요 지레기씩은 행 다 멘들아.(정월 나면 골무떡이다, 오메기떡이다 그것이 굵게 해서. 그러면 이 골무떡은 낫다가 옛날은 메밀묵, 메밀가루가 많아서 메밀묵으로 이젠 국수 썰어놓으면 이제 떡국하는 식으로 요만큼씩 썰어서 메밀 국수에 그것도 썰어서 놓고 해. 이제는 신식으로 잘 나와버리니까 하고 있지. 옛날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저 요것보다 조금 가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면 요 길이 썩은 해서 다 만들어.)

103026 @ 아.(아.)

103026 # 멘들앙 이제 솟디 강 첫당 다 먹지 못허지. 식으면은 팡팡해 갈거민 이젠 구들에덜 심심혜영 놀레덜 왕 앓이면은 불화리 영영 밀워똥 햐 ㄴ더레 밀어똥 영 무드곡, 또 이레 지쳐비어똥 옆더레도 하나 묻곡 허면 두개 묻어져. 그 속에서 흐랑허여. 재로 익어, 더운 짐에.(만들어서 이제 술에 가서 찢다가 다 먹지 못하지. 식으면 딱딱해 가면 이젠 방에들 심심해서 놀러들 와서 앉으면 불화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두고 한 끝으로 밀어두고 이렇게 묻고, 또 이리 지쳐두고 옆으로도 하나 묻고 하면 두 개 물을 수 있어. 그 속에서 흐물흐물해. 재로 익어, 더운 짐에.)

103026 @ 감주도 좁쌀로 허는 거짜?(감주도 좁쌀로 하는 겁니까?)

103026 #1 감주 골 골아냥. 좁쌀로 해도 좋주. 보리로도 허고 좁쌀로도 해, 감주.(감주 옛기름 갈아놓아서. 좁쌀로 해도 좋지. 보리로도 하고 좁쌀로도 해, 감주.)

103026 @ 술도 담가? 좁쌀로?(술도 담가? 좁쌀로?)

103026 #1 좁쌀로 술허지. 보리로도 술 허고 다 햐 수 있어. 다.(좁쌀로 술 하지. 보리로도 술 하고 다 햐 수 있어. 다.)

103026 @ 보통 많이 하는 건?(보통 많이 하는 건?)

103026 #1 옛날에는이 이제 술이 안 냇이 집이서만 술장시덜 행 막 저 도시에 서 나와근에 술조사 왓젠 행 곱지레 술주시 곱지레 다 허는디. 거 허젠 허민 겐보



리 굴양이 그 챗망 올라진 것에 그 근 거를 물에 끼얹 속에 다 담아.(옛날에는 이제 술이 안 나서 집에서만 술장사들 해서 막 저 도시에서 나와서 술조사 왔다고 해서 숨기려 지게미 숨기려 다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걸보리 같아서 그 챗바퀴 도라진 것에 그 간 것을 물에 이겨서 속에 다 담아.)

103026 @ 예.(예.)

103026 # 담으민 이제 둥그렁헌 속에 담양 막 듯이게 행 강 옛날은 가맹이 시니까 가맹이텅이에 문영 꼭 누르땡 나민 이놈의 것이 터. 트민 것이 누룩이라야. 이것이 원료가 돼.(담으면 이제 둥그런 속에 담아서 아주 따뜻하게 해서 가서 옛날은 가마니 있으니까 가마니에 묻어서 꼭 눌러 두면 이놈의 것이 떠. 뜨면 그것이 누룩이야. 이것이 원료가 돼.)

103026 @ 예.(예.)

103026 # 게민 그놈의 걸이 뱃디 낡 막 물리워. 그 둥고랑헌 챗망엿 걸 물리왔당 이젠 술은 담젠 허민 이걸 누룩을 막 뺏아. 줍쌀 습양이 바우 막 하영 헤여. 도고리에덜 뺏인 거 이젠 허깅 놓민 향아리 속에 담으민 향아리서 부글락부글락 막 헤여.(그러면 그놈의 것을 벌에 놔서 막 말려. 그 둥그란 챗바퀴의 것을 말렸다가 이젠 술을 담으려고 하면 이걸 누룩을 막 뺏아. 줍쌀 삶아서 가장자리 아주 하애. 함지박에들 뺏은 거 이젠 섞어 놓으면 향아리 속에 담으면 향아리에서 부글부글 막 해.)

103026 @ 예.(예.)

103026 # 경허민 또 메칠 시면은 또 줍쌀 습양 그레 향아리레 또 담아, 하게. 게민 것이 누룩 들어부난에 흐르르허게 만딱 녹아 빠져이. 청 앓아. 청주가 돼여, 우이 것이. 청주가 돼민 이젠 술 다끝 혼 뺏젠 헤여.(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줍쌀 삶아서 그리 향아리에 또 담아, 많게. 그러면 그것이 누룩 들어버리니까 흐르르하게 모두 녹아 빠져. 청 앓아. 청주가 돼, 위의 것이. 청주가 되면 이젠 술 고을 한 되었다고 해.)

103026 @ 예.(예.)

103026 # 술 다끝 혼 뺏젠 헤영 이제 옛날은 웨말치<sup>79)</sup> 솟이 이서. 고소리 앓지는 솟. 고소리 앓정 꺾사 식으로 막 이추룩 헌 옷 닳은 거 누벼당 이 솟 바우를 빙허게 고소리를 영 싸. 베로 경헤노민 베로 빙빙빙 무끄곡 헤영 고소리 앓지민 고소리로 술이 줄줄줄줄 나오민 그것이 술 웨영 막 독주로 나와.(술 고을 한 되었다고 해서 이제 옛날은 ‘웨말치’ 술이 있어. 소줏고리 없히는 술. 소줏고리 안쳐서 아까 식으로 아주 이렇게 헌 옷 같은 거 누벼다가 이 술 가장자리를 빙하게 소줏고리를 이렇게 싸. 베로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 빙빙빙 묶고 해서 소줏고리 없히면 소줏고리 귀때로 술이 줄줄줄줄 나오면 그것이 술이 되어서 아주 독주로 나와.)

103026 @ 예.(예.)

103026 # 게민 불도 부떠. 물 아니 탕 허민. 그것이 술 웅 옛날은 집에서 뺏 술

79) ‘웨말치’는 한 말이 드는 술으로 보통 밥을 해 먹는 술이다.

이, 이추룩 빠는, 공장에서 나오는 술이 엇엇지.(그러면 불도 붙어. 물 안 타서 하면. 그것이 술 되어서 옛날은 집에서 내린 술이, 이렇게 내린, 공장에서 나오는 술이 없었지.)

103026 @ 고소리도 그 이름이 다 이수과? 웃통, 알통 해여?(소줏고리도 그 이름이 다 있습니까? 위통, 아래통 해서?)

103026 #1 웃통 있고, 알통 잇주. 건 물 과아 놓는, 물이 자꾸 과아줘야 돼. 영 앓지민 웃통에 물이 놔.(위통 있고, 아래통 있지. 그건 물 과아 놓는, 물을 자꾸 과아줘야 돼. 이렇게 엇히면 위통에 물을 놔.)

103026 @ 물은 얼마만 과아줘야 해?(물은 얼마만큼 과아줘야 해?)

103026 #1 그 우린 두린 때라부난 잘 몰르는데 이 혼 노민 물이 좇아불엄신디 굽어된 또 새물사 난 험신디사 경해가민 고소리코로 췌 바트민 술이 졸졸졸졸 내려. 술이 숟가락으로 영 반앙 어른덜 맛보는 거 영 허민이 그냥 불 부뜰 거 닙아, 독해.(그 우린 어린 때라서 잘 모르는데 이만큼 놓으면 물이 좇아버리는지 굽어두고 또 새물이야 놓아서 하는지 그렇게 해 가면 소줏고리 귀때로 병 받치면 술이 졸졸졸졸 내려. 술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받아서 어른들 맛보는 거 이렇게 하면 그냥 불 붙을 거 과아, 독해.)

103026 @ 술 졸졸 나오는 건 고소리코?(술 졸졸 나오는 건 소줏고리 귀때?)

103026 #1 응, 코.(응, '코'.)

103026 @ 밑에 뭐 받아야주예?(밑에 뭐 받쳐야지요?)

103026 #1 쪼끌락, 그땐 그것에 들른 췌이 이서 또이. 주둥이 이만큼은 너브고 이딘 요만큼은 현 것이 이서. 고소리 코에 영 대민 물이 요레 그 단지레 쫄쫄 빠져. 다 처지면은 그걸 빠부는 거 닙아.(조그만, 그땐 그것에 딸린 병이 있어 또. 주둥이 이만큼은 넓고 여긴 요만큼은 한 것이 있어. 소줏고리 귀때에 이렇게 대면 물이 요리로 그 단지레 졸졸 내려. 다 찌지면 그걸 빼버리는 거 과아.)

103026 @ 어머니 허는 거 볍디가, 할머니도 해납디가?(어머니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할머니도 했었습니까?)

103026 #1 안 해낫어, 우리. 어머니 허는 거 본 거지.(안 했었어,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본 거지.)

103026 @ 할머니네 때도 안 해낫구나예. 옛날에는 잔치허젠 허민 술 빠져 뭐예?(할머니네 때도 안 했었군요. 옛날에는 잔치하려고 하면 술 고랴, 뭐요?)

103026 #1 옛날이주, 우리는. 우리 잔치할 땐 신식 나부난 문딱 사단 헛주. 박스로 사단 다 헛주.(옛날이지, 우리는. 우리 잔치할 땐 신식 나버리니까 모두 사다가 했지. 박스로 사다가 다 했지.)

103026 @ 할머니네 결혼할 때. 아덜폴 때 말고.(할머니네 결혼할 때. 아들 결혼할 때 말고.)

103026 #1 몰라, 어떻사 해신디. 어떻네덜이 해부난예. 아, 그땐 빠단 해실 거라. 빠 해실 거라, 그때는. 그땐 이제ㄴ치 왕창 허도 안허고 그자 소소허게덜 허난

뻔 해서.(몰라, 어떻게야 했는지. 어머니네들이 해버리니까. 아, 그땐 고아다가 했을 거야. 고아서 했을 거야, 그때는. 그땐 이제처럼 왕창 하지도 않고 그저 소소하게들 하니까 고아서 했어.)

103026 @ 예.(예.)

103026 # 우리 군섭이네 풀 때가 오레비네 풀 때가 어머니가 술 해영 탕기단 들런. 과료 내명 해났어. 아덜꼭는디 술 해영 허젠 허단에 도청에서 나완에 막 곱지 단 봐도 ㅁ시락 속에 묻은 것도 다 홈과내명. 옛날은 정해여. 그 술 다까난 주시는 이 도새기 주젠이 돛항<sup>80)</sup> 이서, 저디.(우리 군섭이네 결혼할 때가 오라비네 결혼할 때가 어머니가 술 해서 다니다가 들켰어. 과태로 내면서 했었어. 아들 장가보내는데 술 해서 하려고 하다가 도청에서 나와서 막 숨기다 봐도 까끄라기 속에 묻은 것도 다 파내면서. 옛날은 그랬었어. 그 술 고아서 지게미는 돼지 주려고 ‘돛항’ 있어, 저기.)

103026 @ 돛항?(‘돛항’?)

103026 #1 돛항 이서. 궂인 물 놓는 거. 도새기 궂인 물 놓는 거. 게문이 그런디 강 그런 사름들도 다 조사허영 이것가 열로 나온 거넌 허민 발표가 다 나는 거라. (‘돛항’ 있어. 궂은 물 놓는 거. 돼지 궂은 물 놓는 거.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그런 사름들도 다 조사하면서 이것이 어디로 나온 거냐고 하면 발표가 다 나는 거야.)

103026 #2 돈 벌젠 허민 벨 지랄 다 해.(돈 벌려고 하면 벨 지랄 다 해.)

103026 #1 돈 벌젠 헐 아니고 츠레가 그추룩 헛주.(돈 벌려고 할 아니고 차레가 그렇게 했지.)

103027 @ 조찍, 조 털어나민 그 낭뎡이.(조짚 조 떨어나면 그 즐기.)

103027 #1 조칩.(조짚.)

103027 @ 조칩은 무신거에 씹니까?(조짚은 뭘에 씹니까?)

103027 #1 소 먹이지.(소 먹이지.)

103027 @ 건 췌 맥여?(그건 소 먹여?)

103027 #1 몰도 먹고, 췌도 먹고. 게나민 그 대가리 남은 것도 그 조름더레 퓌 아불민 거름이 돼는 거고. 췌거름, 몰거름.(말도 먹고, 소도 먹고. 그리고 나면 그 대가리 남은 것도 그 뒤로 깔아버리면 거름 되는 거고. 쇠두엄, 말 거름.)

103027 @ 조는 껌데기 엇수과?(조는 껌데기 없습니까?)

103027 #1 조 무사 껌데기 엇어? 조 두드려 나민 조봉뎡이<sup>81)</sup>엔 행, 조봉뎡이엔 행 도새기 건 트로 헛당 도새기 맥여. 도새기 맥여도 건 거칠어. 거칠어도 건 도새기 맥여, 큰 도새기덜.(조 왜 껌데기 없어? 조 두드리고 나면 ‘조뎡이’라고 해서. ‘조봉뎡이’라고 해서 돼지 그것은 따로 했다가 돼지 먹여. 돼지 먹여도 그것은 거칠어. 거칠어도 그것은 돼지 먹여. 큰 돼지들.)

103027 @ 조 껌데기는 풍뎡이.(조 껌데기는 풍뎡이.)

80) ‘돛항’은 돼지에게 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로 대개는 물이 새지 않는 헌 항아리를 쓴다.

81) ‘조봉뎡이’는 조를 방아에서 찼을 때 나오는 걸쭉질이다. ‘조풍뎡이, 붕당체’라고도 한다.

103027 #1 봉탱이.(‘봉탱이’.)

103027 @ 봉탱이. 조채는?(‘봉탱이’. 좇겨는?)

103027 #1 채가 또 잇주, 건.(겨가 또 있지, 그건.)

103027 @ 채허고 봉탱인 트난 거짜?(겨하고 ‘봉탱이’는 다른 겁니까?)

103027 #1 조채는 그냥 이제 영 도께로 두드려 나민 나온 거가 조채고 무시거  
긫사.(조겨는 그냥 이제 이렇게 도리께로 두드리고 나면 나온 것이 좇겨고 무엇 아  
까.)

103027 @ 봉탱이.(‘봉탱이’.)

103027 #1 봉탱이고 조채는 기계 강 골아난 것이 조채.(‘봉탱이’고 좇겨는 기계  
가서 갈아난 것이 좇겨.)

103027 @ 밀고랑에 강 골앙 나온 것이 조채.(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나온 것이  
좇겨.)

103027 #1 응, 조채.(응, 좇겨.)

103027 @ 그건 무시거에 씹니까?(그건 뭐에 씹니까?)

103027 #1 거 도새기 것도.(그거 돼지 그것도.)

103027 @ 것도 도새기.(그것도 돼지.)

103027 #1 이것에 허꺼 이제. 이 봉탱이에 ㄴ찌 허꺼. 공장에서 나온 거는 조채  
가 좀질고 이디서 나온 거는 조깅데기를 뺏겨진 거니까 훑어, 거칠어. 게도 채로 청  
좀질게, 얼멩이 선게. 얼멩이로 청 아래 거.(이것에 섞어 이제. 이 ‘봉탱이’에 같이  
섞어. 공장에서 나온 거는 좇겨가 잘고 여기서 나온 거는 조 깍데기를 뺏겨진 거니  
까 굵어, 거칠어. 그래도 채로 쳐서 잘게, 어레미 있던데. 어레미로 쳐서 아래 것.)

103027 @ 경행 도새기안티 주고. 조 낭땡인, 조찍은?(그렇게 해서 돼지에게 주  
고. 조 대는, 조짚은?)

103027 #1 툴 소, 쉼돌.(말 소, 소말.)

103027 @ 것도 버리는 게 엇구나예?(그것도 버리는 게 없군요.)

103027 #1 버림을 어디 강 버려? 정 안허민 소 안 질루는 사름은 불도 솜양 밥  
도 행 먹고. 놈의 조침도 강 사당 이녁 출허젠 사옴도 허고 경 안헌 사름은 진을커  
못 해오는 사름은 밥행 먹젠 허민 조침으로라도 불솜양 밥헐 거난 불도 솜고.(버리  
기는 어디 가서 버려. 그렇지 앓으면 소 안 기르는 사름은 불도 때서 밥도 해서 먹  
고. 남의 조짚도 가서 사다가 자가 끌하려고 사오기도 하고 그렇지 앓은 사름은 땀  
감 못 해오느 사름은 밥해서 먹으려고 하면 조짚으로라도 불 때서 밥할 거니까 불  
도 때고.)

103027 @ 응. 쉬엇당 허카마썬?(응. 쉬었다고 할까요?)

103027 #1 무시거 아이고 다 골앗저.(무엇 아이고 다 말했다.)

103048 @ 할머니 보리허고 조베끼 안 해수다. 콩도 해사 돼고 산뒤도 해사 돼  
고.(할머니 보리하고 조박에 안했습니다. 콩도 해야 되고 밭벼도 해야 되고.)

103048 #1 산된 우리 안 해난.(밭벼 우리 안했었어.)

103048 @ 이 동넨 산뒤 안 험니까?(이 동넨 밭벼 안 험니까?)

103048 #1 허는 사름은 해도 우린 안 해반.(하는 사람은 해도 우린 안 해봤어.)

103049 @ 감저도 해야 돼고.(감자도 해야 되고.)

103049 #1 감전 해놔어.(감자는 했었어.)

103067 @ 메밀도 해사고.(메밀도 해야 되고.)

103067 #1 메밀도 혼 해 갈아놔주만은 메밀 헨 그냥 풀아부난.(메밀도 한 해 갈았었지만은 메밀 해서 그냥 팔아버려서.)

103067 @ 농사짓는 거만 근젠해도 메칠을 곱아살 거 다향.(농사짓는 거만 말하려고 해도 며칠을 말해야할 거 같아.)

103067 #1 아이고, 나 골치 아파.(아이고, 나 골치 아파.)

103067 #2 선택을 잘 했고. 우리 할망 콤포헨 사름이로고. 나도 ㅁ치 살아도 육십 년 이상 살아도 이추록 헨 줄 몰랐어.(선택을 잘 했고. 우리 할머니 꼼꼼한 사람이야. 나도 같이 살아도 육십 년 이상 살아도 이렇게 한 줄 몰랐어.)

103067 #1 이제 이층에 빵집 삼촌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양 이모님 나이에 간수술해 오난양 수술허여오는 즉시로 노실해봅디다, 이몬 어떻 허코 허곤데 어떻허느니 죽지 안허민 노실허나 어떻허나 허주, 어떻 허느니?, 삼촌은 노실헐 거 안 다향. 요 이층집이 어머이 스촌이라. 이몬양 우리 어머니 수술해오난 그냥 즉시로 노실해봅디다, 나이가 한에 수술해부난 마추 기간이 오래 살아부난에. 수술해부난 어머은양 그냥 노실해봅디다. 이몬 노실헐직 안허우다 허곤데 이모엔 안 헐 리가 시냐 허명 해신디.(이제 이층에 빵집 삼촌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요 이모님 나이에 가서 수술해 오니까요 수술해 오는 즉시로 노망해 버리더라고요, 이모는 어떻게 할까 하길래 어떻게 하니 죽지 않으면 노망하나 어떻게 하니 하지, 어떻게 하니?, 삼촌은 노망할 거 안 같아. 요 이층집이 어머니가 사촌이야. 이모는요 우리 어머니 수술해 오니까 그냥 즉시로 노망해버리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수술해버리니까 마취 기간이 오래 되어서. 수술해버리니까 어머니는요 그냥 노망해버리더라고요. 이모는 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길래 이모라고 안 할 리가 있니 하면서 했는데.)

103067 @ 아직 정정허우다. 기억도 잘하시고 말도 잘허고. 옛날 것도 잘 생각해내고.(아직 정정합니다. 기억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고. 옛날 것도 잘 생각해내고.)

103067 #1 생각은 무신거 입으로 나오는 대로 동더레 서더레 허깅 곱암주.(생각은 뭐 입으로 나오는 대로 동으로 서로 섞어서 말하고 있지.)

## 콩농사

103029 @ 이번엔 콩 농사를 지어보게예. 콩농사를 할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이번엔 콩 농사를 지어보지요. 콩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전이논이 콩밭디 비료를 안 허는디 이제는 비료를 허여이.(전에는 콩밭에 비료를 안 하는데 이제는 비료를 해.)

103029 @ 비료허는 건 소용 엇고 옛날 거, 절기 좇앙.(비료하는 건 소용 없고

옛날 거 절기 찾아서.)

103029 @ 그냥 콩만 갈아.(그냥 콩만 갈아.)

103029 #1 절기 좇앙.(절기 찾아서.)

103030 @ 언제 갑니까?(언제 갑니까?)

103030 #1 것이 어느제파? 하지가 어느 들에 갑니까?(그것이 언제입니까? 하지가 어느 달에 갑니까?)

103030 #2 월력 다 찢어부난.(달력 다 찢어버려서.)

103030 #1 유월 그믐 어디 텔 겨우다.(유월 그믐 어디 텔 겁니다.)

103030 @ 유월 이십이일 하지.(유월 이십이일 하지.)

103030 #1 유월 무시거엔 허난 짐작 허쿠다. 하지가이 조 불리는 식으로이 오널 널 하지면은이 오늘부터 갈 수도 있고 하지 넘영 삼일까지 갈 수 있고이 하지 넘영 오래가면이 콩낭 이만이 날 거민 요만베끼 안 나. 쫄라.(유월 무엇이라고 하니까 짐작 하겠습니까. 하지가 조 밝는 식으로 오늘널 하지면 오늘부터 갈 수 도 있고 하지 넘어서 삼일까지 갈 수 있고. 하지 넘어서 오래가면 콩 나무가 이만큼 날 거면 요만큼 밖에 안 나. 쫄아.)

103030 @ 하지 전후 해 가지고.(하지 전후 해 가지고.)

103030 #1 하지를 중심 잡앙 콩을 갈아.(하지를 중심 잡아서 콩을 갈아.)

103030 @ 조는 유월절<sup>82)</sup>.(조는 ‘유월절’.)

103030 #1 유월절 전 삼일, 후 삼일.(‘유월절’ 전 삼일, 후 삼일.)

103030 @ 유월절은 언제마씨?(‘유월절’은 언제예요?)

103030 #2 월력 엇어부난 알아지크라. 다 찢어부난.(달력 없어버리니까 알 수 있겠어. 다 찢어버리니까.)

103030 #1 음력 오월돌일 거라. 콩은 하지를 중심 삼앙, 조는 유월절을 중심 잡앙 전 삼일 후 삼일.(음력 오월일 거야. 콩은 하지를 중심 삼아서, 조는 유월절을 중심 잡아서 전 삼일 후 삼일.)

103030 #2 조허고 그런 건 콩허고는 전 삼일 후 삼일 허고. 보리는 상관 엇고.(조하고 그런 건 콩하고는 전 삼일 후 삼일 하고. 보리는 상관 없고.)

103030 #1 보리는 아무 때 갈아도 돼여.(보리는 아무 때 갈아도 돼.)

103031 @ 콩밭디도 걸름을 험니까?(콩밭에도 거름을 험니까?)

103031 #1 옛날은 엇어났어. 콩 골아나민 맛이 건다허영 듯 해 보리 갈젠 콩 갈아, 역불로.(옛날은 없었었어. 콩 갈아두면 밭이 걸다 해서 다음 해 보리 갈려고 콩 갈아, 일부러.)

103031 @ 아, 역불로.(아, 일부러.)

103031 #1 걸로 콩 그르에 갈민 보리도 좋곡 허난 그걸 욕심으로 갈았어. 옛날은 콩을 주로 아니 갈았어.(그걸로 콩 그루터기에 갈면 보리도 좋고 하니까 그걸 욕심으로 갈았어. 옛날 콩은 주로 안 갈았어.)

---

82) ‘유월절’은 7월7일 소서 전후를 이르는 절기이다.

103031 @ 아, 콩을 안 갈았어.(아, 콩을 안 갈았어.)

103031 #1 이제는 콩을 대목 가는데 공판해 불곡 무시거 해부난 헐디. 옛날은 정 안 헐어. 메주콩덜 허고 무시거헐 허주.(이제는 콩을 주로 가는데 공판해 버리고 뭘 해버리니까 한테. 옛날은 그렇게 안 헐어. 메주콩들 하고 무엇해서 하지.)

103031 @ 영 옆이 에염에만 흐끔 갈아, 먹을 걸로?(이렇게 옆에 가장자리에만 조금 갈아, 먹을 걸로?)

103031 #1 갈아도 타당이 두부도 허곡 두부칩이도 가곡 허주게. 저 두부도 허곡 이 우리 아이 풀젠 허민 콩 열 말은 해야 돼. 집에서 두부 허젠 허민. 두불 허젠 허민 콩을 열 말씩, 아홉 말씩 삶앙 두불 허젠 허민 사람이 집이 하나라? 그 두부 허젠 허민 짜곡 손으로 다 주머니로 다 짜곡 헐 거라 부난.(갈아도 따다가 두부도 하고 두부집에도 가고 하지. 저 두부도 하고 우리 아이 결혼시키려고 하면 콩 열 말은 해야 돼. 집에서 두부 하려고 하면. 두부를 하려고 하면 콩을 열 말씩, 아홉 말씩 삶아서 두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집이 하나야? 그 두부하려고 하면 짜고 손으로 다 주머니 다 짜고 할 거라 버리니까.)

103031 @ 아.(아.)

103031 # 경허멍 해나난, 그땐 콩을 주로 하영 안 갈아, 이제 ㄴ추록. 이제 콩은 두부 잘 안돼여이. 옛날 팔월베<sup>83)</sup>[팔월베]는 콩이 두부도 하곡 맛도 싯는디 이제 준자리<sup>84)</sup>엔 헌 콩은 우리 집이서는 두불 못헤여.(그렇게 하면서 했었기에. 그땐 콩을 주로 많이 안 갈아, 이제처럼. 이제 콩은 두부 잘 안 돼. 옛날 ‘팔월베’는 콩이 두부도 많고 맛도 있는데 이제 ‘준자리’라고 하는 콩은 우리 집에서는 두부를 못해.)

103031 @ 아까 팔월베가 콩 종류파?(아까 ‘팔월베’가 콩 종류입니까?)

103031 #1 응, 그때 우리 두린 때 듣는 말이 팔월베, 팔월베 해났어.(응, 그 때 우리 어린 때 듣는 말이 팔월베, 팔월베 했었어.)

103032 @ 콩씨는 어떻 뿌릅니까?(콩씨는 어떻게 뿌릅니까?)

103032 #1 콩씨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거.(콩씨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거.)

103032 @ 그냥 빼어?(그냥 뿌려?)

103032 #1 빼영이 이런 디, 켜켄헌 디 빼영 갈아 불민 다 묻어져 불민 갈앙 나와 불민 끝.(뿌려서 이런 데, 편편한 데 뿌려서 갈아버리면 다 묻어져 버리면 갈아서 나와 버리면 끝.)

103032 @ 먼저 갈앙 빼는 게 아니고 켜 다음에 갈아?(먼저 갈아서 뿌리는 게 아니고 뿌린 다음에 갈아?)

103032 #1 콩씨가 묻어지주. 묻어지민, 다 갈민 그냥 집이 와부는 거.(콩씨가 묻히지. 묻히면, 다 갈면 그냥 집에 와 버리는 거.)

83) ‘팔월베’는 콩의 하나로 색깔이 노란 콩으로 주로 기름을 짜거나 콩나물을 재배하는데 쓰는 콩이다.

84) ‘준자리’는 제주의 재래종 콩으로 알이 작아서 ‘쭈콩’이라고도 한다. 콩나물을 만드는 콩이라고 해서 ‘주름콩’이라고도 부르고 두부를 만드는 콩이라고 해서 ‘똥비콩’이라고도 했다.

103033 @ 게민 콩밭의 검질은 몇 번 맵니까?(그러면 콩밭의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33 #1 신 대로 메어. 두 번 메메. 메기는 두 번, 엇이민 혼 번 메영 내불고.(있는 대로 매. 두 번 매지. 매기는 두 번, 없으면 한 번 매어서 내버리고.)

103033 @ 콩밭 매는 게 힘듭니까?(콩밭 매는 게 힘듭니까?)

103033 #1 쉬와. 다른 검질 맴보단 쉬와. 다른 딴이 모종덜이 좇으니까 그 새에 거 뽑젠 허민 굿는디 콩밭은 드물어 부난 콩밭 메기는 쉬와. 겨고 콩이 높아불민 검질이 재기 크지 못허민 검질도 더러 죽어부는 수도 셔. 게난 콩밭 검질은 쉬와. 하영도 메고.(쉬워. 다른 김매기보다 쉬워. 다른 데는 모종들이 좇으니까 그 사이의 거 뽑으려고 하면 나쁜데 콩밭은 드물어 버리니까 콩밭 매기는 쉬어. 그리고 콩이 높아버리면 김이 빨리 크지 못하면 김이 더러 죽어 버리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콩밭 김은 쉬워. 많이도 매고.)

103033 @ 보통 콩밭 검질은 여름에 더울 때 맬 거 아니파예?(보통 콩밭 김은 여름에 더울 때 맬 거 아닙니까요?)

103033 #1 응, 더운 때. 마찬 가지. 조허고 콩은 마찬가지, 더운 때.(응, 더운 때. 마찬가지. 조하고 콩은 마찬가지, 더운 때.)

103034 @ 콩밭되는 무신 검질이 하영 납니까?(콩밭에는 무슨 김이 많이 납니까?)

103034 #1 그거라 여름 검질로이. 감낭풀허고이 복풀허고. (그거야 여름 김으로. 땅빈대하고 깨풀하고.)

103034 @ 복풀?(깨풀?)

103034 #1 응, 복풀허고 감낭풀허고 국제기풀이엔 현 것도 셔. 조팍디도 국제기풀이 잘 나주만은.(응, 깨풀하고 땅빈대하고 ‘국제기풀’이라고 한 것도 있어. 조밭에도 ‘국제기풀’이 잘 나지만은.)

103034 @ 국제기풀, 감낭풀 또 하나 뭐?('국제기풀', 땅빈대 또하나 뭐?)

103034 #1 쉼비눔.(쇠비름.)

103034 @ 이디도 쉼비눔 하영 나?(여기도 쇠비름 많이 나?)

103034 #1 여름엔.(여름엔.)

103034 @ 쉼비눔 또.(쇠비름 또.)

103034 #1 감낭풀.(땅빈대.)

103034 @ 감낭풀, 국제기풀, 쉼비눔 또? 아까 뭐?(땅빈대, ‘국제기풀’, 쇠비름 또? 아까 뭐?)

103034 #1 복풀, 복풀. 복풀은이 잘도 굿어<sup>85</sup>.(깨풀, 깨풀. 깨풀은 잘도 굿어.)

103034 @ 어떤 풀이 쉼 메기 굿입니까?(어떤 풀이 제일 매기 굿습니까?)

103034 #1 국제기풀이, 요건 매기 굿어.(‘국제기풀’이, 요건 매기 굿어.)

103034 @ 복풀이 매기 굿어?(복풀이 매기 굿어?)

85) ‘굿다’ 표준어에서 ‘날씨가 나쁘다, 언짢고 나쁘다’의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힘들다는 뜻으로 쓰였다.



103034 #1 그냥 영 매당 보민 복기 모지려져 불민 글로 그놈으 풀이 나. 그 굽을 안 매면은이 또 검질이 나. 나 야개기 못영 너네 집 지동굽 보켄 헌텐 허여. 할망덜, 옛날 할망덜.(그냥 이렇게 매다가 보면 ‘복기’ 잘라져 버리면 그리로 그놈의 풀이 나. 그 뿌리를 안 매면 또 김이 나. 나 목 잘라서 너희 집 기둥뿌리 보겠다고 한다고 해.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103034 @ 무신거 혼 번 더 곱아봅서.(뭐 한 번 더 말해보세요.)

103034 #1 영 검질 매당 보민 글로 톱 톱다져 불어. 두 이파리 새로 톱다져불민 검질 매당 나 야개기 끊어불민 느네 집 지동굽 보켄 헌텐 할망덜 곤는 말 우린 들은 말이라 이거이. 올로 메저시민 아니 날 건디 올로 메저부난 일로 또 부수나분텐 너네 집 지동굽 보켄 헌텐 할망덜 정 곤는 거 들어난.(이렇게 김매다 보면 그리로 톱 떨어져 버려. 두 이파리 새로 떨어져 버리면 김매다가 나 목 잘라버리면 너희 집 기둥뿌리 보겠다고 한다고 할머니들 하는 말. 우린 들은 말이야 이거. 요리로 매어졌으면 안 날 것인데 요리로 매어져 버리니까 이리로 또 다시 나버린다고 너희 집 기둥뿌리 보겠다고 한다고 할머니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었어.)

103034 @ 지동굽 보켜?(기둥뿌리 보겠다?)

103034 #1 너네 집이 망허게 굴켜. 날 못살게 굴어부난. 그 말이라. 검질 하영텐다 허는 말이주. 그때 매어불어시민 아니 날 건디 모지려 부난 또 강 또 땀 거라 부난 너네 집 지동굽 보켄 허는 말이. 굽으로 나와불어시면은 지동굽을 안 볼 건디 또 메레 가젠 허민 놉을 빌어사, 놉을 비나 어떻 헤사 갈 거난 그 말로, 그 말일 거라.(너희 집 망하게 하겠다. 나를 못살게 굴어 버리니까. 그 말이야. 김 많이 맨다 하는 말이지. 그때 매어버렸으면 안 날 것인데 무지려 버리니까 또 가서 또 땀 거라서 너희 집 기둥뿌리 보겠다고 하는 말이. 뿌리로 나와버렸으면 기둥뿌리를 안 볼 것인데 또 매러 가려고 하면 놉을 빌어야, 놉을 빌거나 어떻게 해야 갈 거니까 그 말로, 그 말일 거야.)

103035 @ 콩은 어떻 수확합니까?(콩은 어떻게 수확합니까?)

103035 #1 콩도이 설펀리가 덩방헛잖아이.(콩도 이파리가 무성했잖아.)

103035 @ 설펀리가 뭐?('설펀리'가 뭐?)

103035 #1 이파리. 이파리가 덩방헛당 이제 ㄴ실 들어가민, 그때 똥가면은 설펀리가 다 저불어, 하늬브름 터져 가민. 그때민 콩깍지허고 콩만 설펀랑이, 그때는 호미로도 그냥 딱딱딱딱 팔면은 이제는 장갑 찢부난 그냥 영 영 영 영 딱딱 꺼꺼지고 이.(이파리. 이파리가 무성했다가 이제 가을 들어가면, 그때 되어가면 이파리가 다 저버려, 하늬바람 터져 가면. 그때면 콩깍지하고 콩만 덩그러니, 그때는 호미로 그냥 딱딱딱딱 팔면 이제는 장갑 꺾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딱 꺾을 수 있고.)

103035 @ 호미로 안 행 손으로도 꺾어져?(호미로 안 하고 손으로도 꺾을 수 있어?)

103035 #1 이제 콩은 경행. 옛날도 경허는디 호미로 안 거경 검질 매는 곱갱이

로 똑똑 거꺼낫어. 호미 무깁텐. 호미 그 콩 거꺼나민 호미 못전디어근에 놀 잘 아니 산텐. 검질 때는 골갱이로 거꺼낫어. 이제는 그런 거 었어.(이제 콩은 그렇게 해. 옛날도 그렇게 하는데 호미로 안 꺾어서 김매는 호미로 똑똑 꺾었었어. 낫 무디어 진다고. 낫 그 콩 꺾고나면 낫 못건더서 날 잘 안 산다고. 김매는 호미로 꺾었었어. 이제는 그런 거 없어.)

103035 @ 그걸로 꺾엉.(그걸로 꺾어서.)

103035 #1 거경. 기계가 그때도 었일 때라이. 요것만씩이 무경. 칩 걷어당이 구르마도 벨로 었일 때난 칩 걷어당 이만씩 허영 수랑허게 무끄민 두개 낱 지어와, 집이. 지어 오민 이젠 마당에 인척 식으로 영 가운디 에염에덜 영 두드려 가민 튀어나지 안허게시리. 도끼로 두드려, 짓도.(꺾어서. 기계가 그때도 없을 때야. 요것만 큼씩 묶어서. 칩 걷어다가 달구지도 별로 없을 때니까 칩 걷어다가 이만큼씩 길쭉하게 묶으면 두 개 놔서 저와, 집에. 저 오면 이젠 마당에 아까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가장자리에들 이렇게 두드려 가면 튀어나가지 않게끔. 도리끼로 두드려, 그것도.)

103035 @ 콩깍지를 거끄는 게 아니고 콩 낱을 가정 오는 거파?(콩깍지 꺾는 게 아니고 콩대를 가져 오는 것입니까?)

103037 #1 요거 기면은 요만이 허면 울로 똑똑 거경 집이 왕 두들면 콩대는 소도 주고 불도 숨고 경허는 거.(요것이 그것이면 요만큼 하면 요리로 똑똑 꺾어서 집에 와서 두드리면 콩대는 소도 주고 불도 때고 그렇게 하는 거.)

103037 @ 콩대는 쉼 주고.(콩대는 소 주고.)

103037 #1 불도 숨고.(불도 때고.)

103037 @ 불도 숨고, 콩 안에 있는.(불도 때고, 콩 안에 있는.)

103037 #1 강메기<sup>86</sup>.(깍지.)

103037 @ 강메긴 뭐파?('강메기'는 무엇입니까?)

103037 #1 콩 들어 앓아난, 여물 들어난 집.(콩 들어 앓았던, 여물 들었던 집.)

103037 @ 콩 잘 안된 게 강메기?(콩 잘 안된 게 '강메기'?)

103037 #1 아니, 아니, 웨여도 요 소곱에 잇는 게 강메기.(아니, 아니. 되어도. 요 속에 잇는 게 '강메기'.)

103037 @ 소곱에 잇는 게 강메기?(속에 잇는 게 '강메기'?)

103037 #1 콩 들어앓아난 꺾데기가 강메기.(콩 들어앓았던 꺾데기가 '강메기'.)

103037 @ 콩깍진 무신거라?(콩깍지는 뭐야?)

103037 #1 그게 콩 꺾데기.(그게 콩 꺾데기.)

103037 @ 그게 콩 꺾데기. 콩 강메기가 잇고 콩대가 잇고.(그게 콩 꺾데기. 콩 깍지가 잇고 콩대가 잇고.)

103037 #1 콩대허고 콩강메기허고 메기<sup>87</sup>, 두 가지 메기. 요 소곱에 콩 들어 있

86) '강메기'는 낱알을 떨어낸 조나 통 따위의 빈 이삭을 말한다.

87) '메기'는 물건이 다 되어 없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메기독닥'처럼 쓰이기도 한다.

는거.(콩대하고 콩깍지하고 뿐, 두 가지뿐. 요 속에 콩 들어 있는 거.)

103036 @ 콩으로는 뭐 됩니까?(콩으로는 뭐 됩니까?)

103036 #1 메주허곡, 두부허곡 것베끼 헐 것이 엇지.(메주하고, 두부하고 그것밖에 할 것이 없지.)

103036 @ 콩나물도 키우고.(콩나물도 키우고.)

103036 #1 응.(응.)

103036 @ 콩나물이엔 안 행 제주도말은 무신거봐?(콩나물이라고 안 하고 제주도말은 됩니까?)

103036 #1 콩나물, 콩주름, 콩주름.(콩나물, ‘콩주름, 콩주름’.)

103036 @ 옛날에 콩주름 놓고. 주로 콩주름 놓고, 두부허고, 메주허고.(옛날에 콩주름 놓고. 주로 콩주름 놓고, 두부하고, 메주하고.)

103036 #1 응.(응.)

103036 @ 콩가루도 갈아근에 뭐.(콩가루도 갈아서 뭐.)

103036 #1 국도 끌렁 먹고, 죽도 썰 먹고.(국도 끓여서 먹고, 죽도 쑤어서 먹고.)

103036 @ 아, 콩가루로 죽도 썰 먹고?(아, 콩가루로 죽도 쑤어서 먹고?)

103036 #1 콩죽 썰, 콩죽 썬봐바. 맛이 얼마나 좋나.(콩죽 쑤어서, 콩죽 쑤어 봐. 맛이 얼마나 좋은가.)

103036 @ 콩죽은 흔 번도 안 먹어놔수다. 팥죽은 하영 먹어봐신디.(콩죽은 한 번도 안 먹었었습니다. 팥죽은 많이 먹어봤었는데.)

103036 #1 콩죽이 쿠성 더 좋아. 콩죽 식영, 오늘 썰 먹당 넬랑 데왕 먹으민 콩죽이 더 맛좋아.(콩죽이 고소해서 더 좋아. 콩죽 식어서, 오늘 쑤어서 먹다가 내일랑 데워 먹으면 콩죽 더 맛있어.)

103036 @ 콩국은 하영 먹어놔수다마는.(콩국은 많이 먹었었습니다마는.)

103036 #1 그거 콩국도 허고 것도 허고게. 콩 굴민 콩가루도 돼고 콩죽도 썬먹고 콩국도 끌렁 먹고 갈아당 두부도 만들 수 있고 다헌 거 건. 그 용베끼 안 돼지. 이제는 몰라 준자리콩은 어디레사 가는 건지. 우리 해난 거는 팔월베[팔월베].(그거 콩국도 하고 그것도 하고. 콩 갈면 콩가루도 되고 콩죽도 쑤어 먹고 콩국도 끓여서 먹고 갈아다가 두부도 만들 수 있고 다한 거 그건. 그 용도밖에 안 되지. 이제는 몰라. ‘준자리콩’은 어디로야 가는 건지. 우리 했던 건 ‘팔월베’.)

103036 @ 팔월베, 응. 콩 농사는 밭 하나 다 안 갈고 옆에 먹을 것만 갈기도 됩니까?(‘팔월베’, 응. 콩 농사는 밭 하나 다 안 갈고 옆에 먹을 것만 갈기도 됩니까?)

103036 #1 경허주게, 이녀 먹을 만이게. 요쪽엔 다른 용시고 요쪽엔 나 먹을 만이 예를 들영 메주헐 콩만 요레 갈주, 헐 수도 이서.(그렇지, 자기 먹을 만큼. 요쪽엔 다른 농사고 요쪽엔 나 먹을 만큼 예를 들어서 메주할 콩만 요리 갈지, 할 수도 있어.)

103037 @ 콩대엔 됩니까?(콩대라고 됩니까?)

103037 #1 콩낭, 콩낭.('콩낭', '콩낭'.)  
 103037 @ 콩낭? 옛날 제주도 말은?('콩낭'? 옛날 제주도 말은?)  
 103037 #1 콩고질.(콩깍지.)  
 103037 @ 콩고질, 콩고질은 뭐에 씹니까?(콩깍지, 콩깍지는 뭐에 씹니까?)  
 103037 #1 게메, 소도 맥이고 소 안 맥이는 사람은 불도 때영 밥도 행 먹고.(글세, 소도 먹이고 소 안 먹이는 사람은 불도 때어서 밥도 해서 먹고.)  
 103038 @ 콩 농사 지으면서 어렵거나 기억나는 거 이서마씨?(콩 농사 지으면서 어렵거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103038 #1 엇어. 콩 용서가 허는 중에 쥔 쉬와.(없어. 콩 농사가 하는 중에 제일 쉬워.)  
 103038 @ 콩이 쥔 쉬운 거? 검질도.(콩이 제일 쉬운 거? 김도.)  
 103038 #1 검질도게 두 번 맬 거. 쉬와, 검질 맬도.(김도 두 번 맬 거. 쉬워, 김 맬기도.)  
 103038 @ 검질 맬도 쉽고.(김맬기도 쉽고.)

#### 밭벼 농사

103048 @ 산뒤는 안 해낫수과?(밭벼는 안 했었습니까?)  
 103048 #1 산뒤 우리 안 해봤어.(밭벼는 우리 안 해봤어.)  
 103048 @ 게민 다 사당 먹엇수과? 곤쫄 허젠 허민.(그러면 다 사다가 먹었습니까? 쌀 하려고 하면.)  
 103048 #1 제사 행 먹젠 허민, 옛날은 산뒤쫄이라이 이제는 나룩쫄이라도. 어디 저 손당 어디 가민 쫄덜이 장사가, 오일장에 장사가 와. 쫄이 ㄴ는ㄴ는헌 게 밭강허여, 산뒤쫄은. 밥도 허민 말이 옛날은 곤밥이엔 허여이. 그 곤밥이 살락살락<sup>88)</sup>허여. 제주쫄이.(제사 해서 먹으려고 하면, 옛날은 밭벼쫄이야, 이제는 벼쫄이라도. 어디 저 송당 어디 가면 쫄들이 장사가, 오일장에 장사가 와. 쫄이 가늘가늘한 게 빨개, 밭벼쫄은. 밥도 하면 말이 옛날은 흰밥이라고 해. 그 흰밥이 '살락살락'해. 제주쫄이.)  
 103048 @ 직접 산뒤 안 해나고?(직접 밭벼는 안 했었고?)  
 103048 #1 반안만 먹언.(받아서만 먹었어.)  
 103048 @ 사당 먹언, 반양 먹언.(사다가 먹었어, 받아서 먹었어.)  
 103048 #1 옛날도 산뒤 안 해판.(옛날도 밭벼 안 해봤어.)  
 103048 @ 산뒤 허는 게 어려운가?(밭벼 하는 게 어려운가?)  
 103048 #1 어려운 건 엇어.(어려운 건 없어.)  
 103048 @ 손이 많이 가?(손이 많이 가?)  
 103048 #1 손 많이 간 여기도 엇어. 저 드리손당<sup>89)</sup>더레 가야, 저 서촌더레가 많

88) '살락살락'은 밥에 풀기가 없어서 고들고들한 모양이다.

89) '드리손당'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송당리를 이르는 말이다.

이 해실 거라. 서촌인가, 저 동더레도 어디 바른 디가.(손 많이 가서 여기도 없어. 저 교래 송당으로 가야, 저 서촌으로가 많이 했을 거야. 서촌인가, 저 동쪽에도 어디 바른 데가.)

103048 #2 가당오당 밭으로 하나씩 가는 사름도 이서.(오다가다 밭으로 하나씩 하는 사람도 있어.)

103048 #1 잇긴 이서.(잇긴 있어.)

### 고구마 농사

103049 @ 감전 어떻 허는 거파?(고구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3049 #1 감전 우리도 놔놔지.(고구마는 우리도 놔놔지.)

103051 @ 어떻 놓는 거파?(어떻게 놓는 겁니까?)

103051 #1 고랑을 영, 불치 시면 불치라도 영 놔이.(이랑을 이렇게, 재 있으면 재라도 이렇게 놔.)

103051 @ 그게 걸름이라?(그게 거름이야?)

103051 #1 응, 엇이민 엇인 대로 허고. 감저골을 영 쳐, 영 치민. 감저골 유월절 전이.(응,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만들면. 고구마 줄기를 유월절 전에.)

103050 @ 이것도 유월절 전이.(이것도 유월절 전에.)

103050 #1 유월절 전이만 싱거지민 감저가 더 잘 들어. 더 잘 드는디 유월절 넘어 가민, 유월절 넘영 혼 메칠 돼가민 감저줄, 땅이 너무 더우니까 영 땅에 싱경 놔두민 곱아불어. 죽어불영 잘 안돼어. 사는 건 살아도 곱아불영 잘 안 돼어.(유월절 전에만 심을 수 있으면 고구마가 더 잘 들어. 더 잘 드는데 유월절 넘어 가면 유월절 넘어서 한 며칠 되어가면 고구마 줄기, 땅이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땅에 심어 놔두면 곱아버려. 죽어 버려서 잘 안 돼. 사는 건 살아도 곱아버려서 잘 안 돼.)

103052 @ 감저를 싱그는 거라예, 놔뒀당예 작년에 헨 거 놔뒀당.(고구마를 심는 거예요, 놔두었다요 작년에 한 거 놔두었다가.)

103052 #1 응, 이디 집 안 트든 때는 벵장이엔 헨 디가 이서났어. 벵에라도 무시거 조 두들영 곡메기 허영이 새에 농명이 거 구강<sup>90)</sup> 농젠. 감저를 씨 놀 거 놓아두젠.(응, 여기 집 안 뜯은 때는 벵장이라고 한 데가 있었어. 먹서리에라도 무엇 조 두드려서 ‘곡메기’ 해서 사이에 놓으면서 그거 ‘구강’ 놓으려고. 고구마를 씨 놓을 거 놓아두려고.)

103052 @ 그것이 구강 놓는덴 허는구나예.(그것이 ‘구강’ 놓는다고 하는군요.)

103052 #1 그것이 구강이라이. 그디 영 낫당 이젠 삼월 나가민 또 요 구들만이만 예를 들러서 요 구들만이만 놓아, 씨를. 씨를 놓면 것이 키와가민 그때도 오줌도 주곡이 무시거 흐뎡 주어. 재기 크렌. 경허민 크면은 유월절, 유월절 아니 겪어도

90) ‘구강’은 ‘구감’이라고도 하는데 씨고구마로 심어 거기에 난 새순은 묘종으로 잘라내고 난 씨고구마를 이르는 말이다.

저 땅만 모르지 안허면은이 줄도 질곡 허면은 그냥 끈영 강 고랑 청 낫당 심어.(그것이 '구강'이야. 거기 이렇게 났다가 이젠 삼월 나가면 요 방만큼만 예를 들어서 요 방만큼만 놓아, 씨를. 씨를 놓으면 그것이 커 가면 그때도 오줌도 주고 무엇 조금 줘. 빨리 크라고. 그러면 크면은 유월절, 유월절 안 와도 저 땅만 마르지 않으면 줄도 길고 하면 그냥 잘라서 가서 고랑 만들어 놓았다가 심어.)

103052 @ 줄을 잘랑 강 그 줄을 심어예?(줄을 잘라서 가서 그 줄을 심어요?)

103052 #1 응, 줄을 심어. 게민 줄이 졸라시민 밭이 하영 남고, 줄 졸르민 그 줄을 또 키워. 또 끈영 강 또 그데 강 또 싱거가. 밭 남으민.(응, 줄을 심어. 그러면 줄이 짧았으면 밭이 많이 남고, 줄 짧으면 그 줄을 또 키워. 또 잘라서 가서 또 거기 가서 심어 가. 밭 남으면.)

103052 @ 그냥 잘랑 영 끼우민 댜여?(그냥 잘라서 이렇게 끼우면 댜?)

103052 #1 이것이 낫사 식으로 구강 논 거민 댜여는 진 걸로 끈어와 놔부난 죽은 거 흥끔 메칠 더 키워 허젠 허민 또 끼우민 이젠 안 해난 딜로 또 놓고 놓고 허여.(이것이 아까 식으로 '구강' 놓은 거면 댜여는 긴 걸로 잘라다가 놔버리니까 작은 거 조금 메칠 더 키워서 하려고 하면 또 끼우민 이젠 안 했던 데로 또 놓고 놓고 해.)

103052 @ 그냥 잘랑 강 끼우민 뿌리 나?(그냥 잘라서 가서 끼우면 뿌리가 나?)

103052 #1 것이 감저가 되는 거지. 요만큼만 줄이 난 거 끈으민 요거 둘이 끈영 강 요디 심고, 요디 심고.(그것이 고구마가 되는 거지. 요만큼만 줄이 난 거 자르면 요거 둘이 잘라서 가서 요기 심고, 요기 심고.)

103052 @ 감저줄 놓는 건 경 허는 거구나예. 감저밭디 검질은 어떻 험니까?(고구마 줄기 놓는 건 그렇게 하는 거군요. 고구마밭에 김은 어떻게 합니까?)

103052 #1 것도 마찬가지로. 여름 검질이난. 하진 안허민 씨 엇인 검질 씨가 아닌진 밭은 검질 하지 안허여. 감저줄로 더껴져 불민 날 검질도 잘 못 나. 게민 우이난 것만 텅기명.(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름 김이니까. 많진 않으면 씨 없는 김 씨가 아닌 밭은 김 많지 않지. 고구마 줄기로 덮어져 버리면 날 김도 잘 못 나. 그러면 위에 난 것만 다니면서.)

103053 @ 감저밭디 검질은 몇 번이나 맵니까?(고구마밭에 김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53 #1 것도 마찬가지로. 시민 메고 엇이민 말고. 흥 철이는 메 줘야돼.(그것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메고 없으면 말고. 한 번은 매 줘야 돼.)

103053 @ 한 번은 메고.(한 번은 매고.)

103053 #1 응, 한 번은 매 줘야 돼.(응, 한 번은 매 줘야 돼.)

103053 @ 두 번째는 메도 되고 안 메도 되고.(두 번째는 매도 되고 안 매도 되고.)

103053 #1 응, 시민 메고 엇이민 말고.(응, 있으면 매고 없으면 말고.)

103054 @ 고구마 밭에 특별히 나는 검질은 엇고예?(고구마 밭에 특별히 나는

김은 없고요?)

103054 #1 그 검질이 그 검질이라. 여름 검질이난.(그 김이 그 김이야. 여름 김 아니까.)

103055 @ 이제 고구마 다예.(이제 고구마 다요.)

103055 #1 수확할 거?(수확할 거?)

103055 @ 예, 허젠 허민 어떻허여?(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103055 #1 어떻허여? 줄을, 막 이만씩 줄이 번어가. 게민 호미 앓앙강 그 줄은 만딱 둥그리멍 저 텔레비만씩 둥그리멍 몬 비어낭 이젠 고랑만 둥그렁이 나지 안허나? 그때는 파는 거라. 파근앵이 이레 파멍 놓고, 파멍 놓고.(어떻게 해? 줄기를, 막 이만씩 줄기가 번어가. 그러면 낫 가져가서 그 줄기는 모두 굴리면서 저 텔레비전 만큼씩 굴리면서 모두 베어놔서 이젠 고랑만 텅그러니 나지 않나? 그때는 파는 거야. 파서 이리 파면서 놓고, 파면서 놓고.)

103055 @ 무신거에 놔?(뭘에 놔?)

103055 #1 그때는 뭘에, 푸대도 놓고, 맥, 맥에 어떻어뎡행 모왕 내불엇당 밧디도 흑이나 아니 일어남직 현 딘이 밧디서 감저 ㄴ는 기계가 있어. 요거 닳은 거. 영영 감저 놓민 착착착착 굴아지멍 너풀너풀 썰어정 나와.(그때는 뭘에, 마대도 놓고, 먹서리, 먹서리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아놓고 내버렸다가 밧에도 흙이나 안 일어날 것 같은 데 밧에서 고구마 가는 기계가 있어. 요거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놓으면 착착착착 갈아지면서 너풀너풀 썰어져서 나와.)

103057 @ 빼떼기?(절간고구마?)

103057 #1 응, 빼떼기가. 빼떼기로 폴아. 그냥 받음도 허여, 그때는.(응, 절간고구마가. 절간고구마로 팔아. 그냥 받기도 해, 그때는.)

103057 @ 바로 그냥 밧디서 빼떼기를 만들어?(바로 그냥 밧에서 절간고구마를 만들어?)

103057 #1 응, 기계 빌어만 지민 밧디서 요것이 조 갈아난 디면은이 요딘 감저 놓곡 조 갈아난 디민 흑이 딱 누르떠정 곱닥허지 안 해서? 그때는 그레 감저를 빼떼기를 널어도 벨로 꺾지 안허여. 감저 파난 딘 널면은 감저 공메기 흑을 다 부뜨는다. 요디가 조 불러난 디면은 그디서 그자 영 기계 저만이 현 거 갖다낭 영 감자 드리쳐 가민 착착착착 굴아지멍 요만씩도 끈어지고, 요만씩도 끈어져.(응, 기계 빌리기만 하면 밧에서 요것이 조 갈았던 데면 요긴 고구마 같고 조 갈았던 데면 흙이 딱 눌러져서 곱지 않아? 그때는 그리 고구마를 절간고구마를 널어도 별로 꺾지 않아. 고구마 찢던 데 널면 고구마 ‘공메기’ 흙 다 붙는데. 요기가 조 밧았던 데면 거기서 그저 이렇게 기계 저만큼 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고구마 들이쳐 가면 착착착착 갈아지면서 요만큼씩도 잘라지고, 요만큼씩도 잘라져.)

103056 @ 감저는 어떻 보관합니까?(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056 #1 옛날은이 메탁기 안 현 때는 이 요만인 현 구텡일 파이. 구텡이 파면은 조칩이, 쫓대이 빙허게 영 흑더레 영 세와. 빙허게 막 돛이게. 세우민 아래도 북

삭허게 산뒤집이라도 낄앙 그레 감질 팡팡 놓민 가운딘 영헌 굴뚝ㄱ추룩 영 세와.  
(옛날은 탈곡기 안 한 때는 이 요만큼 한 구덩이를 파. 구덩이 파면 조짚이, 조대  
빙하게 이렇게 흙에 이렇게 세워. 빙하게 막 따뜻하게. 세우면 아래도 폭신하게 발  
벼짚이라도 깔아서 거기 고구마를 팡팡 놓으면 가운데 이렇게 한 굴뚝처럼 이렇게  
세워.)

103056 @ 무신걸 세와?(무엇을 세워?)

103056 #1 무신걸 만들앙이 공기 나가게 영 행 세우민 이 주위덜은 감질 팡팡  
비와. 비왕 이젠 말젠 검질을 영 어우싸. 놀 거 다 놔 놓민. 경허민 느람지엔 헌 거  
몰라?(무엇을 만들어서 공기 나가게 이렇게 해서 세우면 이 주위들은 고구마를 팡  
팡 부어. 부어서 이젠 나중엔 김을 이렇게 둘러싸. 놓을 거 다 놓으면. 그러면 이영  
이라고 한 거 몰라?)

103056 @ 알아.(알아.)

103056 #1 비 안 들게 더끄는 거. 빙허게 더끄곡, 더끄는 주지, 주지 톱 더졌당  
날 존 날이민 올라주고.(비 안 들게 덮는 거. 빙하게 덮고, 덮는 주저리, 주저리 톱  
덮었다가 날 좋은 날이면 열어주고.)

103056 @ 주지만 열어?(주저리만 열어?)

103056 #1 응, 공기 나가게.(응, 공기 나가게.)

103056 @ 느람진 그냥 놔두고?(이영은 그냥 놔두고?)

103056 #1 주지만 허민 일로 공기가 나지게, 굴뚝은 세와시니까. 글로 나가고.  
또 비 왁 직허민 이거 또 더끄고. 경허민 또 먹구정헌 땀 또 영 흐뭇 헤쳐뒹 글로  
빠명덜 먹고, 저실 나가민.(주저리만 하면 이리로 공기 나지, 굴뚝은 세웠으니까. 그  
리로 나가고. 또 비 올 것 같으면 이거 또 덮고. 그러면 또 먹고 싶을 땀 또 이렇게  
조금 헤집어두고 그리로 빼면서 먹고, 겨울 나가면.)

103056 @ 가운데 굴뚝 세우는 건 무신걸로 세웁니까? 나무?(가운데 굴뚝 세우  
는 건 무엇으로 세웁니까? 나무?)

103056 #1 아니, 아니. 그냥 아무 검질이라도이 이만큼은 뱅뱅뱅뱅 무꺼이. 이만  
큼은 허게 무경. 그 땅 지레기왕 저디ㄱ지 ㄱ뜨게시리 헤가민 글로 숨이 나가게 허  
는 거라, 옛날도.(아니, 아니. 그냥 아무 김이라도 이만큼은 뱅뱅뱅뱅 묶어. 이만큼  
은 하게 묶어. 그 땅 길이와 저기까지 같게끔 헤가면 그리로 숨이 나가게 하는 거  
야, 옛날도.)

103056 @ 검질로?(김으로?)

103056 #1 응, 검질로 검질로, 검질로 행 영 글로 나가게. 그것이 감저눌.(응, 김  
으로 김으로. 김으로 해서 그리로 나가게. 그것이 고구마가리.)

103056 @ 감저눌이 그거?(고구마가리가 그거?)

103056 #1 감저눌에 도둑 들믄이. 도둑 들카부덴 허는 거 보믄이 범주리 가시엔  
헌 것이 몫썬 가시라이. 게민 느람지 더끄기 전이 그 딱딱 놔불민 그 감저 흠파당  
도둑질덜 장난으로 행 먹젠 허른 가시 쥘러 불영 그디 들어가지, 못 들어강 못 파



와.(고구마 가리에 도둑 들면. 도둑 들까봐 하는 거 보면 실거리 나무라고 한 것이 몹쓸 가시야. 그러면 이영 덮기 전에 그 탁탁 놔 버리면 그 고구마 파다가 도둑질 들 장난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면 가시 찢어버려서 거기 들어가지, 못 들어가서 못 파와.)

103056 @ 아, 범주리 가시로 그디 더퍼놔.(아, 실거리 나무로 거기 덮어놔.)

103056 #1 오죽 범주리 가시가 독헌 거라. 그 늑람지 속에 감저 우트레 놔불민 감절 파내지 못허주게. 그추룩 해놔어.(오죽 실거리 나무가 독한 거야. 그 이영 속에 고구마 위에 놔 버리면 고구마를 파내지 못하지. 그렇게 했었어.)

103057 @ 아까 감저 빼떼기엔 곱습니까, 절간이엔 곱습니까?(아까 ‘감저빼떼기’라고 말합니까, ‘절간’이라고 말합니까?)

103057 #1 빼떼기엔 해놔어. 감저 빼떼기.(‘빼떼기’라고 했었어. ‘감저빼떼기’.)

103057 @ 절간이엔 헌 말은 안 써?(‘절간’이라고 한 말은 안 써?)

103057 #1 안 써. 감저 빼떼기.(안 써. ‘감저 빼떼기’.)

103057 @ 빼떼긴 폴젠 허는 거파, 집이선 안 써?(절간고구마는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집에선 안 써?)

103057 #1 옛날에는 공출을 해놔어이. 저 함덕 국민학교엔 헌 디 그냥 이 오름 만씩 돈 받아놔. 이제 그뜨민 더끌 거나 좋으난 잘 더끄민 석지 안허주만은 더끌 건 황당허고 그냥 오름만씩 허게 국민학교 마당에 받아놓민 더끌 거 황당해부난 멘 딱 석어. 석어난 거 봐놔어. 우린 또 좇어당 먹젠 가보난 멘 썩언 못 먹크라. 그 사름덜은 돈 쥘 법에서 받은 건디.(옛날에는 공출을 했었어. 저 함덕 초등학교라고 한 데 그냥 이 오름만큼식 모두 받아놔. 이제 같으면 덮을 거나 좋으니까 잘 덮으면 썩지 않지만 덮을 건 황당하고 그냥 오름만큼씩 하게 초등학교 마당에 받아놓으면 덮을 거 황당해 버리니까 모두 썩어. 썩은 거 봤었어. 우린 또 주워다 먹으려고 가 보니까 모두 썩어서 못 먹겠어. 그 사람들은 돈 쥘 법에서 받은 건데.)

103057 @ 공출허젠 빼떼기 허는 거구나예, 집이서 먹젠 허는 게 아니고.(공출하려고 절간고구마 하는 거군요,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3057 #1 것도 돈으로 허는 거지. 조팻되 조 갈아난 조 크르에 강 널영 이젠 몰라가민 땃새만 돼민 부들부들허민 거뒤향 집이서 건풍허멍 물리지.(그것도 돈으로 하는 거지. 조발에 조 갈았던 조 그루터기에 가서 널어서 이젠 말라가면 땃새만 되면 부들부들하면 거뒤향가 집에서 건풍하면서 말리지.)

103056 @ 그거 또 내년에 감저 싱그젠 허민 보관 잘해삽니께?(그거 또 내년에 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보관 잘 해야 되잖습니까?)

103056 #1 그 구텡이 거도 쓸 수 잇어. 그걸로도 쓸 수 잇고 소소허게 이녁냥으로 가냥허젠 허민. 감저 물을 사름이 멧 개가 돼여이. 이디 땅도 좋아사 거 이녁 울 안에 놓고. 이녁 오줌 놀 건 나 인척 곧듯이 이런 벅장에 벅에 허여근엥에 조 두드러난 봉텡이가 잇어이. 그런 거 킬멍 물 안 돌게 헤영. 방에 허민 이디 논 건 텃앙 썩지도 안허여.(그 구텡이 것도 쓸 수 잇어. 그걸로도 쓸 수 잇고 소소하게 자기대

로 건사하려고 하면. 고구마 물을 사람이 몇 개가 돼. 여기 땅도 좋아야 그거 자기  
울 안에 놓고. 자기 오줌 놓을 건 나 전에 말했듯이 이런 벽장에 먹서리에 해서 조  
두드렸던 ‘붕탱이’가 있어. 그런 거 깔면서 물 안 돌게 해. 방에 하면 여기 놓은 건  
따뜻해서 썩지도 않아.)

103056 @ 뚫으면 더 썩는 거 아니?(따뜻하면 더 썩는 거 아니?)

103056 #1 아니, 아니. 사람 아니 녹는 방엔 어떻 안 해.(아니, 아니. 사람 안 녹  
는 방엔 어떻게 안 해.)

103058 @ 고구마 줄기는 데껴 볶니까?(고구마 줄기는 던져 버립니까?)

103058 #1 물렛당 소물 백여.(말렸다가 마소 먹여.)

103058 @ 아, 소물 백이는 거. 건 밧되서 물립니까?(아, 마소 먹이는 거. 그건  
밭에서 말립니까?)

103058 #1 이건 밧되서 호미로 착착 브리멍 영 널어가. 그냥 널어.(이건 밧에서  
낮으로 착착 자르면서 이렇게 널어가. 그냥 널어.)

103058 @ 무신거 허멍?(무엇 하면서?)

103058 #1 호미로 영 병탱이 지민 이런 디 착착 굴기멍 영 영 널어가.(낮으로  
이렇게 덩어리 지면 이런 데 착착 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널어가.)

103058 @ 경행 그것도 영 무경 와.(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렇게 묶어와.)

103058 #1 응, 무끄나 그냥 덩어리로 행 구르마로.(응, 묶거나 그냥 덩어리로 해  
서 달구지로.)

103058 @ 경행 놀어?(그렇게 가려?)

103058 #1 응, 놀영 이만씩 무경 허민 소 백이젠 허민 잘 놀영. 것이 최고 맛중  
은덴. 소가, 소 믱쉬가 것이 잘 좋아헌덴.(응, 가려서 이만큼씩 묶어서 하면 소 먹이  
려고 하면 잘 가려. 그것이 최고 맛있다고. 소가, 소 마소가 그것을 제일 좋아한다  
고.)

103058 @ 아, 감저줄을 쥔 좋아하는구나예. 고구마 농사허멍 특별히 기억 나거  
나.(아, 고구마줄기를 제일 좋아하는군요. 고구마 농사하면서 특별히 기억 나거나.)

103058 #1 특별히 기억날 거 있어. 우리도 그자 감저 청 먹당 실프면 먹기가 실  
프면은 썰영이 그냥 빼떼기ㄴ치 물렛당이 밤이 심심헌 땀 아이덜도 씹영 먹곡, 거  
는 좋아. 줄긋줄긋헌 게 들크름행 좋아. 경 베피 허지 안허여.(특별히 기억날 거 없  
어. 우리도 그냥 고구마 썬서 먹다가 싫으면 먹기 싫으면 썰어서 그냥 절간고구마  
같이 말렸다가 밤에 심심헌 땀 아이들도 씹어서 먹고, 그거는 좋아. 쫄깃쫄깃한 게  
달콤해서 좋아. 그렇게밖에 하지 않아.)

103059 @ 감저는 빼떼기 행 먹고 청 먹고, 또 무신거 허여?(절간고구마 해서  
먹고 썬서 먹고, 또 무엇 해?)

103059 #1 먹당 실프민 돌른 거 썰엇당 아으덜도 먹고. 빼떼기 헌 건 잘행 이녁  
먹젠 헌 건 곱게 허메이. 푼는 거는 그냥 이런 땅에 널어도. 곱게 널엇다근에 인칙  
굴앗지, 물고랑에 강 굴아당 채로 치멍 감저ㄴ루 저배기도 행 먹곡 감저 오메기ㄴ

추록 오메기도 행 먹고 맛있어. 새카망 허여.(먹다가 싫으면 마른 거 썰었다가 아이들도 먹고. 절간고구마 한 건 잘 해서 자기 먹으려고 한 건 곱게 해. 파는 거는 그냥 이런 땅에 널어도. 곱게 널었다가 아까 말했지, 연자매에 가서 갈아다가 채로 치면서 고구마가루 수제비로 해서 먹고 고구마 ‘오메기’처럼 ‘오메기’도 해서 먹고 맛있어. 새까매.)

103059 @ 감저로도?(고구마로도?)

103059 #1 요추록 이 색으로 비슷하게 나와. 감저 떡이 맛좋아. 감저ㄴ루 저배기도 맛좋고.(요렇게 이 색으로 비슷하게 나와. 고구마 떡이 맛있어. 고구마가루 수제비도 맛있어.)

103059 @ 그건 빼빼기로 만들엉 물고랑 강 갈앙 왕 허는 거예?(그건 절간고구마로 만들어서 연자매 가서 갈아와서 하는 거요?)

103059 #1 응, 물고레서 굴멍 치멍, 쳐야 돼여. 줌진 채로 쳐야 거 ㄴ루가 문작 허영 맛있지. 정행 먹어.(응, 연자매서 갈면서 치면서, 쳐야 돼. 가는 채로 쳐가 그거 가루가 부드러워서 맛있어. 그렇게 해서 먹어.)

## 기타 농사

103066 @ 감저 농사허는 거까지 해신디 오늘은 수박, 참외, 고추, 지슬, 피?(고구마 농사하는 거까지 했는데 오늘은 수박, 참외, 고추, 감자, 피?)

103066 #2 그런 건 안 해보고.(그런 건 안 해보고.)

103066 #1 피도 안 해보고.(피도 안 해보고.)

103067 @ 메밀은 해냈지예?(메밀은 했었지요?)

103067 #1 메밀도 혼 번 해난. 그거 필요 엇인 거 닐아. 이 메밀 농사 듣젠 허민 손당, 도리 교래리, 그런디 가야 잘 곱아줘.(메밀도 한 번 했었어. 그거 필요 없는 거 같아. 이 메밀 농사 들으려고 하면 송당, 교래, 그런 데 가야 잘 말해줘.)

103067 @ 이 동네는 메밀은 잘 안 허는구나예?(이 동네는 메밀은 잘 안 하는군요.)

103067 #1 엇어, 엇어. 전문가가 손당이라.(없어, 없어. 전문가가 송당이야.)

103067 @ 메밀은 땅이 안 좋은 디서 험니까?(메밀은 땅이 안 좋은 데서 합니까?)

103067 #1 식은 디 막 식은 디.(헤식은 디 막 헤식은 디.)

103067 @ 식은 디?(헤식은 디?)

103067 #1 뜬 땅, 크게 풀이 없는 디. 영 허민 그런 디 가민 ㄴ름도 잘 안 타지. 식은 땅은.(뜬 땅, 크게 풀기 없는 데. 이렇게 하면 그런 데 가면 가름도 잘 안 타지. 식은 땅은.)

103067 @ 식은 땅은?(헤식은 땅은?)

103067 #1 이디는 ㄴ름이 잘 타. 땅이 세부니까. 출흑이니까.(여기는 가름이 잘 타. 땅이 세버리니까. 찰흙이니까.)

103067 @ 이딘 출흑이파?(여긴 찰흙입니까?)

103067 #1 해벤더레는 웃드리<sup>91)</sup>, 해벤 허는 식으로 웃드리는 그런 뜬 땅이 하. 이 우트레는.(해변으로는 중산간, 해변 하는 식으로 중산간에는 그런 뜬 땅이 많아. 이 위로는.)

103067 @ 그런 디서 메밀 허는구나예?(그런 데서 메밀 하는군요?)

103067 #1 그런 디서 메밀. 이런 보리 ㄴ뜬 건 해도 잘 안 돼. 식영. 보리도 죽어불고. 산뒤도 그 손당더레가 산뒤가 잘 돼고 이레는 산뒤도 잘 안 돼여. 여간 해도 안 해여.(그런 데서 메밀. 이런 보리 같은 건 해도 잘 안 돼. 해식어서. 보리도 죽어버리고. 밭벼도 그 송당애가 밭벼가 잘 되고 이리는 밭벼도 잘 안 돼. 여간 해도 안 해.)

103069 @ 나룩도 해낫수과?(벼도 했었습니까?)

103069 #1 나룩 밭이 엇주, 이레. 논부떠 가사 나룩 밭이 잇주. 엇어.(벼 밭이 없지, 이리. 논부터 가야 벼 밭이 있지. 없어.)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2 @ 소도 종류별로 색깔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지예?(소도 종류별로 색깔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요?)

104002 #1 그런 건 저 하르방신디 들어봐. 황소여, 무신 금싱이여, 다간이여 허는 말 듣젠?(그런 건 저 할아버지에게 물어봐. 황소다, 무슨 하릅이다, 다간이다 허는 말 들으려고?)

104002 #2 금싱은 흰 술을 말허고, 다간은 두 술을 말허고, 사릅은 세 술을 말허는 거고. 얼룩빼기 소는 얼룩소엔 허고 노랑헌 췌는 노란췌엔 허고, 검은 췌는 검은췌엔허고.(하릅은 한 살을 말하고 다간은 두 살을 말하고, 사릅은 세 살을 말하는 거고. 얼룩빼기 소는 얼룩소라고 하고 노란 소는 누렁소라고 하고, 검은 소는 검정소라고 하고.)

104002 @ 표준말로 말고 옛날 제주도 말로 곱아줍서. 암췌, 숫췌, 식췌, 무너 있는 거, 속췌?(표준어로 말고 옛날 제주도 말로 말해주세요. 암소, 수소, 칩소, 무너 있는 거, 칩소?)

104002 #2 얼룩빼기, 식췌. 얼룩덜룩헌 거.(얼룩빼기, 칩소. 얼룩덜룩한 거.)

104002 @ 식췌엔 곱아낫수과?(칩소라고 말했었습니까?)

104002 #2 신체 얼룩덜룩헌 거 식췌.(신체 얼룩덜룩헌 거 칩소.)

104002 #1 동물은 얼룩빼기 췌가 질루는디 더러.(동물은 얼룩빼기 소가 기르는 데 더러.)

91) ‘웃드리’는 ‘윗’과 ‘드르’가 합쳐진 말로 제주도의 중산간을 이르는 말이다.

104002 #2 가끔 있어. 얼룩빼기 소가 있어. 혼배긴 아니고.(가끔 있어. 얼룩빼기 소가 있어. 혼한 것은 아니고.)

104005 @ 쉼 한 살, 두 살 다시 혼 번 굴아줍서.(소 한 살, 두 살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104005 #2 금싱, 다간, 사릅, 거 세 술, 나릅, 다서오.(하릅, 다간, 사릅, 거 세 술, 나릅, 다서오.)

104005 @ 다서오? 다습?(다서오? 다습?)

104005 #2 다서오. 그다음은 여섯 술, 일곱 술 나가는 거.(‘다서오’. 그다음은 여섯 살, 일곱 살 나가는 거.)

104005 @ 그다음은 다섯 술, 여섯 술.(그다음은 다섯 살, 여섯 살.)

104005 #1 경 해가민 다 풀아불주.(그렇게 해가면 다 팔아버리지.)

104005 #2 그것이 밑에서만 지랄이주. 다간이여 허는 건 밑에서만 허고 다 다섯 술 위로는 여섯, 일곱, 으다, 아홉 그렇게.(그것이 밑에서만 지랄이지. 다간이다 허는 건 밑에서만 하고 다 다섯 살 위로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104005 #1 경 해가민 새끼 나고 다 어른 돼불 건디.(그렇게 해가면 새끼 낳고 다 어른 되어 버릴 것인데.)

104005 #2 밑에만 다간이여, 금싱이여, 사릅이여, 나릅이여 행 그다음 다섯 살, 으섯술 그냥 가.(밑에만 다간이다, 하릅이다, 사릅이다, 나릅이다 해서 그다음 다섯 살, 여섯 살 그냥 가.)

104005 #1 경허민 질롭지 못허주게이, 버청이 다 풀아불주. 옥아 가민.(그러면 기르지 못하지, 부쳐서 다 팔아버리지. 철들어 가면.)

104002 #2 경베기 안 돼고, 얼룩소는 얼룩소엔도 허고 얼룩빼기 소엔도 허고 노랑헌 건 노랑췌엔도. 식췌, 얼룩달룩헝 범 닳은 색 깔아진 것덜. 그거 식췌엔 허고, 식췌.(그렇게밖에 안 되고, 얼룩소는 얼룩소라고 하고 얼룩빼기 소라고도 하고 노란 건 누렁소라고도. 췌소, 얼룩달룩해서 범 같은 색 깔아진 것들. 그거 췌소라고 하고, 습소.)

104002 @ 노랑헌 건?(노란 건?)

104002 #1 노랑헌 건 노란췌.(노란 건 누렁소.)

104002 @ 그냥 노란췌?(그냥 누렁소?)

104002 #2 건 순색이니까(그건 순색이니까.)

104002 #1 이건 보통 췌 색깔이 돼니까.(이건 보통 소 색깔이 되니까.)

104002 @ 췌 빨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이 이수과?(소 빨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이 있습니까?)

104002 #1 아니, 빨은 무신 자뻑뻑<sup>92)</sup>이여 무시거여 말은 잇는데 거는 뉘.(아니, 빨은 무슨 자뻑뻑이다, 뉘다 말은 잇는데 그거는 뉘.)

104002 @ 자뻑뻑은 어떤 거마씨?(자뻑뻑은 어떤 거예요?)

92) ‘자뻑뻑’은 뒤로 기울어지고 끝이 뉘틀린 쇠뿔이다.

104002 #2 이렇게 오그라지명 이렇게 험 뿔덜. 작박ㄴ치 영구와분 거. 자빠뿔. 옆으로 난 건 무시거엔 허는다.(이렇게 오그라지면서 이렇게 한 뿔들. ‘작박’같이 ‘영구와’ 버린 거. 자빠뿔. 옆으로 난 건 뭐라고 하는데.)

104002 #1 이진 솟베베끼 안 나. 영 꾸썩.(이진 수소박에 안 나. 이렇게 곧게.)

104002 #2 암놈도 가끔 헉나, 열에 헉나.(암놈도 가끔 하나, 열에 하나.)

104002 @ 이렇게 영 박아진 거. 하얏헉 거.(이렇게 이렇게 박힌 거. 하얀 거.)

104002 #1 태성백이<sup>93</sup>?(태성박이?)

104002 #2 태성백이. 가끔 그런 거 이서.(태성박이. 가끔 그런 거 있어.)

104002 @ 태성백이?(태성박이?)

104002 #1 몰도 그런 거 있고.(말도 그런 거 있고.)

104002 #2 폐까롭덴 허주.(폐롭다고 하지.)

104003 @ 소는 주로 어떻게 이용해마씨? 뭐 하는 데 써마씨?(소는 주로 어떻게 이용해요? 뭐 하는 데 써요?)

104003 #1 집이 가정에 질루는 거는 농사할 때베끼 안 질롭지. 저실에 그냥 마구에 매고. 이 봄 나면은 풀에 나가근에 당번제로, 당번제로 질롭고.(집에 가정에 기르는 거는 농사할 때박에 안 기르지. 겨울에 그냥 마구간에 매고. 이 봄 나면은 풀에 나가서 당번제로, 당번제로 기르고.)

104003 #2 말은 말테우리허는 사름이 영업으로 허는 쑤덜이 잇는다. 가끔 잇어서 목장 가서 방목하면서 물을 길루는디. 소소헌 사름은 하나 두 개씩 밧도 같고, 밧도 불리고. 구르마도 쑤고 소소히 개인이 허는 거고. 영업으로 해서 산에 가서 목장, 이수장, 삼수장<sup>94</sup> 허면서 침 그분들 돌아가서부난이주. 칠팔십, 칠팔십 마리 이렇게 헉 사름이 목장. 옛날에 이렇게 길이 었인 때니까. 딱 허민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해났어. 목장 동쪽으로부터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삼수장 절물오름<sup>95</sup>.(말은 말몰이쑤하는 사름이 영업을 하는 쑤들이 잇는데. 가끔 잇어서 목장 가서 방목하면서 말을 기르는데. 소소한 사름은 하나 두 개씩 밧도 같고, 밧도 밝고. 달구지도 쑤고 소소히 개인이 하는 거고. 영업으로 해서 산에 가서 목장 이수장, 삼수장 하면서 참 그분들 돌아가서 버리니까 이지. 칠팔십, 칠팔십 마리 이렇게 한 사름이 목장. 옛날에 이렇게 길이 었는 때니까. 딱하면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했었어. 목장 동쪽으로부터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삼수장 절물오름.)

104004 @ 소 처음에 길들이젠 허민 어떻 헉니까?(소 처음에 길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헉니까?)

104004 #2 하나두 마리 메는 사름은 자그만 초가집 님은 디서 정살헉 뿔이 나면 뿔 걸어메고, 게 안허민 정살해근에 막으면서 소에서 단련해부니까, 새끼 난 것덜은. 소덜이 집이서 것이 영업허고 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가 잇어야 밧도 같

93) ‘태성배기’는 이마에 흰털이 별모양으로 박힌 동물을 말한다.

94)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은 방목을 위해 잣담을 쌓은 목장 형태의 공간이다. 일수장(대천이오름)·이수장(민오름)·삼수장(피꼬리오름)에서 소나 말을 키웠으며,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정기적으로 숲에 불을 놓기도 했다.

95) ‘절물오름’은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오름이다.

고, 소 구루마도 허고 물도 구루마도 허고 다허난 물도 밧갈고, 잠대질 다허멍 허주  
만은 단련뻬어. 소도 용허고, 물도 용허고 새끼가 나도 술술술허민 사름 손에서 들  
황 순조로와. 산판에 영업허는 사름 물은 그렇지 못해.(한두 마리 매는 사람은 자그  
마한 초가집 같은 데서 정냥해서 뿔이 나면 뿔을 걸러 매고, 그렇지 않으면 정냥해  
서 막으면서 소에서 단련해 버리니까, 새끼 낳은 것들은. 소들이 집에서 그것이 영  
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소가 있어야 밭도 갈고, 소달구지도 하고 말도 달  
구지도 하고 다하니까 말도 밭 갈고, 쟁기질 다 하면서 하지만 단련뻬어. 소도 용하  
고, 말도 용하고 새끼가 태어나도 술술술술하면 사람 손에서 따라서 순조로워. ‘산  
판’에 영업하는 사람 말은 그렇지 못해.)

104004 @ 쉼 돌 끄는 것도 나오던데.(소 돌 끄는 것도 나오던데.)

104004 #1 밧 갈젠 허민 가르치젠 허민, 그거.(밭 갈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

104004 #2 건 소나 말이나 훈련시키는 거.(그건 소나 말이나 훈련시키는 거.)

104004 #1 쳇 번에 밧은 못 갈지.(쳇 번에 밧은 못 갈지.)

104004 #2 단작은 못, 소는 일로 왕 멩에라고 해서 낭으로 해서 끈 메서 단련시  
경 끄는 거 다허고 밧 가는 것도 잠대 행 허고. 또 물은 접게<sup>96)</sup>, 가슴팍 양 어깨로  
접게 멘들앙 톱 끼왕. 물로도 밧 갈고 남토막 행. 낭테<sup>97)</sup>, 낭테. 구멍 뚫룬 거 밧아  
가서 밧블리는 것, 것을 낭테라고 허고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시니까 농사덜.(단번에  
는 못, 소는 이리로 와서 멩에라고 해서 나무로 해서 끈 매서 단련시켜서 끄는 거  
다하고, 밧 가는 것도 쟁기 해서 하고. 또 말은 목대, 가슴팍 양 어깨로 목대 만들  
어서 톱 끼워서. 말로도 밧 갈고 나무토막 해서. 낭테, 낭테. 구멍 뚫은 거 밧아가서  
밧 밧는 거, 그것을 낭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다 사용했으니까 농사들.)

104004 @ 쉼가 바로 밧을 못 가니까 돌 행 허는 거는 뭘엔 굴습니까?(소가 바  
로 밧을 못 가니까 돌 해서 하는 거는 뭘라고 말합니까?)

104004 #2 그거 훈련 시키는 거. 밧가는 연습힐라고. 대번척이 밧 갈민 못 갈아.  
그러니까 이디를 다 단련 시겨, 멩에. 이디를 막 멩들어놔야.(그거 훈련 시키는 거.  
밧 가는 연습하려고. 대번에 밧 갈면 못 갈아. 그러니까 여기를 다 단련 시겨, 멩  
에. 여기를 다 멩들어 놔야.)

104004 #1 벗어져, 벗어져.(벗겨져, 벗겨져.)

104004 #2 벗어지곡 다 피가 나곡 소가 말을 안 허난이지 애먹주. 사름 손 들영  
사 그거.(벗겨지고 다 피가 나고 소가 말을 안 하니까이지 애먹지. 사람 손 들어야  
그거.)

104004 #1 경허당도 밧 갈레 강 메우믄이 그냥 막 광질을 허여. 막 들러키어.  
(그러다가도 말 갈러 가서 메우면 그냥 막 광질을 해. 막 날뛰어.)

104004 #2 순헌 건 순헌디 요랑치는 건 요랑 치고.(순한 건 순한데 요동치는 건

96) ‘접게’는 ‘목대’의 제주어로, 멩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이다.

97) ‘낭테’는 ‘남테’로 써 뿌린 땅을 다지는 데 쓰는 농기구다. 둥근 통나무에 반 뼘 길이의 나무토막들을 둘러  
박는다.

요동 치고.)

104004 @ 게민 어떻 해?(그러면 어떻게 해?)

104004 #2 그래도 사름 손에서 다 달좌져.(그래도 사람 손에서 다 단련돼.)

104004 #1 이 다 단련 못헌 때는이 이 하르방은 밧 갈면은이 난 물 영 석을 끄어이. 영 꼬작 나오게 허젠. 밧 가는 거 꼬작 허젠.(이 다 단련 못한 때는 이 할아버지는 밧 갈면 난 말 이렇게 고삐를 끌어. 이렇게 곧게 나오게 하려고. 밧 가는 거 곧게 하려고.)

104004 #2 습관이 안 돼는 건 사름이 사서 끄어줘야. 소는 뿔에 석을 메고 물은 이디.(습관이 안 되어 놓은 건 사람이 사서 끌어줘야. 소는 뿔에 고삐를 매고 말은 여기.)

104004 #1 접게.(목대.)

104004 #2 아니 접게. 이디 거 썩우는 녹대. 녹댄가? 아구리에 주둥이에 해서 물은 그렇게 해서 끄어주고. 소는 뿔에다 걸려땡 끄어서, 길을 안내 행 밧 가는 디도 끄어줘사. 것이 단련돼민 츠츠츠 발좌지고. 어렵긴 어렵주, 농사지는 것도.(아니 목대. 여기 그거 썩우는 굴레, 굴렌가? 아기리에 주둥이에 해서 말은 그렇게 해서 끌어주고. 소는 뿔에다 걸려 매서 끌어서, 길을 안내 해서 밧 가는 데도 끌어줘야. 그것이 단련되면 차츰차츰 바루고, 어렵기 어렵지, 농사짓는 것도.)

104004 #1 이젠 기계화라부난 모든 것이 쉬와.(이젠 기계화라서 모든 것이 쉬워.)

104004 #2 기계도 기계주만은 경운기 나기 시작허난 것이 다 도망가 불엿주게. (기계도 기계지만은 경운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다 도망가 버렸어.)

104006 @ 쟁기 명칭, 할아버지, 이름 이수게.(쟁기 명칭, 할아버지, 이름 있잖아요.)

104006 #2 잠데.(쟁기.)

104006 @ 잠데 중에서 어느 게 뱃?(쟁기 중에서 어느 게 뱃?)

104006 #2 이거, 요거 흙을 이렇게 냉겨주는 거. 끄어가민. 소 허민은 갈아가민 이 자우룻흔 쪽드레 흙이 넘어가. 이디 갈아가민 넘어가고. 이것은 땅속에 파서 댜가민.(이거, 요거 흙을 이렇게 냉겨주는 거. 끌어가면. 소 하면 갈아가면 이 기우뚱한 쪽으로 흙이 넘어가. 여기 갈아가면 넘어가고. 이것은 땅속에 파서 댜 가면.)

104006 #1 이름이 뭇파?(이름이 뭇니까?)

104006 #2 보섭.(보습.)

104006 #1 요딘 쉼 요런 거 메왕 일로 끄어주는 거.(요기는 소 이런 거 메워서 이리로 끌어주는 거.)

104006 #2 잘 나와신게. 뻘헌 거주 뭇.(잘 나왔네. 뻘한 거지 뭇.)

104006 @ 뱃, 보섭 말앙 또 뭇 이수과?(뱃, 보습 말고 또 뭇 있습니까?)

104006 #2 아, 이건 두 개뿐.(아, 이건 두 개뿐.)

104006 @ 두 개뿐?(두 개뿐?)



104006 #1 요것 ㄹ란 뭐엔 험니까?(요것보고는 뭐라고 험니까?)

104006 #2 이거 우리 알기 험젠 손잡이가 맞는데 그때는 뭐엔사.(이거 우리 알기 험게는 손잡이가 맞는데 그때는 뭐라고야.)

104006 #1 이름이 실 거라, 이것이 이름이.(이름이 있을 거야, 이것이 이름이.)

104006 #2 이름사 잇주게.(이름이야 있지.)

104006 @ 탄 디션 양죽머리엔 곤던데 그런 말 안 씩니까?(다른 데션 양지머리라고 말하던데 그런 말 안 씩니까?)

104006 #2 게메, 이거는 이것이 귀중헌 것이 아니난 알기 험게 손잡이가 맞추게. 잡아서 운전허는 거니까. 이거 벳허고 보섭.(글쎄, 이거는 이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니까 알기 험게 손잡이가 맞지. 잡아서 운전하는 거니까. 이거 벳하고 보습.)

104006 @ 벳허고 보섭 말고 다른 이름.(벳하고 보습 말고 다른 이름.)

104006 #2 요디서 쉼 명에 이디 강 매서 쉼에 메우는 거고. 물은 또 이 접게 메왕 물은 또 일로 꺾고. 소는 이디로 돌아메민 이디서 주로 허고 물은 양 어깨서 꺾는 거고.(요기서 소 명에 여기 가서 매서 소에 메우는 거고. 말은 또 이 목대 메워서 말은 또 이리로 끌로. 소는 여기로 달아메면 여기서 주로 하고 말은 양 어깨에서 끄는 거고.)

104006 #1 물 이 뒷야게기 놓고 이거는 쉼 야게길 영. 경허믄 이것이 이 끈이 요디 왕 심영 요코 심영 쉼 영 돌아가민 이레 등겨불고.(말 이 목덜미 놓고 이거는 소 목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이 끈이 요기 와서 잡아서 요 코 잡아서 소 이렇게 돌아가면 이리로 당겨버리고.)

104006 #2 가린석이라고. 소가 이시면 이제 소뿔에 양쪽으로 베, 요런 거 거리에 조종해서 좌로 탱기면 좌로, 우로 허민 이것에 운전해. 소가 익숙어가민 착착 들어가. 첫번은 앞이서 사름 꺾어줘사.(고삐라고. 소가 있으면 이제 소뿔에 양쪽으로 바, 요런 거 거리를 조종해서 좌로 당기면 좌로, 우로 하면 이것에 운전해. 소가 익숙해지면 착착 들어가. 첫 번은 앞에서 사람 끌어줘야.)

104006 @ 그게 가린석이파?(그게 고삐입니까?)

104006 #2 가린석. 게민 것이 쉼가 익숙으민 이젠 조끔만 땡겨가민 꼬작 나가고. 물도 그렇고.(고삐. 그러면 그것이 소가 익숙해지면 이젠 조금만 당겨가면 곧장 나가고. 말도 그렇고.)

104006 #1 이 다 연습이주.(이 다 연습이지.)

104006 @ 몽쿨은 어느 거파? 이런 말 안 들어봤수과?(쟁깃술은 어느 겁니까?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104006 #2 몽쿨을 들어나긴 들어났는데.(쟁깃술을 들어보긴 들었었는데.)

104006 @ 설칫.(한마루.)

104006 #2 응?(응?)

104006 @ 성에, 그런 말 안 들어봣디가?(성에,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104006 #2 이건 명에.(이건 명에.)

104008 @ 그거 멩엔 알고.(그거 멩에는 알고.)

104008 #2 접게 이디 물에 건 접게, 접게. 등괘, 등망머리에 끈 메는 건 췌.(목대 여기 말에 건 목대, 목대. 등태, 등에 끈 메는 건 소.)

104008 @ 등망머리에 등 메는 거 이거 등괘? 이건?(등에 등 메는 거 이거 등태? 이건?)

104008 #2 그건.(그건.)

104008 @ 엉덩이에 영 췌는 거.(엉덩이에 이렇게 되는 거.)

104008 #2 이거 밋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건 뭇산디 거ㄱ지 다. 그런 건 이름 있어.(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건 뭇지 그거까지 다. 그런 건 이름 없어.)

104008 #1 이것이 손잡이가 잇수게. 요것에 걸어메영 췌도 재게 안 가민 착 이걸로 착 치면은.(이것이 손잡이가 있잖습니까. 요것에 걸려매서 소도 빨리 안 가면 착 이걸로 착 치면.)

104008 #2 건 가린석.(그건 고삐.)

104008 @ 건 가린석. 가린석은 이디 안 나완.(그건 고삐. 고삐는 여기 안 나왔어.)

104008 #2 엇인게. 가린석이 엇고 물에 대한 기구가 접게게 이서야. 췌는 등괘가 잇고 물은 그런 거 엇고. 구르마도 메우고 으라 가지주. 낭태란 건 이런 큰 남토막 구멍 빠져 건 낭태.(없네. 고삐가 없고 말에 대한 기구가 목대 있어야. 소는 등태가 있고 말은 그런 거 없고. 달구지도 메우고 여러 가지지. 낭태란 건 이런 큰 나무토막 구멍 빠져 그건 낭태.)

104007 @ 질메.(길마.)

104007 #2 질메? 게니까 췌 우이 등망머리에 맞게끔 멘들앙 톱 해놔 그디 방석 행 탁허민 이제.(길마? 그러니까 소 위에 등에 맞게끔 만들어서 톱 해놓아서 거기 방석 해서 탁하면 이제.)

104007 @ 요거 질메.(요거 길마.)

104007 #2 이거 질메 맞고. 이거 허민 뒤에서 앞드레 넘어가지 못하게 꿈무니 아래서.(요거 길마 맞고. 이거 하면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꿈무니 아래서.)

104007 #1 꿈무니 아래.(꿈무니 아래.)

104007 #2 등망머리 우에 낱 허민 정확히 췌 거고 게민 이레 베를 메어. 벗어나지 못하게 알로 강.(등 위에 낱서 하면 정확히 된 거고 그러면 이리 바를 매어. 벗어나지 못하게 아래로 가서.)

104007 #1 요레 짐 시끄고 요짜 펜드레.(요리 짐 싣고 요쪽 편으로.)

104007 @ 그건 무신 끈으로 험니까?(그건 무슨 끈으로 험니까?)

104007 #2 아무거라도 너븐 거라도 도망치지 못하게 앞으론 안 넘어가니까. 이것은 왜냐면 이것이 조름에서 짐 시끈 것이 이 또꼬냥빠 아래 안 낱은 짐이 야게기 넘어강 이거는 절대 앞드레 안 넘어가. 굴렁으로 가도 이것이 이서부니까. 그 이름은 이제 이저분디 등웬가 뭇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질멘 맞고 게민 이디 끈을 돌아

서 쉼 알로 가서 딱 메민.(아무거나도 넓은 거라도 도망치지 못하게 앞으론 안 넘어가니까. 이것은 왜냐면 이것이 뒤에서 짐 실은 것이 이 엉덩이뼈 아래 안 놔서는 짐이 목에 넘어가서 이거는 절대 앞으로 안 넘어가. 구렁으로 가도 이것이 있어 버리니까. 그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등태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길마는 맞고 그러면 여기 끈을 달아서 소 아래로 가서 딱 매면.)

104007 @ 그 끈은 무슨 끈이엔 안 해?(그 끈은 무슨 끈이라고 안 해?)

104007 #2 아무거나도 너븐 거.(아무거나도 넓은 거.)

104007 @ 뱃대끈 영 안 곁습니까?(뱃대끈 이렇게 안 말합니까?)

104007 #2 그런 건 이름 었고.(그런 건 이름 없고.)

104007 #1 그땐 닥치는 양.(그땐 닥치는 대로.)

104007 @ 요건 뭐엔 곁습니까? 질멧가지?(요건 뭐라고 말합니까? 길맞가지.)

104007 #2 하여튼 질메라 허는 거, 다 종합웬 거.(하여튼 길마라 하는 거, 다 종합된 거.)

104007 #1 가진 었을 거라. 우리 들을 때도 질메엔만 허여.(가진 없을 거야. 우리 들을 때도 길마라만 해.)

104007 @ 이거 전체가 질멘디 요거는 가지, 요거는 도곰 허는 말 었수과?(이거 전체가 길만데 요거는 가지, 요거는 도곰.(이거 전체가 길만데 요거는 가지, 요거는 땀치 하는 말 없습니까?)

104007 #2 그냥 질메엔 허민 뉘주.(그냥 길마라고 하면 되지.)

104007 #1 었어. 질멧 방식, 쉼 등망머리 벗어지카분텐 그거라 이것이.(없어. 길마 방식, 소 등 벗겨질까봐 그거야 이것이.)

104007 @ 질메 방식?(길마 방식?)

104007 #2 질메 방식, 그자 알기 좋게 말허민. 앞더레 넘어오지 못하게 쉼 꼬리 들렁 이디 메왕 준등으로 무끄는 거.(길마 방식, 그저 알기 좋게 말하면. 앞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소 꼬리 들어서 여기 메워서 허리로 묶는 거.)

104007 #1 등망머리 짐 막 베게 시끄곡 허민 이런 디 벗어지카부텐.(등 짐 막 무겁게 싣고 하면 이런 데 벗겨질까봐.)

104008 @ 멍에도 다 곁앗고예 요거는 멍에, 요거는 접게.(멍에도 다 말했고요 요거는 멍에, 요거는 목대.)

104008 #2 이것도 이름은 잇는데. 거 어느 제라?(이것도 이름은 잇는데. 그거 언제야?)

104008 @ 요거 한줄 영허는 말 었수과?(요거 봇줄 이렇게 하는 말 없습니까?)

104008 #2 한줄이엔 말도 들어본 말인디.(봇줄이라는 말도 들어본 말인데.)

104008 @ 할아버진 몰르쿠과?(할아버진 모르겠습니까?)

104008 #2 이거 멧 십 년 뉘 거라게. 사람이 이추룩 구십이 다 뉘디.(이거 멧 십 년 된 거야. 사람이 이렇게 구십이 다 되었는데.)

104008 #1 어제부터 다 알아진다, 물론 거 었어 다 알아져, 다 알아져, 에에.(어

제부터 다 알 수 있어, 모르는 거 없어, 다 알 수 있어, 다 알 수 있어, 에에.)

104008 #2 멩에엔 허민 똤는 거지 똤. 잠똤, 보썽, 똤, 가린석 이 정도민 마는 거지, 무신 똤.(멩에라고 하면 되는 거지 똤. 쟁기, 보썽, 똤, 고똤 이 정도면 마는 거지, 무슨 똤.)

104008 @ 알아수다. 혹시 생각나민 곴아썽서예.(알쥬습니다. 혹시 생각나면 말 쥬주세요.)

104008 #2 구르마도 다 멘들어났는디 무신.(달구지도 다 만들었었는데 무슨.)

104008 #1 생각날 리가 엇어.(생각날 리가 없어.)

104008 @ 누게안티 강 물어보민 알코마썸?(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쥬요?)

104008 #1 엇어. 하나토 엇어.(없어. 하나도 없어.)

104008 #2 삼군 몰라도 이구엔 나 이상도 엇고 사름이 남저가. 나가 쥬 이 팔십 쥬 세가 쥬 고령이라.(삼군은 몰라도 이구에는 나 이상도 없고 사름이 남자가. 내가 제일 이 팔십쥬 세가 제일 고령이야.)

104008 #1 엇어, 알암직헌 이가 엇어.(없어, 알 만한 이가 없어.)

104008 @ 옛날 이런 거 만들어진 사름 엇수과?(옛날 이런 거 만들었던 사름 없 쥬니까?)

104008 #2 아, 이거 우리 다 만들어났어. 구르마도 다 멘든디 나가.(아, 이거 우리 다 만들었었어. 달구지도 다 만들었는데 내가.)

104008 @ 경헌디 어떻 이름은 몰람수과?(그런데 어떻게 이름은 모르고 있쥬니까?)

104008 #2 이젠 하도 오래부난게. 이거 똤 십 년이라게. 왜정 때로부터.(이젠 하도 오래되어 버리니까. 이거 똤 십 년이냐? 왜정 때로부터.)

104008 #1 이거 이름 알 사름이 엇일 거라.(이거 이름 알 사름이 없을 거야.)

104008 #2 엇어. 우리 똤이고 쥬고 다 헤시니까.(없어. 우리 말이고 소고 다 했 으니까.)

104009 @ 옛날 집이서 쥬 질루다근에 올려 보냉 목장 허지예?(옛날 집에서 소 기르다가 올려 보내서 목장 하쥬요?)

104009 #2 그거는 업자덜, 돈 받아 먹는 사름이라. 백 수민 백 수 거두와. 혼 달 에 얼마썸 부썸는 사름도 잇고 순번으로 똤 사름썸 헤서 허는 사름도 잇고.(그거는 업자들, 돈 받아 먹는 사름이야. 백 마리면 백 마리 거똤. 한 달에 얼마썸 붙이는 사름도 잇고 순번으로 똤 사름썸 헤서 하는 사름도 잇고.)

104009 #1 아니, 하르방<sup>98)</sup> 몰람수다게. 집이서 질루다 저실 살아노면은 출이 엇 거든. 출이 다 떨어져 강 새 풀 나가면은 이 소를 당번식으로 강 하나두 개 질루는 사름은 다섯이고 여섯이고 느 헤나민 나히고 느헤나민 나히고 경행 나가. 집이서 질루당. 저슬내낭 마구에서 똤이다근에 출이 엇이고 이젠 새 풀 나가민 풀 똤이레 나가는 거.(아니, 할아버지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다가 겨울 살아놓으면 풀

98) '하르방'은 할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없거든. 꼴이 다 떨어져 가서 새 꼴 나가면 이 소를 당번식으로 가서 하나두 개 기르는 사람은 다섯이고 여섯이고 너 하고나면 나하고, 너 하고나면 나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 집에서 기르다가. 겨우내 마구간에서 먹이다가 꼴이 없고 이젠 새 꼴 나와 가면 꼴 먹이러 나가는 거.)

104009 @ 돌아가명 해, 혼자 안하고?(돌아가면서 해, 혼자 안 하고?)

104009 #2 응, 돌아가명 당번제로. 돈 안 들이젠.(응,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돈 안 들이려고.)

104009 #1 돈 안 들이젠, 참.(돈 안 들이려고, 참.)

104009 #2 돈 행 팔아먹는 사람 역불 아주 많이 거둬진 못해도 이삼 수 요런 정도는 건 직업적으로 받아먹고 딱 가냥해영 그런 디 강 부쳐붙고 거 안 허민 서너 집이 댕 집이 열다섯 마리, 스무 마리씩 당번제로 단체로 안 돼고 이건 소는, 물은 영업적으로 허는 사람이 있고 일수장, 이수장.(돈 해서 팔아먹는 사람 일부러 아주 많이 거두지는 못해도 두세 마리 요런 정도는 그건 직업적으로 받아먹고 딱 관리해서 그런 데 가서 붙여버리고 그거 안 하면 서너 집이 댕 집이 열다섯 마리, 스무 마리씩 당번제로 단체로 안 되고 이건 소는, 말은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일수장, 이수장.)

104009 #1 이건 영업으로 설라든 마리, 스무나든 마리.(이건 영업을 서르나문 마리, 스무남은 마리.)

104009 #2 족아도 이삼십 마리, 오십 두는 보통 돼여. 일수장, 이수장 막 돌아뎡 기명.(적어도 이삼십 마리, 오십 두는 보통 돼. 일수장, 이수장 막 돌아다니면서.)

104009 @ 쉼은 뭐, 뭐 맥입니까?(소는 뭐, 뭐 먹입니까?)

104009 #1 보통게 출도 이 팔월[팔월] 나민 출 비어당 낫당 막 무룩하게 늘어 두고 용시해 나민 콩대도 놔두고 거 먹당 거 저실내냥 먹어 불민 이젠 꼴 나가민 드르에 나강 당번제로 또 당번 안 허는 사람은 맥이는 디레 강 부쳐 붙고.(보통 꼴도 이 팔월 나면 꼴 베어다 났다가 막 ‘무룩하게’ 가려두고 농사하고 나면 콩대도 놔두고 그거 먹다가 그거 겨우내 먹어 버리면 이젠 꼴 나가면 들에 나가서 당번제로 또 당번 안 하는 사람은 먹이는 데 가서 붙여 버리고.)

104009 #2 삭췌, 삭췌, 돈 준다는 말.(샷소, 샷소, 돈 준다는 말.)

104009 @ 삭췌는 어떤 거마씨?(샷소는 어떤 거예요.)

104009 #2 돈 쥐서 손을 부찔다, 영업으로 혼 둘이가 가부시돼영 합작해서 소를 삼십이민 삼십 마리 거둬서 혼 달에 얼마씩 허민 둘이가 책임정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사람덜이 허고 경 안허민 혼 뎡 집이서 다섯 마리, 세 마리 혼 사람, 혼 뎡 집이 당번제로, 돈 안 줄라고 돌아가명 허고.(돈 쥐서 손을 붙인다, 영업으로 한 둘이가 ‘가부시’되어서 합작해서 소를 삼십이민 삼십 마리 거둬서 한 달에 얼마씩 하면 둘이가 책임져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몇 집에서 다섯 마리, 세 마리 한 사람, 한 뎡 집이 당번제로, 돈 안 주려고 돌아가면서 하고.)

104010 @ 쉼 물 맥이레도 가곡 헤나지 안헤수과?(소 물 먹이러도 가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104010 #1 이디 마구에 멧당 이런 석 이서. 석 쫓엉 이디 가름에덜 물통 이서, 민물통.(여기 마구간에 땀다가 이런 고삐 있어. 고삐 끌어서 여기 동네에들 물통 있어, 물통.)

104010 @ 이디 소레물?(여기 ‘소레물’?)

104010 #1 소레물 말고 기냥 민물통이 이서.(‘소레물’ 말고 그냥 민물통이 있어.)

104010 @ 민물통. 쉼 맥이는 거, 이딘 어디 가왔수과?(민물통. 소 먹이는 거, 여긴 어디 갔다왔습니까?)

104010 #1 우리 이디 이디 소 질룰 때 노인당 지신 디가 큰 못이라났어.(우리 여기 여기 소 기를 때 노인당 지은 데가 큰 못이었어.)

104010 @ 무신 물이파? 이름이.(무슨 물입니까? 이름이.)

104010 #1 민물, 민물. 거룻굴물.(민물, 민물. ‘거룻굴물’.)

104010 @ 거룻굴물.(‘거룻굴물’.)

104010 #1 걸물, 솟두못, 가름에 못이 하.(‘걸물’, ‘솟두못’, 동네에 못이 많아.)

104010 @ 이디 잇는 건 거룻굴물. 가깝구나예.(여기 잇는 건 ‘거룻굴물’. 가깝군요.)

104010 #2 요디 가민 펄못, 그다음 가온통. 솟두못.(요기 가면 ‘펄못’, 그다음은 ‘가온통’. ‘솟두못’.)

104010 @ 소 질루는 디 쉼 힘든 건 뭐마씨?(소 기르는 데 제일 힘든 건 뭐예요?)

104010 #1 힘들멍 말멍도 잇어. 그냥 이제 출혈 때가 힘들지. 경허당 팔월 마나 저 노민 줄바로 못 물리민 출도 석어 불곡.(힘들면서 말면서도 없어. 그냥 이제 팔할 때가 힘들지. 그러다가 팔월 장마나 저 놓으면 제대로 못 말리면 꼴도 섞어 버리고.)

104010 #2 소도 혼 너댓 마리씩 물안 텅기고 물도 메고, 구르마 허는 물도 메고, 우리도 대농분 대농부거든.(소도 한 너댓 마리씩 몰아서 다니고 말도 매고, 달구지도 하는 말도 매고, 우리도 대농부는 대농부거든.)

## 말 기르기

104011 @ 말은 어떻 기릅니까?(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104011 #2 돌도 역시 녹대 씨왕 마굿간에서 매어. 구르마도 허고.(말도 역시 굴레 썩워서 마구간에 매어. 달구지도 하고.)

104011 #1 돌은 당번 아니 허영 요 까까운 디.(말은 당번 안 하고 요 가까운 데.)

104011 #2 줄베 메영.(줄바 매어서.)

104011 #1 진 줄 허영 말뚝 박앙 그디 강 그 근처에 뱅뱅 먹어나민 또 듯날은  
판 디레 강 이동허영 또 거 뜯어 먹영 그거 뜯어 가민 또 이쪽에 먹어난디 풀 나가  
민 또 요레 메곡.(긴 줄 해서 말뚝 박아서 거기 가서 그 근처에 뱅뱅 먹고나면 또  
뒷날은 다른 데로 가서 이동해서 또 그거 뜯어 먹어서 그거 뜯어 가면 또 이쪽에  
먹어난 데 풀 나가면 또 요리 매고.)

104011 #2 구르마도 허고, 밧도 갈곡. 건 살림 다 거주.(달구지도 하고, 밧도 갈  
고. 그건 살림 다 그거지.)

104011 #1 그거는 간단허여.(그거는 간단해.)

104011 @ 말도 집에서 혼 마리씩 키와났수과?(말도 집에서 한 마리씩 키웠었습  
니까?)

104011 #1 응, 구르마 허젠 허난.(응, 달구지 하려고 하니까.)

104011 #2 물도 밧 갈곡 다 헤여.(말도 밧 갈고 다 해.)

104011 @ 말로도 밧 갑니까?(말로도 밧 갑니까?)

104011 #2 아이고, 나가 물을 얼마나.(아이고, 내가 말을 얼마나.)

104012 @ 말도 털색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지예?(말도 털색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지요?)

104012 #2 어, 월라, 얼룩빠기가 월라몰.(어, 월라, 얼룩빠기가 월라마.)

104012 @월라몰 또?(월라마 또?)

104012 #2 백마.(백마.)

104012 @ 백마.(백마.)

104012 #2 먹총이<sup>99</sup>.(먹총이.)

104012 @ 무신 충이?(무슨 충이?)

104012 #1 먹총이.(먹총이.)

104012 #2 거먼 거 먹총이라고 했어. 월라말, 적다말, 가라몰.(검은 거 먹총이라  
고 했어. 월라마, 적다말, 가라말)

104012 @ 가라말은 어떤 거파?(가라말은 어떤 겁니까?)

104012 #2 검은 거.(검은 거.)

104012 @ 먹총이는? 먹총이가 검은 거엔 안 해수과?(먹총이는? 먹총이가 검은  
거라고 안 했습니까?)

104012 #2 것도 검은디. 가라몰이엔 흰 건, 빗깔 가메기 색깔이라, 빈찍빈찍해.  
(그것도 검은데. 가라말이라고 한 건 빗깔이 까마귀 색깔이야, 반짝반짝해.)

104012 @ 더 검은 게 가라몰?(더 검은 게 가라말?)

104012 #2 반짝반짝허는 거. 검은 것에서 또 거는 빈찍빈찍헌 거 가라몰.(반작  
반짝하는 거. 검은 것에서 또 그거는 반짝반짝한 거 가라말.)

104012 @ 가라몰, 먹총이.(가라말, 먹총이.)

104012 #2 얼룩빠기.(얼룩빠기.)

---

99) '먹총이'는 검은 털과 흰 털이 섞여 난 말이다.

104012 @ 월라몰이 얼룩빼기 아니?(월라마가 얼룩빼기 아니?)

104012 #2 흰 것에 노린 거 서꺼진 게 월라몰이고.(흰 것에 노란 거 섞어진 게 월라마고.)

104012 @ 그다음에 벌경헌 건?(그다음에 벌건 건?)

104012 #2 벌경헌 건, 거 뭐야? 조르마, 찢헌 조르마. 시빨경헌 거 조르마. 적다몰.(벌건 건, 거 뭐야? ‘조르마’, 진한 ‘조르마’. 시빨건 거 ‘조르마’. 적다마.)

104012 #1 그 몰이 고와. 빨경헌 몰이.(그 말이 고와. 벌건 말이.)

104012 @ 벌건헌 몰이 고와?(벌건 말이 고와?)

104012 #2 응.(응.)

104012 @ 아까 하양헌 건 무신 말?(아까 하얀 건 무슨 말?)

104012 #2 백마. 백마도 얼룩빼기가 셔.(백마. 백마도 얼룩빼기가 있어.)

104012 @ 백마 얼룩빼기? 그건 무신거파?(백마 얼룩빼기? 그건 무엇입니까?)

104012 #1 백마에 무신 얼룩빼기가 셔?(백마에 무슨 얼룩빼기가 있어?)

104012 #2 백마도 노린 색 들어가민 얼룩빼기주게. 월라몰.(백마도 누런 색 들어가면 얼룩빼기지. 월라마.)

104012 @ 월라몰? 건 얼룩빼기고. 유매는 무신거파?(월라마? 그건 얼룩빼기고. 유매는 무엇입니까?)

104012 #2 유매가 뭐라?(유마가 뭐야?)

104012 @ 그런 거 엇어마씨? 그믄 고라몰.(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고라말.)

104012 #2 응, 고라몰이엔 헌 거 잇지. 고라몰도 참 알기가 힘든데. 색은 한 가지 색 나가면서도 어디 강 이상헌 색을 가져 이신 몰이 이서. 그런 것ㄴ라 고라몰, 고라몰 해났는디 그런 거 주로 매질 안헛어.(응, 고라말이라고 한 거 잇지. 고라말도 참 알기가 힘든데. 색은 한 가지 색 나가면서도 어디 가서 이상한 색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 그런 것보고 고라말, 고라말 했었는데 그런 거 주로 매지를 았았어.)

104012 @ 안 좋은 거파?(안 좋은 겁니까?)

104012 #2 색깔이 보기가 이상허난 그런 걸 잘 안 질봐.(색깔이 보기가 이상하니까 그런 걸 잘 안 길러.)

104012 @ 젤 일등은 무신거파?(젤 일등은 무엇입니까?)

104012 #2 젤 헌 것이 조르마라고 빨경허고 거무룽헌 것이 일등으로 놓고.(젤 한 것이 ‘조르마’라고 빨경고 거무스름한 것이 일등으로 놓고.)

104012 @ 조르마엔 헌 것이 일등? 이등은?(‘조르마’라고 한 것이 일등? 이등은?)

104012 #2 노랑헌 거, 적다몰.(노란 거, 적다마.)

104012 #1 적다몰은 불그룽헌 거 아니?(적다마는 불그스름한 거 아니?)

104012 #2 아니, 거 님은 적다몰. 백마, 먹총이가 이서. 검고 흰 거, 건 먹총이. 으라 가지 몰은 으라 가지가 색이 이서. 쉼은 뒤 가지 베끼 엇는디.(아니, 그거 같은 적다마. 백마, 먹총이가 있어. 검고 흰 거, 그건 먹총이.)



104012 @ 등 굽은 물은 무신 물이엔 됩니까?(등 굽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104012 #2 굽새물, 굽새. 그자 글자 그대로. 가당오당 하나 잇주. 불구자, 그자. (굽새말, 굽새. 그저 글자 그대로. 오다가다 하나 있지. 불구자, 그저.)

104012 @ 조랑말이엔 허는 족은 말은?(조랑말이라고 하는 작은 말은?)

104012 #1 이진 존존헌 거.(이거 자잘한 거.)

104012 #2 존존헌 건, 거 토박이도 아니고 존존헌 종류가 이서.(자잘한 건, 거 토박이도 아니고 자잘한 종류가 있어.)

104012 #1 종류가 아니고 이것덜 새끼 난 거 키우는 거.(종류가 아니고 이것들 새끼 난 거 키우는 거.)

104012 #2 크도 안 행 켜켜헌 거. 종류가 그런 거도 이섯주.(크지도 았고 자잘한 거. 종류가 그런 것도 있었지.)

104013 @ 말은 주로 구르마 켜켜 허는 거파?(말은 주로 달구지 끌려고 하는 겁니까?)

104013 #1 아니, 하영 질루는 몰테, 몰테 허는 거는 저 산촌 사름덜은 막 하영 새끼 나는 양이 더러 잡아도 먹어불고, 조 불리켜 허민.(아니, 많이 기르는 말떼, 말떼 하는 거는 저 산촌 사람들은 아주 많이 새끼 낳는 대로 더러 잡아도 먹어버리고, 조 밟으려고 하면.)

104013 #2 몰테우리.(말몰이꾼.)

104013 #1 막 우리가 빌어당 아이고 누게네 테 빌어당 밧 불리지 허명. 밧불리는 거 뿐, 그 목장에 질루는 물은. 그런 디 꺼 몰 흐나 이디 걸려당 풀양 여기서 버릇 그리치켜 허민이 하늘만치 땅만치 들러켜이 그리치질 못해.(아주 우리가 빌어다가 아이고 누구네 떼 빌어다가 밧 밟지 하면서. 밧 밟는 거뿐, 그 목장에 기르는 말은. 그런 데 거 말 하나 여기 걸려다가 팔아서 여기서 버릇 가르치려고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날뛰어서 가르치지 못해.)

104013 @ 말보다 소가 쓸모가 하구나예.(말보다 소가 쓸모가 많군요.)

104013 #1 썰모명 말명 밧 하나 가는 거.(쓸모면서 말면서 밧 하나 가는 거.)

104013 #2 소는 밧 같고 물은 탕도 뎡기고 밧도 같고 낭테도 메왕 돌아뎡기고 벨 거 다 허지.(소는 밧 같고 말은 타서 다니고 밧도 같고 낭테도 메워서 돌아다니고 벨 거 다 하지.)

104014 @ 말도 한 살, 두 살 이름이 잇지예?(말도 한 살, 두 살 이름이 잇지요?)

104014 #2 일수, 이수, 삼수.(일수, 이수, 삼수.)

104014 @ 삼수.(삼수.)

104014 #2 마찬가지. 일수는 한 술을 말허고, 삼수는 세 술을 말허는 거고, 스수, 그다음부터는 다섯 술, 여섯 설.(마찬가지. 일수는 한 살을 말하고, 삼수는 세 살을 말하는 거고, 스수, 그 다음부터는 다섯 살, 여섯 살.)

104014 #1 그건 이름으로 댜고. 나이가 네 술 댜가민 혼 술, 두 술, 네 살로 올라가 붙어.(그건 이름으로 댜고. 나이가 네 살 댜어가면 한 살, 두 살, 네 살로 올라가 버려.)

104014 #2 금싱, 다간이여 무신 사릅이여, 나릅이여 건 쉼덜이 경허고 물은 아까 말헌 것이, 나 금방 말헌 것이.(하릅, 다간이다 무슨 사릅이다, 나릅이다 그건 소들이 그렇게 하고 말은 아까 말한 것이, 나 금방 말한 것이.)

104014 @ 일수, 이수?(일수, 이수?)

104014 #2 조금허민 두 술, 세 술 물들은. 댜 술, 댜 술 주로 나가붙고 물은. 금싱, 다간헌 건 쉼덜이고. 허나민 금싱이엔 허고. 물은 혼 술, 두 술, 세 술 흠치 부썰붙어.(조금하면 두 살, 세 살 말들은. 댜 살, 댜 살 주로 나가버리고 말은. 하릅, 다간한 건 소들이고. 하나면 하릅이라고 하고. 말은 한 살, 두 살, 세 살 한꺼번에 붙여버려.)

104014 #1 세 술, 네 술 나가민 물 질룽던 디서 낭 폴앙 우리도 그 물을 사당 ㄴ리청 이넉냥으로 구르마라도 시키젠.(세 살, 네 살 나가면 말 기르던 데서 낱아서 팔아서 우리도 그 말을 사다가 가르쳐서 자기대로 달구지라도 시키려고.)

104014 #2 벨 지랄 다해봤주, 아이고.(별 지랄 다 해봤지, 아이고.)

104015 @ 말 기르면서 재미있거나 생각나는 일 엿수과?(말 기르면서 재미있거나 생각나는 일 없습니까?)

104015 #1 으이구, 생각날 건 무시거게. 힘들주.(아이고, 생각날 건 뭐. 힘들지.)

104015 #2 옛날 하르방덜 해단 물 발로 찬 건 모르주이. 구르마 해단 그놈의 광질허영 구르마 창 잡아 끼어붙어.(옛날 할아버지들 했던 말 발로 찬 건 모르지. 달구지 하다가 그놈의 광질하면서 달구지 차서 잡아 끼워버려.)

104015 #1 물은 실개 엷인 거라서이 광질을 잘허여.(말은 쓸개가 없는 거라서 광질을 잘해.)

104015 #2 앞뒤가 엷이는 것이 물이라.(앞뒤가 없는 것이 말이야.)

104015 #1 물은 잡앙 보민 실개도 엷넨. 게난 실개 엷인 물 ㄴ추룩 예점에 곤는 말이 그거. 구르마 ㄲ신 차 천장만장<sup>100</sup> 막 뛰어가민 사릅도 상허는 수가 하. 들레창<sup>101</sup>, 들레창 그것이 위험허주.(말은 잡아서 보면 쓸개가 없다고. 그러니까 쓸개 없는 말처럼 임시 하는 말이 그거. 달구지 ㄲ는 채 ‘천장만장’ 막 날뛰어 가면 사람도 상하는 수가 많아. ‘들레창’, ‘들레창’ 그것이 위험하지.)

104015 @ 들레창이 무신거?(‘들레창’이 뭐?)

104015 #1 구르마 차 ㄲ영 사릅도 몰르고 뵈도 몰르고 지 멧대로 천장만장 가는 것이 들레창.(달구지 채 끌어서 사람도 몰르고 뵈도 몰르고 자기 멧대로 ‘천장만장’ 가는 것이 ‘들레창’.)

104015 @ 천장만장 가는 것이 들레창?(‘천장만장’ 가는 것이 ‘들레창’?)

100) ‘천장만장’은 아주 높거나 멀리라는 의미로 천 길, 만 길만큼 날뛰거나 도망간다는 말과 쓰인다.

101) ‘들레창’의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으나 제보자는 말이 날뛰면서 빈 달구지를 끌고 마구 달리는 것을 ‘들레창’이라고 말하고 있다.

104015 #1 경허민 실개 엇인 거엔 현 게, 물은 실개가 엇넌. 잡앙 봐도 엇넌.(그러면 쓸개 없는 거라고 한 게, 말은 쓸개가 없다고. 잡아서 봐도 없다고.)

104015 #2 물은 순허민 좋은디 광질허는 물은 이서농민.(말은 순하면 좋은데 광질하는 말은 있으면.)

104015 @ 쉼영 물이영 일러불지 안허게 허젠 허민.(소랑 말이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면.)

104015 #2 넥인.(낙인.)

104015 @ 넥인?(낙인?)

104015 #2 영치에. 표시, 넥인, 넥인. 쉼을, 불에다 구워, 뽕정게. 다 거러 매영.(영딩이에. 표시, 낙인, 낙인. 소를, 불에다 구워, 뽕정게. 다 걸러 매어서.)

104015 #1 물 발 무경 녹져 놔사 이디 점을 찍어. 이 하르방은 에에. 생 차 불 군 거 쿡 찢러봐. 그것이 찍어지민 천장만장 돌아나 불주. 이 발도 무끄곡 이것도 무경 그자 텅글랭이 드러 녹지민 깡 누르뜨민 바지직하게시리 터럭이영.(말 발 묶어서 눕혀 놔야 여기 점을 찍어. 이 할아버지는 에에. 생 채 불 구운 거 쿡 찢러봐. 그것이 찍히면 천장만장 돌아나 버리지. 이 발도 묶고 이것도 묶어서 그저 덩그러니 눕히면 딱 누르면 바지직하게끔 털이랑.)

104015 #2 것이 이녁 표시라. 일러먹지 못허게.(그것이 자기 표시야. 잃어버리지 못하게.)

104015 #1 경허당 일러먹으면은 이런 줄 메영 놔뒤도 끈영 돌아나불민이 목장 덜 좇으레덜 가민, 어느 동네 가민 무신 폐적해진 물을 봐저라 허민 그 근처레 강 좇이레 가곡 그 폐적이 필요허긴 허여.(그러다가 잃어버리면 이런 줄 매어서 놔뒤도 끊어서 돌아나 버리면 목장들 찾으러들 가면, 어느 동네 가면 무슨 표적해진 말이 보이더라 하면 그 근처에 가서 찾으러 가고 그 표적이 필요하긴 해.)

104015 @ 말고뼈는 제주도 말로 무신거렌 험니까? 말 끄젠 허민.(말고뼈는 제주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말 끌려고 하면.)

104015 #1 석, 녹대, 녹대.(고뼈, 굴레, 굴레.)

104015 @ 녹대는 이디 허는 거고, 끄스는 건.(굴레는 여기 하는 거고, 끄는 건.)

104015 #2 석, 석. 물석. 녹대에 석이 달아져 잇주. 딱 매민 물이 꼬딱 못해.(고뼈, 고뼈. 말고뼈. 굴레에 고뼈가 달려 있지. 딱 매면 말이 까딱 못해.)

## 먹이

104016 @ 말허고 소 먹이 다시 한 번 곁아줍서. 쉼허고 물 먹는 거.(말하고 소 먹이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소하고 말 먹는 거.)

104016 #2 쉼 먹는 거 물도 먹곡 출은.(소 먹는 거 말도 먹고 풀은.)

104016 @ 출도 허고.(풀도 하고.)

104016 #1 곡식 대도 맥이고.(곡식 대도 먹이고.)

104016 #2 콩 때려난 낭대도 맥이고, 조 해난 낭대도 맥이고. 보리칩은 잘 안

먹어.(콩 때리고 난 줄기도 먹이고, 조 했던 줄기도 먹이고. 보릿짚은 잘 안 먹어.)

104016 #1 물이고 췌고 햅뎡 영양가 주젠 허면이 출을 작두로 썰엿, 그때는 큰 솟덜도 잇고 솟에 삶앙, 콩 놓곡 삶앙이 ㄱ치 젓엿 다라에 햅엿 맥여.(말이고 소고 조금 영양가 주려고 하면 꼴을 작두로 썰어서, 그때는 큰 솔들도 잇고 솔에 삶아서, 콩 놓고 삶아서 같이 저어서 대야에 햅서 먹여.)

104016 @ 그건 이름 뭇엔 안 곱읍니까?(그건 이름 뭇라고 안 말합니까?)

104016 #1 이건 엿고.(이건 없고.)

104016 #2 보릿ㄱ루라도 서텅 맥여주곡.(보릿가루라도 췌어서 먹여주고.)

104016 #1 콩도 삶앙 맥여주고.(콩도 삶아서 먹여주고.)

104017 @ 출은 어뎡 장만허는 거파?(꼴은 어떻게 장만하는 겁니까?)

104017 #2 출은 목초밭이 엿이면은 남이 밭디 강 사기도 허고.(꼴은 목초밭이 없으면 남의 밭에 가서 사기도 하고.)

104017 #1 옛날 목초밭이 어디 십니까?(옛날 목초밭이 어디 있습니까?)

104017 @ 옛날에 출밭?(옛날에 꼴밭?)

104017 #2 응, 저 드리 벵디, 교래리 우트레 올라간 디 강 번지에 먹어난 거 큰 거 엿인 사름은 출도 비고. 침 서럽게 현 사름은 서럽게 햅. 이신 사름은 또 자기 소유가 이시민 출왓햅서 가되서 담으로 막아진 디서 가냥햅서, 자기가 목초밭을 이젠 빌어서 들도 맥이고, 소도 맥이고. 엿인 사름은 하간 디 가서 동냥햅야주. 목장도 올라가고. 우리도 교래ㄱ지 올라가서, 아버지엿.(응, 저 교래 들판, 교래리 위에 올라간 데 가서 ‘번지’에 먹엿던 거 큰 거 없는 사름은 꼴도 베고. 참 서럽게 한 사름은 서럽게 햅. 잇는 사름은 또 자기 소유가 있으면 꼴밭햅서 가두어서 담으로 막힌 데서 관리햅서, 자기가 목초밭을 이젠 빌어서 말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없는 사름은 온갓 데 가서 동냥햅야지. 목장도 올라가고. 우리도 교래까지 올라갔어, 아버지랑.)

104018 @ 할머니가 출 어뎡 장만허는지 곱아줍서.(할머니가 꼴 어떻게 장만하는지 말햅주세요.)

104018 #1 목장 가민 출 비엿. 그냥 어뎡 뎡이 이녁 출밭ㄱ추룩 현 밭을 빌 수도 잇어. 날이 막 중앙 추석 명절 햅먹고 브름이 섯브름 막 터지면은 눅 뎡 개 빌엿 강 막 그걸 비어. 쫓꼬만 남저덜은 또 호미도 곱아주곡, 게민 제우제우 햅는 거 보민 날 좋민, 제우 햅 놔두민은 그냥 비오라 불면은 그눔으 출이 섯어 불어. 게민 허탕이라이.(목장 가면 꼴 베어서. 그냥 어뎡 때는 자기 꼴밭처럼 한 밭을 빌 수도 잇어. 날이 아주 좋아서 추석 명절 햅먹고 바람이 서풍 막 터지면 눅 뎡 명 빌어서 가서 막 그걸 베어. 조그만 남자들은 또 낫도 곱아주고, 그러면 겨우겨우 햅놓은 거 보면 날 좋으면, 겨우 햅서 놔두면 그냥 비와 버리면 그눔의 꼴이 섯어 버려. 그러면 허탕이야.)

104018 @ 섯어 불민 다시 햅야햅?(섯어 버리면 다시 햅야 돼?)

104018 #1 또 다시 햅야주게. 겨민 출을 빌 디 구허지 못햅 돌아햅기당 보민 어

명행 허여져. 멧 구르마 해당 집이 조근조근 놀어가. 빙빙 놀영 이젠 어욱 비어당 이젠 그 놀을 다 싸. 싹당 이젠 소고 말이고 마구에 들어오면은 그거 빠멍 맥이고. 조칩대도 먹이고.(또 다시 해야지. 그러면 꼴을 벨 데 구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보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어. 멧 달구지 해다가 집에 차근차근 가려가. 빙빙 가려서 이젠 억새 베어다가 이젠 그 가리를 다 싸. 싹다가 이젠 소고 말이고 마구간에 들어오면 그거 빠다가 먹이고. 조짚도 먹이고.)

104019 #2 옛날은 구르마가 엇인 때니까 말쉴 질망머리에 혼 짐씩 시꺼당 구르마가 나온 때로부터는 마차에 실려서 그것을 운반허영. 그다음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허난 한 걸 해볼어. 이젠 자동차 나오난 경운기가 다 죽어버렸어.(옛날은 달구지가 없는 때니까 마소 등에 한 짐씩 실어다가 달구지 나온 때로부터는 마차에 실어서 그것을 운반해서. 그다음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가해버려. 이젠 자동차 나오니까 경운기가 다 죽어버렸어.)

104019 @ 쉼 질메에 헐 때 출 혼 바리허민 멧 못이나 들어갑니까?(소 길마에 할 때 꼴 한 바리하면 멧 못이나 들어갑니까?)

104019 #1 서른 개. 마흔 갠가?(서른 개. 마흔 갠가?)

104019 #2 한 바리, 두 바리 허는디 삼십 못이 혼 바린가 사십 못이 혼 바린가 그거는 정확헌 거는, 삼십 못 아니민 사십 못.(한 바리, 두 바리 하는데 삼십 못이 한 바린가 사십 못이 한 바린가 그거는 정확한 거는, 삼십 못 아니면 사십 못.)

104019 #1 소에 시끄젠 허민 것도 힘들어실 거라. 우린 그런 걸 몰르는디.(소 실으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었을 거야. 우린 그런 걸 모르는데.)

104019 @ 게난 출은 사십 못이파, 서른 못이파?(그러니까 꼴은 사십 못입니까, 서른 못입니까?)

104019 #2 글썸, 건 정확히 모르겠어. 한 바린 맞고.(글썸,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한 바리는 맞고.)

104020 @ 게민 보리 한 바린?(그러면 보리 한 바리는?)

104020 #1 서른 개.(서른 개.)

104020 @ 조는?(조는?)

104020 #1 조는 무끄는 버릇이 엇어. 그냥 영 비어 놓면 비오람 직허민 안아다 놓고, 안아다 놓고 허민 놀이 돼여이. 놀 돼면은 그때는 또 날 좋으면 그것도 떼어 놓명 툇아, 고고리틀. 존 무꺼 보질 안헛어. 거창시루왕 못 무꺼.(조는 묶는 버릇이 없어. 그냥 이렇게 베어 놓으면 비올 것 같으면 안아다 놓고, 안아다 놓고 하면 가리가 되어. 가리 되면 그때는 또 날 좋으면 그것도 떼어 놓으면서 뜯어, 이삭을. 조는 묶어 보지 않았어. 거추장스러워서 못 묶어.)

104020 @ 쿵은?(쿵은?)

104020 #1 쿵은 무꺼당 집이 왕 두들겨.(쿵은 묶어다가 집에 와서 두드려.)

104020 @ 쿵은 혼 바리허민 멧 못이파?(쿵은 한 바리하면 멧 못입니까?)

104020 #1 이건 바리가 엇어.(이건 바리가 없어.)

104020 #2 멧 못 행 지영 오든, 췌에 시켓던, 뭇허단 콩 ㄴ튼 건 거창해서 밧디서 때령 오고.(멧 못 해서 저 오든, 소에 실었든, 뭇하든 콩 같은 건 거창해서 밧에서 때려서 오고.)

104020 @ 새는 멧 못이나 들어갈 건고?(떠는 멧 못이나 들어갈 것인가?)

104020 #1 우리 옛날 집 이는 새?(우리 옛날 집 이는 떠?)

104020 @ 예.(예.)

104020 #1 것도 서른 개.(그것도 서른 개.)

104020 @ 것도 서른 개. 보통 서른 개구나예.(그것도 서른 개. 보통 서른 개군요.)

104020 #1 보통 서른 개라. 새고 뭇이고.(보통 서른 개야. 띠고 뭇고.)

104021 @ 출 베영 놀곡 허는 거 할머니, 허당 힘들고 기억나는 거 잊수과?(꿀 베어서 가리고 하는 거 할머니, 하다가 힘들고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4021 #1 아이고, 출만 허여 오민 그거 비영 무끔만 허영 집이만 시꺼오민 힘들 거 잊어. 그냥 조근조근 늘어붙면은.(아이고, 꿀만 해 오면 그거 베어서 묶기만 해서 집에만 실어오면 힘들 거 없어. 그냥 차근차근 가려버리면은.)

104021 @ 출 누는 건 어떻게 놓니까?(꿀 가리는 건 어떻게 해서 가립니까?)

104021 #1 놀 우이 올라강 이디 혼 못 톱 데끼고, 혼 못 데끼고 허민 그 놀 우이 사름 이시면은 조근조근 영 츄츄츄츄.(가리 위에 올라가서 여기 한 못 톱 던지고, 한 못 던지고 하면 그 가리 위에 사람 있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차차차차.)

104021 @ 밧에 무신거 봐야 돼지 안해?(밧에 무엇 봐야 되지 않아?)

104021 #1 무신 낭트막 ㄴ튼 거라도 무신거 밧에 가면 그 출이 석을 거니까이 보리라도 공글공글 낱 그디 공기 들어가게 해 줘야해.(무슨 나무토막 같은 거라도 무엇 밧에 가면 그 꿀이 썩을 거니까 보리라도 ‘공글공글’ 봐서 거기 공기 들어가게 해 줘야해.)

104021 @ 그거 무신거엔 곶아?(그거 무엇이라고 말해?)

104021 #1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아래 밧에 깎는 거니까.(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아래 밧에 까는 거니까.)

104021 @ 놀굽은 무신거파?(‘놀굽’은 무엇입니까?)

104021 #1 그것이 놀굽이지.(그것이 ‘놀굽’이지.)

104021 #2 놀굽은 핫튼 물 안 들게끔 공고룻이 봐서.(‘놀굽’은 하여튼 물 안 들게 ‘공고룻이’ 봐서.)

104021 #1 출이 영 놀면은 김이 올랑 서그카부덴 낱지, 하영, 두둑허게. 이 출을 그르쳐 불카부덴. 이디가 두둑허게 낱아줘야 땅짐이 올라와도 안 썩지.(꿀이 이렇게 가리면 김이 올라서 썩을까봐 깔지, 많이, 두둑하게. 이 꿀을 망쳐 버릴까봐. 여기가 두둑하게 깔아줘야 땅짐이 올라와도 안 썩지.)

104021 @ 출도 잘 싸야지예, 잘못허민 뽕라져 불지 안해?(꿀도 잘 싸야지요, 잘못하면 무너져 버리지 않아?)

104021 #1 아니. 출은 질이 놀기가. 보리놀이 놀기가 낫지. 출놀도 놀기 좋아. 출은 풀렁이가 깨늘아부니까 일로 꼭꼭 누루뜨고, 뱅뱅뱅뱅 돌아가. 뱅뱅뱅뱅 돌아가민 동글락허게 가운데 강 또 흐 번 돌민 쪽 메와지멍 놀이 곱닥허게 놀어져.(아니. 풀은 제일 가리기가. 보릿가리가 가리기 나쁘지. 풀가리도 가리기 좋아. 풀은 꼬리가 가늘어버리니까 이리로 꼭꼭 누르고, 뱅뱅뱅뱅 돌아가. 뱅뱅뱅뱅 돌아가면 동그랗게 가운데 가서 또 한 번 돌면 쪽 메워지면서 가리가 곱게 가려져.)

104021 @ 꼭대기에는?(꼭대기에는?)

104021 #1 꼭대기민 또 영 마무리 지음으로 이렇게 해가다가 느람지.(꼭대기면 또 이렇게 마무리 지음으로 이렇게 해가다가 이영.)

104021 @ 느람진 무신걸로 멘들아?(이영은 무엇으로 만들어?)

104021 #1 새. 새로 멘들앙 이젠 이디 더끝 건, 건 주지. 건 어욱. 어욱 비어당. (떠. 떠로 만들어서 이젠 여기 덮을 건, 그건 주저리. 그건 억새. 억새 베어다가.)

104021 @ 주진 어욱으로 험니까?(주저리는 억새로 합니까?)

104021 #1 어욱 비어다근엥에 주질 영 씨울 거. 정 헤나민 이제 칙이랑 뭐 걷어당 불러나카부텐 놀, 불러나카부텐 막 칙이영 막 해당 낭께기 해당 출르러레 꼭꼭 찢르멍 느람지 불러나지 못허게.(억새 베어다가 주저리를 이렇게 씨울 거. 그렇게 하고나면 이제 칙이랑 뭐 걷어다가 날아가 버릴까봐 가리, 날아가 버릴까봐 막 칙이랑 막 해당가 나무막대기 해당가 풀에 꼭꼭 찢르면서 이영 날아가지 못하게.)

104021 @ 그거는 칙으로 험니까? 석<sup>102)</sup>으로 안 행.(그거는 칙으로 합니까? 줄로 안 하고?)

104021 #1 아니, 아니, 칙 걷어당. 석이 시민 종주만은 하지 안허주게. 칙은 이디 나가민 막 걷어올 수 이시난, 하난.(아니, 아니, 칙 걷어다가. 줄이 있으면 좋지만 많지 않지. 칙은 여기 나가면 막 걷어올 수 있으니까, 많으니까.)

104021 @ 칙이엔 곱읍니까, 꼭이엔 곱읍니까?(칙이라고 말합니까, ‘꼭’이라고 말합니까?)

104021 #1 꼭이엔 허고 칙이엔 허고.(‘꼭’이라고 하고 칙이라고 하고.)

104021 @ 옛날말로.(옛날말로.)

104021 #1 칙이엔 우린 잘 곱아져.(칙이라고 우린 잘 말해져.)

104021 @ 아, 칙이엔 곱아놔수과?(아, 칙이라고 말했었습니까?)

## 떨감

104022 @ 진을커 헤난 말 곱아줍서.(떨감 했던 말 해주세요.)

104022 #1 떨감, 불떨 거.(떨감, 불떨 거.)

104022 @ 거난.(거난.)

104022 #1 경 베끼 안 돼지.(그렇게 밖에 안 되지.)

104022 @ 진을컨 무신거 무신걸로 진을커 험니까?(떨감은 무엇 무엇으로 떨감

102) ‘석’은 ‘교삐’의 제주어이지만 여기서는 참바처럼 가리를 덮은 이영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매는 줄을 말한다.

합니까?)

104022 #1 가문, 이디 나가문 이름이 하. 그냥이 허뜩헌 가시 님은 것덜이영이 구름페기여, 무시거여 낭ㄴ추룩 요만씩헌 거 다 비영 무끄멍 지어오고이. 또 그때 이제는 소냐이 덜어도 그때는 막 소냐이 하이. 그때 이추룩헌 굽쟁이 앓앙강이 시월덜 낭 브름만 불어 나쁜이 거 건젠이 막 욱심해영 세백이 가.(가면, 여기 나가면 이름이 많아. 그냥 허드레 가시 같은 것들이랑 까마귀쪽나무다, 뭐다 나무처럼 요만 큼씩 한 거 다 베어서 묶으면서 저오고. 또 그때 이제는 소나무가 적어도 그때는 아주 소나무가 많아. 그때 이렇게 한 굽개 가져가서 시월 나서 바람만 불고 나면 그거 걷으려고 막 욱심해서 새벽에 가.)

104022 @ 무신거?(뭐?)

104024 #1 술섭 떨어진 거.(술잎 떨어진 거.)

104024 @ 술섭 떨어진 거.(술잎 떨어진 거.)

104024 #1 그거 허여당 집이 막 늘어, 늘ㄴ추룩.(그거 해다가 집에 막 가려, 가리처럼.)

104024 @ 아, 술섭 그거를?(아, 술잎 그거를?)

104024 #1 응, 하영 해당.(응, 많이 해다가.)

104024 @ 그거 하영 허민 어떻 정 읍니까? 털어져불지 안해?(그거 많이 하면 어떻게 저서 읍니까? 떨어져버리지 않아?)

104024 #1 일로 이만이허게이 혼 못에 무꺼.(이리로 이만큼하게 한 못에 묶어.)

104024 @ 어떻 무꺼?(어떻게 묶어?)

104024 #1 그때는 그 노끈, 베가 잇어이, 베. 앓앙 갓당 영 베 세 동에 낱 저추룩 헌 낭게기 님은 거 독독 낱 술섭을 막 그레 안아 낱. 이젠 둘이가 막 그걸 췌와, 무꺼. 무끄민 그 굽쟁이엔 헌 걸로 양 꼰랭이 탁탁 치민이 멋지게 방대헹직이 멘들 아져.(그때는 그 노끈, 바가 있어, 바.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바 세 동에 놔서 저렇게 한 나무막대기 같은 거 툭툭 놔서 술잎을 막 그리 안아 놔서. 이젠 둘이가 막 그걸 조여, 묶어. 묶으면 그 굽개라고 한 걸로 양쪽 꼬리 탁탁 치면 멋있게 장난할 것처럼 만들어져.)

104024 @ 건 무신거엔 곶아?(건 무엇이라고 말해?)

104024 #1 술입 보달.(술가리 ‘보달’<sup>103</sup>).)

104024 @ 술입 보달.(술가리 ‘보달’.)

104024 #1 경 보달 청 왕 이젠, 지게, 지게로 그 지게 가텡이로 그 보달친 걸 꼭 찢르면 반은 찢러질 거 아니?(그렇게 ‘보달’ 쳐서 와서 이젠, 지게, 지게로 그 지게 막대기로 그 ‘보달’친 걸 꼭 찢르면 반은 찢을 수 있을 거 아니니?)

104024 @ 예.(예.)

104024 #1 반은 찢러지면은 우에만 또 놓면은 거창허니까 지게 발꺼지 건증 가 제시리 두 개 멘들양 지영 오젠 허민 하나 보달은 발로 영 꼭 질렁 존등으로 허고

103) ‘보달’은 술잎 등을 모아서 한 집이 될 정도로 묶음을 말한다.



또 거 영 일러 세우면은 또 흥끔 죽은 거는 또 그 우트레 낱 두 개 해영 지어와.(반은 찌를 수 있으면 위에만 또 놓으면 거창하니까 지게 발까지 거의 가게끔 두 개 만들어서 저서 오려고 하면 하나 ‘보달’은 발로 이렇게 꼭 찢어서 등으로 하고 또 그거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 또 조금 작은 거는 또 그 위에 놔서 두 개 해서 저와.)

104024 @ 아.(아.)

104024 #1 거문 하영 허여 온 날은 하루 두어 번 허여 와. 허여 오민 문딱 강 욕심허영. 문딱 느나엇이 그때는 그런 거 해당 진을커힐 때라부난 새백아침이 못가든 강 건너오지도 못해, 잘이.(그러면 많이 해 온 날은 하루 두어 번 해 와. 해 오면 모두 가서 욕심내서. 모두 너나없이 그때는 그런 거 해다가 땀감할 때라서 새백아침에 못 가면 가서 건너오지도 못해, 잘.)

104024 @ 응.(응.)

104024 #1 하영 해영 건너놓민, 하영 현 때는 구르마 신 때난이 구르마로도 강 열 개도 시꺼오곡, 여덟 개도 시꺼오곡. 경행 우리가 살아완. 이 앞이 해당 막 늘 늘어. 게문 그 늘을 해치구정 안해영 아까왕이 또 강 해당 또 건 함빠<sup>104)</sup>로 진으곡. 건 늘을 어느제사 허젠사 험신디.(많이 해서 건너놓으면, 많이 한 때는 달구지 있는 때니까 달구지로도 가서 열 개도 실어오고, 여덟 개도 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어. 이 앞에 해다가 막 가려. 그러면 그 가리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아까워서 또 가서 해다가 또 그건 ‘함빠’로 때고. 그건 가리를 언제야 하려고야 하는지.)

104024 @ 계난.(그러니까.)

104024 #1 아까왕 걸 빠멍 안 진젠만, 게도 언젠가는 빠멍 진어야 헐 건디 임시 곧 해다 논 때는 아까왕 또시 강 해당 함빠로 진어.(아까워서 그걸 빼면서 안 때려고만, 그래도 언젠가는 빼면서 때야 할 건데 임시 곧 해다 놓은 때는 아까워서 또 가서 해다가 ‘함빠’로 때.)

104024 @ 함빠로는 뭐? 일본말?(‘함빠’로는 뭐? 일본말?)

104024 #1 일본말일 테지. 그냥 건 아까왕 헐리지 못허난에 강 또 해당 진으난. 건 그자 웨로 해단 진은 거라. 아깝게시리.(일본말일 테지. 그냥 그건 아까워서 헐지 못하니까 가서 또 해다가 때니까. 그건 그냥 외로 해다가 때는 거야. 아깝게끔.)

104023 @ 쇠똥, 똥똥도 좇어당 해낫수과?(쇠똥, 똥똥도 주어다가 했었습니까?)

104023 #1 기주게. 이제는이 저 바레기만인 현 가마니가 이서이. 저 육지서는 그 나륙대로 짜준 가마니. 오 톤 가마니, 사 톤 가마니 해, 그때는이. 오 톤 가마니 큰 거 앓앙가민, 일로 나가민 그때는 똥덜을 하영 질룰 때난에, 굴체 앓이고.(그렇지. 이제저 저 ‘바레기’만큼 한 가마니가 있어. 저 육지서는 그 뽕짚으로 짠 가마니. 오 톤 가마니, 사 톤 가마니 해, 그때는. 오 톤 가마니 큰 거 가져가면, 이리로 가면 그때는 말들을 많이 기를 때니까, 삼태기 가지고.)

104) ‘함빠’는 일본어 ‘はんぱ’로 전부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나 자투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서 온 땀감을 뜻한다.

104023 @ 응.(응.)

104023 #1 그 똥똥은 젖은 건 안 줍곡, 베어불카부텐. 지영 오젠 허민 벨 거난 에. 그냥 똥 걸로 행 이젠 그 오 톤 가마니에 깍깍 담양 이젠 짚음직현 낭께기 이추룩 현 거 행 영 그 가마니 우 막양, 칙 견영 이젠 그걸 막 얹어, 쏘아지지 못허 게. 정허영 이젠 지게에 낵 지어 아정 오민 굴목 짚으고. 고사리 아니 ㄴ시락.(그 말똥은 젖은 건 안 줍고, 무거울까봐. 저서 오려고 하면 무거울 거니까. 그냥 마른 걸로 해서 이젠 그 오 톤 가마니에 짹짹 담아서 이젠 뽕만한 나무막대기 이렇게 한 거 해서 이렇게 그 가마니 위 막아서, 칙 견어서 이젠 그걸 막 얹어, 쏘아지지 못허 게. 그렇게 해서 이젠 지게에 놔서 저서 가져 오면 ‘굴목’ 때려고. 고사리 아니 까끄라기.)

104023 @ 응, ㄴ시락.(응, 까끄라기.)

104023 #1 보릿ㄴ시락에 똥 흥끔씩 낵 허민 구들이 오래 더워이. 타는 율이 뜨니까.(보리 까끄라기에 똥 조금씩 놔서 하면 방이 오래 따뜻해. 타는 속도가 느리니까.)

104023 @ 아, 아.(아, 아.)

104023 #1 정헛 살아난 거.(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

104023 @ 갱 쉼똥허고 말똥 좇으레 드르에 강.(그렇게 해서 쇠똥하고 말똥 주우러 들에 가서.)

104023 #1 쉼똥 줍기는 힘들어이. 커부니까 잘 안 똥르고 말똥은 도록도록<sup>105)</sup> 떨어지니까 요만씩 허니까 재기 똥르든 그런 걸로만. 경헛 텅기당 쉼똥이나 시민 영 데쌍 내불어. 아무 때라도 아무라도 좇어가게, 똥르게.(쇠똥 줍기는 힘들어. 커버리니까 잘 안 마르고 말똥은 ‘도록도록’ 떨어지니까 요만큼씩 하니까 빨리 마르면 그런 걸로만.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쇠똥이나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내버려. 아무 때라도 아무라도 주워가게, 마르게.)

104023 @ 똥르게, 하하하.(마르게, 하하하.)

104023 #1 땅에 탁 부뜨민 이추룩 현 거 탁 부뜨민 안 똥를 거난.(땅에 딱 붙으면 이렇게 한 거 딱 붙으면 안 마를 거니까.)

104023 @ 데쌍?(뒤집어서?)

104023 #1 발로라도 툭 차버리민 데싸지지. 경헛 내불어. 경허명 이제ㄴ지 살아온 거.(발로라도 툭 차버리면 뒤집어지지. 그렇게 해서 내버려. 그러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

104025 @ 게민 나무는, 나무는 아무거나 강 막 그창 와도 돼여?(그러면 나무는, 나무는 아무거나 가서 마구 잘라 와도 돼?)

104025 #1 응, 게민이 그때는 술섭 앓아올 때민이 요추룩현 공쟁이<sup>106)</sup>라고이 대 막, 진진현 대막땡이ㄴ추룩 공쟁이가. 이 낭에 그 섭파리 떨어진 삭다리가 이서이.

105) ‘도록도록’은 방울 따위가 연이어 떨어지는 모양으로 여기서는 말똥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106) ‘공쟁이’는 긴 나무자루 끝에 갈고랑쇠를 박은 갈고랑이로 높은 나뭇가지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그걸로 허민 딱딱 꺼져. 게면 그것도 칩 걷어당 무경 서너 못 만들앙 지게에 곳 사 그추룩 꿰영 지어 앓앙 오고.(응, 그러면 그때는 술가리 가져올 때면 요처럼한 ‘공쟁이’라고 대막, 긴긴 대막대기처럼 ‘공쟁이’가. 이 나무에 그 이파리 떨어진 삭정이가 있어. 그걸로 하면 딱딱 꺾어져. 그러면 그것도 칩 걷어다가 묶어서 서너 못 만들어서 지게에 아까 것처럼 꿰어서 저서 가져 오고.)

104025 @ 낭도?(나무도?)

104025 #1 응, 그 술섭에 이파리 다 떨어정 죽어가는 가지가 이서이. 그런 가지 그냥 요추룩 현 공쟁이 멘들앙 강, 진 거, 저 문입쟁이만인 가져가민 영 걸령 끌렝 이로 강 영 허민 똑똑 꺼져.(응, 그 술잎에 이파리 다 떨어져서 죽어가는 가지가 있어. 그런 가지 그냥 요렇게 한 ‘공쟁이’ 만들어 가서, 긴 거, 저 문설주만큼 가져 가면 이렇게 걸려서 꼬리로 가서 이렇게 하면 똑똑 꺾어져.)

104025 @ 응.(응.)

104025 #1 이만큼 부레기 현 거라도 다 꺼져.(이만큼 부피 한 거라도 다 꺾어져.)

104025 @ 아, 혹시 그건 뭐엔 이름 엇수과? 무신거엔 골아나진 안 해수과?(아, 혹시 그건 뭐라고 이름 없습니까? 뭐라고 말했었지 없습니까?)

104025 #1 삭다리.(삭정이.)

104025 @ 그냥 삭다리. 아니, 죽은 낭 말고 아까 그 공쟁이?(그냥 삭정이. 아니, 죽은 나무 말고 아까 그 ‘공쟁이’는?)

104025 #1 공쟁이, 공쟁이.(‘공쟁이’, ‘공쟁이’.)

104025 @ 그냥 공쟁이?(그냥 ‘공쟁이’?)

104025 #1 응, 공쟁이 행 강. 걸령 등길 거니까.(응, ‘공쟁이’ 해서 가서. 걸려서 당길 거니까.)

104025 #2 걸리니까, 걸려. 걸린다고 해서 공쟁이. 죽은 나뭇가지 삭다리라고.(걸리니까, 걸려. 걸린다고 해서 ‘공쟁이’. 죽은 나뭇가지 삭정이라고.)

104025 #1 나무에 이파리 엇은 건 죽어가는 거라. 술이파리가 엇은 거라.(나무에 이파리 없는 건 죽어가는 거야. 술잎이 없는 거야.)

104025 #2 죽어, 죽어. 남탱이 죽은 건 삭다리, 잡아댕기민 똑똑 꺼져.(죽어, 죽어. 나무 죽은 건 삭정이. 잡아당기면 똑똑 꺾어져.)

104025 #1 그거, 드리 골아가민 무식헌 살림을 살아왔어. 나쁜 아니 느나 헐 거 엇이.(그거, 계속 말하면 무식한 살림을 살아왔어. 나쁜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104025 @ 그땐 다 경헛주마씨.(그땐 다 그랬지요.)

104025 #2 심헌 사름은 심허고. 게 안허민.(심한 사람은 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104025 #1 심헐 것도 엇어. 그런 허연 산 사름이 하주. 이제는 다 고급으로 살아부난에 그런 거, 저런 거 몰르는다.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문딱이주, 문딱. 문딱 이엔 헐 수도 있어. 어디 연탄이 이서, 무시것이 이서, 아무것도 엇주. 기자 경허민 우리 우이 어른덜, 하르방덜은이 시아버지 ㅁ쁜 어른덜은 드르에 강 이만씩헌 낭

끈엉이 이디 누게 어디 시에 몰르게이 시청인가, 어디서 몰르게 막 낭을 끈어.(심할 것도 없어. 그런 해서 산 사람이 많지. 이제는 다 고급으로 살아버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모르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모두지, 모두. 모두라고 할 수도 있어. 어디 연탄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위 어른들, 할아버지들은 시아버지 같은 어른들은 들에 가서 이만큼씩 한 나무 잘라서 여기 누구 어디 시에 몰르게 시청인가, 어디서 몰르게 막 나무를 잘라.)

104025 @ 응.(응.)

104025 #1 이만씩 헌 낭을 톱 앓앙 끈엉 쟁 구들에 화리에 불살를 거. 그디 땅 팡 묻엉 솥을 막 묻어. 겨당 수뜰려놓민 과료 내곡이.(이만큼씩 한 나무를 톱 가져다가 잘라서 그래서 방에 화로에 불사를 거. 거기 땅 파서 묻어서 솥을 막 묻어. 그러다가 수뜰리면 과태료 내고.)

104026 @ 솥도 굽는 거 봐놔수과?(솥도 굽는 거 봤었습니까?)

104026 #1 구는 거 봐놔주, 구는 거는. 영 낭덜 그냥 이추룩 조근조근 경허민 이 아래 불 부짱 그냥 흑 더짱 내불면은 그 짐으로.(굽는 거 봤었지, 굽는 거는. 이렇게 나무들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면 이 아래 불 붙여서 그냥 흙 덮어서 내버리면 그 짐으로.)

104026 #2 거 아무나 허는 거 아니.(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

104026 #1 건 아무나 못헤.(그건 아무나 못헤.)

104026 #2 건 전문가가 이서.(그건 전문가가 있어.)

104026 #1 경해놓민 그 옛날엔 솥장사가 이서. 저 옷드르<sup>107)</sup> 사름덜 막 솥장사가. 요만헌 베개만인 헌 것에 얼마씩 허고 오 톤 가마니로 하나에 얼마씩 허민 사당 화리에 불살랐당 저실 허민 어제 식으로 오메기떡도 구웁 먹고.(그래놓으면 그 옛날엔 솥장사가 있어. 저 중산간 마을 사람들 막 솥장사가. 요만큼 한 베개만큼 한 것에 얼마씩 하고 오 톤 가마니로 하나에 얼마씩 하면 사다가 화로에 불살랐다가 겨울 되면 어제 식으로 ‘오메기떡’도 구워서 먹고.)

104026 @ 화리에서예.(화로에서요.)

104026 #1 골미떡도 구웁 먹고 그추룩 헤놔지.(골무떡도 구워서 먹고 그렇게 했었지.)

104026 @ 이딘 옷드르에서 솥 구웁 이디 왕 폼니까?(여긴 중산간 마을에서 솥 구워서 여기 와서 팝니까?)

104026 #1 응, 옷드르서. 옷드르 사름덜이 걸 잘허지.(응, 중산간 마을에서.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그걸 잘하지.)

104026 @ 게난예 아멩헤도 낭도 하고.(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나무도 많고요.)

104026 #1 낭도 하고.(나무도 많고.)

104026 #2 옷드르 돈이 안 돼니까게, 것이 버는 거난. 무시거 돈이 나올 디가

---

107) ‘옷드르’는 중산간 마을을 이르는 것으로 위를 뜻하는 ‘옷’과 들을 뜻하는 ‘드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서? 십 원 하나.(중산간 마을은 돈이 안 되니까, 그것이 버는 거니까. 무엇 돈이 나올 데가 있어? 십 원 하나.)

104026 #1 돈이 나올 디명 말명 때가 그런 때라노난 다 그 식으로 살아왔주, 무신. 우리엔 벨라고 다른 사름이엔 돈 낭 산 것이 아니난.(돈이 나올 데면서 말면서 때가 그런 때라서 다 그 식으로 살아왔지, 무슨. 우리라고 벨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돈 나서 산 것이 아니니까.)

104027 @ 짚을커 준비하면서 혹시 뭐 기억나거나 어려웠거나 힘든 일?(벨감 준비하면서 혹시 뭐 기억나거나 어려웠거나 힘든 일?)

104027 #1 그것이 어렵지게. 짚을커 허여 오는 것도이 아무나 강 채기 해 온텐 해도 물애기 든 때도 못허고.(그것이 어렵지. 벨감 해 오는 것도 아무나 가서 빨리 해 온다고 해도 아기 볼 때도 못하고.)

104027 #2 열아이 키우멍 살 때난게.(어린이 키우면서 살 때니까.)

104027 #1 그냥 애기 어디 멧겨똥 강 볼 땔 거 해오젠 허는 사름도 천지고이. 우리덜은 초상덜이 귀긱아<sup>108</sup>부난 그런 걱정, 저런 걱정을 안 헐 헤신디도. 정 안 현 사름 애기 멧길 디도 엇영 볼 땔곰도 못 해오고 즈들지게.(그냥 아기 어디 맡겨 두고 가서 볼 땔 거 해오려고 하는 사람도 천지고. 우리들은 조상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해서 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 아기 맡길 데도 없어서 볼 땔감도 못 해오고 걱정하지.)

104027 @ 아까 무신거라, 귀긱아부난, 조상덜은 귀긱아부난 그건 무신 말?(아까 뉘라, ‘귀긱아부난’, 조상들은 ‘귀긱아부난’ 그건 무슨 말?)

104027 #1 우리 초상덜은 귀긱아부난. 문, 할망, 하르방덜이.(우리 조상들은 갖춰져서.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4027 @ 아, 살아계시니까.(아, 살아계시니까.)

104027 #1 살아계시니까. 내가 열아이를 나도 애기 멧겨똥 어디 갈 수가 이시니까. 초상덜 귀긱아부니까.(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린이를 나도 애기 맡겨두고 어디 갈 수가 있으니까. 조상들 갖춰져서.)

104027 @ 응.(응.)

104027 #2 시부모 말이주.(시부모 말이지.)

104027 #1 초상덜이 종과, 시부모가 종과? 초상이 좋은 거주. 웃대 초상덜 덕으로.(조상들이 좋습니까, 시부모가 좋습니까? 초상이 좋은 거지. 윗대 조상들 덕으로.)

104027 @ 응. 게난 짚을컨 보통 소똥, 말똥 그다음에.(응. 그러니까 벨감은 보통 쇠똥, 말똥 그다음에.)

104027 #1 술섭, 요디 나가민 구름페기 비데.(술가리, 요기 나가면 까마귀쪽나무 베더라.)

104027 @ 구름페긴 아까 낭이주예? 낭 일름예?(까마귀쪽나무는 아까 나무지요?)

108) ‘귀긱다’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고루 갖추어 있다는 뜻이다.

나무 이름요?)

104027 #1 낭이라도 크지 못하는 낭이라.(나무라도 크지 못하는 나무야.)

104027 @ 아, 크지 못하는 낭.(아, 크지 못하는 나무.)

104027 #1 요디 나가든 뭐 북닥낭이여 무신 무시것고, 무신 낭이여 허명 이만씩 현 낭으로도 해당 그냥 요디 데며놔.(요기 나가면 뭐 예덕나무다 무슨 무엇이니, 무슨 나무다 하면서 이만큼씩 한 나무로도 해다가 그냥 요기 쌓아놔.)

104027 @ 아, 그런 거, 마리가 널러사 아니 마당이 널러사켜예. 놀을 멧 개나 허는 거봐? 출놀도 해야 돼여, 보리놀도 해야 돼여.(아, 그런 거, 마리가 넓어야 아니 마당이 넓어야겠네요. 가리를 멧 개나 하는 겁니까? 풀가리도 해야 돼, 보릿가리도 해야 돼.)

104027 #1 경헤여. 보리놀은 츠츠 장만해 갈 거지. 보릿놀 놀엇당 다 장만행 앓아불민 그디가 팔월[팔월] 나가민 출이 오고, 가을 들어가민 이 곡식대도 들어오민 그때 놀고. 놀이 자꾸 엇어져 불주. 게가민 저 벤소로 통시러레 다 담아놔 걸름 멘들아 불곡. 놀굽 멘들젠 허민은 보리낭 놀엇단 거 다 도새기 질루는 통시러레 다 들어가지.(그래. 보릿가리는 차차 장만해 갈 거지. 보릿가리 가렸다가 다 장만해서 가져가 버리면 거기가 팔월 나가면 풀이 오고, 가을 들어가면 이 곡식대도 들어오면 그때 가리고. 가리가 자꾸 엇어져 버리지. 그렇게 해가면 저 벤소로 돼지우리에 다 담아놓아서 거름 만들어 버리고. 가리 밀동 만들려면 보릿대 가렸던 거 다 돼지 기르는 돼지우리에 다 들어가지.)

## 사냥

104028 @ 옛날에 사냥도 해낫수과?(옛날에 사냥도 했었습니까?)

104028 #1 아니.(아니.)

104028 @ 허는 거 봐나긴 해수과?(하는 거 보긴 했었습니까?)

104028 #1 아니, 어떻 행 사냥허는 걸 봐. 못 보지.(아니, 어떻게 해서 사냥하는 걸봐, 못 보지.)

104029 @ 게민 썩코 놓는 건?(그러면 썩 올가미 놓는 건?)

104029 #1 것도 아니 해.(그것도 안 해.)

104029 @ 어디 밧디서라도 허지 안허여? 조꼇디서라도.(어디 밧에서라도 하지 않아? 곁에서라도.)

104029 #1 놓레 가는 인 이서이. 썩 이신 디이 잘허는 사름 장 서방이엔 현 이가이 어디 요기만 나가든이 그 슬레비낭이엔 현 가시가 요만씩 현 낭이 이서. 그 아래 강 텅기당 보민 썩을 두드려 와. 요만씩 현 회추리, 몽둥이 앓앙 텅기당 썩이 새끼 낳젠 앓아시민이 어떻사 아는디 몰라. 두드려 불민 썩도 죽고 계란도 까져불고. 경허는 사름이 이서.(놓으려 가는 이는 있어. 썩 있는 데 잘하는 사람 장 서방이라고 한 이가 어디 요기만 나가면 그 썰레나무라고 한 가시가 요만큼씩 한 나무가 있어. 그 아래 가서 다니다 보면 썩을 두드려 와. 요만큼씩 한 회초리, 몽둥이

가져 다니다가 꿩이 새끼 낳으려고 앉았으면 어떻게야 아는지 몰라. 두드려 버리면 꿩도 죽고 계란도 까져 버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104029 @ 두드려 불어?(두드려 버려?)

104029 #1 꿩을 두드려. 새끼 낳젠 고만이 곱앙 앓인 걸 강 두드려 불민 꿩도 죽고, 계란도 까져 불고 그추룩.(꿩을 두드려. 새끼 낳으려고 가만히 숨어 앓은 걸 가서 두드려 버리면 꿩도 죽고, 계란도 까져 버리고 그렇게.)

104029 @ 아이고.(아이고.)

104029 #1 겐디 꿩코 놓는 건 안 봐서. 아니 안 볼 게 아니고 꿩코 놓는 건 봐났어. 나가이, 고사리 꺼끄레 저 목장을 가신디 안겐 폭 찌서. 그땐 장갑도 었은 때라이. 고사리 꺼끄젠 영 덤벌레 가단보난 꿩은 사름 보난 노래언에 코에 든 거라이. (그런데 꿩 올라미 놓는 건 안 봤어. 아니 안 본 게 아니고 꿩 올라미 놓은 건 봤었어. 내가, 고사리 꺾으러 저 목장을 갔는데 안개는 폭 찌서. 그땐 장갑도 없는 때야. 고사리 꺾으려고 이렇게 덤벌레 가다보니 꿩은 사람 보니까 놀라서 올라미에 들어간 거야.)

104029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4029 #1 코에 들인 파닥파닥파닥 허여가난 영헐 보난 꿩이라이. 거 멍청하게 시리. 장갑이라도 찌시민 장갑도 아니 해신디 막 줌진 실겁 님은 쉼줄, 쉼줄로 코난 봐선게. 그걸 나 봐났주.(올가미에 들어서 파닥파닥파닥 해가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꿩이야. 그거 멍청하게. 장갑이라도 꺾으면 장갑도 안 했는데 아주 가는 낚싯줄 같은 쇠줄, 쇠줄로 올라미 났던데. 그걸 내가 봤었지.)

104029 @ 예.(예.)

104029 #1 요추룩 현 낭에 그 콜 봐부난 사름 소리 나난 호룩하게 기어든 게 그냥 코에 걸어본 거라. 거난 이젠 꿩은 심은덴 말은 들엇단에 요만현 깎는 목때기 간 꿩을 막 두드렸어.(요렇게 한 나무에 그 올라미를 놔버리니까 사람 소리 나니까 ‘호룩’하게 기어든 게 그냥 올라미에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젠 꿩은 잡는다는 말은 들엇다가 요만한 가는 막대기 가서 꿩을 막 두드렸어.)

104029 @ 예.(예.)

104029 #1 탁탁탁탁 두들단 보난, 꿩이 죽은 책허여이. 죽은 책허난 이젠 손은 막 안개에 이슬에 물르난 손은 막 물어서이. 아, 그놈으 실겁 님은 걸 영 허난 손 두 개가 이거 문착 꿰어져 불언. 아고 아고 어떻게 좋으코, 어떻게 좋으코. 경해도 영 보곤 심언에. 그놈으 걸 니빨로, 니빨로 끈엇어이.(탁탁탁탁 두드리다 보니, 꿩이 죽은 척해. 죽은 척 하니까 이젠 손은 막 안개에 이슬에 마르니까 손은 막 물렸어. 아, 그놈의 낚싯줄 같은 걸 이렇게 하니까 손 두 개가 이거 ‘문착’ 잘라져 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렇게 해도 이렇게 불끈 잡아서. 그놈의 것을 이빨로, 이빨로 잘랐어.)

104029 @ 예.(예.)

104029 #1 실겁 님은 거난 끈어져? 끈어진 이젠, 친구덜이영 어머니도 간 때난

에 어머니 꿩 심언, 꿩 심언 허난. 장꿩이란게, 벌경헌 장꿩이란게 영 심으난 손도 젓고, 깨는깨는헌 실겉 닳은 거난 수루룩하게 그냥 털어져분 거라, 베난이. 아, 그냥 푹닥푹닥푹닥.(냠싯줄 같은 거니까 잘라져? 잘라져서 이젠, 친구들이랑 어머니도 간때니까 어머니 꿩 잡았어, 꿩 잡았어 하니까. 장끼던데, 벌건 장끼던데 이렇게 잡으니까 손도 젓고, 가는가는 냠싯줄 같은 거니까 스르르하게 그냥 떨어져 버린 거야, 무거우니까. 아, 그냥 파닥파닥파닥파닥.)

104029 @ 도망가 불언?(도망가 버렸어?)

104029 #1 돌아난. 암만 좇아도 못허난. 원 좇단 좇단 버천. 어디 강 죽어사신디 살아신디. 그런 예가 나가 이서났저. 이제도 골민 막 웃어. 원 그걸 손으로 끈을 생각이 무사 남광, 이 손가락 두 개가 문착 끈어전.(달아났어. 아무리 찾아도 못하니까. 원 찾다 찾다 부쳐서.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예가 내가 있었어. 이제도 말하면 막 웃어. 원 그걸 손으로 자를 생각이 왜 나며, 이 손가락 두 개 ‘문착’ 잘라졌어.)

104029 @ 꿩독새기도 좇어지지 안헉니까? 고사리 거끄레 갓당도.(꿩알도 주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 꺾으러 갔다가도.)

104029 #1 좇어도 우린 안 좇어. 우리 밧디 재작년도 밧디 열네 꺾 낳서이.(주워도 우린 안 주워. 우리 밧에 재작년도 밧에 열네 개를 낳았어.)

104029 @ 꿩이?(꿩이?)

104029 #1 꿩 새끼를, 고사리 밧디니까이. 꿩이 노시 아니 놀앙, 고사리를 영 줄지영 꺼꺼 가단보난 포로롱하게 난난 그디 가보난 새끼가 열네 개랴어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민 좋코. 아이덜이라도 요디 꿩 새끼 낳젠 허민 그냥 봉가 불카부덴. 옆 밧디 대설 저추룩 현, 앳앙간 나가, 나만 알기 좋게 꿩알신디 간 영 찢런 내불어. 고사리라도 꺼끄당 불라 불카부덴.(꿩 새끼를, 고사리 밧이니까. 꿩이 결코 안 날아서, 고사리를 이렇게 줄지어서 꺾어 가다보니 ‘포로롱’하게 나니까 거기 가보니까 새끼가 열네 개였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라도 요기 꿩 새끼 낳았다고 하면 그냥 주워 버릴까봐. 옆 밧에 댓잎 저렇게 한, 가져가서 내가, 나만 알기 좋게 꿩알에 가서 이렇게 찢러서 내버렸어. 고사리라도 꺾다가 밧아 버릴까봐.)

104029 @ 예.(예.)

104029 아이고, 저 대 이신 디 꿩알 열네 개나 낳 이서라 허난 흥나 새끼 아방은 강 보쿠다, 보쿠다 허곤테, 내불라, 보민이 문직구정헌다. 문직지 말앙 내불라. 지가 사름 텅겨가민 물어 가분다. 사름 텅건 봐낫젠이 그놈의 것이 죽어도 아니 심어가. 죽어도 안 물어간 그냥 어떻게 텅기단 말젠 보난 엇어 불어서, 것이. 꿩 새끼 잘 봉그젠 안헤.(아이고, 저 대 있는 데 꿩알 열네 개나 낳아서 있더라 하니까 한아들이 가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길래, 내버려라, 보면 만지고 싶어진다. 만지지 말고 내버려라. 가기가 사람 다녀가면 물어가 버린다. 사람 다녀서 봤었다고 그놈의 것이 죽어도 안 잡아가. 죽어도 안 물어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 다니다가 말째



는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꿩 새끼 잘 주우려고 하지 않아.)

104029 @ 봉그젠 안해.(주우려고 하지 않아.)

104029 #1 옛날에 이제ㄴ치 계란 엇인 때난이 잘 심어, 봉그젠 허주. 이젠 꿩새끼 봐도 잘 심젠 안해. 소나이덜이나 그자 걸 봐지민 봉그주. 소나이덜도 봉글 일이 엇주게. 그런 드르 안 탱기니까. 밧디덜을, 밧디가 아니고 산엘 탱겨야 그런 것도 볼 건디.(옛날에 이제처럼 계란 없을 때니까 잘 잡아, 주우려고 하지. 이젠 꿩 새끼 봐도 잘 잡으려고 않아. 남자들이나 그저 그거 보면 줍지. 남자들도 주울 일이 없지. 그런 들에 안 다니니까. 밧에들, 밧에가 아니고 산에를 다녀야 그런 것도 볼 건데.)

104029 @ 할아버진 꿩코 놓고 해낫수과?(할아버지는 꿩 올가미 놓고 했었습니까?)

104029 #2 에에, 그런 거 안 해. 그거 허는 사름도 잇주.(에에, 그런 거 안 해. 그거 하는 사람도 있지.)

104029 @ 그런 거 안 해봅디가? 재미로라도.(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재미로라도.)

104029 #2 에에, 취미가 엇어.(에에, 취미가 없어.)

104030 @ 노리?(노루?)

104030 #1 그것도 엇어.(그것도 없어.)

104030 @ 노리 겨울 돼민 내려오고 험니까?(노루 겨울 되면 내려오고 합니까?)

104030 #1 응, 내려온텐 허주.(응, 내려온다고 하지.)

104030 #2 가끔.(가끔.)

104030 #1 함덕도 내려와낫수게, 저 스투물에. 혼 해, 눈 막 하영 묻은 때. 눈 하영 묻은 땐 내려도 와.(함덕도 내려왔었잖습니까, 저 ‘스투물’에. 한 해, 눈 아주 많이 묻은 때. 눈 많이 묻은 땐 내려도 와.)

104031 @ 옛날 지달이도 잡으려 다니고 해낫수과?(옛날 두더지도 잡으려 다니고 했었습니까?)

104030 #1 우린 그런 것도 안 해낫어.(우린 그런 것도 안 했었어.)

104030 #2 그런 전문가가 잇주. 개 기르면서 그런 거 잡으려 탱기는 사름이 이서.(그런 전문가가 있지. 개 기르면서 그런 거 잡으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

104030 #1 지금도이 개고, 득이고 질룰 생각 엇어. 집도 추접허고. 개부름씨도 허기 실평 개 질루구정 안해.(지금도 개고, 닭이고 기를 생각 없어. 집도 더럽고. 개 심부름도 하기 싫어서 개 기르고 싶지 않아.)

104030 @ 개부름씨도 허구정 안해여.(개심부름도 하고 싶지 않아.)

104030 #1 응, 득도 옛날은 막 집집마다 득소리 나곡 질루렌 해도. 경허단 그루 후젠 집이 추접해서 아니 질뤄.(응, 닭도 옛날은 막 집집마다 닭소리 나고 기르라고 해도. 그러다가 그 후엔 집이 더러워서 안 길러.)

104030 @ 옛날은 득 질뤄나실 거 아니파?(옛날은 닭 길렀을 거 아닙니까?)

104030 #2 흔 사오십 마리.(한 사오십 마리.)

104030 #1 경허단 다 죽어불언. 물코 내려 부난 물 먹어 가난. 병아리 사다놔단. 옛날엔 이디 낭도, 탕우지 낭이엔 거 이서난. 그 아래 질룽단 물코 내려부난.(그러다가 다 죽어버렸어. ‘물코’ 내려 버리니까 물 먹어 가니까. 병아리 사다 놓았다가. 옛날엔 여기 나무도, 탕유자 나무라고 그거 있었어. 그 아래 기르다가 ‘물코’ 내려 버리니까.)

104030 @ 물코 내린 게 어떤 거? (‘물코’ 내린 게 어떤 거?)

104030 #1 빗물덜이 저 우옛집에서 글로 내려 부난 물 하영 먹어 가난 죽어 불언.(빗물들이 저 윗집에서 그리로 내려 버리니까 물 많이 먹어 가니까 죽어 버렸어.)

104030 @ 물을 먹언, 많이? (물을 먹어서, 많이?)

104030 #1 응, 먹어가난 죽어불언. 우리도 먹지 못허곡 누게 앓저당 잡아먹어 불라, 잡아먹어 불라 쥐 불엇주.(응, 먹어가니까 죽어버렸어. 우리도 먹지 못하고 누구 가져다가 잡아먹어 버려라, 잡아먹어 버려라 쥐 버렸어.)

104030 @ 사냥허는 사름 이디 함덕엔 엇어낫수과? (사냥하는 사람 여기 함덕엔 없었습니까?)

104030 #1 몰라, 요새 젊은 사름덜은 잇긴 해도.(몰라,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잇긴 해도.)

104030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4030 #1 엇어, 우리 알 건디. 노리 맞춰 왓저, 무시거 헛저 해도, 어디 옷드르 사름 해온 노리고긴 먹어봐도. 이디 사름덜은 헛 거 못 봐.(없어, 우리 알 건테. 노루 맞춰 왔다, 무엇 했다 해도, 어디 중산간 마을 사람 해온 노루고기는 먹어봐도. 여기 사람들은 한 거 못 봐.)

104030 #2 그런 사름덜이 잇주, 가당오당.(그런 사람들 있지, 오다가다.)

104030 #1 아, 육지는, 육지엔 한다. 저 산에 사름덜 산촌에 사는 사름덜은 그런 걸 잘 해여.(아, 육지는, 육지에서는 한다. 저 산에 사람들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해.)

104030 #2 엇이니까.(없으니까.)

104030 #1 헛 거 시나 엇이나 추미 부짱 허는 사름은 해.(할 거 있으나 없으나 취미 붙여서 하는 사람은 해.)

##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허는 일은, 바당에선 어떤 거 헛니까? (바다에서 하는 일은, 바당에선 어떤 거 합니까?)

105001 #1 바당에 안 탕겨부난 그런 거 몰르지. 우리가 돌아헛기멍 걷는 거는

옛날에는 바닷가에 가면 문어도 잡아올 수 있고, 오분재기도 떼어올 수 있고, 소라도 잡을 수 있고, 물찌 돼영 가면은. 그런 건 허지, 해녀질은 못해.(바다에 안 다녀버리니까 그런 거 모르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걷는 것은 옛날에는 바다에만 가면 문어도 잡아올 수 있고, 떡조개도 떼어올 수 있고, 소라도 잡을 수 있고, 물찌 되어 가면은. 그런 건 하지, 해녀질은 못해.)

105002 @ 듬북허고 감태 같은 것도 해낫수과?('듬북'하고 감태 같은 것도 했었습니까?)

105002 #1 그런 것도 안 해. 듬북 ㄱ든 거는 ㅎ썸 해낫어. 노을, 바닷가에 노을 와 나쁜이 바람 불영 ㄱ드레 올라오는 듬북은 헛지.(그런 것도 안 해. '듬북' 같은 거는 조금 했었어. 너울, 바다에 너울 오고 나면 바람 불어서 바닷가에 올라오는 '듬북'은 헛지.)

105002 @ 그건 해당 무신거 허는 거와?(그건 해다가 뭐 하는 겁니까?)

105002 #1 보리밭되게 걸름.(보리밭에 거름.)

105002 @ 아, 걸름으로.(아, 거름으로.)

105002 #1 걸름 걸어. 걸어 나면 그런 듬북 낚아나면은 조도 좋고, 보리 해나민.(거름 걸어. 걸고 나면 그런 '듬북' 낚고나면 조도 좋고, 보리 하고나면.)

105003 @ 그른 보말이나 갱이 같은 건 어떻 잡습니까?(그러면 고둥이나 게 같은 건 어떻게 잡습니까?)

105003 #1 그냥 돌 일리민 하. 이제도 이 아래 가민. (그냥 돌 일으키면 많아. 이제도 이 아래 가면.)

105003 #2 지금도 그건 하.(지금도 그런 건 많아.)

105004 @ 보말도 종류가 여러 개 잇수과? 무신 보말, 무신 보말?(고둥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무슨 고둥, 무슨 고둥?)

105004 #1 응.(응.)

105004 @ 무신거 잇수과?(무엇 있습니까?)

105004 @ 돌포말, 코토데기, 떡보말, 수두리.(눈알고둥, 개울타리고둥, 밤고둥, 팽이고둥.)

105004 @ 네 가지?(네 가지?)

105004 #1 심방보말.('심방보말'.)

105004 @ 심방보말.('심방보말'.)

105004 #1 응, 그거 다 이서.(응, 그거 다 있어.)

105004 @ 다시 한 번만 알아줍서.(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105004 #1 소라로이, 소라.(소라로, 소라.)

105004 @ 소라. 소라는 구쟁기엔 안 해?(소라. 소라는 '구쟁기'라고 안 해?)

105004 #1 구쟁이.('구쟁이'.)

105004 @ 구쟁이. 그다음에.('구쟁이'. 그다음에.)

105004 #1 그디 가면은 오분재기도 전인 우리도 잘 떼어와. 낭퐁이로 하나씩 떼

어와.(거기 가면 떡조개도 전에는 우리도 잘 떼어 와. 양푼으로 하나씩 떼어 와.)

105004 @ 그다음 아까, 보말 이름.(그다음 아까, 고등 이름.)

105004 #1 돌포말.(눈알고등.)

105004 @ 돌포말.(눈알고등.)

105004 #1 수두리보말.(팽이고등.)

105004 @ 수두리보말.(팽이고등.)

105004 #1 먹보말.(밤고등.)

105004 @ 먹보말.(밤고등.)

105004 #1 코토데기.(개울타리고등.)

105004 @ 코토데기.(개울타리고등.)

105004 #2 가메기보말.(‘가메기보말’.)

105004 @ 가메기보말도 이수과? 그다음 또?(‘가메기보말’도 있습니까? 그다음 또?)

105004 #1 엇어.(없어.)

105004 @ 어떻 어떻 틀린 거파? 돌보말은, 어느 게 젤 큰 거파?(어떻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눈알고등은, 어느 것이 제일 큰 겁니까?)

105004 #1 소라가 크지.(소라가 크지.)

105004 @ 소라가 크고 그다음에.(소라가 크고 그다음에.)

105004 #1 맛있는 거는.(맛있는 거는.)

105004 @ 뭐가 맛좋아?(뭐가 맛있어?)

105004 #1 오분재기가 젤 맛이신 거지. 최고 맛이신.(떡조개가 젤 맛있는 거지. 최고 맛있는.)

105004 @ 오분재기가 비싼 거고.(떡조개가 비싼 거고.)

105004 #1 비싼 거지.(비싼 거지.)

105004 @ 거 말고 먹보말, 코토데기, 가메기보말은?(그거 말고 밤고등, 개울타리고등, ‘가메기보말’은?)

105004 #1 먹보말이 맛도 좋아.(밤고등이 맛도 좋아.)

105004 @ 색깔이 거명허여, 커?(색깔이 까매, 커?)

105004 #1 크명 말망 요만씩도 허고 존 것도 잇고.(크면서 말면서 요만큼씩도 하고 잔 것도 잇고.)

105004 @ 야이가 커 흥썸?(이 애가 커 조금?)

105004 #1 이거나 이거나 크는 율은 ㄱ따.(이거나 이거나 크는 비율은 같아.)

105004 @ 특징이 엇어? 어떻 다른지?(특징이 없어? 어떻게 다른지?)

105004 #1 다른 건 맛이 이것이 틀려, 더 걸어. 등거와. 돌보말이 참, 먹보말이.(다른 것은 맛이 이것이 달라, 더 걸어. ‘등거와’. 눈알고등이 참, 밤고등이.)

105004 @ 다른 거는?(다른 거는?)

105004 #1 다른 거는 돌포말은 쓰룽해도 얼마 하영 못 먹고이. 코토데기도 맛이

있어. 무신 죽 ㄱ쁜 거나 무신건 안 해도 영 까먹는 دن. 이 수두리하고 먹보말은 죽 쑤면은이 흥쑤 해다 놔근엿에 참기름이나 농곡 보끄당 죽 쑤면 전복죽 저레 데껴불어.(다른 거는 눈알고등은 쓸쓸해도 얼마 많이 못 먹고. 개울타리고등도 맛이 있어. 무슨 죽 같은 거나 무엇이든 안 해도 이렇게 꺼먹는 덴. 이 팽이고등하고 밤고등은 죽 쑤면 조금 해다 놔서 참기름이나 농고 볶다가 죽 쑤면 전복죽 저리 던져버려.)

105004 @ 보말죽 요즘 식당에서 팔아마씨.(‘보말죽’ 요즘 식당에서 팔아요.)

105004 #1 요거는 두 번 굴을 나우 엇고, 오분재기.(요거는 두 번 말할 나위 없고, 떡조개.)

105004 @ 오분재긴 두말할 필요가 엇고.(떡조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105004 #1 즈문 때는이 아침물이 더 잘 싸이. 그때 가른은 진짜 허대는 말이 아니고이 낭퐁이로 하나씩 떼어와이. 이제는 그런 식이 엇어. 것도 어둑엇지, 그때도.(‘즈문’ 때는 아침 물이 더 잘 물써. 그때 가면 진짜 거들먹거리는 말이 아니고 양퐁으로 하나씩 떼어 와. 이제는 그런 식이 엇어. 그것도 어두웠지, 그때도.)

105004 @ 물질 안 해도예.(물질 안 해도요.)

105004 #1 바당에서 해녀들만 살아 놓고. 그때는 물쌀 때면 앓물<sup>109)</sup> 싸고, 것물<sup>110)</sup> 싸고이 앓물이 더 잘 싸이.(바다에서 해녀들만 살아 놓고. 그때는 물쌀 때면 ‘앓물’ 싸고, ‘것물’ 싸고 ‘앓물’이 더 잘 써.)

105004 @ 앓물은 뭐고 것물은 뭐?(‘앓물’은 뭐고 ‘것물’은 뭐?)

105004 #1 것물은 이제 싸는 게 것물이고 앓물은 물때가 늦엿이 열물 넘어가민인 아침이가 물이 잘 싸.(‘것물’은 이제 싸는 게 ‘것물’이고 ‘앓물’은 물때가 늦어서 열물 넘어가면 아침에 물이 잘 써.)

105004 #2 아침, 저녁을 말허는 거주.(아침, 저녁을 말하는 거지.)

105004 #1 것물은 열물이 넘어가민 물이 덜 싸. 게난 앓물에 가면 싸는 물찌에는 물이 막 바당에 다 물른 것ㄱ찌 허민 그런 걸 잘해져. 땡기당 보민 뭇게도 떼올 때도 있고 전복도 떼어와지고 그냥 우린 해녀 아니라도 바당에 돌아땡기땡. 요 곳 바위에서만 살땡 커오난 그런 걸 다 해와져났어.(‘것물’은 열물 넘어가면 물이 덜 써. 그러니까 ‘앓물’에 가면 싸는 물때는 물이 막 바당에 다 마른 것처럼 하면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 다니다 보면 문어도 떼어올 때도 있고 전복도 떼어올 수 있고 그냥 우린 해녀 아니어도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요 갯바위에서만 살면서 커오니깐 그런 걸 다 해왔었어.)

105005 @ 갯이도 종류가 여러 개 잇수게예? 무신 갯이, 무신 갯이.(게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무슨 게, 무슨 게.)

105005 #1 똥갯이 잇고.(‘똥갯이’ 잇고.)

105005 @ 똥갯이.(‘똥갯이’.)

105005 #1 꽃갯이 잇고.(‘꽃갯이’ 잇고.)

109) ‘앓물’은 아침에 싸는 물이라는 말로 물때가 열물 전일 때 오전에 물이 싸는 것을 말한다.

110) ‘것물’은 저녁에 싸는 물이라는 것으로 물때가 열물 뒤일 때 오후에 물이 싸는 것을 말한다.

105005 @ 풋강이.(‘풋강이’.)

105005 #1 저 거시기 무시것고.(저 거시기 무엇인가.)

105005 #2 춤강이.(참게.)

105005 #1 발 붉은 것ㄴ라 무신 강이엔 곧 골아지켜만은 것이 질 쉬운 강인디 못 골으켜.(발 붉은 것보고 무슨 게라고 곧 말할 수 있겠다만은 그것이 제일 쉬운 게인데 못 말하겠어.)

105005 @ 표준말로 꽃게 같은 거?(표준어로 꽃게 같은 거?)

105005 #1 꽃게 또 또로 있어. 참강이, 풋강이, 보리강이.(꽃게 또 또 있어. 참게, 팔게, 보리게.)

105005 @ 보리강이도 이서?(보리게도 있어?)

105005 #1 게메, 이제가 강이가 막 한 댄디. 강이가 준 때라이. 음력 오월달에는 알도 다 배곡이 막 강이가 슬져. 게민 우리 두린 댄 할마님 모실 때고 허난 우리ㄴ라 강이 잡양오라. 죽 쭈영 먹게, 죽 쭈영 먹게. 죽을 쭈영 먹어난. 강이 하, 그때는. 재미나게 잡아와 그때는. 주전지 앗양강이 큰 주전지 하나씩 잡아와. 이제는 어려워와도.(그러게, 이제 게가 아주 많은 때인데. 게가 살 빠진 때야. 음력 오월에는 알도 다 배고 막 게가 살쥔. 그러면 우리 어린 댄 할머님 모실 때고 하니까 우리보고 게 잡아와라, 죽 쭈어 먹게, 죽 쭈어 먹게. 죽 쭈어 먹었었어. 게 많아, 그때는. 재미있게 잡아와 그때는. 주전자 가져가서 큰 주전자 하나씩 잡아와. 이제는 어려워와도.)

105006 @ 혹시 햇불로?(혹시 햇불로?)

105006 #2 낙지 잡아.(낙지 잡아.)

105006 #1 우린 그런 거 잘 가진 안해도이 옛날엔 집이 초가집이 새로헌 집이 난 그런 것덜 거뒀당 요만 부레기썩 영 막 무꺼. 경허민 혼 짐 지영강 불 부썰 그거 들렁 땡기멍 낙지 나온 거. 우린 못 심어봤어, 그런 거. 늣 허레 가는 거 봐도. 허지 못해 모스왕.(우린 그런 거 잘 가진 앗아도 옛날엔 집이 초가집이 새로운 집이니까 그러 것들 거뒀다가 요만한 부피썩 이렇게 마구 묶어. 그러면 한 짐 지어가서 불 붙여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낙지 나온 거. 우린 못 잡아봤어, 그런 거. 남 하러 가는 거 봐도. 하지 못해 무서워서.)

105006 @ 뭇게 아니고?(문어 아니고?)

105006 #2 뭇게 아니고 낙지, 낙지.(문어 아니고 낙지, 낙지.)

105006 #1 시에 오일시장에도. 낙지 툄나고 뭇게 툄나고. 낙지 잡으레 햇불 쌍가.(제주시에 오일시장에도. 낙지 다르고 문어 다르고. 낙지 잡으러 햇불 켜서 가.)

105006 @ 아.(아.)

105006 #1 햇불 쌍 가는 인, 바당에 가는 인 햇불 쌍 강. 이젠 그런 검질이 옛어부난 그자 기름 적정. 옛날에는 전복도 떼오곡 구쟁이도 하영 잡아오곡.(햇불 켜서 가는 이는, 바다에 가는 이는 햇불 켜서 가서. 이젠 그런 검불이 없어서 그저 기름 적서서. 옛날에는 전복도 떼어오고 소라도 많이 잡아오고.)

105006 @ 그것도 햇불 쌍 강?(그것도 햇불 켜서 가서?)

105006 #1 수두리보말도 막 하영 잡아오고.(팽이고둥도 아주 많이 잡아오고.)

105006 @ 밤이?(밤에?)

105006 #1 응.(응.)

105006 #2 물들어올 땐 부각부각 나오고, 보말이건 뭐이건.(물밀 땐 ‘부각부각’ 나오고, 고둥이고 뿔이고.)

105006 #1 저 서목코지에 가민 전복도 막 하영 떼어오고 헤낫어.(저 ‘서목코지’에 가면 전복도 아주 많이 떼어오고 했었어.)

105006 #2 아무튼 간에 밤에는 물 좀 맞이민.(아무튼 간에 밤에는 물 좀 맞으면.)

105006 #1 이젠 경 안 합니다게, 해녀덜이.(이젠 그렇게 안 합니다, 해녀들이.)

105006 #2 게메 그 시절엔 햇불 싸민 그냥 쟁이고 뭐이고 그냥 부글부글.(그러게 그 시절엔 햇불 켜면 그냥 게고 뭐고 그냥 ‘부글부글’.)

105006 @ 불 이신 디레 모여?(불 있는 데 모여?)

105006 #2 불 이신 디 막 모여. 게민 낙지도 잡고 보말도 잡고, 켈기도 잡고.(불 있는 데 마구 모여. 그러면 낙지도 잡고 고둥도 잡고, 고기도 잡고.)

105006 @ 강 주성 오는 거구나예?(가서 주워 오는 거군요?)

105006 #1 그냥 돌아 텅기주, 불앗영 그냥. 낙지 잡는 사름 불 싸민 낙지가 주르륵 행 앞드레 온덴. 물도 깊은 디 안 가, 낙지는이. 물이 요만이 헛 디 첨방첨방 텅기민.(그냥 돌아 다니지, 불 켜가지고 그냥. 낙지 잡는 사람 불 켜면 낙지가 주르륵 해서 앞으로 온다고. 물도 깊은 데 안 가, 낙지는. 물이 요만큼 한 데 첨병첨병 다니면.)

105006 @ 응.(응.)

105006 #1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는 바당바위 살아노난이 굴갱이 아시곡 행 가민 요추룩 고망 난 디 가보면은 조개 거풀이나 무신 거 막 나오민이 요 고냥에 손 꼭 찢렁 손 들어가는 냥 이거 파민이 막 파당 보민 이만큼은 파져이. 그 소굽에 낙지가 들어있어. 낙지 고냥 알아져. 거민 낙지 잡아왕 ㄱ루 농곡 행 국 끌렁 먹언.(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바다 곁에 살아서 호미 갖고 해서 가면 요렇게 구멍 난 데 가보면 조개껍데기나 무엇 막 나오면 요 구멍에 손 꼭 넣어서 손 들어가는 대로 이거 파면 마구 파다 보면 이만큼은 팔 수 있어. 그 속에 낙지가 들어있어. 낙지 구멍 알 수 있어. 그러면 낙지 잡아와서 가루 놓고 해서 국 끓여서 먹었어.)

105006 @ 국 끌렁 먹언. 갯담, 원담 허는 건 무신거마씨?(국 끓여서 먹었어. ‘갯담’, ‘원담’ 하는 건 뭐예요?)

105007 #1 이제는 갯담<sup>111)</sup>도 엇고 원담도 엇어이. 갯담이엔 헛 건 저것이 바당이민 이건 ㄱ이면은 영 ㄱ 부짱 담을 다와이. 게민 바당에 멜도 지쳐불고<sup>112)</sup>, 정

111) ‘갯담’은 뒤에 오는 ‘원담’과 비슷한 개념으로 바닷가에 밀물 때 들어왔던 물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돌담으로 쌓은 천연 그물이다.

112) ‘지치다’는 힘들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는 많이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

허는 거, 갯담. 그 안에 뿔이 들어와.(이제는 ‘갯담’도 없고 ‘원담’도 없어. ‘갯담’이라고 한 건 저것이 바다면 이것이 가면 이렇게 가 붙여서 담을 쌓아. 그러면 바다에 멸치도 ‘지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 갯담. 그 안에 멸치가 들어와.)

105007 @ 아, 갯담 안에 뿔이 들어와, 물 들어오민?(나, ‘갯담’ 안에 멸치가 들어와, 물 밀면?)

105007 #1 저것이 바다가민 이진 곳이민 요디도 끈어정 저레 못 가면은 그걸로 성창 멘들앙 글로 바라가는 것이 갯담이라. 갯담 안에는 물이나 뿔이나 하영 든 때는 그 안에 뿔 들어왕덜 막 허레 가고.(저것이 바다면 이진 가면 요기도 끊어져서 저리 못 가면 그걸로 부두 만들어서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 ‘갯담’이야. ‘갯담’ 안에는 물이나 멸치나 많이 든 때는 그 안에 멸치 들어와서 막 하러 가고.)

105007 @ 이디 함덕도 그런 거 해났수과?(여기 함덕도 그런 거 했었습니까?)

105007 #1 이서낫주. 이젠 그 저 갯담이 엇어. 문딱 썰어불언 엇어.(있었었지. 이젠 그 저 ‘갯담’이 없어. 모두 쓸어버려서 없어.)

105007 #2 우리 열 뿔 설에 왜정 때.(우리 열 뿔 살에 일본 강점기 때.)

105007 #1 열 뿔 설에파? 요자기까지도 이서낫주.(열 뿔 살에입니까? 요마적까지도 있었었지.)

105007 #2 작살이영 앓앙탱기명 고기도 쏘곡 다 해난디.(작살이랑 가져다니면서 고기도 쏘고 다 했었는데.)

105007 @ 그 갯담 안에서?(그 ‘갯담’ 안에서?)

105007 #2 물 들어왕 나가지 못허영 짐자당 보민 나가지 못허영 증가져. 게민 작살 앓당 쏘아. 이젠 그때만이 혼전허지 못해. 시대가 변동돼 가난 것도 변동돼 불어신가?(물 들어와서 나가지 못해서 잠자다 보면 나가지 못해서 잠겨. 그러면 작살 가져다 쏘아. 이젠 그때만큼 혼하지 않아. 시대가 변동돼 가니까 그것도 변동돼 버렸나?)

105007 #1 변동이 아니고 사름이 워낙 하난.(변동이 아니고 사름이 워낙 많으니까.)

105007 #2 잡는 사름 엇거든게.(잡는 사람 없거든.)

105007 #1 잡는 사름 엇수과? 잡는 사름 천지주. 잡는 사름이 엇엄시민 해주만은.(잡는 사람 없습니까? 잡는 사람 천지지. 잡는 사람이 없었으면 많지만.)

105008 @ 갯담은 무너지거나 허민 다시 잘 어떻 싸야? (‘갯담’은 무너지거나 하면 다시 잘 어떻게 쌓아야?)

105008 #1 어른덜은 경해났어. 이젠 다움 버릇도 엇고 그 원담 시면은 그냥 그 소곱에 보말이고 소라고 해싸부난 이젠 그럭저럭 허단 보난 그 원담이 엇어분 거라.(어른들은 그랬었어. 이젠 쌓는 버릇도 없고 그 ‘원담’ 있으면 그냥 그 속에 고둥이고 소라고 해쳐 버리니까 이젠 그럭저럭 하다 보니 그 ‘원담’이 없어버린 거야.)

105008 @ 갯담이엔도 허고 원담이엔도 허고 똑같은 거? (‘갯담’이라고도 하고 ‘원담’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거?)



105008 #1 갯담.('갯담'.)

105008 #2 비슷헌 말인디 옛날 노인덜이 하르방덜이 아무것도 할 거 엇이난 돌 모두멍 그거 다 막은 창도 허고 경 막음도 헛지. 우리 세대에도 그런 작업덜 엇고, 옛날 하르방.(비슷한 말인데 옛날 노인들이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돌 모으면서 그거 다 막은 창도 하고 그렇게 막기도 헛지. 우리 세대에도 그런 작업들 없고, 옛날 할아버지.)

105008 #1 옛날 하르방. 이제 사름덜 그거 허렌 허민 죽을걸. 그 돌 다 지곡.(옛날 할아버지. 이제 사람들 그거 하라고 하면 죽을걸. 그 돌 다 지고.)

105008 #2 우리 이제 구십 년이 다 웬디게. 백 년 넘은 하르방 현 거난 지금사 당추.(우리 이제 구십 년이 다 됐는데. 백 년 넘은 할아버지 한 거니까 지금이야 당초.)

105009 @ 함덕은 멜도 하영 잡아낚수과?(함덕은 멸치도 많이 잡았었습니까?)

105009 #1 제주도에선 이제는 배로덜 멜을 거러부난 헛주. 제주도에서는 함덕 멜이 쥔 하영 거러. 바당이 워낙 좋니까 소문난. 함덕 서근 멜장시. 우리가 예를 들러 두린 때 어디 가민 함덕 서근 멜장시, 함덕 서근 멜장시 헤낏어.(제주도에선 이제는 배로들 멸치를 잡아버리니까 헛지. 제주도에서는 함덕 멸치를 제일 많이 잡아. 바다가 워낙 좋으니까 소문났어. 함덕 썩은 멸치 장사.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 때 어디 가면 함덕 썩은 멸치 장사, 함덕 썩은 멸치 장사 헛었어.)

105009 @ 무사 경 곤는 거?(왜 그렇게 말하는 거?)

105009 #1 멜이 워낙 하난 석어, 석어. 겨난 옛날은 그냥 어디 요자기도 골아져 라만은 모살빚디 널민 그거 거름 허민 돈 모되당 담 당 흑으로 막 블랑 세멘허듯 블랑 그 속에 낵.(멸치가 워낙 많으니까 썩어, 썩어. 그러니까 옛날은 그냥 어디 요마적도 말해지더라만은 모래밭에 널면 그거 거름 하면 모두 모아놓고 담 쌓아서 흑으로 막 발라서 시멘트하듯 발라서 그 속에 놔서.)

105009 @ 멜을?(멸치를?)

105009 #1 멜 물론 거름. 보리 갈 철 나민 거 고랑더레 영영 다 낵 보리 갈아. 게민 곁어.(멸치 마른 거름. 보리 갈 철 나면 그거 고랑에 이렇게 이렇게 다 놓아서 보리 갈아.)

105009 @ 거름으로? 먹을 걸로 아니고?(거름으로? 먹을 걸로 아니고?)

105009 #2 막 널어정, 멜이. 함덕 서근 멜장시, 옛날 함덕 사름은.(아주 널렸어, 멸치가. 함덕은 썩은 멸치장사, 옛날 함덕 사름은.)

105009 #1 서근 멜장시엔 소문나난. 통은 막 크게 이만인 현 디 낵 흑허영 이디 막 블르민 세멘헌 거 닻으주. 영 이젠 웻막 7추룩이. 영 지서근에 그디 또 ㄴ람지 더꺼근에.(썩은 멸치장사라고 소문났었어. 통은 아주 크게 이만큼 한 데 놔서 흠해서 여기 막 바르면 시멘트한 거 같지. 이렇게 이제는 원두막처럼. 이렇게 지어서 거기 또 이영 덮어서.)

105009 #2 함덕 해수욕장에 몽골사름덜 왕 전투 부뎡. 격투 벌어정 해골덜.(함

덕 해수욕장에 몽골사람들 와서 전투 붙어서. 격투 벌어져서 해골들.)

105009 #1 이젠 그 해골이 못 봐. 뼈다귀 못 봐.(이젠 그 해골을 못 봐. 뼈다귀 못 봐.)

105009 @ 멜은 어떻 잡는 거파?(멸치는 어떻게 잡는 겁니까?)

105009 #2 그물 청. 게니까 이것이 큰 배 두 척이민 그런 그물을 다 배에 시경. 게민 사름이 이십 미터, 싸움판<sup>113</sup>), 큰구물, 새백구물 이 함덕만도 네 고지가 이신 가? 물때 맞창덜 아무 군은 먼저 선착순으로 선진이라고, 후진은 그 사름덜 작업해 난 다음에 멜 들어와도 잡주. 순번이 이서.(그물 쳐서. 그러니까 이것이 큰 배 두 척이면 그런 그물을 다 배에 실어. 그러면 사람이 이십 미터, ‘싸움판’, ‘큰그물’, ‘새 백그물’ 이 함덕만도 네 군데가 있었나? 물때 맞춰서들 아무 군은 선착순으로 선진 이라고, 후진은 그 사람들 작업하고 난 다음에 멸치 들어와도 잡지. 순번이 있어.)

105009 #1 우리 당번 식으로.(우리 당번 식으로.)

105009 #2 당번 식으로 바다 싸움으로. 큰구물, 싸움판, 새선진 뭐 구미<sup>114</sup>)이 혼 서너니 개가 웬디 난리가 데싸지지.(당번 식으로 바다 싸움으로. ‘큰그물’, ‘싸움 판’, ‘새선진’ 뭐 조가 한 서너 개가 되는데 난리가 나.)

105009 #1 경해부난 함덕 서근 멜장시엔.(그렇게 해버리니까 함덕 썩은 멸치장 사라고.)

105009 @ 아까 무신거 싸움판?(아까 무엇 ‘싸움판’?)

105009 #2 싸움판, 이름이 싸움판.(‘싸움판’, 이름이 ‘싸움판’.)

105009 @ 거 뭐허는 거마씨?(그거 뭐하는 거예요?)

105009 #1 멜 거리는 이름이.(멸치 잡는 이름이.)

105009 #2 구미, 구미.(조, 조.)

105009 @ 구미?(조?)

105009 #2 조가. 이삼십 명 웬디.(조가. 이삼십 명 되는데.)

105009 #1 새백그물.(‘새 백그물’.)

105009 @ 새백그물?(‘새 백그물’?)

105009 #2 이름이 새백구물, 큰구물.(이름이 ‘새 백그물’, ‘큰그물’.)

105009 @ 큰구물?(‘큰그물’?)

105009 #2 응, 큰구물.(응, ‘큰그물’.)

105009 @ 또?(또?)

105009 #2 싸움판.(‘싸움판’.)

105009 @ 싸움판.(‘싸움판’.)

105009 #2 새선진.(‘새선진’.)

105009 @ 새선진.(‘새선진’.)

105009 #2 네 개, 네 개. 돌아가명덜 멜덜 잡아.(네 개, 네 개. 돌아가면서 멸치

113) ‘싸움판’은 조천읍 함덕리의 멸치잡이 조 이름 중의 하나이다. 그외에도 ‘큰그물’, ‘새백그물’, ‘새선진’ 등이 있다고 제보자는 설명하고 있다.

114) ‘구미’는 일본어로 ‘くみ’로 한 패의 사람들, 조 등의 의미로 쓰인다.

들 잡아.)

105009 @ 뿔 잡는 모임이파?(뿔치 잡는 모임입니까?)

105009 #2 순번대로 허는 거. 물때 맞췄.(순번대로 하는 거. 물때 맞춰서.)

105009 #1 아니, 하르방 곤단 중간으로 돌아부난. 뿔 강 어떻 거러옵니까 허는 걸 동으로 서이로 문여 곤안.(아니, 할아버지 말하다가 중간으로 말해버리니까. 뿔치 가서 어떻게 잡습니까 하는 걸 동으로 서로 먼저 말했어.)

105009 #2 목선으로 멘든 거 그물 시끈 배가 있어. 그 그물 싸움판 허는 것이 두 척 이서. 하난 인부 시끄고 하난 그물 시끄고. 게민 자기가 아다루웬 순번은 일차로 딱 물때 맞췄 해상<sup>115)</sup>이엔 현 배가 있어. 배 들어와나 안 들어와나 감시허는 두서이가 해상이라고 허는디.(목선으로 만든 거 그물 실은 배가 있어. 그 그물 ‘싸움판’ 하는 것이 두 척 있어. 하나는 인부 싣고 하나는 그물 싣고. 그러면 자기가 당첨된 순번은 일차로 딱 물때 맞춰서 해상이라고 한 배가 있어. 배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감시하는 두세 명이 해상이라고 하는데.)

105009 #1 뿔 안 들어왔젠 허민 그물을 안 풀어.(뿔치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물을 안 풀어.)

105009 #2 이젠 전화라도 있나. 그땐 전화 엇인 때난 말로만. 그자 물때 맞췄 나가. 딱 대기허당 그 해상 둘이가 뿔 들어오는 거 감시허당 무신 전화가 있어? 말로 아가리질. 양쪽으로 그물 낚 딱 포위해낚 끄서와. 뿔 언주와 놓민.(이젠 전화라도 있지. 그땐 전화 없는 때니까 말로만. 그냥 물때 맞춰서 나가. 딱 대기하다가 그 해상 둘이가 뿔치 들어오는 거 감시하다가 무슨 전화가 있어? 말로 ‘아가리질’. 양쪽으로 그물 낚서 딱 포위해 놓고 끌어와. 뿔치 잡아 놓으면.)

105009 @ 배가?(배가?)

105009 #1 배가 아니고. 이 하르방 그물 거러나도 몰라. 저만이민 배 하나가 이 곳드레 와. 저런 전선줄 닳은 이만이 현 부락진 배가 있어. 그걸로 곳드레 주면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막 이여차 이여차 허멍 막 그물을 등겨.(배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 그물 끝었어도 몰라. 저만큼이면 배 하나가 이 갯가로 와. 저런 전선줄 같은 이만큼 한 부괴의 바가 있어. 그걸로 갯가로 주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막 이여차 이여차 하면서 막 그물을 당겨.)

105009 @ 예.(예.)

105009 #1 겨민 그 가운데 뿔 싸정 그냥 곳드레 막 들어오민 뿔이 바닥탁, 바닥 탁허여. 경허민 그물이 이거민 이 곳덩이, 저 곳덩이 들리민 이 가운딘 뿔이 짝 차 이. 게민 막 곳드레 돌아오민 기냥. 우리ㄴ치 뿔팻 엇곡 무시거 현 사름은 그 뿔덜 허레 그냥 난리 나게. 곳디 들어오는 뿔. 거러오는 사름도 하.(그러면 그 가운데 뿔치가 싸져서 그냥 갯가로 막 들어오면 뿔이 팔딱, 팔딱해. 그러면 그물이 이것이면 이 끄트머리, 저 끄트머리 달리면 이 가운덴 뿔치가 짝 차. 그러면 마구 갯가로 달

115) ‘해상’은 뿔치를 잡기 위해 양쪽 끝에서 그물을 펼쳐서 몰아오는데 이때 두 배가 서로 연락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데 전화나 통신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소리를 질러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려오면 그냥. 우리처럼 멸치발 없고 무엇 한 사람은 그 멸치들 하러 그냥 난리 나  
게. 갯가로 들어오는 멸치. 잡아오는 사람도 많아.)

105009 @ 예.(예.)

105009 #1 정해 놓민 막 거려다 낡 물 싸곡 허민 그냥 이제 모살밧드레 혼 놈  
의 앞의, 그 멸 돼는 것ㄴ라 무시거엔 허는고? 멸 돼는 배 닳은 것이 서. 큰 거 이  
만큼 현 거. 너이가 들렁 이레 비와주고. 게민 구덕도 이젠 그런 구덕 엇어. 이만큼  
현 구덕이엔 현 거 이서. 그것더레 멸 탕 이젠 지게에 정 이젠 모살판더레 다 지어  
올리는 거라, 널레. 거름힐 걸로.(그렇게 해 놓으면 마구 잡아다가 놔서 물 써고 하  
면 그냥 이제 모래밭으로 한 사람 앞에, 그 멸치 되는 것보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멸치 되는 배 같은 것이 있어. 큰 거 이만큼 한 거. 넷이 들어서 이리 부어주고. 그  
러면 바구니도 이젠 그런 바구니 없어. 이만큼한 바구니라고 한 거 있어. 그것에 멸  
치 받아서 이젠 지게에 저서 이젠 모래판에 다 저 올리는 거야, 널러. 거름힐 걸  
로.)

105009 #2 거름, 거름.(거름, 거름.)

105009 #1 그거, 그거.(그거, 그거.)

105009 #2 게난 함덕 썩은 멸 장시렌.(그러니까 함덕 썩은 멸치 장사라고.)

105009 #1 함덕이 멸은 잘 거려나실 거라.(함덕은 멸치는 잘 잡았을 거야.)

105009 @ 그른 아까 새백그물, 큰그물은 무신거?(그러면 아까 ‘새백그물’, ‘큰그  
물’은 뭐?)

105009 #2 일름.(이름.)

105009 @ 그물 이름?(그물 이름?)

105009 #2 아, 명칭, 구미, 구미. 삼십 명이 한 조민.(아, 명칭, 조, 조, 삼십 명  
이 한 조면.)

105009 @ 아, 그른 이거 사람 모임?(아, 그러면 이거 사람 모임?)

105009 #2 그 하나의 조가 똬주.(그 하나의 조가 똬지.)

105009 #1 이 그물 임제도 잇고 이 그물 임제도 잇고. 다 임제가 잇어.(이 그물  
임자도 잇고 이 그물 임자도 잇고. 다 임자가 잇어.)

105009 @ 아, 이거 그물 임제가 딱로딱로 잇수과?(아, 이거 그물 임자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105009 #2 한 그물에 이십 명 이시민 다 조가 이서.(한 그물에 이십 명 있으면  
다 조가 잇어.)

105009 @ 아, 조가 이서. 게민 만약에 할머니넨 세백그물, 똬 우린 새선진 이렇  
게?(아, 조가 잇어.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네는 ‘새백그물’, 똬 우린 ‘새선진’ 이렇  
게?)

105009 #1 우린 옛날에 싸움판 그물.(우린 옛날에 ‘싸움판’ 그물.)

105009 @ 아, 싸움판 그물, 옛날에 할머니네.(아, ‘싸움판’ 그물, 옛날에 할머니  
네.)

105009 #2 우리 장인어른이 싸움판 그물 도감<sup>116)</sup>, 도감.(우리 장인어른이 ‘싸움판’ 그물 ‘도감’, ‘도감’.)

105009 @ 도감은 무신거라? 책임? (‘도감’은 뭐야? 책임?)

105009 #2 그물에 책임자. 도감.(그물에 책임자. ‘도감’.)

105009 @ 아, 그물에 책임자. 꿩이 썬 사람도 도감 아니? 잔치집이.(아, 그물에 책임자. 고기 썬 사람도 ‘도감’ 아니? 잔치집에.)

105009 #2 것도 도감인디. 이거 뽕 허는 디도 도감.(그것도 ‘도감’인데, 뽕치 하는 데도 ‘도감’.)

105009 @ 아, 뽕허는 디도 도감.(아, 뽕치 하는 데도 ‘도감’.)

105009 #2 대장.(대장.)

105009 #1 이거 일 년 뽕민이 막 갯갯디 강이 메칠 뽕 날 곳을 허여. 뽕곳<sup>117)</sup> 허레 가는데 가켄 행덜 막 큰 심방 뽕영 곳을 막 허여.(이거 일 년 되면 막 갯가에 가서 뽕칠 몇 날 곳을 해. ‘뽕곳’ 하러 가는데 가겠다고 해서들 막 큰 무당 뽕어서 곳을 막 해.)

105009 @ 아, 뽕곳도 허여?(아, ‘뽕곳’도 해?)

105009 #1 뽕곳 막 해. 막 무시거 굴아도 몰르주만은 도체비 모상이 막 그냥 뽕곳허는 것이 말도 못허게 허여. 일로 심방이 해수욕장이 곳허는 장소가 있어. 그 장소에서 퍼썩허민 오름 저 곳에까지 가근에 막 도체비 7치 해 앓영 또 막 병것 썬고 행 곳허는 디레 들어오고. 막 그냥 도새기 헤영 잡앙 먹고. 뽕곳허젠 허민 막 뽕을 이 들썩허게 헤여. 뽕곳허젠 허민.(‘뽕곳’ 막 해. 막 뽕 말해도 모르지만 도깨비 모셔서 막 그냥 ‘뽕곳’을 하는 것이 말도 못하게 해. 이리로 무당이 해수욕장이 곳하는 장소가 있어. 그 장소에서 번쩍하면 오름 저 끝에까지 가서 막 도깨비처럼 해 앓아서 또 막 병거지 썬고 해서 곳하는 데로 들어오고. 막 그냥 돼지 해서 잡아서 먹고. ‘뽕곳’하려고 하면 막 마을이 들썩허게 해. ‘뽕곳’ 하려고 하면.)

105009 @ 이젠 안 허주예?(이젠 안 하지요?)

105009 #1 이젠 아무것도 엇어.(이젠 아무것도 없어.)

105009 #2 그 그물이 어디사 가신디.(그 그물 어디야 갔는지.)

105009 #1 누게 말적 아니라도 본 지도.(누가 말하듯이 본 지도.)

105009 #2 사람도 다 죽어불고, 이젠. 그때 사람덜.(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이젠. 그때 사람들.)

105009 #1 배로 뽕기는 것이 임제주.(배로 다니는 것이 임자지.)

105009 #2 이젠 배로.(이젠 배로.)

105009 #1 엇어.(없어.)

105009 #2 옛날 어둑은 세상이주. 아, 그뽕 뽕도 하고.(옛날 어두운 세상이지. 아, 그뽕 뽕치도 하고.)

116) ‘도감’은 뽕치잡이 조의 책임자를 일컫는다. 제주에서는 잔치집에서 돼지고기를 썬 사람도 도감이라고 한다.

117) ‘뽕곳’은 뽕치가 잘 잡히기를 기원하기 위해 무당을 뽕려서 하는 곳을 말한다.

105009 @ 게문 이거는 그물이 네 개면 이 네 개가 차례로 허는 거파?(그러면 이거는 그물이 네 개면 이 네 개가 차례로 하는 겁니까?)

105009 #2 차례로, 차례로.(차례로, 차례로.)

105009 @ 누가 더 좋은 때 허고 나쁜 때 허고 이런 건 어떻 허여?(누가 더 좋은 때 하고 나쁜 때 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

105009 #2 다 그 조에서 제비 뽑은 거라.(다 그 조에서 제비 뽑은 거야.)

105009 @ 아.(아.)

105009 #2 제비 뽑아낭 수요일날 누게, 금요일날 누게 이런 식으로 행 허니까.(제비 뽑아놓고 수요일날 누구, 금요일날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105009 @ 그믐 무신 월요일날은 새벽그물이 허고 화요일날은 싸움판이 허고 이런 식으로.(그러면 무슨 월요일은 ‘새벽그물’이 하고 화요일은 ‘싸움판’이 하고 이런 식으로.)

105009 #1 뿔이 들어오면이 이 그물 이거 네 쪽이면은이 네 그물이 다 놓 수도 있어.(뿔치가 들어오면 이 그물 이거 네 쪽이면 네 그물이 다 놓을 수도 있어.)

105009 @ 한꺼번에 다 나가서 가져올 수도 있어?(한꺼번에 다 나가서 가져올 수도 있어?)

105009 #1 뿔이 하면.(뿔치가 많으면.)

105009 @ 한 그물 먼저 영 행 오면 다른 그물로 또 행 와?(한 그물 먼저 이렇게 해서 오면 다른 그물로 또 해 와?)

105009 #2 다른 조가 들어와, 조별로.(다른 조가 들어와, 조별로.)

105009 #1 뿔 방향으로. 뿔 방향에도 뿔이 있어.(뿔 방향으로. 뿔 방향에도 뿔치가 있어.)

105009 @ 뿔 방향으로, 아.(다른 방향으로, 아.)

105009 #1 겨난 이제는이 육지 요 추자 ㄱ뽀든 디는 뿔로 살지 안해? 메리치 해 불지, 젓도 그냥 막 통으로 담아불지. 겨난 뿔은 지금엔 엇는 썸이지. 옛날에는 그런 식이 엇어부니까 함덕엔 워낙 장소가 좋아노난 뿔이 잘 들어왔주.(그러니까 이제 는 육지 요 추자 같은 데는 뿔치로 살지 않아? 뿔치 해버리지, 젓갈도 그냥 막 통으로 담아버리지. 그러니까 뿔치는 지금은 없는 썸이지. 옛날에는 그런 식이 엇어버리니까 함덕엔 워낙 장소가 좋아서 뿔치가 잘 들어왔지.)

105009 #2 장소가 좋주. 서모장 이서놓고 허니까 으지가 뿔영.(장소가 좋지. ‘서모장’ 있어놓고 하니까 의지가 되어서.)

105009 #1 다른 디도 좋주만은 함덕이 잘도 장소가 좋주게.(다른 데도 좋지만은 함덕이 아주 장소가 좋지.)

105009 #2 장소 좋주, 뿔 잘 들고, 최고.(장소 좋지. 뿔치 잘 들고, 최고.)

105009 #1 아무 장소도 좋아, 마을도 크고.(아무 장소도 좋아, 마을도 크고.)

105009 @ 마을도 크고, 땅도 좋고.(마을도 크고, 땅도 좋고.)

105009 #2 집 짓는 거 봐, 함덕에. 함덕 닮은 디가 엇어. 이야, 집 짓는 거 무서

와서.(집 짓는 거 봐, 함덕에. 함덕 같은 데가 없어. 이야, 집 짓는 거 무서워서.)

105009 @ 그믐 그물도 손봐근에 장만해야주예?(그러면 그물도 손보고 장만해야지요?)

105009 #1 그물도이 막 찢어져이.(그물도 막 찢어져.)

105009 @ 예, 거난.(예, 그러니까.)

105009 #1 오닐 아침이 그물로 멜 거러낭 모살판에 강 몬 넣어.(오늘 아침에 그물로 멀치 잡고 나서 모래판에 가서 모두 넣어.)

105009 @ 응.(응.)

105009 #1 널민 그 그물 찢어진 거 몬 회원덜이 강, 그물을 잣아이, 주워. 경혜영 이젠 또 몬 개영, 영 소랑허게 개영 이젠 몬 웃독지덜 메명 또 그물 누는 디가서. 영 발 네 발 세왕 그 우이 다 사령 낫당 또 멜 걸리레 시경 배레.(널면 그 그물 찢어진 거 회원들이 가서, 그물 꿰매, 기워. 그렇게 해서 이젠 또 모두 개어서, 이렇게 기름하게 개어서 이젠 모두 어깨에 메면서 또 그물 가리는 데가 있어. 이렇게 발 네 발 세워서 그 위에 다 사려서 놓았다가 또 멀치 잡으러 실어 배에.)

105009 @ 매날 매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꽈?(매일 매일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105009 #1 멜이 들어온 때만 허는 거라부난.(멀치가 들어온 때만 가는 거라서.)

105009 @ 건 얼마나, 메칠만이 가는 거라?(그건 얼마나, 며칠만 가는 거야?)

105009 #1 건 몰라. 멜 들어오는 것이.(이건 몰라. 멀치 들어오는 것이.)

105009 @ 게민 멜 들어오는 줄 어떻 알아?(그러면 멀치 들어오는 줄 어떻게 알아?)

105009 #1 해상<sup>118)</sup>배렌 허메. 그 멜 들어오는 사름 배가 있어.(‘해상’배라고 해. 그 멀치 들어오는 사름 배가 있어.)

105009 @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레 뎡기는 사름이 있어?(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 다니는 사름이 있어?)

105009 #1 보레 다니는 사름이 있어, 다 이 그물찍마다 그런 배는 이서.(보려 다니는 사름이 있어. 다 이 그물마다 그런 배는 있어.)

105009 @ 아, 돌아가멍.(아, 돌아가면서.)

105009 #1 이거 이 그물에선 걸리, 나가근에 멜 들어오는 거 엇인 거 다 알레다 가는 디가 이서.(이거 이 그물에서 걸리, 나가서 멀치 들어오는 거 없는 거 다 알려고 다 가는 데가 있어.)

105009 #2 눈으로 봐서 다 허는 거.(눈으로 봐서 다 하는 거.)

105009 @ 그물마다 배는 몇 개?(그물마다 배는 몇 개?)

105009 #1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105009 @ 싸움판에는 배가.(싸움판에는 배가.)

105009 #1 하나로는 못힐 걸.(하나로는 못힐 걸.)

118) ‘해상’은 멀치잡이에서 후릿그물로 멀치를 잡을 때 배를 타고 나가 멀치잡이 전 과정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105009 #2 그물 시끈 배 하나, 인부 시끈 배 하나.(그물 실은 배 하나, 인부 실은 배 하나.)

105009 @ 아, 인부 시끈 배 하나, 그물 시끈 배 하나. 배 두 개가 양쪽으로 영잡앙 허는 거짜?(아, 인부 실은 배 하나, 그물 실은 배 하나. 배 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겁니까?)

105009 #2 그물 들어와, 계민 사름은 등겨.(그물 들어와, 그러면 사름은 당겨.)

105009 #1 그물을 풀어주주, 영. 풀어주민 저 곳으로 막 사름 멧 개행 막 영차허멍 땡기고 이 곳드로 땡기민 이 가운딘 땡을 막 끌어 땡기는 거라, 굿드레. 재미있긴 허여.(그물을 풀어주지, 이렇게. 풀어주면 저 끝으로 막 사름 멧 개 해서 막 영차영차하면서 당기고 이 끝으로 당기면 이 가운덴 땡치를 막 끌어 당기는 거야, 가로. 재미있긴 해.)

105010 @ 레기는 어떻 나까마씨?(고기는 어떻게 낚아요?)

105010 #2 레기? 불락도 나끄고, 심하게 헌 때는 이까<sup>119)</sup>잡이도 허고. 소소한 영업 배 허는 거고, 묵호 강원도 두 번 갔다왔주만은. 갔다가 살도 못행 완. 빗 내. (고기? 불락도 낚고, 심하게 한 때는 오징어 잡이도 하고. 소소한 영업 배는 하는 거고, 묵호 강원도 두 번 갔다왔지만. 갔다가 살지도 못하고 왔어. 빗 내서.)

105010 @ 배도 이서낚수과?(배도 있었습니까?)

105010 #2 아니, 놔 배.(아니, 남의 배.)

105010 @ 고기 잡는 사름은 뭇엔 굴읍니까?(고기 잡는 사름은 뭇라고 말합니까?)

105010 #2 어부.(어부.)

105010 @ 보제긴 무신거짜?(‘보제기’는 뭇니까?)

105010 #2 보제기가 바로 그거 사투리 말이라. 한문으로 어부.(‘보제기’가 바로 그거 사투리 말이야. 한문으로 어부.)

105010 @ 나안텐 사투리로 굴아줘야주마씨.(나한테는 사투리로 말해줘야해요.)

105010 #2 보제기 헌 건 사투리.(‘보제기’ 한 건 사투리.)

105010 #1 보제기덜 사흘만 브름 세민 강알 굽어분덴.(어부들 사흘만 바람 세면 살 굽어버린다고.)

105010 @ 무신거라?(뭇라고?)

105010 #1 사흘만 파도 세면은 강알 굽어분덴. 건 무신 말인지 몰르크라. 돈이 어룬덴 말인지 배고픈덴 말인지 옛날은 보제기로 사는 사름덜은이 땅도 엇고이 그 걸로 첨 밧 점 양식 점 바당에서 사는 사름 말이주. 이제는 기계배니까 허주만은 옛날은 그냥 낙배로 가민 거 다 내영 다 젓영 어느 펄바당<sup>120)</sup> 갓당 오젠 허민 브름 만나민 그냥 죽어불곡.(사흘만 파도 세면은 살 굽어버린다고.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돈이 어려운다는 말인지 배고프다는 말인지 옛날은 어부로 사는 사람들은

119) ‘이까’는 일본어 ‘いか’로 오징어를 말한다.

120) ‘펄바당’은 바다밑에 갯벌이 깔린 바다를 말한다.



땅도 없고 그걸로 참 밭 겹 양식 겹 바다에서 사는 사람 말이지. 이제는 기계배니까 하지만은 옛날은 그냥 낚배로 가면 그거 다 내어서 다 젖어서 어느 ‘펼바당’에 갔다 오려고 하면 바람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고.)

105010 @ 아까 낚배가 어떤 거?(아까 낚배가 어떤 거?)

105010 #2 조그만 낚시배.(조그만 낚시배.)

105010 #1 풍선게, 풍선. 옛날은 기계배 그뜨민 얼른 브름 불어가민 기계 살루민 재기 올 수도 잇주만은 그냥 영영 젖시멍 오는 거라부난 먼 펼바당 갓당 오젠허민 오당보민 브름 만나민 죽을 수도 있고. 죽는 율이 해주.(풍선, 풍선. 옛날은 기계배 같으면 얼른 바람 불어가면 기계 살리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젖으면서 오는 거라서 먼 펼바다에 갔다 오려고 하면 오다 보면 바람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비율이 많지.)

105010 @ 펼바당은 먼 바당?(‘펼바당’은 먼 바다?)

105010 #1 먼 바당.(먼 바다.)

105010 @ 펼 이신 바당인가.(펼 있는 바다인가 했어.)

105010 #1 먼 펼바당 갓당완 해.(먼 ‘펼바당’ 갔다왔어 해.)

105011 @ 낚시대는 대낭으로 허는 건가?(낚시대는 대나무로 하는 건가?)

105011 #2 참대라 해서 저런 대 말고도 왕대도 있고 여라이 잇는데. 참대라고 해, 참대.(참대라 해서 저런 대 말고도 왕대도 있고 여러 명 잇는데. 참대라고 해. 참대.)

105011 #1 옛날 갈치 나끄는 술은 이거보다 더 커.(옛날 갈치 낚는 줄은 이거보다 더 커.)

105011 #2 갈치는 침술이라고 해서 건 바로 제라헌 거주. 갈치가 멧 개 물어도.(갈치는 ‘침술’이라고 해서 그건 바로 제대로된 거지. 갈치가 멧 개 물어도.)

105011 #1 그냥 주낙술 해다와근에 도새기 피 세경 도새기 피 문착 세경 이거 레기 나끄는 줄이민 문딱 그걸로 홀트민이, 물르민이 그놈의 것이 바짝허여이. 바짝허민이 이추룩헌이 아으덜 열레 닳은 걸로 이만큼헌 지레기 헌 것에 거꺼지지 못허게 감아정 그 조름에는 낚시덜 매어근에 고기 나끄는 걸로 해낫일 거라. 간 보진 안해도 나 피 멕이는 건 봐났어. 바짝허게 오그리지도 못허게 경허민 이런 것에 감는 건 봐났어.(그냥 낚시줄 해다놓고 돼지 피 먹여서 돼지 피 흠뻑 먹여서 이거 고기 낚는 줄이면 모두 그걸로 훑으면, 마르면 그놈의 것이 바짝해. 바짝하면 이렇게 한 아이들 열레 같은 걸로 이만큼한 길이 한 것에 꺾어지지 못허게 감아서 그 뒤에 낚시들 매어서 고기 낚는 걸로 했었을 거야. 가서 보지는 았아도 나 피 멕이는 건 봤었어. 바짝허게 오그리지도 못허게 그렇게 하면 이런 것에 감는 건 봤었어.)

105011 @ 건 뭐 헐 때 허는 거파?(그건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105011 #1 갈치. 우리 외삼촌 허는 거 봐났주. 저만이 신 낭에 돌아매영이 험벽 에라도 피 무쳐 강 영 영 썰멍.(갈치. 우리 외삼촌 하는 거 봤었어. 저만큼 있는 나무에 달아매어서 형겔에라도 피 묻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쓸면서.)

105011 #2 배꾼이 서이, 너이 꺾치 가도 갈치가 니껍 뜯어먹는 거 알아져. 이 수심 깊이를 아니 알려줘. 그 사름 나끄는 거 보멍 꺾치 들어사사 얼마 차이 엇어. 그디 강 그 사름 드리치는 거 뽕 허당 아다루<sup>121)</sup> 웨민 표시허영 감앙 허여. 어부라는 것이 박허여. 말을 안 허여줘.(배꾼이 셋, 넷 같이 가도 갈치가 미끼 뜯어먹는 거 알 수 있어. 이 수심 깊이를 안 알려줘. 그 사람 낚는 거 보면서 같이 들어서야 얼마 차이 없어. 거기 가서 그 사람 들이치는 거 봐서 하다가 명중하면 표시하면서 감아서 해. 어부라는 것이 박해. 말을 안 해줘.)

105011 @ 낚시대, 정술 이름을 곁아줍서.(낚시대, 낚시줄 이름을 말해주세요.)

105011 #1 춤대.(낚시대.)

105011 @ 춤대에 무신거 무릅니까?(낚시대에 무엇 묶습니까?)

105011 #1 춤대엔 뽕돌베끼 더.(낚시대엔 낚시봉뺨에 더.)

105011 #2 정술 매영.(낚시줄 매서.)

105011 @ 정술 매영.(낚시줄 매서.)

105011 #1 뽕돌 돌아매영.(낚시봉 돌아매서.)

105011 @ 그다음엔 낚시 바놓?(그다음엔 낚시 바늘?)

105011 #1 낚시 파는 것이 이서. 영 오그라진 거.(낚시 파는 것이 있어. 이렇게 오그라진 거.)

105011 @ 요건 춤대 줄은 정술. 요건 뽕돌 요건 낚시. 정술은 무신걸로 멘드는 거파?(요건 낚시대 줄은 낚시줄. 요건 낚시봉 요건 낚시. 낚시줄은 무엇으로 만드는데 겁니까?)

105011 #1 정술이 정술이난 옛날부터, 우리 두린 때부터 들어났어. 정술 말은. (낚시줄이 낚시줄이니까 옛날부터, 우리 어린 때부터 들었었어. 낚시줄 말은.)

105011 @ 어디 강 사옵니까?(어디 가서 사옵니까?)

105011 #2 상점이 이서.(상점이 있어.)

105012 @ 작살로도 고기 잡아낚수과?(작살로도 고기 잡았었습니까?)

105012 #1 요 굿딜로 히어 텡기멍.(요 바닷가로 헤엄쳐 다니면서.)

105012 @ 아까 갯담에?(아까 ‘갯담’에?)

105012 #2 물로 히어 텡기멍 쏘는 사름도 있고. 웨술로, 웨낚시로 고무줄 메왕 탁 쏘는 거. 이디는 놀 멘들앙 이딘 톱 멘들앙.(물로 헤엄쳐 다니면서 쏘는 사람도 있고. 외줄로, 외낚시로 고무줄 메워서 탁 쏘는 거. 여기는 낚 만들어서 여긴 톱 만들어서.)

105012 @ 대나무로?(대나무로?)

105012 #2 대 헤영 발 가웃, 두 발 길게. 그디 히어 텡기멍 안경 썩 히어 텡기멍 쏘아. 고무줄 메영, 그것이 작살이주.(대 해서 발 반, 두 발 길게. 거기 헤엄쳐 다니면서 물안경 써서 헤엄쳐 다니면서 쏘아. 고무줄 매어서, 그것이 작살이지.)

105012 #1 그런 건 하, 이제도.(그런 건 많아, 이제도.)

121) ‘아다루’는 일본어로 ‘あたる’로 ‘명중하다, 적중하다’는 뜻이다.

105012 @ 옛날도 그런 거 해놔수과?(옛날도 그런 거 했었습니까?)

105012 #2 아, 그건 옛날부터 잇는 거.(아, 그건 옛날부터 잇는 거.)

105012 #1 것도 고기 한 때주. 이젠 벨로주.(그것도 고기 많을 때지. 이젠 별로 지.)

105013 @ 고깃배도 여러 종류 잇수과? 큰 거, 작은 거 잇고?(고깃배도 여러 종류 있습니까? 큰 거, 작은 거 잇고?)

105013 #1 이건 우리가 몰라도 큰 거, 작은 거 잇지.(이건 우리가 몰라도 큰 거, 작은 거 잇지.)

105013 @ 아니 갈치배 뜨나고, 자릿배 뜨나고 험니까?(아니 갈치배 다르고, 자릿배 다르고 합니까?)

105013 #2 자리 잡는 배는 벨도로 잇어.(자리 잡는 배는 벨도로 잇어.)

105013 @ 자리 잡는 배 따로 잇어?(자리 잡는 배 따로 잇어?)

105013 #1 옛날에 이제는 몰른디, 터우.(옛날에 이제는 모르는데, 테우.)

105013 #2 나무로 허영 무끄는 거. 사름 앓는 자리 멘들앙 거기서.(나무로 해서 묶는 거. 사름 앓은 자리 만들어서 거기서.)

105013 @ 이것이 자릿배?(이것이 자릿배?)

105013 #1 터우가 자릿배. 그 배 이름이 터우라, 터우.(테우가 자릿배. 그 배 이름이 테우야, 테우.)

105013 @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105013 #1 영 영행 짬 거. 펡상ㄱ추룩이.(이렇게 이렇게 해서 짬 거, 평상처럼.)

105013 @ 잠녀덜 어디 실령 가는 배는 무신거라?(잠녀들 어디 실어서 가는 배는 뭐야?)

105013 #1 그 잠녀들 이제는 기껏배로, 옛날은 잠녀 시경 텡기명 해녀질을 안 했거든게. 이제는 잠녀 시경 텡기명 해녀질 했주, 옛날에는.(그 잠녀들 이제는 기껏배로, 옛날은 잠녀 실어서 다니면서 해녀질은 안 했거든. 이제는 잠녀 실어 다니면서 해녀질 했지, 옛날에는.)

105013 @ 델 거리는 배는?(떨치 잡는 배는?)

105013 #2 건 크고.(그건 크고.)

105013 #1 크명 말명. 그때는 기계 엇인 배난 그자 이제는 작은 배도 기계 메왕 톱 행 나가고 허난.(크면서 말면서. 그때는 기계 없는 배니까 그자 이제는 작은 배도 기계 메워서 톱 해서 나가고 하니까.)

105013 @ 함덕에 배 만들곡 허는 기술자 엇어놔수과?(함덕에 배 만들고 하는 기술자 없었습니까?)

105013 #2 기술자 이서난디 그 사름덜 가불고.(기술자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버리고.)

105013 #1 죽음도 허고 그 기술은 써먹도 못허주.(죽기도 하고 그 기술은 써먹지도 못하지.)

105013 #2 유 선장이라고 함덕에도 유명헌 사람 이서난디 죽은디 막 오래서. 후손이 대물리지 안 해서.(유 선장이라고 함덕에도 유명한 사람 있었는데 죽은지 아주 오래어. 후손이 대물리지 않았어.)

105013 #1 정허난에 이름이 유가고 허난 유 선장, 유 선장. 저 일구에서.(그렇게 했던 이름이 유가고 하니까 유 선장, 유 선장 저 일구에서.)

105014 @ 옛날에 잠녀들이 무신거, 무신거 행 와났수과?(옛날에 잠녀들이 무엇, 무엇 해서 왔었습니까?)

105014 #1 아무것도 엇어. 메역베끼.(아무것도 없어. 미역밖에.)

105014 @ 옛날에 메역베끼 안 해난?(옛날에 미역밖에 안 했었어?)

105014 #1 메역베끼 안 해난.(미역밖에 안 했었어.)

105014 @ 메역이 돈 하영 쥐났수과?(미역이 돈 많이 줬었습니까?)

105014 #1 하영이멍 말멍 영업이 엇이난 그걸 영업으로 헌 거지. 저 관탈?(많이 면서 말면서 영업이 없으니까 그걸 영업으로 한 거지. 저 관탈?)

105014 #2 감태?(감태?)

105014 #1 관탈, 관탈. 육지 이름.(관탈, 관탈. 육지 이름.)

105014 #2 자그마한 섬에.(자그마한 섬에.)

105014 #1 그디덜 메역덜 허레 가. 해녀덜이. 배탕 건. 막 먼딘 생이라. 관탈, 관탈.(거기들 미역들 하러 가. 해녀들이. 배타서 그건. 막 먼 곳인 모양이야. 관탈, 관탈.)

105014 @ 아, 관탈섬.(아, 관탈섬.)

105014 #1 옛날 해녀들은 단지 메역 즈믄뿐. 이제 잠녀들은 안 허는 거 엇이 벨 거 다 허연 바당 하나는 지네 관리ㄴ치 누게 잡사름 땡기도 못허게 허주만은. 옛날은 우리가 바당에 가도 메역을 못 톤아. 해녀들이 그냥 해여불민. 올린 영 이월들에 바당에 간 보난 메역이 팍 찬. 아이고 간 보난 안 썸직허다, 메역은 막 이만씩 헌 메역이 ㄴ득, 에라 안 돼켜. 옷을 활딱 벗언 내의만 입언 이제 바당에 들어간 메역을 뒤 줌은 허난 아저와져? 가져오지도 못허고 이젠 아덜간 이제 차에 문 시끄렌 헨 나이롱 아상 간 아래 끌고 헨 시꺼다 난 집이 오난 막 널어난. 동네 다 날라된 편편. 거 뿔허레사 허레 땡점디사. 것도 전상이라 나도.(옛날 해녀들은 단지 미역 채취뿐. 이제 잠녀들은 안 하는 거 없이 벨 거 다 해서 바다 하나는 자기네 관리처럼 누구 잡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하지만은. 옛날은 우리가 바다에 가도 미역을 못 뜯어. 해녀들이 그냥 해버리면. 올해는 이렇게 이월에 바다에 가서 보니까 미역이 팍 차서. 아이고 가서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미역은 막 이만큼씩 한 미역이 가득, 에라 안 되겠어. 옷을 활딱 벗어서 내의만 입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뒤 줌은 하니까 가져올 수 있어?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젠 아들 가서 이젠 차에 모두 실으려고 해서 나일론 가져 가서 아래 깔고 해서 실어다 놓고 집에 오니까 막 널어났어. 동네 다 날라두고 ‘편편’. 그거 무엇하러야 하러 다니는지. 그것도 전상이야 나도.)

105014 @ 메역은 먹을 걸로 허는 거주예?(미역은 먹을 것으로 하는 거지요?)

105014 #1 응, 먹을 걸로 해단 동넨 문딱 준 거라. 옛날ㄴ치 메역을 귀혀여, 어려와. 이녁 바당에덜 안 탱기는 사름은 어롭주게. 바당에 탱겨도 어떻 고리 맞추지 안허민. 메역이 잘도 종안 이만씩 힌 메역이 치랑치랑. 해녀덜은 단지 메역뿐. 우리가 바당에 강 젓어 탱기당 보른이 소라가 살도 엇는 거, 빨도 엇는 것이 발로 두글락, 두글락. 무신 작지카부텐 허당보민 구쟁이 딱지가 헤뜨랑이 자빠지곡 행 이서. 이제는 그런 거 엇어. 돈을 몇 억 준텐 해도 그런 소라가 엇어.(응, 먹을 걸로 해다가 동네 모두 준 거야. 옛날처럼 미역을 귀해, 어려워. 자기 바다에들 안 다니는 사름은 어렵지. 바다에 다녀도 어떻게 ‘고리’ 맞추지 않으면. 미역이 잘도 좋아서 이만큼씩 한 미역이 ‘치랑치랑’. 해녀들은 단지 미역뿐. 우리가 바다에 가서 젓어 다니다 보면 소라가 살도 없는 거, 빨도 없는 것이 발로 ‘두글락, 두글락’. 무슨 ‘작지’ 일까봐 하다 보면 소라 딱지가 ‘헤뜨랑이’ 자빠지고 해서 있어. 이제는 그런 거 없어. 돈을 몇 억 준다고 해도 그런 소라가 없어.)

105015 @ 잠녀들이 들렁 탱기는 도구는 이름이 무신거마씨?(잠녀들이 들어서 다니는 도구는 이름이 뭐예요?)

105015 #1 테왁.(‘테왁’.)

105015 @ 그다음, 그 밧에 이신 건.(그다음, 그 밧에 있는 건.)

105015 #1 망사리.(‘망사리’.)

105015 #2 안경도 잇주.(안경도 있지.)

105015 @ 안경은 무신거엔 곱아.(안경은 뭐라고 말해?)

105015 #1 그땐 눈이엔 헛어. 눈 앓앙 오렌 헛어. 이젠 이만큼 힌 안경인디 그때는 요멘씩헌 거. 켜켄헌 거. 옛날 줌네덜은.(그땐 눈이라고 헛어. 눈 가져 오라고 헛어. 이젠 이만큼 한 안경인데 그때는 요만큼씩 한 거. 자잘한 거. 옛날 잠녀들은.)

105015 @ 큰눈, 죽은눈 헛니까?(큰눈, 작은눈 헛니까?)

105015 #1 아니, 아니. 그때는 보통 이거라. 조끌락헌 거. 이제는 아이덜 헤엄치레 감도 그놈으 거 앓앙 가는데.(아니, 아니. 그때는 보통 이거야. 조그만 거. 이제는 아이들 헤엄치러 가기도 그놈의 거 가져 가는데.)

105015 @ 테왁은 무신걸로 멘드는 거파?(‘테왁’은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105015 #1 콧.(박.)

105015 #2 콧을 지붕 우트레 올렁 콧을 크게 허젠 허민 그걸로 멘들아.(박을 지붕 위에 올려서 박을 크게 하려고 하면 그걸로 만들어.)

105015 #1 겐디 제주에서는 이만큼은 힌 테왁험 직헌 콧이 안 열아. 우리 보건딘 안 봐났어. 어디 육지서 와신디. 그것을 놓면이 두루 익어도 테왁을 못허여. 잘 익영 실꾼어야 그놈으 테왁이 돼지. 두루 익은 거 해당 허민 물랑물랑허여, 것이. (그런데 제주에서는 이만큼은 한 ‘테왁’할 것 같은 박이 안 열려. 우리 보건데 안 봤었어. 어디 육지서 왔는데. 그것을 놓으면 덜 익어도 ‘테왁’을 못해. 잘 익어서 굳어야 그놈의 ‘테왁’이 돼지. 덜 익은 거 해다가 하면 물렁물렁 해, 그것이.)

105015 @ 아까 실꾼어사는 무슨 말?(아까 ‘실꾼어야’는 무슨 말?)

105015 #1 실꾼어야, 꺾어야, 팡팡하게 꺾어야. 꺾어야 테왁 앓아 텅김도 든든혀 여.(‘실꾼어야’, 꺾어야, 팡팡하게 꺾어야. 꺾어야 ‘테왁’ 가져 다님도 단단해.)

105015 @ 속에 거 다 파야지예?(속의 거 다 파야지요?)

105015 #1 막 몰라 가민 그디 동글랑헌 씨가 막 하. 이디 고망 툇랑 영영헤 가민 씨가 술랑술랑헌 것이 문딱 나와. 번쩍허민 속에 거 엇어부난 가뿐혀여. 경허민 영 엇어 강, 엇어 강 테왁을 막 엇어놔 망사리에 부쳐 불민 것이 테왁.(막 말라 가면 거기 동그란 씨가 아주 많아. 여기 구멍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씨가 길쭉길쭉한 것이 모두 나와. ‘번쩍’하면 속에 거 없어버리니까 가뿐해. 그러면 이렇게 엇어 가서, 엇어 가서 ‘테왁’을 막 엇어놔서 망사리에 붙여 버리면 그것이 ‘테왁’.)

105015 @ 고양이 막아야 돼어?(구멍은 막아야 돼?)

105015 #2 막아야주.(막아야지.)

105015 #1 옛날은 이젠 망사리는 알로 무신거 나이롱이난에 확 클렁 확 제우민 돼는디 옛날은 미베, 어웁 플랭이 빠당 짠 걸로 짠 거난 터진 것이 엇어, 아래 짬을 영 짬 이디 강 췌와젓주. 이제 거는 나이롱이라노난 일로 알로 코 들앙 확 홀트민 제와지고 풀어불민 메역이 아무만이 조물아도 알로 짹 빠져불어.(옛날은 이젠 망사리는 아래로 무엇 나일론이니까 확 끌러서 확 조이면 되는데 옛날은 ‘미베’, 억새 꼬리 빠다가 짠 걸로 짠 거니까 터진 것이 없어. 아래 짜는 것을 이렇게 짜서 여기 가서 조였지. 이제 거는 나일론이라서 이리로 아래로 코 달려서 확 훑으면 조여지고 풀어 버리면 미역이 아무 만큼 채취해도 아래로 짹 빠져버려.)

105015 @ 옛날은?(옛날은?)

105015 #1 옛날은 경 엇어. 그냥 짜, 그냥 짜근에엥 뱅뱅 멘든 거라부난 테왁 저곳딜로 빠내사여.(옛날은 그렇게 엇어. 그냥 짜, 그냥 짜서 뱅뱅 만든 거라서 ‘테왁’ 겹으로 빠내야 해.)

105015 @ 망사리가 우에 이름은 트나고 요건 다른 이름으로 불릅니까?(‘망사리’가 위에 이름은 다르고 요건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까?)

105015 #1 아니, 아니. 요거는 어음.(아니, 아니. 요거는 ‘어음’.)

105015 @ 어음. 이거는?(‘어음’, 이거는?)

105015 #1 거는 망사리.(그거는 망사리.)

105015 @ 옛날은 이걸 미베?(옛날은 이걸 ‘미베’?)

105015 #1 미베쟁이 빠당. 어웁에이 우리 뺑이엔 행 그거 새면은 그디 꺾테기가 질겨. 게민 하르방이 막 꼬앙 이걸 그물 짜듯 이추룩 짜. 짜 놔 이제 이 어음허는 것도 어디 소소한 던 엇어. 어디 산에, 목장 가사 이런 걸 허여.(새품 빠다가. 억새 우리 ‘뺑이’라고 해서 그거 새면 거기 꺾테기가 질겨. 그러면 할아버지 막 꼬아서 이걸 그물 짜듯 이렇게 짜. 짜 놔서 이제 이 ‘어음’하는 것도 어디 소소한 텐 없어. 어디 산에, 목장에 가야 이런 걸 해.)

105015 @ 냥을?(나무를?)

105015 #1 이 냥을 이거. 끼울 거니까 뱅. 이거 소소한 던 엇어. 어음냥, 어음냥 허영. 경허민 이거 둘러놓민 요 망사리도 이거 족으면은 영 줄어지고. 테왁은 요레 어떻 행 돌아매곡.(이 나무를 이거. 끼울 거니까 뱅. 이거 소소한 덴 없어. ‘어음냥, 어음냥’ 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 둘러 놓으면 요 망사리도 이거 작으면 이렇게 줄어 지고. ‘테왁’은 요리 어떻게 해서 달아매고.)

105015 @ 전복 떼는 건?(전복 떼는 건?)

105015 #1 빗창.(‘빗창’.)

105015 @ 빗창도 들르고 줌녀가 물질허레 가젠 허민 테왁이영 빗창 들르고.(‘빗창’도 들고 줌녀가 물질하러 가려고 하면 ‘테왁’이랑 ‘빗창’ 들고.)

105015 #1 빗창은 우선 들르는 거 다향. 호미허고.(‘빗창’은 우선 드는 거 같아. 호미하고.)

105015 @ 호미?(호미?)

105015 #1 호미 이름이 중게 호미.(호미 이름이 ‘중게 호미’.)

105015 @ 중게 호미. 그다음 또.(‘중게 호미’. 그다음에 또.)

105015 #1 그거허고 빗창허고 물에 들레.(그거하고 빗창하고 물에 들어가려고.)

105015 @ 빗창허고 중게 호미만 가정 가?(빗창하고 ‘중게 호미’만 가져 가?)

105015 #1 빗창은. 이 호미는 메역 빌 거고, 요건 전복이나 봐지민 떼젠 허는 거. 전복이나 봐지민 호미로 못 떼지. 게난 중게 호민 이추룩 꾸작헌 걸로. 넓작헌 쉼줄 헤영 영허민 전복이 걸어 텅길 땐 영 건들민 그냥 툭허게 자빠져 불어. 건들어나민 이것이 탁 부떠부는디 그냥 이것이 발이 영헌 때는 일로 빗창이라도 들렁 아무 쉼라도 영허민 헤씩허게 징게엇이 떼져 불어.(빗창은. 이 호미는 미역 벨 거고, 요건 전복이나 보이면 떼려고 하는 거. 전복이나 보이면 호미로 못 떼지. 그러니까 ‘중게 호미’는 이렇게 곧은 걸로. 넓죽한 쇠줄 해서 이렇게 하면 전복이 걸어 다닐 땐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툭허게 자빠져 버려. 건드리고 나면 이것이 딱 불어 버리는데 그냥 이것이 발이 이렇게 한 때는 이리로 빗창이라도 들어서 아무 쇠라도 이렇게 하면 ‘헤씩’하게 ‘징게엇이’ 떼져 버려.)

105015 @ 징게엇이? 징게엇이가 뭐?(‘징게엇이’? ‘징게엇이’가 뭐?)

105015 #1 힘엇이 떼져 불어. 전복 발이 영 영킨 때 영 건들민 툭 떼져 불어. (힘없이 떼져 버려. 전복 발이 이렇게 영킨 때 이렇게 건드리면 툭 떼져 버려.)

105016 @ 옛날 잠녀허고 이제 잠녀는 다르주예.(옛날 잠녀하고 이제 잠녀는 다르지요.)

105016 #1 하영 달르주. 천지 차이로 달르주게.(많이 다르지. 천지 차이로 다르지요.)

105017 @ 입는 옷도 다르주예.(입는 옷도 다르지요.)

105017 #1 고무옷 입어근에 바다에만 살아부난 바다에 것이 엇는 거라. 오래 살아부니까게. 옛날에사게.(고무옷 입어서 바다에만 살아버리니까 바다의 것이 없는

거야. 오래 살아버리니까. 옛날에야.)

105017 @ 고무옷 나기 전인 어땠 해수과?(고무옷 나기 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105017 #1 고무옷 나기 전인이 물샤쓰엔 행이. 광목으로나이 해양케 적삼ㄱ추룩 멘들곡이. 적삼ㄱ추룩 멘들앙 요만헌 소매행 입고, 소중이엔 행이 영 멘들아근에 메친 들앙 영 께영 입으민 그거 끝. 율로 단추 들곡 허영. 그거난 얼 건 사실이지. 이제는 소꿉 고무옷 입으민 물속에서 뜬넌텐 허는다.(고무옷 나기 전엔 물셔츠라고 해서. 광목으로나 하얗게 적삼처럼 만들고. 적삼처럼 만들어서 요만한 소매해서 입고, 소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끈 달아서 이렇게 께어서 입으면 그거 끝. 요리로 단추 달고 해서. 그거니까 추울 건 사실이지. 이제는 사꿉 고무옷 입으면 물속에서 뜬넌다고 하는데.)

105018 @ 툫은 어땠 해낫수과?(툫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5018 #1 툫?(툫?)

105018 @ 툫.(툫.)

105018 #1 툫도 옛날에는이 바당에, 동네서. 이제는 해녀들이 딱 언광 꼼짝을 못허는디 옛날은이 바당에 들 사름은 들영, 돈 내영 들어이. 들엇당 정월이나 이월 나믄이 툫즈문헐 땀 사름덜이 다 강 거 툫을 허여. 허면은 이제 다 굿드레 지어 올령 물령 도속<sup>122)</sup>으로 폴아났어. 흠치 다 뭉쳐.(툫도 옛날에는 바다에, 동네서. 이제는 해녀들이 딱 잡아서 꼼짝을 못하는데 옛날은 바다에 들 사름은 들어서, 돈 내어서 들어. 들엇다가 정월이나 이월 나면 툫조문할 땀 사람들이 다 가서 그거 툫을 해. 하면 이제 다 갯가로 저 올려서 말려서 ‘도속’으로 팔았었어. 한꺼번에 다 뭉쳐서.)

105018 @ 도속으로?(도속으로?)

105018 #1 각자 앓지 안허영. 합쳐 헛당 폴아.(각자 갖지 앓고. 합쳐서 했다가 팔아.)

105018 @ 나가 내년에 툫허켜 허민 미리 돈 내영 가입을 허여?(내가 내년에 툫 하겠다 하면 미리 돈 내어서 가입을 해?)

105018 #1 돈은 내지 안해도 가입이 땀 거라. 경허민 다른 사름은 이 툫허는 디 못 가. 이녁이 돈 쥘 들어간 거다 헌 거지.(돈을 내지 앓아도 가입이 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름은 이 툫하는 데 못 가. 자기 돈 쥐서 들어간 거다 한 거지.)

105018 @ 함덕에서 내년에 툫헐 사름은.(함덕에서 내년에 툫할 사름은.)

105018 #1 이젠 못해.(이젠 못해.)

105018 @ 옛날에.(옛날에.)

105018 #1 옛날에 경해났지. 이제는 툫 구경허젠 해도 못해. 해녀덜이 딱 언광.(옛날에 그랬었지. 이제는 툫 구경하려고 해도 못해. 해녀들이 딱 잡아서.)

105018 @ 옛날은 해녀 아니라도.(옛날은 해녀 아니라도.)

105018 #1 옛날은 해녀 아니고 기고 이걸 가입허젠 허민 해낫주게. 몸 ㄱ뜬 거

122) ‘도속’은 각자 개인적으로 분배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아서 판다는 의미이다.



는이 가입 안 해도 하영 아니 나는 거난에 이녀이 강 허젠 허른 정월들 나쁜 눈 하나씩 혈 때 가쁜 속에 요만큼헌 내의만 입꼭 행 들어가민 술에 조팡울 닳은 공기가 막 허영케 부떠. 그거 물에 들어가난 부글부글허는 식이라. 허영케 부땡 강 들어강 구덕 차고 행 강 몹은 이녀만 텡기땡 끈어왕 혼 짐 지아정 왕 이녀 집이서 물리왕 풀앗던가 먹엇던가 허여.(옛날은 해녀 아니고 기고 이걸 가입하려고 하면 했었지. 모자반 같은 거는 가입 안 해도 많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하려고 하면 정월 나쁜 눈 하나씩 할 때 가면 속에 요만큼헌 내의만 입고 해서 들어가면 살에 조팡울 닳은 공기가 막 하얗게 붙어. 그거 물에 들어가니까 부글부글하는 식이야. 하얗게 부어서 가서 들어가서 바구니 가지고 해서 가서 모자반은 자기만 다니면서 잘라와서 한 짐 저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말려서 팔든가 먹엇던가 해.)

105018 @ 톨은 단체로 공동으로 허는구나예?(툏은 단체로 공동으로 하는군요?)

105018 #1 톨은 질봐놓민 이만씩 해, 기레기가 막 커.(툏은 길러놓으면 이만کم씩 해. 길이가 아주 길어.)

105018 @ 일부러 질루는 거파?(일부러 기르는 겁니까?)

105018 #1 질루는 거지, 건. 혈 때 뒤면은 이제 팔월 나가면 새 톨 나가면 봄날 때까지 거 그냥 내부는 거라, 못허게. 이제도. 옛날도.(기르는 거지, 그건. 할 때 뒤면은 이제 팔월 나면 새 톨 나면 봄날 때까지 그거 그냥 내버리는 거야, 못허게. 이제도, 옛날도.)

105018 @ 옛날도 경해난?(옛날도 그랬었어?)

105018 #1 옛날도 임시 해당 먹는 건 심허게 막진 안헐주게. 겐디 이제는 톨 풀랭이 문직앗다 허민 악메들ㄴ치 사름 잡아먹엄직이.(옛날도 임시 해다가 먹는 건 심하게 막진 았았지. 그런데 이제는 톨 꼬리 만졌다 하면 악마들처럼 사름 잡아먹을 듯이.)

105018 @ 톨 고냉이?(‘툏 고냉이’?)

105018 #1 톨 먹젠 허민, 톨 풀랭이 해오젠 허민 못허게 허여 줌네덜이 그거 하나 건드렐당은 사름 죽염직이 해녀덜이 해여.(툏 먹으려고 하면, 톨 꼬리 해오려고 하면 못허게 해 잠녀들이 그거 하나 건드렐다가 사름 죽일 듯이 해녀들이 해.)

105018 @ 아, 톨 풀랭이. 우미는?(아, 톨 꼬리. 우뭇가사리는?)

105018 #1 우미도 이제 못허게, 옛날은 우민이 우미 헤저, 헤젠 허민, 텃젠 허민, 우미뺏을 텃젠 허민 건 아무라도 강 막 허여와. 바당에 익숙헌 인 하영 허여이. 나ㄴ치 서죽은 건 가민 기자 등그러 텡기당 보민 흥쫂 허고.(우뭇가사리도 이제 못허게, 옛날은 우뭇가사리는 우뭇가사리 할 수 있어, 하려고 하면, 뺏다고 하면, 우뭇가사리뺏을 뺏다고 하면 그건 아무라도 가서 막 해와. 바다에 익숙한 이는 많이 해. 나같이 기죽은 것은 가면 그저 굴러 다니다 보면 조금 하고.)

105018 @ 건 공동으로 허는 거 아니? 아무나 강 행 와도 뒤는 거.(그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 아무나 가서 해 와도 되는 거.)

105018 #1 공동으로 아니. 경허는 거. 아, 옛날은 헤신디 몰라. 우리 알건디는

건.(공동으로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 옛날은 했는지 몰라. 우리 알 건데 그것은.)

105018 @ 행 오민 건 어떻 허는 거마씨?(해서 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5018 #1 물리왓당 폴아.(말렸다가 팔아.)

105019 @ 폴아! 우민 어떻 만듭니까?(팔아! 우무는 어떻게 만듭니까?)

105019 #1 숨으는 거?(삶는 거?)

105019 @ 예.(예.)

105019 #1 숨으는 거사 쉽지.(삶는 거야 쉽지.)

105019 @ 바당에 강 행 오민?(바다에 가서 해 오면?)

105019 #1 행 오민 돈물에 자꾸 빨곡이 그디 돌에 막 낚이 이서이. 보말 님은 거 돌맹이 님은 거 돌아지면은 파삭 물르민 그 우미를 독독독독 못아가민 모살 님은 게 다 떨어져. 떨어정 이젠 돈물에 강 시시면 물이 허영케 모살 못아진 물이 나와가민 혼 이틀만 발레민 불그룽헛당 또 세 번만 적저 가민이 헤영헤 가.(해서 오면 단물에 자꾸 빨고 거기 돌에 막 이끼가 있어. 고둥 같은 거 돌맹이 같은 거 달려있으면 파삭 마르면 그 우뭇가사리를 독독독독 마면 모래 같은 게 다 떨어져. 떨어져서 이젠 단물에 가서 씻으면 물이 하얗게 모래 만 물이 나와 가면 한 이틀만 바래면 불그스름했다가 가서 또 세 번만 적저 가면 하얘져 가.)

105019 @ 한 번 물에 담갓당 꺼낼 말려?(한 번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말려?)

105019 #1 응, 짬물 헤와 불면은 그냥 물리거들랑 그냥 우미에 모살 님은 거.(응, 짬물 행귀 버리면 그냥 말리거든 그냥 우뭇가사리에 모래 같은 거.)

105019 @ 그거 다 떼영 그다음은.(그거 다 떼어서 그다음은.)

105019 #1 물에 등강 확확 씻어 가민 그 모살물 까진 것이 헤영케 나와가고 또 물리왓당 침 낚 이시면은 또 못사불면은 그놈으 것이 곱닥허여. 경행 세 번, 네 번만 발레가민 헤영허민 그때는 삶아.(물에 담가서 확확 씻어 가면 그 모래 물 까진 것이 하얗게 나와가고 또 말렸다가 참 이끼 있으면 또 마버리면 그놈의 것이 고와. 그렇게 해서 세 번, 네 번만 바래어 가면 하얗게 되면 그때는 삶아.)

105019 @ 그때사 숨으는 거.(그때야 삶는 거.)

105019 #1 헤영케 발레사 그 우미 숨은 거 보민 곱지 안헤여게? 거 발레니까 우미로 별경현 때 그대로 삶양은 그대로 별경현 건디게. 우미 헤영케 발레 놓민 고와, 얼음ㄹ추룩.(하얗게 바래야 그 우뭇가사리 삶은 거 보면 곱지 않니? 그거 바래니까 우뭇가사리로 별건 때 그대로 삶아서 그대로 별건 건데. 우뭇가사리 하얗게 바래 놓으면 고와, 얼음처럼.)

105019 @ 삶은 다음은?(삶은 다음은?)

105019 #1 삶은 다음은 무신 망으로 걸러. 걸러근엥에 요것이 다라면은 다라 높이로 요만이만 놓게 영 그 다라에 걸렁 내불고 또 하영 숨으민 뜬 다라에 거렁 놔똥 오늘 저녁이 숨으민 널 아척이민 얼려 불영 탕탕허여. 그것이 우미주. 경허민 칼로 영영 비영.(삶은 다음은 무슨 망으로 걸러. 걸러서 요것이 대야면 대야 높이로 요만큼만 놓게 이렇게 그 대야에 걸러서 내버리고 또 많이 삶으면 뜬 대야에 떠서

놔두고 오늘 저녁에 삶으면 내일 아침이면 얼려 버려서 딱딱해. 그것이 우무지. 그러면 칼로 이렇게 이렇게 베어서.)

105019 @ 냉국도 행 먹고.(냉국도 해서 먹고.)

105019 #1 복잡허영 안 해. 어디 누게 줌은 먹어도 허구정도 안허고. 그 우민 해당 낫당 발레영 누게 쥐불른 해도 삶진 안헤여. 허긴 허는디 가끔 해도 이제는 전혀 안 해. 옛날에는 해도.(복잡해서 안 해. 어디 누가 주면 먹어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우뭇가사리는 해다 놓았다가 바래서 누구 쥐버리면 해도 삶진 않아. 하긴 하는데 가끔 해도 이제는 전혀 안 해. 옛날에는 해도.)

105020 @ 전복하고 소라는 지금은 잠녀들이 해도 옛날은 그냥 강 행 와낫수과?(전복하고 소라는 지금은 잠녀들이 해도 옛날은 그냥 가서 해서 왔었습니까?)

105020 #1 이녁 스망 일민 강 떼와지고. 눈에 걸리민 떼오고.(자기 채수 좋으면 가서 떼어 올 수 있고. 눈에 걸리면 떼어 오고.)

105020 @ 이젠 다 해녀들이 공동으로 허주예?(이젠 다 해녀들이 공동으로 하지요?)

105020 #1 해녀들끼리만 공동 땡주.(해녀들끼리만 공동 땡지.)

105020 @ 탄 사름덜은 못허게.(탄 사람들은 못하게.)

105020 #1 소라도 잡으민 공동으로 풀곡 다 험실 거라.(소라도 잡으면 공동으로 팔고 다 했을 거야.)

105021 @ 전복하고 소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파?(전복하고 소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105021 #1 전복은 전복뿐일 거라. 종류가 있어. 암커, 수커는 있지.(전복은 전복뿐일 거야. 종류가 없어. 암컷, 수컷은 있지.)

105021 @ 암커, 수커는 어떻 구분합니까?(암컷, 수컷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105021 #1 암커는이 납작허곡이 술이 지프지 안허고 수커 전복껍데기는 지퍼. 그것이 암커, 수커주, 다른 건 있어.(암컷은 납작하고 살이 깊지 않고 수컷 전복갑은 깊어. 그것이 암컷, 수컷이지, 다른 건 없어.)

105021 @ 오분재기허고 전복은 어떻 구분합니까?(떡조개하고 전복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105021 #1 전복허고 오분재기는 천지차이지. 오분재기는 최고 컷자 요만이, 전복은 크면은 이만큼은 현 것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는 해녀들이 떼왓신디사 몰라도 옛날ㄱ치 이만큼은 현 것은 잘 못 봐.(전복하고 떡조개는 천지 차이. 떡조개는 최고 커도 요만큼, 전복은 크면 이만큼은 한 것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는 해녀들이 떼어오는지 몰라도 옛날같이 이만큼 한 것은 잘 못 봐.)

105021 @ 구멍 땡 개민 전복이고 이런 거 잇수과?(구멍 땡 개민 전복이고 이런 거 있습니까?)

105021 #1 몰라.(몰라.)

105021 @ 구쟁기에 땡 난 건 뭇렌 곶아?(소라에 땡 난 건 뭇라고 말해?)

105021 #1 구쟁이살<sup>123</sup>). 뿔이 아니고 쌀이엔 곤지.(‘구쟁이살’. 뿔이 아니고 ‘쌀’이라고 말하지.)

105021 @ 전복은 뭐엔 굴아?(전복은 뭐라고 말해?)

105021 #1 것도 몰르크라. 이런 건 전복은이 바다에 가도 눈에 걸리민 때는 거 주이. 소라 그든 거는이 돌 일려도 나오곡이 무시거 허주만은. 만간에 스망 일영 돌 일령 보민 이런 것도 이서이. 경허민 떼어오는 거. 오분재기는 이것이 바당에 빌레 면은이 요추룩 현 고냥에 손 찢르면은 손끝으로 알아져. 오분재기다 현 거를 알아져. 경허민 슬허게 굴갱이 앓앙 똑 떼영 흙과내곡. 요디 고냥 가민 영 문직아보민 오분재기를 알아져. 알아지민 거 똑똑 떼어. 이젠 오분재기 두 개만 떼민 하늘에 벨 따온 거만이 알앙.(그것도 모르겠어. 이런 건 전복은 바다에 가도 눈에 걸리면 떼는 거지. 소라 같은 거는 돌 일으켜도 나오고 무엇 하지만은. 간만에 사망 일어서 돌 일으켜 보면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떼어오는 거. 떡조개는 이것이 바다에 빌레면 요처럼 한 구멍에 손 찢르면 손끝으로 알 수 있어. 떡조개다 한 거를 알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살짝 호미 가져다가 똑 떼어서 파내고. 요기 구멍 가면 이렇게 만져보면 떡조개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으면 그거 똑똑 떼어. 이젠 떡조개 두 개만 떼면 하늘에 별 따온 것만큼 알아.)

105022 @ 터우는 많이 봐났지예. 만드는 것도 봐났수과?(떼배는 많이 봤었지요. 만드는 것도 봤었습니까?)

105022 #1 만드는 건 안 보고게. 건 우리 보건디도 만들기 쉬웁직허여. 고망 뜰 랑 또 예껴가고 예껴가곡 허든 그냥 요만큼은 허민 이 지레긴 허곡 허영 또 팽상 그 추룩 가운데 강 요만인 멘들민 그자 고기 나끄명도 그디 앓고, 자리 거려도 그 우 트레 놓곡 해난 거 님아. 요기는 고망으로 새로 물이 출락출락 나오곡 해불민.(만드는 건 안 보고. 그건 우리 보기에다 만들기 쉬울 것 같아. 구멍 뚫어서 또 엮어 가고 엮어가고 하면 그저 요만큼은 하면 이 길이 하고 해서 또 평상처럼 가운데 가서 요만큼 만들면 그저 고기 낚으면서도 거기 앓고, 자리돔 잡아도 그 위에 놓고 했던 거 같아. 요기는 구멍으로 새로 물이 찰싹찰싹 나오고 해버리면.)

105022 @ 타 환? 할머니도.(타 봤어? 할머니도.)

105022 #1 타긴 헛자 그런 거 거리는 건 안 봤지. 임시 어디 혼 번 타났어.(타긴 헛어도 그런 거 잡는 건 안 봤지. 임시 어디 한 번 탔었어.)

105022 @ 어렸을 때?(어렸을 때?)

105022 #1 그때베피 안 타봤어. 바당에 심영 뎡기는 건 잘 보주만은. 그냥 어린 때 터우가 뎡기는 건 잘 봐신디 탕은 벨로 안 뎡겼지. 탈 일도 엇고. 남주 그뜨민 고기라도 나끄레 가켄 부떠라도 가주만은.(그때밖에 안 타봤어. 바다에 잡아서 다니는 건 잘 보지만. 그냥 어린 때 떼배 다니는 건 잘 봤었는데 타서는 별로 안 다녔지. 탈 일도 없고. 남자 같으면 고기라도 낚으러 가겠다고 붙어서라도 가지만.)

105023 @ 옛날에는 기계 엇이 돛 달앙.(옛날에는 기계 없이 돛 달아서.)

123) ‘구쟁이쌀’은 소라껍데기에 돋은 돌기를 말한다.

105023 #1 초석, 초석. 초석이지예, 거 이름이. 배에 드는 것이 바당에 고기 나  
끄레 가는 것이 초석.(돛, 돛, 초석이지요, 그거 이름이. 배에 다는 것이 바다에 고  
기 낚으러 가는 것이 돛.)

105023 #2 응.(응.)

105023 #1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큰 거 요만큼 허민 작은 거 요만큼 두 개.  
이제 ㄱ뜨민 돛.(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큰 거 요만큼 하면 작은 거 요만큼 두  
개. 이제 같으면 돛.)

105023 @ 지금은 돛 달았텐 허는디, 옛날은 초석이라?(지금은 돛 달았다고 하  
는데, 옛날은 ‘초석’이야?)

105023 #2 초석 맞아.(‘초석’ 맞아.)

105023 @ 무신걸로 멘드는 거파?(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105023 #1 무신 기지로 멘든 거라.(무슨 천으로 만든 거야.)

105023 @ 난 이디 ㄱ는 것만 초석이카부덴.(난 여기 까는 것만 초석일까봐.)

105023 #2 배에 건 초석.(배에 걸은 ‘초석’.)

105023 @ 할머니네 집이 배는 엇어낚수과?(할머니네 집에 배는 없었습니까?)

105023 #1 엇어, 엇어. 우리 친정에는 큰아버지가 그물배 해부니까 그냥 도감,  
도감 허명.(없어, 없어. 우리 친정에는 큰아버지가 그물배 해버리니까 그냥 도감, 도  
감 하면서.)

105023 @ 아까 그 멜 허는 배. 그것도 돛단배 아니파?(아까 그 멀치 하는 배.  
그것도 돛단배 아닙니까?)

105023 #2 아니, 아니. 그물만 시경 멜만 잡는 거.(아니, 아니. 그물만 실어서 멀  
치만 잡는 거.)

105023 @ 아, 돛은 엇이 배만. 게민 노로 젓어야 되는 거 아니?(아, 돛은 없이  
배만. 그러면 노로 저어야 되는 거 아니?)

105023 #2 노는 젓는디 이 성창머리 이 해수욕장 안에서만 가는 거. 판 디 못  
가.(노는 젓는데 이 부두 이 해수욕장 안에서만 가는 거. 판 데 못 가.)

105023 #1 돛 드는 건 먼 바당 갈 때 돛 들양 나가지.(돛 다는 건 먼 바다 갈  
때 돛 달아서 나가지.)

105023 @ 먼 바당 갈 때만 돛 다는 거구나예.(먼 바다 갈 때만 돛 다는 거군  
요.)

105023 #1 돛 돌아도 브름이나 자면은 네로 저성 가실 거라.(돛 돌아도 바람이  
나 잔잔하면 노 젓어서 갔을 거야.)

105023 @ 네가 이거?(노가 이거?)

105023 #1 영영 젓는 게 네.(이렇게 이렇게 젓는 게 노.)

105023 @ 어떻 젓습니까?(어떻게 젓습니까?)

105023 #2 이렇게 앞뒤, 테우 노는 좌우. 그물배도 이거. 아까 멜 잡는 거. 그냥  
일반 낚시배는 앞더레. 이렇게 낡 흥창흥창 내 두 밧디 놔.(이렇게 앞뒤, 테우 노는

좌우. 그물배도 이거. 아까 멸치 잡는 거. 그냥 일반 낚싯배는 앞으로. 이렇게 와서  
흥청흥청 노 두 군데 놔.)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오늘은 옷감, 옷 이야기 흥쯤 물어보쿠다. 옷에 대한, 옷감에 대한  
거.(오늘은 옷감, 옷 이야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옷에 대한, 옷감에 대한 거.)

106001 #1 알아져, 우리 거?(알아져, 우리 거?)

106001 @ 알아지는 것만 골아주민 돼여.(알아지는 것만 말해주면 돼.)

106001 #1 응. 건 몰를 건디 잘.(응. 건 모를 건데.)

106001 @ 알아지는 것만 골아주민 돼여. 모르는 건 곤젠 해도 못 곤주게.(알아  
지는 것만 말해주면 돼. 모르는 건 말하려고 해도 못 말하지.)

106001 #2 거짓말행 돼여게?(거짓말해서 되어?)

106001 @ 옷감의 종류는 어떤 게 이신고마씨?(옷감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106001 #1 옛날 거?(옛날 거?)

106001 @ 응. 무신 옷감, 무신 옷감 이신고마씨?(응. 무슨 옷감, 무슨 옷감 있나  
요?)

106001 #1 미녕.(무명.)

106001 @ 미녕.(무명.)

106001 #1 베.(베.)

106001 @ 베.(베.)

106001 #1 광목.(광목.)

106001 @ 광목.(광목.)

106001 #1 웨강목<sup>124</sup>.(왜 광목.)

106001 @ 무신 목?(무슨 목?)

106001 #1 웨강목.(왜 광목.)

106001 @ 웨강목.(왜 광목.)

106001 #1 따시 멩주.(또 명주.)

106001 @ 멩주.(명주.)

106001 #1 생멩주.(생명주.)

106001 @ 생멩주.(생명주.)

106001 #1 따시 뵈이 웰 건고? 양달양<sup>125</sup>.(다시 무엇이 될 건가? ‘양달양’.)

124) ‘웨강목’은 ‘왜광목’의 잘못된 발음으로 생각되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을 통해 방직공장이 생기며 기계로 짠  
넓은 면베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광목 혹은 왜광목이라고 불렀다.

125) ‘양달양’은 직물의 한 종류로 두꺼운 천이다.

106001 @ 무신거?(뭐?)  
 106001 #1 양달양.('양달양'.)  
 106001 @ 양달양?(양달양?)  
 106001 #1 막 이제 ㄹ뜨민 두꺼운 기지<sup>126)</sup>라.(막 이제 같으면 두꺼운 옷감이야.)

## 명주

106003 @ 계민 처음부터 멍지부터예, 멍지는 혹시 실 여기서 만들어놔수과?(그러면 처음부터 명주부터요, 명주는 혹시 실 여기서 만들었었습니까?)  
 106003 #1 여기서도 토백이, 토종이엔 행이 서귀포쪽더렌 멘들아 나실 거라.(여기서도 토박이, 토종이라고 해서 서귀포쪽에는 만들었을 거야.)  
 106003 @ 이디 함덕드렌 안 멘들아?(여기 함덕엔 안 만들어?)  
 106003 #1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없고.)  
 106003 @ 만들아 본 적은 엇고?(만들어 본 적은 없고?)  
 106003 #1 응.(응.)  
 106003 @ 멍지는 무신 멍지, 무신 멍지 이서마씨? 아까.(명주는 무슨 명주, 무슨 명주 있어요? 아까.)  
 106003 #1 생멍지 잇고 그냥 멍지 잇고.(생명주 있고 그냥 명주 있고.)  
 106003 @ 뭐가 다릅니까?(뭐가 다릅니까?)  
 106003 #1 생멍지는이 올이 바짝 살아.(생명주는 올이 바짝 살아.)  
 106003 @ 응.(응.)  
 106003 #1 계민 그것이 멍지를 이기젠 허민 옛날은 양젯물이 엇어노니까 이 불술아난 재.(그러면 그것이 명주를 이기려고 하면 옛날은 양젯물이 없어서 이 불 태웠던 재.)  
 106003 @ 예.(예.)  
 106003 #1 잿국<sup>127)</sup> 카 낱 삶으민 그놈으 멍지도 ㄹ지락<sup>128)</sup>허여. 생멍지도 그냥 멍지 ㄹ추룩.('잿국' 타 놓고 삶으면 그놈의 명주도 'ㄹ지락'해. 생명주도 그냥 명지처럼.)  
 106003 @ 예.(예.)  
 106003 #1 생멍주 헛당, 생멍주는 여름옷을 잘 만들고이.(생명주 했다가, 생명주는 여름옷을 잘 만들고.)  
 106003 @ 예.(예.)  
 106003 #1 그냥 멍지는 저실옷을 잘 만드는데.(그냥 명주는 겨울옷을 잘 만드는데.)  
 106003 @ 아.(아.)

126) '기지'는 일본어 '키지'로 옷감, 천의 의미이다.

127) '잿국'은 불타고 난 재를 물에 탄 것을 말한다.

128) 'ㄹ지락'은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106003 #1 생멩지로 저실옷 ㄴ치 만들젠 허믄 잿국 해낭 삶으민 그냥 ㄴ따.(생멩주로 겨울옷 같이 만들려고 하면 ‘잿국’ 해놓아서 삶으면 그냥 같아.)

106003 @ 아, 잿국은 어떻 멘드는 거마씨?(아, ‘잿국’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6003 #1 그냥 이 불 술아난 재.(그냥 이 불 태웠던 재.)

106003 @ 예.(예.)

106003 #1 그걸 물에 탕 툇라낭 그냥 퀘여가면은 퀘는 물에 둥그면은 몬지락헿 그 멩지가 익어.(그걸 물에 타서 툇라와 그냥 끓여가면 끓는 물에 담그면 ‘몬지락’ 해서 그 멩주가 익어.)

106003 @ 기구나예. 저슬은 겨울?(그렇군요. ‘저슬’은 겨울?)

106003 #1 응.(응.)

106003 @ 가을은 ㄴ슬?(가을은 ‘ㄴ슬’?)

106003 #1 ㄴ슬.(‘ㄴ슬’.)

106004 @ 가을은 ㄴ슬, 겨울은 저슬. 게난 멩지로는 보통 겨울옷을, 저슬옷을 멘드는디 생멩지로는 여름옷을.(가을은 ‘ㄴ슬’, 겨울은 ‘저슬’. 그러니까 멩지로는 보통 겨울옷을, 겨울옷을 만드는데 생멩지로는 여름옷을.)

106004 #1 생멩지로는 여름옷을.(생멩지로는 여름옷을.)

106004 @ 아.(아.)

106004 #1 옛날엔 적삼, 남즈덜 중의 바지 그런 거. 꺾짜글락허게 베ㄴ추룩.(옛날엔 적삼, 남자들은 중의 바지 그런 거. ‘꺾짜글락’하게 베처럼.)

106004 @ 멩지로는 어떤 옷, 어떤 옷 멘들아마씨?(멩지로는 어떤 옷, 어떤 옷 만드어요?)

106004 #1 이제는 주로 호상허는디 대강 호상을 주목 삼는다.(이제는 주로 수의 하는데 대강 수의를 주로 만드는데.)

106004 @ 옛날은?(옛날은?)

106004 #1 옛날에는 보통은 입어, 입어. 몬 저고리도 멘들고 이 남즈 두루막도 그걸로 허곡이.(옛날은 보통은 입어, 입어. 모두 저고리도 만들고 이 남자 두루마기도 그걸로 하고.)

106004 @ 아.(아.)

106004 #1 다 허여. 또 시집갈 땐 물 들어당이 초록색, 꼭디색<sup>129)</sup> 물 들어근엿에 시집가는 새각시 이불 꺾테기도 만들야 주고.(다 해. 또 시집갈 때 물 들어다가 초록색, 빨간색 물 들어서 시집가는 새색시 이불 꺾테기도 만들어 주고.)

106004 @ 응, 아까 무신 색? 초록색하고 무신 색? 꼭디색?(응, 아까 무슨 색? 초록색하고 무슨 색? ‘꼭디색’?)

106004 #1 꼭두색물.(꼭두색물.)

106004 @ 꼭두색물은 어떤 색이파?(꼭두색물은 어떤 색입니까?)

129) ‘꼭디색’은 꼭두색이라고도 하는데 꼭두서니의 뿌리로 염색을 하면 붉은 계열의 색이 나오는 데서 붙여진 색깔 이름이다.



106004 #1 빨강헌 거. 요색 요거보다 햅뎡 열어져.(빨간 거. 요색 요거 보다 조금 열어.)

106004 @ 그제 꼭두색 물. 물들영 이불 만드고.(그제 꼭두색 물. 물들여서 이불 만드고.)

106004 #1 이불 만드는 건 그런 거 주로 가.(이불 만드는 건 그런 것 주로 가.)

106004 @ 게민 이 멩지로 만든 옷은 햅뎡 고급 옷인가?(그러면 이 멩주로 만든 옷은 조금 고급 옷인가?)

106004 #1 고급이지, 옛날은 최고 고급.(고급이지, 옛날은 최고 고급.)

106004 @ 평상시에 입는 거 아니고예.(평상시에 입는 거 아니고요.)

106004 #1 평상시는 광목, 미녕.(평상시는 광목, 무명.)

106004 @ 아, 경혀고 멩지로 만든 건 햅뎡 고급예.(아, 그리고 멩주로 만든 건 조금 고급요.)

106004 #1 완전 고급이지, 옛날예.(완전 고급이지, 옛날예.)

106004 @ 완전 고급 옷예. 어디 외방 갈 때나 입는.(완전 고급 옷요. 어디 외방 갈 때나 입는.)

106004 #1 응.(응.)

106006 @ 게민 누예 이런 것도 안 햅낫수과?(그러면 누예 이런 것도 안 햅얏습니까?)

106006 #1 그런 것도 안 햅나고.(그런 것도 안 햅얏고.)

106006 @ 누예.(누예.)

106006 #1 누예로 그 멩지 올을 뽑넨 햅여.(누예로 그 멩지 올을 뽑는다고 햅.)

106006 @ 게난예.(그러니까요.)

106006 #1 그런 건 안 봐난.(그런 건 안 햅얏어.)

106006 @ 아.(아.)

106006 #1 누예는 텔레비에 무시거 햅는 거 하꼬에 낱 질루는 건 어디 갓당 혼 번 봐신디 거 섭지근햅 문직지도 못햅크란게. 꼬물꼬물햅.(누예는 텔레비전에 무엇 햅는 거 상자에 봐서 기르는 건 어디 갓다가 한 번 햅얏는데 그거 햅칙햅서 만지지도 못햅햅터라. 꼬물꼬물햅서.)

106006 @ 버햅이예.(벌레요.)

## 무명

106007 @ 게민 이제 미녕 물어보쿠다예, 미녕. 미녕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서마썬? 무슨 미녕, 무슨 미녕 이수과?(그러면 이제 무명 물어보햅습니다, 무명. 무명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햅어요? 무슨 무명, 무슨 무명 햅습니까?)

106007 #1 그런 건 햅어. 햅은 미녕, 줌진 미녕은 햅도이.(그런 건 햅어. 햅은 무명, 가는 무명은 햅도.)

106007 @ 응.(응.)

106007 #1 보통으론 훙은 미녕 허영이, 이젠 갈웃, 갈웃허지, 그때는.(보통으로  
는 굽은 무명 해, 이젠 갈웃, 갈웃하지, 그때는.)

106007 @ 예.(예.)

106008 #1 남즈 갈중의도 멘들민 감 미쳐두고.(남자 갈중의도 만들면 감 무쳐두  
고.)

106008 @ 응.(응.)

106008 #1 또 즘진 미녕으론 또 그냥 중의.(또 가는 무명으론 또 그냥 중의.)

106008 @ 예.(예.)

106008 #1 곱게시리 그냥 보통 집이서 입게시리 허는 거고. 훙은 미녕으로는 옛  
날에는 이불안도 만들곡.(곱게끔 그냥 보통 집에서 입게끔 하는 거고. 굽은 무명으  
로는 옛날에는 이불안도 만들고.)

106008 @ 이불안도.(이불안도.)

106008 #1 요만 너비 현 건디 영 문 폭 이서근에 질게 뽕아근에 이불안 허고  
요곹데기도 만들어 주고.(요만한 넓이 한 건데 이렇게 모두 폭 이어서 길게 뽕아서  
이불안 하고 요 곹데기도 만들어 주고.)

106008 @ 요 곹데기도 만들고예. 게민 혹시 미녕도 토목, 생목, 광목. 광목은  
잇지예?(요 곹데기도 만들고요. 그러면 혹시 무명으로도 토목, 생목, 광목, 광목은  
이지요?)

106010 #1 광목은 잇지만은 토목 미시거 허는 거는 멩지에 대헌 토목 미시거  
허는 걸로 경 췌는 거.(광목은 있지만 토목 무엇 하는 거는 명주에 대한 토목 무엇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

106008 @ 미녕 아니고. 그믄 광목은 어떻 다른 거짜?(무명 아니고. 그러면 광목  
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106008 #1 광목 다른 거 엇이 우리 이 미녕 옷 허는 식으로 허여.(광목 다른 거  
없이 우리 이 무명 옷 하는 식으로 해.)

106008 @ 미녕허고 광목은 똑ㄴ튼 거? 다른 거지예? 뭐가 달라.(무명하고 광목  
은 똑같은 거? 다른 거지요? 뭐가 달라?)

106008 #1 미녕은 하바<sup>130)</sup>가 요만베끼 안하고이 광목은 요만이.(무명은 폭이 요  
만큼밖에 안하고 광목은 요만큼.)

106008 @ 아, 광목은 넓구나예.(아, 광목은 넓군요.)

106008 #1 꺾사 식으로 이불안도 허고.(아까 식으로 이불안도 하고.)

106008 @ 광목으로 아니민 미녕으로?(광목으로 아니면 무명으로?)

106008 #1 광목으로도 허곡 미녕으로도 해. 이추룩 막 좀질이 누병 그냥 여름  
이불 누비이불 경허여.(광목으로도 하고 무명으로도 해. 이렇게 아주 가늘게 누벼서  
그냥 여름 누비이불 그렇게 해.)

106008 @ 누비 이불, 여름 이불은 무신거엔 곶아?(누비 이불, 여름 이불은 뭐라

130) '하바'는 일본어 '하바'로 폭, 넓이의 뜻이다.

고 말해?)

106008 #1 누비이불.(누비이불.)

106008 @ 그냥 누비이불?(그냥 누비이불?)

106008 #1 응, 요만씩 누벼. 그냥 막 곱게 누벼. 요만씩 그냥. 요거민 세 번이나 누벼. 어떻게 공들이는지 몰라.(응, 요만큼씩 누벼. 그냥 막 곱게 누벼. 요만큼씩 그냥. 요거면 세 번이나 누벼. 어떻게야 공들이는지 몰라.)

106007 @ 혹시 미녕 중에 닳새 미녕, 옛새 미녕 영 허는 말도 됩니까?(혹시 무명 중에 닳새 무명, 옛새 무명 이렇게 하는 말도 됩니까?)

106007 #1 그런 말이 들어져나신가? 그런 말?(그런 말이 들었었나? 그런 말?)

106007 @ 잘 모르크라예?(잘 모르겠어요?)

106007 #1 어디 정의<sup>131)</sup> 쪽더렌 골암신디 몰라. 그때는 이디 서귀포 곳디라도 정의, 이레는 모관<sup>132)</sup>, 정의 허주게.(어디 정의 쪽에는 말하는지 몰라. 그때는 여기 서귀포 쪽에라도 정의, 이리는 모관, 정의 하지.)

106007 @ 예.(예.)

106007 #1 그런 거 저 미시거. 뭐냐 곳사.(그런 거 저 무엇. 뭐냐 아까.)

106007 @ 미녕, 닳새 미녕, 옛새 미녕?(무명, 닳새 무명, 옛새 무명?)

106007 #1 응, 미녕 빠는 것도 글로 잘 빠. 그쪽으로.(응, 무명 빠는 것도 그쪽으로 잘 빠.)

106007 @ 응.(응.)

106007 #1 이쪽으로는 잘 안 빠. 빠는 디 못 봐.(이쪽으로는 잘 안 빠. 빠는 데 못 봐.)

106007 @ 남쪽으로예.(남쪽으로요.)

106007 #1 멘네헤영 막 실 영 미시거 영 돌아가민 짹짹 뽑아. 거 뽑으는 건 봐 것어, 것도.(목화해서 막 실 이렇게 무엇 이렇게 돌아가면 짹짹 뽑아. 그거 뽑는 건 봤었어, 그것도.)

106007 @ 뽑는 건 이디서 헤낫수과?(뽑는 건 여기서 했었습니까?)

106007 #1 아니.(아니.)

106007 @ 것도 안 헤난.(그것도 안 했었어.)

106007 #1 어드레 저 삼양<sup>133)</sup>쪽더렌 대강 허여.(어디 저 삼양쪽으로는 대강 해.)

106007 @ 아.(아.)

106007 #1 게민 걸로 실도이 바농질허는 훑은 실도 곱닥허는디 그때는 그런 실 허영 바농질도 허고.(그러면 그걸로 실도 바느질하는 굵은 실도 고운데 그때는 그런 실해서 바느질도 하고.)

106008 @ 혹시 아까 미녕으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혹시 아까 무명으로는 어

131) '정의'는 남제주군 동부 지역의 옛 행정구역이다.

132) '모관'은 제주도 북제주군의 옛 행정구역으로 제주목을 이르는 말이다.

133) '삼양'은 제주시 삼양동을 말한다.

편 옷을 만듭니까?)

106008 #1 갈독지<sup>134</sup>, 갈중의 헤어.('갈독지', 갈중의 헤어.)

106008 @ 갈독지는 뭐고 갈중의는 뭐?('갈독지'는 뭐고 갈중의는 뭐?)

106008 #1 갈중의는 밋에 거. 우이 거 입는 거는 갈독지.(갈중의는 밋에 것. 위의 것 입는 거는 갈적삼.)

106008 @ 우에 거는 갈독지.(위에 것은 갈적삼.)

106008 #2 독지엔 허지 안허느냐게?(어깨라고 하지 않니?)

106008 @ 예, 독진 이딘디.(예, 어깨는 여긴데.)

106008 #1 갈독지. 이꺼지 오게.(갈적삼. 여기까지 오게.)

106008 @ 갈중의 아니고. 갈중원 바지.(갈중의 아니고 갈중원 바지.)

106008 #1 갈중의 우웁.(갈중의 윗옷.)

106008 @ 갈적삼이엔 안 곤고 갈독지엔 곴아?(갈적삼이라고 안 말하고 '갈독지'라고 말해?)

106008 #1 갈적삼도 허고 갈독지엔도 허고.(갈적삼도 하고 '갈독지'라고도 하고.)

106008 #2 사투리, 사투리.(사투리, 사투리.)

106008 @ 계난예.(그러니까요.)

106008 #1 사투리나 마나 경허는 거주.(사투리나 마나 그렇게 하는 거지.)

106010 @ 그믐 광목으로도.(그러면 광목으로.)

106010 #1 광목으로도 그럴 수, 이제도 광목으로 감 들이고 다 허지.(광목으로도 그럴 수, 이제도 광목으로 감 물들이고 다 하지.)

106010 @ 광목으로도 옷 멘듭니까?(광목으로도 옷 만듭니까?)

106010 #1 응, 옛날 왜강목이렌 현 거는 막 곱게시리 바느질도 적삼도 막 예쁘게 허여. 바느질 막 줌질이 허영 곱게 헤어 베치메나이.(응, 옛날 왜광목이라고 한 거는 아주 곱게 바느질도 적삼도 아주 예쁘게 헤어. 바느질 아주 가늘게 해서 곱게 해서 베치마나.)

106010 @ 예.(예.)

106010 #1 줌진 베로 베치메허영 거 우알허영.(가는 베로 베치마해서 그거 위아래해서.)

106010 @ 응.(응.)

106010 #1 예점 어디 가젠 허민, 사돈 칩이라도 가젠 허민.(임시로 어디 가려고 하면, 사돈 집이라도 가려고 하면.)

106010 @ 예.(예.)

106010 #1 베 곱닥헌 베헤근에게 적삼행 똑 맞게 입영 가꼭 허여.(베 고운 베해서 적삼해서 꼭 맞게 입어서 가고 헤어.)

106010 @ 응.(응.)

---

134) '갈독지'는 감물을 들인 소매가 짧은 적삼을 말하는데 '갈독지'라고도 한다.

106010 #1 보통 이런 길에 땡기명은 안 입고게.(보통 이런 길에 다니면서는 안 입고.)

106010 @ 예, 그건 베로, 미녕으로 말고?(예, 그건 베로, 무명으로 말고?)

106010 #1 미녕 아니 베.(무명 아니 베.)

106010 @ 베 그건예.(베 그건요.)

106010 #1 아래는 베치메. 좀진 좀진헌 걸로. 이제 ㄱ뜨민 모시 님은 걸로 광목 적삼해근에 툽하게.(아래는 베치마. 가는 가는한 걸로. 이제 같으면 모시 같은 걸로 광목 적삼해서 툽하게.)

106010 @ 우엔 광목 적삼.(위에는 광목 적삼.)

106010 #1 광목이 아니고 왜강목.(광목이 아니고 왜광목.)

106010 @ 왜강목, 왜강목도 광목 종류? (왜광목, 왜광목도 광목 종류?)

106010 #1 종류.(종류.)

106010 @ 뭐가 다르니까?(뭐가 다르니까?)

106010 #1 더 줌질아.(더 가늘어.)

106010 @ 아, 더 줌질아.(아, 더 가늘어.)

106010 #1 멍지가 쥔 훑어이. 아니 저 미녕이 쥔 훑어.(명주가 제일 굵어. 아니 저 무명이 제일 굵어.)

106010 @ 미녕이 쥔 훑으고, 그다음에.(무명이 제일 굵고, 그다음에.)

106010 #1 광목, 왜강목.(광목, 왜광목.)

106010 @ 광목, 왜강목 이렇게. 똑ㄱ튼 종류디.(광목, 왜광목 이렇게. 똑같은 종류인데.)

106010 #1 옷은 그런 옷으로만 만드는 건디 이름이 그거라.(옷은 그런 옷으로만 만드는데 이름이 그거야.)

106010 @ 미녕은 게난 멘네 해근에 허는 거주예? 이 동넨 멘네도 안 험니까? (무명은 그러니까 목화 해서 하는 거지요? 이 동넨 목화도 안 험니까?)

106012 #1 멘네는 갈아낫어.(목화는 갈았었어.)

106012 @ 갈아낫수과?(갈았었습니까?)

106012 #1 이바른<sup>135)</sup> 디도 멘네는 하영 갈아낫어.(‘이바른’데도 목화는 갈았었어.)

106012 @ 아.(아.)

106012 #1 우리도 시집갈 때 멘네 갈았단이.(우리도 시집갈 때 목화 갈았다가.)

106012 @ 응.(응.)

106012 #1 게메, 씨 불란에 그거 틀언에 소게틀에 간 틀어단 이불을 만들야.(그러게, 씨 발라서 그거 틀어서 솜틀에 가서 틀어서 이불을 만들어.)

106012 @ 멘네 농사는 어떻 지읍니까?(목화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106012 #2 많이 안 허여.(많이 안 해.)

135) ‘이바르다’는 양지 바르고 밭의 토질이 좋다는 뜻이다.

106012 #1 많이 안 현디. 그냥 용스도 빼영 영 고랑 정 빼영 놔두민 기간이 돼민 그 요만씩헌 동 맨 것이 하얏게 피어. 거 피어가민 집이 문 좇어와. 좇어당 널영 놔두민 박삭허게 피어나.(많이 안 했는데. 그냥 농사도 뿌려서 이렇게 고랑 지어서 뿌려서 놔두면 기간이 되면 그 요만큼씩헌 동 맺은 것이 하얏게 피어. 그거 피어나면 집에 모두 주워와. 주워다가 널어서 놔두면 ‘박삭’하게 피어나.)

106012 @ 응.(응.)

106012 #2 숨이 돼는 거주.(숨이 되는 거지.)

106012 #1 게민 그디 씨가 막 하. 씨 불르는 거 씨앗이엔 허는가, 씨앗이.(그러면 거기 씨가 아주 많아. 씨 바르는 거, 씨아라고 하는가? 씨아.)

106012 @ 씨앗이.(씨아.)

106012 #1 씨 불르는 거. 영 영 멘네 영행 기계레 영 낱 맥여 가명 영 영 돌려가민 썬 안트레 바끄고 멘네, 이불허는 숨은 더 뒤터레 나가.(씨 바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목화 이렇게해서 기계에 이렇게 놔서 먹여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 씨는 안으로 빨고 목화, 이불하는 숨은 더 뒤로 나가.)

106012 @ 아, 뒤터레 나가. 씨 불르는 거. 그거 무신거엔 곶아? 씨아시?(아, 뒤로 나가. 씨 바르는 거. 그거 무엇이라고 말해? 씨아?)

106012 #1 씨아실 거라. 거 씨아시엔 허여.(씨아일 거야, 거 씨아라고 해.)

106012 @ 씨아시엔 곶아.(씨아라고 말해.)

106012 #1 응, 씨 불르는 거.(응, 씨 바르는 거.)

106012 @ 씨 불르는 거예. 그 씨 불르는 거 이서낫수과?(씨 바르는 거요. 그 씨 바르는 거 있었습니까?)

106012 #1 이서나실 거라. 요만인 헌 거. 그자 영 기계 돌리는 거.(있었을 거야. 요만큼 한 거. 그저 이렇게 기계 돌리는 거.)

106012 @ 영 돌리는 거예.(이렇게 돌리는 거요.)

106012 #1 손으로 돌령.(손으로 돌려서.)

106012 @ 손으로. 것도 혹시 요건 무신거. 영 돌리는 건 무신거 이름 엇수과?(손으로. 그것도 혹시 요건 무엇. 이렇게 돌리는 건 무엇 이름 없습니까?)

106012 #1 엇어.(없어.)

106012 @ 건 엇어.(그건 없어.)

106012 #1 거 씨아시엔 말만 우린 들어난.(그거 씨아라고 말만 우린 들었었어.)

106012 @ 요거 통채로 씨아시.(요거 통째로 씨아.)

106012 #1 응. 노인덜 이신 집인이 그냥 딱땃헌 방에 저실엔 앓이민 불화리 즈꿋디 앓앙 걸로 손으로도 다 씨를 발라. 씨를 빼내어.(응. 노인들 있는 집엔 그냥 따듯한 방에 겨울엔 앓으면 불화로 곁에 앉아서 그걸로 손으로도 다 씨를 발라. 씨를 빼내.)

106012 @ 경행 해나민 그거 소게웃도 허고 이불도 허고?(그렇게 하고나면 그거 솜웃도 하고 이불도 하고?)

106012 #1 응, 우리 보통으론 하르방덜 이불 허젠 허민이 멘네 태우는 디 강 기계틀에 강 막.(응, 우리 보통으로는 할아버지들 이불 하려고 하면 목화 태우는 데 가서 기계틀에 가서 막아.)

106012 #2 솜틀이지, 솜틀.(솜틀이지, 솜틀.)

106012 #1 솜틀 해당 막 얇게 그냥 이거보다 더 얇게 해다근엔에 저고리 만드는데 속에도 넣고.(솜틀 해다가 아주 얇게 그냥 이거보다 더 얇게 해다가 저고리 만드는데 속에도 넣고.)

106012 @ 아.(아.)

106012 #1 남저 어른 바지에도 넣고.(남자 어른 바지에도 넣고.)

106012 @ 응.(응.)

106012 #1 여자 저고리에도 넣고, 여자 할망 바지 속에도 그런 거 넣고.(여자 저고리에도 넣고, 여자 할머니 바지 속에도 그런 거 넣고.)

106012 @ 응.(응.)

106012 #1 게민 뜻아.(그러면 따뜻해.)

106012 @ 멘네는 씨는 언제쯤 뿌리는 거파?(목화는 씨는 언제쯤 뿌리는 겁니까?)

106012 #1 것도 모르크라. 우리 멘네 타레는 가와신디.(그것도 모르겠어. 우리 목화 따르는 갔다왔는데.)

106012 @ 언제쯤에 타는 거라? ㄴ실 들엉?(언제쯤에 따는 거야? 가을 들어서?)

106012 #1 ㄴ실쯤에 타.(가을쯤에 따.)

106012 @ 게민 봄에 뿌리켜예?(그러면 봄에 뿌리겠네요?)

106012 #1 봄에쯤 뿌릴 거 다했어, 거는. ㄴ실 들어가민 타. 이제 타게 텬실 거라. 벧 나가민 그놈의 것이 박삭허게 피어.(봄에쯤 뿌릴 거 같아, 그거는. 가을 들어가면 따. 이제 따게 되고있을 거야. 별 나면 그놈의 것이 ‘박삭’하게 피어.)

106012 @ 그거 무신거엔 곱아? 요 박삭해지는 거.(그게 무엇이라고 말해? 요 ‘박삭’해지는 거.)

106012 #1 몰라. 건 멘네 핀 거렌만 곱아.(몰라. 그건 목화 핀 거라고만 말해?)

106012 @ 멘네 핀 거엔만 곱아.(목화 핀 거라고만 말해.)

106012 #1 멘네가 꼭이 저 드레만씩 요만씩 허여.(목화가 꼭 저 다래만큼씩 요만큼씩 해.)

106012 @ 예.(예.)

106012 #1 저것에도 연한 건 강 타명 먹고.(저것에도 연한 건 가서 따서 먹고.)

106012 @ 멘네도 먹어?(목화도 먹어?)

106012 #1 어린 거는 막 달아.(어린 거는 아주 달아.)

106012 @ 아.(아.)

106012 #1 이멘씩 현 땀 달아. 저건 이제 커 가사 박삭허게 크민 박삭현 것이 이만씩 허고.(이만큼씩 할 땀 달아. 저건 이제 커 가야 박삭하게 크면 박삭한 것이

이만큼씩 하고.)

106012 @ 혹시 멘네 도래, 멘네 도래기 뭐 이런 말 안 됩니까?(혹시 목화 다래, 목화 다래 뭐 이런 말 안 됩니까?)

106012 #1 득레긴<sup>136)</sup> 못 들어봤.(다래는 못 들어봤어.)

106012 @ 그런 건 아니고예.(그런 건 아니고요.)

106012 #1 못 들어봤.(못 들어봤어.)

106012 @ 응.(응.)

## 모시

106013 @ 게민 이번에는 모시. 모시도 제주도에도 이십니까?(그러면 이번에는 모시. 모시도 제주도에도 있습니까?)

106013 #1 모시 제주도에서 안 뽑아실 거라. 육지서 대강 와.(모시 제주도에서 안 뽑았을 거야. 육지서 대강 와.)

106014 @ 응. 게민 모시 옷도 입긴 입으는가?(응, 그러면 모시 옷도 입긴 입는가?)

106014 #1 응, 모시치메, 모시적삼. 저고리는 안 해.(응, 모시치마, 모시적삼. 저고리는 안 해.)

106014 @ 저고리는 안 해?(저고리는 안 해?)

106014 #1 여름 기지니까.(여름 천이니까.)

106014 @ 아.(아.)

106014 #1 남저 어른 중의 적삼. 여자도 치마 적삼, 그걸로. 고와 그것이 허민.(남자 어른 중의 적삼. 여자도 치마 적삼, 그걸로. 고와 그것이 하면.)

106014 @ 것도 고와?(그것도 고와?)

106014 #1 응.(응.)

106014 @ 장만허젠 허민 힘들주예?(장만하려고 하면 힘들지요?)

106014 #1 힘들멍 말영 그자 고운 풀 해근에 미청.(힘들면서 말면서 그저 고운 풀 해서 묻혀서.)

106014 @ 풀 미청 허젠 허민.(풀 묻혀서 하려고 하면.)

106014 #1 풀 미청 다령. 아, 광목도 미녕도 다 풀 미청 바짝허게 이제는 아이 룡 이성 다리는데 그때는 요만한 다리웨엔 허여, 것이.(풀 묻혀서 다려서. 아, 광목도 무명도 다 풀 묻혀서 바짝하게 이제는 다리미 있어서 다리는데 그때는 요만한 ‘다리웨’라고 해, 그것이.)

106014 @ 응.(응.)

106014 #1 이디 불살라낭 더워 가민 이디 영 심으렌 행 ㄴ찌 낭 영 발로 불르 곡. 영영 밀어가민 쭈그레기 진 것이 쪽 폐와져.(여기 불살라 놓고 더워 가면 여기 이렇게 심으라고 해서 같이 와서 이렇게 발로 밟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가면 주름

136) ‘득레기’는 아직 피지 아니한 목화의 열매인 목화다래를 이르는 것이다.



진 것이 쪽 퍼져.)

106014 @ 응.(응.)

106014 #1 경베끼 안 해.(그렇게 밖에 안 해.)

106014 @ 풀은 어떻 메기는 거파?(풀은 어떻게 먹이는 겁니까?)

106014 #1 풀은이 먹단 쌀밥이라도 시민이 막 주머니에 넣 놀려.(풀은 먹던 쌀밥이라도 있으면 막 주머니에 놔서 놀려.)

106014 @ 예.(예.)

106014 #1 세계 놀리민 그놈으 기지도 몰르민 꼭지락 행 좋고이.(세계 놀리민 그놈의 천도 마르면 ‘꼭지락’ 해서 좋고.)

106014 @ 응.(응.)

106014 #1 뜨게 맥이민 뜨게 맥인 대로 흥뽀 물썩허고 기지가.(천천히 먹이면 천천히 먹인 대로 조금 물렁하고 천이.)

106014 @ 응, 쟁 놀려 난 다음에 어디 널어야 돼여?(응, 그렇게 놀리고 난 다음에 어디 널아야 돼?)

106014 #1 널어, 널어. 널영 보들보들 몰라가민 거 손을 잘 봐줘사 올이 골라.(널어, 널어. 널어서 보들보들 말라가면 그거 손을 잘 봐줘야 올이 골라.)

106014 @ 아.(아.)

106014 #1 이거 메겨 시민 막 영영영영 허명 막 손을 뺑, 발로라도 조근조근 불러 나민 반썩허민 그거.(이거 먹여 있으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손을 봐서, 발로라도 차근차근 밟고 나면 반듯하면 그거.)

106014 @ 거른 다시 안 다려도 돼여?(그러면 다시 안 다려도 돼?)

106014 #1 아이, 다려야 돼여.(아니, 다려야 돼.)

106014 @ 것도 다려야 돼여? 쟁 입젠 허민 어느 저를에게. 밧디도 가고.(그것도 다려야 돼? 그렇게 입으려고 하면 어느 겨를에. 밧에도 가고.)

106014 #1 게메, 경허난 힘들어, 공들이 행.(그러게, 그러니까 힘들어, 공들여서 해서.)

106014 @ 게난.(그러니까.)

106014 #1 아침 때민 츄근헌 때민 영 서답줄에 강 널엇당 츄근헌 브름에 널민 그놈으 기지도 짹짹 잘 폐와지고 뽀썩허게 고와.(아침 때면 ‘츄근’한 때면 이렇게 빨랫줄에 가서 널었다가 ‘츄근’한 바람에 널면 그놈의 천도 짹짹 잘 퍼지고 반썩하게 고와.)

106014 @ 응. 헐 일 엇인 사름이나 행 입주, 그거.(응, 할 일 없는 사름이나 해서 입지, 그거.)

106014 #1 헐 일 신 사름도 나들음 옷으로 허젠 허민 허영 놔뒀야지게.(할 일 있는 사름도 나들이 옷으로 하려고 하면 해서 놔뒀야지.)

106014 #2 어렵게 살았주게, 아이고.(어렵게 살았지, 아이고.)

106014 #1 어렵지 안해도 건 다 그때 풍습으로 경헌 거난.(어렵지 않아도 그건

다 그때 풍습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106014 @ 계난예. 뭐 어디 팔월[팔월] 멧질 때 이런 때 입는 거꽈?(그러니까요. 뭐 어디 팔월 명절 때 이런 때 입는 겁니까?)

106014 #1 팔월 멧질에 못 입어 얼엉.(팔월 명절에 못 입어 추워서.)

106014 @ 아, 얼엉.(아, 추워서.)

106014 #1 팔월 멧질에는이 광목, 웨강목으로 중의 적삼 남저 어른덜토 다.(팔월 명절에는 광목, 왜광목으로 중의 적삼 남자 어른들도 다.)

106014 @ 여름에 그냥예.(여름에 그냥요.)

106014 #1 팔월 나가민 그런 걸로 입고 꺾사 베옷 모시는 한여름에 입고.(팔월 나가면 그런 걸로 입고 아까 베옷 모시는 한여름에 입고.)

106014 @ 응.(응.)

### 삼

106016 @ 베도, 이번엔 베옷인데 베옷은. 베도 제주도에서 헛수과? 어디서 사당 혜신가?(베도, 이번엔 베옷인데 베옷은. 베도 제주도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사다가 했나?)

106016 #1 사단 헛어. 미녕 빠난텐 허는 건 제주에서 들어신디 우리도.(사다가 헛어. 무명 뻐었다고 하는 건 제주에서 들었었는데 우리도.)

106016 @ 응, 베는.(응, 베는.)

106016 #1 베 빠는 건 못 들어봤어.(베 빠는 건 못 들어봤어.)

106017 @ 안 들어봤어예. 응. 게른 베로는 어떤 옷, 어떤 옷?(안 들어봤어요. 응, 그러면 베로는 어떤 옷, 어떤 옷?)

106017 #1 마찬가지로. 여름옷이니까.(마찬가지. 여름옷이니까.)

106017 @ 응.(응.)

106017 #1 베로 남저 어른은 중의 적삼도 허고 할망덜 치마도 행 입고, 적삼도 행 입고.(베로 남자 어른은 중의 적삼도 하고 할머니들 치마도 해서 입고, 적삼도 해서 입고.)

106017 @ 저 뭐 어디 영장 난 디는 무신 걸로 허는 거꽈?(저 뭐 어디 초상 난 데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106017 #1 베로.(베로.)

106017 @ 베로예. 호상옷예.(베로요. 수의로요.)

106017 #1 호상은 멧지로 행. 그때는 멧지로.(수의를 명주로 해서. 그때는 명주로.)

106017 @ 호상은 멧지로. 그냥 상제덜 입는 거.(수의를 명주로. 그냥 상주들 입는 거.)

106017 #1 응, 상제들 입고. 시신은 그냥 멧지로.(응, 상주들 입고. 시신은 그냥 명주로.)

106017 @ 시신은 멍지로 호상웃히고.(시신은 명주로 수의하고.)

106017 #1 영 삼명주 입저낭 다 마무리 시킬 땐 베로 씨왕.(이렇게 삼명주 입혀 놓고 다 마무리 시킬 땐 베로 씨워서.)

106017 @ 아.(아.)

106017 #1 베로 무경.(베로 묶어서.)

106017 @ 아, 경허고 그냥 상제덜은 베옷 입주예? 베치메?(아, 그리고 그냥 상 주들은 베옷 입지요? 베치마?)

106017 #1 베치메. 우인 우장 님은 거 영 입고. 이제나 그때나 마찬가지로.(베치 마. 위엔 비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제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 바느질

106022 @ 응. 옛날에는 옷들도 다 집에서 만들잖아예. 바느질허젠 허민, 바느질도 다 집에서 앓앙 헤실 거 아니파예?(응. 옛날에는 옷들도 다 집에서 만들잖아요. 바느질하려고 하면, 바느질도 다 집에서 앓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요?)

106022 #1 허는 사름도 잇고, 이제 ㄱ찌 미싱이 하지 안허난이 이런 적삼 ㄱ튼 건 허젠 허민이 미싱 신 디 강 곱게 해 와야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같이 재봉틀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적삼 같은 건 하려고 하면 재봉틀 있는 데 가서 곱게 해 와야지.)

106022 @ 응.(응.)

106022 #1 그냥 보통으로 입는 건 바느질 잘허는 사름은 잘허지. 뒷바느질<sup>137)</sup> 행 막 줍질이 헤영이.(그냥 보통으로 입는 건 바느질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 ‘뒷바느질’해서 막 가늘게 해서.)

106022 @ 응.(응.)

106022 #1 겨는디, 경 안헌 사름은 미싱에 강 허여.(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사람은 재봉틀에 가서 해.)

106022 @ 응.(응.)

106022 #1 그냥 저실옷은 이 광목으로 멍지로 허는 옷은 그냥 흔 불 영 버물면은 트딩.(그냥 경루옷은 이 광목으로 명주로 하는 옷은 그냥 한 벌 이렇게 더러우면 뜯어서.)

106022 @ 응.(응.)

106022 #1 이것도 트로 이것도 트로 다 이런 거, 짓도 트로 이런 섭도 트로 다 트로 트딩 풀 맥영 막 쪽쪽 불량 막 그냥.(이것도 따로 이것도 따로 다 이런 거, 짓도 따로 이런 섯도 따로 다 따로 뜯어서 풀 먹여서 막 쪽쪽 밟아서 막 그냥.)

106022 @ 다듬이질?(다듬이질?)

106022 #1 다듬이헤영 게민 바들바들허게 행 낫당 눈 오랑 어디 가지들 못 헌 때는 저고리도 끼웁고 남저 어른 바지도 허고 저고리도 허고 경.(다듬이해서 그러면

137) ‘뒷바느질’은 바느질의 한 방법으로 바느질 한 곳을 다시 돌아가서 박음질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바들바들하게 해서 왔다가 눈 와서 어디 가지들 못한 때는 저고리도 끼우고 남자  
어른 바지도 하고 저고리도 하고 그렇게.)

106022 @ 그믐 바느질허젠 허민 무신거 무신거 이서야 뭘니까? 바놓도 이서야  
뭘고.(그러면 바느질하려고 하면 무엇 무엇 있어야 뭘니까? 바늘도 있어야 되고.)

106022 #1 바놓히고 줌진 실허고.(바늘하고 가는 실하고.)

106022 @ 줌진 실허고.(가는 실하고.)

106022 #1 화리에 불살르면 윤디렌 헌 거 이서.(화로에 불살르면 인두라고 한  
게 있어.)

106022 @ 예.(예.)

106022 #1 그 윤디여. 화리 즈끗디 강 따뜻허민 실밥 혼 풀 나가민. 윤디판이  
이서이.(그 인두다. 화루 곁에 가서 따뜻하면 실밥 한 풀 나오면. 인두판이 있어.)

106022 @ 예.(예.)

106022 #1 옷 데리는 데리미 닳은 거, 그런 거 영 낡 화리 요디 놓고 이 실밥을  
꼭 누르뜨민 뎌짜.(옷 다리는 다리미 같은 거, 그런 거 놔서 화로 요기 놓고 이 실  
밥을 꼭 누르면 매끈.)

106022 @ 아, 윤디로.(아, 인두로.)

106022 #2 우리 저 옷 논 디 무신 미녕 옷이여 무시거 엇어덜.(우리 저 옷 놓은  
데 무슨 무명 옷이다 무엇 없어들.)

106022 #1 거는 아니.(그거는 아니.)

106022 @ 하하하. 거믐 아까 실허고 바놓히고 그다음에.(하하하. 그러면 아까  
실하고 바늘하고 그다음에.)

106022 #1 윤디.(인두.)

106022 @ 윤디허고.(인두하고.)

106022 #1 윤디허고 윤디판.(인두하고 인두판.)

106022 @ 윤디판허고.(인두판하고.)

106022 #1 그거.(그거.)

106022 @ 그다음 이디 막 찢르카부텐.(그다음 여기 막 찢을까봐.)

106022 #1 골미, 골미.(골무, 골무.)

106022 @ 골미도 이실 거고.(골무도 있을 거고.)

106022 #1 가족으로 헌 골미도 잇고 쉼로 허는 거 요만큼헌 것도 잇고.(가족으  
로 한 골무도 있고 쇠로 하는 거 요만큼한 것도 있고.)

106022 @ 아, 쉼로 헌 것도 이수과?(아, 쇠로 한 것도 있습니까?)

106022 #1 쉼로 허믐 그 바놓이 들어감직한 고망 베롱베롱헌 거 잇고. 또 가족  
으로 헌 것도 잇고. 가족으론 헤여 가민 터져불어이.(쇠로 하면 그 바늘이 들어갈  
것 같은 구멍 승승한 것도 있고. 또 가족으로 한 것도 있고. 가족으로는 해서 가면  
터져버려.)

106022 @ 아. 그다음 바놓 영 찢렁 놔두는 건 무신거파?(아. 그다음 바늘 이렇

게 찢어서 놔두는 건 무엇입니까?)

106022 #1 잊어버렸저.(잊어버렸어.)

106022 @ 졸레?(바늘겨레?)

106022 #1 그냥.(그냥.)

106022 @ 아니?(아니?)

106022 #1 바늘 찢르는 거 잊고 실 감는 실패가 있어.(바늘 찢르는 거 잊고 실 감는 실패가 있어.)

106022 @ 실 감는 건 실패고. 바늘 영 몇 개 찢렁 놔두는 거 잊지예?(실 감는 건 실패고, 바늘 이렇게 몇 개 찢려서 놔두는 거 잊지요?)

106022 #1 잊어버린 곧지 못허켜. 튼내지 못허켜.(잊어버려서 말하지 못하겠어. 생각해내지 못하겠어.)

106022 @ 튼내지 못허크라. 그문 그거 영 답안 놔두는 건 뭘에 답아 놔둬니까?(생각해내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거 이렇게 답아서 놔두는 건 뭘에 답아서 놔둬니까?)

106022 #1 상자.(상자.)

106022 @ 무신 상자엔 글아?(무슨 상자라고 말해?)

106022 #1 그냥 상자엔 헤여, 우리.(그냥 상자라고 해, 우리.)

106022 @ 그냥 상자엔만 글아? 그냥 바느질 상자. 바느질.(그냥 상자라고만 말해? 그냥 바느질 상자. 바느질.)

106022 #1 바느질 상잔디 영 이 옛날은 영.(바느질 상잔데 이렇게 이 옛날은 이렇게.)

106022 #2 동골랑.(동글.)

106022 #1 동골랑헌 건디, 동글렁허여, 사라ㄴ찌. 경헌디 이런 득발이 거썬 이서.(동그란 건데, 동그래, 그릇처럼. 그런데 이런 ‘득발이’ 살짝 있어.)

106022 @ 예. 그냥 상자엔만 글아? 무신 다른 말 엇고?(예, 그냥 상자라고만 말해? 무슨 다른 말 없고?)

106022 #1 바느질허썬 허민 바느질허는 ㄴ새도 잊고. 연장이 다 놔 저.(바느질 하려고 하면 바느질하는 가위도 잊고. 연장이 다 놓 수 있어.)

106022 @ 거난 ㄴ새도 잊고 맞아.(그러니까 가위도 잊고 맞아.)

106022 #1 실패영.(실패랑.)

106022 @ 실패영.(실패랑.)

106022 #1 바늘 찢르는 거 무시거엔 글아진다만은 생각을 느시 안 냅.(바늘 찢르는 거 뭐라고 말한다만은 생각을 결코 안 나서.)

106023 @ 바느질허는 방법도 여러 개 이수계예. 그냥 영영 허는 건.(바느질하는 방법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106023 #1 우린 영 영 영 영.(우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6023 @ 그건 무신 질이파?(그건 무슨 질입니까?)

106023 #1 건 우리 허는 식이난 몰라.(그건 우리 하는 식이니까 몰라.)

106023 @ 일름 엇어?(이름 없어?)

106023 #1 응.(응.)

106023 @ 뒷바농질은 영 꺼꾸로 영 가는 거?(‘뒷바농질’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

106023 #1 뒷바농질은 올로 영 가면은 또 요만이 바농 와 가민 또 뒤에 나와난 고망으로 강 영 찢르고 영 찢르민 또 올로 또 나와난 고망으로 영.(‘뒷바농질’은 이리로 이렇게 가면은 또 요만큼 바늘 오 가면 또 뒤에 나왔던 구멍으로 가서 이렇게 찢르고 이렇게 찢르면 또 이리로 또 나왔던 구멍으로 이렇게.)

106023 @ 예. 박음질이네. 뒷박음질 말고는 또 어떤 다른 바농질 엇수과?(예. 박음질이네. 뒷박음질 말고는 또 어떤 다른 바느질 없습니까?)

106023 #1 그냥 호와.(그냥 호아.)

106023 @ 호는 거예. 호는 거허고. 그다음 이런 디 터지지, 풀리지 말렌 영 영 허는 건 엇수과?(호는 거요. 호는 거하고. 그다음 이런 데 터지지,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106023 #1 감추는 거.(감치는 거.)

106023 @ 감추기도 허주예. 그다음 영 접어근에 단 풀리지 말렌 영 안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디 허는 영.(감치기도 하지요. 그다음 이렇게 접어서 단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안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는 이렇게.)

106023 #1 이디 허는 식이 이서게? 그때는 엇지. 이디 쓰봉은 쓰봉더레 이추룩 다 해주는데 이런 거 해영 입을, 엇지.(여기 하는 식이 있니? 그때는 없지. 여기 부지는 바지에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이런 거 해서 입을, 없지.)

106023 @ 아니 이렇게는 아니라도 안 풀리게 안으로 영 접영 이디 무사 영 허는 건 엇어?(아니 이렇게는 아니라도 안 풀리게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여기 왜 이렇게 하는 건 없어?)

106023 #1 옛날엔 경 풀린, 아래 풀린 옷을 안 입어.(옛날엔 그렇게 풀린, 아래 풀린 옷을 안 입어.)

106023 @ 아.(아.)

106023 #1 남저 중의도 영 입영 영 다님 쳐불곡 헤불민 이추룩 그냥 밋밋 박아 불어.(남자 중의도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대님 매버리고 헤버리면 이렇게 그냥 쪽쪽 박아 버려.)

106023 @ 아, 그든 그거 박을 땐 뒷박음질로 박는 거라? 그렇게 헐 땐.(아, 그러면 그거 박을 땐 뒷박음질로 박는 거야? 그렇게 할 땐.)

106023 #1 응, 뒷바농질로도 박곡게, 미싱에도 이신 사름은.(응, ‘뒷바농질’로도 박고, 재봉틀에도 있는 사름은.)

106023 @ 미싱 엇이민.(재봉틀 없으면.)

106023 #1 게메, 미싱 엇이민 즘질이 뽕작 홈이라도 해야주.(그러게, 재봉틀 없

으면 가늘게 뻑뻑이 호기라도 해야지.)

106023 @ 호와?(호아?)

106023 #1 응, 흠이라도 해야주. 겐디 중의엔 헤영은 호왕은 안 돼주. 뒷바농질을 해야지.(응, 호기라도 해야지. 그런데 중의에는 해서는 호아서는 안 되지. ‘뒷바농질’을 해야지.)

106023 @ 그게 단단해예?(그게 단단해요?)

106023 #1 응.(응.)

106023 #2 할망도 미싱질 잘 해나신디 잘 알아줘불어.(할머니 재봉틀질도 잘 했는데 잘 말해줘버려.)

106023 @ 할머니도 미싱질 잘 해나수과?(할머니도 재봉틀질 잘 했었습니까?)

106023 #1 아니, 이녀 거 주악주악 현 옷덜 주는 거주.(아니, 자기 거 주섬주섬 현 옷들 줍는 거.지.)

106023 #2 미싱 이서.(재봉틀 있어.)

106023 @ 좋은 미싱 있구나, 할머니.(좋은 재봉틀 있구나, 할머니.)

106023 #1 하하하.(하하하.)

##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은 무신거 어떤 거 어떤 거 잇수과? 남자 옷, 여자 옷 영 구분해근에 얘기할 건디예 남자 옷은 안에서부터 허민 위엔 저고리, 아니 적삼.(남자 옷 무엇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남자 옷, 여자 옷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건데요 남자 옷은 안에서부터 하면 위엔 저고리, 아니 적삼.)

106024 #1 남자 거는이 아래 그냥 팬티 입으면 그것에 바지.(남자 거는 아래 그냥 팬티 입으면 그것에 바지.)

106024 @ 바지, 우에는?(바지, 위에는?)

106024 #1 저고리.(저고리.)

106024 @ 저고리.(저고리.)

106024 #1 조끼.(조끼.)

106024 @ 조끼.(조끼.)

106024 #1 또 그 우에는 마고지 입는 사름은 마고지.(또 그 위에는 마고자 입는 사름은 마고자.)

106024 @ 마고지. 그 우이 또?(마고자. 그 위에 또?)

106024 #1 엇어. 그 우인 어디 가젠 허민 고렘이나 제스칩이나 가젠 허민 두루막.(엇어. 그 위엔 어디 가려고 하면 문상이나 제삿집이나 가려고 하면 두루마기.)

106024 #2 세루<sup>138</sup> 두루막이여, 무신 두루막이여.(서지 두루마기다, 무슨 두루마기다.)

106024 @ 두루막 입고예. 두루막도 종류가 이수과?(두루마기 입고요. 두루마기

138) ‘세루’는 ‘서지(serge)’를 잘못 읽은 것 같으며 방모사 또는 견사를 사용한 능직인 천을 말한다.

도 종류가 있습니까?)

106024 #1 아니.(아니.)

106024 #2 아, 무사 세루 두루막이여.(아, 왜 서지 두루마기다.)

106024 #1 어디 세루 두루막 이제 어디 십니까?(어디 서지 두루마기 이제 어디 있습니까?)

106024 @ 아니, 옛날.(아니, 옛날.)

106024 #2 아니, 셔낫주게.(아니, 있었지.)

106024 #1 그건 힘들어.(그건 힘들어.)

106024 @ 어떤 건디?(어떤 건데?)

106024 #1 우린 봐보지 안해서. 말이 세루 두루막, 세루 치메 입는 사람은 일본이나 강 막 오래 살앙이 좋은 부제로 사는 사람이나 세루 치메 입주. 세루 치메 힘들어.(우린 봐보지 않았어. 말이 서지 두루마기, 서지 치마 입는 사람은 일본이나 가서 아주 오래 살아서 좋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서지 치마 입지. 서지 치마 힘들어.)

106024 @ 세루 치멘 어떤 것과?(서지 치마는 어떤 겁니까?)

106024 #1 몰라, 어떤 건지. 그냥 짜지긴 짜진 건디 것ㄴ라 세루 치메엔 허는 것만.(몰라, 어떤 건지. 그냥 짜지기는 짜지 건데 그것보고 서지 치마라고 하는 것만.)

106024 @ 무신 걸로 짜진 거라?(뭐로 짜진 거야?)

106024 #1 무신 기진지 몰라 건. 구민 올이 부글부글해여이.(무슨 천인지 몰라도 그건. 구우면 올이 부글부글해.)

106024@ 부글부글?(부글부글?)

106024 #1 찰을 든 생인ㄴ라 영 귀가민 그디서가 부글부글해여. 카지는 것이 부루룩하게 카지 안 해영 기름기가 잇이 부글부글해여, 그 세로. 멍지도 멍지올도 디디민 그렇게 돼여.(찰을 든 모야인지 이렇게 구워가면 거기서 부글부글해. 타는 것이 부루룩하게 타지 않고 기름기가 있게 부글부글해, 그 서지. 명주도 명지올도 때면 그렇게 되어.)

106024 @ 응. 어떻게민 디디민? 영 만지민?(응. 어떻게 하면 ‘디디면’? 이렇게 만지면?)

106024 #1 불에.(불에.)

106024 @ 불에.(불에.)

106024 #1 불에 올을 지드면은.(불에 올을 때면.)

106024 @ 아.(아.)

106024 #1 겨민 다른 거 이런 올들은이 미녕올, 베올덜은 기냥 오룩룩하게 카불민 재만 돼는디.(그러면 다른 거 이런 올들은 무명올, 베올들은 그냥 ‘오룩룩’하게 타버리면 재만 되는데.)

106024 @ 응.(응.)



106024 #1 그런 멍지올 ㄱ튼 거 ㄱ사 골아난 세로 올 ㄱ튼 거는이 부글부글.(그런 명주올 같은 거 아까 말했던 서지 올 같은 거는 부글부글.)

106025 @ 아. 게민 여자 옷은마썸?(아. 그러면 여자 옷은요?)

106025 #1 여자 옷은 하이.(여자옷은 많아.)

106025 @ 응.(응.)

106025 #1 속에 ㄱ사 남저 뽀스엔 골아, 사리마다<sup>139</sup>엔 헤여 그때는이.(속에 아까 남자 팬티라고 말해, ‘사리마다’라고 해 그때는.)

106025 @ 무신거라? 사리마다?(뭐라고? ‘사리마다’?)

106025 #2 사리마다 일본말인디.(‘사리마다’ 일본말인데.)

106025 @ 사리마당?(‘사리마당’?)

106025 #1 사리마다고 무시거고 경 골아난.(‘사리마다’고 무엇이고 그렇게 말했었어.)

106025 @ 아, 사리마다.(아, ‘사리마다.’)

106025 #1 응, 또 여자.(응, 또 여자.)

106025 @ 여자는?(여자는?)

106025 #1 여자는 소중의.(여자는 속곳.)

106025 @ 젤 속에가 소중의. 그다음? 우에.(젤 속에가 속곳. 그다음에? 위에.)

106025 #1 바지.(바지.)

106025 @ 소중의 다음엔 바지 입어?(속곳 다음엔 바지 입어?)

106025 #1 응, 여자 옷이 복잡허여.(응, 여자 옷이 복잡해.)

106025 @ 그다음?(그다음?)

106025 #1 어디나 가젠 허민 단속곳이엔 현 거, 영 굴 넓은 것이 이서이.(어디나 가려고 하면 단속곳이라고 한 거, 이렇게 통 넓은 거 있어.)

106025 @ 응, 단속곳.(응, 단속곳.)

106025 #1 그 외에는 바지, 바지 골았지.(그 외에는 바지, 바지 말했지.)

106025 @ 응, 바지. 단속곳 다음은 바지예?(응. 바지. 단속곳 다음은 바지요?)

106025 #1 응.(응.)

106025 @ 그다음?(그다음?)

106025 #1 그다음은 치마 입으민 꾀이지.(그다음은 치마 입으면 끝이지?)

106025 @ 치마 입으민 꾀? 치메도 속치메도 잇고 헤여?(치마 입으면 끝? 치마도 속치마도 잇고 해?)

106025 #1 옛날 속치메 무시거 안했어. 이제나 속치메여 무시거 헛주, 이제사.(옛날 속치마 무엇 안했어. 이제나 속치마다 무엇 하지, 이제야.)

106025 @ 우엔 무신거 입습니까? 우에, 우에도 처음에는.(위엔 뭐 입습니까? 위에, 위에도 처음에는.)

106025 #1 처음에 어떻 어떻허난 샤쓰가 이서이. 저슬에 입는 샤쓰 하나 봉가

139) ‘사리마다’는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팬티의 개념으로 사용됐다.

입으민 저고리에 낫사 식으로 숨 놓곡이 복삭허게 멘들앙 이디 바논 그릇이 오막오막허게 나게 이디 영 뱅허게 주영, 호와 건.(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셔츠가 있어. 겨울에 입는 셔츠 하나 주워 입으면 저고리에 아까 식으로 숨 놓고 폭신하게 만들어서 여기 바늘 자국이 움푹움푹하게 나게 여기 이렇게 빙하게 주워, 호아 그 건.)

106025 @ 응.(응.)

106025 #1 경헝 그거 입으민 낫. 또 우이 우치 닳은 옷이 이서이. 젊은 사람은 아니라도 나이가 혼 오십 육세, 팔세 뉘가문이 팔십 난 이도 드물엇주만은 이만큼은 현 큰 저고리가 이서.(그렇게 그거 입으면 끝. 또 위에 ‘우치’ 같은 옷이 있어. 젊은 사람은 아이라도 나이가 한 오십 육세, 팔세 되어가면 팔십 난 이도 드물엇지만은 이만큼 한 큰 저고리가 있어.)

106025 @ 큰 저고리?(큰 저고리?)

106025 #1 응. 우에.(응, 위에.)

106025 @ 예.(예.)

106025 #1 그냥 우에.(그냥 위에.)

106025 @ 마고자 같은 거 아니고?(마고자 같은 거 아니고?)

106025 #1 마고자 같은 거, 마고잔 아닌디 저고리틀이 크게 지어.(마고자 같은 거, 마고자는 아닌데 저고리를 크게 지어.)

106025 @ 아.(아.)

106025 #1 요만이 온 저고리에 큰 거 입으민 이만큼은 현, 존등도 안 나고.(요만큼 온 저고리에 큰 거 입으면 이만큼은 한, 등도 안 나오고.)

106025 @ 응.(응.)

106025 #1 옛날은 샤쓰가 엇어부니까이 영 굽으른 존, 허리가 막 보이지 안허여?(옛날은 셔츠가 없어버리니까 이렇게 굽으면 등, 허리가 막 보이지 않아?)

106025 @ 응, 보여, 존등이.(응, 보여, 등이.)

106025 #1 게난 경허카부덴 그 큰 저고리를 만들앙 영둥이까지 더꺼지게.(그러니까 그럴까봐 그 큰 저고리를 만들어서 엉덩이까지 덮여지게.)

106025 @ 저고리 소곱엔 무신거 안 입읍니까? 속저고리 이런 거.(저고리 속엔 뭐 안 입읍니까? 속저고리 이런 거.)

106025 #1 게메, 속저고리가 엇어부난 저고릴 입으면은이, 우리 두린 때 이제 요디 소레물<sup>140)</sup>이엔 현 디 가문이 물 질젠 허민이 애기 난 어멍덜은 가슴이, 젓이 이디 왕 자꾸 영 굽어가민 일로 봐져. 우리 두린 때 보든.(그러게, 속저고리가 없어버리니까 저고리를 입으면, 우리 어린 때 이제 요기 ‘소레물’이라고 한 데 가면 물 기르려고 하면 애기 낳은 어머니들은 가슴이, 젓이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굽어가면 이리로 보여. 우리 어린 때 보면.)

106025 @ 속에 뭐 안 입어부난.(속에 뭐 안 입어버리니까.)

140) ‘소레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구의 샘물 이름이다.

106025 #1 응, 경허민 그걸 감추기 허고 허리 감추기 위행 큰 저고리를 행 입으는 거 다했어.(응, 그러면 그걸 감추기도 하고 허리 감추기 위해서 큰 저고리를 해서 입는 거 같아.)

106025 @ 응, 큰 저고리 위에 만약에 돈 잇꼭 허민 입으민 마고자도 허여? 조끼?(응, 큰 저고리 이에 만약에 돈 있고 하면 마고자도 해? 조끼?)

106025 #1 에에, 엇어. 큰 저고리.(에에, 없어. 큰 저고리.)

106025 @ 쪼끼, 마고자도 엇어?(조끼, 마고자도 없어?)

106025 #1 쪼꼬자<sup>141)</sup>도 엇어.('쪼꼬자'도 없어.)

106025 @ 응.(응.)

106025 #1 헉나 여름 거나 큰저고리행 입주.(하나 여름 거나 큰저고리해서 입지.)

106026 @ 응, 게문 아이덜 옷은, 애기덜.(응, 그러면 아이들 옷은, 애기들.)

106026 #1 마찬가지지. 아이들이엔 벨허게 행 입질 수가 엇어. 그 식으로 그냥 그 위주로 그냥 그럭저럭 어른 입단 것도 그냥 끈엉 데껴뒀 어땡 뒀 물려뒀 입꼭 정신 차리게 행 살질 안헐어.(마찬가지지. 아이들이라고 별하게 해서 입힐 수 가 없어. 그 식으로 그냥 그 위주로 그냥 그럭저럭 어른 입히던 것도 그냥 끊어 던져두고 어떻게 뒀 물려두고 입고 정신 차리게 해서 살지 않았어.)

106026 @ 애기덜 옷예. 어디 저 무신 멍질이라도 다가오민 애기덜 옷 헉뽀 행 입져살 거 아니?(아기들 옷요. 어디 저 무슨 멍질이라도 다가오면 아기들 옷 조금 해서 입혀야할 거 아니?)

106026 #1 응. 허영 입지젠 허민 또 새로 만들명도 입고 또 장에 강 끈어당 물색 끈어다근엿에 만들앙도 입져주고.(응. 해서 입히려고 하면 또 새로 만들면서도 입고 또 장에 가서 끊어다가 물색 끊어다가 만들어서도 입혀주고.)

106026 @ 응.(응.)

106026 #1 이제는 퍼작허민 시에 가민 시장 가민 다 잇주.(이제는 번쩍하면 시에 가면 시장 가면 다 있지.)

106026 @ 다 잇주.(다 있지.)

106026 #1 이제 젊은 사름들 무신 바농 심영 어디 주억질이나 무시거 헐 생각.(이제 젊은 사람들 무슨 바늘 잡아서 어디 바느질이나 뭘 할 생각.)

106026 @ 터지민 데껴불고예.(터지면 던져버리고요.)

106026 #1 응, 터지민 데껴불고.(응, 터지면 던져버리고.)

106026 @ 응. 새로 사당 입고예.(응. 새로 사다가 입고요.)

106026 #1 옛날은 터져 가민 이놈 험벅 앓다당 이레 부짱 줄 거베끼.(옛날은 터져 가면 이놈 형쫄 가져다가 이리 붙여서 기울 거밖에.)

106027 @ 게민 옷 집이서 옛날 만들젠 허민 어땡 찰라근에 본 해근에 해야 될 거 아니?(그러면 옷 집에서 옛날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찰라서 본 해서 해야 될 거

141) '쪼꼬자'는 쪼끼와 마고자를 한꺼번에 이른 말이다.

아니?)

106027 #1 기냥이 이젯옷은이 막 가다<sup>142)</sup> 낡 영 뜨는다.(그냥 이제 옷은 막 모양 봐서 이렇게 뜨는데.)

106027 @ 응.(응.)

106027 #1 그자 짐작 삼앙 영 영 영 ㄱ시민 멘들아 가민 옷이 웨여.(그저 짐작 삼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만들어 가면 옷이 되어.)

106027 @ 하하하, 그냥 짐작으로?(하하하, 그냥 짐작으로?)

106027 #1 어둑은 때라부난. 할망덜이 무신 뿐 농곡 무시거 허나게. 짐작 보명 그자 ㄱ앙 헤영.(어두운 때라서. 할머니들이 무슨 본 놓고 무엇 하니. 짐작 보면서 그저 잘라서 해서.)

106027 @ 응.(응.)

106027 #1 옛날은 주로 여자 갈중의는 이만큼은 풍차게 헤여근에 그냥 영영영 영허영 이디 독다님 청 허민 이디가 방탕허영 경 살았주.(옛날은 주로 여자 갈중의는 이만큼 크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중대님 매서 하면 여기가 평퍼짐해서 그렇게 살았지.)

106027 @ 독다님은 무신거?(중대님은 뭐?)

106027 #1 독다님이엔 허여 이디. 독다림 청. 남저 어른덜토.(중대님이라고 해 여기. 중대님 매고. 남자 어른들도.)

106027 @ 그냥 다님 아니고 독다림?(그냥 대님 아니고 중대님?)

106027 #1 독다님 처, 독다님 청 이디 줄라매민 소나이 것덜은 이디가 펠럭.(중대님 매, 중대님 매서 여기 줄라매면 사나이 것들은 여기가 펠럭.)

106027 @ 독다님은 무사 독다님인고? 이디 헌텐?(중대님은 왜 중다님인고? 이디 한다고?)

106027 #1 이디 헌텐 건지. 독다림 청 저디 들암서라 행 허고.(여기 한다고 그 건지. 중대님 매서 저기 달리고 있더라 해서 하고.)

106027 @ 그냥 보통은 다님이지예? (그냥 보통은 대님이지요?)

106027 #1 응, 그냥.(응, 그냥.)

106027 @ 남저덜 허는 건 다님 아니?(남자들 하는 건 대님 아니?)

106027 #1 다님. 영행.(대님. 이렇게 해서.)

106027 @ 거난 그게 다님인디 독다님은 무신건고?(그러니까 그게 대님인데 중대님은 무엇인가?)

106027 #1 독다님 천 밋디 일허젠 허민 거친 일허젠 허민 이 옷이 덤방허난 이디 왕 영 줄라부난 독다님이엔 헨 거 닻아.(중대님 매고 밧에 일하려고 하면 거친 일하려고 하면 이 옷이 ‘덤방’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줄라매니까 중대님이라고 한 것 같아.)

106027 @ 아.(아.)

---

142) ‘가다’는 모양, 형상을 뜻하는 일본어 ‘かた’에서 온 말이다.

106027 #1 밧디 강 일허젠 허든 덤방헤 가민 영.(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덤방’해가면 이렇게.)

106027 @ 예.(예.)

106027 #1 게민 졸라매 부는 거주. 건 나 이치로 곤는 말이라, 벨허게 헐 일이 었어, 거는.(그러면 졸라매 버리는 거지. 그건 내 이치로 말하는 말이야, 별하게 할 일이 없어, 그거는.)

106027 @ 예.(예.)

106027 #2 게난 옛날 두루막, 췌께, 무시거, 무시거, 아이고, 아이고.(그러니까 옛날 두루마기, 조끼, 무엇, 무엇, 아이고, 아이고.)

106027 @ 응.(응.)

106027 #2 핫주 뭐.(뭇지 뭐.)

106027 #1 췌께 넘어 갓수다. 곤지 맙서.(조끼 넘어 갓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106027 @ 하하하.(하하하.)

106027 #2 응?(응?)

106027 #1 췌께 넘어 갓어마썸.(조끼 넘어 갓어요.)

106027 #2 게메. 이젠 다 살아부난.(그러게. 이젠 다 살아버리니까.)

106028 @ 혹시 저 바지 이름이 다 부분, 부분 이름이 이신가마썸? 바지, 저고리.(혹시 저 바지 이름이 다 부분, 부분 이름이 있어요? 바지, 저고리.)

106028 #1 아니, 아니 었어. 바지, 저고리, 적삼, 중의 적삼헝 베끼, 중의허고 적삼베끼.(아니, 아니 없어. 바지, 저고리, 적삼, 중의 적삼해서 밖에, 중의하고 적삼밖에.)

106028 @ 바지부터예. 바진 허민 무사 영 바지가 이시민 이딘 무신거엔 곤고 이딘 무신거엔. 이딘 허리?(바지부터요. 바지는 하면 왜 이렇게 바지가 있으면 여긴 뭐라고 말하고 여긴 뭐라고. 여긴 허리?)

106028 #1 허리.(허리.)

106028 @ 이딘, 단?(여긴, 단?)

106028 #1 다님. 다님 쳐야 돼.(대님, 대님 매야 돼.)

106028 @ 다님 쳐야 돼고예.(대님 매야 되고요.)

106028 #1 남자 거는.(남자 거는.)

106028 @ 남자 거는예. 그다음 뭐 이딘 무신거엔 곤는 거 었어?(남자 거는요. 그다음 뭐 여긴 뭐라고 말하는 거 없어?)

106028 #1 그디 무신거 다리나베끼. 다리 들어가는 디베끼.(거기 무엇 다리나 밖에. 다리 들어가는 데밖에.)

106028 @ 다리 들어가는 디베끼.(다리 들어가는 데밖에.)

106028 #1 허리 들어가민 발베끼 었어.(허리 들어가면 발밖에 없어.)

106028 @ 이거베끼 었어예. 게민 저고리는 이수게? 영 웨민 남자 저고리라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고리는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남자 저고리예요.)

106028 #1 응.(응.)

106028 @ 계민 영 허민 이디는 짓이라예. 짓.(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는 짓이  
에요. 짓.)

106028 #1 짓이 이디 터볼면은 이깁지 느려오민 요디.(짓이 여기 터버리면 이까  
지 내려오면 요기.)

106028 @ 이디까지 내려오면.(여기까지 내려오면.)

106028 #1 썰이 들앙 이서.(썰이 달려 있어.)

106028 @ 아, 여기 오면 썰도 잇고예.(아, 여기 오면 썰도 있고요.)

106028 #1 응. 경 또 요건 밧썰, 요디 건 안썰.(응. 그렇게 또 요건 겹썰, 요기  
건 안썰.)

106028 @ 요딘 안썰.(요긴 안썰.)

106028 #1 계민 짓이 요 밧썰더레 뱅허게 들라 부짱 영 돌아왕 요디 왕 툇 멕  
이면 요디가 영 아우러정 고와.(그러면 짓이 요 겹썰으로 뱅하게 따로 붙여서 이렇  
게 돌아와서 요기 와서 툇 먹이면 요기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고와.)

106028 @ 응.(응.)

106028 #1 요건 안썰, 요건 밧썰.(요건 안썰, 요건 겹썰.)

106028 @ 예, 요딘 밧썰, 이딘 안썰. 이디 짓에 드는 건 동정?(예, 요긴 겹썰,  
여긴 안썰. 여기 짓 다는 건 동정?)

106028 #1 동, 동전.(동, 동전.)

106028 @ 동전예. 그다음에 요건 무신거, 소매?(동전요. 그다음에 요건 뒤편, 소  
매?)

106028 #1 팔소매베핀 엇지.(팔소매밖에 없지.)

106028 @ 소, 소미? 소매?(소, 소미? 소매?)

106028 #1 소매.(소매.)

106028 @ 소매.(소매.)

106028 #1 팔소매.(팔소매.)

106028 @ 팔소매. 요딘?(팔소매. 요긴?)

106028 #1 그딘 엇어.(거긴 없어.)

106028 @ 그딘 엇어.(거긴 없어.)

106028 #1 소매베핀, 요디 홀목베핀. 팔목.(소매밖엔, 요기 손목밖에. 팔목.)

106028 @ 이딘 엇고예.(여긴 없고요.)

106028 #1 응, 엇어.(응, 없어.)

106028 @ 계민 여자 거 허게예. 여자 건 치메짱아예?(그러면 여자 거 해요. 여  
자 건 치마짱아요?)

106028 #1 응.(응.)

106028 @ 치메허민 이디는 치멧단?(치마하면 여기는 치맛단?)

106028 #1 치멧단.(치맛단.)

106028 @ 치멧단. 이거는 치메폭?(치맛단. 이거는 치마폭?)

106028 #1 치메폭. 요딘 허리.(치마폭. 요긴 허리.)

106028 @ 허리. 이걸 치메폭예? 그다음 말 엇인가?(허리. 이걸 치마폭요? 그다음 말 없나?)

106028 #1 저고리가 그냥.(저고리가 그냥.)

106028 @ 요디 이름은 엇인가?(요기 이름은 없나?)

106028 #1 엇어. 저고리가 그냥 이 식 텔 거주. 큼만 허주, 남저 거는.(없어. 저고리가 그냥 이 식 될 거지. 크기만 하지, 남자 거는.)

106028 @ 거난예, 여자 거는 흥뎌 죽음만 허주. 요거영 똑ㄴ타예.(그러니까요, 여자 거는 조금 작기만 하지. 요거랑 똑같아요.)

106028 #1 응.(응.)

106028 @ 앞썰이영 다 똑같고예?(앞썰이랑 다 똑같고요?)

106028 #1 응, 안썰, 밧썰.(응, 안썰, 겹썰.)

106028 @ 안썰, 밧썰.(안썰, 겹썰.)

106028 #1 짓.(짓.)

106028 @ 짓.(짓.)

106028 #1 동전.(동정.)

106028 @ 동전. 요기 무시거 답니께?(동정. 요기 무엇 달잖아요?)

106028 #1 곱.(고름.)

106028 @ 이걸 곱?(이걸 고름?)

106028 #1 저고릿곱.(저고리 고름.)

106028 @ 저고릿곱?(저고리 고름.)

106028 #1 치맛곱도 이서. 이레 영 느렁.(치마 고름도 있어. 이리 이렇게 내려서.)

106028 @ 아, 치맛곱은 어디 이렇게 영 끈.(아, 치마 고름은 어디 이렇게 이렇게 끈.)

106028 #1 응.(응.)

106028 @ 요거?(요거?)

106028 #1 응, 영허민 이것이 영 폭이 기민 이걸로 영 허리 둘러.(응,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폭이면 이걸로 이렇게 허리 둘러.)

106028 @ 예, 예. 거난 이것이 치멧곱?(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치마 고름?)

106028 #1 응.(응.)

106028 @ 치멧곱. 이거 요기 곳에 영 무신거 영 달기도 험니께?(치마 고름. 이거 요기 끝에 이렇게 뭐 이렇게 달기도 하잖아요?)

106028 #1 끝동<sup>143</sup>.(끝동.)

106028 @ 무신 동?(무슨 동?)

143) '끝동'은 여자의 저고리 소매부리에 댄 다른 색의 천을 이르는 '끝동'의 제주어다.

106028 #1 낚시 낚는 거.(낚시 낚는 거.)  
 106028 @ 낚시?(낚시?)  
 106028 #1 응. 여자 거는 반오장<sup>144)</sup> 허젠 허민 요런 색깔 빨간 거 요디 놓민  
 낚시도 그 낚시 빨간 낚시 낚 돌아 주고.(응. 여자 거는 반회장 하려고 하면 요런 색깔  
 빨간 거 요기 놓으면 낚시도 같이 빨간 낚시 낚 돌아 주고.)  
 106028 @ 응. 낚시도 똑그치.(응. 낚시도 똑같이.)  
 106028 #1 반오장 저고리.(반회장 저고리.)  
 106028 @ 무슨 저고리?(무슨 저고리?)  
 106028 #1 반오장 저고리.(반회장 저고리.)  
 106028 @ 반?(반?)  
 106028 #1 반오장.(반회장.)  
 106028 @ 반오장 저고리?(반회장 저고리?)  
 106028 #1 응.(응.)  
 106028 @ 응. 그민 요디 색깔 여러 개 낚시도 낚시?(응. 그러면 요기 색깔 여러  
 개 낚시도 낚시?)  
 106028 #1 색동 건.(색동 그건.)  
 106028 @ 건 색동.(그건 색동.)  
 106028 #1 요그지 오는 건 색동 저고리.(요까지 오는 건 색동 저고리.)  
 106028 @ 그건 색동저고리.(그건 색동저고리.)  
 106028 #1 색동저고리엔 낚시는 안 놓지.(색동저고리엔 낚시는 안 놓지.)  
 106028 @ 아, 낚시는 하나만 놓는 거?(아, 낚시는 하나만 놓는 거?)  
 106028 #1 흰 저고리에만 낚시를 놓지. 흰 것에만 흰디 요디 흰뽕.(흰 저고리에  
 만 낚시를 놓지. 흰 것에만 하는데 요기 조금.)  
 106028 @ 흰뽕.(조금.)  
 106028 #1 응.(응.)  
 106028 @ 흰뽕만 허는 게 낚시.(조금만 하는 게 낚시.)  
 106028 #1 응. 경 안 허고.(응. 그렇게 안 하고.)  
 106028 @ 여러 개 놓는 건 색동?(여러 개 놓는 건 색동?)  
 106028 #1 요 소미그지 막 오는 건 색동.(요 소매까지 막 오는 건 색동.)  
 106028 @ 응. 그다음에 보선.(응. 그다음에 버선.)  
 106028 #1 보선은 보선 그거. 보선은 무시거엔사 허는디.(버선은 버선 그거. 버  
 선은 무엇이라고야 하는지.)  
 106028 @ 보선도 이딴 보선목?(버선도 여긴 버선목?)  
 106028 #1 보선목.(버선목.)  
 106028 @ 그다음에.(그다음에.)

144) ‘반오장’은 ‘반회장’이라는 말로 낚시, 고름, 낚시에 다른 색의 천을 대어 지은 여자의 저고리인 반회장저고리를 이르는 것이다.



106028 #1 두척이.(뒤축.)

106028 @ 여긴 뒤척이. 요기 흥뽀 툇 영 들어간 건?(여긴 뒤축. 요기 조금 툇 이렇게 들어간 건?)

106028 #1 두척이. 그것이 두척이라. 일로 가사 요 양말이, 찜 보선이 안 벗어지 주. 툇이 서사.(뒤축. 그것이 뒤축이야. 이리로 가야 요 양말이, 찜 버전이 안 벗겨 지지. 툇이 있어야.)

106028 @ 그냥 툇?(그냥 툇?)

106028 #1 응. 툇, 툇.(응. 툇, 툇.)

106028 @ 요기는?(요기는?)

106028 #1 보선코지.(버선코.)

106028 @ 보선코지. 요딘?(버선코. 요긴?)

106028 #1 그딘 엇어.(거긴 없어.)

106028 @ 그딘 엇어, 이름? 요기 들어간 딴?(거긴 없어, 이름? 요기 들어간 덴?)

106028 #1 그디 들어간 딴 요디가 늦이민이.(거기 들어간 덴 요기가 늦으면.)

106028 @ 예.(예.)

106028 #1 보선 뿐이 엇어, 신은 뿐이. 요디가 영 ㅋ짱해 불민 이디가 굴탁허영 이.(버선 볼뽀이 없어, 신은 모양이. 요기가 이렇게 가지런해 버리면 여기가 헐렁해 서.)

106028 @ 응.(응.)

106028 #1 늘어나. 빠작 부뜨지 안허난. 요걸 요 줍아불민 요디 것이 바작 부뽀 보선 신은 뿐이 난덴 요것이 영허고, 이건 벗어지지 못허게 툇을 멘들아 불고.(늘어나. 바작 붙지 앓으니까. 요걸 요 접어버리면 요기 그것이 바작 붙어서 버전 신은 모양이 난다고 요것이 이렇게 하고, 이건 벗겨지지 못허게 툇을 만들어 버리고.)

106028 @ 아. 요긴 벗어붙지 못허게 툇을 멘들고. 요건 무신거엔 곤는, 이것도 툇이엔 해?(아. 요긴 벗겨지지 못허게 툇을 만들고. 요건 뭐라고 말하는, 이것도 툇 이라고 해?)

106028 #1 툇은 툇이주만은 이름은 엇어. 거난 이 보선 신으민 뿐이 엇이카부덴 이 툇을 멘들앙 이디가 영 들락해 불카부덴.(툇은 툇이지만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이 버전 신으면 볼뽀이 앓을까봐 툇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들락’해 버릴까봐.)

106028 @ 응. 영 고름도 허주만은. 아, 곰도 허주만은 단추도 답니께? 남자 저 고리 같은 것도 단추 답니께?(응. 이렇게 고름도 하지만. 아, 고름도 하지만 단추도 달잖습니까? 남자 저고리 같은 것도 단추 달잖아요?)

106028 #1 단춘 안 돌아.(단춘 안 달아.)

106028 @ 이제추룩 현 단춘 아니주예?(이제처럼 한 단추는 아니지요?)

106028 #1 단춘 아니 돌아, 저고리에는.(단춘 안 달아, 저고리에는.)

106028 @ 게문 무신거 해?(그러면 무엇 해?)

106028 #1 저고리는 자꾸 이거, 요거 기지 트드고, 요 기지 질루지만씩 뜯어 가지고 무시거고 이젠 또 중의 적삼은 단추 돌아 여자 꺼고, 남저 꺼고.(저고리는 자꾸 이거, 요거 천 뜯고, 요 천 길이만큼씩 뜯어 가지고 무엇인가 이젠 또 중의 적삼은 단추를 달아 여자 거고, 남자 거고.)

106028 @ 무신 단추 답니까?(무슨 단추 답니까?)

106028 #1 막작단추엔 허영.(매듭단추라고 해서.)

106028 @ 아, 막작단추. 그건 그냥 천으로 허는 거?(아, 매듭단추. 그건 그냥 천으로 하는 거?)

106028 #1 응, 천으로 막 깨늘이 박앙 막작을 만들어.(응, 천으로 아주 가늘게 박아서 매듭을 만들어.)

106028 @ 보통 막작단추.(보통 매듭단추.)

106028 #1 응.(응.)

106028 @ 단추 막작단추 말고 다른 단추는 잇수과?(단추는 매듭단추 말고 다른 단추는 없습니까?)

106028 #1 사기단추도 돌주만은 거.(사기단추도 달지만은 거.)

106028 @ 잘 잇어예?(잘 없어요?)

106028 #1 요런 것에 드는 적삼에 드는 것은 그런 거 해사 어디 강 벌러지지도 안허곡이.(요런 것에 다는 적삼에 다는 것은 그런 거 해야 어디 가서 벌러지지도 않고.)

106028 @ 뭐, 아까 마고자나 이런 거 헐 때는 단추 흐뎀 큰 거 허지 않아, 곤 거.(뭐, 아까 마고자나 이런 거 할 때는 단추 조금 큰 거 하지 않아, 고운 거.)

106028 #1 마고자 옛날 어른 정 마고자가 정 입을 일이 잇어?(마고자 옛날 어른 그렇게 마고자가 그렇게 입을 일이 없어.)

106028 #2 무사 찢게도 단추.(왜 조끼도 단추.)

106028 #1 아, 건 이제 요 중간에 나는 거, 마고저 무시거 헛주. 경 마고지 찢리고 이름 내완 안 해낫일 거라. 들어보질 안해서 건.(아, 그건 이제 요 중간에 나는 거. 마고자 무엇했지. 그렇게 마고자 차리고 이름 내워서 안 했었을 거야. 들어보지를 안해서 그건.)

106028 @ 대부분 다 막작단추예?(대부분 다 매듭단추요?)

106028 #1 이 중의 적삼에는 여저 거고, 남저 거고 중의 적삼. 여자 거는이 뽀으로 모시 적삼 ㄱ뜨 거는이 영 고름을 해도이 옷고름을 해도이 웨겍으로 해부난 꼬아져 불어. 저실옷 ㄱ뜨민 이거를 영 꼬앙 해불민 두루 오그라질 건디.(이 중의 적삼에는 여자 거고, 남자 거고 중의 적삼. 여자 거는 모양으로 모시 적삼 같은 거는 이렇게 고름을 해도 옷고름을 해도 외겍으로 해버리니까 꼬아져 버려. 겨울옷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꼬아서 해버리면 덜 오그라질 건데.)

106028 @ 응, 얹아서.(응, 얹아서.)

106028 #1 여름 거는 이거 웨바위, 일로도 웨바위 절로도 웨바위허난 꼬아지는

덕분에 잘 안 허는 거라. 나 생각으로는 이걸 행. 게도 벌ㅁ작단추렌 행 영 돌아사.(여름 거는 이거 ‘웨바위’, 이리로도 ‘웨바위’ 저리로도 ‘웨바위’ 하니까 꼬아지는 덕분에 잘 안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이걸 해서. 그래도 매듭단추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야.)

106029 @ 벌ㅁ작은 무신거파?(‘벌ㅁ작’은 무엇입니까?)

106029 #1 그것이 게메. 그것이.(그것이 그러게, 그것이.)

106029 @ 벌ㅁ작이 ㅁ작단추?(‘벌ㅁ작’이 매듭단추?)

106029 #1 응.(응.)

106029 @ 같은 거?(같은 거?)

106029 #1 응, 벌ㅁ작 메와도렌 해여, 그거 어디 강 혈 땀 벌ㅁ작 흥품 못아도렌.(응, ‘벌ㅁ작’ 달아달라고 해, 그거 어디 가서 할 땀 ‘벌ㅁ작’ 조금 땀어달라고.)

106029 @ 아, 게민 단추 이름이 벌ㅁ작 단추파?(아, 그러면 단추 이름이 ‘벌ㅁ작’ 단추입니까?)

106029 #1 응, 벌ㅁ작 해사 단단ㅎ여. 행 어른덜 곧는 거 보민 경ㅎ여.(응, ‘벌ㅁ작’ 해야 단단해. 해서 어른들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

106029 #2 칠십 년 전이만 해도 단추덜이영 다 헛는다.(칠십 년 전에만 해도 단추들이랑 다 헛는데.)

106029 #1 게메, 그냥 이제 남저 어른 쥘게 ㅁ뜨는 거는 단추를 드는디 이 중의 적삼에는 단추를 안 돌아. 쥘게는 단추 돌아.(그러게, 그냥 이제 남자 어른 조끼 같은 거는 단추를 다는데 이 중의 적삼에는 단추를 안 돌아. 조끼는 단추 돌아.)

106029 @ 예.(예.)

106029 #2 쥘게 단추 이서.(조끼 단추 있어.)

106029 @ 사기 단추로 달아?(사기 단추로 달아?)

106029 #1 건 이제 거파, 옛날 거주. 사기 단추, 사기 단추.(그건 이제 겹니까, 옛날 거지. 사기 단추, 사기 단추.)

106029 @ 사기 단추? 무신 저 보석 같은 거 호박 단추 뭐 이런 거 안 하고?(사기 단추? 무슨 저 보석 같은 거 호박 단추 뭐 이런 거 안 하고?)

106029 #1 아니, 그런 건 엇어. 이제 거는 이제 마고저는 이만씩헌 거 지랑지랑.(아니, 그런 건 없어. 이제 것은 이제 마고자는 이만씩헌 거 치렁치렁.)

106029 @ 응, 이만씩 헌 거 달잖아예. 옛날엔 그런 거 엇어예.(응, 이만큼씩 한 거 달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106029 #1 마고저도 엇어, 쥘게주.(마고자도 없어, 쥘기지.)

## 재단과 염색

106030 @ 응, 게민 아까 했던 것 중에 옷감 손질하는 방법? 아까 그 폴 맥영 허는 건 무신거 무신건 폴 맥이는 거파?(응, 그러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옷감 손질하는 방법? 아까 그 폴 먹여서 하는 건 무엇 무엇을 폴 먹이는 겁니까?)

106030 #1 그냥 물에 헝킴 영 그 기지에 물 맞일 만이 요 기지민 어느 정도민 풀이 세겟다, 헝킴 풀을 약허게 맥이젠 허민 물을 압게 허고. 헝킴 세게 맥이젠 허민 물을 족게 놓민 옷도 물르민 버작허고 허는 거.(그냥 물에 조금 이렇게 그 옷감에 물 맞을 만큼 요 옷감이면 어느 정도면 풀이 세겟다, 조금 풀을 약하게 먹이려고 하면 물을 묽게 하고. 조금 세게 먹이려고 하면 물을 적게 놓으면 옷도 마르면 뽀뽀하고 하는 거.)

106030 @ 건 저 미녕하고 미녕도 아까 풀 맥입니까?(그건 저 무명하고 무명도 아까 풀 먹입니까?)

106030 #1 다 풀은 다 마찬가지로.(다 풀은 다 마찬가지로.)

106030 @ 아, 다 맥여. 뭐는 안 맥일 거 아니 멍지?(아, 다 먹여. 뭐는 안 먹일 거 아니 명주?)

106030 #1 멍지도. 멍지가 더 잘 맥영 막 다듬이질허민 반들반들허영 창호지 소리가 나. 보들보들허게.(명주도. 명주가 더 잘 먹여서 막 다듬이질하면 반들반들해서 창호지 소리가 나. 보들보들허게.)

106030 @ 다 곱게 입젠 허민 풀 맥이는 거구나예. 풀 안 맥이민.(다 곱게 입으려고 하면 풀 먹이는 거군요. 풀 안 먹이면.)

106030 #1 풀 안 맥영은 못허여. 막 꼬아지고 뱅뱅 데와지고.(풀 안 먹여서는 못해. 막 꼬아지고 뱅뱅 틀어지고.)

106030 @ 아, 다른 옷들도 다?(아, 다른 옷들도 다?)

106030 #1 응, 멍지는 거 경허여.(응, 명주는 그거 그렇게 해.)

106030 @ 게문 옛날에는 옷 빨래도 허젠 허민 어디 강은에 해놔수과?(그러면 옛날에는 옷 빨래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했었습니까?)

106030 #1 민물, 민물 이신 그 못디.(민물, 민물 있는 그 못에.)

106030 @ 이디서 어디 감수과?(여기서 어디 갑니까?)

106030 #1 이 노인당.(이 노인당.)

106030 @ 소레물<sup>145)</sup>?('소레물'?)

106030 #1 소레물도 가고 고돛물<sup>146)</sup>도 가는데 거리가 머니까 이 열아이 옷덜은 그 걸레들은 지생기들은 이 못디 강 빨아.('소레물'도 가고 '고돛물'도 가는데 거리가 머니까 이 어린애 옷들은 그 걸레들은 기저귀들은 이 못에 가서 빨아.)

106030 @ 그냥 가까운 디 또 이수과?(그냥 가까운 데 또 있습니까?)

106030 #1 이 노인당 신 디가 큰 못이라났어.(이 노인당 있는 데가 큰 못이었어.)

106030 @ 이름이?(이름이?)

106030 #1 펄못<sup>147)</sup>.('펄못'.)

106030 @ 거긴 펄못.(거긴 '펄못'.)

145) '소레물'은 조천읍 함덕리 샘물의 이름이다.

146) '고돛물'은 조천읍 함덕리 샘물의 이름이다.

147) '펄못'은 조천읍 함덕리 연못의 이름이다.

106030 #2 아, 이디가 펠뭇. 가은통<sup>148</sup>). (아, 여기가 ‘펠뭇’. ‘가은통’.)

106030 #1 저디가 가은통이주 무신. (저기가 ‘가은통’이지 무슨.)

106030 #2 이건 무시거라? (이건 뭐야?)

106030 #1 거룻굴물<sup>149</sup>). (‘거룻굴물’.)

106030 #2 아, 거룻굴물. (아, ‘거룻굴물’.)

106030 @ 거룻굴물. 노인당 이신 디가? (‘거룻굴물’. 노인당 있는 데가?)

106030 #1 펠물, 거룻굴물. 거룻굴물. 저딘 펠물. 저딘 숙두뭇<sup>150</sup>). (펠물, 거룻굴물. 거룻굴물. 저긴 펠물. 저긴 ‘숙두뭇’.)

106030 #2 숙두뭇. 저 우이 조금 위에 건 무신거라? (‘숙두뭇’. 저 위에 조금 위에 그건 무엇이야?)

106030 #1 그디도 물 이수과? (거기도 물 있습니까?)

106030 #2 그디. (거기.)

106030 #1 아, 가은통. (아, ‘가은통’.)

106030 @ 게민 빨래허젠 허민 옛날에는 비누도 엇고 어떻 해근에 헨마씨? (그러면 빨래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비누도 없고 어떻게 해서 했어요?)

106030 #1 비누가이. 이런 옷이 막 막 버물잖아이. 버물면은이 아까 식으로 불치이. (비누가. 이런 옷이 막 막 더럽잖아. 더러우면 아까 식으로 재.)

106030 @ 아, 불치. (아, 재.)

106030 #1 그때는 화룻불치. (그때는 화로 재.)

106030 @ 예. (예.)

106030 #1 불화룻 불치. 막 그냥 허영이 솟 닳은 건 이시민 걸어똥 그것에 막 듬박듬박 적정 솟디 낱 삶아. 삶으민 이거 때가 문짝 벗어져. 이제는 쉽게 빨래덜은 허는디. (불화로 재. 막 그냥 해서 솟 같은 건 있으면 걸어두고 그것에 막 듬뽍듬뽍 적셔서 솟에 놔서 삶아. 삶으면 이거 때가 말끔히 벗겨져. 이제는 쉽게 빨래들은 하는데.)

106030 @ 예. (예.)

106030 #1 경 안 허민이 우리 애기덜 키울 때는이 감저떡 비누렌 이서. 꺼멍헌 거. 요만큼헌 기레긴 헌 거, 감저떡 비누 허여근에 손도 막 케어불고, 아이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기들 키울 때는 고구마떡 비누라고 해서 있어. 꺼먼 거 요만큼 길이는 한 거, 고구마떡 비누 해서 손도 막 터버리고, 아이고.)

106030 @ 무사 감저떡 비누? 감저로 만드는 거파? (왜 고구마떡 비누? 고구마로 만드는 겁니까?)

106030 #1 몰라. 꺼멍헤부난 감저떡 비누엔 허는 거 닳아. (몰라. 까때서 고구마떡 비누라고 하는 거 같아.)

106030 @ 아. (아.)

148) ‘가은통’은 조천읍 함덕리 연못의 이름이다.

149) ‘거룻굴물’은 조천읍 함덕리 연못의 이름이다.

150) ‘숙두뭇’은 조천읍 함덕리 연못의 이름이다.

106030 #1 이만큼은 흰 비누 씻기가 힘들어.(이만큼은 흰 비누는 쓰기가 힘들어.)

106030 @ 계난예.(그러니까요.)

106030 #1 갠 감저떡 비누 그냥 이런 못되 강 막 빨아. 뎨 잘 가, 그놈으 감저떡 비누가.(그렇게 해서 고구마떡 비누 그냥 이런 못에 가서 막 빨아. 뎨는 잘 가, 그놈의 고구마떡 비누가.)

106030 @ 하얗허게 허젠 허민 무신거 넣은에 허여?(하얗게 하려고 하면 무엇 놔서 해?)

106030 #2 양젓물.(양젓물.)

106030 #1 하얗허게 허젠 허민 그때는이 이 광목에나이 이런 입당 보민 때가 찌락찌락 안 가는 것이 이서이. 양젓물을 구해다근에, 양젓물 구헿 숯양 그냥 막 솟, 옛날 쇠솟, 이만큼헌 쇠솟허민 산뒤집 아래 영 길양, 쇠 피어불카부덴.(하얗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 광목에나 이런 입다가 보면 때가 꼬질꼬질 안 가는 것이 있어. 양젓물 구해다가, 양젓물 구해서 삶아서 그냥 막 솟, 옛날 쇠솟, 이만큼한 쇠솟 하면 발벗짚 아래 이렇게 깔아서, 쇠 필어 버릴까봐.)

106030 @ 아.(아.)

106030 #1 옷에. 산뒤집 뱅허게 쪼끔씩 혼 곱씩 영 놓아근에 숯양, 문짝 숯양 그런 때는 어디 고돏물<sup>151)</sup>이나 그런 디 강 빨믄이 빨양 이젠 막 메칠.(옷에. 발벗짚 뱅하게 쪼끔씩 한 겹씩 이렇게 놔서 삶아서, 폭 삶아서 그런 때는 어디 ‘고돏물’이나 그런 데 가서 빨면 빨아서 이젠 막 며칠.)

106030 @ 양젓물 놔근에?(양젓물 놔서.)

106030 #1 응, 숯양. 빨양 오민 물에 컷당 짜근엥에 서답줄에 널영 막 발레여, 헤영케. 이제는 안 발레는디 헤영케 발레젠 막이 젓물 헛단 것도 혼 짐 정 강 저 고돏물 강 빨양 왕, 또 이디 서답줄에 걸영 막 물리고. 멧 번 발레야 뉘어. 헤영케 허젠 허민.(응, 삶아서. 빨아서 오면 물에 담갔다가 짜서 빨랫줄에 널어서 막 바래. 하얗게. 이제는 안 바래는데 하얗게 바래려고 막 젓물 헛던 것도 한 짐 저서 가서 저 ‘고돏물’ 가서 빨아서 와서, 또 여기 빨랫줄에 걸어서 막 말리고, 멧 번 바래야 돼. 하얗게 하려고 하면.)

106030 @ 헤영케 허젠 허민.(하얗게 하려고 하면.)

106030 #1 그냥 손에나 발에나 허는 디 경헤.(그냥 손에나 발에나 하는 데 그렇게 해.)

106031 @ 예. 게민 염색허젠 허민, 저 갈중의 허젠 허민 그건 어떻 허영 허는 거파?(예. 그러면 염색하려고 하면, 저 갈옷 하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6031 #1 갈중원 음력 유월이.(갈옷은 음력 유월에.)

106031 @ 예.(예.)

151) ‘고돏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고도물’이라고도 한다.

106031 #1 유월덜 똥사 갈중이, 막 미녕으로덜 갈중이 막 해놔. 그때는 옛날은 밧디만 살 때라 노니까이. 미녕으로 갈중이들 이녁냥으로 허는 인 허곡 바농질허는 디 강 거치렁 입도 해당이 그 미녕을 그냥 막 물에 강 막 보비어. 복삭 보병 미녕에 물 다 빠똥 왕 물리왓당 음력 유월덜 똥민 감이 요만씩 실굳어가이. 그때는 도구리에 해, 도구리.(유월 돼야 갈옷, 막 무명으로들 갈옷 막 해놔. 그때는 옛날은 밧에만 살 때라 놓으니까. 무명으로 갈옷들 자기대로 하는 이는 하고 바느질하는 데 가서 대강의 본을 해다가 그 무명을 그냥 막 물에 가서 막 비벼. 복삭 비벼서 무명에 물 다 빼두고 와서 말렸다가 음력 유월 되면 감이 요만큼씩 굳어가. 그때는 함지박에 해, 함지박.)

106031 @ 응.(응.)

106031 #1 도구리에 마께 낱 막 뽕앙 이젠 무시거나, 요것이 갈옷이면은 감 뽕인 걸 이레 영영영영 골로로 낱. 이거를 막 몰아. 물들게, 감 물들게. 경허민 안 들민 막 이걸 영영영영 놀리민 감물이 이것에 들어.(함지박에 방망이 놔서 막 뽕아서 이젠 뭐냐, 요것이 갈옷이면 감 뽕은 걸 이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놔서. 이거를 막 말아. 물들게, 감 물들게. 그러면 안 들면 막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놀리면 감물이 이것에 들어.)

106031 @ 예.(예.)

106031 #1 게민 감을 탁탁 털어똥, 탁탁 털어똥 이젠 그 소굽에 낱끼기라도 낱 소나이 갈중의 쫄은 속에 담아. 영 부뜨지 안허게. 영 부떠불카부덴 브름 들게 영 바탕 강 널엇당 시들시들 몰라가민 그걸 이젠 뽕 엇이카부덴 막 영 등기명, 데와정, 곱닥허게 영 곱게 개영 막 발로 블르민 쪽 폐와져이. 게민 또 널엇당 다음에는 갈중의는 손 안 봐도 돼. 적정 톱 그 식으로. 보리낭이라도 그때는 보리낭 실 때난이. 보리낭 우이 영 널영 놔두민 돌르민. 오늘은 요쪽으로 널고 똥날은 똥쌍 또 이쪽으로 널곡 허민은 이쪽도 꺾게 발곡 이쪽도 골르게 바라져.(그러면 감을 탁탁 털어두고, 탁탁 털어두고 이젠 그 속에 나무막대기라도 놔서 사나이 갈옷 쫄은 속에 담아. 이렇게 붙지 않게. 이렇게 붙어버릴까봐 바람 들게 이렇게 받쳐서 가서 널었다가 시들시들 말라가면 그걸 이젠 품이 없을까봐 막 이렇게 당기면서, 틀어져서, 곱게 이렇게 곱게 개서 막 발로 밟으면 쪽 퍼져. 그러면 또 널었다가 다음에는 갈옷은 손 안 봐도 돼. 적셔서 톱 그 식으로. 보릿대라도 그때는 보릿대 있을 때니까. 보릿대 위에 이렇게 널어서 놔두면 마르면. 오늘은 요쪽으로 널고 똥날은 똥집어서 또 이쪽으로 널고 하면은 이쪽도 같게 바래고 이쪽도 골고루 바래.)

106031 @ 응.(응.)

106031 #1 게민 어잉간이 불민 안 적져. 건 다 똥 걸로.(그러면 웬만하면 바래면 안 적져. 그건 다 똥 걸로.)

106031 @ 똥 번이나 해근에?(똥 번이나 해서.)

106031 #1 건 들이 엇어. 똥 잘난 날은 잘 발아.(그건 대중 없어. 똥 잘난 날은 잘 바래.)

106031 @ 아.(아.)

106031 #1 뱃 안 난 날은 적저도 두루 받고. 경헌 때문에 혼이 었어, 거는. 아무 때나 그자 발만이, 그 물색이 받아질 만이 발민 아니 허여.(뱃 안 난 날은 적저도 덜 바래고. 그런 때문에 한이 없어, 그거는. 아무 때나 그저 바렐 만큼, 그 물색이 바렐 만큼 바래면 안 해.)

106031 @ 보통은 그믐 몇 번 행은에 허는 거라?(보통은 그러면 몇 번 해서 하는 거야?)

106031 #1 대여섯 번 더 들걸.(대여섯 번 더 들걸.)

106031 @ 아, 게믐 나중예 헐 땐 그냥 물만 적서근에 너는 거짜?(아, 그러면 나중예 할 땐 그냥 물만 적서서 너는 겁니까?)

106031 #1 응.(응.)

106031 @ 처음에만 감물 허고. 물 적정 널엇당.(처음에만 감물 하고. 물 적서서 널엇다가.)

106031 #1 집이서라도 건. 이제 ㄱ뜨민 다라예 물 폭 적정 그냥 물 영 들렁 빼똥 그냥 이런 디 강 날퐁허게 곱게 널어. 이런 베예 널어도 안 돼.(집이서라도 건. 이제 같으면 대야예 물 폭 적서서 그냥 물 이렇게 들어서 빼두고 그냥 이런 데 가서 ‘날퐁’하게 곱게 널어. 그런 바예 널어도 안 돼.)

106031 @ 아, 무사 베예 안 너는 거짜?(아, 왜 바예 안 너는 겁니까?)

106031 #1 이쪽은 발곡 이쪽은 안 발곡. 경헌 덕분에 영 납작헌 디 강 널엇당.(이쪽은 바래고 이쪽은 안 바래고. 그런 덕분에 이렇게 납작한 데 가서 널엇다가.)

106031 @ 거난 잔디밭 ㄱ튼 데 보면예 막 이렇게.(그러니까 잔디밭 같은 데 보면요 막 이렇게.)

106031 #1 경허난 막 날퐁허게 널지.(그러니까 막 ‘날퐁’하게 널지.)

106031 @ 바닥에.(바닥에.)

106031 #1 이제도 물들이는 건.(이제도 물들이는 건.)

106031 @ 무사 이런 디 안 널고 바닥에 널엄신고 헤신디.(왜 이런 데 안 널고 바닥에 너나 했는데.)

106031 #1 경허난 혼짝은 받고 혼짝은 안 발카부텐 골루게 받게 허젠 영 날퐁허게 이디 발아나민 또 그날이라도 또 낮이라도 물 혼 번 더 적정 허젠 허민 또 영 데쌍 또 넣어주고.(그러니까 한쪽은 바래고 한쪽은 안 바렐까봐 골고루 바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날퐁’하게 여기 바래고 나면 또 그날이라도 또 낮이라도 물 한 번 더 적서서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뒤집어서 또 넣어주고.)

106031 @ 응. 게믐 갈중의 말고 다른 옷은 염색합니까? 다른 옷도.(응. 그러면 갈옷 말고 다른 옷은 염색합니까? 다른 옷도.)

106031 #1 염색헌, 검땡이 물을 그때 우리 옥을 때는 검땡이 물을 잘 들엇어. 게믐 오일장에 막이 가메숫 헤냥이 물들이는 사름 딱로 이서. 육짓사름이 그 물을 들여. 오일장 ㄱ뜨민 디서.(염색한, 검은 물을 그때 우리 컷을 때는 검은 물을 잘 들



였어. 그러면 오일장에 막 가마솥 해놓고 물들이는 사람 따로 있어. 육지 사람이 그 물을 들여. 오일장 같은 데서.)

106031 @ 아.(아.)

106031 #1 검댕이 물만 들여오지. 다른 물은 소소한 작은 것들은, 이런 벌경헌 물들이젠 해도 물 사당 이녀냥으로 들고 경해난.(검은 물만 들여오지. 다른 물은 소소한 작은 것들은, 이런 벌경헌 물들이려고 해도 물감 사다가 자기대로 들고 그랬었어.)

106031 @ 아, 그 물들이는 거 사당 허는 거봐?(아, 그 물들이는 거 사다가 하는 겁니까?)

106031 #1 사당 들고.(사다가 들고.)

106031 @ 그냥 뭐 감추룩 뭐 타당 허는 건 엇어마씨?(그냥 뭐 감처럼 뭐 따다가 하는 건 없어요?)

106031 #1 이제도 그 물들이는 것도 물 이제 갈물도 사당 들이민 갈색 물이 돼.(이제도 그 물들이는 것도 물 이제 감물도 사다가 들이민 갈색 물이 돼.)

106031 @ 감 탕 안허고?(감 따서 안하고?)

106031 #1 감 타도이 물색을 들이민 잘 안 벗이는 생이라.(감 따도 물색을 들이민 잘 안 벗겨지는 모양이야.)

106031 @ 아.(아.)

106031 #1 그 물들엿당도이 감물을 약하게라도 들여주민이 그냥 풀기가 이성 세여, 옷이 버질락허게시리. 감물을 들엿당도 또 감을 뺏앙 물을 들이는 생. 우린 이젠 그런 옷을 안해도 이제 입는 사름 말 들영 보민은 갈색 물 들여놔 감철 나면은 감을 뺏앙 들여주민 감ㄴ추룩 버질락허여근에 사락사락헌덴.(그 물들엿다가도 감물을 약하게라도 들이민 그냥 풀기가 있어서 세, 옷이 뺏뺏하게끔. 감물 들엿다가도 또 감을 뺏아서 물을 들이는 모야. 우린 이제 그런 옷을 안해도 이제 입는 슴 말 들어서 보면 갈색 물 들여놔서 감철 나면 감을 뺏아서 들여주면 감처럼 뺏뺏해서 서걱서걱하다고.)

106031 @ 물색은 어떤 색이파?(물색은 어떤 색입니까?)

106031 #1 이것ㄴ라 물색이엔 헤여, 물색.(이것보고 물색이라고 해, 물색.)

106031 @ 어느 색?(어느 색?)

106031 #1 아무 색이라도 물들인 건 물색.(아무 색이라도 물들인 건 물색.)

106031 @ 아. 아무것이라도 물들이민 물색.(아. 아무것이라도 물들이면 물색.)

106031 #1 응.(응.)

106031 @ 거명헌 것도 물색?(검은 것도 물색?)

106031 #1 검은 물들이고, 분홍 물들이고, 노랑 물들이고.(검은 물들이고, 분홍 물들이고, 노랑 물들이고.)

106031 @ 약간 남색 같은 건 뭐엔 곱읍니까?(약간 남색 같은 건 뭐라고 말합니까?)

106031 #1 것도 게메 남색 물들이고. 그 물 때에 따랑 이름은 그냥 거닐어났어. 딴 말로 안 골아나고 우리가 그건.(그것도 글썄 남색 물들이고. 그 물 때에 따라서 이름은 그냥 말했었어.)

106031 @ 감 말고 다른 거 타당 열매나 이런 거 식물로 해가지고 물들이는 건 엇어마씨?(감 말고 다른 거 따다가 열매나 이런 거 식물로 해가지고 물들이는 건 없어요?)

106031 #1 무사 요즘은 다마네기 껍데기로 노랑물 들인텐 해도 우린 그런 걸 안 해봤.(왜 요즘은 양파 껍데기로 노란 물 들인다고 해도 우린 그런 걸 안 해봤어.)

106031 @ 그런 거 안 해봤예.(그런 거 안 해봤어요.)

106031 #1 젠디 그거 물들인 것이 곱지 안 허드라고.(그런데 그거 물들인 것이 곱지 안 하더라고.)

106031 @ 아.(아.)

106031 #1 노랑물이 들어시킨 노랑게 골 건디 검시그롱헌 게 노린 기가 난 안 고완게.(노란 물이 들었으면 노랑게 고을 건데 거무스름한 게 노란 기가 나서 안 곱더라.)

106031 @ 아멩해도 다마네기 색깔이예.(아무래도 양파 색깔이요.)

106031 #1 다마네기 행 껍데기로 물들여 고와 고와해도 들인 거 보난 안 고완게. 물이 물이주.(양파 해서 껍데기로 물들여서 고와 고와 해도 들인 거 보니까 안 곱더라.)

## 신발

106032 @ 게민예 그다음에는 신발. 신발의 종류, 옛날에 신발은 무신 신발, 무신 신발.(그러면요 그다음은 신발. 신발의 종류, 옛날에 신발은 무슨 신발, 무슨 신발.)

106032 #1 우리 신발, 두린 땀이, 막 두린 때는이 새카맣헌 검은 고무신처럼헌 거 해끄만 헌 거, 막 제우제우 구허영 신었어. 또 흥뽀 옥아가난에 이제 권당 하르방 이시킨 켜끌락헌 초신. 그거 허연 신단 또 흥뽀 옥아가난 이젠 그 무신 고무다야 신이엔 헨에 영 에리 무시거 것ㄴ라 무시거엔 곤다만은 신행 나비 기려지곡 헌 거 사단 신단 그루후젠 고무신도 흰 고무신도 신고 검은 고무신도 신고 헨 이젠 벨신 다 냐.(우리 신발, 어린 땀, 막 어린 때는 새까만 검은 고무신처럼헌 거 조그마한 거, 막 겨우겨우 구해서 신었어. 또 조금 커가니까 이제 권당 할아버지 있으니까 쪼끄만 쫘신. 그거 해서 신다가 또 조금 커가니까 이젠 그 무슨 고무타이어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에리’ 무엇 그것보고 뭐라고 말한다만은 신행 나비 그려지고 한 거 사다가 신다가 그 후엔 고무신도 흰 고무신도 신고 검은 고무신도 신고 해서 이젠 벨신 다 나서.)

106032 @ 하하하. 옛날에 저 초신은?(하하하. 옛날에 저 쫘신은?)

106032 #1 초신 게메 우리가 초신을.(짚신 글썽 우리가 짚신을.)  
 106032 @ 신어났주예?(신었었지요?)  
 106032 #1 하영 신어난.(많이 신었었어.)  
 106032 @ 신발은마씨?(신발은요?)  
 106032 #1 신발 초신.(신발 짚신.)  
 106032 @ 초신. 옛날 신어난 신, 초신?(짚신. 옛날 신었던 신, 짚신.)  
 106032 #1 초신. 우리 큰 때도 초신만 막 신어났어. 고무신 신기가 힘들어났어.  
 (짚신. 우리 큰 때도 짚신만 막 신었었어. 고무신 신기가 힘들었었어.)  
 106032 @ 초신도 직접 만들어났주예.(짚신도 직접 만들었었지요.)  
 106032 #1 예.(예.)  
 106032 @ 할머니 안 만들어난.(할머니 안 만들었었어.)  
 106032 #1 못 멘들아.(못 만들어.)  
 106032 @ 남자들이 멘드는 건가?(남자들이 만드는 건가?)  
 106032 #1 남자들이 멘들아.(남자들이 만들어.)  
 106032 @ 할아버진 멘들어나실 거라예.(할아버지는 만들었었을 거예요.)  
 106032 #1 아니, 안 만들언.(아니, 안 만들었어.)  
 106032 @ 무사?(왜?)  
 106032 #1 하르방은 아방은 멘들아났주.(할아버지는 아버지는 만들었었지.)  
 106032 @ 할으부지 안 만들어난.(할아버지 안 만들었었어.)  
 106032 #1 안 만들언.(안 만들었어.)  
 106032 @ 할으부진 부젯칩 할으부지구나.(할아버진 부잣집 할아버지구나.)  
 106032 #1 부젯칩이 아니라도 두려부니까 그런 걸 허젠 안허여. 그 넘어사 가난  
 운동화도 흥뽀 중간중간.(부잣집이 아니라도 어려버리니까 그런 걸 하려고 안 해.  
 그 넘어 가니까 운동화도 조금 중간중간.)  
 106032 @ 고무신 나오고.(고무신 나오고.)  
 106032 #1 고무신도 나오고. 꺼멍헌 고무신도 나오고.(고무신도 나오고. 꺼먼 고  
 무신도 나오고.)  
 106033 @ 가족신도 잇주예?(가족신도 있지요.)  
 106033 #1 가족신 잇주 뭐. 막 어떻게 강 쉼 가족으로사 멘든 거산다.(가족신  
 있지 뭐. 막 어떻게 해서 가서 소 가족으로야 만든 것인지.)  
 106033 @ 일름 무신거엔 곱읍니까? 무신 가족신.(이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가족신.)  
 106033 #1 몰라, 건 또. 늬으 신은 거이 보면은 질김만 허고.(몰라, 그건 또. 남  
 의 신은 거 보면 질기기만 하고.)  
 106033 @ 할머니 안 신어봤?(할머니 안 신어봤어.)  
 106033 #1 그런 건 안 신어.(그런 건 안 신어.)  
 106034 @ 나무로 웬 신발도 이서났수게, 나막신?(나무로 된 신발도 있었었지,

나막신?)

106034 #1 나막신.(나막신.)

106034 @ 그건.(그건.)

106034 #1 그것도 안 신어봤어.(그것도 안 신어봤어.)

106034 #2 남신.(나막신.)

106034 @ 남신, 남신. 나막신 아니고 남신. 남신은 어떻?(나막신, 나막신. 나막신 아니고 ‘남신’. ‘남신’은 어떻게?)

106034 #1 남신. 우리도 안 신어봤. 우리 할머니네 신는 건 봐도 우리는 안 신어봤.(나막신. 우리도 안 신어봤어. 우리 할머니네 신는 건 봐도 우리는 안 신어봤어.)

106034 @ 할머니네 안 신어봤? 더 어른들만 신고? 비온 때 신영 다니지 안해?(할머니네는 안 신어봤어? 더 어른들만 신고? 비온 때 신어서 다니지 않아?)

106034 #1 비온 때 신어놔주. 발 뚫은 거.(비온 때 신었었지. 발 달린 거.)

106034 @ 계난 발 뚫은 거.(그러니까 발 달린 거.)

106034 #1 우린 그런 거 안 신으고 우리 할머니네만 신으는, 신영 땡기는 거 봐난. 우린 아니.(우린 그런 거 안 신고 우리 할머니네만 신는, 신어서 다니는 거 봤었어. 우린 아니.)

106035 @ 할아버진 짚신 해놔주예, 옛날에 예?(할아버지 짚신 했었지요, 옛날에요?)

106035 #1 짚신 안 만들어놔주. 짚신 신어남은 헛주, 멘들진 안해놔주.(짚신 안 만들었었지. 짚신 신었기는 했지, 만들진 않았었지.)

106035 @ 안 만들어놔수과?(안 만들었었습니까?)

106035 #2 왜 안 멘들아?(왜 안 만들어?)

106035 @ 초신.(짚신.)

106035 #2 초신 멘들았어.(짚신 만들었어.)

106035 #1 초신 멘들안 어디, 난 안 봤. 어느제 장계나 가기 전이 멘들어나신가?(짚신 만들어서 어디, 난 안 봤어. 언제 장가나 가기 전에 만들었었나?)

106035 #2 우리 만들았어.(우리 만들었어.)

106035 @ 장계간 후젠 안 봐놔디가?(장가간 후엔 안 봤었습니까?)

106035 #2 초신이엔 헌 거 거 만들었다고.(짚신이라고 한 거 만들었다고.)

106035 @ 이디 영 허민 깝 내어근예.(여기 이렇게 하면 총 내서.)

106035 #2 응, 깝 내영, 깝 부찌멍.(응, 총 내서, 총 붙이면서.)

106035 @ 깝 부찌멍.(총 붙이면서.)

106035 #1 상준이 아방이 곤 신 해놔어. 요 선풍기 살ᄃ추룩 깝 내영 곱닥허게 물들영 첨. 저 하르방네 해난 건 밧되나 신엄직헌 거치렁헌 거나 만들어 봤주.(상준이 아버지가 고운 신 했었어. 요 선풍기 살처럼 총 내어서 곱게 물들여서 첨. 저 할머니네 해난 건 밧에나 신음직한 ‘거치렁’한 거나 만들어 봤지.)

106035 #2 초신이든 뭐이든 간에 우리가 행 멘들멍 해놔어. 벌이 엇이니까게 아무거라도 멘들멍 십 원벌이라도 해서니까게.(짚신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해서 만들면서 했었어. 벌이 없으니까 아무거라도 만들어서 십 원벌이라도 했었으니까.)

106035 #1 벌 걸로 해놔수과, 신을 걸로.(벌 걸로 했었습니까, 신을 걸로.)

106035 @ 옛날에 신발은 초신허고 남신허고 가죽신은 이름이 뭐마썬?(옛날에 신발은 짚신하고 나막신하고 가죽신은 이름이 뭐예요?)

106035 #2 무시거?(무엇?)

106035 @ 가죽으로 만든 건.(가죽으로 만든 건.)

106035 #1 건 힘들어.(그건 힘들어.)

106035 @ 힘들어, 이름은 엇어.(힘들어, 이름은 없어.)

106035 #1 가죽신, 가죽신 말만 들었주. 썬가죽 행.(가죽신, 가죽신 말만 들었지. 소가죽 해서.)

106035 @ 주로 초신예?(주로 짚신요?)

106035 #1 남신은 비오는 날베끼 안 신는 거난. 이제 영 발에 끼우는 쓰리빠추룩.(나막신은 비오는 날밖에 안 신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발에 끼우는 슬리퍼처럼.)

106035 @ 게다, 응.(왜나막신, 응.)

106035 @ 초신은 사당 신읍니까? 지가 집이서.(짚신은 사다가 신읍니까? 자기가 집에서.)

106035 #1 사당, 사당. 누게 집이 짜줄 사름이 엇거든게.(사다가, 사다가. 누가 집에 짜줄 사람이 없거든.)

106035 @ 할아버지는 안 짜 쥘?(할아버지는 안 짜 쥘어?)

106035 #1 에이. 그때는 우리 두린 때니까.(에이. 그때는 우리 어린 때니까.)

106035 @ 아니, 집이서 아부지라도.(아니, 집에서 아버지라도.)

106035 #1 아부지도 엇고 할아부지도 엇으난에게.(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으니까.)

106035 #2 나 초신 짜놔어.(나 짚신 짚었어.)

106035 @ 초신 짜납디가, 옛날에?(짚신 짚었습니까, 옛날에?)

106035 #2 웨정 때.(왜정 때.)

106035 @ 웨정 때.(왜정 때.)

106035 #1 게난게 우리 결혼도 안 현 때 어떻 하르방 해가난 문직아사나신디.(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안 한 때 어떻게 할아버지 해가니까 만졌었는지.)

106035 @ 초신 어떻 행 짜는 거파?(짚신 어떻게 해서 짜는 겁니까?)

106035 #2 굽 내왕 준등 메곡 발가락에 그 무신, 무시거엔 꼴아신고.(굽 내어서 허리 매고 발가락에 그 무슨,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106035 #1 놀, 놀.(날, 날.)

106035 #2 놀 양쪽에 행 이 발가락에.(날 양쪽에 해서 이발가락에.)

106035 #1 신 삼아난 하르방이 놀도 모르멍 뢰.(신 삼았던 할아버지가 날도 모

르면서 뭐.)

106035 @ 하하하.(하하하.)

106035 #2 이디 준등 메고 행.(여기 허리 매고 해서.)

106035 #1 놀은 무신 놀이파?(날은 무슨 날입니까?)

106035 #2 뭐 알 게 뭐야?(뭐 알 게 뭐야?)

106035 #1 미빠쟁이 놀.(새품 날.)

106035 @ 어떻 안 해난 할머니가 더 잘 알았수과?(어떻게 안 해서 할머니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106035 #1 게메. 게난 곧지도 못허는 사름이.(그러게.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사름이.)

106035 #2 하르방안피 배우멍 헛어.(할아버지에게 배우면서 했어.)

106035 @ 하하하. 할머니가 곱아봅서, 게민. 미빠쟁이 놀로 어떻허여?(하하하. 할머니가 말해보세요, 그러면. 새품 날로 어떻게 해?)

106035 #1 그걸로 막 꼬앙이.(그걸로 막 꼬아서.)

106035 @ 미빠쟁이로?(새품으로?)

106035 #2 잘 아네이.(잘 아네.)

106035 #1 그 미, 꺾테기기 이서. 새 닭은 거 즘질이 영영 깨엇당 꼬아가멍 꼬아가멍 이서가멍 허민 막 꼬앙 신 삼게 돼어가믄이 새 잡아난 콥이 이서이. 콥 헤영 짹짹 밀민 그 베가이, 놀이 요거보단 흐뎡 깨늘게 꼬아. 경헌 것이 영영 미쳐가믄 멘질멘질헤여.(그 새, 꺾테기가 있어. 새 같은 거 잘게 이렇게 이렇게 쪼갬다가 꼬아가면서, 꼬아가면서 이어가면서 하면 막 꼬아서 신 삼게 되어 가면 새 잡았던 쇠기름이 있어. 쇠기름 해서 짹짹 밀면 그 바가, 날이 요거보단 조금 가늘게 꼬아. 그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무쳐가면 반질반질해.)

106035 @ 응.(응.)

106035 #1 게민 신 삼으멍 영영 등겨가민 그것이 쭉쭉 들어가. 신 안 삼아나도 알주.(그러면 신 삼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면 그것이 쭉쭉 들어가. 신 안 삼았어도 알지.)

106035 @ 응, 경헌난. 어떻 안 삼아난 할머니가 더 잘 알았수과?(응, 그러니까. 어떻게 안 삼았던 할머니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106035 #1 콥 맥여불민 영 놀이 네 개라. 놀이 영 네 개라. 이디 영영영영 떼우고 영영 떼와튀 요만이 짜가민 이걸 막 영영 해가믄이 놀에 콥 맥여부난 쭉쭉 들어가.(쇠기름 먹여버리면 이렇게 날이 네 개야. 날이 이리허게 네 개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고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요만큼 짜가면 이걸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날에 쇠기름 먹여버리니까 쭉쭉 들어가.)

106035 @ 응.(응.)

106035 #1 게민 이거 솜박 짜민 낭께기 강 꿔영 막 뚱경 그레 지각허게 지각허믄 질기지, 신이 흐뎡 푸삭푸삭헌 거 보단. 경행 해난 거. 난 본 거주, 이디 삼아난

하르방 곤는 것사.(그러면 이거 흠뻑 짜면 나무막대기 가서 켜서 막 당겨서 그리 뻑뻑하게 뻑뻑하면 질기지, 신이 조금 푸석푸석한 거 보다는. 그렇게 했었던 거. 난 본 거지, 여기 삼았던 할아버지 말하는 것이야.)

106035 @ 아까 곱은 무신거파?(아까 ‘곱’은 뭘니까?)

106035 #1 그 쇠고기 사민 막 곱 건영, 국 끓릴 때.(그 소고기 사면 막 쇠기름 건어서, 국 끓일 때.)

106035 #2 소고기 기름.(소고기 기름.)

106035 @ 아.(아.)

106035 #1 그것이 쇠고기 기름이 곱이라.(그것이 쇠고기 기름이 ‘곱’이야.)

106035 @ 아. 기름이 곱이파? 창지가 아니고?(아. 기름이 ‘곱’입니까? 창자가 아니고?)

106035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35 #2 혜영현.(하얀.)

106035 @ 기름.(기름.)

106035 #2 응.(응.)

106035 #1 경허민이 그이 신 삼으는 놀에 영영 막 짹짹 뭉겨. 멘질멘질허게. 거 문질르민 멘질멘질해.(그러면 그 신 삼는 날에 이렇게 막 짹짹 뭉개. 반질반질하게. 거 문질르면 반질반질해.)

106035 @ 응.(응.)

106035 #1 산뒹뺨으로 끈 노광 그 어욱으로 강 해온 것이 질겨 막.(발뺨으로 끈 노와 그 억새로 가서 해온 것이 아주 질겨 막.)

106035 #2 곱 맥이난.(쇠기름 먹이니까.)

106035 #1 아니 곱 안 맥여도 질겨.(아니 쇠기름 안 먹여도 질겨.)

106035 @ 미빠쟁이로 현 게 질겨?(새품으로 한 게 질겨?)

106035 #1 미빠쟁이 껍데기가 질겨. 미빠쟁이 꽃 핀 거는 해당 낮당 하르방덜 밧디 갈 때민이 그 심 몰아. 심. 것ㄴ라.(새품 껍데기가 질겨. 새품이 꽃 핀 거는 해당 낮다가 밧다가 할아버지들 밧에 갈 때면 그 심 몰아. 심. 그것보고.)

106035 @ 신?(신?)

106035 #1 심 몰아근엥에 하루종일 강 일허젠 허민 이것에 불 뿌쟁강 내불민 종일 담배도 것에 피우고 불곽도 라이타도 엇인, 힘든 때난 그거 막 미빠쟁이 감양 요만인허게 허영 아침이 밧디 갈 때 부쟁 가민 종일 사는 거 다향.(심 몰아서 하루 종일 가서 일하려고 하면 이것에 불 붙여 가서 내버리면 종일 담배도 그것에 피우고 성날도 라이터도 없는, 힘든 때니까 그거 막 새품 감아서 요만큼하게 해서 아침에 밧에 갈 때 붙여서 가면 종일 사는 거 같아.)

106035 #2 것ㄴ라 뭘엔 곱아?(그것 보고 뭘라고 말해?)

106035 #1 그 이름도 잊어불어졌저. 산 곧 곱아지크라라만은.(그 이름도 잊어버렸어. 아까는 곧 말해지겠던데.)

106035 #2 사 무신거엔 곧는 거, 신이여 뭐여.(아까 뭐라고 말하는 거, 신이다 뭐다.)

106035 @ 할아버지 알아지는 거 다했디 아니파?(할아버지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106035 #2 나도 모르큰게. 하이트 뜻은 알아지는디.(나도 모르겠어. 하이트 뜻은 알겠는데.)

106035 @ 해심 이런 거 아니파?(화승 이런 거 아닙니까?)

106035 #1 해심, 해심.(화승, 화승)

106035 @ 기지예.(그렇지요.)

106035 #2 해심, 해심.(화승, 화승.)

106035 #1 그것이 해심. 혼 발은 허게 밧디 하르방덜, 불쌍허게시리.(그것이 화승. 한 발은 허게 밧에 할아버지들, 불쌍하게.)

106035 @ 엇이난게, 라이타 엇이난.(없으니까, 라이터 없으니까.)

106035 #1 담배 꺾구정 허난. 담배도 무신 담배나 담배 다했을 걸 피와서? 헛지룩 현 풀이파리 다했을 거.(담배 피고 싶으니까. 담배도 무슨 담배나 담배 같은 걸 피웠어? 허튼 풀잎 같은 거.)

106035 @ 계난예. 짚신도 종류가 이수과? 무슨 짚신, 무슨 짚신.(그러니까요. 짚신도 종류가 있습니까? 무슨 짚신, 무슨 짚신.)

106035 #1 그 상 난 땀 신는 신 이름은 모르크라.(그 상 났을 때 신는 신 이름 모르겠어.)

106036 @ 아니, 짚신 아까 초신, 초신. 초신 종류가 무신 초신, 무신 초신 이서?(아니, 짚신 아까 짚신, 짚신. 짚신 종류가 무슨 짚신, 무슨 짚신 있어?)

106036 #1 아이고, 이름은 엇인다.(아이고, 이름은 없는데.)

106036 @ 각 내왕 허는 것도 잇고 각 안 내왕 그냥 허는 것도 이수과?(총 내서 하는 것도 잇고 총 안 내서 그냥 하는 것도 있습니까?)

106036 #2 각 냅지 안허민 발가락이 댜어게? 모양이 안 댜지.(총 내지 않으면 발가락이 댜? 모양이 안 댜지.)

106036 @ 모양이 안 댜여?(모양이 안 댜?)

106036 #1 각 내웁지 안허는 거는이 이제는 상제덜이 그런 초신을 안 신는디 상제들은 삼아가명 놀이 네 개베끼 안 댜거라. 그것이 상제신 초신.(총 내지 않는 거는 이제는 상주들이 그런 짚신을 안 신는데 상주들은 삼아가면서 총이 네 개밖에 안 댜 거야. 그것이 상주신 짚신.)

106036 @ 아.(아.)

106036 #1 또 우리 보통으로 신는 건 놀이 어만큼 꺾냐면 이거보다 꺾늘아이.(또 우리 보통으로 신는 건 총을 얼마만큼 꺾냐면 이거보다 가늘어.)

106036 @ 응.(응.)

106036 #1 이거보단 꺾늘게 꺾양 막 삼아가명 새드레 문 놓멍 꺾양 신을 멘들



아 주는디 아주 초신도이 고급초신이 이서이. 깍이 이만큼씩 헤여이. 검색검색하민.(이거보다 가늘게 꼬아서 막 삼아가면서 새에 모두 놓으면서 꼬아서 신을 만들어 주는데 아주 짚신도 고급 짚신이 있어. 총이 이만큼씩 해. ‘검색검색’하면.)

106036 #2 노랑헌 물도 들고고.(노란 물도 들고고.)

106036 #1 노랑물에 낱 솥앙 꼭 저 색깔이라.(노란 물에 놔서 삶아서 꼭 저 색 깔이야.)

106036 @ 응.(응.)

106036 #1 저 색깔 웬 걸 신을 헤영 신으민 잘도 예빠.(저 색깔 된 걸 신을 해서 신으면 잘도 예빠.)

106036 @ 아.(아.)

106036 #1 잘도 고면은 그건이 특별하게 시집가는 새각시 헐다하는 집이서 그 신을 주문허영이 주문헤여근앵이 건 신, 다른 신 위에 이건 특별히 해당 줘, 새각시를.(아주 고우면 그것이 특별하게 시집가는 새색시 헐다하는 집에서 그 신을 주문해서 주문해서 그건 신, 다른 신 외에 이건 특별히 해다 줘, 새색시를.)

106036 @ 건 무신 신이엔 안 곱아?(그건 무슨 신이라고 안 말해?)

106036 #1 아이고, 거 신은 몰라. 줌진 신인디 진짜 참 멋지긴 헤여.(아이고, 거 신은 몰라. 자잘한 신인데 진짜 참 멋있긴 해.)

106036 @ 아. 노랑헌 물들영, 노랑헌 물은 무신 걸로 물들이는 거파?(아, 노란 물들여서, 노란 물은 뭐로 들이는 겁니까?)

106036 #1 산뒤집에 그만씩 놀 멘들암직허게 만들야. 요만씩허게시리 요만씩허게 만들앗당 그자 꼬양 이추룩 꼬아져, 꼬아져 그 놀이 영 꼬아진 거 영영 부찌멍 신 멘드는디 것에 어떻 산뒤집을 솥으멍사 저 물을 들여신디 몰르크라. 상준이 어멍이 그걸 잘허여, 상준이 아방이 잘허고. 경헌디 그 신 허영 삼앙 주민이 이디 창 받아.(발벗짚에 그만큼씩 날 만들었을 듯하게 만들어. 요만큼씩하게끔 요만큼씩하게 만들었다가 그냥 꼬아서 이렇게 꼬아, 꼬아서 그 날이 이렇게 꼬아진 거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서 신 만드는데 그것에 어떻게 발벗짚을 삶으면서 저 물을 들였는지 모르겠어. 상준이 어멍이 그걸 잘해, 상준이 아버지 잘하고. 그런데 그 신 해서 삼아 주면 여기 창 받아서.)

106036 @ 어떻 뭘로?(어떻게 뭘로?)

106036 #1 고무로.(고무로.)

106036 @ 아, 짚신에 밑에 창을 고무로.(아, 짚신에 밑에 창을 고무로.)

106036 #1 응, 짚신이 아니고 고무신보다 더 귀허게 생각허여, 그 신을. 이디 영 허민 막 곱게 창을 받으민이 고무신 쥔 안 바꾸게 걸 옛날은 멘들아라. 게민 곱게 신으민 노랑헌 깍에 이디 창 받아놓곡 허민 곱긴 고와.(응, 짚신이 아니고 고무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 그 신을. 여기 이렇게 하면 아주 곱게 창을 받으면 고무신 줘서 안 바꾸게 그걸 옛날은 만들더라. 그러면 곱게 신으면 노란 총에 여기 창 받아 놓고 하면 곱긴 고와.)

106036 @ 짚신은 영 돼민 요게, 요기 세로로 허는 게 깍? 이게 깍? 이게 놀?  
(짚신은 이렇게 되면 요게, 요기 세로로 하는 게 총? 이게 총? 이게 날?)

106036 #1 놀은 이 아래 잇주, 이 새에. 이것이 놀이라. 이 새에 놀은 잇고. 이 아래.(날은 이 아래 있지, 이 사이에. 이것이 날이야. 이 새에 날은 잇고.이 아래.)

106036 @ 아래가 놀이고.(아래가 날이고.)

106036 #1 응, 이디는 깍이고.(응, 여기는 총이고.)

106036 @ 이건 깍이고.(이건 총이고.)

106036 #1 요만이 부쩌가민 또 공간 생겨. 공간 생기민 또 이디 가민 놀 하나가 또 크게 생겨. 게민 이딘 가민 막 쫘아져근앵이 두척이 멘들아, 두척이.(요만큼 붙여가면 또 공간 생겨. 공간 생기면 또 여기 가면 날 하나가 또 크게 생겨. 그러면 여긴 가면 막 좁아져서 뒤축 만들아, 뒤축.)

106036 @ 예. 두척이. 요 우에 요거는 뭐엔 굴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디, 이 우에.(예. 뒤축. 요 위에 요거는 뭐라고 말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데, 이 위에.)

106036 #1 이런 디 이젠 이 놀에 신놀이 또 있어. 깨는깨는헌 요런 놀을 고냥마다 다 꿰영 영 돌아와. 영 돌아오몬 이깎지 막 왕 믈쳐져.(이런 데 이젠 이 날에 신날이 또 있어. 가는가는한 요런 놀을 구멍마다 다 끼워서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까지 막 와서 마쳐져.)

106036 @ 응.(응.)

106036 #1 경허민 또 그 새로이 요추룩 헌 거, 곤 거 신깍 새로 다 이걸 다 예끼민 고와. 영영. 곤 신은. 잘도 고와.(그러면 또 그 새로 요렇게한 거, 고운 거 신총 새로 다 이걸 다 엮으면 고와. 이렇게 이렇게. 고운 신은. 아주 고와.)

106036 @ 응.(응.)

106036 #1 초신도 세 가지 썸은 똥켜.(짚신도 세 가지 썸은 되겠네.)

106036 @ 이름은 잘 모르겠고예?(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106036 #1 응.(응.)

106036 #2 아이고, 알아져? 이거 육칠십 년 웬디.(아이고, 알 수 있어? 이거 육칠십 년 됐는데.)

106036 #1 몰라, 거 초신이엔만 헤나부난.(몰라, 그거 짚신이라고만 했어서.)

106036 @ 초신이엔만 헤난예.(짚신이라고만 했어요.)

106036 #1 아이고, 초신. 초신도 잘도 고와. 그 초신 경헌 말만.(아이고, 짚신. 짚신도 아주 고와. 그 짚신 그런 말만.)

106036 @ 초신은 다 아까 미뻬쟁이로 헌 거 잇고 산똥썸으로 헌 거 잇고.(짚신은 다 아까 새품으로 한 거 잇고 발뻬짚으로 한 거 잇고.)

106036 #1 미뻬쟁이는 다 미뻬쟁이 들어가, 이거는. 질기게.(새품은 다 새품 들어가, 이거는. 질기게.)

106036 #2 놀, 놀.(날, 날.)

106036 @ 놀은 다 미빠쟁이로예.(날은 다 새품으로요.)

106036 #1 질겨, 질겨.(질겨, 질겨.)

106036 @ 그럼 아까 산뒤집으로 헨 거 잇고.(그럼 아까 밭벗짚으로 한 거 잇고.)

106036 #1 산뒤집은 이 바닥 짜가는 거.(밭벗짚은 이 바닥 짜가는 거.)

106036 @ 응. 아, 바닥만 산뒤집으로 허는 거꽈?(응. 아, 바닥만 밭벗짚으로 하는 겁니까?)

106036 #1 각도 산뒤집으로 곱게 믈디 끈어똥 허는 디가 잇고.(총도 밭벗짚으로 곱게 마디 끊어두고 하는 데가 잇고.)

106036 @ 아까 그믐 미빠쟁이는 놀만 허는 거꽈?(아까 그러면 새품은 날만 하는 겁니까?)

106036 #1 놀만 허고 아랫놀도 허고 요디 영 해가는 놀도 그걸로.(날만 하고 아랫날도 하고 요기 이렇게 해가는 날도 그걸로.)

106036 @ 응.(응.)

106036 #1 이디 건 놀이 훑고 요디 꿰는 건 놀이 ㄴ놀아.(여기 그건 날이 굵고 요기 꿰는 건 날이 가늘어.)

106036 @ 게민 아까 무신 삼으로도 험니까?(그러면 아까 무슨 삼으로도 험니까?)

106036 #1 삼이 아니고 거 해영헌 걸로 이디 둘르는 거, 무시건고 것이. 이 바우는 해영헌 걸로 둘러져. 곱닥허게 이디도 상허지 안허게 경허는 거 닙아. 거 연허영.(삼이 아니고 그거 하얀 걸로 여기 두르는 거, 무엇인가 그것이. 이 가장자리는 하얀 걸로 둘러졌어. 곱게 여기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 같아. 그거 연해서.)

106036 @ 무신걸로 허는지는 몰르고?(무엇으로 하는지는 모르고?)

106036 #2 하도 오래부난 뭘 알아지크라? 그자 초신이엔만 알아먹주.(아주 오래되어 버리니까 뭘 알겠어? 그냥 짚신이라고만 알지.)

106036 #1 신각 내레 감저, 무시거 험저, 어른덜도 그런 거 허레 가. 놀레 가명도 걸 이젠 벌이로사 험신디사.(신총 내려 간다, 무엇 한다, 어른들도 그런 거 하러 가. 놀러 가면서도 그걸 이젠 벌이로야 하는지.)

106036 #2 저런 제라헌 초신은 쟁이가 이서.(저런 제대로 된 짚신은 장이가 있어.)

106036 @ 무신거가 이서마씨?(무엇이 있어요?)

106036 #2 멘드는 쟁이가.(만드는 장이가.)

106036 @ 아, 멘드는 쟁이가 이서.(아, 만드는 장이가 있어.)

106036 #2 전문가가 이서. 아무나 못헤.(전문가가 있어. 아무나 못해.)

106036 #1 그냥 이넉 신허고 이넉냥으로 밧디 텡기명 허는 건 거치령이 신영 텡기고. 푼는 사름은 곱게 행 풀주만은. 이제도 어디 신 허는 건 보민 삼아가명 깍을 내명 툃툃 부찌는 거 닙안게. 초신 이름을 내올 수가 엇인 거라, 이거.(그냥 자

기 신하고 자기대로 발에 다니면서 하는 건 거추장스럽게 신어서 다니고. 파는 사람은 곱게 해서 팔지만은. 이제도 어디 신 하는 건 보면 삼아가면서 총을 내면서 툭툭 붙이는 거 같아 짚신 이름을 내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106036 @ 짚신을 삼을 때 총을 따로 내지 않고 만들어 가면서 총을 꼬아서.(짚신을 삼을 때 총을 따로 내지 않고 만들어 가면서 총을 꼬아서.)

106036 #2 꼬으멍 허여.(꼬면서 해.)

106036 @ 허는 짚신이 잇고.(하는 짚신이 잇고.)

106036 #1 응, 깝 내어.(응, 총 내어서.)

106036 @ 총을 따로 꼬아서 붙여서 하는 신.(총을 따로 꼬아서 붙여서 하는 신.)

106036 #2 제라헌 거.(제대로 된 거.)

106036 @ 예, 이름은 무신거엔 굴아마씨?(예,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106036 #2 몰라, 우린 초신이엔만 해부난.(몰라, 우린 짚신이라고만 해버리니까.)

106036 @ 둘다 초신.(둘다 짚신.)

106036 #1 응, 다 이것도 초신, 저것도 초신. 우리 두린 때.(응, 다 이것도 짚신, 저것도 짚신, 우리 어린 때.)

106036 @ 아까처럼 삼, 삼으로. 베로 해근에 허는 건 엇어마씨, 짚신?(아까처럼 삼, 삼으로. 베로 해서 하는 건 없어요, 짚신?)

106036 #2 엇어. 벤 엇어.(없어. 베는 없어.)

106036 @ 삼으로 짜는 거.(삼으로 짜는 거.)

106036 #1 삼으로 짜는 건 엇일 거라. 질김은 현 건디.(삼으로 짜는 건 없을 거야. 질기기는 한 건데.)

106036 @ 그런 것도 봐놔수과?(그런 것도 봤었습니까?)

106036 #1 아니, 삼 갈았당이 삼 꺾테기 벳경.(아니, 삼 갈았다가 삼 꺾테기 벳겨서.)

106036 @ 응, 그걸로도 초신 만듭니까?(응, 그걸로도 짚신 만듭니까?)

106036 #1 베는 꼬는 거 봤어, 건. 깝는깝는허게. 것도이 막 단장해사, 이파리 돌아난 디도 멩텅구리지.(베는 꼬는 거 봤어, 그건. 가는가는하게. 그것도 막 단장해야. 이파리 돌아났던 데도 멩텅구리지.)

106036 @ 게난 삼으로도 허긴 허는구나예, 짚신예?(그러니까 삼으로도 하긴 하는군요, 짚신요?)

106036 #1 질기게.(질기게.)

106036 #2 모시 꺾테기 벳긴 거 진이엔 현 거 그것도 아주 질기주.(모시 꺾테기 벳긴 거 ‘진’이라고 한 거 그것도 아주 질기지.)

106036 @ 그걸로도 신 삼습니까?(그걸로도 신 삼습니까?)

106036 #2 아무거나 질김만 허민 허여, 다.(아무거나 질기기만 하면 해, 다.)

106036 @ 아, 질김만 허민.(아, 질기기만 하면.)

106036 #1 신도 삼으명이 요런 디고 요 뒤척이고이 험벅 질긴 거이 거 산뒤짚에 서끄멍 영 못아가. 질기게.(신도 삼으면서 요런 데고 요 뒤축이고 형짚 질긴 것 그것 발벗짚에 섞으면서 이렇게 마쳐가. 질기게.)

106036 @ 아, 헐카부덴.(아, 헐까봐.)

106036 #1 이디 거 닳아가민 이디 놀이 나올 거 아니게.(여기 그거 닳아가면 여기 총이 나올 거 아니냐.)

106036 @ 예.(예.)

106036 #1 그 놀 끈어져 가민 신이 데껴부는 거. 이디 놀이 날똥말똥 해가민 신을 이거 초신 나가 신어시민 이것도 영 데쌍 초신을 영 데쌍 또 신어.(그 총 끊어져 가면 신을 던져버리는 거. 여기 날이 날듯말듯 해가면 신을 이거 짚신 내가 신었으면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서 짚신을 이렇게 뒤집어서 또 신어.)

106036 @ 하하하.(하하하.)

106036 #1 또 신으민은 이것이 이젠 다 헐어버리민 각도 나가불곡 다해가민 벗영 데껴볼 거.(또 신으면 이것이 이젠 다 헐어버리면 총도 나가버리고 다해가면 벗어서 던져버릴 거.)

106036 @ 한 번 데싸근에 또 신어?(한 번 뒤집어서 또 신어?)

106036 #1 이거 이디 놀 나기 전이 데쌍 신어사 오래 신주. 이디 놀 남 시작하민 해싸져불영 신을 나우가 엇어. 서끄멍 짜 질기게. 신 삼는 하르방 이디 무신 질긴 험벅 시민 줍질게 깨다근에 깨당.(이거 여기 날 나기 전에 뒤집어서 신어야 오래 신지. 여기 날 나기 시작하면 해져버려서 신을 나위가 없어. 섞으면서 짜 질기게. 신 삼는 할아버지 여기 무슨 질긴 형짚 있으면 가늘게 쪼개어서 쪼개다가.)

106036 #2 옛날 삶이 삶이라?(옛날 삶이 삶이야?)

106036 #1 삶이나 죽음이나 그때 풍습이 그런 걸.(삶이나 죽음이나 그때 풍습니 그런 걸.)

106036 @ 옛날 아무것도 엇이난 헐 수가 엇주마씨게. 늬도 다 경 살았주.(옛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남도 다 그렇게 살았지.)

106036 #2 것도 우리가 연령이 이십 세만 나민 해도 두린 때 헤시난게.(그것도 우리가 연령이 이십 세만 나면 해도 어린 때 했었으니까.)

106036 #1 아이고. 저 하르방 산 때도 좋은 때우다. 더 웃대 하르방은 더 못 건디게 살아실 건디 그 생각을 못허는 하르방이라.(아이고, 저 할아버지 산 때도 좋은 때입니다. 더 웃대 할아버지는 더 못 건디게 살았을 건데 그 생각을 못하는 할아버지야.)

106036 #2 나가 아이고 스무 설 미만에 요남은 살에 문직아난 거 닳다. 게난 왁 왁허주.(내가 아이고 스무 살 미만에 여남은 살에 만졌던 거 같다. 그러니까 캄캄하지.)

106036 #1 하르방덜 헐 때 느도 이거 흥여 보라 허난 뭇 엇이 문직아 봐실 테

주.(할아버지들 할 때 너도 이거 해 봐라 하니까 무엇 없이 만져봤을 테지.)

106036 #2 하르방 다 죽어붙고 나도 일본서 오난 아버지 시대에 배워준 거난 허는 거 보멍. 보기엔 쉬와 배우게.(할아버지 다 죽어버리고 나도 일본서 오니까 아버지 시대에 배워준 거니까 하는 거 보면서. 보기엔 쉬워 보이지.)

106036 #1 신 삼은 거 신어본 적도 었다, 난.(신 삼은 거 신어본 적도 없다, 난.)

106036 @ 경해도 잘도 알암저, 할머니.(그래도 잘 아는데, 할머니.)

106036 #2 할망 잘 아네. 여자가 어떻 잘 알암저?(할머니 잘 아네. 여자가 어떻게 잘 알아?)

106036 #1 놀레 텅기멍 아무 때도 졸린 잘 돌아진 생인ㄴ라. 아이고, 상준이 아방 신 삼는 거 보민 참 멋져.(놀러 다니면서 아무 때도 ‘졸리’는 잘 돌아왔던 모양인지. 아이고, 상준이 아버지 신 삼는 거 보면 참 멋있어.)

106036 @ 상준이 아방은 이제도 살았수과?(상준이 아버지는 이제도 살았습니까?)

106036 #1 아이고, 우리 어린 때가 막 늙은 하르방인디.(아이고, 우리 어린 때가 아주 늙은 할아버진데.)

106036 @ 그믄 이제 함덕에선 신 삼아난 거 알아지는 하르방 엇인가?(그럼 이제 함덕에선 신 삼았던 거 아는 할아버지 없나?)

106036 #2 이디 다 죽어분디.(여기 다 죽어버렸는데.)

106036 @ 다 죽어분 철이파?(다 죽은 셈입니까?)

106036 #2 이구에서 나가 켈 고령자라.(이구에서 내가 켈 고령자야.)

106036 @ 다른 삼구나 사구도?(다른 삼구나 사구도?)

106036 #1 삼아난텐 해도이 삼는 거 보아남이나 허주. 옛날ㄴ추록 주로 신 삼앙 풀곡 해난 하르방덜이 었어. 삼는 거 봤당 그자 장난 비시름이 멘들아나 본 하르방은 혹시 실티사. 우리 아주방네나 그런 거 봐신디사. 그 하르방이양 성씨 시하르방이 신을 정 곱게 삼아났어.(삼았었다고 해도 삼는 거 보거나 하지. 옛날처럼 주로 신 삼아서 팔고 했던 할아버지가 없어. 삼는 거 봤다가 그제 장난 비슷하게 만들어나 본 할아버지는 혹시 있을지. 우리 아주버니네나 그런 거 봤었는지. 그 할아버지가 성씨 시할아버지가 신을 그렇게 곱게 삼았었어.)

106036 #2 누게?(누구?)

106036 #1 국선이 왕하르방.(국선이 왕할아버지.)

106036 #2 게주만은 국선이 아방 알아?(그렇지만 국선이 아버지 알아?)

106036 #1 몰라.(몰라.)

106036 #2 왁왁이주.(캄캄이지.)

106036 #1 신을 삼앙 신는가만 허주.(신을 삼아서 신는가만 하지.)

106036 #2 하이튼 구십 세 위에 하르방은 또 었고, 었어. 우리 이구에도 으든이 고령자가 웬디 어떻힐 거라.(하여튼 구십 세 위에 할아버지는 또 없고, 없어. 우리

이구에도 여든이 고령자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 모자 등

106042 @ 옛날에 이 동네선 옷 짜고 영 허는 건 안헤낫수과?(옛날에 이 동네선 옷 짜고 이렇게 하는 건 안 했었습니까?)

106042 #1 안 헨.(안 했어.)

106042 @ 그런 건 안 헤난예. 탕건은 헤낫수과?(그런 건 안 했었어요. 탕건은 했었습니까?)

106042 #1 탕건, 탕건은 잘 헤낫주.(탕건, 탕건은 잘 했었지.)

106042 @ 할머니 옛날 탕건 헤난 말 흥뽀 굴아줍서. 어떻 헤근에 탕건 허는 거 파?(할머니 옛날 탕건 했던 말 조금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탕건 하는 겁니까?)

106042 #1 요만큼은 이제 낭으로 뱅뱅 까까는 것ㄴ라 챗데귀<sup>152)</sup>엔 헤이. 그디 탕건허는 연장을 다 놔 그 소곱에.(요만큼은 이제 나무로 뱅뱅 깎아놓은 것 보고 ‘챗데귀’라고 해. 거기 탕건 하는 연장을 다 놔 그 속에.)

106042 @ 예.(예.)

106042 #1 나까와리<sup>153)</sup> 쓰단 모자 헨 거 시민 그거 챗데귀 우에 톡 씨우민 곱 닥허여. 게민 그레 놓민 그레 탕건골<sup>154)</sup> 놓고 탕건허는 연장 다 놓고.(중절모 쓰다가 모자 헨 거 있으면 그거 ‘챗데귀’ 위에 톡 씨우면 고와. 그러면 그리 놓으면 그리 ‘탕건골’ 놓고 탕건하는 연장 다 놓고.)

106042 @ 이거 챗데귀?(이게 ‘챗데귀’?)

106042 #1 응, 이거 챗데귀지, 이거. 이건 뭇인고?(응, 이거 ‘챗데귀’지, 이거. 이 건 무엇인고?)

106042 @ 탕건골.(‘탕건골’.)

106042 #1 탕건골. 이거는 잘 헤낫어 우리가.(‘탕건골’. 이거는 잘 했었어, 우리가.)

106042 @ 챗데귀 헤근에. 나까와리 모자라도 영 놔근에.(‘챗데귀’ 해서. 중절모라도 이렇게 놔서.)

106042 #1 이거 나까와리 모자 대신 논 거라, 이것이.(이거 중절모 대신 놓은 거야, 이것이.)

106042 @ 예, 예. 그거 놔근에.(예, 예. 그거 놔서.)

106042 #1 그 우트레 이제 바치는 것이 이서. 요만인 헨 거, 동글락헨 거. 요 새에 놓민 이 탕건골이 둥글어나질 안허여, 챗데귀 속에 놔도.(그 위에 이제 받치는 것이 있어. 요만큼한 거, 동그란 거. 요 사이에 놓으면 이 ‘탕건골’이 달아나지 않아, ‘챗데귀’ 속에 놔도.)

152) ‘챗데귀’는 탕건을 결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을 결을 때 탕건골을 받치는 데 쓰인다.

153) ‘나까와리’는 ‘나까오리’라고도 하며 일본어 ‘なかおれ’에서 온 말로 중절모를 말한다.

154) ‘탕건골’은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이다.

106042 @ 응.(응.)

106042 #1 탕건을 막 해가도 그자 막 해똥 요까지 가민 영 돌령 또 영 해도 이것이 안 둥글어나, 탕건골이. 정허민 요것이 요딜 허, 요걸 짜젠 허민 요만이 짜면 멧 동이 이서.(탕건을 막 해가도 그저 막 해똥서 요까지 가면 이렇게 돌려서 또 이렇게 해도 이것이 안 달아나, ‘탕건골’이. 그러면 요것이 요길, 허, 요걸 짜려고 하면 요만큼 짜면 멧 동이 있어.)

106042 @ 예.(예.)

106042 #1 멧 동 허면은 다 똥 거라. 연발<sup>155)</sup>이엔 현 거 이서.(멧 동 하면 다 똥 거야. ‘연발’이라고 한 것이 있어.)

106042 @ 연발?(‘연발’?)

106042 #1 응, 연발.(응, ‘연발’.)

106042 @ 건 뭘로 만든 거마씨?(그건 뭘로 만든 거예요?)

106042 #1 그때는 쇠뿔로 거 멘든 거라. 이젠 험시민 플라스틱 존 걸로 허민 다 똥 수 잇는 건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엇어부난 연발로 실 걸어놔 막 늘똥. 늘똥 이젠 요 못덜에 다 걸어이.(그때는 쇠뿔로 그거 만든 거야. 이젠 하고 있으면 플라스틱 좋은 걸로 하면 다 똥 수 잇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버리니까 ‘연발’로 실 걸어 놔서 막 늘려. 늘려서 이젠 요 못들에 다 걸어.)

106042 @ 응.(응.)

106042 #1 걸어놔 또 요만이 늘똥 노민 우틀로 또 걸영 또 못아. 요딘 으뎡 동 못는디 요딘 가민 석 동 반 못앙 늘똥 이젠 영 우즙앙, 이젠 또 요 영 똥 이걸 막 서이, 세여<sup>156)</sup>.(걸어놔서 또 요만큼 늘려 놓으면 위틀로 또 걸어서 또 마쳐. 요긴 여뎡 동 마치는데 요긴 가면 석 동 반 마쳐서 늘려서 이젠 이렇게 위 접어서, 이젠 또 이렇게 놔서 이걸 막 ‘서이’, ‘세여’.)

106042 @ 세여?(‘세여’?)

106042 #1 줄을.(줄을.)

106042 @ 예.(예.)

106042 #1 줄은 세여 놓민 이까지 강 못쳐두곡 요디 강 다 못쳐두고. 요것이 백 스무 겔 거라.(줄을 ‘세여’ 놓으면 여기까지 가서 마쳐두고 요기 가서 다 마쳐두고. 요것이 백 스무 겔 거야.)

106042 @ 백스무 개?(백스무 개?)

106042 #1 응, 콧수가.(응, 콧수가?)

106042 @ 콧수가.(콧수가.)

106042 #1 백스무 갠디 다 허여놓면은 구갑<sup>157)</sup>을 허여이.(백스무 갠디 다 해놓으면 ‘구갑’을 해.)

155) ‘연발’은 ‘이연발’이라고도 하며 탕건을 걸을 때 쓰는 연장으로 탕건을 걸다가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탕건과 탕건골 사이에 넣은 것이다.

156) ‘세이다’는 ‘서이다’라고도 하며 탕건을 걸을 때 날줄마다 말총 서너 가닥 씩 지르면서 감치는 것이다.

157) ‘구갑’은 탕건을 만들 때 가장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106042 @ 구갑?('구갑'?)

106042 #1 구갑.('구갑'.)

106042 @ 구갑은 무신거마씨?('구갑'은 뭐예요?)

106042 #1 이 바우 멘드는 거.(이 가장자리 만드는 거.)

106042 @ 아, 바우 멘드는 게 구갑.(아, 가장자리 만드는 게 '구갑'.)

106042 #1 정해놓민 이 바우를 두 번을. 한 번 문 때 가놔 또 재불 돌아왕 허민 이거 다 웬 거. 요 상통이 가면은 또 요런 상제엔 헤이. 상제가 요영헌 건디 또 그 디도 강 요 탕근 줄 서이듯 세영 강 끝말이 뒤편은 이견 다 못아진 거게.(그렇게 해 놓으면 이 가장자리를 두 번을. 한 번 만 때 가놓고 또 두 번째 돌아와서 하면 이 거 다 된 거. 요 상투 가면은 또 요런 '상제'라고 해. '상제'가 이렇게 한 건데 또 거기다 가서 요 탕건 줄 '서이듯' '세어서' 가서 끝말이 되면 이견 다 마쳐진 거.)

106042 @ 응.(응.)

106042 #1 이거ㄱ지는 우리가 안 해나신디 경허민 다 이것이 다 뒤편은 이거 탕건골인디 요 챗더귀 낫단 것이 탕건 줄루는 것이 이서이.(이거까지는 우리가 안 했었는데 그러면 다 이것이 다 되면은 이거 '탕건골'인데 요 '챗더귀' 났다가 그것이 탕건 조이는 것이 있어.)

106042 @ 줄루는 거?(조이는 거?)

106042 #1 응, 막대기 요만한 것에 끈에기 막 질긴 저 노꾸베 닳은 거 요만한 거 행 삶아.(응, 막대기 요만한 것에 끈 아주 질긴 저 노끈 같은 거 요만한 거 해서 삶아.)

106042 @ 예.(예.)

106042 #1 탕근을 탕근골차 낱 솟디 낱 삶으면은 흐끔 이것이 흔들흔들 허면은 이것이 그 노꼴으로 막 제와. 제와노난 이것이 툃진 거라이.(탕건을 '탕건골'째 놔서 솥에 놔서 삶으면 조금 이것이 흔들흔들 하면은 이것이 그 노끈으로 막 조여. 조여 놓으니까 이것이 툃진 거야.)

106042 @ 아까 노꼴이 뭐마씨?(아까 '노꼴'이 뭐예요?)

106042 #1 이제 ㄱ뜨민이 줄게.(이제 같으면 줄.)

106042 @ 노끈?(노끈?)

106042 #1 끈에기. 옛날은 그것이 주낙술이엔 허여.(끈. 옛날은 그것이 주낙줄이라고 해.)

106042 @ 주낙술?('주낙줄'?)

106042 #1 응, 주낙술 해난.(응, 주낙줄 했었어.)

106042 @ 주낙술, 예.(주낙줄, 예.)

106042 #1 현 것덜 해다 낱 요만이 낭께기 끈 들렁 요디 또 탕근 소굽에 못이 박아진 게 이서. 그것에 걸 툃허영, 삶아놔 이거 막 줄라. 뱅뱅 줄르민 이추록 툃지는 거라, 이거.(현 것들 해다 놓고 요만큼 나무막대기 끈 들어서 요기 또 탕건 속에 못이 박힌 게 있어. 그것에 그걸 툃해서, 삶아 놓고 이거 막 조여. 뱅뱅 조이면 이

렇게 턱지는 거야, 이거.)

106042 @ 아.(아.)

106042 #1 저민 영 민지글락 해난 건디 이것이 툃진 거라. 게민 이젠 벋디 놓나 어디 낱 막 물러, 이놈으 곁.(그러면 이렇게 미끈했던 건데 이것이 턱진 거야. 그러면 이젠 벌에 놓거나 어디 놔서 막 말려. 이놈의 곁.)

106042 @ 예, 예.(예, 예.)

106042 #1 들류민 요디 구갑이엔 헌 거, 다 실로 몬 얹어졌어. 게민 칼끗으로 이 안으로 툃툃 툃으민 요것이 벋겨져. 저민 이대로 오고생이 요추룩 나와.(말리면 요기 ‘구갑’이라고 한 거, 다 실로 모두 얹어졌어. 그러면 칼끝으로 안으로 툃툃 툃으면 이것이 벋겨져. 그러면 이대로 고스란히 요렇게 나와.)

106042 @ 칼은 무슨 칼?(칼은 무슨 칼?)

106042 #1 아무 칼이라도.(아무 칼이라도.)

106042 @ 아무 칼이라도.(아무 칼이라도.)

106042 #1 ㄱ새 꾀으로라도 이디 눈썹<sup>158)</sup>이엔 행 이 탕건골에 고망 툃라졌어. 요만씩 요만씩.(가위 끝으로라도 여기 ‘눈썹’이라고 해서 이 ‘탕건골’에 구멍 뚫어졌어.)

106042 @ 눈썹?(‘눈썹’?)

106042 #1 눈썹.(눈썹.)

106042 @ 그디 저 실 ㄴ작 남은 거?(거기 저 실 매듭 남은 거?)

106042 #1 응, 요디 이 우트레 올라가지 못허게 막 땡겨도 올라가지 못허게 요만씩 고망 툃라진 것이 이서. 저민 그걸로 막 땡허게 혼 도리 돌아와. 돌아오민 이 건 늘봐도 아니 벋어지민 이제 말젠 다 완료돼영 탕건 해영 삶앙 파썩 둘랑 벋길 땡 그 실을 툃툃 안트로 끈어붙민 것이 뽉 빠민 탕건골<sup>159)</sup>은 탕건골대로 나오고 이 탕건은 탕건대로 나와. 저민 완료돼영 이젠 다 땡면은 오일에 혼 번허는 장에, 장에 폴레 가.(응, 요기 이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 땡겨도 올라가지 못하게 요만큼씩 구멍 뚫린 것이 있어. 그러면 그걸로 막 땡허게 한 도리 돌아와. 돌아오면 이 건 늘려도 안 벋겨지면 이젠 말젠 다 완료되어서 탕건 해서 삶아서 바썩 말려서 벋길 땡 그 실을 툃툃 안으로 잘라버리면 그것에 ‘뽉’ 빠면 ‘탕건골’은 ‘탕건’골대로 나오고 이 탕건은 탕건대로 나와. 그러면 완료되어서 이젠 다 땡면 오일에 한 번하는 장에, 장에 팔러 가.)

106042 @ 예.(예.)

106042 #1 우린 이거 혼 장<sup>160)</sup>에이, 두 장 올영 줌진탕건<sup>161)</sup> 세 개허민 막 바빠. 밤이도 줌도 못 자고.(우린 이거 한 장에, 두 장 위해서 ‘줌진탕건’ 세 개하면 막 바빠. 밤에도 줌도 못 자고.)

158) ‘눈썹’은 탕건을 곁을 때 총을 매듭짓고 남은 것을 말한다.

159) ‘탕건골’은 탕건을 곁을 때 쓰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이다.

160) ‘혼 장’은 오일장이 한 번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5일 동안의 의미다.

161) ‘줌진탕건’은 ‘가는 탕건’의 뜻으로 줄 수가 150개, 둘레 수가 120개 정도의 탕건을 말한다.

106042 @ 아까 혼 장에 줌진탕건을 세 개해?(아까 한 장에 ‘ضمام진탕건’을 세 개 해?)

106042 #1 두 겔 허젠 허민.(두 개를 하려고 하면.)

106042 @ 혼 장에 두 개? 두 장에 세 개?(한 장에 두 개? 두 장에 세 개?)

106042 #1 두 장에 세 겔 허젠 허민 막 바빠.(두 장에 세 개를 하려고 하면 아주 바빠.)

106042 @ 두 장이민 열홀예?(두 장이면 열홀요?)

106042 #1 응.(응.)

106042 @ 열홀에 세 개?(열홀에 세 개?)

106042 #1 이거 세 겐 허젠 허민 막 바빠. 경헌디 그때 장 보렐 못 가. 요런 바 우 완료시키질 못헐.(이거 세 개는 하려고 하면 아주 바빠. 그런데 그때 장 보려 못 가. 이런 가장자리 완성시키지 못해서.)

106042 @ 응.(응.)

106042 #1 경헐 풀앙.(그렇게 해서 팔아서.)

106042 @ 응, 이거 풀민 얼마나 줘니까?(응, 이거 팔면 얼마나 줘니까?)

106042 #1 아이고, 그때 얼마 줘서게? 돈이게.(아이고, 그때 얼마 줬어? 돈이.)

106042 @ 돈으로 안헐 쏘로 허민 얼마나 줄 거라?(돈으로 안하고 쌀로 하면 얼마나 줄 거야?)

106042 #1 쏘로도 못 받아, 이거. 장날 가사 이거 받아가는 사람이 이서.(쌀로도 못 받아, 이거. 장날 가야 이거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

106042 @ 아.(아.)

106042 #1 게민 이것도 좋아사이 허주이. 막 이거 들렁 탕건 헐 영 막 벳디 낱 잘 뒹고 안 뒹 거 막 봐. 사가는 사람덜이.(그러면 이것도 좋아야 하지. 막 이거 들어서 탕건 해서 이렇게 막 별에 놔서 잘 되고 안 된 거 막 봐. 사가는 사람들이.)

106042 @ 무슨, 거난 탕건도 영근탕건 뒹.(무슨, 그러니까 탕건도 ‘영근탕건’ 뒹.)

106042 #1 응. 영근탕건<sup>162)</sup>, 이건 줌진탕건이라.(응. ‘영근탕건’, 이건 ‘ضمام진탕건’이라.)

106042 @ 아, 줌진탕건, 영근탕건.(아, ‘ضمام진탕건’, ‘영근탕건’.)

106042 #1 줄살린탕건<sup>163)</sup>도 잇고, 훑은탕건도 잇고.(‘줄살린탕건’도 잇고, ‘훑은탕건’도 잇고.)

106042 @ 무신거라? 훑은탕건도 잇고?(뒹라? ‘훑은탕건’도 잇고?)

106042 #1 줌진탕건도 잇고 훑은탕건도 잇고.(‘ضمام진탕건’도 잇고 ‘훑은탕건’도 잇고.)

106042 @ 줌진탕건, 줌진탕건, 훑은탕건.(‘ضمام진탕건’, ‘ضمام진탕건’, ‘훑은탕건’.)

162) ‘영근탕건’은 ‘성긴 탕건’의 뜻으로 줄 수가 90개, 둘레 수가 55개 정도의 탕건을 말한다.

163) ‘줄살린탕건’은 ‘줄 살린 탕건’의 뜻으로 줄 수가 120개, 둘레 수가 130개 정도의 탕건을 말한다.

106042 #1 줄살린탕건. 줄 살린 거.('줄살린탕건', 줄 살린 거.)  
 106042 @ 줄살린탕건. 그다음 또?('줄살린탕건'. 그다음 또?)  
 106042 #1 거 메기.(그거뿐.)  
 106042 @ 아까 영긴탕건?(아까 '영긴탕건'?)  
 106042 #1 영근탕건, 영근탕건.('영근탕건', '영근탕건'.)  
 106042 @ 영근탕건. 응, 이렇게 네 가지?('영근탕건'. 응, 이렇게 네 가지?)  
 106042 #1 세 가지.(세 가지.)  
 106042 @ 세 가지?(세 가지?)  
 106042 #1 줌진탕건, 줄살린탕건, 영근탕건.('줌진탕건', '줄살린탕건', '영근탕건'.)  
 106042 @ 훑은탕건이 아니구나예.('훑은탕건'이 아니군요.)  
 106042 #1 응.(응.)  
 106042 @ 세 가지. 게민 보통 줌진탕건이 젤 좋은 거?(세 가지. 그러면 보통 '줌진탕건'이 젤 좋은 거?)  
 106042 #1 젤 갑도 하영 가고.(제일 값도 많이 가고.)  
 106042 @ 갑도 하영 가고.(값도 많이 가고.)  
 106042 #1 숨바롭지.(바쁘지.)  
 106042 @ 숨바루와예.(바빠요.)  
 106042 #1 이것이 백스물다섯 개산디 길 거라.(이것이 백스물다섯 개인가 그럴 거야.)  
 106042 @ 백스무 개 아니민 백스물다섯 개. 코가?(백스무 개 아니면 백스물다섯 개. 코가?)  
 106042 #1 이 줄이 다.(이 줄이 다.)  
 106042 @ 아, 줄이. 게민예 박죽은 뭐마씨?(아, 줄이. 그러면 '박죽'은 뭐예요?)  
 106042 #1 콧박, 박죽<sup>164</sup>?(박, '박죽'?)  
 106042 @ 응, 뭐허는 거?(응, 뭐하는 거?)  
 106042 #1 요디 놓는 박죽이 이서이. 영 이디 바탕 요추룩 아니 줄른 때.(여기 놓는 박죽이 있어. 이렇게 여기 받쳐서 요렇게 안 자른 때.)  
 106042 @ 예.(예.)  
 106042 #1 안 줄른 때 이디 낡 막 늘룰 때, 실 걸멍 늘룰 때, 그거 낡 헤나민 요 갈라진 디가 팽지 돼. 줄라진 것이.(안 자른 때 여기 놔서 막 늘릴 때, 실 거렁서 늘릴 때, 그거 놔서 하거나면 요 갈라진 데가 평지 돼. 잘라진 것이.)  
 106042 @ 예.(예.)  
 106042 #1 게민 이거 석 동 반을 못이면은 또 이레 강 마무리 지웁젠 헐 땀 그 박죽을 빼불어.(그러면 이거 석 동 반을 마치면 또 이리 가서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땀 그 '박죽'을 빼버려.)

164) '박죽'은 탕건을 결을 때 탕건 골의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연장으로 박을 잘라서 만든다.

106042 @ 아.(아.)

106042 #1 박죽 뽕 이젠 요디 또 바투는 대가 이서났어. 요만큼은 현 대민 요디 간 때 요레 가고 요레 츄츄츄츄 밀리멍 요 구석까지 밀려당 줄 세움을 막 헤여와. 계민 다 세민 끝나는 거.(‘박죽’ 뽕 이젠 요기 또 받치는 대가 있었어. 요만큼은 한 대면 요기 간 때 요리 가고 요리 차차차차 밀리면서 요 구석까지 밀려서 줄 세움을 막 해. 그러면 다 세면 끝나는 거.)

106042 @ 이거 말총, 뿔총으로 허는 거봐?(이거 말총, 말총으로 하는 겁니까?)

106042 #1 뿔총, 중간에는 왜국서 들어온 총 이만씩 현 총이 이서. 진진현 거이. 그거 현 때는 일도 쉬와이.(말총, 중간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총 이만큼씩한 총이 있어. 긴긴한 거. 그거 한 때는 일도 쉬워.)

106042 @ 응.(응.)

106042 #1 우리 이제 나이 들언 허게 똥난 총이 그 총이 엇어부난에 여기 제죽 말총, 말총도 총이 굵이민 탕건도 굵어이.(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하게 되니까 총이 그 총이 없어버려서 여기 제주 말총, 말총도 총이 굵으면 탕건도 굵어.)

106042 @ 응.(응.)

106042 #1 총도 막 읊아사. 머리, 사름 머리도 읊은 머리 잇곡, 죽은 머리 빈직 빈직허는 식으로. 읊은 총으로 허든 탕건도 문지롭곡.(총도 막 여물어야. 머리, 사름 머리도 여문 머리 있고, 죽은 머리 번쩍번쩍하는 식으로. 여문 총은 하면 탕건도 매끄럽고.)

106042 @ 아, 총이 좋아사예.(아, 총이 좋아야요.)

106042 #1 총이 쪽 골른 걸로만 해사돼. 물에 커듬서루 좋은 총만 뽑으멍 고른 총으로만 뽑으멍. 굵인 건 넘겼당 이런 디 굴루이<sup>165</sup>.(총이 쪽 고른 걸로만 해야 돼. 물에 담가서 좋은 총만 뽑으면서 고른 총으로만 뽑으면서. 굵은 건 넘겼다가 이런 데 ‘굴루이’.)

106042 @ 응.(응.)

106042 #1 굴루이 허곡 좋은 총으로만 만들야.(‘굴루이’ 하고 좋은 총으로만만 들어.)

106042 @ 아까 이거 이 우이는 상통?(아까 이거는 이 위는 ‘상투’?)

106042 #1 이건 몰라. 이거꺼지는 우리 허는 거 아니.(이건 몰라. 이거까지는 우리 하는 거 아니.)

106042 @ 요 위쪽에가 상통이엔 곱아?(요 위쪽이 상투라고 말해?)

106042 #1 상통이.(‘상통이’.)

106042 @ 상통이.(‘상통이’.)

106042 #1 여기는 구갑.(여기는 ‘구갑’.)

106042 @ 구가?(‘구가’?)

106042 #1 구갑.(‘구갑’.)

165) ‘굴루이’는 ‘변외로, 여분의’의 의미를 갖는 제주어다.

106042 @ 구갑.('구갑'.)

106042 #1 구갑 다 해시냐?('구갑' 다 했니?)

106042 @ 응. 그다음에 아까 모자 헨 거 무신거라마씨?(응. 그다음에 아까 모자 헨 거 뭐예요?)

106042 #1 어느 거?(어느 거?)

106042 @ 이거 모자 헨 거 이런 거 무신 모자? 나까?(이거 모자 헨 거 이런 거 무슨 모자? 나까?)

106042 #1 하르방덜 쓰는 나까와리 모저 헨 거 데껴분 거 허민 이 바우에 이런 바우로 탕건 허멍 상허카부텐 이걸 봉가당 놓는 거. 나까와리.(할아버지들 쓰는 중절모 헨 거 던져버린 거 하면 이 가장자리에 이런 가장자리로 탕건하면서 상할까봐 이걸 주워다가 놓는 거. 중절모.)

106042 @ 이게 챗데귀.(이게 '챗데귀'.)

106042 #1 챗데귀.('챗데귀'.)

106042 @ 챗데귀.('챗데귀'.)

106042 #1 옛날은 이것도이 막 곱게 헤영이 손방귀라노난이 멋지게 헨 걸로만 허젠 허여. 우리도 탕건을 잘 헤나난이 챗데귀 막 치레허여. 이 소곱에 이거 여기거 몬 이 모자만 들러내민 이 속에 계단이 다 이서이. 혼 칸, 두 칸 허민 무신 총 놓고 무신 연장 놓고.(옛날은 이것도 막 곱게 해서 '손방귀'라서 멋있게 한 걸로만 하려고 해. 우리도 탕건을 잘 했었어서 '챗데귀'를 막 치레해. 이 속에 이거 여기 것 모두 이 모자만 들면 이 속에 계단이 다 있어. 한 칸, 두 칸 하면 무슨 총 놓고 무슨 연장 놓고.)

106042 @ 아, 이 속에 연장 놓는 거파?(아, 이 속에 연장 놓는 겁니까?)

106042 #1 요것만 들러내어 불면은 이디가 줌진총 놓는 디 잇고 써나지 안헌 총도 놓고 그디 영 늘루는 연발이엔 허여.(요것만 들어내 버리면 여기가 '줌진총' 놓는 데 잇고 쓰지 않았던 총도 놓고 거기 이렇게 늘리는 '연발'이라고 해.)

106042 @ 연발예.('연발'요.)

106042 #1 연발도 농곡 박죽도 놓고.('연발'도 놓고 '박죽'도 놓고.)

106042 @ 박죽도 놓고. 총사발은 뭐마씨?('박죽'도 놓고. '총사발'은 뭐예요?)

106042 #1 총사발<sup>166)</sup>은 그냥 저런 사발 아무거라도 영 켜.(총사발'은 그냥 저런 사발 아무것이라도 이렇게 담가서.)

106042 @ 총을 커?(총을 담가?)

106042 #1 총을 물에 켜 경허민이 아이고. 곤젠 허난. 팔월 나쁜 막 손이 몬 물 버짐<sup>167)</sup> 들엉 이거 몬 뜯어먹어 불어.(총을 물에 담가서 그렇게 하면 아이고. 말하려고 하니까. 팔월 나쁜 막 손이 모두 '물버짐' 들어서. 이거 모두 뜯어먹어 버려.)

106042 @ 물버짐 들엉?('물버짐' 들어서?)

166) '총사발'은 탕건을 걸기 위해 총을 물에 담가 놓는 그릇을 말한다.

167) '물버짐'은 물을 많이 만져서 손이 부르튼 것을 말한다.

106042 #1 응.(응.)

106042 @ 총사발에 물 때문에?('총사발'에 물 때문에?)

106042 #1 손이 물르지 못 해부난.(손이 마르지 못하니까.)

106042 @ 아. 물 계속 물 만져야 돼니까.(아. 물 계속 물 만져야 되니까.)

106042 #1 이레 물이 버짐이 들어.(이리 물이 버짐이 들어.)

106042 @ 아. 버짐이 들어.(아. 버짐이 들어.)

106042 #1 경허민이 요 손으로 영영 훑영 허당이 요것이 물 적저가민 아파이. 경허민 또 요걸로 영영허고 요거까지 물버짐 들영 막 먹어불어.(그러면 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훑어서 하다가 요것이 물 적저가면 아파. 그러면 또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것까지 '물버짐' 들어서 막 먹어버려.)

106042 @ 하하하.(하하하.)

106042 #1 쿵글이 잘 들영 강. 경헤나민이.(깨끗이 잘 들어서 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

106042 @ 탕건허젠 허민 손에.(탕건하려고 하면 손에.)

106042 #1 손율이 물이 아니 물론 날이 었어. 또 어무니네 산 땀 막 그냥 탕건 허렌 그냥이 밥도 다 해주곡이 세숫물도 다 떠다 주곡이.(손을 물이 아니 마른 날이 없어. 또 어머니네 산 땀 막 그냥 탕건 하라고 그냥 밥도 다 해주고 세숫물도 다 떠다 주고.)

106042 @ 탕건 짜라고.(탕건 짜라고.)

106042 #1 재기 허렌.(빨리 하라고.)

106042 @ 재기 허렌.(빨리 하라고.)

106042 #1 혼 장 도막에 이걸 어떻 허젠 허민 재기 해야 텔 거난. 허긴 이거 헨 우리 밧도 사고 다 허긴 헛어.(한 장 '도막'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텔 거니까. 하긴 이거 해서 우리 밧도 사고 다 하긴 헛어.)

106042 @ 탕건 폴아근에.(탕건 팔아서.)

106042 #1 응, 어머니네영 살 때.(응, 어머니네랑 살 때.)

106042 @ 응.(응.)

106042 #1 힘들이 헛어. 이거 우리는 막.(힘들게 헛어. 이거 우리는 막.)

106042 @ 혹시 이거 이제도 이수과?(혹시 이거 이제도 있습니까?)

106042 #1 이제 그거 해냥 무시거 헛 거라?(이제 그거 해놓고 무엇 할 거야?)

106042 @ 다 데껴불엇수과?(다 던져버렸습니까?)

106042 #1 다 데껴불엇주. 요 혼 ㄱ리까지도 어무니 산 때는 멩긴골이엔 헛 거 멩긴골도 이성 헤나신디 그 멩긴골 좇이멍 골동품으로.(다 던져버렸지. 요전까지도 어머니 산 때는 '망건골'이라고 한 것 '망건골'도 있어서 했었는데 그 '망건골' 찾으 면서 골동품으로.)

106042 @ 계난.(그러니까.)

106042 #1 돈냥이나 갈 거라나신디.(돈푼개나 갈 거였었는데.)

106043@ 계난 멩긴도 해납디가?(그러니까 망건도 했었습니까?)

106043 #1 멩긴은 우리가 영 허는 방식만 알주, 어머니가 주로 잘 해놔주, 옛날.(망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만 알지, 어머니가 주로 잘 했었지, 옛날.)

106043 @ 멩긴은 탕건이영 흐뭇 트나?(망건은 탕건이랑 조금 달라?)

106043 #1 아이고, 막 틀려, 막 천지 차이 틀려.(아이고, 아주 달라, 아주 천지 차이 달라.)

106043 @ 이게 멩긴인가?(이게 망건인가?)

106043 #1 응, 이거, 이거 멩긴. 이거 잘도 이거 힘들어.(응, 이거, 이거 망건. 이거 아주 이거 힘들어.)

106043 @ 이건 더 힘들어, 탕건보다 힘들어?(이건 더 힘들어, 탕건보다 힘들어?)

106043 #1 아이고, 힘들고 말고. 바놓도 이젠이 해사고이 코 토, 영 바놓 찢러가민 총이 트다져불카부텐이 옛날 수놓는 바놓 닳은 거 이젠이 찢을까허민 영 홈과내기가 힘들어.(아이고, 힘들고 말고. 바늘도 이만큼 해야하고 코 토, 이렇게 바늘 찢르다 보면 총이 뜯어져 버릴까봐 옛날 수놓는 바늘 같은 거 이만큼 조그마하면 이렇게 홈과내기가 힘들어.)

106043 @ 아.(아.)

106043 #1 경해도 익숙으면 잘해여. 이거 영영. 경허여.(그래도 익숙해지면 잘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

106043 @ 이것도 혹시 탕건도 이름 이런 거 알아지쿠과?(이것도 혹시 탕건도 이름 이런 거 알겠습니까?)

106043 #1 몰라.(몰라.)

106043 @ 몰라, 망건에 거는.(몰라, 망건의 거는.)

106040 #1 이건 양태 닳다, 이젠.(이건 양태 같다, 이젠.)

106040 @ 이게 양태 아니?(이게 양태 아니?)

106040 #1 이거 양태. 아, 이거 다 해 들이렌 무시걸 허젠.(이거 양태. 아, 이거 다 해 들이라고 무엇을 하려고.)

106040 @ 양태도 해납디가? 안 해봤?(양태도 했었습니까? 안 해봤어?)

106040 #1 양태는 우리 할머니네가 잘해. 양태판<sup>168</sup>은 봤어. 요런 판.(양태는 우리 할머니네가 잘해. 양태판은 봤어. 요런 판.)

106040 @ 양태판은 봐나신디.(양태판은 봤었는데.)

106040 #1 이런 거 허는 건 안 판. 그때 무신거 이만큼은 현 쉼꼴 닳은 걸로 그자 영영영영 해가민 해도 허여보진 안헐.(이런 거 하는 건 안 봤어. 그때 무엇 이만큼은 한 쇠끝 같은 걸로 그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기는 해도 해 보진 않았어.)

106040 @ 허여보진 안헐. 봐나긴 해나지 안헐마씨, 옛날에.(해보진 않았어. 봤었

---

168) '양태판'은 '양태판이'라고도 하며 양태를 걸 때 쓰는 연장이다.



기는 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106040 #1 응, 봐나긴 해여, 어린 때. 우리 탕건도 안 헌 때 할머니 허는 거 이 추룩헌 구덕 닳은 거 낵 요 양태판을 영 낵 요만큼은 허게 행 그자 잘해여 흑흑흑 흑 잘해나는 것만 봤주. 게난 할머니가 이젠 돌아가시고 눈 어둡고 못헤가난 이런 양태판은 고팡에 강 낵 향아리 뚜껍 해난 거를.(응, 봤기는 했어, 어린 때. 우리 탕건도 안 한 때 할머니 하는 거 이렇게 한 바구니 같은 거 봐서 요 ‘양태판’을 이렇게 봐서 요만큼은 하게 해서 그제 잘해 흑흑흑흑 잘하는 것만 봤지. 그거니까 할머니가 이젠 돌아가시고 눈 어둡고 못하니까 이런 ‘양태판’은 고팡에 가서 봐서 향아리 뚜껍 했던 거를.)

106040 @ 하하하. 향아리 뚜껍으로.(하하하하. 향아리 뚜껍으로.)

106040 #1 향아리 뚜껍으로 경해난.(향아리 뚜껍으로 했었어.)

106041 @ 총모자는 안헤낫주예, 이 동네선 총모자는 안 해?(총모자는 안 했었지요, 이 동네선 총모자는 안 해?)

106041 #1 모자 엇어. 이런 것만 허민은이 이런 디 가서 이 모저를 이 속에 쓰곡 경허는 거.(모자 엇어. 이런 것만 하면은 이런 데 가서 이 모자를 이 속에 쓰고 그렇게 하는 거.)

106041 @ 아, 이거 먼저 써?(아, 이거 먼저 써?)

106041 #1 이거 문여 써나서 이거 쓸 거라.(이거 먼저 쓰고 나서 이거 쓸 거야.)

106041 @ 이거 문여 쓰고 이거 써?(이거 먼저 쓰고 이거 써?)

106041 #1 경행 그 우이 갓 쓰고.(그렇게 그 위 갓 쓰고.)

106041 @ 갓 쓰고, 응.(갓 쓰고, 응.)

106041 #1 이것이 잘도 힘든 거라, 이거.(이것이 아주 힘든 거야, 이거.)

106041 @ 탕건?(탕건?)

106041 #1 망건.(망건.)

106041 @ 아, 망건.(아, 망건.)

106041 #1 이거 이거 줌진 줌진헌 거 바놓이 이대로 줌질아야 웰 건디. 이건 바놓이 이만큼은 헌 바놓이라사 재기 걸리는데 이거는 바놓이 요몐이. 옛날 수놓는 바놓으로 쩌끌락헌 바놓으로 요 손도 문 같아불고.(이거 이거 가는 가는한 거 바놓이 이대로 가늘어야 될 건데. 이건 바늘이 이만큼은 한 바늘이라야 빨리 걸리는데 이거는 바늘이 요만큼. 옛날 수놓는 바늘로 쪼그마한 바늘로 요 손도 모두 같아버리고.)

106037 @ 게민 옛날에 써난 모자는예 어떤 모자, 어떤 모자 이서난마씨?(그러면 옛날에 썼던 모자는요.(그러면 옛날에 썼던 모자는요 어떤 모자, 어떤 모자 있었어요?)

106037 #1 옛날 모자가 무신 모자가 이서? 밀낭퍼랭이나 밧디 쓰는 거베편 엇주.(옛날 모자가 무슨 모자가 있어? 밀짚모자나 밧에 쓰는 거밖에 없지.)

106037 @ 밀낭페랭이나 베끼 엇어.(밀짚모자나 밧에 없어.)

106037 #1 응, 엇어.(응, 없어.)

106039 @ 건 여름에 쓰는 거 아니예? 겨울에는?(그건 여름에 쓰는 거 아니? 겨울에는?)

106039 #1 저슬에 무시거 수건 ㄴ든 거 무시거 영혜근에 싸아정 땡겨주.(겨울에 무엇 수건 같은 거 무엇 해서 싸가지고 다녔지.)

106039 @ 아니 뭐 털, 뭐 짐승 털이나 해가지고.(아니 뭐 털, 뭐 짐승 털이나 해가지고.)

106039 #1 아이고, 그런 거 있게 안 돼고 중간 돼사 그런 것들 나왔주. 우리 무시거 헐 때는 수건이나 영 쓰고 그자 수건 행 영영 감양이나 땡겨주, 모저 엇어.(아이고, 그런 거 있게 안 되고 중간 되어야 그런 것들 나왔지. 우리 무엇 할 때는 수건이나 이렇게 쓰고 그저 수건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나 다녔지, 모자 없어.)

106039 @ 모자 엇어.(모자 없어.)

106038 #1 벋디 강 저물양 밧디 살쟁 허민 밀낭퍼랭이나 쓰주, 그거나 쓰주.(별에 가서 저물어서 밧에 살려고 하면 밀짚모자나 쓰지, 그거나 쓰지.)

106038 @ 밀낭퍼랭이나 쓰주.(밀짚모자나 쓰지.)

106038 #1 이제는 벨 모저 다 저실이고 여름이고 다 쓰는다.(이제는 벨 모저 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쓰는데.)

106038 @ 옛날에는 모자가 엇어. 그 무슨 정당?(옛날에는 모자가 없어. 그 무슨 땡땡이덩굴?)

106038 #1 정당줄?(땡땡이덩굴?)

106038 @ 그걸로 모자 안 해?(그걸로 모자 안 해?)

106038 #1 정당줄로 모자 안허고 정당줄로 소쿠리 짜는 건 봐났어.(땡땡이덩굴로 모자 안하고 땡땡이덩굴로 소쿠리 짜는 건 봤었어.)

106038 @ 아, 건 모자 안하고 소쿠리만 짜마씨?(아, 그건 모자 안하고 소쿠리만 짜요?)

106038 #1 몰라, 무시거 허는디 소쿠리 짜는 거 봐났어. 본 게 아니고 짜은 거 봐났어.(몰라, 무엇 하는데 소쿠리 짜는 거 봤었어. 본 게 아니고 짜은 거 봤었어.)

106038 @ 응. 감티는?(응. ‘감티’는?)

106038 #1 감티<sup>169</sup>가 무시것 ㄴ라 감티엔 현다만은.(‘감티’가 무엇보고 ‘감티’라고 한다만은.)

106038 @ 거믄 샷갓.(그러면 샷갓.)

106038 #1 샷갓 췌지. 샷갓은이 이제 중국 모저덜 영 상통이 쭈쭈한 거 잇지. 그것이 이디 것도 크게 이만큼은 허게 행이 영 샷갓 낱 쓰면은이 밧디 강 검질 땡 때 독지가 안 더워 그늘정.(샷갓 잇지. 샷갓은 이제 중국 모자들 이렇게 상투가 뽕족한 거 잇지. 그것이 여기 그것도 크게 이만큼은 하게 해서 이렇게 샷갓 놔서 쓰면 밧에 가서 김 땡 때 어깨가 안 더워 그늘져서.)

169) ‘감티’는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방한모이다.

106039 @ 아, 이디까지 그늘지난.(아, 여기까지 그늘지니까.)

106039 #1 응, 크주, 거는. 둘레가 이만인 허여. 이딴 샷갓은 비온 날도 거 썩 땡기고. 가사<sup>170)</sup>ㄴ추룩. 가사도 하지 안헌 때니까.(응, 크지, 그거는. 둘레가 이만큼 해. 여기 샷갓은 비온 날도 그거 써서 다니고. 우산처럼. 우산도 하지 않은 때니까.)

106039 @ 가사가 무신거?('가사'가 뭐?)

106039 #1 비오는 가사, 비가사.(비오는 '가사', 비'가사'.)

106039 @ 우산?(우산?)

106039 #1 우산, 우산. 그거ㄴ추룩 밧디 안 가도 비온 디 어디 가쟁 허민 걸 썩 가. 이제ㄴ치 우산ㄴ추룩.(우산, 우산. 그거처럼 밧에 안 가도 비온 데 어디 가려고 하면 그걸 써서 가. 이제처럼 우산처럼.)

106044 @ 우장 안 입꼭?(우장 안 입고?)

106044 #1 우장은 정 쉼 보레 가는 사름이나 그 새로 멘든 거 행 영 썩근엿에 가주. 이런 디선 안 썩 땡겨.(우장은 그렇게 소 보러 가는 사름이나 그 새로 만든 거 해서 이렇게 써서 가지. 이런 데선 안 썩서 다녀.)

106044 @ 이런 디선 그냥예.(이런 데선 그냥요.)

106044 #1 소 보레 갈 때 그것덜 썩 가주. 이제는 우비 이서불고. 양산 이서불고 허민 영 썩아정 부수 돌아땡겨도.(소 보러 갈 때 그것들 써서 가지. 이제 우비 있고. 양산 있어버리고 하면 이렇게 썩가지고 많이 돌아다녀도.)

106039@ 병것은 무신것파, 병것?(병거지는 무엇입니까, 병거지?)

106039#1 병것이, 병것이 그런 병것 막 터럭 닳은 거 두터운, 두터운 걸로 썩.(병거지, 병거지 그런 병거지 막 털 같은 거 두꺼운, 두꺼운 걸로 썩서.)

106039 @ 모자 아니?(모자 아니?)

106039 #1 그걸 모자로 멘들아. 이제 텔레비 나오는 거 요 꼴랭이 둔앙 영영 허는 거 닳은 거.(그걸 모자로 만들어.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요 꼬리 달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거.)

106039 @ 예, 그게 병것?(예, 그게 병거지?)

106039 #1 그것이 병것일 거라, 것이.(그것이 병거지일 거야, 그것이.)

106039 @ 옛날에 안 썩낫수과?(옛날에 안 썩었습니까?)

106039 #1 그런 건 몰라. 어디.(그런 건 몰라.)

106039 @ 아까 정당 아니믄 줄로 해근에 모자 안 만듭니까?(아까 땡땡이덩굴 아니면 '줄'로 해서 모자 안 만듭니까?)

106039 #1 그런 건 안 해.(그런 건 안 해.)

106044 @ 그런 건 안 하고. 도롱이도 옛날에, 우장도 옛날에 집이서 영 썩낫수과?(그런 건 안 하고. 도롱이도 옛날에, 우장도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썩었습니까?)

106044 #1 응.(응.)

170) '가사'는 일본어 'かさ'로 우산이라는 뜻이다.

106044 @ 할머니도 짜납디가?(할머니도 찻었습니까?)

106044 #1 우린 그런 거 안 짜난. 저 산에 새 잇지이. 새 막 곱게 단장, 실ㄴ추  
룩 단장행 그걸 멘들아. 일로 막 그 안엔 이 비 새을젠 해부난 이 막 복삭허게 놓  
고 이 안네는 막 그물ㄴ치 짜놔 그 코마다 다 그걸 걸어놓민 비 우비가 돼어.(우린  
그런 거 안 찻어. 저 산에 새 잇지. 새 막 곱게 단장, 실처럼 단장해서 그걸 만들어.  
이리로 막 그 안에 이 비 새려고 하니까 이 막 ‘복삭’하게 놓고 이 안은 막 그물처  
럼 짜놔서 그 코마다 다 그걸 걸어 놓으면 비 우비가 돼.)

106044 @ 아. 그게 혹시 긴 것도 잇고 짧은 것도 이수과?(아. 그게 혹시 긴 것  
도 잇고 짧은 것도 있습니까?)

106044 #1 큰 사름 거는 크게 멘들고 작은 사름 거는 족게 몸에 맞게 만들지.  
(큰 사람 거는 크게 만들고 작은 사람 거는 작게 몸에 맞게 만들지.)

106044 @ 하하하.(하하하.)

106044 #1 것도 만드는 건 안 봤어.(그것도 만드는 건 안 봤어.)

106044 @ 입은 것만.(입은 것만.)

106044 #1 입은 거 보든 이디 막 그물 닮아 이디가.(입은 거 보면 여기 막 그물  
같아 여기가.)

106044 @ 이디가, 안에가?(여기가, 안에가?)

106044 #1 그것더레 몬 코 웨영 몬 그걸로 츠츠츠 누르며 가민 비가 발게 돼서.  
멘드는 건 안 보고 입은 거 보난. 우장, 우장 헤영 그걸 봐났어.(그것에 모두 코 끼  
워서 모두 그걸로 차차차 눌러 가면 비가 새지 않게 돼서. 만드는 건 안 보고 입은  
거 보니까. 비웃, 비웃 해서 그걸 봤었어.)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게민 이제예 먹는 거예. 먹는 거 물어보쿠다예.(그러면 이제요 먹는  
거요. 먹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107001 #1 응.(응.)

107001 @ 밥, 밥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밥이 이수과? 옛날에.(밥, 밥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있습니까? 옛날에.)

107001 #1 옛날에?(옛날에?)

107001 #2 아이고.(아이고.)

107001 @ 곤밥허고.(흰밥하고.)

107001 #1 곤밥, 이젇 곤밥이나 ㄴ타? 별경현 산뒤줄 밥 행 것도 거 무신, 식계  
때나 허주, 무신. 그자 보통으로 먹었어?(흰밥. 이제 흰밥이나 같아? 별건 받벼쌀  
밥 해서 그것도 그거 무슨, 제사 때나 하지, 무슨. 그냥 보통으로 먹었어?)

107001 @ 어.(어.)

107001 #1 보리밥에 어떻 어떻 행 먹어났주.(보리밥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먹었었지.)

107001 @ 게민.(그러면.)

107001 #1 보리밥에 좁쌀 허트고 해영 그거.(보리밥에 좁쌀 섞고 해서 그거.)

107001 @ 거 무신 밥이엔 골아?(그거 무슨 밥이라고 해?)

107001 #1 거 무신 밥은, 우리 먹는 밥이주.(거 무슨 밥은, 우리 먹는 밥이지.)

107001 @ 보리밥이엔 골아, 좁쌀밥이엔?(보리밥이라고 말해, 좁쌀밥이라고?)

107001 #2 좁쌀 논 건 조팍.(좁쌀 놓은 건 조밥.)

107001 @ 조팍이엔 골아?(조밥이라고 말해?)

107001 #1 조팍만 헐 때 조팍이고 보리쌀만 헐 때는, 한여름에는 보리밥만 허여이.(조팍만 할 때 조팍이고 보리쌀만 할 때는, 한여름에는 보리밥만 해.)

107001 @ 응.(응.)

107001 #1 서꺼 땡기민 빨리 쉬여불영이.(섞어 다니면 빨리 쉬어버려.)

107001 @ 응.(응.)

107001 #1 겨난 이 ㄱ슬 들어가면이 팔월 나가민 조 낫당 그땐 물 ㄱ레에 강 골 아당 쫄 만들앙, 팔월 나민, 보리쫄은 밥해도 물이 잘 안 췌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뽏따부난 그 좁쌀을 한 줍씩 놓민 물도 뽏뜨고 밥도 흐뭇 풀풀허고.(그러니까 이 가을 들어가면 팔월 되면 조 낫다가 그땐 연자방아에 가서 갈아다가 쌀 만들어서, 팔월 나면, 보리쌀은 밥해도 물이 잘 안 췌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받아버리니까 그 좁쌀을 한 줍씩 놓으면 물도 받고 밥도 조금 풀풀하고.)

107001 @ 예.(예.)

107001 #1 경행 먹었지.(그렇게 해서 먹었지.)

107001 @ 아.(아.)

107001 #1 게민 또 특별히 먹젠 허민이 보리쫄에 쫓 낱 숯고이 검은 좁쌀.(그러면 또 특별히 먹으려고 하면 보리쌀에 팔 나서 삶고 검은 좁쌀.)

107001 @ 응.(응.)

107001 #1 그거 놓민 더 밥이 맛이 좋아. 풀도 더 좋고.(그거 놓으면 더 밥이 맛이 좋아. 풀기도 더 좋고.)

107001 @ 아.(아.)

107002 #1 경행 먹고.(그렇게 해서 먹고.)

107001 @ 게민 밥허젠 허민 보통은 산뒤쌀로 밥허거나 보리쌀로 하거나.(그러면 밥하려고 하면 보통은 발벼쌀로 밥하거나 보리쌀로 하거나.)

107002 #1 먹는 건 산뒤쌀 아니라.(먹는 건 발벼쌀 아니야.)

107002 @ 먹는 건 산뒤쌀 아니라마씨. 하하.(먹는 건 발벼쌀 아니예요.)

107002 #1 제서 때나 헛주.(제사 때나 헛지.)

107002 @ 그럼 주로 보리쌀예?(그럼 주로 보리쌀요.)

107002 #1 주로 보리쌀.(주로 보리쌀.)

107003 @ 허고 좁쌀. 예. 게민 보리밥은 허젠 허민 어떻 행 허는 거봐?(하고 좁쌀. 예. 그러면 보리밥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03 #1 보리밥은 허민 그냥 보리쌀 씻엉.(보리밥은 하면 그냥 보리쌀 씻어서.)

107003 @ 응.(응.)

107003 #1 그뎨 이제 솟덜이 서? 꺼멍헌 솟덜. 수정 하민 웨말치솟.(그뎨 이제 솟덜이 있어? 꺼먼 솟들. 솟자 많으면 외말치 솟.)

107003 @ 응.(응.)

107003 #1 수정 족으민.(솟자 적으면.)

107003 @ 응.(응.)

107003 #1 저 두 똬짜리. 거민 저 보리밥덜이난 쳐 먹어 노난 밥은 하영 헤여.(저 두 똬짜리. 그러면 저 보리밥들이니까 많이 먹어 놓으니까 밥은 많이 해.)

107003 @ 하하.(하하.)

107003 #1 하영 해도 다 먹어. 증기가 잇어 노니까이.(많이 해도 다 먹어. ‘증기’ 없어 놓으니까.)

107003 @ 예.(예.)

107003 #1 정헨 먹엇주게.(그렇게 해서 먹었지.)

107003 @ 게민 보리밥은 쌀밥보다 물을 하영 봐야주예.(그러면 보리밥은 쌀밥보다 물을 많이 봐야지요.)

107003 #1 허당 보민 물 하불민 뜰라불고, 물 맞게도 허꼭 경헤.(하다 보면 물 많으면 따라버리고, 물 맞게도 하고 그렇게 해.)

107003 @ 하하, 게난 그냥 산뒤쌀 밥보다는 물이 하영 들지 안헤?(하하. 그러니까 그냥 발벼쌀 밥보다는 물이 많이 들지 않아?)

107003 #1 산뒤쌀 밥은 혼 번에 물을 맞추기 때문에 허고이.(발벼쌀 밥은 한 번에 물을 맞추기 때문에 하고.)

107003 @ 응.(응.)

107003 #1 보리밥은이 그냥 검질로 그냥. 영 솟덕 앓정 밥허당 바르르허게 부끄면은이 이젠 두껍 올앗당 두껍 더꺼똥 불을 꺼불어이.(보리밥은 그냥 검불로 그냥. 이렇게 붓돌 안쳐서 밥하다가 ‘바르르’하게 끓어 넘치면 이젠 두껍 열었다가 두껍 덮어두고 불을 꺼버려.)

107003 @ 응.(응.)

107003 #1 불을 켜당 혼 십 분, 십오 분 잇영 이제 생각으로 뜸 들영.(불을 켜다가 한 십 분, 십오 분 있다가 이제 생각으로 뜸 들여서.)

107003 @ 응.(응.)

107003 #1 뜸 들영 강 보른 물도 잇어이. 물도 시면은 이제 그 밥을 빨르레 간 거라. 물을 또 뺏뜨레. 좁쌀 흐뎡 영영 서경 불 습아가민 보글보글허민 그 좁쌀러레

물 빨아 먹어볼면은 밥이 물이 맞아.(뜸들여서 가서 보면 물도 있어. 물도 있으면 이제 그 밥을 받으러 간 거야. 물을 또 받으러. 좁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볼때가면 보글보글하면 그 좁쌀에 물 빨아 먹어버리면 밥이 물이 맞아.)

107004 @ 아. 혹시 반지기 밥이엔 흰 말도 들어봅디가?(아, 혹시 반지기 밥이라고 한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107004 #1 반지기 밥은 보리쌀에 곤쌀, 그뎨 곤쌀이엔 헤이. 곤쌀 흐뎡 놓믄이 거 허경 먹으믄이 벨미라이. 눅을 빌영 나가.(반지기 밥은 보리쌀에 흰쌀, 그뎨 ‘곤쌀’이라고 해. 흰쌀 조금 놓으면 그거 섞어서 먹으면 벨미야. 눅을 빌어서 내가.)

107004 @ 응.(응.)

107004 #1 밧을 갈레 가젠 허민 눅의 장남이니까이.(밧을 갈러 가려고 하면 남의 하인이니까.)

107004 @ 예.(예.)

107004 #1 쌀 허경 그것이 반지기 밥.(쌀 섞어서 그것이 반지기 밥.)

107004 @ 아.(아.)

107004 #1 고급으로.(고급으로.)

107004 @ 아, 좁쌀이 아니라?(아, 좁쌀이 아니라?)

107004 #1 쌀 낱.(쌀 놔서.)

107004 @ 쌀을 놓는 거라?(쌀을 놓는 거야?)

107004 #1 산뒤쌀.(밭벼쌀.)

107004 @ 보리쌀에, 음.(보리쌀에, 음.)

107004 #1 게민 그제 반지기 밥.(그러면 그제 반지기 밥.)

107004 @ 그제 반지기 밥. 아.(그제 반지기 밥. 아.)

107004 #1 이젠 나룩쌀에도 좁쌀 놓멍 밥허는 디.(이젠 쌀에도 찹쌀 놓으면서 밥하는 데.)

107004 #2 좁쌀 낱 먹엄지?(찹쌀 놔서 먹고 있지.)

107004 @ 응.(응.)

107004 #2 바로 그 식이라. 보리쌀에 곤쌀 놓민 막 고급밥이주.(바로 그 식이야. 보리쌀에 흰쌀 놓으면 막 고급밥이지.)

107005 @ 하하, 그제 반지기 밥예? 게민 아까 산뒤쌀로 흰 곤밥은?(하하. 그제 반지기 밥요? 그러면 아까 밧벼쌀로 한 흰밥은?)

107005 #1 제서 때나.(제사 때나.)

107005 @ 제서 때나 먹는 거고?(제사 때나 먹는 거고?)

107005 #1 살락살락헌 거, 풀도 엇인 거. 좁쌀이나 이제 그뜨민 흐뎡 놔시민 밥이라도 잇주만은. 산뒤쌀 저 이바른 디서, 손당 그튼 디 강 받아다근엿에 밥을 허면은 거 막 섯당봐도 벌경헌 물만 나. 두루 다까져부난 거주. 기계 그뜨민 허주만은 이.(사락사락한 거, 풀기도 없는 거. 찹쌀이나 이제 같으면 조금 놓으면 밥이라도 있지만. 밧벼쌀 저 ‘이바른’ 데서, 송당 같은 데 가서 받아다가 밥을 하면 그거 막

씻다봐도 벌건 물만 나. 덜 깎아져 버리니까 그거지. 기계 같으면 하지만.)

107005 @ 예.(예.)

107005 #1 솟사 식으로 물 ㄱ레에 강 굴양 쓸 만든 거라 부난 잘 따까지지 안 허여.(아까 식으로 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쌀 만든 거라서 잘 깎아지지 않아.)

107005 @ 응.(응.)

107005 #1 게난 밥이 풀이 실 거라게? 풀도 엇주.(그러니까 밥이 풀기가 있을 거야? 풀기도 없지.)

107005 @ 풀도 엇고. 경해도 곤밥이엔.(풀기도 없고. 그래도 흰밥이라고.)

107005 #1 곤밥이엔 제서 뎀 그걸 막 올령 허는 거라.(흰밥이라고 제사 뎀 걸 막 올려서 하는 거야.)

107006 @ 예. 조팍은?(예. 조팍은?)

107006 #1 조팍은 조팍만 ㄱ실락 아이고 좁쌀만 낱 ㄱ실락행 먹게 허민 그냥 고실고실 밥 물 맞춰 행도 먹고. 감저철 나민 또 감저도 그레 썰어 낱 밥허민 맛있고.(조팍은 조팍만 ‘ㄱ실락’ 아니고 좁쌀만 놔사 ‘ㄱ실락’해서 먹게 하면 그냥 고슬 고슬 밥 물 맞춰서 해도 먹고. 고구마철 나민 또 고구마도 그리 썰어 놔서 밥하면 맛있고.)

107006 @ 감저허고 조허고 ㄱ치?(고구마하고 조하고 같이.)

107006 #1 좁쌀 낱 밥허민 밥도 찜 들코롬헤여.(좁쌀 놔서 밥하면 밥도 참 달콤해.)

107006 @ 게민 감저밥이 그건가?(그러면 고구마밥이 그건가?)

107006 #1 응, 감저밥이 그걸 거라. 감저 썰어 낱 밥행. 벨미로덜, 이젠, 이젠 벨미로 밥허는 거라.(응, 고구마밥이 그걸 거야. 고구마 썰어 놔서 밥해서. 별미로 들, 이젠, 이젠 별미로 밥하는 거야.)

107006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06 #1 압력솥디 감저 썰어 낱 밥해 봐, 오죽 맛있는가?(압력솥에 고구마 썰 어놓고 밥해 봐, 오죽 맛있나?)

107006 @ 예.(예.)

107006 #1 이젠 완전 찜.(이젠 완전 찜.)

107006 @ 별미로예.(별미로요.)

107006 #1 그뎀 벨미도 아니고이.(그뎀 별미도 아니고.)

107006 @ 먹을 거 엇이난.(먹을 거 없으니까.)

107006 #1 응, 양식도 불룰 점 경행 헤실 거라.(응, 양식도 불릴 점 그렇게 했을 거야.)

107007 @ 응. 아까 팻 놔근에 허는 밥은? 팻밥?(응. 아까 팔 놔서 하는 밥은? 팔밥?)

107007 #1 팻밥. 예구 팻썰에, 보리썰에 팻 낱 솥앙이 검은 좁쌀 낱 밥허민 오 죽 맛중느냐, 어른덜?(팔밥. 예구 팔썰에, 보리썰에 팔 놔서 삶아서 검은 좁쌀 놔서





107008 @ 어디 저디?(어디 저기?)

107008 #1 도리<sup>171)</sup>, 손당<sup>172)</sup>.(교래, 송당.)

107008 #2 교래, 손당 ㄱ튼 디 중산간. 거 산촌에서 나는 거주.(교래, 송당 같은 데 중산간. 그거 산촌에서 나는 거지.)

107008 #1 뜬 디레만 잘 돼는 생이라, 건.(뜬 데만 잘 되는 모양이야, 그건.)

107008 @ 응.(응.)

107008 #1 막 피쌀밥을 벨미로 먹젠 헛자 맛이 었어. 좁쌀ㄱ추룩 폭삭폭삭만 헛지 피삭피삭 맛이 었어. 조팍만이 맛이 었어.(막 피쌀밥을 벨미로 먹으려고 해도 맛이 없어. 좁쌀처럼 ‘폭삭폭삭’만 헛지, ‘피삭피삭’ 맛이 없어. 조팍만큼 맛이 없어.)

107010 @ 아까 피쌀 헛고예, 피밥헛고 그다음에 감저밥 아까 곶앗고, 이제 무우밥?(아까 피쌀 헛고요, 피밥헛고. 그다음에 고구마밥 아까 말헛고, 이제 무밥?)

107010 #1 무밥은 팬찮아.(무밥은 팬찮아.)

107010 @ 무밥은 어떻 헛는 거파?(무밥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10 #1 좁쌀에이.(좁쌀에.)

107010 @ 응.(응.)

107010 #1 그때는 건 양식 불룰 때라이.(그때는 그건 양식 불리는 때야.)

107010 @ 응.(응.)

107010 #1 찰이, 찰이 족으니까이.(쌀이, 쌀이 적으니까.)

107010 @ 예.(예.)

107010 #1 무 영영 채로 무 썰영 건 물 확허게시리 익혀노면이 그레 좁쌀을 소르르허게 낱이 물 맞추면이 밥이 좋아. 츠근츠근 것도.(무 이렇게 이렇게 채로 무 썰어서 그건 물 확하게 익혀놓으면 그리 좁쌀을 사르르하게 놔서 물 맞추면 밥이 좋아. ‘츠근츠근’ 그것도.)

107010 @ 아.(아.)

107010 #1 달아, 밥도.(달아, 밥도.)

107010 @ 예.(예.)

107010 #1 무수가 든 거쫌이민 밥도 달아.(무가 단 거쫌이면 밥도 달아.)

107011 @ 아, 무수가 들민 밥도 달아예. 무수 논 밥 말고 또 툷밥?(아, 무가 달면 밥도 달아요. 무 놓은 밥 말고 또 툷밥?)

107011 #1 툷밥?(툷밥?)

107011 @ 응, 툷밥. 툷밥은 어떻허는 거파?(응, 툷밥. 툷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11 #1 툷밥도 팬찮을 거라. 꼭 혼 번 먹어났저. 툷밥 거 어디 간 먹어져신고?(툷밥도 팬찮을 거야. 꼭 한 번 먹었었어. 툷밥 그거 어디 가서 먹었었나?)

107011 @ 집이선 안 헛 먹어났수과?(집에선 안 해서 먹었었습니까?)

171) ‘도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옛 명칭이다.

172) ‘손당’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를 말한다.

107011 #1 아이고, 안 행 먹어봤.(아이고, 안 해서 먹어봤어.)

107011 @ 이제, 이젠 별미로 막 팝니다.(이제, 이젠 별미로 막 팝니다.)

107011 #1 톨밥을?(툰밥을?)

107011 @ 예.(예.)

107011 #1 폭삭폭삭해, 해영케 잘 삶으민 폭삭폭삭해. 맛있어, 것도.(‘폭삭폭삭’ 해, 하얗게 잘 삶으면 ‘폭삭폭삭’해. 맛있어, 그것도.)

107011 @ 예.(예.)

107011 #1 갱허고 썩밥도 행 먹는 이도 있고. 썩 해당 그뎨 양식 불릅젠, 양식이 죽은 때니까.(그리고 썩밥도 해서 먹는 이도 있고. 썩 해다가 양식 불릴려고, 양식이 적은 때니까.)

107012 @ 응. 그다음에 패밥?(응. 그다음에 패밥?)

107012 #1 패밥이 아니고 패를 우리 그거 먹어낫주. 패를 바다에 강 메당 저 웃드릿 밧디 강 그 뭐냐 물룣.(패밥이 아니고 패를 우리 그거 먹었었지. 패를 바다에 가서 매다가 저 중산간 밧에 가서 그 뭐냐 무룣.)

107012 @ 응.(응.)

107012 #1 물룣 파다근앵에 패를이 향아리앵가 어디 낡 막 삶은덴. 패 농곡, 패 빨아 농곡 해영.(무룣 파다가 패를 향아리앵가 어디 놔서 막 삶는다고. 패 놓고, 패 빨아서 놓고 해서.)

107012 @ 패도 놓고 물룣도 놓고?(패도 놓고 무룣도 놓고?)

107012 #1 막 혼 메칠을 딸리민이 그것이 옛ㄴ치 푸닥푸닥 맛이 있어. 갱허믄 요만헌 오가리에 낡이, 웃드르 사름덜이고 해벤사름덜이고 그 쫄 앓아왕, 이것이 사발이면은 이 사발로 하나 그 패 삶은 걸 주면은 쫄도 하나 받아가곡 해낫어.(막 한 며칠을 달이면 그것이 옛처럼 ‘푸닥푸다’ 맛이 있어. 그러면 요만한 향아리에 놔서, 중산간 사름들이고 해변 사름들이고 그 쫄 가져와서, 이것이 사발이면 이 사발로 하나 그 패 삶은 걸 주면 쫄도 하나 받아가고 했었어.)

107012 @ 아.(아.)

107012 #1 건 맛있어.(그건 맛있어.)

107012 @ 물룣허고 패허고 ㄴ치?(무룣하고 패하고 같이?)

107012 #1 응. 삶으민 달라.(응. 삶으면 달라.)

107012 @ 응.(응.)

107012 #1 막 달라.(아주 달라.)

107012 @ 건 식량 옛일 때 먹어난 거지예?(그건 식량 없을 때 먹었던 거지요?)

107012 #1 건 우리 벨미로 산 먹어난.(그건 우리 벨미로 사서 먹었었어.)

107012 @ 아, 벨미로?(아, 벨미로?)

107012 #1 응. 패밥 그거 패밥은 벨미로 우리 산 먹어낫어. 쫄 쥘 바짜시난게.(응. 패밥 그거 패밥은 벨미로 우리 사서 먹었었어. 쫄 줘서 바꿨으니까.)

107012 @ 계난.(그러니까.)

107012 #1 그거 흔 사발이민 썰도 흔 사발 쥘 먹어시난게.(그거 한 사발이면 썰도 한 사발 줘서 먹었으니까.)

107012 @ 아이고, 비싼 썰을?(아이고 비싼 썰을?)

107012 #1 응.(응.)

107012 @ 패는 이 바당에서 나는 거 아니?(패는 이 바다에서 나는 거 아니?)

107012 #1 응, 바당에선 나는 건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라? 막 밧디 강 물룻을 막 파당 씻영 거 단장행 이 패도 막 쥘물을 빠불어야 들 거 아니? 어떻 거 삶아가민 경 돌아신디.(응, 바다에서 나는 건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거야? 막 밧에 가서 물룻을 막 파다가 씻어서 그거 단장해서 이 패도 막 쥘물을 빠버려야 달 거 아니? 어떻게 그거 삶아가면 그렇게 달았는데.)

107012 @ 응.(응.)

107012 #1 그때 든 것도 하지 안 허난 든 것도 안 놔실 건디, 패 삶으민 경 돌아.(그때 단 것도 하지 안 하니까 단 것도 안 놔을 건디, 패 삶아면 그렇게 달아.)

107012 @ 응.(응.)

107012 #1 우린 바팡, 썰에 바팡 먹어나세계.(우린 바꿔서, 썰을 바꿔서 먹었었잖아.)

107013 @ 그냥 별미로. 음. 이제 밥은 다 골앗고 이번엔 국. 국은 무신 국, 무신 국 옛날에 하영 끌려 먹었수과?(그냥 별미로. 음. 이제 밥은 다 말했었고 이번엔 국. 국은 무슨 국, 무슨 국 옛날에 많이 끓여서 먹었습니까?)

107013 #1 에이구. 허는 건 무신거 웬장국에나 느물베핀 더 잇어?(에이구. 하는 건 무엇 된장국에나 나물밖엔 더 잇어?)

107013 @ 그거 무신 국이엔 골아? 느물국, 장국?(그거 무슨 국이라고 말해? 나물국, 장국?)

107013 #1 장국.(장국.)

107013 @ 장국예.(장국요.)

107013 #2 호박국, 늪배국 핫주, 무사.(호박국, 무국 많지, 왜?)

107013 #1 게메 국이 그거라, 웬장국베핀 엇주.(그러게 국이 그거야, 된장국밖엔 없지.)

107013 @ 응.(응.)

107013 #1 바당고기나 사당 국 끌림베피. 국이엔 현 거 거베피.(바닷고기나 사다가 국 끓이는 거 밖에. 국이라고 한 거 그거밖에.)

107013 @ 그건 무신 국이엔 골아? 바닷고기 삶은 거.(그건 무슨 국이라고 말해? 바닷고기 삶은 거.)

107013 #1 건 뭐 멜국도 바당고기, 고등에 국도 바당고기 건 뭐 현이 엇주, 생선 이름은.(그건 뭐 멸치국도 바닷고기, 고등어 국도 바닷고기 그건 뭐 현이 없지, 생선 이름은.)

107014 @ 게민 느물국은 어떻 끌려사 맛좋습니까?(그러면 나물국은 어떻게 끓

여야 맛있습니까?)

107013 #2 뽕장국이주.(뽕장국이지.)

107014 @ 뽕장국? 뽕장에 녹물 넣 끓이젠 허민?(뽕장국? 뽕장에 나물 놔서 끓이려고 하면?)

107014 #1 어떻 끌려. 수왕수왕 물 끌어가민 녹물 뽕뽕 모지려 놓민 뽕. 이젠 허끔 놓는 거나 잇주, 옛날엔 그냥 뽕장만, 집이서 현 뽕장 맛 다가리도 엇인 뽕장 그것에 먹으면. 것이 뽕장국이난.(어떻게 끓이니. ‘수왕수왕’ 물 끌어가면 나물 ‘뽕뽕’ 무지려 놓으면 뽕. 이젠 조금 놓는 거나 잇지, 옛날엔 그냥 뽕장만, 집에서 한 뽕장 맛도 없는 뽕장 그것에 먹으면. 그것이 뽕장국이니까.)

107014 @ 뽕장을 먼저 놓니까?(뽕장을 먼저 놓습니까?)

107014 #1 응.(응.)

107014 @ 물 끓기 전에?(물 끓기 전에?)

107014 #1 걸렁게. 장체로도, 그때도 허끔 사발로라도이 영 걸렁 장 아지를 더러 데껴붙어사 돼여.(걸러서, 체로, 그때도 조금 사발로라도 이렇게 걸러서 장 찌꺼기를 더러 던져버려야 돼.)

107014 @ 아. 제일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장 풀영, 뽕장 풀영 끌리민 그다음에 녹물 놓민 돼여?(아. 제일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장 풀어서, 뽕장 풀어서 끓이면 그다음에 나물 놓으면 돼?)

107014 #1 녹물 놓민게 꿩영 그거 익으면 꿩영 올르민 것이 끝난 거주게.(나물 놓으면 끓여서 그거 익으면 끓어 오르면 그것이 끝난 거지.)

107016 @ 응. 무수, 저 늑뽕국은 어떻 끌립니까?(응. 무, 저 무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16 #1 마찬가지로 것도. 장국 먼저 해놔당 무수 썰영 꿩어가민 뽕.(마찬가지 그것도. 뽕장국 먼저 해놔다가 무 썰어서 끓어가면 놔서.)

107015 @ 아. 게민 콩나물도 국 끌렁 먹어놔수과?(아. 그러면 콩나물도 국 끓여서 먹었었습니까?)

107015 #1 응, 이제나 그제나 마찬가지로질 거라.(응, 이제나 그제나 마찬가지로질 거야.)

107015 @ 이제나 그제나. 이것도 뽕장 뽕?(이제나 그제나. 이것도 뽕장 놔서?)

107015 #1 응.(응.)

107017 @ 응. 게민 콩국 끌리는 건 어떻 끌리는 거과?(응. 그러면 콩국 끓이는 건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107017 #1 콩국 끌리는 건이 녹물이나.(콩국 끓이는 건 나물이나.)

107017 @ 나 맨날 그거에 부껴붙어근에 맛엇영예. 어떻 끌려야 맛존 거과?(나 맨날 그거요 넘쳐버려서 맛없어요. 어떻게 끓여야 맛있는 겁니까?)

107017 #1 콩국 끌리젠 허민이 물 수왕수왕 꿩가민 미룻 그 콩가루를 막 사발에 뽕 때려 놔이.(콩국 끓이려고 하면 물 ‘수왕수왕’ 끓어가면 미리 그 콩가루를 막

사발에 와서 섞어 봐.)

107017 @ 예.(예.)

107017 #1 때려사 또 콩 두부ㄹ추룩.(섞어야 또 콩 두부처럼.)

107017 @ 아, 이렇게 이렇게?(아, 이렇게 이렇게?)

107017 #1 응. 문닥. 손이, 하영 끌리는 건 손이로라도 문작문작 헤사 그디 콩이 문작 돼여지면은 콩가루가.(응, ‘문닥’. 손이, 많이 끓이는 건 손으로라도 ‘문작문작’ 해야 거기 콩이 모두 되면 콩가루가.)

107017 @ 응.(응.)

107017 #1 돼면은 물 끓는 더레 무수나 배추나 낱 허민 문여 봐 붙어야 돼여 이.(되면 물 끓는 데 무나 배추나 와서 하면 먼저 봐 버려야 돼.)

107017 @ 아, 콩 놓기 전이?(아, 콩 놓기 전에?)

107017 #1 응, 콩가루 놓기 전이. 와근앵에 또 그 콩 혼불 오락하게 올를 거 아니?(응, 콩가루 놓기 전에. 와서 또 그 콩 한벌 ‘오락’하게 올를 거 아니?)

107017 @ 예.(예.)

107017 #1 올르민 그 영허게 소르르허게 놓면은 흐끔 시민 북석북석 올라오지 안 허나?(오르면 그 이렇게 사르르 놓으면 조금 있으면 ‘북석북석’ 올라오지 않니?)

107017 @ 예, 예.(예, 예.)

107017 #1 그때는 소금물율이 쪼금.(그때는 소금물을 조금.)

107017 @ 예.(예.)

107017 #1 소금물을 행 낫다근앵이, 불도 줄여두고.(소금물을 해 낫다가, 불도 줄여두고.)

107017 @ 응.(응.)

107017 #1 숟가락으로 꺾여 오는 더레 소록소록<sup>173)</sup> 흐끔씩 놓아 가문이 것이 전전허게 꺼져가. 꺼져가민 흐끔씩 오락 올라나민은 두까리 더경 톱 놔두민 북삭허게 올라오민 두부국, 순두부국 닳아.(숟가락으로 끓어오르는 데 ‘소록소록’ 조금씩 놓아가면 그것이 ‘전전’하게 꺼져가. 꺼져가면 조금씩 ‘오락’ 오르고 나면 뚜껑 덮어서 놔두면 ‘북삭’하게 올라오면 두부국, 순두부국 같아.)

107017 @ 아. 그 거난 흐끔만 잘못허민 확허게 넘쳐불드라고마씨.(아, 그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확하게 넘쳐버리더라고요.)

107017 #1 게, 경허난 거 넘치민 순두부국이 안 닳아. 가르르<sup>174)</sup> 해불어.(그러게, 그러니까 그거 넘치면 순두부국이 안 같아. ‘가르르’ 해버려.)

107017 @ 예, 경헤근에 맨날 못 끓여. 맛종게 못 끓여.(예. 그렇게 해서 맨날 못 끓여. 맛있게 못 끓여.)

107017 #1 경허민 그 물 끌여 논 더레게 소금물을 미룻 탕 놔둬야 돼. 그 부글 부글 올라와 가민 영 흐끔씩 수가락으로 거려 낱 츠츠츠 잘 재와사.(그러면 그 물

173) ‘소록소록’은 콩국을 끓일 때 소금물을 조금씩 붓는 모양이다.

174) ‘가르르’는 콩국을 끓일 때 콩가루가 뭉쳐지지 않고 흩어진 모양이다.

끓여 놓은 데 소금물을 미리 타서 놔둬야 돼. 그 부글부글 올라와 가면 이렇게 조금씩 숟가락으로 떠 놔서 차차차차 잘 재워야.)

107017 @ 아.(아.)

107017 #1 잘 재와사 그거 우이 무수 다 익은 것 닻거덜랑 불 꺼둡 두께 툇 더 끄민 북삭허게. 콩물이 파랑게 물은 물대로.(잘 재워야 그거 위에 무 다 익은 거 같거든 불 꺼두고 뚜껑 툇 덮으면 ‘북삭’하게. 콩물은 파랑게 물은 물대로.)

107017 @ 콩 영 뭉쳐정예.(콩 이렇게 뭉쳐져서요.)

107017 #1 두분 두부대로 뭉탁뭉탁허민 국자로라도 툇 툇 끈어 놓민 국이 뉘민. 흐뭇 먹어가민 흐뭇 해싸지민 해도 경해사 콩국이 뉘 거난. 맛있어.(두분 두부대로 ‘뭉탁뭉탁’하면 국자로라도 툇 툇 끓어 놓으면 국이 되면. 조금 먹어가면 조금 훌어 지기는 해도 그렇게 해야 콩국이 뉘 거니까. 맛있어.)

107017 @ 맞아마씨.(맞아요.)

107017 #1 미원<sup>175)</sup>이라도 흐뭇 놓고 아무 다시다<sup>176)</sup>라도 쪼끔 농국 허민.(미원 이라도 조금 넣고 아무 다시다라도 조금 넣고 하면.)

107017 #2 것도 옛날 옛이난, 미원이.(그것도 옛날 없으니까, 미원이.)

107017 @ 게난.(그러니까.)

107017 #1 놓민 좋아. 경.(넣으면 좋아. 그렇게.)

107017 #2 이제사 미원 시난 므음대로 훌 거주.(이제야 미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지.)

107018 @ 이제 뉘 호박입국도 끌렁 먹주예?(이제 뉘 호박잎국도 끓여서 먹지요?)

107017 #2 할망이 전문가 아니라?(할머니가 전문가 아니야?)

107018 @ 게난 요번이도 호박입 흐뭇 타주카? 나한테 헨게만은. 호박입국은 어떻 끌리민 맛줍니까?(그러니까 요번에도 호박잎 조금 따줄까? 나에게 하던데. 호박잎국은 어떻게 끓이면 맛있습니까?)

107018 #1 호박입국도이 뉘장 풀어 놓민 맛이 엇어.(호박잎국도 된장 풀어 놓으면 맛이 엇어.)

107018 @ 예.(예.)

107018 #1 그냥 해낭 소금으로 허국 다시다 흐뭇 농국이. ㄱ루랑 흐뭇 그 물에 맞으리만이흔 솟 행, 탁탁탁 호박입 건쭈 익어간 거 닻거들랑 소르르허게 낱 젓어 불민 풀폴헨<sup>177)</sup> 게 맛이 잇어.(그냥 해놓고 소금으로 하고 다시다 조금 넣고. 가루랑 조금 그 물에 맛을 만큼한 솔 해서, 탁탁탁 호박잎 거의 익어간 거 같거든 사르르하게 넣어서 저어버리면 ‘풀폴’한 게 맛이 잇어.)

107018 @ 게민 아무것도 안 논 물에 물 끌렁?(그러면 아무것도 안 넣은 물에 물 끓여서?)

175) ‘미원’은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의 상품명이다.

176) ‘다시다’는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의 상품명이다.

177) ‘풀폴헨’은 풀기가 있는 모양이다.

107018 #1 응.(응.)

107018 @ 다시다 낱 물 끌려?(다시다 넣어서 물 끓여?)

107018 #1 응, 다시다 조금 농곡 행.(응, 다시다 조금 넣고 해서.)

107018 @ 경행 물 끌렁.(그렇게 물 끓여서.)

107018 #1 메르치라도 흐끔 넣고.(멀치라도 조금 넣고.)

107018 @ 메르치라도 흐끔 낱.(멀치라도 조금 놔서.)

107018 #2 웬장 안 놓는 거라?(된장 안 넣는 거야?)

107018 #1 웬장 놓민 곳어.(된장 놓으면 곳어.)

107018 @ 끌렁, 이거 물 끓으면 호박잎을 놔, 찰라근에?(끓여서, 이거 물 끓으면 호박잎을 넣어, 찰라서?)

107018 #1 응. 영영 북북 모지려근에.(응. 이렇게 이렇게 북북 무질러서.)

107018 @ 북북 모지려근에 놔.(북북 무질러서 넣어.)

107018 #1 즈질이 북북 모지려 불어, 모지렁 놓면은 그거 건쭈 익은 거 닭걸랑  
ㄱ루 탕 거를 소르르하게 놓면 풀풀행 맛있주.(잘게 북북 무질러 버려, 무질러 넣으면  
그거 거의 익은 거 같거든 가루 타서 그것을 사르르 놓으면 ‘풀풀’해서 맛있지.)

107018 @ 아. 건 소금으로 간하는 거?(아. 그건 소금으로 간하는 거?)

107018 #1 소금으로 ㄱ 해사주.(소금으로 간해야지.)

107018 @ 아.(아.)

107018 #2 웬장 안 놓는구나.(된장 안 넣는구나.)

107018 #1 웬장 놓민 맛이 었어.(된장 넣으면 맛이 없어.)

107018 @ 호박입국은예, 맞아 하얏해야 돼여.(호박잎 국은요, 맞아 하얏야 돼.)

107018 #1 정 안 해도 프리롱허는 물에 또 웬장ㄱ지 낱 시커멓게 허민 맛이 었  
어.(그렇게 안 해도 파르스름한 물에 또 된장까지 넣어서 시커멓게 하면 맛이 없  
어.)

107018 @ 게난.(그러니까.)

107018 #1 나 요번이도 야 소금 낱 끌리주, 이거 무사 웬장국에 첨 저, 호박입  
국에 웬장을 놔시니 허멍.(나 요번에도 야 소금 넣어서 끓이지, 이거 왜 된장국에  
참 저, 호박입국에 된장을 넣었니 하면서.)

107018 @ 몰란, 몰란. 그 호박입은 영영 뭐 뱃겨붙어야 돼지 안허여?(몰랐어,  
몰랐어. 그 호박잎은 이렇게 이렇게 뭐 뱃겨버려야 되지 않아?)

107018 #1 실, 실.(실, 실.)

107018 @ 실, 실. 응, 뒤에 실 영 다 뱃겨붙어야주예. 거 딱딱행예.(실, 실. 응,  
뒤에 실 이렇게 다 뱃겨버려야지요. 그거 딱딱해서요.)

107018 #1 딱딱허진 안허고 질겨.(딱딱하진 않고 질겨.)

107018 @ 아, 질겨?(아, 질겨?)

107018 #1 실겍ㄱ추룩 질겨.(실오리처럼 질겨.)

107018 @ 아. 무신거ㄱ추룩 질겨?(아. 무엇처럼 질겨?)



107018 #1 질겨, 질겨. 실겉 ㄹ추룩.(질겨, 질겨. 실오리처럼.)

107018 @ 실겉?(실오리?)

107018 #1 응.(응.)

107018 @ 실겉이 무슨거?(실오리가 뭐?)

107018 #1 실.(실.)

107018 @ 응.(응.)

107018 #1 실 줄거리 ㄹ추룩 질겨, 그것이.(실 줄기처럼 질겨, 그것이.)

107018 @ 응.(응.)

107018 #1 그걸 뱉겨붙어사 또 묻지락도 하고.(그걸 뱉겨버려야 또 부드럽기도 하고.)

107018 @ 기지예. 요기에. 또 막 가시 닳은 것도 이십니께?(그렇지요. 요기에. 또 막 가시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107018 #1 그것에 가시에 부떠서. 그거 닳은 거에. 손에도 들민 어떻 꺾어, 것도. 호박입도이 썬 거. 썬 거는 거 가시 ㄹ추룩 ㄴ실아.(그것에 가시에 붙어서. 그거 같은 거에. 손에도 들면 어떻게 꺾어, 그것도. 호박잎도 썬 거. 썬 거는 그거 가시처럼 날카로워.)

107018 @ 아.(아.)

107018 #1 연현 거는 안 해도.(연한 거는 안 해도.)

107018 @ 아. 호박입국은 흐뭇 연현 걸로 행 해사.(아. 호박잎국은 조금 연한 걸로 해서 해야.)

107018 #1 아이고, 연현 거가 좋주게.(아이고, 연한 게 좋지.)

107018 @ 예.(예.)

107018 #1 이제, 이제 호박입국 끌려가민, 막 나 오늘 아침이 세 밧디 앓아 갓 저.(이제, 이제 호박잎국 끌여가면, 막 나 오늘 아침에 세 군데 가져 갔어.)

107018 @ 호박입?(호박잎?)

107018 #1 호박입 툇앙.(호박잎 뜯어서.)

107019 @ 하하하. 뭇국은 어떻 끌리는 거마씨?(하하하. 모자반국은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107019 #1 뭇국은 이 우리 잘 안 끌렸는디.(모자반국은 이 우리 잘 안 끓였는데.)

107019 @ 잔치 때나.(잔치 때나.)

107019 #1 아니, 아니. 경 맛있게 끌리지 안행 보통 집이서 끌렁 먹젠 허믄이 우리 두린 때 할머니네가 끌려준 거 보믄이 뭇국물이 뭇, 젓 담아난 국물이 그거 낱 끌리민 맛이 잇어.(아니, 아니. 그렇게 맛있게 끓이지 않고 보통 집에서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우리 어린 때 할머니네가 끓여준 거 보면 뭇치젓 국물이 뭇치젓, 젓갈 담았던 국물이 그거 봐서 끓이면 맛이 잇어.)

107019 @ 뭇국을?(모자반국.)

107019 #1 응, 겐디 이제는 뭍국을 막 귀한 걸로 알앙이. 무신 빼다귀 국이나 고사리국 거추룩 그추룩 생각허주. 옛날은 뭍도 하고 현 때라부난. 우리 할마니 산 때는 뭍국에 뭇치 낱 끌리민 맛이 좋아벤디 이젠 그건 저레 데껴붙어.(응, 그런데 이제는 모자반국을 막 귀한 걸로 알아서. 무슨 빼다귀 국이나 고사리국 그거처럼 그거처럼 생각하지. 옛날은 모자반도 하고 한 때라서. 우리 할머니 산 때는 모자반 국에 뭇치젓 놔서 끓이면 맛이 좋아 보이는데 이젠 그건 저리 던져버려.)

107019 @ 응, 이젠 도새기 국물 삶은 거에나예.(응, 이젠 돼지 국물 삶은 거에나요.)

107019 #1 응.(응.)

107019 @ 아, 옛날에는 도새기 국물 삶은 거 말고도.(아, 옛날에는 돼지 국물 삶은 거 말고도.)

107019 #1 잔치집이 도새기 혼 므리, 두 므리 삶아난 국물에이 몸을 하영 뽕앙이 동네 늑신, 노인덜 이시민이 동네침이 다 혼 사발씩, 두 사발씩 다 앓아가난디. (잔치집에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삶았던 국물에 모자반을 많이 뽕아서 동네 늑은, 노인들 있으면 동넛집이 다 한 사발씩, 두 사발씩 다 가져갔었는데.)

107019 @ 응.(응.)

107019 #1 이젠 돼지 삶아난 국물을 먹엄서? 던져 불엄주. 이젠 안 먹어.(이젠 돼지 삶았던 국물을 먹고 있지? 던져 버리고 있지. 이젠 안 먹어.)

107019 @ 경해도 일부러 뭍국 먹으려 갑니다, 식당에.(그래도 일부러 모자반국 먹으려 갑니다, 식당에.)

107019 #1 그 빼다귀 딸린 현 국?(그 빼다귀 달여서 한 국?)

107019 @ 예, 예.(예, 예.)

107019 #1 돼야지 고기 삶아난 국물 아니.(돼지 고기 삶았던 국물 아니.)

107019 @ 아.(아.)

107019 #1 뭍국 먹으려 가는 건 빼 딸린 국물에 끌리민 더 좋아.(모자반국 먹으러 가는 건 빼 달린 국물에 끓이면 더 좋아.)

107019 @ 겐디 옛날에는 경 뭇치헤난 그 국물로도 헤나서예.(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뭇치졌했던 그 국물로도 했었요.)

107019 #1 뭇치 국물이 맞신덴 행 그걸 헛어. 경 안허민 맛 날 것이 엇주게.(뭇치 국물 맛있다고 해서 그걸 헛어. 그렇게 안하면 맛 날 것이 없지.)

107019 @ 아.(아.)

107019 #1 빼다귀난 옛날 돼지고기 이제난 돼지고기 썩어지고 밀려젓주, 경 돼지고기, 제사나 허젠 허민 근도 아니고 영 토막으로 사당 흐뎡 허영 헛주. 경 이제 ㅁ치 넣어지게 경.(빼다귀니까 옛날 돼지고기 이제니까 돼지고기 썩어지고 밀리고 있지, 그렇게 돼지고기, 제사나 하려고 하면 근도 아니고 이렇게 토막으로 사다가 조금 해서 헛지. 그렇게 이제처럼 널려서 그렇게.)

107019 @ 이섬서예.(있냐고요.)

107019 #1 아니주, 풀쌍허게덜 살았주.(아니지, 불쌍하게들 살았지.)

107019 @ 이디션 뎡 그냥 뎡이엔 곱읍니까?(여기선 모자반 그냥 모자반이라고 말합니까?)

107019 #1 응. 뎡.(응, 모자반.)

107019 @ 뎡예.(모자반요.)

107019 #2 에이구, 제섯날에 돼지고기 혼 점 안 놔부난 나 올어난.(아이고, 제섯날에 돼지고기 한 점 안 놔버리니까 나 올었었어.)

107019 @ 하하하.(하하하.)

107019 #2 왜정 때 제서침이 가난게 어린 때난 그거 혼 점 떨어전.(왜정 때 제사집에 가니까 어린 때니까 그거 한 점 부족했어.)

107019 #1 아, 옛날 말 곧지 맙센 헤도.(아, 옛날 말 말하지 말라고 해도.)

107019 #2 아, 게메.(아, 글썄.)

107019 @ 옛날 말 곱으렌 허는 건디게, 들으레 와신디 무사 옛날 말 곧지 말렌 햄수과?(옛날 말 말하라고 하는 건데, 들으러 왔는데 왜 옛날 말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107019 #1 거 해당 안 뎡 말이라, 이거.(그거 해당 안 된 말이야, 이거.)

107019 #2 아, 뎡국 말에 그 말이 나온 거라.(아, 모자반국 말에 그 말이 나온 거야.)

107019 @ 예, 맞아마썌.(예, 맞아요.)

107019 #2 거 생전 안 잊어불어.(그거 생전 안 잊어버려.)

107019 @ 생전 안 잊어불어, 얼마나 썩썩헤시민.(생전 안 잊어버려, 얼마나 썩썩했으면.)

107019 #1 예, 예.(예, 예.)

107019 #2 참, 우리 사는 팔제가 더럽게 나쁜 때난. 스삼, 육이오.(참, 우리 사는 팔자가 더럽게 나쁜 때니까. 사삼, 육이오.)

107019 @ 예.(예.)

107019 #2 대동아 전쟁. 이건 뎡 송시주. 국민학교 일학년 때 대동아 전쟁 소화 십육 년 십이월 팔일 폭발헤 일본 놈덜이. 아이고, 나쁜 놈덜.(대동아 전쟁. 이건 뎡 홍사지. 국민학교 일학년 때 대동아 전쟁 소화 십육 년 십이월 팔일 폭발해서 일본 놈들이. 아이고, 나쁜 놈들.)

107019 #1 이거 놔 오늘랑 강 이 할망 곱은 대로 국을 끌렁 먹어이.(이거 놔서 오늘랑 가서 이 할머니 말한 대로 국을 끓여서 먹어.)

107018 @ 무신거, 무신거?(뎡, 뎡?)

107018 #1 이거 호박입.(이거 호박잎.)

107018 @ 호박입?(호박잎?)

107018 #1 잘도 연헌 거, 이거.(아주 연한 거, 이거.)

107018 @ 나 주젠 가정 왓수과?(나 주려고 가져 왔습니까?)

107018 #1 응, 맞아 가. 날랑 톨아당 먹고.(응, 가져 가. 나는 뜯어다가 먹고.)

107018 @ 어떻게근에 거 단장해야 될 거 아니?(어떻게 해서 그거 단장해야 될 거 아니?)

107018 #1 아, 이거 다 단장해 논 거.(아, 이거 다 단장해 놓은 거.)

107018 @ 다 단장해 논 거?(다 단장해 놓은 거?)

107018 #1 어.(어.)

107018 @ 이거 무신 이거 뭐 해야 헌텐 허멍. 이거 다 헨?(이거 무슨 이거 뭐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 다 했어?)

107018 #1 다 헨. 이거.(다 했어. 이거.)

107018 @ 아.(아.)

107018 #1 계난 이거 다 영 꼭지로만 허난 이거 잘도 맞춘 거.(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꼭지로만 하니까 이거 아주 맛있는 거.)

107018 @ 예, 예. 잘도 연헌 건게. 요건 호박도 달려신게.(예, 예. 아주 연한 거네, 요건 호박도 달려있네.)

107018 #1 응.(응.)

107018 @ 하하하.(하하하.)

107018 #1 아침이 국 끌리젠 허난 소고기국 끌린 거 서부난 안 끌린. 이거 한번 나 끓은 대로 국 끌렁 먹어봐.(아침에 국 끓이려고 하니까 소고기국 끓인 거 있어버리니까 안 끓였어. 이거 한 번 나 말한 대로 국 끓여서 먹어봐.)

107018 @ 알았수다.(알겠습니다.)

107018 #2 무시거 낱 혈 거?(뭐 놔서 할 거?)

107018 @ 아까 뭐 메리치라도 흐끔 들이청.(아까 뭐 멸치라도 조금 들이쳐서.)

107018 #1 메리치 다시다 흐끔 이시민 좋으메.(멸치 다시다 조금 있으면 좋아.)

107018 @ 갱 끌렁.(그렇게 끓여서.)

107018 #1 소금 넣고게.(소금 넣고.)

107018 @ 요거 넣고 소금 넣고 그다음 밀가루로 가루 영 풀영?(요거 넣고 소금 넣고 그다음 밀가루로 가루 이렇게 풀어서?)

107018 #1 응, 굳이랑 소금으로 맞추고.(응, 간이랑 소금으로 맞추고.)

107018 @ 굳이랑 소금으로 맞추고예.(간이랑 소금으로 맞추고요.)

107018 #1 응.(응.)

107020 @ 생선국은 무신거, 무신거 낱 끌려? 아까 멜도 낱 끌려지고.(생선국은 뭐, 뭐 놔서 끓여? 아까 멸치도 놔서 끓일 수 있고.)

107020 #1 응, 소금 낱 끌려야, 장물 놓민 검고이. 옛날 식은 몰라. 옛날은 다 장물했지. 거멍게.(응, 소금 놔서 끓여야, 장물 놓으면 검고. 옛날 식은 몰라. 옛날은 다 장물 했지. 거멍게.)

107020 @ 예, 예.(예, 예.)

107020 #1 보기도 굿어. 이제는 경허민 안 먹어.(보기도 나빠. 이제는 그렇게 하

면 안 먹어.)

107020 @ 겐 생선은, 생선 국 끓여 지는 게 무신거 낭 끝립니까?(그렇게 해서 생선은, 생선 국 끓일 수 있는 건 무엇 놔서 끓입니까?)

107020 #1 그때, 이제?(그때, 이제?)

107020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7020 #1 게메, 장물 낭 끌리고.(그러게, 간장 놔서 끓이고.)

107020 @ 아니, 무신 생선으로 국 끌려?(아니, 무슨 생선으로 국 끓여?)

107020 #1 갈칠 끌리던.(갈치를 끓이든.)

107020 @ 갈치국.(갈치국.)

107020 #1 멜을 끌리던.(멸치를 끓이든.)

107020 @ 멜국.(멸치국.)

107020 #1 우력을 낭 국 끌리던.(우력을 놔서 국 끓이든.)

107020 @ 우력국, 응.(우력국, 응.)

107020 #1 경해도 장물베편 놀 수가 있어. 옛날은 소금 놀 내기도 아니고 그런 다시다도 엇거든게.(그래도 장물밖에 놓을 수가 없어. 옛날은 소금 놀 생각도 아니고 그런 다시다도 없거든.)

107020 @ 게른 이 생선은 물 끓은 다음에 놔 아니면?(그러면 이 생선은 물 끓은 다음에 놔, 아니면?)

107020 #1 끌영, 끌영.(끓여서, 끓여서.)

107020 @ 처음부터 놔?(처음부터 놔?)

107020 #1 끌영 놓는 게 좋지게. 확 끌영 폭 끌이민 오들랑허게 고기도 익고 좋주.(끓여서 놓는 게 좋지. 확 끓여서 폭 끓이면 ‘오들랑’하게 고기도 익고 좋지.)

107020 @ 아, 물 먼저 끌령 고기를 들이쳐? 멜국은?(아, 물 먼저 끓여서 고기를 들이쳐? 멸치국은?)

107020 #1 멜국도 마찬가지로. 멜국도 끌령 들르민 끌령이가 푹 떼진 거 오골오골 먹음직하잖아.(멸치국도 마찬가지. 멸치국도 끓여서 들면 꼬리가 푹 떼어진 거. ‘오골오골’ 먹음직하잖아.)

107020 @ 아. 경해도 이 멜은 금방 익어불고 우력은 흐뎡 오래 끓여야 돼지 안해?(아. 그래도 이 멸치는 금방 익어버리고 우력은 조금 오래 끓여야 되지 않아?)

107020 #1 응, 오래 끓여지주게. 우력은 끌어낭 가시 쳐 두곡 헤사. 그 가시가 너무 썰여.(응, 오래 끓일 수 있지. 우력은 끓여놓고 가시 쳐두고 해야. 그 가사가 너무 세.)

107020 @ 아, 가시가 너무 썰여.(아, 가시가 너무 세.)

107020 #1 우력 가시는 너무 썰여. 오토미 가시도 막 썰고.(우력 가시는 너무 세. 옥돔 가시도 아주 세고.)

107020 @ 이디 오토미도 국 끝립니까?(여기 옥돔도 국 끓입니까?)

107020 #1 응.(응.)

107020 @ 오토미 이디 잘 안 난텐 허멍.(옥돔 여기 잘 안 난다고 하면서.)

107020 #1 무사 안 나게? 제주시 강 보민 시장에 다.(왜 안 나? 제주시 가서 보면 시장에 다.)

107020 @ 아니, 옛날에, 옛날에.(아니, 옛날에, 옛날에.)

107020 #1 옛날에도 아니 날 린 엇주.(옛날에도 안 날 리는 없지.)

107020 @ 이 동넨 무사 오토미 안 허고 우력으로 하영 허던데 제사 때도, 식게 때도.(이 동넨 왜 옥돔 안 하고 우력으로 많이 하던데 제사 때도, 제사 때도.)

107020 #1 거 닥치민 닥치는 대로.(그거 닥치면 닥치는 대로.)

107020 @ 응.(응.)

107020 #2 거 함덕장에 막 나.(그거 함덕장에 막 나.)

107020 #1 나는 거 보멍 허는 거주.(나는 거 보면서 하는 거지.)

107020 @ 나는 거 보멍.(나는 거 보면서.)

107020 #1 이제 아니고 옛날에 말 골ampus다.(이제 아니고 옛날 말 말하고 있습니다.)

107020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7020 #2 아, 옛날에.(아, 옛날에.)

107020 @ 게민 아까 그 생선국에는 늬뽕 놓니까, 메역을 놓니까?(그러면 아까 그 생선국에는 무 놓습니까, 미역을 놓습니까?)

107020 #1 그때 나름이주. 메역 시민 메역도 놓고, 무수 시민. 생선국에 메역도 메역이주만은 무수가 좋아, 풀풀헌 게.(그때 나름이지. 미역 있으면 미역 놓고, 무 있으면. 생선국에 미역도 미역이지만 무가 좋아, ‘풀풀’한 게.)

107020 @ 무수가 좋아.(무가 좋아.)

107020 #1 응, 생선국에.(응, 생선국에.)

107020 @ 아.(아.)

107020 #1 이 콧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메역이 존디 생선국에는 무우만 좋민 무우가 좋아.(이 숲의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미역이 좋은데 생선국에는 무만 좋으면 무가 좋아.)

107022 @ 아. 냉국은?(아. 냉국은?)

107022 #1 냉국 어떻게, 냉국사 오이베끼 더 있어? 오이나 텡기당 녹물이나 삶은 거 낫당 또 험베끼.(냉국 어떻게 해, 냉국이야 오이밖에 더 있어? 오이나 다니다가 나물이나 삶은 거 낫다가 또 함밖에.)

107022 @ 우리 녹물 삶은 거 말고 무신 해초도 낱 허던데, 무신 청각 이런 것도 막 놓고.(우리 나물 삶은 거 말고 무슨 해초도 놔서 하던데, 무슨 청각 이런 것도 막 놓고.)

107022 #1 청각. 응, 청각 놓민 시원행 좋주게.(청각. 응, 청각 놓으면 시원해서 좋지.)

107022 #2 청각?(청각?)

107022 #1 정각, 정각. 거 놓민 더 좋아.(청각, 청각. 그거 놓으면 더 좋아.)

107022 #2 건 냉국 허는 거 아니라.(그건 냉국하는 거 아니야.)

107022 @ 냉국할 때, 냉국할 때 무신거 놓냐고?(냉국할 때, 냉국할 때 뭐 놓느냐고?)

107022 #1 오이에라도.(오이에라도.)

107022 @ 물웨, 옛날엔 오이 엇이난 물웨 허지 안헐?(노각, 옛날엔 오이 없으니까 노각하지 않아?)

107022 #1 물웨도 허고 이제, 건 이제 거주. 옛날 경 해사? 안 헐주.(노각도 하고 이제, 그건 이제 거지. 옛날 그렇게 했니? 안 했지.)

107022 @ 응. 옛날 바디 강 바디서 밥 먹젠 허민 물 따로, 장 따로 가정 강 냉국 행 먹어?(응. 옛날 밭에 가서 밭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물 따로, 장 따로 가져가서 냉국 해서 먹어?)

107022 #1 응. 그냥 영 물웨나 앓앙 갓당. 그냥 영 호미로라도 영영 그레 깎아 낱 웬장 사발에 영영.(응. 그냥 이렇게 노각이나 가져 갔다가. 그냥 이렇게 호미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 깎아놔서 된장 사발에 이렇게 이렇게.)

107022 @ 풀영, 응.(풀어서, 응.)

107022 #1 것도 무신 이디서 ㄹ추룩 양념 잇영 양념을 놀 거라, 무시거 चु지근허민 그냥 먹당 말 거주.(그것도 무슨 여기서처럼 양념 있어 양념을 놓을 거야, 무엇 찹지롱하면 그냥 먹다가 말 거지.)

107022 @ 하하하. 그냥 물에 웬장 풀영 그냥 호미로 물웨나 영영 썰어 낱? 그게 냉국?(하하하. 그냥 물에 된장 풀어서 그냥 호미로 노각이나 이렇게 이렇게 썰어놔서? 그게 냉국?)

107022 #1 그게 냉국이주.(그게 냉국이지.)

107022 @ 응. 이디 바닷가니까 자리물웨나 그런 것도 행 먹어나신가?(응. 여기 바닷가니까 자리물회나 그런 것도 해서 먹었었나?)

107022 #1 예구 옛날, 몰라, 우린 자리물웨 안 행 먹어봤어. 이제나 자리물회 행 먹주.(예구 옛날, 몰라, 우린 자리물회 안 해서 먹어봤어. 이제나 자리물회 해서 먹지.)

107022 @ 한치물웨 이런 거?(한치물회 이런 거?)

107022 #1 한치가 어디 신지 몰라. 이제나 한치여 무신 자리여 허주만은.(한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제나 한치다 무슨 자리다 하지만은.)

107022 @ 게난. 옛날엔 그런 거 안 행 먹어난예.(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거 안 해서 먹었었어요.)

107022 #1 그런 거 몰라.(그런 거 몰라.)

107022 @ 응.(응.)

107022 #1 이제 험시민 맛 좋게 행 먹주. 자리물웨도 허민, 새우리도 농곡이.(이제 하고 있으면 맛있게 해서 먹지. 자리물회도 하면, 부추도 넣고.)

107022 @ 예.(예.)

107022 #1 깻입도 농곡이.(깻잎도 농고.)

107022 @ 응.(응.)

107022 #1 또시 미나리도 조금조금, 다마네기 쪼끔 썰어 농고 허민 뭐 얼마나 맛있어? 고추장 풀어 농곡 허민.(또 미나리도 조금조금, 양파 조금 썰어 농고 하면 뭐 얼마나 맛있어? 고추장 풀어 농고 하면.)

107022 @ 계난예.(그러니까요.)

107022 #1 먹엄직이 맛 좋주.(먹을 듯이 맛있지.)

107023 @ 성게국은?(성게국은?)

107023 #1 성게국은, 난이 성게국 끌리는 건 맛종텐은 헤여. 성게를 일 키로 사든 ㅎ끔 덜어뒀어.(성게국은, 난 성게국 끓이는 건 맛종다고는 해. 성게를 일 킬로 사면 조금 덜어두고.)

107023 @ 응.(응.)

107023 #1 쪼글락현 다마네기 담아난 찰리로이 그디 낡 난 끌여, 끌이민 성게도 우려나곡 허면이 조개, 조개. 조개영 성게 영 그 그물에 낡 폭삭 삶앙 성게만 사발 러레 비왕 독독독독 찍으민 성게도 토랑토랑 요만씩 요만씩 다 허고.(조그만 양파 담앗던 자루로 거기 놔서 난 끓여, 끓이면 성게도 우려나고 하면 조개, 조개. 조개랑 성게 이렇게 그 그물에 놔서 폭 삶아서 성게만 사발에 부어서 독독독독 찍으면서 성게도 ‘토랑토랑’ 요만큼씩 요만큼씩 다 하고.)

107023 @ 예.(예.)

107023 #1 조개가 그디 물에 캥 내불민 꿔여 가든 미역 ㅎ끔씩 톤아 농민 성게국 뒤민 베지근해.(조개가 거기 물에 타서 내버리면 끓여 가면서 미역 조금씩 뜯어 놓으면 성게국 되면 ‘베지근’해.)

107023 @ 아.(아.)

107023 #1 조개 다시다로 맞추고.(조개 다시다로 맞추고.)

107023 @ 조개를 같이 낡 끌리는구나예.(조개를 같이 놔서 끓이는군요.)

107023 #1 난 끌려. 난 우려나게크름 끌리주. 늬은 어떻 허는지 몰라도 나 이제 끌리는 거는.(난 끓여. 난 우려나게끔 끓이지. 남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 이제 끓이는 거는.)

107023 @ 응. 보말로도, 보말국도 끌립니까?(응. 고등으로도, 고등국도 끓입니까?)

107023 #1 보말국도 끌리지, 끌리기는.(고등국도 끓이지, 끓이기는.)

107023 @ 지난번에 맞아, 수두리보말이영 무신.(지난번에 맞아, 팽이고동이랑 무슨.)

107023 #2 맛종아.(맛있어.)

107023 #1 겐디 죽이 더 좋아 허긴.(그런데 죽이 더 좋아 하긴.)

107023 @ 아, 보말로는 국보단 죽이 더 좋아.(아, 고등으로는 국보단 죽이 더



좋아.)

107023 #1 떡보말이나 수두리나 허면이.(밤고둥이나 팽이고둥이나 하면.)

107023 @ 응.(응.)

107023 #1 그냥 문짝 귀엩이 그디 모살이 잇어이. 똥에.(그냥 모두 이겨서 거기 모래가 있어. 똥에.)

107023 @ 예, 예.(예, 예.)

107023 #1 그냥 췌당은 지글지글 못 먹어. 낭푼에 그걸 막 그냥 문득기면 그 똥이 부서질 거 아니? 똥이 부서지면은 거 보말만 영 건져둬.(그냥 췌었다가는 지글지글 못 먹어. 양푼에 그걸 막 그냥 이기면 그 똥이 부서질 거 아니? 똥이 부서지면 그거 고둥만 이렇게 건져두고.)

107023 @ 예.(예.)

107023 #1 물에 건정 보몬이 모살이 막 하.(물에 건져서 보면 모래가 아주 많아.)

107023 @ 아.(아.)

107023 #1 보말 먹은 똥에 모살이.(고둥 먹은 똥에 모래가.)

107023 @ 아.(아.)

107023 #1 그걸 빼팅 국을 끌리민, 국이나 죽이나 췌도 지글지글 안 허는디 그 이성 분쉬 몰랑 죽 췌은이 지글지글해.(그걸 빼두고 국을 끓이면, 국이나 죽이나 췌도 ‘지글지글’ 안 하는데 그 있어서 분수 몰라서 죽 췌서 ‘지글지글’해.)

107023 @ 계속 씹어져, 모래 씹어져?(계속 씹어져, 모래 씹어져?)

107023 #1 응. 모래 씹어정 지글지글해여. 정허민 그걸 찰지름에 보깡 죽을 췌면은 전복죽이, 전복죽 같음도 해여.(응. 모래 씹어져서 ‘지글지글’해. 그러면 그걸 찰지름에 볶아서 죽을 췌면 전복죽이, 전복죽 같기도 해.)

107023 @ 혹시 넙패로도 국 끓여놔수과?(혹시 넙패로도 국 끓였었습니까?)

107023 #1 넙패국이야 맛좋지. 웬장 풀어놓고.(넙패국이야 맛있지. 된장 풀어놓고.)

107023 @ 건 어떻게 끓이는 거과?(그건 어떻게 해서 끓이는 겁니까?)

107023 #1 넙패를 메당이 복삭 빨앙 삶으면은이. 그놈이 것이 푸달푸달해여. 푸달푸달허민 웬장 풀어 놓고 국을 끌리민은이 찰말로 쿠싱행 맛있어.(넙패를 매다가 푹 빨아서 삶으면. 그놈의 것이 ‘푸달푸달’해. ‘푸달푸달’하면 된장 풀어 놓고 국을 끓이면 참마로 고소해서 맛있어.)

107023 @ 응. 가시리국은 뭐마씨?(응. 가시리국은 뭐예요?)

107023 #1 가시리. 가시리국도 좋아.(가시리. 가시리국도 좋아.)

107023 @ 가시리국은 어떤 거마씨? 우뭇가사리, 우미?(가시리국은 어떤 거예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107023 #1 우미 말고.(우뭇가사리 말고.)

107023 @ 가시리가 또 잇어?(가시리가 또 있어?)

107023 #1 가시리가 있어.(가시리가 있어.)

107023 @ 바다에서 나는 거?(바다에서 나는 거?)

107023 #1 어, 것이 폴폴해여<sup>178)</sup>.(어, 그것이 ‘폴폴’해.)

107023 #2 좋아.(좋아.)

107023 #1 끌여 톨 자민은이 꼭 폴 닭아불어. 재기 끌렁 먹으는 딴 험디 끌렁 놔두민 폴 닭아불어.(끓여서 뜸 들이면 꼭 폴 같아버려. 빨리 끓여서 먹는 데는 한 데 끓여서 놔두면 폴 같아버려.)

107023 @ 아.(아.)

107023 #1 그것에 옛날엔 찰프레엔 현 것이 있어.(그것에 옛날에는 찰파래라고 한 것이 있어.)

107023 @ 응.(응.)

107023 #1 그디 엇어? 찰프레엔 현 거.(거기 없어? 찰파래라고 한 거.)

107023 @ 그냥 파래국, 가시리국하고 파래국.(그냥 파래국, 가시리국하고 파래국.)

107023 #1 파래에 가시리국을 넣 허민이.(파래에 가시리국을 놔서 하면.)

107023 @ 아, 두 개 같이?(아, 두 개 같이?)

107023 #1 응, 끌리민 찰. 메레 갈 때도 ㄴ치 메여 와. 우리 두린 때에 강 메여 올 때는. 가시리에 찰프레.(응, 끓이면 찰. 매려 갈 때도 같이 매여 와. 우리 어린 때에 가서 매여 올 때는. 가시리에 찰파래.)

107023 @ 가시리하고 찰프레?(가시리하고 찰파래.)

107023 #1 찰프레주, 그냥 보통으로 나는 건.(찰파래지, 그냥 보통으로 나는 건.)

107023 @ 그냥 프레는 아니고예.(그냥 파래는 아니고요.)

107023 #1 실강정<sup>179)</sup> 못 먹어. 찰프레가 이서. 몬작<sup>180)</sup>허영 꽃부리 ㄴ추록 보글 보글한 것이 있어.(‘실강’쳐서 못 먹어. 찰파래가 있어. ‘몬작’해서 꽃부리처럼 ‘보글 보글’한 것이 있어.)

107023 @ 응.(응.)

107023 #1 것에 끌리민 맛이 있어.(그것에 끓이면 맛이 있어.)

107023 @ 응, 그민 가시리국 따로 파래국 따로 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가지고?(응, 그러면 가시리국 따로 파래국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가지고?)

107023 #1 우린 같이 허경 끌려야 맛있어.(우린 같이 섞어서 끓여야 맛있어.)

107023 @ 어.(어.)

107023 #1 가시리국만 끌리민이 풀내 나듯 해영 폴폴해여.(가시리국만 끓이면 풀내 나듯 해서 ‘폴폴’해.)

107023 @ 응.(응.)

178) ‘폴폴해다’는 음식에 풀기가 있다는 뜻이다.

179) ‘실강지다’는 약간 질긴 기운이 있어서 씹기 불편한 상태를 말한다.

180) ‘몬작’은 부드러운 모양으로 앞에서 나온 ‘실강지다’와 대조적으로 쓰인 것이다.

## 죽류

107024 @ 국 했고예, 이젠 죽, 죽. 죽 썰 먹는 거. 죽은 무슨 죽, 무슨 죽 잇수과?(국 했고요, 이젠 죽, 죽. 죽 썰어서 먹는 거. 죽은 무슨 죽, 무슨 죽 있습니까?)

107024 #1 콩죽도 있고, 팥죽도 있고, 녹두죽도 있고, 꿔죽도 있고.(콩죽도 있고, 팥죽도 있고, 녹두죽도 있고, 깨죽도 있고.)

107025 @ 곤죽, 흰죽?(흰죽, 흰죽?)

107025 #1 흰죽.(흰죽.)

107025 @ 흰죽은?(흰죽은?)

107025 #1 흰죽이사 무시거 먹을 거라게. 무시거 막 입이나 실평 환자덜이나 어떻 허단 그거 흰죽 먹주. 흰죽사 무시 맛으로 먹어? 풀내 팡팡.(흰죽이야 뭐 먹을 거야. 뭐 막 입이나 먹기 싫어서 환자들이나 어떻게 하다가 그거 흰죽 먹지. 흰죽이야 무슨 맛으로 먹어? 풀내 팡팡.)

107025 @ 간장 맛에, 짭. 하하하.(간장 맛에, 짭아서. 하하하.)

107025 #1 풀내 팡팡, 풀내 팡팡.(풀내 팡팡, 풀내 팡팡.)

107026 @ 풀내 팡팡 나? 게문 조로도 죽 끓여놔수과, 조죽?(풀내 팡팡 나? 그러면 조로도 죽 끓였었습니까, 조죽?)

107026 #1 좁쌀죽.(조죽.)

107026 @ 좁쌀죽도 끌렁 먹어난?(조죽도 끓여서 먹었어?)

107026 #1 응.(응.)

107026 @ 좁쌀죽은 어떻 해?(조죽은 어떻게 해?)

107026 #1 그냥. 포실포실힘 뿐.(그냥. ‘포실포실’함 뿐.)

107026 @ 포실포실힘 뿐?(‘포실포실’함 뿐?)

107026 #1 그건 그것만 쏜 거난 무맛이지.(그건 그것만 쏜 거니까 무맛이지.)

107026 @ 아, 맛이 었어.(아, 맛이 없어.)

107028 #1 콩죽, 팥죽 ㄴ튼 것은이.(콩죽, 팥죽 같은 것은.)

107028 @ 응.(응.)

107028 #2 팥죽은 좋주.(팥죽이 좋지.)

107028 #1 콩죽이 더 좋은 거우다. 좋은 거는.(콩죽이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거는.)

107028 @ 콩죽허고 팥죽은 어떻 행 쏘는 거파? 콩죽이영 팥죽이영 쏘는 거 틀려?(콩죽하고 팥죽은 어떻게 해서 쏘는 겁니까? 콩죽이랑 팥죽이랑 쏘는 거 달라?)

107028 #1 틀리멍 말멍.(다르면서 말면서.)

107028 @ 어떻 해?(어떻게 해?)

107028 #1 콩죽은 끌리젠 허문이 좁쌀에 끌려사 맛이 좋아. 좁쌀에 쏘엇어. 우리 먹을 땐이.(콩죽은 끓이려고 하면 좁쌀에 끓여야 맛이 좋아. 좁쌀에 쏘엇어. 우리 먹을 땐.)

107028 @ 아, 흰죽에 안 허고, 쌀 놓지 않고 좁쌀은 봐?(아, 흰죽에 안 하고, 쌀 놓지 않고 좁쌀은 봐?)

107028 #1 그때 쌀이 어디 서게?(그때 쌀이 어디 있어?)

107028 @ 계민.(그러면.)

107028 #1 좁쌀 낱 꾸민이, 꾸어가당 사 식으로 막 낭푼에나 무시거에나 그를 혼드레기.(좁쌀 봐서 꾸면, 꾸어가다가 아까 식으로 막 양푼에나 무엇에나 가루를 ‘혼드레기’.)

107028 @ 무슨 그루?(무슨 가루?)

107028 #1 콩그를을.(콩가루를.)

107028 @ 아, 콩그를을.(아, 콩가루를.)

107028 #1 그레 낱 꾸여 낱 죽 꾸민 늑뻘 썰어 놓고 배추라도 흥끔 농곡 허영 먹으면 좋아.(그리 봐서 이겨서 봐서 죽 꾸면 누 썰어 놓고 배추라도 조금 놓고 해서 먹으면 좋아.)

107028 @ 아, 죽에다가?(아, 죽에다가?)

107028 #1 어.(어.)

107028 @ 늑뻘도 놓고 누물도 봐?(무도 놓고 나물도 봐?)

107028 #1 늑뻘 농민 좋아.(무 놓으면 좋아.)

107028 @ 아.(아.)

107028 #1 배추랑 엇영 안 봐도 늑뻘 농민 좋아.(배추랑 없어서 안 봐도 무 놓으면 좋아.)

107028 @ 계난 좁쌀 낱 먼저 끓이다.(그러니까 좁쌀 봐서 먼저 끓이다가.)

107028 #1 응. 콩도 문차 끌여사 자꾸 져어 주지 안허민 늘어불민이 칸내 낭 굿고. 좁쌀 건쭈 익영 반만 풀어지건 그 그루 낱 계속 져어줘야여, 늘민 굿어.(응. 콩도 먼저 끓여야 자꾸 져어 주지 않으면 늘어 버리면 탄내 나서 나쁘고. 좁쌀 거의 익어서 반만 풀어지면 그 가루 봐서 계속 져어줘야 해, 늘면 나빠.)

107028 @ 응.(응.)

107028 #1 경행 먹당 남으면은 듯날은 먹젠 행 보문은 이제 끌령 먹을 때보단 식은 거 데왕 먹는 죽이 더 맛이 좋아.(그렇게 먹다가 남으면 뒷날은 먹으려고 해서 보면 이제 끓여서 먹을 때보다 식은 거 데워서 먹는 죽이 더 맛이 있어.)

107028 @ 아. 콩죽은?(아, 콩죽은?)

107028 #1 응, 콩죽은 경해. 다른 죽은 끌린 때가 맛있어도 식영 데왕 끌령 먹으면 듯날 먹으면 더 맛이 좋아.(응, 콩죽은 그렇게 해. 다른 죽은 끓인 때가 맛있어도 식어서 데워서 끓여서 먹으면 뒷날 먹으면 더 맛이 있어.)

107028 @ 어. 그민 아까 누물, 늑뻘은 언제 놓는 거라?(어. 그러면 아까 나물, 무슨 언제 놓는 거야?)

107028 #1 미룻 봐불어사지.(미리 봐버려야지.)

107028 @ 아, 좁쌀 혼 번 끌이민 누물 낱.(아, 좁쌀 한 번 끓이면 나물 봐서.)

107028 #1 그냥 놔놔 그다음에랑.(그냥 놔서 그다음에는.)

107028 @ 그다음에 콩 놔, 콩ㄱ루 낱. 콩ㄱ루 아까 개여근에예.(그다음에 콩 놔, 콩가루 놔서. 콩가루 아까 개어서요.)

107028 #1 개영 놔사. 정 안허민 덩어리 정 안 돼지.(개어서 놔야. 그렇게 안하면 그렇게 안 되지.)

107027 @ 아. 팻죽은?(아. 팔죽은?)

107027 #1 팻죽은 미룻 삶아.(팔죽은 미리 삶아.)

107027 @ 팻을 미리 삶아.(팔을 미리 삶아.)

107027 #1 돈짜 삶아야 돼. 두루 삶으면이 팻이 그냥 도골도골허곡이. 경행 그냥 막 다라에나 놔근에 막 국자로나 주걱으로나 영영.(푹 삶아야 돼. 덜 삶으면 팔이 그냥 ‘도골도골’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대야에나 놔서 막 국자로나 주걱으로나 이렇게 이렇게.)

107027 @ 경허고.(그리고.)

107027 #1 경혜영 이젠 것도 썰은 면여, 썰을 면여 낱. 썰이 켜는 물에 푹 등그민 얼른 부각허잖아아.(그래서 이젠 그것도 썰은 먼저, 썰을 먼저 놔서. 썰이 끓는 물에 푹 담그면 얼른 ‘부각’하잖아.)

107027 @ 응, 응.(응, 응.)

107027 #1 그거 흐뭇 싯당 이젠 팻도 놓민 죽이 건쭈 다 돼불어. 팻 낱 영영 젓어가민.(그거 조금 있다가 이젠 팔도 놓으면 죽이 거의 다 되어버려. 팔 놔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가면.)

107027 @ 아, 팻 따로 삶은 거니까.(아, 팔 따로 삶은 거니까.)

107027 #1 트로 삶앙 돈 다라에서 낱.(따로 삶아서 모두 대야에서 놔서.)

107027 @ 어땡?(어떻게?)

107027 #1 꿔영.(이겨서.)

107027 @ 꿔영예.(이겨서요.)

107027 #1 꿔영 놔불면은 맛잇주, 그때는 곤 맛창. 푹 더경 놔두민 죽이 풀풀혜영 맛잇주.(이겨서 놔버리면 맛있지, 그때는 간 맞춰서. 푹 더어서 놔두면 죽이 ‘풀풀’해서 맛있지.)

107027 @ 게민 팔죽은 어떤 때 먹어?(그러면 팔죽은 어떤 때 먹어?)

107027 #1 영장 난 때가.(상 난 때가.)

107027 @ 아, 영장 난 때.(앙, 상 난 때.)

107027 #1 영장 난 때가 대강은 쓰지. 별미로 썰 먹젠 허민 먹는 디 대강은 영장칩이 가사 먹는 사람도 후하게 얻어먹지.(상 난 때가 대강은 쓰지. 별미로 썰어서 먹으려고 하면 먹는데 대강은 상갓집에 가야 먹는 사람도 후하게 얻어먹지.)

107027 @ 응. 영장집이 팻죽은 딸, 딸이 썰 가는 거파, 메누리가 썰 가는 거파? 사둔칩이서?(응. 상갓집에 팔죽은 딸, 딸이 썰어서 가는 겁니까, 며느리가 썰어서 가는 겁니까?)

107027 #1 나가 죽으면은 딸펜이서도 시어멍네 시동생, 옛날은.(내가 죽으면 딸  
편에서도 시어머니네 시동생, 옛날은.)

107027 @ 응, 응.(응, 응.)

107027 #1 시동기간도 다 썩 오고 셋시어멍, 죽은시어멍도 다 허고, 메뉴리도,  
죽으면 지네 친정에서 어멍덜 오랑 동기간덜이 옛날은 막.(시동기간도 다 썩 오고  
둘째시어머니, 막내시어머니도 다 하고, 며느리도, 죽으면 자기네 친정에서 어머니  
들 와서 동기간들이 옛날은 막.)

107027 @ 응.(응.)

107027 #1 죽이 멧 통 들어와서라, 멧 통 들어와서라. 허벅이 그때 이제 허벅  
알아져?(죽이 멧 통 들어왔더라, 멧 통 들어왔더라. 허벅이 그때 이제 허벅 알아?)

107027 @ 예.(예.)

107027 #1 허벅으로 들어오민 어느 상제로 조름에 죽이 멧 통 들어오고 어느  
상제 조름에 멧 통 들어왔젠 막 허여.(허벅으로 들어오면 어느 상주로 뒤에 죽이 멧  
통 들어오고 어느 상주 뒤에 멧 통 들어왔다고 막 해.)

107027 #2 것이 부주주, 부주허는 거.(그것이 부조지, 부조하는 거.)

107027 @ 사돈집이선 다 죽으로 부주허는 거구나예.(사돈집에서 다 죽으로 부  
조하는 거군요.)

107027 #2 응, 부조금.(응 부조금.)

107027 @ 팍죽으로.(팔죽으로.)

107027 #2 게 잘헌 거라게. 돈 필요 엇다.(그러게 잘한 거야. 돈 필요 없다.)

107027 @ 응.(응.)

107027 #1 게민 죽도 다 못 먹으민이 듯날, 듯날 밤인 또 데왕 그디 영장칩이  
이신 사름덜 다 맥이고.(그러면 죽도 다 못 먹으면 뒷날, 뒷날 밤엔 또 데워서 거기  
상갓집에 있는 사름들 다 먹이고.)

107027 @ 응.(응.)

107027 #2 지금도 잇긴 잇어.(지금도 있긴 있어.)

107027 #1 엇입니까? 거 방서로. 사돈집이서 이젠 안 썩 오메.(없습니까? 그거  
방사로. 사돈집에서 이젠 안 썩어 와.)

107027 @ 식당에 돈만 주난예.(식당에 돈만 주니까요.)

107027 #1 응, 돈만 주민 다 해 줘.(응, 돈만 주면 다 해줘.)

107027 @ 딱 해줍디다. 나, 나 우리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가 돈을  
줍디다. 팔죽으로 허렌. 게난 식당에 딱 허니까 알아서 딱 맞춰줘.(딱 해줘요. 나,  
나 우리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돈을 주더라고요. 팔죽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식당에 딱 하니까 알아서 딱 맞춰줘.)

107027 #1 성복허는 날 그 죽을 주는 거.(성복하는 날 그 죽을 주는 거.)

107027 @ 예. 이제 다 무사 식당에서 험니까? 밥도 다 그디서 나오고.(예. 이제  
다 왜 식당에서 하잖아요? 밥도 다 거기서 나오고.)

107027 #1 그자 쓸만 앓아가민 다 해줘.(그냥 쌀만 가져가면 다 해줘.)

107027 @ 거난 돈 주난 알앙 풋죽도 다 해 줍디다.(그러니까 돈 주니까 알아서 팔죽도 다 해주던데요.)

107027 #1 죽도 그디서 먹을 이만이 그디 신 사름 먹을 이만이만 썩.(죽도 거기서 먹을 만큼 거기 있는 사람 먹을 만큼만 썩어서.)

107027 @ 예, 그니까.(예, 그러니까.)

107027 #1 뒷날도 안 썩 이젠.(뒷날도 안 썩어, 이젠.)

107027 @ 예.(예.)

107027 #2 우리 함덕 장의사에서도 다 허는가?(우리 함덕 장의사에서도 다 하는가?)

107027 #1 다 합니다.(다 합니다.)

107027 @ 예, 해주렌 허민 다.(예, 해주라고 하면 다.)

107027 #1 망인에, 것이 방법이렌. 풋죽 썩는 게. 게난 어떤 사름이 죽어도 풋죽은 어디서 썩을 디 엇어도 본인이 죽은 썩.(망인에, 그것이 방사라고. 팔죽 썩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도 팔죽을 어디서 썩어올 데 없어도 본인이 죽은 썩어.)

107027 @ 응.(응.)

107027 #1 그디서 썩 도렌 행.(거기서 썩어 달라고 해서.)

107029 @ 믰멸로도 죽 썩는가, 믰멸죽?(메밀로도 죽 썩는가, 메밀죽?)

107029 #1 응, 믰물썰 낱 죽 썩주. 급허게 썩젠 허민이 물 수왕수왕<sup>181)</sup>허는 디 썰 혼 줌만 놓민 곧 썩져.(응, 메밀쌀 놔서 죽 썩지. 급하게 썩려고 하면 물 ‘수왕수왕’ 하는 데 쌀 한 줌만 놓으면 곧 썩어져.)

107029 @ 아, 믰멸죽은? 금방 썩는 거파?(아, 메밀죽은? 금방 썩는 겁니까?)

107029 #1 응, 금방 썩. 공 안 들엉 썩.(응, 금방 썩. 공 안 들어서 썩.)

107029 @ 아.(아.)

107029 #1 영장칩이 나가 영 원미 썩렌 허민이 그런 거 물 수왕수왕 썩민.(상갓집에 내가 이렇게 원미 썩라고 하면 그런 거 물 ‘수왕수왕’ 썩으면)

107029 @ 아, 그 원미가 메밀로 현 거파?(아, 그 원미가 메밀로 한 겁니까?)

107029 #1 어, 아니 이젠 메밀로도 안 허고 썰로도 허긴 허는디 막 급허면은 믰물썰 이시민 그자 믰물 혼 줌 놓고 물 흐끔 낱, 썩 물에 놓민 그냥 건 돼불어. 경행 급허민 그자 저레 원미 썩 올리는 거.(어, 아니 이젠 메밀로도 안 하고 쌀로도 하긴 하는데 막 급하면 메밀쌀 있으면 그냥 메밀 한 줌 놓고 물 조금 놔서, 썩은 물에 놓으면 그냥 그건 돼버려. 그래서 급하면 그냥 저리 원미 썩어서 올리는 거.)

107030 @ 응. 녹디죽?(응. 녹두죽?)

107030 #1 녹디는 풋이나 마찬가지로. 꼭 ㄴ트게 썩, 녹디는.(녹두는 팔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썩어, 녹두는.)

107030 @ 응. 따로 삶아가지고.(응. 따로 삶아가지고.)

181) ‘수왕수왕’은 물이 팔팔 끓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107030 #1 응, 삶앙 것도 꺾여근에게 쏘 낱 흥뽀 반 정도 익으면 녹뒤도 그레 풀어 낱 영영영 꺾여. 꺾꺾치 꺾앙.(응, 삶아서 그것도 이겨서 쌀 놔서 조금 반 정도 익으면 녹두도 그리 풀어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겨. 팔처럼 뽕아.)

107030 #2 꺾죽만이 좋아 베지 안허더라, 난.(팔죽만큼 좋아 보이지 않더라, 난.)

107030 @ 녹디죽은 꺾죽만이 안 좋아 베여?(녹두죽은 팔죽만큼 안 좋아 보여?)

107030 #2 응.(응.)

107030 @ 무사 닭집이나 이런 디 가면 녹디죽.(왜 닭집이나 이런 데 가면 녹두죽.)

107030 #1 응, 닭집이 가면은 그.(응, 닭집에 가면은 그.)

107030 #2 닭에는 녹디가 좋아.(닭에는 녹두가 좋아.)

107030 @ 닭 먹어난 다음에예 녹디죽 놔 주던데.(닭 먹고 난 다음에 녹두죽 놔 주던데.)

107030 #2 벨로.(별로.)

107030 #1 아니라, 좋아. 닭죽에 쏘 거는 좋아.(아니야, 좋아. 닭죽에 쏘 거는 좋아.)

107031 @ 닭죽은? 그냥 닭만 낱 닭 삶아난 다음에 닭죽도 쏘니께?(닭죽은? 그냥 닭만 놔서 닭 삶았던 다음에 닭죽도 쏘잖아요?)

107031 #1 응, 그 닭 국물에 그거 쑈는 거 아니?(응, 그 닭 국물에 그거 쑈는 거 아니?)

107031 @ 예.(예.)

107031 #1 닭만 건져당 줘 불민 그디.(닭만 건져다가 줘 버리면 거기.)

107031 @ 계란 그거.(그러니까 그거.)

107031 #1 옛날에는 이제꺾추룩 닭죽, 꺾죽 안 행 기자 닭죽이여 허민 닭 담아 낱 쭈언 먹어실 거라. 이제꺾추룩 무신 차례 출리지 안허영. 녹뒤여 무시거여 안헐 해서 옛날은.(옛날에는 이제처럼 닭죽, 팔죽 안 하고 그냥 닭죽이다 하면 닭 담아놔서 쭈어서 먹었을 거야. 이제처럼 무슨 차례 차리지 않고. 녹두다 뭐다 안하고 했어 옛날은.)

107031 @ 응. 그냥 쏘만 낱?(응. 그냥 쌀만 놔서.)

107031 #1 응, 이제 신식으로 허난 그냥.(응, 이제 신식으로 하니까 그냥.)

107031 @ 녹뒤죽?(녹두죽?)

107031 #1 녹뒤죽이여 무시거여 먹으레 가든 해 줘주.(녹두죽이다 무엇이든 먹으러 가면 해 주고 있지.)

107031 @ 그냥 닭 삶아난 물에.(그냥 닭 삶았던 물에.)

107031 #1 그냥 닭 삶은 물에. 닭만 안헐 뜬어 먹도 안허여, 옛날에는. 그냥 꺾 그냥 팔리면은 막 찍어가든 경혜사 닭죽이라.(그냥 닭 삶은 물에. 닭만 안해서 뜬어 먹지도 았아. 그냥 같이 그냥 달이면 막 찍어가면 그래야 닭죽이야.)



107031 @ 아, 득 케기도 잇고 쓸도 잇고 행예, ㄹ치예.(아, 닭고기도 있고 쌀도 잇고 해서요, 같이요.)

107031 #1 이제는 득만 건져 텡 그 국물에 녹두 넣 솥당 그냥 녹디죽ㄹ추록 허 는디 옛날에는 그냥 득죽 쭈게, 득죽 쭈게 행 먹영, 득 폭 팔려 놓민 그자 국자로라도 득득 찍어불민 몬 헤싸지게.(이제는 닭만 건져 두고 그 국물에 녹두 놔서 삶다가 그냥 녹두죽처럼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닭죽 쭈자, 닭죽 쭈자 해서 먹어서, 닭 폭 달여 놓으면 그냥 국자로라도 득득 찍어버리면 모두 훌어지지.)

107032 @ 응. 혹시 갱죽이엔 현 말도 들어봬디가? 야채 넣고, 채소 넣고 끓인 죽?(응. 혹시 갱죽이라고 한 말도 들어보셨어요? 야채 넣고, 채소 넣고 끓인 죽?)

107032 #1 건 우린 먹어 보도 안헐어.(그건 우린 먹어보지도 았았어.)

107032 @ 헤보도 안헐고. 아까 콩죽에만 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해보지도 았고. 아까 콩죽에만 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거요?)

107032 #1 응, 콩죽에 무도 요만큼씩 몽클몽클 썰어 놓민 좋아.(응, 콩죽에 무도 요만큼씩 몽툭몽툭 썰어 놓으면 좋아.)

107032 @ 그거에만 아까 무가 들어가는 거고 죽 쭈는 디 채소가 들어가는 건 엇어예?(그거에만 아까 무가 들어가는 거고 죽 쭈는 데 채소가 들어가는 건 없어요?)

107032 #1 우린 아니 썬 봤어. 몰라, 딴 디는 헤신디.(우린 안 썬 봤어. 몰라, 다른 데는 했는데.)

107032 @ 아니 썬 봤어예.(안 썬어 봤어요.)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계민 이젠 범벅.(그러면 이젠 범벅.)

107034 #1 무신 ㄹ물범벅?(무슨 메밀범벅?)

107034 @ 아무 범벅이나 감저범벅도이라도.(아무 범벅이나 고구마범벅이라도.)

107034 #1 어.(어.)

107034 @ 무신 범벅, 무신 범벅 잇수과?(무슨 범벅, 무슨 범벅 있습니까?)

107034 #2 대축범벅, ㄹ물범벅.(수수범벅, 메밀범벅.)

107034 #1 대축범벅도 우린 안 헤나고.(수수범벅도 우린 안 헐었고.)

107034 @ 대축범벅도 잇수과?(수수범벅도 있습니까?)

107034 #1 대축범벅은 맛은 잇어이, 젠디.(수수범벅은 맛은 잇어, 그런데.)

107034 #2 최고주.(최고지.)

107034 @ 대축으로 허는 거?(수수로 하는 거?)

107034 #1 대축쫄로.(수수쫄로.)

107034 @ 아, 대축쫄로.(아, 수수쫄로.)

107034 #1 대축쫄로 허믄 그거 ㄹ루로 허민이.(수수쫄로 하면 그거 가루로 하면.)

107034 @ 응.(응.)

107034 #1 바로 분홍 색깔 낭이.(바로 분홍 색깔 나서.)

107034 @ 응.(응.)

107034 #1 분홍색이 아니 진분홍ㄱ추룩 해도이 맛이 있어. 출지고.(분홍색이 아니 진분홍처럼 해도 맛이 있어. 차지고.)

107034 @ 응.(응.)

107034 #1 허여보진 안해도 먹음은 해났어.(해보진 않아도 먹기는 했었어.)

107034 @ 대축범벅은, 응. ㄱ멸핼벅?(수수범벅은. 응. 메밀범벅?)

107034 #1 ㄱ물핼벅은, ㄱ물핼벅이 물 하영 봐야 돼. 채로, 채로 썰영. 물 하영, 물 하영 낱 삶앙 그 ㄱ물ㄱ루로 맞일 이만이 물 낱, 무 삶아진 우터레 ㄱ물ㄱ를을 삭허게 서경당 혼 물이 부각 올르민이 그냥 주걱으로, 주걱으로 짓이민 것이 범벅. 경행 조금 농곡 행.(메밀범벅은, 메밀범벅이 물 많이 봐야 돼. 채로, 채로 썰어서. 물 많이, 물 많이 봐서 삶아서 그 메밀가루로 맞을 만큼 물 봐서, 무 삶아지 위에 메밀가루를 삭허게 섞어다가 한 물이 ‘부각’ 오르면 그냥 주걱으로, 주걱으로 저으면 그것이 범벅. 그렇게 해서 조금 넣고 해서.)

107034 @ 아까 늪빠를 먼저 봐?(아까 무를 먼저 봐?)

107034 #1 응, 늪빠 낱 늪빠가 어느 정도 익어야 돼여, 그 범벅에는.(응, 무 봐서 무가 어느 정도 익어야 돼, 그 범벅에는.)

107034 @ 아, 범벅에는.(아, 범벅에는.)

107034 #1 ㄱ물ㄱ루는 곧 익어.(메밀가루는 곧 익어.)

107034 @ 응.(응.)

107034 #1 ㄱ물ㄱ루 이디 쭈어진 디서 ㄱ물ㄱ를을 영영 낱 혼 물이 후각 올르민 물이 다 우터레 ㄱ루 우터레 올라와.(메밀가루 여기 쭈어진 데서 메밀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한 물에 ‘후각’ 오르면 물이 다 위에 가루 위에 올라와.)

107034 @ 예.(예.)

107034 #1 게민 흥뽀 시면은 불 꺼똥.(그러면 조금 있으면 불 꺼두고.)

107034 @ 응.(응.)

107034 #1 막 그걸 짓이민이 무수도 골루루 가고 ㄱ루도 골루루 가민이 무수, 저 범벅이 막 연허영 문지락 허영 좋아.(막 그걸 저으면 무도 골고루 가고 가루도 골고루 가면 무, 저 범벅이 아주 연해서 ‘문지락’해서 좋아.)

107034 @ ㄱ멸쫄로 말고 ㄱ멸쌀 꺾데기, 속꺾질, 느쟁이?(메밀쌀로 말고 메밀쌀 꺾데기, 속꺾질, 나깨?)

107034 #1 느쟁이.(나깨.)

107034 @ 느쟁이로도 범벅허주예?(나깨로도 범벅하지요.?)

107034 #1 맛이 엇어.(맛이 없어.)

107034 @ 맛이 엇어.(맛이 없어.)

107034 #1 옛날이지. 옛날은 것도 안 내불언 했지. 이제, 이제 허는 식으로 난

사 곤 거주.(옛날이지. 옛날은 그것도 안 내버려서 했지. 이제, 이제 하는 식으로 난 아까 말한 거지.)

107034 @ 옛날 느쟁이?(옛날 나깨?)

107034 #1 느쟁이 범벅, 느쟁이 범벅 허는디.(나깨 범벅, 나깨 범벅 하는데.)

107034 @ 예, 그건 어떻 헨 거봐?(예, 그건 어떻게 한 겁니까?)

107034 #1 단장을 잘못헨 생이라이.(단장을 잘못된 모양이야.)

107034 @ 예.(예.)

107034 #1 지글지글허여.(‘지글지글’해.)

107034 @ 지글지글허여?(‘지글지글’해?)

107034 #1 흑 병탱이사 들어신디 아메도 옛날은 두루 축축허게 했어.(흑 덩어리 야 들었는지 아무래도 옛날은 덜 축축하게 했어.)

107034 @ 하하하. 그것도 그 방법으로 허는 건가? 늬뻘 솜양?(하하하. 그것도 그 방법으로 하는 건가? 무 삶아서?)

107034 #1 응.(응.)

107034 @ 느쟁이 범벅도?(나깨 범벅도?)

107034 #1 그거 안 농민이 맛이 엇주. 드룩드룩, 또락또락헤영. 무슨 농민이 츠근허영이 들르지도 잘 안허고 좋아.(그거 안 농으면 맛이 없지. ‘드룩드룩’, ‘또락또락’해서. 문 농으면 ‘츠근’해서 마르지도 잘 앓고 좋아.)

107034 @ 응. 게난 주로 믰벌범벅이나, 느쟁이 범벅이나.(응. 그러니까 주로 메밀범벅이나, 나깨 범벅이나.)

107034 #1 무수 낱 허는 거주.(무 봐서 하는 거지.)

107034 @ 무수 낱 허는 거예.(무 봐서 하는 거요.)

107034 #1 이제도 무수 낱 졸 거. 그 옛날도 무수 낱주, 그 느쟁이 꺼멍헌 것에 무수도 안 농민 더 맛이 엇어실 거라. 지글지글헤영. 모살.(이제도 무 봐서 좋을 거. 그 옛날도 무 낱지, 그 나깨 꺼먼 것에 무도 안 농으면 더 맛이 없었을 거야. ‘지글지글’해서. 모래.)

107034 @ 응. 감저, 감저는, 감저범벅은?(응. 고구마, 고구마는, 고구마범벅은?)

107034 #1 감저 범벅 어떻 허여? 감저가 어떻 행 범벅헐 수가 잇어?(고구마 범벅 어떻게 해? 고구마가 어떻게 해서 범벅할 수 가 잇어?)

107034 @ 감저는 범벅 안 허여?(고구마는 범벅 안 해?)

107034 #1 못허지, 건 어떻 행 허여.(못하지, 그건 어떻게 해서 해.)

107035 @ 게민 범벅 다음에 수제비.(그러면 범벅 다음에 수제비.)

107035 #1 무슨 수제비 헐 거라, 믰물수제비, 밀가루수제비?(무슨 수제비 할 거야, 메밀수제비, 밀가루수제비?)

107035 @ 믰물수제비부터.(메밀수제비부터.)

107035 #1 국수 말앙? 믰물국수 말앙?(국수 말고? 메밀국수 말고?)

107035 @ 국수 말앙 수제비로.(국수 말고 수제비로.)

107035 #1 수제비는이 므물ㄱ루 이것에 막 타, 므물ㄱ루를 어느 정도로 두꺼웁게 타민 주걱으로라도 칼 끝으로 툭툭툭툭 떨어지게 또락지게 몰양 손으로 툭툭 튕아놓민.(수제비는 메밀가루 이것에 막 타, 메밀가루를 어느 정도로 두껍게 타면 주걱으로라도 칼 끝으로 툭툭툭툭 떨어지게 ‘또락’지게 말아서 손으로 툭툭 뜯어 놓으면.)

107035 @ 응. 무신거 끌린 국물에?(응. 무엇 끓인 국물에?)

107035 #1 건 국물이사 아무 다시다라도 낱 끌리주. 옛날 다시다가 잊어났어? 그냥 맹물일테주.(그건 국물이야 아무 다시다라도 봐서 끓이지. 옛날 다시다가 있었어? 그냥 맹물일테지.)

107035 @ 맹물에 봐근에. 이거만 놓면 돼? 채소나 뭐 메역이나?(맹물에 봐서. 이것만 놓으면 돼? 채소나 뭐 미역이나?)

107035 #1 메역이나 놓민, 애기 난 때는 메역 헤영 허는디 그 식베끼 안 돼여, 옛날에.(미역이나 놓으면, 아기 낳은 때는 미역 해서 하는데 그 식밖에 안 돼, 옛날에.)

107035 @ 다른 채손 안 봐? 무수나 늑물이나?(다른 채소는 안 봐? 무나 나물이나?)

107035 #1 아니 봐났어. 수제빈 경베뀐 안 돼, 이건. 아기 난 어멍이나 우리 아기 난 때도 시어멍네가 그냥 수제비 튕안 허고 메역도 그냥 썰지도 안행 지랑지랑 허게 허영 거 방서로산디사 허영 헛주.(안 봤었어. 수제비는 그렇게 밖에 안 돼, 이건. 아기 낳은 어머니나 우리 아기 낳은 때도 시어머니네가 그냥 수제비 뜯어서 하고 미역도 그냥 썰지도 않고 치렁치렁하게 해서 그거 방사로인지 해서 했지.)

107035 @ 응.(응.)

107035 #1 이제도 수제비허는 디, 이제는 수제비허는 디 그런 거 저런 거 안 놓지. 옛날이나 놓주.(이제도 수제비하는 데, 이제는 수제비하는 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놓지.)

107035 @ 보통 므밀로 수제비허고 밀가루로도 수제비합니까?(보통 메밀로 수제비하고 밀가루로도 수제비합니까?)

107035 #1 응, 밀가루도 수제빈 그 식으로, 그 식베뀐 안 돼주, 것도.(응, 밀가루도 수제비는 그 식으로, 그 식밖에 안 되지, 그것도.)

107035 @ 아, 똑ㄱ타? 허는 방법은?(아, 똑같아? 하는 방법은?)

107035 #1 방법은 경베뀐 안 쉼 거난.(방법은 그렇게밖에 안 될 거니까.)

107036 @ 칼국수는?(칼국수는?)

107036 #1 칼국수는 밀가루던 므물ㄱ루던 밀엿베끼.(칼국수는 밀가루든 메밀가루든 밀어서밖에.)

107036 @ 밀엿, 밀엿 어땡?(밀어서, 밀어서 어떻게?)

107036 #1 밀엿 요만씩 썰엿이.(밀어서 요만큼씩 썰어서.)

107036 @ 영 말아근에 썰어?(이렇게 말아서 썰어?)

107036 #1 영 돌레떡 만들앙 막 돔베에서 막 밀어근엥에 요만씩 요만씩 끈엥  
가루 또 이 우터레 허경 부뜨불카부텐.(이렇게 도래떡 만들어서 막 도마에서 막 밀  
어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서 가루 또 이 위에 섞어서 붙을까봐.)

107036 @ 응.(응.)

107036 #1 영영영영 고비 개 낵 이젠 영영영영 썰어가는 거라. 썰어가민 이 차  
판더레라도 낵다근에 물 끌여가민 그냥 살살허고, 옛날에는 이 믰물국수허젠 허민  
소고기 딸렁.(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굽이 개어 놔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이  
렇게 이렇게 썰어가는 거야. 썰어 가면 이 쟁반에라도 낵다가 물 끓어 가면 그냥  
살살하고, 옛날에는 이 메밀국수하려고 하면 소고기 달여서.)

107036 @ 아, 국물을?(아, 국물을?)

107036 #1 응, 소고기 딸렁 그레 낵 허여.(응, 소고기 달여서 그리 놔서 해.)

107036 @ 소고기 경 이십니까게?(소고기 그렇게 있습니까요?)

107036 #1 옛날은 소고기덜 잇엇주게. 연말 때 뒤테근에, 음력 멧질 때 뒤테은.  
(옛날은 소고기들 잇엇지. 연말 때 되어서, 음력 멧질 때 되면.)

107036 @ 아.(아.)

107036 #1 멧질로 그거. 문여 곶아준 대로 곶미떡 썰어 놓곡 그거 허곡 해근엥  
에, 떡국허영 멧질허곡, 떡국허곡 허여, 멧질.(멧질로 그거. 먼저 말해준 대로 곶무  
떡 썰어 놓고 그거 하고 해서. 떡국해서 멧질하고, 떡국하고 해, 멧질.)

107036 @ 떡국, 떡국 멧질도 험니까?(떡국, 떡국 멧질도 합니까?)

107036 #1 이제도 허는 딴 해여서.(이제도 하는 덴 해.)

107036 @ 이딴 안 해?(여긴 안 해?)

107036 #1 우린 안 허는디 허는 집인 허여.(우린 안 하는데 하는 집은 해.)

107036 @ 이디 어디 선홀인가 송당은, 송당인가 그건 뭐도 허드라.(어디 어디  
선홀인가, 송당은, 송당인가 그건 뭐도 하더라.)

107036 #1 무시거?(뭐?)

107036 @ 믰물, 국시멧질<sup>182)</sup>.(메밀, ‘국수멧질’.)

107036 #1 국멧질. 믰물국멧질?(‘국멧질’, ‘메밀국멧질’?)

107036 @ 응.(응.)

107036 #1 게메 그것이 거라. 이디도 멧질허곡, 멧질보단 앞서 해불어.(글쎄 그  
것이 그거야. 여기도 멧질하고, 멧질보다 앞서 해버려.)

107036 @ 그니까 앞서, 새벽이.(그러니까 앞서, 새벽에.)

107036 #1 응.(응.)

107036 @ 이디도 해난? 함덕도?(여기도 했었어? 함덕도?)

107036 #1 우리도 옛날은 해나신디 이제는 멧질베핀 안 해.(우리도 옛날은 했었  
는데 이제는 멧질밖에 안 해?)

182) ‘국시멧질’은 정월멧질날 새벽에 차례상을 차리기 전에 메밀칼국수를 올리는 것으로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  
심으로 행해진다. 최근에는 메밀칼국수 대신에 떡국을 올리기도 한다.

107036 @ 이제는 안 해도 옛날엔 해난?(이제는 안 해도 옛날엔 했었어?)

107036 #1 응, 해난.(응, 했었어.)

107036 @ 건 어떻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36 #1 어떻 허는 건지 그대로 허난, 그자 경 시집강 보난 거 험시난 경 허는 걸로.(어떻게 하는 건지 그대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시집가서 보니까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107036 @ 새벽이?(새벽에?)

107036 #1 응, 멧질허기 전이.(응, 멧질하기 전에.)

107036 @ 멧질 찰리기 전이. 믫말국시로 먼저 해근에.(멧질 차리기 전에. 메밀국수로 먼저 해서.)

107036 #1 경행 탁 웃드르<sup>183)</sup>나시 멧 놔똥 이젠 또 그걸 또 수정 하민 더러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곡 허난게. 멧질헐 메 출령.(그렇게 해서 탁 ‘웃드르’ 몫 떠서 놔두고 이젠 또 그걸 숫자 많으면 더러 먹을 사람은 안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 하니까. 멧질할 밥 차려서.)

107036 @ 그민 멧질헐 메가 다섯 개다, 오섯 개다 허민 다 믫말국시를 다 올려?(그러면 멧질할 밥이 다섯 개다, 여섯 개다 하면 메밀국수를 다 올려.)

107036 #1 응.(응.)

107036 @ 여섯 개, 일곱 개를?(여섯 개, 일곱 개를?)

107036 #1 응. 혼 늑의 찍시 혼나씩.(응. 한 사람의 몫 하나씩.)

107036 @ 거난 혼나씩예, 문전에도 놓고?(그러니까 하나씩요, 문전에 놓고?)

107036 #1 문전에도 놔야지.(문전에도 놔야지.)

107036 @ 아.(아.)

107036 #1 이딘 문전 다. 멧질도 문전에 놓고 제사에도 문전에 놓난 문전에 다 놓주.(여긴 문전 다. 멧질도 문전에 놓고 제사에도 문전에 놓으니까 문전에 다 놓지.)

107036 #2 문전이 대장이주.(문전이 대장이지.)

107036 @ 아. 거난 믫물국시도 다 경 행 다.(아. 그러니까 메밀국수도 다 그렇게 해서 다.)

107036 #1 다 해났어.(다 했었어.)

107036 @ 그거 많이 해근에 그거 먼저 올려? 켜 그거 보고 무신?(그거 많이 해서 그거 먼저 올려? 그래서 그거 보고 무슨?)

107036 #1 국멧질.(‘국멧질’.)

107036 @ 국멧질이엔 곱아? 건 무사 허는 거파?(‘국멧질’이라고 말해? 그건 왜 하는 겁니까?)

107036 #1 몰라, 무사 허는 건지?(몰라, 왜 하는 건지?)

107036 # 2 먹고팡 헛주.(먹고파서 했지.)

183) ‘웃드르’는 ‘위’와 ‘뜰판’이 합쳐진 복합어이지만 여기서는 삼달 본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107036 @ 예?(예?)

107036 #1 이제도 누게넌 험니다, ○○이네. 국멩질.(이제도 누구넌 험니다, ○○이네. ‘국멩질’.)

107036 #2 먹고팡 험주, 뽕.(먹고파서 하고 있지, 뽕.)

107036 #1 예, 먹고플 거 무신거.(예, 먹고 싶을 거 뽕.)

107036 @ 계난 멩질 찰리기도 버친디.(그러니까 멩절 차리기도 버거운데.)

107036 #1 옛날 해난 풍습으로 험실테지.(옛날 했던 풍습으로 하고 있겠지.)

107036 @ 계난 무사 이 동네만 경 해신고, 다른 디는 안 해.(그러니까 왜 이 동네만 그렇게 했는가, 다른 데는 안 해.)

107036 #1 이제는 안 해여.(이제는 안 해.)

107036 @ 이젠 안 허지만은, 다 안 허지만은 옛날에, 옛날에.(이젠 안 하지만, 다 안하지만 옛날에, 옛날에.)

107036 #1 아이고, 멧 년 전이도 이 동네도 허는 디 멧 밧 이서났어.(아이고, 멧 년 전에도 이 동네도 하는 데 멧 군데 있었어.)

107036 @ 응. 국멩질을 먼저 행예.(응. ‘국멩질’을 먼저 해세요.)

107036 #1 응.(응.)

## 김치

107037 @ 김치해 보게마썬. 김치.(김치해 봐요.)

107037 #1 흐흐, 옛날 김치?(하하, 옛날 김치?)

107037 @ 예, 옛날 김치.(예, 옛날 김치.)

107037 #1 맛도 좋켜.(맛도 좋겠다.)

107037 @ 하하하. 김치는 무슨 김치, 무슨 김치 옛날은 행 먹어났수과?(하하하. 김치는 무슨 김치, 무슨 김치 옛날은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7 #1 무슨 무슨 김치, 늬뻬 김치여, 배추 김치배편 안 해나신디.(무슨 무슨 김치, 무김치다, 배추 김치밖에 안 했었는데.)

107037 @ 예.(예.)

107037 #2 깍두기, 깍두기.(깍두기, 깍두기.)

107037 #1 깍두기 무신.(깍두기 무슨.)

107037 @ 응.(응.)

107038 #1 그때는 어려운 때난이.(그때는 어려운 때니까.)

107038@ 응.(응.)

107038#1 늬물은 캐여 오믄이 바닷물에 강이.(나물은 캐여 오면 바닷물에 가서.)

107038@ 응.(응.)

107038#1 영 통이 잇어.(이렇게 통이 있어.)

107038 @ 응.(응.)

107038 #1 물 들엇당 나가불민 영 골른, 그디 강 몸 죽엇당이 건져와.(물 들었

다가 나가버리면 이렇게 낀, 거기 가서 절였다가 건져와.)

107038 @ 아, 배추를 거기다가.(아, 배추를 거기다가.)

107038 #1 응. 그런 명칭헌 짓을 그디 가민 보말 찌꺼레기여 무시거 막 부뜰 생 각도 아녀고 경행 건져당 또 집이 왕, 이젠 또 그릇 쪽게 들게 힘으로 거라. 몸 더 러 죽어불면은, 그때 소금 흐뭇씩 허경 물 질어당 그레 낱 절영 내벧당 기냥 그때 는 주로 멜치이 하거든게.(응. 그런 명칭헌 짓을 거기 가면 고등 찌꺼기다 무엇 막 불을 생각도 안하고 그렇게 해서 건져다가 또 집에 와서, 이젠 또 그릇 적게 들게 함으로 그거야. 덜 절여지면, 그때 소금 조금씩 섞어서 물 질어다가 그리 놔서 절여 서 내버렸다가 그냥 그때는 주로 멀치것을 하거든.)

107038 @ 응.(응.)

107038 #1 멜치만 퍼 놓고 고친 쪼그만 놓고 해근에. 이제 김치허렌 허면 그때 ㄴ추룩 허면 집이나 밭이나 팔아 낱 허렌 헐 거라.(멀치것만 퍼 놓고 고추는 조금만 놓고 해서. 이제 김치하려고 하면 그때처럼 하면 집이나 밭이나 팔아 놓고 하라고 할 거야.)

107038 @ 예, 무신 말이파?(예, 무슨 말입니까?)

107038 #1 양념이 이제 그추룩 허렌 허민, 옛날 김치허듯 허렌 허면은.(양념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옛날 김치하듯 하라고 하면은.)

107038 @ 응.(응.)

107038 #1 이제사게 고급으로만 딱 김치도 해가는데 옛날에는 잘허면은 고치 흐뭇 놔근에 그냥 켜나 흐뭇 놓곡 허민 그냥 멜치만 쳐 놔근에. 그냥 김치 담으민 김치도 멧 향 담았저, 두 향 담았저, 혼 향 담았저만 해나신디. 이제 김치 요만이 현 통에 하나민 자꾸자꾸 허멍 먹어부난.(이제야 고급으로만 딱 김치도 해 가는데 옛날에는 잘하면 고추 조금 낱 그냥 깨나 조금 놓고 하면 그냥 멀치것만 마구 놔 서. 그냥 김치 담그면 김치도 멧 향아리 담았다, 두 향아리 담았다, 한 향아리 담았 다만 했었는데. 이제 김치 요만큼한 통에 하나면 자꾸자꾸 하면서 먹어버리니까.)

107038 @ 하하하.(하하하.)

107038 #1 이제사 김치 험젠 헐 거라, 그거. 향으로 하나 헛저, 두 개 헛저 허멍 해나신디. 김치도 이제 ㄴ치 ㄴ물도 막 좋은 ㄴ물 ㄴ뜨민 허지만은 퍼데기<sup>184)</sup> 반 질 레기 뵈 거 해당.(이제야 김치 한다고 할 거야, 그거. 향아리로 하나 했다, 두 개 했 다 하면서 했었는데. 김치도 이제처럼 나물도 아주 좋은 나물 같으면 하지만 ‘퍼데 기’ 반 쪽짜리 된 거 해다가.)

107038 @ 퍼데기 무신거 현 거?(‘퍼데기’는 무엇한 거?)

107038 #1 퍼데기.(‘퍼데기’.)

107038 @ 예.(예.)

107038 #1 속 아니 앓이난 퍼데기.(속 안 앓으니까 ‘퍼데기’.)

107038 @ 예.(예.)

184) ‘퍼데기’는 속이 여물지 않고 넓게 퍼진 배추의 한 종류다.



107038 #1 그런 거 행 헛주, 정 이제 ㄱ치 속 팡팡 앓은 걸로.(그런 거 해서 헛지, 그렇게 이제같이 속 팡팡 앓은 걸로.)

107038 @ 옛날 엇어지예, 속 앓은 배추가예.(옛날은 없었지요, 속 앓은 배추가요.)

107038 #1 하나이나 시면은 돈 받당 풀젠 허주, 이녁 먹젠은 안 헛거든.(하나나 있으면 돈 받아서 팔려고 하지, 자기 먹으려고는 안 했거든.)

107038 @ 아, 이녁 먹는 거는 퍼데기로.(아, 자기 먹는 거는 ‘퍼데기’로.)

107038 #1 돈 멘들젠.(돈 만들려고.)

107039 @ 응. 열무김치도 행 먹어났수과?(응. 열무김치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9 #1 열무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때 열무 무시거 차례 처리젠. 이제나 열무 있주. 열무가 어디 서?(열무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때 열무 무엇 차례 처리려고. 이제나 열무 있지. 열무가 어디 있어?)

107039 @ 츠마기<sup>185)</sup>가 열무 아니?(‘츠마기’는 열무 아니?)

107039 #1 츠마기 뜯나고.(‘츠마기’ 다르고.)

107039 @ 열무 뜯난 거?(열무 다른 거?)

107039 #1 츠마기 임시 갈앙 먹는 건 츠마기고. 그때 무수엔 헤여? 늣빠엔 헛주.(‘츠마기’ 임시 갈아서 먹는 건 ‘츠마기’고. 그때 ‘무수’라고 했어? ‘늣빠’라고 했지.)

107039 @ 거난, 늣빠. 늣빠 게난 싹 난 거예 어릴 때 톨아근에 그걸로 김치허민 열무김치?(그러니까, 무. 무 그러니까 싹 난 거요 어릴 때 뜯어서 그걸로 김치하면 열무김치?)

107039 #1 아니, 열무 그. 무수 늣빠는 이파리 톨지 안허주. 그냥 내불주. 그냥 헛주. 그 어린 거 메당이나 허민 무수 짐치여, 열무짐치여 그처럼 헤실 거주. 그거 엇어.(아니, 열무 그. ‘무수’, ‘늣빠’는 이파리 뜯지 안지. 그냥 내버리지. 그냥 헛지. 그 열니 거 매다가나 하면 무 김치다, 열무김치다 그렇게 했을 거지. 그거 없어.)

107039 @ 츠마기영 뜯난 거구나예.(‘츠마기’는 다른 거군요.)

107039 #1 츠마기는 이제 어린 거 흔 목에 문짝 낳 이제 메당 짐치허는 것이 츠마기 김치, 츠마기 김치 허주. 그때 그런 짐치가 엇어.(‘츠마기’는 이제 어린 거 한 목에 모두 낳서 이제 매다가 김치하는 것이 ‘츠마기’ 김치, ‘츠마기’ 김치 하지. 그때 그런 김치가 없어.)

107039 @ 옛날에.(옛날에.)

107039 #1 그자 먹음은 똥장, 먹음은 똥쳐, 그거. 그거주.(그냥 먹음은 똥장, 먹음은 똥쳐, 그거. 그거지.)

107040 @ 옛날에도 물김치도 행 먹어났수과?(옛날에도 물김치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0 #1 물김치사 행 먹어났주. 배추.(물김치야 해서 먹었었지. 배추.)

185) ‘츠마기’는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107040 @ 아.(아.)

107040 #1 그런 거, 저런 거 허영. 거 맛은 잊어도.(그런 거, 저런 거해서. 그거 맛은 없어도.)

107040 @ 아.(아.)

107040 #1 이제ㄴ치룩 맛은 잊어도, 이제ㄴ추룩 맛은 잊어도 다 허는 거난 다 했지.(이제처럼 맛은 없어도, 이제처럼 맛은 없어도 다 하는 거니까 다 했지.)

107040 @ 물김치에 무신거 어떻 놔근에 험니까?(물김치에 무엇 어떻게 놔서 험니까?)

107040 #1 물김치 무시거 고치나 조금 넣고 거 그레 늠빠나 썰어 놓주, 무신 다시다가 있어? 무시거 이서? 설탕도 옛날 우리 막 몇 년 뒤엔디도 설탕, 설탕 사례 가민 상점에서 요만한 봉다리에 얼마씩. 이제ㄴ치 삼 키로여, 몇 키로여 현 설탕이 잊어났주.(물김치 뭐 고추나 조금 넣고 그리 무나 썰어 놓지, 무슨 다시다가 있어? 무엇 있어? 설탕도 옛날 우리 막 몇 년 뒤인테도 설탕, 설탕 사례 가면 상점에서 요만한 봉지에 얼마씩. 이제같이 삼 킬로다, 몇 킬로다 한 설탕이 없었지.)

107040 @ 응. 겐 물김치는 이제라도 담강 먹젠 허든 어떻 행 먹으민 맛좋읍니까? 난 못허크라라, 물김치.(응. 그래서 물김치는 이제라도 담가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까? 난 못하겠더라, 물김치.)

107040 #1 물김치 무시거. 이제라도게 무수 납질납질 썰어 놔근에 그냥 흠치 양념 맥여낭 물 놔불민 동드랑이 뜨주게. 절여나민 무수가 안 떠.(물김치 뭐. 이제라도 무 납작납작 썰어 놔서 그냥 함께 양념 먹여놔서 물 놔버리면 동동 뜨지. 절이고 나면 무가 안 떠.)

107040 @ 아.(아.)

107040 #1 그냥 흠치 양념 무치명 물 놔근엔에 동곳 놓고 양념 그디 놀만이 이 녀크 주장대로 놓민 돼지.(그냥 함께 양념 무치면서 물 놔서 고드름 놓고 양념 거기 놀만큼 자기 뜻대로 놓으면 되지.)

107040 @ 응. 무수 말고 다른 것도 ㄴ치 놔?(응. 무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놔?)

107040 #1 뭐?(뭐?)

107040 @ 물김치헐 때는 무수도 놓고 배치도 놓고?(물김치할 때는 무도 놓고 배추도 놓고?)

107040 #1 거 어린 배추 시민, 속배추 시민 하나씩 놓민 좋주, 그거 뿐이로. 뽕도 돼고 먹음도 좋고.(그거 어린 배추 있으면, 속배추 있으면 하나씩 놓으면 좋지, 그거 폼으로, 폼도 되고 먹기도 좋고.)

107041 @ 응. 동지김치 행 먹어났지예.(응. ‘동지’김치 해서 먹었었지요?)

107041 #1 응, 봄 나민, 봄 나민 꺾꺼당.(응, 봄 나면, 봄 나면 꺾어다가.)

107041 @ 무시거에 동지? ㄴ물에 동지?(무엇에 장다리? 나물에 장다리?)

107041 #1 ㄴ물 캐여 가당.(나물 캐어 가다가.)

107041 @ 무수에 동지?(무에 장다리?)

107041 #1 배추에 동지도 있고, 무수에 동지는 써 흥끔이.(배추에 장다리도 있고, 무에 장다리는 써 조금.)

107041 @ 아, 그럼 배치 동지로예.(아, 그럼 배추 장다리로요.)

107041 #1 배치 동지 해당 허민 파랑게 양념, 이제는 파랑게 해당 양념 무치민 것이 맛있어.(배추 장다리 해다가 하면 파랑게 양념, 이제는 파랑게 해다가 양념 무치면 그것이 맛있어.)

107041 @ 예.(예.)

107041 #1 옛날에는 기자 해당 삶양도 먹고 두리치기 어땡행 어지령<sup>186</sup> 설러불 엇주.(옛날에는 그냥 해다가 삶아서도 먹고 ‘두리치기’ 어떻게 해서 ‘어지령’ 그만두지.)

107041 @ 응.(응.)

107041 #1 이제는 동지집치 허민 맛있주.(이제는 ‘동지’김치 하면 맛있지.)

107041 @ 예.(예.)

107041 #1 봄 낭.(봄 나서.)

107042 @ 봄 낭예. 그다음엔 무우, 늪빠집치?(봄 나서요. 그다음엔 무, 무김치?)

107042 #1 늪빠집치나 그거나 그자 맛다가리도 엇이 똑똑 썰영 배치 새에 낭. 이제도, 이젠 양념이나 많이 무치난 맛있나. 그때는 양념도 줄바로 허지 안헌 것에 땡첫만 처 놔부난 거멍게.(무김치나 그거나 그저 맛도 없이 똑똑 썰어서 배추 사이에 놔서. 이제도, 이젠 양념이나 많이 무치니까 맛있지. 그때는 양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땡치것만 많이 놔버리니까 거멍게.)

107042 @ 하하하. 이제추룩 각두기처럼도 행 먹어난?(하하하. 이제처럼 각두기처럼도 해서 먹었었어?)

107042 #1 그런 건 몰르크라.(그런 건 모르겠어.)

107042 @ 그냥 배추에다 같이 놔?(그냥 배추에다 같이 놔?)

107042 #1 응. 겨문이 속에 들어간 거 속은이 검시근험은 해도 맛은 새콤새콤.(응. 그러면 속에 들어간 거 속은 거무스름하기는 해도 맛은 새콤새콤.)

107042 @ 아.(아.)

107042 #1 오래니까 맛들어 놓난, 익어 놓난.(오래니까 맛이 들어 놓으니까, 익어 놓으니까.)

107042 @ 그럼 그냥 넘적넘적하게 썰영?(그럼 그냥 넘적넘적하게 썰어서?)

107042 #1 이만씩 썰영게.(이만큼씩 썰어서.)

107042 @ 아, 그만씩 썰영 배치?(아, 그만큼씩 썰어서 배추?)

107042 #1 새에.(사이에.)

107042 @ 새에다가 집어 넣어.(사이에다가 집어 넣어.)

107042 #1 배치 혼 도리<sup>187</sup> 놓고 그거 혼 도리 낭 허민.(배추 한 ‘도리’ 놓고 그

186) ‘어지리다’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참가하거나 그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이리 저리 벌려놓는 뜻의 제주 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음식에 조금씩 들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7) ‘도리’는 겹을 쌓는 둘레의 단위로 차곡차곡 둥그렇게 빙 돌아 한 바퀴를 쌓았을 때 일컫는 말이다.

거 한 ‘도리’ 놔서 하면.)

107042 @ 늑빠만 따로 해근에 깎두긴 안 허고? 옛날엔 안 해서예?(무만 따로 해서 깎두기는 안 하고? 옛날엔 안 했어요?)

107042 #1 안 해서. 몰라 다른 디, 우린 안 헨.(안 했어. 몰라 다른 데, 우린 안 했어.)

107043 @ 응. 파김치?(응, 파김치?)

107043 #1 파김치 뭐라, 예구 파김치 어디 서, 그때?(파김치 뭐야, 에이구 파김치 어디 있어, 그때?)

107043 @ 패마농.(쪽파.)

107043 #1 게메, 파김치가 어디 서, 그때.(그러게, 파김치가 어디 있어, 그때.)

107043 @ 이젠 하영 헹 먹어도예.(이젠 많이 해서도 먹어도요.)

107043 #1 이젠 파김치, 흥끔 허민 요만이만 커가민 막 캐당, 걸. 맛은 잊주게, 어린 때니까. 게도 그때 파김치 었어.(이젠 파김치, 조금하면 요만큼만 커가면 막 캐다가, 그걸. 맛은 있지. 어린 때니까. 그래도 그땐 파김치 없어.)

107043 @ 응.(응.)

107043 #1 패마농이 별로 었어신가?(쪽파가 별로 없었나?)

107043 @ 몰라. 어떻게 해신디.(몰라. 어떻게야 했는지.)

107043 #1 콥대사니지시엔 행이.(마늘지라고 해서.)

107043 @ 응.(응.)

107043 #1 그땐 콥대사니엔 헤영.(그땐 ‘콥대사니’라고 해서.)

107043 @ 응.(응.)

107043 #1 콥대사니 헤영 삼월 나가민 메여당, 흥끔 요 울안이나 널른 사름 메당 장에 왕 풀민 그거 사당 지시나 허고. 이제는 그냥 밧딜로 밧 천 평씩 다 사명 해도, 옛날은 경 콥대사니도 밧으로 헤낫어? 이추룩 현 울안에나 쪼끔씩 요만큼.(마늘 해서 삼월 나가면 매어다가, 조금 요 울안이나 넓은 사름 매어다가 장에 와서 팔면 그거 사다가 장아찌나 하고. 이제는 그냥 밧으로 밧 천 평씩 다 사면서 해도, 옛날은 그렇게 마늘도 밧으로 했었어? 이렇게 한 울안에나 쪼끔씩 요만큼.)

107043 @ 응.(응.)

107043 #1 김치헐 때도 마농이 하영 놔사 쿠성 맛좋은디 이런 디 흥끔 허민 경 마농 욱심을 헛어? 마농은 농민 맛좋은 중은 알아도 마농이 었이니까 안 논 거지. (김치할 때도 마늘이 많이 놔야 고소해서 맛있는데 이런 데 조금 하면 그렇게 마늘 할 욱심을 헛어? 마늘은 농으면 맛있는 줄은 알아도 마늘이 없으니까 안 놓은 거지.)

107044 @ 응, 혹시 꿩마농도 김치헹 먹읍니까?(응, 혹시 달래도 김치해서 먹습니까?)

107044 #1 응. 헐 수 시민 건 더 좋주, 달래김치.(응.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지, 달래김치.)

107044 @ 달래김치, 거난.(달래김치, 그러니까.)

107044 #1 옛날에도 밧디 갓당 김치명 말명 보리밧디 검질 메당이라도 걸 캐영 와, 캐영 오민 기자 톨이.(옛날에도 밧에 갔다가 김치면서 말면서 보리밧에 김 매어 다가라도 그걸 캐어서 와, 캐어 오면 그냥 톨이.)

107044 @ 응.(응.)

107044 #1 톨 무청 씻은 것에 막 썰마놓을 영영 무청 켜장에 먹으믄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있어 벤디.(톨 무쳐서 씻은 것에 막 달래를 이렇게 이렇게 무쳐서 켜장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107044 @ 삶양? 그냥 생으로?(삶아서? 그냥 생으로?)

107044 #1 그냥 생으로. 켜장에 톨 영영 감양 먹으민, 이도 좋고 현 때덜이난 것이 막 맞춘디.(그냥 생으로. 켜장에 톨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먹으면, 이도 좋고 할 때들이니까 그것이 아주 맛있는데.)

107044 @ 응.(응.)

107044 #1 그런 걸로 김치하고 무시거 헐 내긴 안 나.(그런 걸로 김치하고 무엇 할 생각이 안 나.)

107044 @ 응.(응.)

107044 #1 경 그거 캐레 땡기고 이젠 막 캐레 산에 다 가도.(그렇게 그거 캐러 다니고 이젠 막 캐러 산에 다 가도.)

107044 @ 예.(예.)

107044 #1 캐레 땡기는 양도 있어.(캐러 다니는 것도 없어.)

107044 @ 그냥 검질 메당예?(그냥 김 매다가요?)

107044 #1 응, 검질 메당 밧디, 보리밧디 거 허민 먹음직허민 그것덜 캐영 왕 보곰지에 톨 낱 왓당.(응, 김매다가 밧에, 보리밧에 그거 하면 먹음직하면 그것들 캐어서 와서 주머니에 톨 놔서 왔다가.)

107044 @ 응.(응.)

107044 #1 밧디서 점심 먹을 때도 그걸로 허영 먹으민 맛있지.(밧에서 점심 먹을 때도 그걸로 해서 먹으면 맛있지.)

107044 @ 응.(응.)

107044 #1 밧디 벨 반찬도 행 안 간 거.(밧에 벨 반찬도 해서 안 간 거.)

107044 @ 응.(응.)

107044 #1 켜장이나 무시거나.(켜장이나 무엇이나.)

107044 @ 갓김치, 갓물김치?(갓김치, 갓김치?)

107044 #1 응. 갓물김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 갓물김치, 갓김치 맛있게 허연에 코가 툭툭 터지게 해영 먹주, 옛날 갓물, 갓김치가 어디 셔?(응. 갓김치도 마찬가지로야. 이제 나 갓김치, 갓김치 맛있게 해서 코가 툭툭 터지게 해서 먹지, 옛날 갓, 갓김치가 어디 있어?)

107045 @ 옛날은 었어낫수과? 갓물김치?(옛날은 없었습니까? 갓김치?)

107045 #1 갯늬물은 잇어도 갯은 엇어, 갯집친 엇어.(‘갯늬물’은 잇어도 갯은 없어, 갯김치는 없어.)

107045 @ 갯은 엇어도 갯늬물은 옛날에도 행 먹어났수과? 김치?(갯은 없어도 ‘갯늬물’은 옛날에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김치?)

107045 #1 그냥이 배추 허는 디 낵이.(그냥 배추 하는 데 놔서.)

107045 @ ㄴ치?(같이?)

107045 #1 응, ㄴ찌 놔근에 죽여가.(응, 같이 놔서 절여.)

107045 @ 따로 그거만 허지는 안허고.(따로 그것만 하지는 았고.)

107045 #1 따로 헛당은 건 매왕도 못 먹을 거 닻아.(따로 했다가는 그건 매워서 도 못 먹을 거 같아.)

107046 @ 갯늬물은. 새우리?(‘갯나물’은. 부추?)

107046 #1 새우리도 이제나 하주, 그뎨 하지 안허주게. 울안에 쪼끔씩 낵 어디 뎡장에라도 썰어 놀 여산허주. 이제거추룩 정 처 갈아사 새우리 짐치여, 무신 갯집치여 허주.(부추도 이제나 많지, 그뎨 많지 았지. 울안에 쪼끔씩 놔서 어디 뎡장에라도 썰어놓을 생각하지. 이제처럼 그렇게 많이 갈아야 부추 김치다, 무슨 갯김치다 하지.)

107046 @ 예.(예.)

107046 #1 그런 거 엇엇어.(그런 거 없엇어.)

107047 @ 그런 거 엇엇어예. 그럼 옛날에 배추김치는 언제쯤에 보통 담가났수과?(그런 거 없엇어요. 그럼 옛날에 배추김치는 언제쯤에 보통 담갔었습니까?)

107047 #1 시월. 동짓덜, 동짓덜 나면은 해.(시월, 동짓달, 동짓달 나면은 해.)

107047 @ 동짓덜 나민. 켜 아까 바당에 강 숨 죽엇당 집이 와근에예. 켜 해근에.(동짓달 나면. 그래서 아까 바다에 가서 절였다가 집에 와서요. 그렇게 해서.)

107047 #1 흔 사흘 절여 놔사.(한 사흘 절여 놔야.)

107047 @ 흔 사흘이나 절여? 무사 켜 오래 절여?(한 사흘이나 절여? 왜 그렇게 오래 절여?)

107047 #1 몰라. 겨민이 짐치가 저것이 누렁허여이. 오래민 누렁허잖아.(몰라. 그러면 김치가 저것이 누래. 오래민 누렁잖아.)

107047 @ 응.(응.)

107047 #1 누렁헤사 짐치덜을 한다.(누래야 김치들을 한다.)

107047 @ 아, 이제는 흐룻밤만 허민.(아, 이제는 하룻밤만 하면.)

107047 #1 이제 절이민 넬 이전이 건져사 뎡, 흐끔.(이제 절이면 넬 이전에 건져야 돼, 조끔.)

107047 @ 게난.(그러니까.)

107047 #1 밤에 볍아오민 흔 열두 시쯤 건져당 볍아오민 짐치 허는다.(밤에 볍아오면 한 열두 시쯤 건져다가 볍아오면 김치 하는데.)

107047 @ 무사 옛날엔 켜 오래헤신고?(왜 옛날엔 그렇게 오래했는고?)

107047 #1 거 몰라, 어둡은 짓이지, 짓이게. 잘 절이면 좋덴, 누물내 나고 거. 이젠 뭐 경 안 해도 이젠 양념이 귀긋안 양념이 다 두리 미쳐부난 김치 맛이 좋은디. 이젠 또 김치도 하영 먹도 안허여, 이제 또. 중간에가 하영 먹어지주.(그거 몰라, 어두운 짓이지, 그것이. 잘 절이면 좋다고, 나물 냄새도 나고 그거. 이젠 뭐 그렇게 안 해도 이젠 양념이 갖춰져 있어서 양념이 다 두루 무쳐버리니까 김치 맛이 좋은데. 이젠 또 김치도 많이도 먹지도 았아, 이제 또. 중간에가 많이 먹었지.)

107047 @ 경해도게 하영 행 김치 냉장고에 놔두고 요즘도 험니께.(그래도 많이 해서 김치 냉장고에 놔두고 요즘도 하잖아요.)

107047 #1 경은 해도 김치 냉장고 돌 돌아왕 먹켄 해도 돌 돼어가든 맛이 었어. 김치가.(그렇게는 해도 김치 냉장고 돌 돌아와서 먹겠다고 해도 돌 되어가면 맛이 없어.)

107047 @ 뭐, 김치냉장고 어떻 돌 돌아오민?(뭐, 김치냉장고 어떻게 돌 돌아오면?)

107047 #1 오늘 논 거민 오늘썸 돌아, 제 돌 돌아와 가면은 김치도 맛이 었어.(오늘 놓은 거면 오늘썸 돌아, 제 돌 돌아와 가면 김치도 맛이 없어.)

107047 @ 아, 내년, 일 년 돼가지고?(아, 내년, 일 년 되어가지고?)

107047 #1 응. 아명 냉장고에 놔 싱싱해영 좋은덴 해도 오래여 가민 맛이 었어. 맛이 었어.(응. 아무리 냉장고에 놔서 싱싱해서 좋다고 해도 오래되어 가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107047 @ 맛이 었어. 응. 육진 무사 땅에 파근에 묻곡 헌덴 험니께?(맛이 없어. 응. 육지는 왜 땅에 파서 묻고 한다고 하잖아요?)

107047 #1 이디도 냉장고 었인 때 물어낫주게.(여기도 냉장고 없을 땐 묻었었지.)

107047 @ 물어낫수과?(묻었었습니까?)

107047 #1 우리도 물어난 이디 판.(우리도 묻었었어 여기 파서.)

107047 @ 아, 땅에 팡.(아, 땅에 파서.)

107047 #1 향아리에.(향아리에.)

107047 @ 향아리 담양? 어떻행 잘 굴아봅서.(향아리 담아서? 어떻게 해서 잘 말해보세요.)

107047 #1 기냥 김치 허민 향아리 마직헌 향아리 땅 팡 들여놔 그디 영 싸. 싸 근에.(그냥 김치 하면 향아리 알맛을 만한 향아리 땅 파서 들여놔서 거기 이렇게 싸. 싸서.)

107047 @ 무신걸로 싸?(무엇으로 싸?)

107047 #1 아무거라도 영 더꺼불어. 향아리 속에 무시거 못 들어가게. 더꺼웁 흑을 더경 내불어. 게민 눈도 맞이곡 봄 나가민 홈파당 먹어. 게도 재기 시어불어.(아무거라도 이렇게 덮어버려. 향아리 속에 무엇 못 들어가게. 덮어두고 흑을 덮어서 내버려. 그러면 눈도 맞고 봄 나가면 파다가 먹어. 그래도 빨리 시어버려.)

107047 @ 재기 시어. 베끗되 논 거보단 잘 안 시난 땅 팡 묻은 거 아니?(빨리 시어. 밖에 놓은 거보단 잘 안 시니까 땅 파서 묻은 거 아니?)

107047 #1 응, 그때 당시는 경헛지.(응, 그때 당시는 그랬지.)

107047 @ 예.(예.)

107047 #1 땅 묻는 법이 하낫어, 그때. 무수도 해당이 이제는 월동 무수로 그냥 오월, 삼월 나도록 다 무수가 잇는디, 십이월만 나면은 음력 십이월만 나면이 파당 이런 울안에 문딱 땅 팡 다 영영 쭈런이 싱경, 흑 영영 더경. 거행 영 더경 공기 나가게 내불민 그자 하나씩하나씩 빠당.(땅 묻는 법이 많았었어, 그때. 무도 해당이 이제 월동 무로 그냥 오월, 삼월 나도록 다 무가 있는데. 십이월만 나면 음력 십이월만 나면 파다가 이런 울안에 모두 땅 파서 다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심어서, 흙 이렇게 덮어서. 그거 해서 이렇게 덮어서 공기 나가게 내버리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뽑아다가.)

107047 @ 빠당 먹어.(뽑아다가 먹어.)

107047 #1 우린 경도 먹어지도 안허고 허도 안헤.(우린 그렇게도 먹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107047 @ 응.(응.)

107047 #1 어둡은 짓을 헛주.(어두운 짓을 헛지.)

## 젓갈

107048 @ 이젠 젓갈.(이젠 젓갈.)

107048 # 젓갈사 천지만지주.(젓갈이야 천차만별이지.)

107048 @ 자리젓.(자리돔젓.)

107048 # 자리젓도 천지만지, 멜젓도 천지만지.(자리돔젓도 천차만별, 멸치젓도 천차만별.)

107048 @ 옛날엔 자리젓허고 멜젓허고 또 다른 젓도 헤낫수과?(옛날엔 자리돔젓하고 멸치젓하고 또 다른 젓도 했었습니까?)

107048 #2 고등어젓.(고등어젓.)

107048 @ 아, 고등어젓도 헤낫수과?(아, 고등어젓도 했었습니까?)

107048 #2 응.(응.)

107048 #1 고등어젓 안 헤낫어.(고등어젓 안 했었어.)

107048 @ 안 헤낫어.(안 했었어.)

107048 #1 옛날 멜젓이 주로 하낫주.(옛날 멸치젓이 주로 많았었지.)

107048 @ 멜젓이 주로 하고예.(멸치젓이 주로 많고요.)

107048 #2 자리젓.(자리돔젓.)

107048 @ 자리젓도 허주예.(자리돔젓도 하지요.)

107048 #1 응, 자리젓도 허른이 요 들렌 헌 망데기로 서 말 들이엔 행 걸로 하나씩 행 것이 큰 반찬이거든, 멜젓. 경헤낫어.(응, 자리돔젓도 하면 요 들레는 한



‘망데기’로 서 말 들이라고 해서 그걸로 하나씩 해서 그것이 큰 반찬이거든, 멀치젓. 그렇게 했었어.)

107049 @ 그든 먼저 자리젓부터. 자리젓은 자리 날 때 여름에?(그러면 먼저 자리돔부터. 자리돔젓은 자리 날 때 여름에?)

107049 #1 유월절 전이.(유월절 전에.)

107049 @ 유월절 전이.(유월절 전에.)

107049 #1 옛날엔이 바당으로이 칠월 나가민이 고래시<sup>188)</sup>엔 행이.(옛날엔 바다로 칠월 나가면 ‘고래시’라고 해서.)

107049 @ 고래시?(‘고래시’?)

107049 #1 응. 이제는 그런 고래시가 아니 올라와. 옛날에는이 고래시 꾀디 올라오민이 이 돌이 퍼렁허여. 고래시가.(응. 이제는 그런 ‘고래시’가 안 올라와. 옛날에는 ‘고래시’ 갯가에 올라오면 이 돌이 퍼래. ‘고래시’가.)

107049 @ 고래시가 뭐마씨?(‘고래시’가 뭐예요?)

107049 #1 바당에 고래 엇나, 고래.(바다에 고래 없니. 고래.)

107049 @ 물고기?(물고기?)

107049 #1 응. 바당에.(응. 바다에.)

107049 @ 큰 물고기?(큰 물고기?)

107049 #1 큰 고래.(큰 고래.)

107049 @ 응.(응.)

107049 #1 그 고래시가 바람 절에 밀려오민 갯디 물 들어와난 곰쟁이, 돌이 꼭 저 색깔 돼어. 요거. 요색으로 그냥 이디가 퍼렁허여. 그거 전이 고래시 들어오기 전이 젓 힘으로 젓을 하영 해낫어. 그 고래시 먹어나민이 자리젓도 맛도 엇어.(그 ‘고래시’가 바람 파도에 밀려오면 갯가에 물 들어왔던 고둥, 돌이 꼭 저 색깔이 돼. 요거. 요 색으로 그냥 여기가 파래. 그거 전에 ‘고래시’ 들어오기 전에 젓을 함으로 젓을 많이 했었어. 그 ‘고래시’ 먹어나면 자리돔젓도 맛도 없어.)

107049 @ 응.(응.)

107049 #1 꼭 저추룩 퍼렁이, 돌이. 디 돌이.(꼭 저렇게 퍼래, 돌이. 갯가의 돌이.)

107049 @ 풀 닳은 거파? 물풀 닳은 거파? 파래나 이런 거처럼?(풀 같은 겁니까? 물풀 같은 겁니까? 파래나 이런 거처럼?)

107049 #1 아니, 아니. 고래시. 고래 똥사 싸분 거산디 쉬 썩. 바당으로 올라왕 이디 왕 돌르면은 저 색깔이 돼어, 퍼렁. 이런 갯 바위가 퍼렁.(아니, 아니. ‘고래시’. 고래 똥이야 싸버린 것인지 오줌 싸서. 바다로 올라와서 여기 와서 마르면 저 색깔이 돼, 퍼래. 이런 갯가 바위가 퍼래.)

107049 @ 응.(응.)

188) ‘고래시’는 고래가 똥을 싸 것 같다는 제보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오고 나서 바닷가에 파란 바다풀들이 올라온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107049 #1 게문 그거 허기 전이 자리젓을 허켄 행덜 욕심행 해. 반찬이 것베끼 엇거든.(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자리젓을 하겠다고 해서들 욕심해서 해. 반찬이 그것밖에 없거든.)

107049 @ 게문 그 자리는 흐뎡 작은 걸로 됩니까?(그러면 그 자리돔은 조금 작은 걸로 됩니까?)

107049 #1 응. 보통으로 그때 돼민 젓자리<sup>189)</sup>로 요만씩 요만씩헌 거지. 너무 준 거 허민 맛, 여름 지나민 흐뎡 녹아불곡이. 요 정도 웬 것덜 요만씩헌 거 딱.(응. 보통으로 그때 되면 ‘젓자리’로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거지. 너무 잔 거 하면 맛, 여름 지나면 조금 녹아버리고. 요 정도 된 것들만 요만큼씩한 거 딱.)

107049 @ 너무 큰 건 세고예.(너무 큰 건 세고요.)

107049 #1 너무 큰 건 가시가 세고.(너무 큰 건 가시가 세고.)

107049 @ 응.(응.)

107049 #1 게민 또 자리 철이 이서이. 알 낳기 전이, 알 낳기 전이 알 나불민 자리젓도 가시도 더 세고 솔이 엇어부난 자리젓해도 겹어. 그냥 알 신 때 허민 곤만 맛이민 별경허영 쿠상허영 맛있는디.(그러면 또 자리돔 철이 있어. 알 낳기 전에, 알 낳기 전에 알 나버리면 자리돔젓도 가시도 더 세고 살이 없어버리니까 자리돔젓 해도 겹어. 그냥 알 있는 때 하면 간만 맞으면 별개서 고소해서 맛있는데.)

107049 @ 아. 보통 칠월썰에.(아. 보통 칠월썰에.)

107049 #1 유월썰에 해.(유월썰에 해.)

107049 @ 유월썰에.(유월썰에.)

107049 #1 유월절 전이 해야 젓은 맛있어.(유월절 전에 해야 젓은 맛있어.)

107049 @ 아, 유월절 전이. 음력 유월 아니고 양력으로?(아, 유월절 전에. 음력 유월 아니고 양력으로?)

107049 #1 음력, 음력.(음력, 음력.)

107049 @ 음력 유월?(음력 유월?)

107049 #1 응. 그런 거 절기는이.(응. 그런 거 절기는.)

107049 @ 다 음력으로예, 게문 흐 칠월달이네예.(다 음력으로요, 그러면 한 칠월달이네요.)

107049 #1 응.(응.)

107049 @ 보통 양력으로 허민 칠월썰 되는 거네예. 경해근에 자리 사민 자리를 소금을 어떻 행 됩니까?(보통 양력으로 하면 칠월썰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리돔 사면 자리돔을 소금을 어떻게 해서 됩니까?)

107049 #2 소금 맞추기가 쥔 힘들어.(소금 맞추기가 쥔 힘들어.)

107049 @ 게난 얼마이에 얼마이썩 놓민 웰 건고?(그러니까 얼마이에 얼마만큼씩 놓으면 될 건고?)

107049 #1 옛날에 헐 땀이 흐 말이민 흐 관웨 논덴 허여.(옛날에 할 땀 한 말이

189) ‘젓자리’는 젓갈을 담기에 적당한 크기가 작은 자리돔을 말한다.

면 한 뼤 놓는다고 해.)

107049 @ 자리 혼 말이민 소금 혼 관웨?(자리 한 말이면 소금 한 뼤.)

107049 #1 정헌텐 헌디 이젠이 자리도 키로, 소금도 키로 행 허는 거 닳아.(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젠 자리도 킬로, 소금도 킬로 해서 하는 거 같아.)

107049 @ 똑ㄴ치?(똑같이?)

107049 #1 아니, 삼 키로 상이 젓을 허민 이 스텡 국그릇으로 하나허고 흐뽀 떠 놓민 좋으메.(아니, 삼 킬로 사서 젓갈을 하면 이 스테인레스 국그릇으로 하나하고 조금 떠 놓으면 좋아.)

107049 @ 스텡 국그릇으로 하나허고.(스테인레스 국그릇으로 하나하고.)

107049 #1 흐뽀만 떠 놓으면 좋아.(조금만 떠 놓으면 좋아.)

107049 @ 게민 그건 뭐 혼 홉제기 아니면 웨약세기 정도 웨는 거파?(그러면 그건 뭐 한 홉 아니면 ‘웨약세기’ 정도 되는 겁니까?)

107049 #1 아니, 넘지.(아니, 넘지.)

107049 @ 거보단 넘어?(그거보다 넘어?)

107049 #1 그것이 혼 사발이 세 사발 더 놓민 혼 관웨가 웨어.(그것이 한 사발이 세 사발 더 놓으면 한 웨가 돼.)

107049 @ 아, 그민.(아, 그러면.)

107049 #1 그 국사발이.(그 국사발이.)

107049 @ 웨약세기보다 흐뽀 큰 거. 웨약세기로 혼나 반?('웨약세기'보다 조금 큰 거. '웨약세기'로 하나반?)

107049 #1 혼나 반은 다 아니.(하나 반은 다 아니.)

107049 @ 혼나 반은 다 안 들고. 삼 키로 허민 그 정도. 옛날에는 혼 말에 혼 관웨.(하나 반은 다 안 들고. 삼 킬로 하면 그 정도. 옛날에는 한 말에 한 뼤.)

107049 #2 소금을 잘 맞춰.(소금을 잘 맞춰서.)

107049 @ 게민 어디 항아리에 담는가?(그러면 어디 항아리에 담는가?)

107049 #1 이젠 정 하영 안 담아부난이 옛날이 하영 혼 말. 하영 혼 말 해. 먹지도 안허메, 이젠. 하간 거 이거 저거 먹어불민 다 못 먹을 거난.(이젠 그렇게 많이 안 담아버리니까 옛날이 많이 한 말. 많이 한 말 해. 먹지도 안해, 이젠. 온갖 거 이거 저거 먹어버리면 다 못 먹을 거니까.)

107049 @ 옛날에 할 때.(옛날에 할 때.)

107049 #1 거난 옛날에 할 때는 게메, 항아리에 단지에. 흐꼬만헌 단지에.(그러니까 옛날에 할 때는 글썽, 항아리에 단지에. 조그만 단지에.)

107049 @ 단지에. 그민 맨 밀엔 무시거 봐?(단지에. 그러면 맨 밀엔 뭐 봐?)

107049 #1 밀에 무시거 안 봐. 소금이나 흐뽀 산산이.(밀에 뭐 안 봐. 소금이나 조금 산산이.)

107049 @ 소금 놓고 그다음.(소금 놓고 그다음.)

107049 #1 소금 버물인 거 그레 낱 꼭 꼭 누루멍.(소금 버물인 거 그리 봐서 꼭

꼭 눌러서.)

107049 @ 무신거 버물인 거?(뭘 버무린 거?)

107049 #1 소금 버물인 거.(소금 버무린 거.)

107049 @ 아, 소금을 자리에 영 버물여, 경헌 다음에 그디 놔?(아, 소금을 자리에 이렇게 버물려, 그런 다음에 거기 놔?)

107049 #1 응, 그디 놔 그릇을 막 맞인 그릇이 더 좋아이. 꼭 꼭 누르멍 그레 소금 또 산산이 흐끔 허경 미신 이제 고기 구는 고지라도이 영 열십제 나게 영 놔 꼭 지들황 돌이라도 요만큼헌 돌 꼭 지들황 물 올라오고 행 내불민 한.(응, 거기 놔서 그릇을 막 맞은 그릇이 더 좋아. 꼭 꼭 눌러서 그리 소금 또 산산이 조금 섞어서 무슨 이제 고기 구는 꼬치라도 이렇게 열십자 나게 이렇게 놔서 꼭 지질러서 돌이라도 요만큼한 돌 꼭 지질러서 물 올라오고 해서 내버리면 한.)

107049 @ 뚜껑 더경?(뚜껑 덮어?)

107049 #1 두껍 더끄민 궂어이.(뚜껑 덮으면 나빠.)

107049 @ 아.(아.)

107049 #1 험벅 영 싸민 이 파리 탕기당 벌거지 안 일고 영 더경, 영 더꺼근에 놔두민 두까릴 더꺼도 이디 공간이 잇게. 이 자리 내가 나가불어사이 저린내가 안 나. 경허민 자리젓에 저린내가 나. 냄새가 흐끔 군내가 나.(형쪼 이렇게 싸면 이 파리 다니다가 벌레 안 일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놔두면 뚜껑을 덮어도 여기 공간이 잇게. 이 자리돔 냄새가 나가버려야 비린내가 안 나. 그러면 자리돔젓에 비린내가 나. 냄새가 조금 군내가 나.)

107049 @ 예. 뚜껑 더끄지 말앙예.(예. 뚜껑 덮지 말고요.)

107049 #1 두껍 흠뻑 더끄지 말아야 돼. 경허민 혼 달만 잇당 보면은.(뚜껍 흠뻑 덮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한 달만 있다가 보면.)

107049 @ 혼 달?(한 달?)

107049 #1 응, 먹어져.(응, 먹을 수 있어.)

107049 @ 아.(아.)

107049 #2 첫째 소금을 잘 조준해사.(첫째 소금을 잘 조정해야.)

107049 @ 계난예. 소금을 잘 놔사.(그러니까요. 소금을 잘 놔야.)

107049 #1 소금을 잘 조중해사.(소금을 잘 조정해야.)

107049 @ 게른 그거 허민 꺼냉 이젠 양념도 행은에 먹는다 그거 뭐 양념.(그러면 그거 하면 꺼내서 이젠 양념도 해서 먹는데 그거 뭐 양념.)

107049 #1 옛날은 양념 어디 서? 거 꺼내민 그거차 먹어실 테주.(옛날은 양념 어디 있어? 그거 꺼내면 그거째 먹었을 테지.)

107049 @ 그냥예.(그냥요.)

107049 #1 이젠 자리 하나 허민 스몫 밧거리 아덜쫂은 찰지름 농곡 행 먹엄실 거여.(이젠 자리돔 하나 하면 사몫 바깥채 아덜쫂은 참기름 넣고 해서 먹을 거야.)

107049 @ 계난예, 고춧ㄴ루여, 갯ㄴ루여 막.(그러니까요, 고춧가루다, 갯가루다)

막.)

107049 #1 이젠 기름은 안 놔도 보통으로 깨ㄴ루, 고추ㄴ루, 마늘 빠진 거 정  
냥 양념은 미청 먹엄실 테주.(이젠 기름은 안 놔도 보통으로 갯가루, 고춧가루, 마  
늘 빵은 거 그렇게 놔서 양념은 무쳐서 먹을 테지.)

107049 @ 게든 그게 반찬예.(그러면 그게 반찬요.)

107049 #1 이제도 반찬이라 우린. 밋반찬이 그것이 좋아. 먹어난 행실머리 다른  
거 이 돼지고기 미시거 정신 안 가는 덕분에 나가 그런 정신은 안 가.(이제도 반찬  
이야 우린. 밋반찬이 그것이 좋아. 먹었던 행실 다른 거 이 돼지고기 무엇 정신 안  
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신은 안 가.)

107049 @ 뽕젓도 허는 건 똑ㄴ튼가?(뽕치젓도 하는 건 똑같은가?)

107049 #1 응.(응.)

107049 @ 소금은 흥뽕 덜 들어갑니까, 자리보다?(소금은 조금 덜 들어갑니까,  
자리보다?)

107049 #1 가명 말명, 영 허당 보민 어떻 어떻 근도 맞고. 근 뜰릴 때도 잇기야  
잇지.(가면서 말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간도 맞고. 간 뜰릴 때도 있  
기야 잇지.)

107049 @ 응.(응.)

107049 #1 나 자리젓, 뽕젓 주건 앳앙강 먹어봐. 헤쫌.(나 자리돔젓, 뽕치젓 주  
면 가져가서 먹어봐.)

107049 @ 하하하.(하하하.)

107049 # 열 개만 주크라. 이추룩 과작헨 먹엄직해서, 양념허민. 허연이 냉장고  
에 톱 놔부난예. 하영 가민 굿고. 요자기 왔단 뜰도 오민 꼭 흥 번 먹을 이만 앳앙  
가. 양념 메왕 오래 내비도 맛엇고. 그자 흥 때 먹을 이만 앳앙가라 허민 경 앳앙  
가.(열 개만 주겠어. 이렇게 쫑쫑해서 먹음직했어, 양념하면. 해서 냉장고에 톱 놔버  
리니까. 많이 가면 나쁘고. 요마적 왔던 뜰도 오면 꼭 한 번 먹을 만큼만 가져가.  
양념 해서 오래 내버려도 맛엇고. 그냥 한 때 먹을 만크만 가져가라 하면 그렇게  
가져가.)

107050 @ 뽕젓도 아까추룩 항예?(뽕치젓도 아까처럼 항아리에?)

107050 #1 응. 단지에나 그릇에 막. 이젠 경 하영덜을 안 험거든. 옛날ㄴ추룩.  
(응. 단지에나 그릇에 막. 이젠 그렇게 많이들 안 하거든. 옛날처럼.)

107050 @ 옛날은 뽕젓도 하영 담가놔수과, 자리젓추룩?(옛날은 뽕치젓도 많이  
담갔었습니까, 자리돔젓처럼.)

107050 #1 하영 담주, 더 하영 담아.(많이 담그지, 더 많이 담가.)

107050 @ 아, 뽕젓을 더 하영 담아, 자리젓보다?(아, 뽕치젓을 더 많이 담가, 자  
리돔젓보다?)

107050 #1 짐치도 허젠 허민 주로 그것만 욱심해나고 허난. 이제는 다 그자 간  
식으로 쫑쫑쫑만 허지. 옛날에사 뽕젓도 대목 반찬이주.(짐치도 하려고 하면

주로 그것만 욕심했었고 하니까. 이제는 다 그냥 간식으로 조금씩 조금씩만 하지. 옛날에야 멸치젓도 주 반찬이지.)

107050 #2 우리집 맛거리 아덜은 젓갈이라면 막 그냥.(우리집 바깥채 아덜은 젓갈이라면 막 그냥.)

107050 @ 맛있어? 좋아해?(맛있어? 좋아해?)

107050 #2 근 맞아 놓니까게.(간 맞아 놓으니까.)

107050 @ 게른 멸치 아까 자리젓은 흔 말, 보통 흔 말 담그고 멸치는 게민 얼마나 담급니까?(그럼 멸치젓 아까 자리돔젓은 한 말, 보통 한 말 담그고 멸치젓은 그러면 얼마나 담급니까?)

107050 #1 이제?(이제?)

107050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7050 #1 옛날에. 막 하영 담아.(옛날에. 아주 많이 담가.)

107050 @ 향아리로 몇 개?(향아리로 몇 개?)

107050 #1 몇 갠 아니라도. 향아리가.(몇 갠 아니어도. 향아리가.)

107050 @ 큰 향으로?(큰 향아리로?)

107050 # 그냥 이만큼향 향아리로 흥나씩 담아.(그냥 이만큼 한 향아리로 하나씩 담가.)

107050 @ 아, 큰 향으로. 그른 자리젓보다 더 하영 담근다고 멸을, 멸치을?(아, 큰 향아리로. 그러면 자리돔젓보다 더 많이 담근다고 멸치를, 멸치젓을.)

107050 #1 응.(응.)

107051 @ 혹시 뭐 아가미젓 이런 것도?(혹시 뭐 아가미젓 이런 것도?)

107051 #1 그런 건 었어.(그런 건 없어.)

107051 @ 그런 건 었주예.(그런 건 없지요.)

107051 #1 제주는 었어.(제주는 없어.)

107052 @ 갱이는? 갱이.(게는? 게.)

107052 #1 갱이. 궂어.(게. 나빠.)

107052 @ 갱이도 궂어.(게도 나빠.)

107052 #1 냄셀 나듯 현 게 못 먹어. 흔 번 허난 못 먹크란게.(냄새 나듯 한 게 못 먹어. 한 번 하니까 못 먹겠더라.)

107052 @ 제주도는 그것도 안 해예.(제주도는 그것도 안 해요.)

107052 #2 그자 멸치, 자리젓.(그냥 멸치젓, 자리돔젓.)

107052 @ 그자 멸치, 자리젓.(그냥 멸치젓, 자리돔젓.)

107053 #2 고등어젓도 허주.(고등어젓도 하지.)

107053 @ 고등어젓도 행 먹어납디가?(고등어젓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3 #2 좋아.(좋아.)

107053 #1 고등어젓이 최고 좋주.(고등어젓이 최고 좋지.)

107053 #2 최고, 최고.(최고, 최고.)

107053 @ 건 어떻게 허는 거파? 죽은 걸로, 새끼로?(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작은 걸로, 새끼로?)

107053 #2 아니, 큰 걸로.(아니, 큰 걸로.)

107053 #1 새끼 요만씩헌 거는 머리 푹푹 쫄라튀 영 쪽쪽 손으로 영허민 베타저이.(새끼 요만큼씩 한 거는 머리 푹푹 잘라두고 이렇게 쪽쪽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배갈라져.)

107053 @ 응.(응.)

107053 #1 베타지민 소금 거려다 낡 푹푹 적정 향아리레 적정 놓고, 적정 놓민 굳이 딱 맞아 건. 어디 소금이 더 갈 디가 엇이니까. 소금더레 푹 등강 영 놔불고, 푹 등강 영 놔불민 굳이 잘 맞아. 혼엇이 깊은 맛은 엇어이. 맛도 좋아. 모살 일고 막 젓갈에 해놓민.(배 갈라지면 소금 떠다 놓고 푹푹 적서서 향아리에 적서서 놓고, 적서서 놓으면 간이 딱 맞아 그건. 어디 소금이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소금에 꼭 담가서 이렇게 놔버리고. 꼭 담가서 이렇게 놔버리면 간이 잘 맞아. 한없이 깊은 맛은 없어. 맛도 좋아. 모래 일고 막 젓갈에 해 놓으면.)

107053 @ 모살 이는 건 뭐?(모래 이는 건 뭐?)

107053 #1 굳이 맞이민 젓갈에 막 해뜩해뜩헌 것이 그루 닳은 것이 빼어정 이서.(간이 맞으면 젓갈에 막 희끗희끗한 것이 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어.)

107053 @ 응.(응.)

107053 #1 정도 허고 또 이제 이만씩헌 고등어는 이제 헐 때가 나서. 음력 팔월 나른이 고등어 헛당은엥이 창자 빼튀 대가리도 끈어두고 탁탁 못앙 돔베에 못으른 은이 고기가 요만씩 요만씩헤이. 그때른이 다라에 놔근에 소금 흐뭇 버물영 맛암직헌 단지에 이제 플라스틱 통덜 이시킨 그런 것에 낫당 먹으민이 별경허여 그냥, 그놈의 것이.(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이만큼씩 한 고등어는 이제 할 때가 났어. 음력 팔월 나면 고등어 헛다가 창자 빼두고 대가리도 끓어두고 탁탁 마서 도마에 마면 고기가 요만큼씩 요만큼씩 해. 그때면 대야에 놔서 소금 조금 버무려서 맛을 것 같은 단지에 이제 플라스틱 통들 있으니까 그런 것에 낫다가 먹으면 별개 그냥, 그놈의 것이.)

107053 @ 응.(응.)

107053 #1 경 맛있어. 게민 푹 누르땡 놔두민 지름이 그 고등어 오죽 지름 한 거라? 지름 수저로 복복 걸영 데껴튀 먹으른 맛있어, 고등어것이.(그렇게 맛있어. 그러면 꼭 눌러서 놔두면 기름이 그 고등어 오죽 기름 많은 거야? 기름 수저로 복복 걸어 던져두고 먹으면 맛있어, 고등어것이.)

107053 @ 아, 옛날도 행 먹어난마씨?(아, 옛날도 해서 먹었었어요?)

107053 #1 옛날은 안헐 먹어난. 지금은 맛있어. 옛날은 멜치, 자리젓은 헤나도.(옛날은 안 해서 먹었었어. 지금은 맛있어. 옛날은 멀치젓, 자리돔젓은 했어도.)

107053 @ 옛날 헌 게 아니라 요즘에.(옛날 한 게 아니라 요즘에.)

107053 #1 우리 살림 산 후제는 고등어젓도 잘 헛어.(우리 살림 산 후에는 고등

어것도 잘 했어.)

107053 @ 살림 산 후제는.(살림 산 후에는.)

107053 #1 그전이는 안 해나고.(그전에는 안 했었고.)

107053 @ 응. 할머니네 집만 특별히 허는 거파? 이 함덕 사름덜 다.(응. 할머니네 집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이 함덕 사람들 다.)

107053 #1 고등어젓은 잘 허젠 안 허메.(고등어젓은 잘 하려고 안 해.)

107053 @ 계란 난 먹어보지도 안했수다.(그러니까 난 먹어보지도 않았습시다.)

107053 #1 아이고, 맛있어.(아이고, 맛있어.)

107053 @ 할머니네 집 특별 음식이구나.(할머니네 집 특별 음식이구나.)

107053 #1 몰라. ㄴ리만 맞춰 헤지민 잘 해여. 고등엘 그 ㄴ리, 너미 인척 해도 굿고이 늦영 해도 익지 안허고이.(몰라. 시기만 맞춰서 헤지면 잘 해. 고등어를 그 시기, 너무 일찍 해도 나쁘고 늦어서 해도 익지 않고.)

107053 @ 그믄 속에 가시는 빼뒤근에 영 배타근에.(그러면 속에 가시는 빼두고 이렇게 배 갈라서.)

107053 #1 못아불민 가시 엇어.(마면 가시 없어?)

107053 @ 어떻 못아, 그거를?(어떻게 마, 그것을?)

107053 #1 돔베에 낵 딱딱딱 못아가민 가시랑 똑 떼엇당이 트로 것만 복삭 못아불고.(도마에 놔서 딱딱딱 마면 가시랑 똑 떼었다가 따로 그것만 복삭 마버리고.)

107053 @ 아, 가시도 ㄴ치?(아, 가시도 같이?)

107053 #1 응, 가신 영행 떼민 떼지지게. 떼민 내중에서 말째 돔베에 낵 독독 못아.(응, 가시는 이렇게 떼면 뽈 수 있지. 떼면 나중어야 말째 도마에 놔서 독독 마.)

107053 #2 가시 앓아도 뒹여.(가시 가져도 돼.)

107053 @ 아.(아.)

107053 #1 어떻 안 해. 계민 못아져. 끌리도 끈어불고 늘개도 끈어불고. 이런 등 망머리 읍 가시도 다 아뵤 헤불민 좋아.(어떻게 안 해. 그러면 마져. 꼬리도 잘라버리고 지느러미도 잘라버리고. 이런 등 옆 가시도 다 잘라두고 해버리면 좋아.)

107053 #2 우리 집이 반찬이주.(우리 집의 반찬이지.)

107053 @ 아. 할머니 그거 고등어젓 허는 거 누게안티 베웁디가?(아. 할머니 그거 고등어젓 하는 거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107053 #1 멧엇이 헛지.(멧없이 헛지.)

107053 @ 멧엇이 허는 게 어떻 그냥 할머니가 알앙? 할머니네 어무니가?(멧없이 하는 게 어떻게 그냥 할머니가 알아서? 할머니네 어머니가?)

107053 #1 그냥 허여보자 헨 헨 것이 좋아.(그냥 해보자 해서 한 것이 좋아.)

107053 @ 시어머니가 허던 것도 아니고?(시어머니가 하던 것도 아니고.)

107053 #1 계민 저디 나가민 저 어른은 고등어젓도 잘해, 잘해 허멍. 나 고등어



상 젓혀켜, 젓혀켜 해가민 경 곶아.(그러면 저기 나가면 저 어른은 고등어 젓도 잘 해, 잘해 하면서. 나 고등어 사서 젓하겠어, 젓하겠어 해가면 그렇게 말해.)

107053 @ 응.(응.)

107054 @ 출레는 무신거ㄴ라 출레엔 곤는 거짜?('출레'는 뭐보고 '출레'라고 말하는 겁니까?)

107054 #2 반찬.(반찬.)

107054 #1 반찬ㄴ라 출레엔도 허고. 옛날말이라 출레, 반찬.(반찬보고 '출레'라고도 하고. 옛날말이야 '출레', 반찬.)

107054 @ 계난.(그러니까.)

107054 #1 그것이 이제 반찬이라.(그것이 이제 반찬이야.)

107054 @ 계난 아까 그 저 뭐 땔젓, 자리젓.(그러니까 아까 그 저 뭐 땔치젓, 자리돔젓.)

107054 #1 것도 출레주.(그것도 '출레'지.)

107054 @ 것도 출레고 이제 무신뉼 꿩반찬이나.(그것도 '출레'고 이제 무슨 뉼 고기 반찬이나.)

107054 #2 아, 그건 출레엔 안 해.(아, 그건 '출레'라고 안 해.)

107054 #1 응?(응?)

107054 @ 꿩반찬이나 무슨 계란이나 뉼 이런 거 다해도 출레짜, 것도?(고기 반찬이나 무슨 계란이나 뉼 이런 거 다해도 '출레'입니까, 그것도?)

107054 #1 이제사 그만 곶을 사름이 어디 서? 곶을 사름이 엇주.(이제야 그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말할 사람이 없지.)

107054 @ 계난 보통 출레엔 허민 무신걸 ㄴ리치는 거짜?(그러니까 보통 '출레'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107054 #1 출레 우리 옛날 자리젓, 땔젓 허는 식으로 것이. 출레 거려오라.('출레' 우리 옛날 자리돔젓, 땔치젓 하는 식으로 그것이. '출레' 떠와라.)

107054 @ 자리젓허고 땔젓만?(자리돔젓하고 땔치젓만?)

107054 #1 응. 거 사투리라 것이 완전 사투리.(응. 그거 사투리야 그것이 완전 사투리.)

107054 @ 사투린디 출레가 무신걸 ㄴ리치는 거냐고?(사투린디 '출레'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고?)

107054 #2 땔젓허고 자리젓.(땔치젓하고 자리돔젓.)

107054 @ 그것만?(그것만?)

107054 #1 모든 것이.(모든 것이.)

107054 #2 고등어젓.(고등어젓.)

107054 #1 밥 적저 먹어, 밥 적저 먹는 건 다 출레라 그때는. 곶은 말이.(밥 적서 먹어, 밥 적서 먹는 건 다 '출레'야, 그때는. 하는 말이.)

107054 @ 응, 꿩 반찬 이서도 출레?(응, 고기 반찬 있어도 '출레'?)

107054 #1 응, 자리 지저도, 자리 지진 거 앓아오라 안행 출레 앓아오라, 영해.(응, 자리돔 조려도, 자리 조린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

107054 @ 아, 자리 지저도 그거 출레 가정오라.(아, 자리돔 조려도 그거 ‘출레’ 가져오라.)

107054 #1 옛날에는, 옛날엔 자리는 지저났어.(옛날에는, 옛날엔 자리돔은 조렸었어.)

107054 @ 응.(응.)

107054 #1 자리 지정 막 나가 까라운 생인 그라 할망덜이 왓당 자리 먹젠 그뻔 하시, 제뵤이 어디 서? 손으로만. 막 나가 용심낭 해갈지 말앙 먹읍센 할망신디레 막 나가 호랭이질 해났어.(자리 조려서 막 내가 까다로운 모양인지 할머니들 왔다가 자리돔 먹으려고 그뻔 젓가락, 젓가락이 어디 있어? 손으로만. 막 내가 화나서 휘젓지 말고 먹으라고 할머니께 막 내가 호랑이질 했었어.)

107054 @ 하하하. 자리 현 거. 지진 거.(하하하. 자리돔 한 거. 조린 거.)

107054 #1 자리 지정 먹으레 오민 할망덜이, 동넗할망덜이 놀레 왓당 우리 할마님네 벋덜은 오민 밥 먹읍서, 밥 먹읍서 허민 밥 먹당 보민 손으로 막 해갈아 불민 나가 그냥 막 용심이 나, 부에나. 해갈아 불업젠.(자리돔 조려 먹으러 오면 할머니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놀러 왔다가 우리 할머니네 벋덜은 오면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하면 밥 먹다가 보면 손으로 막 휘저어 버리면 내가 그냥 막 화가 나, 화나. 휘저어 버린다고.)

107054 @ 하하하.(하하하.)

107054 #1 아이고 게메. 이녁도 늙으는 걸.(아이고 그러게. 자기도 늙는 걸.)

### 장아찌와 회

107056 @ 게난예. 이젠 마농지.(그러니까요. 이젠 마늘장아찌.)

107056 #1 마농지야, 옛날도 마농질 대목헛어.(마늘장아찌야, 옛날도 마늘장아찌 주로 헛어.)

107056 @ 게난예. 아까 콥대사니.(그러니까요. 아까 마늘.)

107056 #1 응, 콥대사니. 마농지시.(응, 마늘. 마늘장아찌.)

107056 @ 오월달에 한다고 아까?(오월에 한다고 아까?)

107056 #1 삼월 그물어 가민 해여, 건.(삼월 저물어 가면 해, 그건.)

107056 @ 아, 삼월 그물어 가민.(아, 삼월 저물어 가면.)

107056 #1 마농이 쫓을 나오기 전이. 마주막 이파리 나올 때 지시를 해여. 경해서 속에 대가 연해.(마늘이 대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이파리 나올 때 장아찌를 해. 그래서 속에 대가 연해.)

107056 @ 응. 딱딱허지 안허여예.(응. 딱딱하지 않아.)

107056 #1 경허여.(그렇게 해.)

107056 @ 그믐 삼월 말쑤에 그거 잘랑 와?(그러면 삼월 말쑤에 그거 잘라서

와?)

107056 #1 핫튼간에 삼월 말이든 사월 초든 그 막잎만 열려가민 지신 헤불어. 그 절기 보명 것도 올라오는 거.(하여튼 간에 삼월 말이든 사월 초든 그 마지막 잎만 열려 가면 장아찌는 해버려. 그 절기 보면서 그것도 올라오는 거.)

107056 @ 그든 그거 잘릅니까? 아니민 영 뽑아근에 허여, 통채로 뿌리채 뽑아불어?(그러면 그거 자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뽑아서 해, 통채로 뿌리채 뽑아버려?)

107056 #1 거 장날이민 매집이 그때 마놓을 안 싱것거든. 어루와. 거민 요만씩 무꾼 거 얼마씩헐 사단에 걸 대가리 졸라불민, 그 껍데기, 대가리, 뿌리. 뿌리도 먹고 이디도 껍데기 벗겨분 것도 먹고, 십파린 십파리대로 지 담곡 요런 건 우터레 또 허고. 이파린 우이 더젓당 그냥 몬여 먹어가고 굽에 건 말채 익는 냥 먹고.(그거 장날이면 매 집에 그때 마늘 안 심었거든. 어려워. 그러면 요만큼씩 묶은 거 얼마씩 해서 사다가 그걸 대가리 잘라버리면, 그 껍데기, 대가리, 뿌리. 뿌리도 먹고 여기도 껍데기 던져버린 것도 먹고, 이파린 이파리대로 장아찌 담고 요런 건 위로 또 하고. 이파린 위에 덮었다가 그냥 먼저 먹어가고 속에 건 말채 익는 대로 먹고.)

107056 @ 지금추록 요만이씩 영 찰랑?(지금처럼 요만큼씩 이렇게 잘라서?)

107056 #1 응. 그때도 이만이. 이제는 요맨씩 찰랑 허는디.(응. 그때도 이만큼. 이제는 요만큼씩 잘라서 하는데.)

107056 @ 이만이씩에 영 찰랑예. 이젠 무슨 생기리도 ㄴ치 낵 허는디.(이만큼씩 요 이렇게 잘라서요. 이젠 무신 무말랭이도 같이 낵서 하는데.)

107056 #1 예, 생기리 거 엇어.(예, 무말랭이 그거 없어.)

107056 @ 그땐.(그땐.)

107056 #2 우리 할망 빌영 혼번 젓갈 답아봐.(우리 할머니 빌어서 한 번 젓갈 답아봐.)

107056 #1 에에.(에에,)

107056 #2 아이 정말. 자랑할 만해.(아이 정말. 자랑할 만해.)

107056 @ 할머니가 잘허는구나, 그런 거.(할머니가 잘하는구나, 그런 거.)

107056 #1 정허난 우리 옛날에 헐 때는 지시도 허문이 이 빨리 끈어분 거허고 옷꺀데기 영 벗겨분 것도 안 데껴 불어. 얼마나 어려와시코이. 거 빨리는이 막 돌에 강 영영 뭉개민 그 소굽에 흠이고 돌맹이 박아진 것도 다 씻어져이.(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할 때는 장아찌도 하면 이 뿌리 잘라버린 거하고 옷꺀데기 이렇게 벗겨버린 것도 안 던져 버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거 뿌리는 막 돌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뭉개면 그 속에 흠이고 돌맹이 박힌 것도 다 씻어져.)

107056 @ 응.(응.)

107056 #1 게민 옷꺀데기 벗경 막 곱닥허게 시성 요만씩 요만씩 썰영 웬장에 무치민 그것이 그렇게 맛중아. 그 뿌리도 질깃질깃해둬서루. 경 아깝게 데끼질 안헐 그걸 다 헛젠 허난 얼마나 어루와사 경헐 거라.(그러면 옷꺀데기 벗겨서 막 곱게 씻어서 요만큼씩 요마큼씩 썰어서 된장에 무치면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그 뿌리도

‘질근질근’해서. 그렇게 아깝게 던지질 않아서 그걸 다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야 그렇게 할 거야.)

107056 @ 계민 그거는 마농지 담그젠 허민 장물에 혜사주예?(그러면 그거는 마농지 담그려고 하면 간장에 해야지요?)

107056 #1 장물에만. 아무것도 안 넣 장물만 등가.(간장에만. 아무것도 안 넣고 간장만 담가.)

107056 @ 아무것도 장물만 담가?(아무것도 간장만 담가?)

107056 #1 무시거 놀 것이 엇주게.(무엇 놓을 것이 없지.)

107056 @ 장물도 끌립니까?(간장도 끓입니까?)

107056 #1 끌리긴 끌리는데 그것이 오래 등갓당이 그 마농물도 다 그레 우리나라면은 건정 시어불카부덴. 지가 시어불카부덴 거 즈팡 또 식으민 그냥 그레 놔불어. (끓이긴 끓이는데 그것이 오래 담갔다가 그 마농물도 다 그리 우리나라면 건져서 씻어버릴까봐. 장아찌가 쉬어버릴까봐 그거 달여서 또 식으면 그냥 그리 놔버려.)

107056 @ 즈팡은 어떻게 하는 거?('조팡'은 어떻게 하는 거?)

107056 #1 딸렁 또.(달여서 또.)

107056 @ 아. 딸리는 게 즈끄는 거?(아. 달이는 게 '즈끄는' 거?)

107056 #1 응. 그 물을 즈팍당 식으민 그 향아리레 강 비와불어. 계민 지가 시질 안허주게. 새콤허질 안헤.(응. 그 물을 달였다가 식으면 그 향아리에 가서 부어버려. 그러면 장아찌가 쉬지 않지. 새콤하지 않아.)

107056 @ 경허난 끌리는 거구나예, 간장을예? 처음부터 끌리는 게 아니고?(그렇게 하니까 끓이는 거군요, 간장을요? 처음부터 끓이는 게 아니고?)

107056 #1 응.(응.)

107056 @ 한 번 헛당 그거 물 뜸랑.(한 번 했다가 그거 물 따라서.)

107056 #1 그 마늘이 다 죽어정 물이 우리나라민 거.(그 마늘이 다 죽어서 물이 우리나라면 그거.)

107056 @ 흔 번 더 끌렁?(한 번 더 끓여서?)

107056 #1 이제 다마네기지덜토 흔 번은 궤왕 낫당 흥끔 메칠 싯당 먹어가도 그 물 뜸라동 또 저디 강 즈파당 또 그레 놔불민 새끔헌 기가 엇영 그냥 제 맛이 돌아와.

107056 @ 아, 젤 처음엔 그냥 장물에 담갓당 흥끔 죽으민 그거 물 뜸랑 흔번 끌렁 식은 다음에 다시또 그레 비우는 거라예, 마농지가예.(이제 양파들도 한 번은 끓여 놔다가 조금 며칠 있다가 먹어가도 그 물 따라두고 또 저기 가서 달였다가 또 그리 놔버리면 새콤한 기운이 없어서 그냥 제 맛이 돌아와.)

107056 #1 요새 먹는 다마네기지고 고치지고 다 그렇게, 시큼허지 안허여.(요새 먹는 양파장아찌고 고추장아찌고 다 그렇게, 시큼하지 않아.)

107056 @ 그렇게 해야 시큼허지 안허여.(그렇게 해야 시큼하지 않아.)

107056 #1 재불 즈파야. 그디 강 끌여당 또 놔야 시지 안허여.(두벌 달여야. 거

기 가서 끓여다가 또 놔야 쉬지 않아.)

107056 @ 아. 이 지시는 마농지 말고 다른 거는 무신 지 담가놔수과, 옛날에? 마농지 말고 다른 지, 지시.(아. 이 장아찌는 마늘장아찌 말고 다른 거는 무슨 장아찌 담갔었습니까, 옛날에? 마늘장아찌 말고 다른 장아찌, 장아찌.)

107056 #1 옛날 마농지 말고 다른 지시 안 해실 거라. 이제는 쪽파 뿌리로도 지시하면 것이 맛있어이.(옛날 마늘장아찌 말고 다른 장아찌 안 했을 거야. 이제는 쪽파 뿌리로도 장아찌하면 그것이 맛있어.)

107056 @ 여기 창고에 이선계마씨게.(여기 창고에 있던데요.)

107056 #1 건 씨혈.(그건 씨할.)

107056 @ 건 씨 허젠 허는 거고?(그건 씨 하려고 하는 거고?)

107056 #1 응. 거 출 현 때 매영은 뱃기기도 좋아. 껍데기 뱃기기도. 지시헌 것이 맛이 좋아.(응. 그거 꿀 할 때 매서 뱃기기도 좋아. 껍데기 뱃기기도. 장아찌 한 것이 맛이 좋아.)

107055 @ 아까 지시 담그는 거 마농지 말고 유나 유입이나 아니면 파초, 양하 모자반, 몐 이런 걸로는 지시 안 담굽니까?(아까 장아찌 담그는 거 마늘장아찌 말고 들깨나 들깻잎이나 아니면 파초, 양하 모자반, 모자반 이런 걸로는 장아찌 안 담굽니까?)

107055 #1 몐? 바당에 거?(모자반? 바다에 거?)

107055 @ 응.(응.)

107055 #2 그런 건 안 해.(그런 건 안 해.)

107055 @ 그런 거 안 해. 파초.(그런 거 안 해. 파초.)

107055 # 파초가 뭐라?(파초가 뭐야?)

107055 @ 낭섭 님은 거 이수게 바나나낭 님은 거. 그런 거 섯으로 줄기로 헤가지고 지시 담그는 거 안 해판마씨?(나무 잎 같은 거 있잖아요, 바나나나무 같은 거. 그런 잎으로 줄기로 해서 장아찌 담그는 거 안 해봤어요?)

107055 # 말도 안 들어난 말이라, 나.(말도 안 들었던 말이야, 나.)

107055 @ 유, 유. 유썸은 해실 거 아니파?(들깨, 들깨. 들깻잎은 했었을 거 아닙니까?)

107055 #1 옛날 유썸 해영 이제나 쪼끔씩 해당.(옛날 들깻잎 해서 이제나 쪼끔씩 해당가.)

107055 @ 이젠 쪼끔씩 허주만은 옛날에는.(이젠 쪼끔씩 하지만 옛날에는.)

107055 #1 그런 거 었어.(그런 거 없어.)

107055 @ 그런 거 안 해난.(그런 거 안 했었어.)

107055 #1 그 유낭 요만큼 크민 이만헌 열매가 잇잖아이. 그런 거이 열매 털어똥 꼭 요만씩헌 거 톤아당 그런 건 지 담앗당 먹을 땐 뽕뽕뽕뽕 소리 나는 맛으로 그걸 쪼금 허여.(그 들깨 나무 요만큼 크면 이만한 열매가 있잖아. 그런 것 열매 털어두고 꼭 요만큼씩 한 거 뜯어다가 그런 건 장아찌 담갔다가 먹을 땐 ‘뽕뽕

뽕뽕뽕뽕' 소리 나는 맛으로 그걸 조금 해.)

107055 @ 아. 유접을 허는 게 아니고 그디 열매를?(아. 들깻잎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열매를?)

107055 #1 열매를, 열매 어린 때 허면은 뽕뽕뽕뽕뽕 소리 나 먹어가민 베지근도 허고.(열매를, 열매 어린 때 하면 '뽕뽕뽕뽕뽕' 소리 나 먹어가면 '베지근'도 하고.)

107055 @ 아, 그든 그것도 그냥 간장에만 놓는 거짜?(아, 그러면 그것도 간장에만 놓는 겁니까?)

107055 #1 양념 엇이난 것베끼 안 등가. 그때 시절엔.(양념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 담가. 그때 시절엔.)

107055 @ 유접은 지금처럼 양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장에 담가놓지도 안 헨마씨? 것도 안 해?(들깻잎은 지금처럼 양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장에 담가놓지도 안했어요? 그것도 안 해?)

107055 #1 그런 것도 아니 먹어나고.(그런 것도 안 먹었었고.)

107057 @ 이디 바당 동네난 휘도 행 먹어났지예, 자리휘 이런 거.(여기 바다 동네니까 회도 해서 먹었었지요, 자리돔회 이런 거.)

107057 #1 옛날 자리휘 헛자 이제ㄴ치 양념 귀긏창 해서? 그냥 그럭저럭 웬장에 찍어도 먹고.(옛날 자리돔회 해도 이제처럼 양념 갖춰서 했어? 그냥 그럭저럭 된장에 찍어서 먹고.)

107057 @ 웬장에 찍어도 먹고.(된장에 찍어서도 먹고.)

107057 #1 이제도 웬장에 찍어도 맛중아.(이제도 된장에 찍어도 맛있어.)

107057 @ 그게 휘주게, 예.(그게 회지요, 예.)

107057 #2 놀자리 웬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이 있어.(날자리돔 된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이 있어.)

107057 #1 자리물휘가 물휘가 잇고 자리 찍어 먹는 것이 맛있어.(자리돔물회가 잇고 자리돔 찍어먹는 것이 맛있어.)

107057 @ 찍어먹는 거 말고 강휘나 아니면예, 오이나 이런 거 놔근예.(찍어먹는 거 말고 강회나 아니면, 오이나 이런 거 놔서.)

107057 #1 옛날은 그런 거 엇어. 이제나 강휘로 물웨 참 저 자리 썰어 농곡헐 맛있게 양념 놔근헐에 벌정게 해놓민 맛있게 먹주.(옛날은 그런 거 없어. 이제나 강회로 노각 참 저 자리돔 썰어 놓고 해서 맛있게 양념 놔서 벌정게 해놓으면 맛있게 먹지.)

107057 @ 옛날엔 그런 거 엇어?(옛날엔 그런 거 없어?)

107057 #1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7057 @ 그냥 웬장에 찍어 먹는 그것도 휘 아니짜예?(그냥 된장에 찍어 먹는 그것도 회 아닙니까?)

107057 #1 초 낱 메왕. 이제도 건 먹으민 맛은 잇어.(식초 놔서 양념해서. 이제

도 그건 먹으면 맛이 있어.)

107057 @ 웬장애?(된장애?)

107057 #1 응, 웬장에 찍어 먹는 거.(응, 된장에 찍어 먹는 거.)

107058 @ 그든 또 다른 반찬으로예, 우럭조림.(그럼 또 다른 반찬으로요, 우럭조림.)

107058 #1 우럭조림사게 그냥 그제나 저제나 장물, 소금해서 미원이나 다시다 ㄴ든 거 엇어노난 그냥.(우럭조림이야 그냥 그제나 저제나 간장, 소금해서 미원이나 다시다 같은 거 없어놓으니까 그냥.)

107058 @ 우럭조림을 행 먹어보게예. 처음에 우럭 넣고.(우럭조림을 해서 먹어 봐요. 처음에 우럭 넣고.)

107058 #1 콩 넣고.(콩 넣고.)

107058 @ 콩 넣고.(콩 넣고.)

107058 #1 거허민 장물 넣고 보글보글 지지민 그거 콩도 풀어지고.(그거하면 간장 넣고 보글보글 조리면 그거 콩도 풀어지고.)

107058 #2 미원 넣고.(미원 넣고.)

107058 #1 미원이 어디 수과게?(미원이 어디 있습니까?)

107058 @ 아니 콥대사니라도 햏뽀 봐사햏 거 아니?(아니 마늘이라도 조금 봐야 햏 거 아니?)

107058 #1 콥대사니가 어디 서?(마늘이 어디 있어?)

107058 @ 옛날에 그거 엇어?(옛날에 그거 없어?)

107058 #1 것도 드물어. 이제 ㄴ치 및디나 햏영 햏시민 그런 것도 햏주만은.(그 것도 드물어. 이제처럼 및애나 많이 햏고 있으면 그런 것도 많지만.)

107058 @ 마농지. 마농진 놀 거 아니꽈?(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찐 놓을 거 아니냐?)

107058 #1 마농지 봐야 늘내가 햏뽀 감소웨지.(마늘장아찌 봐야 비린내가 조금 감소되지.)

107058 @ 게난, 지금도 어디 강 우럭조림허민 무사 콩햏고 마농지 봐근에 햏줍 니햏.(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우럭조림햏면 왜 콩햏고 마늘지 봐서 햏주잖아 요.)

107058 #2 이제사 햏전햏난.(이제야 햏하니까.)

107058 #1 그거. 경베꺈 안 햏뽀. 무신 이제 거는이 양념이 봐부난 더 및이 잇는다. 그햏도 거 및이 존 거라.(그거. 그렇게 밖애 안 햏뽀. 무슨 이제 것은 양념 봐버리니까 더 및이 잇는데. 그햏도 그거 및이 좋은 거야.)

107058 @ 기지예.(그렇지요.)

107058 #1 그햏 및이나 이제. 그햏 및이 더 좋아실 거라. 양념 엇인 및이.(그햏 및이나 이제. 그햏 및이 더 좋아졌을 거야. 양념 없는 및이.)

107058 @ 양념 엇이 햏도예. 거 및고 다른 반찬으로는 뽀 물웨 같은, 물웨도 많

이 옛날 여름에는 썰렁 썰렁 떡장 찢으먹고.(양념 없이 해도요. 그거 말고 다른 반찬으로 뭐 노각 같은, 노각도 많이 옛날 여름에는 썰어서 떡장 찢어서 먹고.)

107058 #1 물웨도 그냥 오이도 얹고 밥떡 강도이 떡장만 앳앙가민이 그냥 벌러근에 물웨 툭툭 찢으먹 밥 혼 수가락에 물웨에 떡장 찢어먹으민 것이.(노각도 그냥 오이도 없고 밭에 가서도 떡장만 가져가면 그냥 쪼개서 노각 툭툭 찢으면서 밥 한 숟가락에 노각에 떡장 찢어먹으면 그것이.)

107058 @ 그것이 반찬?(그것이 반찬?)

107058 #1 그것이 반찬. 반찬인디 출렌디 그거라.(그것이 반찬. 반찬인지 ‘출레’인지 그거야.)

107058 @ 반찬인디 출렌디.(반찬인지 ‘출레’인지.)

107058 #2 참, 험하게 살앗주.(참, 험하게 살았지.)

107058 #1 험할 게 아니고 때가 그런 뎀디 무신.(험할 게 아니고 때가 그런 뎀디 무슨.)

107058 @ 먹을 게 엇인디 어떻습니까, 경베피예.(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밖에.)

107058 #1 건 늑으 대동인디.(그건 남의 대동인테.)

107058 @ 게민 고사리는 식게 때 혈 걸로만 험니까, 반찬도 행 먹어났수과?(그러면 고사리는 제사 때 할 걸로만 합니까, 반찬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8 #1 아이고, 식게 고사리도 못 허는디 반찬을 어디 강 반찬 고사리 헤여?(아이고, 제사 고사리도 못하는데 반찬을 어디 가서 반찬 고사리 해?)

107058 @ 할머니도 고사리 꺼끄레 가곡 해났수과?(할머니도 고사리 꺾으러 가고 했었습니까?)

107058 #1 고사리만 꺼꺼서? 다 뎅기주.(고사리만 꺾었어? 다 다니지.)

107058 @ 아니 고사리 식게 때 혈 고사리 말고 풀젠도 헤난?(아니, 고사리 제사 때 할 고사리 말고 팔려고도 했었어?)

107058 #1 풀레 가민 그때는 엇어. 그때는 고사리 받는 사름은 엇어. 그때 옛날에는.(팔러 가면 그때는 엇어. 그때는 고사리 바든 사름은 엇어. 그때 옛날에는.)

107058 @ 먹을 걸로 경 하영 행 읍니까?(먹을 걸로 그렇게 많이 해서 읍니까?)

107058 #1 먹을 걸로 행 와근에 식게 때.(먹을 걸로 해 와서 제사 때.)

107058 @ 아니 구덕에.(아니 구덕에.)

107058 #1 구덕에 하나 해도 삶으민 얼마나 헤여? 구덕으로 하나 헛자 혼 근도 안 할걸. 혼 근쫘 허나마나. 손 다 꼭대기 다 므지려두곡 행.(구덕에 하나 해도 삶으면 얼마나 해? 구덕으로 하나 해도 한 근도 안 할걸. 한 근쫘 하나마나. 밥 다 꼭대기 다 무질러 두고 해서.)

107058 @ 아, 손 다 영 므지려불어?(아, 손 다 이렇게 무질러 버려.)

107058 #1 이제는 그것이 알아준덴 허는디.(이제는 그것이 알아준다고 하는데.)

107058 @ 예, 이서야 이제는.(예. 있어야 이제는.)



107058 #1 식게헐 거는 해당 놔두민 물류왕 무시것에 놔 놔두민 그 손에 줌이 일어.(제사할 거는 해다가 놔두면 말려서 무엇에 놔서 두면 그 밥에 줌이 일어.)

107058 @ 아. 경혜부난 다 믋지려부는 거봐?(아.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무질러 버리는 겁니까?)

107058 #1 경혜부난 이거를 ㅋ쿨이 그 손이 하나토 엇이 다듬아.(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을 깨끗이 그 밥이 하나도 없이 다듬어.)

107058 @ 응. 경혜뒤근에 거 물려근에 식게 때 쓸 걸로.(응, 그렇게 해두고 그 거 말려서 제사 때 쓸 것으로.)

107058 #1 식게 때민 줍아내영. 콩나물, 콩도 집어서 놔. 이제 ㄴ치 사지 안헤영.(제사 때면 집어내서. 콩나물, 콩도 집에서 놔. 이제처럼 사지 않고.)

107058 @ 콩나물예. 콩나물은 집에서 어떻 놓니까?(콩나물요. 콩나물은 집에서 어떻게 놓습니까?)

107058 #1 어떻 놔게. 물 우젓다근에 이젠 옛날 떡 치는 시리가 이서이. 구멍 난 거. 그레 영 험벅 꿀앙 놔 그레 콩 놓민. 밧디 갓당도 그 한여름에라도 두 번, 세 번을 왔다 가사.(어떻게 놔. 물 끼얹었다가 이젠 옛날 떡 찌는 시루가 있어. 구멍 난 거. 그리 이렇게 형겔 깔아서 놔서 그리 콩 놓으면. 밧에 갔다가도 그 한여름에라도 두 번, 세 번을 왔다 가야.)

107058 @ 그레 물 주레?(그리 물 주러?)

107058 #1 더우 먹어불민 그냥 석어 불카부덴. 침 옛날도 잘도 못전디게 했주. 그거 그거 키웁젠 허민 밧디 갓당도 그 더운디 앗앙 겹질 메당도 와야 웨어. 그냥 석어 불카부덴. 더운 짐 들민 석어 불카부덴.(더워 먹어버리면 그냥 썩어 버릴까봐. 참 옛날도 아주 못전디게 했지. 그거 그거 키우려고 하면 밧에 갔다가도 그 더운데 앗아서 짐 배다가도 와야 돼. 그거 썩어 버릴까봐.)

107058 @ 그거 먹을 걸로 허는 거봐, 식게 때.(그거 먹을 걸로 하는 겁니까, 제사 때.)

107058 #1 식게 때 헐 걸로. 먹을 걸로사 누게 공들이 그걸 허젠 헤게. 안 해. (제사 때 할 걸로. 먹을 걸로야 누가 공들여서 그걸 하려고 해. 안 해.)

107058 @ 식게 때 쓸 걸로. 응. 호박도 헤근에 많이 먹잖아예.(제사 때 쓸 것으로. 응. 호박도 해서 많이 먹잖아요.)

107058 #1 호박도 식게 때는이 이제는 호박적을, 호박적도 허고.(호박도 제사 때는 이제 호박적을, 호박적도 하고.)

107058 @ 아, 적도 헤마씨? 호박으로?(아, 적도 해요? 호박으로?)

107058 #1 적도 헤여. 요만씩 끈으민이 영 적꼬지에 꼽앙 영 ㄴ루 흥폼씩 미치명 헤나신디. 이제는, 그때는 고사리 보끄곡, 콩나물 보끄곡, 호박첸이 호박 보끄는 건이 요만씩 너풀너풀 썰어. 그추룩헐 이제 오고생이 솥앙 또 식게 때는 ㄴ치 콩나물예, 고사리에 영 흥 착씩 다 놔.(적도 해. 요만큼씩 자르면 이렇게 적꼬지에 꼽아서 이렇게 가루 조금씩 무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고사리 볶고, 콩나물 볶

고, 호박채는 호박 볶는 건 요만큼씩 너풀너풀 썰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스란히 삶아서 또 제사 때는 같이 콩나물에. 고사리에 이렇게 한 쪽씩 다 놔.)

107058 @ 우리는 탕쉬엔 해난 거 닮은디 그런 말은 안 씁니까?(우리는 ‘탕쉬’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말은 안 씁니까?)

107058 #1 탕쉬가 뭔고?(‘탕쉬’가 뭔고?)

107058 @ 호박 탕쉬.(호박 ‘탕쉬’.)

107058 #1 건 안 들어났어.(그건 안 들었었어.)

107058 @ 아.(아.)

107058 #1 우리 식게 때나 헐 때는 그거 호박철에는 그거 세 가지. 고사리에, 콩나물에, 그것에.(우리 제사 때나 할 때는 그거 호박철에는 그거 세 가지. 고사리에, 콩나물에, 그것에.)

107058 @ 경혜근에 허는구나예.(그렇게 해서 하는군요.)

###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가마씨? 멧월달에?(장은 언제 담가요?)

107059 #1 음력 십이월달에.(음력 십이월에.)

107059 @ 음력 십이월달에.(음력 십이월에.)

107059 #1 정월에도 담고. 건 들이가 었어.(정월에도 담그고. 그건 ‘들이’가 었어.)

107059 @ 아.(아.)

107059 #1 이 시월달만 나면은 메주콩을 삶아. 삶앙 이제 돌아메나 어디 콩짚에 놔근에 띄우나 헛당 이젠 막 달라사. 그땐 십이월들이가 주로 담야. 설들그믐이엔 행 그믐날을 잘 담야.(이 시월만 나면 메주콩을 삶아. 삶아서 이제 달아매거나 어디 콩짚에 놔서 띄우거나 했다가 이젠 막 달라야. 그땐 십이월에 주로담가. 설달그믐이라고 해서 그믐날에 잘 담가.)

107059 @ 아, 그믐날 잘 담가마씨?(아, 그믐날 잘 담가요?)

107059 #1 응.(응.)

107060 @ 장은 무신 장, 무신 장 이수과? 웬장.(장은 무슨 장, 무슨 장 있습니까? 된장.)

107060 #1 옛날 웬장배편 안 담지. 웬장 담으민.(옛날 된장밖에 안 담그지. 된장 담그면.)

107060 @ 장물, 간장.(간장, 간장.)

107060 #1 웬장 담어나사 간장이 나와. 콩에.(된장 담가나야 간장이 나와. 콩에.)

107060 @ 간장이엔 곱읍니까, 장물이엔 곱읍니까?(간장이라고 말합니까, ‘장물’이라고 말합니까?)

107060 # 장물, 그땐.(‘장물’, 그땐.)

107060 @ 장물. 고치장도 담가?(‘장물’. 고추장도 담가?)

107060 #1 고치장도 엇어.(고추장도 엇어.)

107060 @ 고치장 안 담가. 게문 웬장 그 메주는 아까 언제 쏴다고마씨?(고추장 안 담가. 그러면 된장 그 메주는 아까 언제 쏴다고요?)

107061 #1 시월, 이 콩, ㄱ실 들었 콩 들어나면은 흐뎡 쉬는 기간에. 노는 기간에 이제사 놀지 못해, 이제 미깡 덕분에 못 노는디 그때는 ㄱ실해나민 놀주게, 하영이. 그때는 콩 쭈영. 우리도이 쭈기가이 열도 될 때 잇고, 아홉도 될 때가 이서이. (시월, 이 콩, 가을 들어서 콩 거두고 나면 조금 쉬는 기간에. 노는 기간에 이제야 놀지 못해, 이제 굴 때문에 못 노는데 그때는 가을걸이하고 나면 놀지, 많이. 그때는 콩 쭈어서. 우리도 식구가 열도 될 때 잇고, 아홉도 될 때가 있어.)

107061 @ 뭐가?(뭐가?)

107061 #1 우리 가족이.(우리 가족이.)

107061 @ 식구가?(식구가?)

107061 #1 응 식구가. 우리 둘이에 아기덜 으섯허민 으덥이. 할망, 하르방이. 어떤 땐 열도 돼고 어떤 땐 고정뉼 때는 아홉은 고정이고. 갓다왔다 허는. 거문 콩을 삶을 때는 옛날은 반찬도 다른 반찬이 엇어이. 주로 뽕치허고이 뉼장허고민, 콩을 혼 놔 앞이 한 말이, 녀 돼이. 녀 뉼쫘을 삶아.(응 식구가. 우리 둘이 아기들 여섯하면 여덟.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땐 열도 되고 어떤 땐 고정된 때는 아홉은 고정이고. 갓다왔다 하는. 그러면 콩을 삶을 때는 옛날은 반찬도 다른 반찬도 없어. 주로 뽕치것하고 된장하고면, 콩을 한 사람 앞에 한 말, 녀 되. 녀 되쫘을 삶아.)

107061 @ 그른 열 명이민 얼마나 삶아야 돼는 거라?(그럼 열 명이면 얼마나 삶아야 되는 거야?)

107061 #1 거난.(그러니까.)

107061 @ 열 말을?(열 말을?)

107061 #1 정 허주만은 아이들 끼영은 정 안 삶아. 아홉 말은 나도 삶아났어. 게민 장도 큰 향아리 두 겔 담야. 혼 말에 이제 허백이 잇지. 물 지는 거. 그 허백이로 혼 말에 물이 두 허백.(그렇게 하지만 아이들 끼어서는 그렇게 안 삶아. 아홉 말은 나도 삶았었어. 그러면 장도 큰 향아리 두 개를 담가. 한 말에 이제 허백이 잇지. 물 지는 거. 그 허백으로 한 말에 물이 두 허백.)

107061 @ 아.(아.)

107061 #1 게민 막 콩이 하. 게민 큰 향아리에 그 물에 저 뭐냐, 메주 혼 말치에 콩은, 저 소금은 두 뉼박.(그러면 막 콩이 많아. 그러면 큰 향아리에 그 물에 저 뭐냐, 메주 한 말치에 콩은, 저 소금은 두 되.)

107061 @ 아, 메주 혼 말에.(아, 메주 한 말에.)

107061 #1 혼 말에치가 두 뉼박.(한 말 어치가 두 되.)

107061 @ 소금은 두 뉼박예, 예.(소금은 두 되요, 예.)

107061 #1 두 허백에 곁아가는 거.(두 허백에 갈아가는 거.)

107061 @ 그 콩 혼 말에 소금 두 돼.(그 콩 한 말에 소금 두 되.)

107061 #1 콩 혼 말에 소금도 두 돼, 물도 두 허벅.(콩 한 말에 소금도 두 되, 물도 두 허벅.)

107061 @ 아, 물도 두 허벅. 예, 예.(아, 물도 두 허벅. 예, 예.)

107061 #1 물이 하영 농민이 장이 맛이 있어. 게민이 두 허벅 못허는 디도 있고 두 허벅 낱 허는 디도 있고 해 그때는.(물이 많이 놓으면 장이 맛이 없어. 그러면 두 허벅 못하는 데도 있고. 두 허벅 놔서 하는 데도 있고 해, 그때는.)

107061 @ 아.(아.)

107061 #1 너미 수확이 늦으면은 장도 맛있고, 장도 맛있넌. 콩에 우러나는 맛 인생인ㄱ라 경 곱아.(너무 수확이 늦으면 장도 맛있고, 장도 맛있다고. 콩이 우러나는 맛인 모양인지 그렇게 말해.)

107061 @ 게민.(그러면.)

107061 #1 게민 혼 말에, 두 말에 세 허벅 허는 디도 있고.(그러면 한 말에, 두 말에 세 허벅 하는 데도 있고.)

107061 @ 아, 물 하영 놓는 디도 있고.(아, 물 많이 놓는 데도 있고.)

107061 #1 물, 네 허벅 놓는 디도 있고 세 허벅 놓는 디 이서, 두 말에.(물, 네 허벅 놓는 데도 있고 세 허벅 놓는 데 있어, 두 말에.)

107061 @ 두 말에.(두 말에.)

107061 #1 두 말에 세 허벅 허민 좋고이 흐끔 늘롭젠 허민 네 허벅을 놔.(두 말에 세 허벅 하면 좋고 조금 늘리려고 하면 네 허벅을 놔.)

107062 @ 게민 처음에 메주를 쏘 때 삶아야 될 거 아니파예, 어떻게 삶습니까?(그러면 처음에 메주를 쏘 때 삶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삶습니까?)

107062 #1 그때는 옛날에는 큰 이추룩헌 남으로 판 도고리가 이서이. 이제 ㄱ뜨민 고무다라 닳은 거. 그것에 이만큼은 헌 마개가 이서. 덩드렁. 걸로 막 찍어.(그때는 옛날에는 큰 이렇게 한 나무로 판 함지박이 있어. 이제 같으면 고무대야 같은 거. 그것에 이만큼은 한 방망이가 있어. ‘덩드렁’. 그걸로 막 찍어.)

107062 @ 삶아난 다음에?(삶아난 다음에?)

107062 #1 삶아놔 민짜 삶아놔 손으로라도 영 문득임직허게 막 찍어. 찍영 이제 떡 만들앙 요만큼씩.(삶아놓고 모두 삶아놓고 손으로라도 이렇게 으깬 수 있게 막 찍어. 찍어서 이제 떡 만들어서 요만큼씩.)

107062 @ 손으로 다 만들야? 무신거 영 만드는 거 엇고?(손으로 다 만들어?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없고?)

107062 #2 아니, 만드는 거 엇어. 그냥 손으로 만들앙 그거 이젠 산뒤집 행 들알 메든지 그냥 콩집에 낫당 영 옛날 그 맥이 시니까 맥 속에 그 콩집도 놓고 그거 혼 도리 놓고 허명 혼 열흘 건증 툼와.(아니, 만드는 거 없어. 그냥 손으로 만들어서 그거 이젠 밭벗짚 해서 달아메든지 그냥 콩짚에 왔다가 이렇게 옛날 그 먹서리가 있으니까 먹서리 속에 그 콩짚도 놓고 그거 한 ‘도리’ 놓고 하면서 한 열흘 거의

띄워.)

107062 @ 응.(응.)

107062 #1 썩게, 콩이. 경허민 곰팡이 다 올르민 이젠 영 뱃디 낳 몬 그 콩깍데 기 부튼 거 몬 손으로 곱게 떼똥 물리화난 다음엔 이 해 그물어가민 십이월들 낳 말일 돼 가민 그거 장을 담아.(썩게, 콩이. 그러면 곰팡이 다 오르면 이제 이렇게 별에 놔서 모두 그 콩깍데기 붙은 거 모두 손으로 곱게 떼어두고 말려둔 다음에 이 해 저물어 가면 십이월 나서 말일 되어 가면 그거 장을 담가.)

107062 @ 그거 씻어야 돼어, 그러면?(그거 씻어야 돼, 그러면?)

107062 #1 씻어야 돼지. 거 곰팡이 올른 거. 수세미로 몬 씻어.(씻어야 되지. 그 거 곰팡이 오른 거. 수세미로 모두 씻어.)

107062 @ 수세미로 다 씻엉 경혜근예.(수세미로 다 씻어서 그렇게 해서.)

107061 #1 정혜영 이젠 소금물러레 그 소금물 몬여 곱아.(그렇게 해서 이젠 소금물에 그 소금물 먼저 곱아.)

107061 @ 응.(응.)

107061 #1 메주보단. 곱아 논 더레 말젠 다 씻어당 향아리더레 다 앓다 놔.(메주보다. 곱아 놓은 데 말썰는 다 씻어다가 향아리에 다 가져다 놔.)

107061 @ 향아리더레 게른 메주 놓고 소금물 놓고?(향아리에 그러면 메주 놓고 소금물 놓고?)

107061 #1 그땐 옛날엔 숯이.(그땐 옛날엔 숯이.)

107061 @ 예.(예.)

107061 #1 숯도 놓고 계란도 띄우고 고추도 붉은 고추 놓고.(숯도 놓고 계란도 띄우고 고추도 붉은 고추 놓고.)

107061 @ 아, 그런 것도 놔마씨?(아, 그런 것도 놔요?)

107061 #1 응, 그런 것도 난 헛어. 거 맛으로 아니고 무신 방선생이라.(응, 그런 것도 놔서 헛어. 그거 맛으로 아니고. 무슨 방사인 모양이야.)

107061 @ 아.(아.)

107061 #1 벤힘이나 허카부텐 방서로 놓는 거 닳아.(벤하기나 할까봐 방사로 놓는 거 같아.)

107061 @ 아.(아.)

107061 #1 경허민 그거 다 담으면은 석 들만 서가몬 두 달 반만 석 들 돼가면은 또 메주덩어리를 다라레 건져이. 건져놔 막 빼데겨. 문작허게 이제 우리 장 먹는 식으로.(그러면 그거 다 담으면 석 달만 있어 가면 두 달 반만, 석 달 되어 가면 또 메주덩어리를 대야에 건져. 건져 놓고 막 으깨. ‘문작’하게 이제 우리 장 먹는 식으로.)

107061 @ 예.(예.)

107061 #1 경행 이젠 또 요만씩헌 향아리레 또 빼데긴 걸 다 담양 거기 소금 흠뻑 곱얹 힘벅이나 톱 더경이 톱 더경 낫당 익어가는 냥 먹고. 그 장물은 체 무신

대체나 거름체로 콩깍데기 안 들어가게 이젠 판 향아리에 걸러.(그렇게 해서 이젠 또 요만큼씩 한 향아리에 또 으깬 걸 다 담아서 거기 조금 조금 깔아서 형끓이나 툇 덮어서 툇 덮어서 왔다가 익어가는 대로 먹고. 그 간장은 채 무슨 대체나 거름체로 콩깍데기 안 들어가게 이젠 따른 향아리에 걸러.)

107061 @ 아. 뭘로 영 떠근에?(아, 뭘로 이렇게 떠서?)

107061 #1 응, 바가지로 뜨멍 이 향아리 속더래.(응, 바가지로 뜨면서 이 향아리 속에.)

107061 @ 담양예.(담아서요.)

107061 #1 응, 걸러. 그 주시 안 들게. 경행 그냥 내불영 자꾸 비오라가도. 아니 비오라가민 더끄고.(응, 걸러. 그 아쟁이 안 들게. 그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서 자꾸 비와가도. 아니 비와가면 덮고.)

107061 @ 뱃 나민?(뱃 나면?)

107061 #1 뱃 나민 올라주고.(뱃 나면 열어주고.)

107061 @ 올라주고.(열어주고.)

107061 # 그럼 끝이라.(그럼 끝이야.)

107061 @ 그믐 처음에 그 메주영 소금물이영 현 거는 뚜껑 안 올라줘도 됩니까?(그럼 처음에 그 메주랑 소금물이랑 한 거는 뚜껑 안 열어줘도 됩니까?)

107061 #1 그때도 돼. 둥근 때. 계속 어디 밧디.(그때도 돼. 둥근 때. 계속 어느 밧에.)

107061 @ 그때도 올라췌당 닫앗당.(그때도 열어췌다가 닫앗다가.)

107061 #1 그냥 계속, 계속. 날 좋민, 날 어둡으면 더끄고 밧디 갓당이라도 장항에 물 들민 장이 변해불어이. 그냥 계속. 밧디 갓당이라도 돌아와야 돼.(그냥 계속, 계속. 날 좋으면, 날 어두우면 덮고 밧에 갓다가도 장항아리에 물 들면 장이 변해버려. 그냥 계속. 밧에 갓다가라도 달려와야 돼.)

107061 @ 돌아와야돼, 비오민.(달려와야 돼, 비오면.)

107061 #1 거 더끄레? 경 안허민 동넷사람신디레 밧더레 가명 부탁해텡 가고. 집이 든 사람, 근처에 아기어명이라도 시민 우리 집이 비오라가민 장항 더꺼도렌 곤고.(그거 덮으려?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에게 밧에 가면서 부탁해두고 가고. 집에 든 사람, 근처에 아기어머니라도 있으면 우리 집에 비와가면 장항아리 덮어달라고 말하고.)

107061 @ 장항 더꺼도렌 허고.(장항아리 덮어달라고 하고.)

107063 @ 게민 혹시 장 담글 때 영허민 안 웬다 허는 거 잇수과? 영허민 웬장 맛엇인다 영 허는 거.(그러면 혹시 장 담글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장 맛없다 이렇게 하는 거.)

107063 #1 그런 건 엇어. 그냥 그거민 그냥. 그 맛이 그 맛.(그런 건 없어. 그냥 그거면 그냥. 그 맛이 그 맛.)

107063 @ 웬장을 담그는 날을 무슨 날 무슨 날 이수과?(된장 담그는 날을 무슨

날 무슨 날 있습니까?)

107063 #1 응, 햅뎡 무신 날 둡그게, 무신 날 둡그게. 모날 둡그나.(응, 조금 무슨 달 답그자, 무슨 날 답그자, 말날 답그나.)

107063 @ 모날 둡그나.(말날 답그나.)

107063 #1 개날을 둡그나.(개날을 답그나.)

107063 @ 개날을 둡그나.(개날을 답그나.)

107063 #1 득날을 둡그나.(답날을 답그나.)

107063 @ 득날을 둡그나.(답날을 답그나.)

107063 #1 그 날 중에서 햅뎡 좋은 날 뵙 장은 답아.(그 날 중에서 조금 좋은 날 뵙서 장을 답가.)

107063 @ 모날은 무신 날이꽈?(모날은 무슨 날입니까?)

107063 #1 말게.(말.)

107063 @ 아, 말이 모날.(아, 말이 모날.)

107063 #1 몰, 몰. 말이엔 허주.(말, 말. 말이라고 하지.)

107063 @ 응. 제주도 말로 몰예. 게날 몰날 허든가.(응. 제주도 말로 ‘몰’요. 그러니까 말날 하든가.)

107063 #1 득날을 허든가.(답날을 하든가.)

107063 @ 득날이나 개날.(답날이나 개날.)

107063 #1 개날이나.(개날이나.)

107063 @ 그게 좋은 거?(그게 좋은 거?)

107063 #1 염소날이나.(양날이나.)

107063 @ 염소날이나.(양날이나.)

107063 #1 그런 날을 햅뎡 좋다허는 날로 답아. 이 베염날, 소날 ㄴ뎡 대 안 답아.(그런 날을 조금 좋다하는 날로 답가. 이 뱀날, 소날 같은 뎡 안 답가.)

107063 @ 무사?(왜?)

107063 #1 장을 답으믄이 어떻 는닥는닥 헌텐. 그 코ㄴ추룩 풀풀허여.(장 답그면 어떻게 끈적끈적 한다고. 그 콧물처럼 ‘풀풀’해.)

107063 @ 하하하.(하하하.)

107063 #1 경행 날을 보는.(그렇게 해서 날을 보는.)

107063 @ 그 무슨 저 쉼 니치름.(그 무슨 저 소 ‘니치름.’)

107063 #1 응, 그추룩 허는 식산디사 장이 는닥진텐 허영.(응, 그렇게 하는 건지 장이 끈적인다고 해서.)

107063 @ 는닥진텐.(끈적인다고.)

107063 #1 그 쉼날이나 베염날 ㄴ뎡 뎡 안 답아. 그 중에서도 햅뎡 낫아뵐 날로 답아.(그 소날이나 뱀날 같은 뎡 안 답가. 그중에서도 조금 나아보이는 날로 답가.)

107063 @ 게믄 웬장하고 간장은 다 뵐 거예. 언제부터 먹어집니까?(그러면 뵐 장하고 간장은 다 뵐 거요. 언제부터 먹을 수 있습니까?)

107063 #1 그냥 먹어. 향아리 그 메주 등근 때도 장이 엇인 사람은 그 향아리 속에서 영 수제로 끈어내영 장 메왕 먹어.(그냥 먹어. 향아리 그 메주 담근 때도 장이 없는 사람은 그 향아리 속에서 이렇게 수저로 잘라내서 장 양념해서 먹어.)

107063 @ 아, 다 돼지 안해도?(아, 다 되지도 않아도.)

107063 #1 다 웬 거지. 익기는 익어신디 우리가 바빠서 장을 건져내질 못행 끼질 못했지.(다 된 거지. 익기는 익었는데 우리가 바빠서 장을 건져내지 못해서 으깨지 못했지.)

107063 @ 혼 석 달은 담가야 되는 거짜?(한 석 달은 담가야 되는 겁니까?)

107063 #1 응, 석 달 건증 돼여.(응, 석 달 거의 돼.)

107063 @ 석 달 메주 해근에 저 영.(석 달 메주 해서 저 이렇게.)

107063 # 꾸쩍이는 거.(반죽하는 거.)

107063 @ 꾸쩍영 향에 담양 놔두민 그땐 먹어도 되는 거?(반죽해서 향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그땐 먹어도 되는 거?)

107063 #1 응. 그때는 먹어 갓어.(응. 그때는 먹었어.)

107063 @ 응, 거민 보통 혼 석 달 이시민 먹어지는 거구나예. 정월에 담그민 한 사월 돼민 먹어지는, 삼월 사월 돼민.(응, 그러면 보통 한 석 달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정월에 담그면 한 사월 되면 먹을 수 있는, 삼월 사월 되면.)

107063 #1 석 달이 더 돼어가민 먹어가. 핫튼간에. 장도 늦영이 봄에나 담으민 이 향뚜까리가 항상 열잖아이.(석 달이 더 돼어가면 먹어가. 하여튼 간에. 장도 늦어서 봄에나 담그면 향 뚜경을 항상 열잖아.)

107063 @ 응.(응.)

107063 #1 벌레가 일어. 쉬 싸불면은 장에도. 경허카부덴 이 묵은해 담앗당 삼사월 나가민 재기 장을 거려분덴 허여이.(벌레가 생겨. 쉬 싸버리면 장에도. 그럴까 봐 이 묵은해 담았다가 삼사월 나가면 빨리 장을 떠버린다고 해.)

107063 @ 아.(아.)

107063 #1 장을 재기 거려불어사 파리가 안 앓앙.(장을 빨리 떠버려야 파리 안 앓아서.)

107063 @ 아, 날씨 따뜻해지기 전이.(아, 날씨 따뜻해지기 전에.)

107063 #1 따뜻해 가민 벌레가 일지, 쉬프리나.(따뜻해져 가면 벌레가 일지, 쉬파리나.)

107063 @ 예. 웬장에 생기는 벌레 무신거엔 굴읍니까?(예. 된장에 생기는 벌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107063 #1 그냥 벌레. 장에 티 일언, 티 일언 해여.(그냥 벌레. 장에 쉬 일었어, 쉬 일었어 해.)

107063 @ 티 일언. 응, 장에 티 일언. 그든 티 일면 어떻게 해야 돼여? 버리지도 못허고.(쉬 일었어. 응, 장에 쉬 일었어. 그러면 쉬 일면 어떻게 해야 돼? 버리지도 못 하고.)



107063 #1 어땡허여. 들지 못하게시리 좇어불어도 하영 안헌 때난 좇어불어야지. 하영 일면은이 그 우에 영 논 것에 고망이 베통베통 벌레 속에 들어간. 계민 너무 추접허지않아게. 그거를 요만씩은 다 굵어 내불어.(어떻게 해. 들지 못하게끔 주워버려도 많이 안한 때니까 주워버려야지. 많이 일면 그 위에 이렇게 놓은 것에 구멍이 송송 벌레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너무 더럽잖아. 그거를 요만큼씩은 다 굵어 내버려.)

107063 @ 웬장 우에 거.(된장 위에 거.)

107063 #1 응, 벌레 아니 들어간 디까지 문 굵어내. 너미 벌레가 한 사람은. 우리는 벌레 일계를 안해. 향아리 다 험벅 더경 그 우에 소금 조금 깔아불면은 짱 아이가, 벌레가.(응, 벌레 안 들어간 데까지 모두 굵어내. 너무 벌레가 많은 사람은. 우리는 벌레 일계를 안 해. 향아리 다 형겔 덮어서 그 위에 소금 조금 깔아버리면 짜서 안 가, 벌레가.)

107063 @ 아, 웬장 위에 소금허고.(아, 된장 위에 소금하고.)

107063 #1 험벅을 영 깔아. 이 향아리 속에 영.(형겔을 이렇게 깔아. 이 향아리 속에 이렇게.)

107063 @ 향아리 소곱에 험벅을 깔아, 웬장 우이.(향아리 속에 형겔을 깔아, 된장 위에.)

107063 #1 응. 고운 험벅 행 깔앙 그 우이 소금 흐끔씩 놔불면은 벌레가 안 앓아.(응. 고운 형겔 해서 깔아서 그 위에 소금 조금씩 놔버리면 벌레가 안 앓아.)

107063 @ 향 입구에는? 우에는 그냥 향 뚜껑만 닫습니까? 아니면 험벅으로 영.(향아리 입구에는? 위에는 그냥 향아리 뚜껑만 닫습니까? 아니면 형겔으로 이렇게.)

107063 #1 험벅으로 허여냥. 아 경해농민 뚜까릴 더꺼줘야. 아무 뚜까리라도. 옛날 쇠숯 뚜까리 신 땀 그런 것도 더끄고 장탱인디 다라 닳은 거 더끄고. 장항 더끄는 또이 그릇이 서. 영 코 돈으고 납지룩헌 거행 이만큼씩 헌 거. 장항 더끄는 거. 그 항에 따라랑 나오는 두깁.(형겔으로 해놓고. 아 그렇게 해놓으면 뚜껑을 덮어줘야. 아무 뚜껑이라도. 옛날은 쇠숯 뚜껑 있을 땀 그런 것도 덮고 장탱인데 대야 같은 것 덮고. 장항아리 덮는 또 그릇이 있어. 이렇게 코 돈고 납작한 거해서 이만큼씩 헌 거. 장항아리 덮는 거. 그 향아리에 따라서 나오는 뚜껑.)

107063 @ 아까 장탱이가 장항 뚜껑인가?(아까 장태가 장항아리 뚜껑인가?)

107063 #1 장탱인 또 뜬나. 그건 장탱이고 장항 뚜까린 장항 뚜까리 행 요만큼 납적헌 거. 코 돈으고 영 들르기 좋고 요 두겐 헌 거가 이서. 요 두겐 헌 거 영 코 돈으고 장항더레 영 더꺼지고 올라지고.(장태는 또 달라. 그건 장태고 장항아리 뚜껑은 장항아리 뚜껑 해서 요만큼 납적한 거. 코 돈고 이렇게 들기 좋고 요 두겐 한 게 있어. 요 두겐 한 거 이렇게 코 돈고 장항에 이렇게 덮어지고 열어지고.)

107063 @ 아, 그게 따로 이서.(아, 그게 따로 있어.)

107063 #1 엇이민 아무거라도 더끄긴 허는디.(없으면 아무거라도 덮긴 하는데.)

## 떡류

107064 @ 이번에는 떡, 떡, 떡해난 말.(이번에는 떡, 떡, 떡했던 말.)

107064 #1 떡을 무신 떡을.(떡을 무슨 떡을.)

107064 @ 떡은 이디 무신 떡, 무신 떡합니까?(떡은 여기 무슨 떡, 무슨 떡합니까?)

107064 #1 옛날 경 떡을 해시카? 곤떡<sup>190</sup>.(옛날 그렇게 떡을 했을까? ‘곤떡’.)

107064 @ 곤떡, 응.(‘곤떡’, 응.)

107064 #1 곤떡허젠 허민 쫓 굿 그레 허곡. 또 줍쌀이.(‘곤떡’하려고 하면 팔 삶고 그리 하고. 또 줍쌀.)

107064 @ 응.(응.)

107064 #1 줍쌀 행 우리 옥은 땀진 줍쌀 행 물그레에 강 곁아다근엥에 감저 썰어놓곡 행 떡을 치민 맛이 이서, 잘도.(줍쌀 해서 우리 큰 후에까진 줍쌀 해서 연 자매에 가서 갈아다가 고구마 썰어놓고 해서 떡을 찌면 맛이 있어, 아주.)

107064 @ 건 무신 떡이라?(그건 무슨 떡이야?)

107064 #1 줍쌀 떡.(줍쌀 떡.)

107064 @ 침떡?(시루떡?)

107064 #1 침떡으로 줍쌀떡이엔, 줍쌀시리떡 행.(시루떡으로 줍쌀떡이라고, 줍쌀 시루떡 해서.)

107064 @ 아, 줍쌀시리떡.(아, 줍쌀시리떡.)

107064 #1 감저 요만씩 썰어놔 놓민 맛이 이서이. 흐린줍쌀로 노랑 줍쌀로 말고 검은 줍쌀 흐린줍쌀 해영.(고구마 요만씩 썰어놔서 놓으면 맛이 있어. 차줍쌀로 노란 줍쌀로 말고 검은 줍쌀 차줍쌀 해서.)

107064 @ 그믄 시리떡 잇고 곤떡 잇고 또 무신 떡 허여?(그러면 시루떡 잇고 ‘곤떡’ 잇고 또 무슨 떡해?)

107064 #1 상웨떡도 허고.(상화떡도 하고.)

107064 @ 상웨떡도 허고 또?(상화떡도 하고 또?)

107064 #1 옛날은이 만뒤떡이엔 행 상에 올리는 건 요만씩헌 만뒤가 서.(옛날은 ‘만뒤떡’이라고 해서 상에 올리는 건 요만큼씩 한 ‘만뒤’가 있어.)

107064 @ 만뒤떡<sup>191</sup>도 허고. 떡은 보통 네 개 정도 이 동넨 합니까?(‘만뒤떡’도 하고. 떡은 보통 네 개 정도 이 동넨 합니까?)

107064 #1 응.(응.)

107064 @ 뭐 지름떡은 안 해?(뭐 기름떡은 안 해?)

107064 #1 지름떡도 허고.(기름떡도 하고.)

107065 @ 지름떡도 허고예. 다섯 개 정도예. 그믄 처음에 시리떡부터예.(기름떡

190) ‘곤떡’은 제주에서 대체로 흰 쌀떡을 말하나 이 제보자는 ‘송편’을 ‘곤떡’이라고 말했다.

191) ‘만뒤떡’은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팔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찌낸 후 팔고물을 묻힌 떡이다.

도 하고요. 다섯 개 정도요. 그러면 처음에 시루떡부터요.)

107065 #1 시리떡.(시루떡.)

107065 @ 시리떡은 어떻 행은에 치는 거파? 무신 곤쌀로?(시루떡은 어떻게 해서 찌는 겁니까? 무슨 흰쌀로?)

107065 #1 좁쌀로도 하고 곤쌀로도 하고.(좁쌀로도 하고 흰쌀로도 하고.)

107065 @ 먼저 곤쌀부터.(먼저 흰쌀부터.)

107065 #1 곤쌀은이 하영 안 해이.(흰쌀은 많이 안 해.)

107065 @ 응.(응.)

107065 #1 시리가 옛날 시리 요만큼은 해여이. 게민 그디 좁쌀 시리 혼 징 영 놔 놓민 그 우이 푯을 놓잖아. 푯 새에 놓면 또 그 쓸로이 상에 올릴 거라 건. 건 또 새에 또 혼 징 놔 또 놔놔 두 징궂진 흰쌀, 흰 나룩쌀 ㄱ루로 놓앙 그 위에 넘여가는 거는 그냥 좁쌀 ㄱ루 다 놓고. 상에 올릴 건 흰 떡을 치고.(시루가 옛날 시루 요만큼은 해. 그러면 거기 좁쌀 시루 한 켠 이렇게 놔 놓으면 그 위에 팔을 놓잖아. 팔 사이에 놓으면 또 그 쌀로 상에 올릴 거야 그건. 그건 또 사이에 또 한 켠 놔서 또 놔서 두 켠까진 흰쌀, 흰 법쌀 가루로 놓아서 그 위에 넘여가는 거는 그냥 좁쌀 가루 다 놓고. 상에 올릴 건 흰 떡을 찌고.)

107065 @ 응, 젤 밑에는 아까 좁쌀 깔아?(응, 젤 밑에는 아까 좁쌀 깔아?)

107065 #1 좁쌀 ㄱ루로게.(좁쌀 가루로.)

107065 @ 좁쌀 ㄱ루로.(좁쌀 가루로.)

107065 #1 다 밀어논. 떡을 치게 다 만든 거지. 위에 놓는 거궂지 다 ㄱ뜨게 멘 들아 놔 밑에만 그거 깔앙.(다 밀어논. 떡을 찌게 다 만든 거지. 위에 놓는 거까지 다 같게 만들어 놔서 밑에만 그거 깔아서.)

107065 @ 좁쌀 ㄱ루 깔앙 그다음 푯.(좁쌀 가루 깔아서 그다음 팔.)

107065 #1 푯 서경 그다음에 또 곤쌀 ㄱ루.(팔 섞어서 그다음에 또 흰쌀 가루.)

107065 @ 곤쌀 ㄱ루 서경 그 우이 푯 서경.(흰쌀 가루 섞어서 그 위에 팔 섞어서.)

107065 #1 또 우이 푯 놔. 또 우이 흰 거 놔, 또 푯 서경.(또 위에 팔 놔서. 또 위에 흰 거 놔서, 또 팔 섞어서.)

107065 @ 푯 서경.(팔 섞어서.)

107065 #1 그 우에는.(그 위에는.)

107065 @ 좁쌀로?(좁쌀로?)

107065 #1 그자 요거 시리면은 또 요만큼 놔 가민 짐작허영 또 무시겔로 영 돼 약세긴가, 무슨 솔박<sup>192)</sup>으로 짐작허영 어느 정도 높을 거다 허민 영영 매파뵈 또 푯 영영 허경 또 놔 또 푯 놔 허민.(그냥 요거 시루면 또 요만큼 놔 가면 짐작해서 또 무엇으로 이렇게 '돼약세기'인가, 무슨 '솔박'으로 짐작해서 어느 정도 높을 거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매꿔뵈서 또 팔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또 놔서 또 팔 놔서 하

192)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이다.

면.)

107065 @ 경행 우이 무신거?(그렇게 해서 위에 무엇?)

107065 #1 그냥 아무거나 더꺼. 짐 올라 가민은 시리 구멍으로 짐이 우트레 영 올라와. 짐 올라와 가민 아무 솟두까리라도이.(그냥 아무거나 덮어. 짐 올라 가면 시루 구멍으로 짐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짐 올라와 가면 아무 솔뚜껑이라도.)

107065 @ 예.(예.)

107065 #1 쉼 두껍. 그런 거 더꺼붙어.(쇠 뚜껍. 그런 거 덮어버려.)

107065 @ 시리 구멍은 무신걸로 막아야주예?(시루 구멍은 무엇으로 막아야지요?)

107065 #1 그때는 아무 ㄱ루라도이 밀ㄱ루라도 쫄ㄱ루라도 만들앙 요영 허영 영 솟광 시리 사이에 뱅허게시리 막아져.(그때는 아무 가루라도 밀가루라도 쌀가루라도 만들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술과 시루 사이에 뱅하게끔 막아.)

107065 @ 예.(예.)

107065 @ 짐 아이 나게. 짐 나불민 떡을 안 쳐서, 설고. 일로 짐 나가민 그거 막젠 허고. 숭, 옛날 숭 봤젠 허여, 것이. 떡 안 돼가민 아이고 숭 본 생이여, 누게 다른 사람 텅기지 말렌 부엌에 앉인 사람만 경혜영. 숭, 떡 칠 때 그추룩.(김 안 나게. 김 나버리면 떡을 안 찌서, 설고. 이리로 김 나가면 그거 막으려고 하고. 흥, 옛날 흥 봤다고 해, 그것이. 떡 안 되어가면 아이고 흥 본 모야이야, 누구 다른 사람 다니지 말라고 부엌에 앉은 사람만 그렇게 해. 흥, 떡 찌 때 그렇게.)

107065 @ 그 시리 구멍이 잇수게, 안에. 그 고망은 안 막아도 돼여?(그 시루 구멍이 있잖습니까, 안에. 그 구멍은 안 막아도 돼?)

107065 #1 그 고망은 이만씩 현 거이.(그 구멍은 이만큼씩 한 거.)

107065 @ 뭇로 막아?(뭇로 막아?)

107065 #1 ㄴ물 이파리나이, 그 우리 배추 이파리.(나물 이파리나, 그 우리 배추 이파리.)

107065 @ 예, 예. ㄴ물.(예, 예. 나물.)

107065 #1 배추 이파리 그 고망만 똑똑 막아. 요추룩 고망 툇툇 막앙.(배추 이파리 그 구멍만 똑똑 막아. 요렇게 구멍 툇툇 막아서.)

107065 @ 아.(아.)

107065 #1 그냥 그 우터레.(그냥 그 위에.)

107065 @ 털어지지 안허게예?(떨어지지 않게요?)

107065 #1 응. 그 우터레 숨메 서터놓민 ㄱ루 놉 시작을 허여.(응. 그 위에 고물 섞어놓으면 가루 놓기 시작을 해.)

107065 @ 숨메가 아까 꺾이 숨메?(고물이 아까 팔이 고물?)

107065 #1 응.(응.)

107065 @ 경혜근에 꺾시리 허는, 아니 시리떡인디.(그렇게 해서 팔시루 하는, 아니 시루떡인디.)

107065 #1 줍쌀, 줍쌀떡. 줍쌀침떡.(줍쌀, 줍쌀떡. 줍쌀시루떡.)  
 107065 @ 줍쌀시리떡도 허고.(줍쌀시루떡도 하고.)  
 107065 #1 곤쌀시리떡도 허고.(흰쌀시루떡도 하고.)  
 107065 @ 곤쌀시리떡도 허고예. 게민 그냥 하얀 시리도 됩니까?(흰쌀시루떡도 하고요. 그러면 그냥 하얀 시루도 됩니까?)  
 107065 #1 그것이 하얀 거 돼여.(그것이 하얀 거 돼.)  
 107065 @ 아니, 숨메 안 논 거.(아니, 고물 안 놓은 거.)  
 107065 #1 숨메 안 놓진, 이제, 이제나 숨메 안 놓지.(고물 안 놓진, 이제, 이제나 고물 안 놓지.)  
 107065 @ 아, 옛날에는.(아, 옛날에는.)  
 107065 #1 떡침이 가면은 이제 하얗게 허영 현디 그때는 그런 거 었어.(떡집에 가면은 이제 하얗게 해서 한테 그때는 그런 거 없어.)  
 107065 @ 그런 거 었어.(그런 거 없어.)  
 107065 #1 숨메를 징징이 이런 혼 도리<sup>193)</sup> 놓면은 또 놔 강 또 숨메 낱 놓곡 놓곡 허민 떡을 비어가면은 툭툭 떼져.(고물을 층층이 이런 한 두레 놓으면 또 놔서 가서 또 고물 놔서 놓고 놓고 하면 떡을 베어가면은 툭툭 떼져.)  
 107065 @ 예.(예.)  
 107065 #1 공간이 서부니까. 율로 영 비민 툭 떨어지고 율로 요쪽드레 자치민 다 그뻔 이디 책에서 그레방석 좋은 거 허영 이젠, 그레 썰멍 탁탁 낱 식이민 다 어드레 그때는 차룽이 있지.(공간이 있어버리니까. 요리로 이렇게 베면 툭 떨어지고 요리로 요쪽으로 젓히면 다 그뻔 여기 책에서 맷방석 좋은 거 해서 이젠, 그리 썰면서 탁탁 놔서 식으면 다 어디로 그때는 채룽이 있지)  
 107065 @ 예.(예.)  
 107065 #1 차룽더레 다 즈근즈근 썰 만씩 끈어가명.(채룽에 다 차근차근 쓸 만 큼씩 잘라가면서.)  
 107065 @ 혼 시리 영 허민 멧 빗이나 나옵니까?(한 시루 이렇게 하면 멧 ‘빗’이 나 나옵니까?)  
 107065 #1 멧 빗<sup>194)</sup> 올라갈 건고, 것이. 혼 일곱 도리쫘 아니민.(멧 ‘빗’ 올라갈 것인가, 그것이. 한 일곱 두레쫘 아니면.)  
 107065 @ 일곱 도리쫘 올라가?(일곱 두레쫘 올라가?)  
 107065 #1 일곱 도리나 여섯 도리 올라갈 거라, 거.(일곱 두레나 여섯두레 올라갈 거야, 그거.)  
 107065 @ 게민 식게허젠 허민 그거 혼나 치민 돼여?(그러면 제사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 찌면 돼?)  
 107065 #1 어디 그때는 사둔침이도 앓아가고 밥도 허멍 앓아가고 떡이영 막 고

193) ‘도리’는 둘레를 돌게 겹을 쌓은 것으로 ‘두레’의 제주어다,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다.

194) ‘빗’은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를 세는 말이다.

기덜이영 그땐 앓아가지. 경허젠 허믄 떡을 식게에도 두 번 치는 사름도 있고, 혼  
번 치는 사름도 있고, 원 아니 허영 허는 사름도 있고.(어디 그때는 사돈집에도 가  
져가고 떡이랑 막 고기들이랑 그땐 가져 가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떡을 제사에도  
두 번 찌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찌는 사람도 있고, 원 안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7066 @ 응. 게민 아까 곤떡이 송편이지예?(응. 그러면 아까 ‘곤떡’이 송편이지  
요?)

107066 #1 응.(응.)

107066 @ 곤떡은 어떻 험니까?(‘곤떡’은 어떻게 합니까?)

107066 #1 그냥 영 그냥 반죽 만들어 낱 그냥 하나로 만들지.(그냥 이렇게 그냥  
반죽 만들어 와서 그냥 하나로 만들지.)

107066 @ 무신 ㄹ루로? 쫄ㄹ루로?(무슨 가루로?)

107066 #1 곤썰 ㄹ루로.(흰쌀 가루로.)

107066 @ 곤썰 ㄹ루로예.(흰쌀 가루로요.)

107066 #1 그땐 곤떡, 곤떡 허멍.(그땐 ‘곤떡’, ‘곤떡’ 하면서.)

107066 @ 거난 곤썰 ㄹ루로 ㄹ루 곁앙, 그게 물 서깁.(그러니까 흰쌀 가루로 가  
루 갈아서, 그게 물 섞어서.)

107066 #1 물 막 물 팔팔 끌러야.(물 아주 물 팔팔 끓여야.)

107066 @ 아, 물 끓여야예.(아, 물 끓여야요.)

107066 #1 물 안 끌리민 이제나 저제나 그냥 몰아져도 헤썩헤썩 헤싸져 붙어.  
더러 그 막 그거 들젠 허민 손이 바싹바싹 떼붙어이.(물 안 끓이면 이제나 저제나  
그냥 반죽해도 ‘헤썩헤썩’ 갈라져 버려. 더러 그 막 그거 반죽하려고 하면 손이 ‘바  
싹바싹’ 뜨거워.)

107066 @ 거난.(그러니까.)

107066 #1 바싹바싹 데게 헤사 그 반죽이 잘 뒤테어근에게 떡 만들아도 헤싸지지  
안허지.(‘바싹바싹’ 데게 해야 그 반죽이 잘 되어서 떡 만들어도 갈라지지 않지.)

107066 @ 저번이 기름떡허젠예 찹쌀예 거 반죽허단예 물 너미 하영 놔전.(저번  
에 기름떡하려고요 찹쌀요 그거 반죽하다가요 물 너무 많이 놔서.)

107066 #1 물도 하영, 건 물 한 중 알민.(물도 많이, 그건 물 많은 줄 알면.)

107066 @ 흐뽀뽀 안 들어가드라고마씨.(조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107066 #1 물 하영 논 중 알민 앓아텅기지 못해, 찰찰찰찰.(물 많이 놓은 줄 알  
면 가져다니지 못해, 찰찰찰찰.)

107066 @ 예. 갱 못 하갯드라고마씨. 아무나 못 허는 거구나. 물 흐뽀밖에 안  
놔신디.(예.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나 못 하는 거구나. 물 조금밖에 안 놔는  
데.)

107066 #1 물도이 막 잘 끓여사.(물도 아주 잘 끓여야.)

107066 @ 예. 경헝 그거 헤근에 밀어야 쥔 거 아니예?(예. 그렇게 해서 그거 헤  
서 밀어야 쥔 거 아니예요?)

107066 #1 응.(응.)

107066 @ 아, 밀지 안허나? 반죽.(아, 밀지 않나? 반죽.)

107066 #1 옛날은 미는 냥 해서. 곤떡을 경, 지름떡을 많이 안 했지. 이제는 혼  
뿔박도 행 다 허는디 그때는 영영 멘들민 납작하게, 동글랑하게 납작행은에 손부리  
로 다 줍아.(옛날은 미는 대로 해서. ‘곤떡’을 그렇게, 기름떡을 많이 안 했지. 이제  
는 한 되도 해서 다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납작하게, 동그랑게 납작  
해서 손으로 다 접어.)

107066 @ 아.(아.)

107066 #1 게민 그 고달이이.(그러면 그 벗이.)

107066 @ 예.(예.)

107066 #1 꼬불꼬불헌 것이 손부리로 다 줍앙 멘들아.(꼬불꼬불한 것이 손으로  
다 접어서 만들어.)

107066 @ 아, 건 지름떡이고예. 아까 곤떡허던 거 계속 허게예.(아, 그건 기름떡  
이고요. 아까 ‘곤떡’하던 거 계속 해요.)

107066 #1 응.(응.)

107066 @ 반죽해 낱 그다음에 어떻 해?(반죽해 놔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

107066 #1 그다음엔 이젠 헐 만씩.(그다음엔 이젠 할 만큼씩.)

107066 @ 툇앙.(뜯어서.)

107066 #1 요만씩 떡을 꺼낸 영영영 돌령.(요만큼씩 떡을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107066 @ 돌령 가운데.(돌려서 가운데.)

107066 #1 영영영영 멘들앙 가운데 숨메 낱 이젠.(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서 가운데 소 넣어서 이젠.)

107066 @ 톳숨메 놔.(팔소 놔.)

107066 #1 숨메 낱 꼭허게 누르뎡 동글락허게 해 낱 이젠 또 영 누르뎡 바위  
영영영영 줍아.(소 놔서 꼭하게 눌러서 동그랑게 해 놓고 이젠 또 이렇게 눌러서 가  
장자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107066 @ 아, 바우 영영영영 줍으믄 밖으로 이렇게 뽀쪽 나오게 뛴는 거꽈?(아,  
가장자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밖으로 이렇게 뽀쪽 나오게 되는 겁  
니까?)

107066 #1 응, 흐썸 나와.(응, 조금 나와.)

107066 @ 흐썸 나와.(조금 나와.)

107066 #1 민들락헌 거 보단 이 바우로 영영영영 반 이상 썸 돌아오게 허민 뿐  
이 이서, 떡도.(매끈한 거 보다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 이  
상 썸 돌아오게 하면 본새 있어, 떡도.)

107066 @ 아, 게민 곤떡은 숨메는 톳만 놓니까?(아, 그러면 ‘곤떡’은 소는 팔만  
놓니까?)

107066 #1 풋.(팔.)

107066 @ 다른 건 안 놉니까?(다른 건 안 놉니까?)

107066 #1 아무것도, 잇지, 풋도 잇고 녹두도 잇고 허지만은 그자 숨메엔 허민 아무 숨메도 돼긴 돼는 거난, 신 대로.(아무것도, 잇지, 팔도 잇고 녹두도 잇고 하지 만 그냥 소라고 하면 아무 소도 되긴 되는 거니까, 있는 대로.)

107066 @ 보통은?(보통은?)

107066 #1 신 대로, 신 대로. 거 행 무신 곤떡이엔 녹두나 삶앙 안 해. 그자 시 리에 놓단 거 남겼당도 허고.(있는 대로, 있는 대로. 그거 해서 무슨 ‘곤떡’이라고 녹두나 삶아서 안 해. 그냥 시루에 놓던 거 남겼다가도 하고.)

107066 @ 아, 나 옛날에 우리 옛날엔요 설탕에 꿔 놔근에도 해난 거 닳다.(아, 나 옛날에 우리 옛날엔요 설탕에 깨 놔서도 했던 거 같아.)

107066 #1 응, 경도 허여. 그 중간 요 중간에는 경해, 이제도 집에서 곤떡을 안 햄주만, 중간에 집에서 헐 때는 꿔 보곤 것에 설탕 놔근에 그냥 해놔지.(응, 그렇게 도 해. 그 중간 요 중간에는 그렇게 해, 이제도 집에서 ‘곤떡’을 안 하고 있지만, 중 간에 집에서 할 때는 깨 볶은 것에 설탕 놔서 그냥 했었지.)

107066 @ 예, 흑설탕, 아니 노란 설탕 이런 거 행.(예, 흑설탕, 아니 노란 설탕 이런 거 해서.)

107066 #1 이제는 집에서덜 떡 안 해분 덕분에 저디 강 맏기는 덕분에 이제 다 그런 식은 엇어부난.(이제는 집에서들 떡 안 해버리는 때문에 저기 가서 맏기는 때 문에 이제 다 그런 식은 엇어버리니까.)

107066 @ 우리 옛날에 집에서 막 그거 해놔주마씨.(우리 옛날에 집에서 막 그 거 했었지요.)

107066 #1 해여. 기름떡이나 이제도 집이 와근에 허주, 지지명 후라이팬에 지지 명 만들명 허주. 떡을 멘들질 안허난.(해. 기름떡이나 이제도 집에 와서 하지, 지지 면서 프라이팬에 지지면서 만들면서 하지. 떡을 만들지 않으니까.)

107075 @ 게문 아까 기름떡은 찹쌀가루로 허는 거 아니예? 찹쌀로만 허는가? (그럼 아까 기름떡은 찹쌀가루로 하는 거 아니예요? 찹쌀로만 하는가?)

107075 #1 찹쌀로도 허고 그냥 흰 곤쌀로도 허는디 하영 허젠 허면은, 상에만 올리젠 혼 열 개쯤 멘드는 건 그냥 그 곤떡헐 걸로 끈어넣도 허영 허고, 이젠 또 찹쌀로 해근엔에 혼 뗏박씩 허영 그냥 집이 수끼덜 지질 때는 맛있지게. 그뎐, 혼 뗏박도 행.(찹쌀로도 하고 그냥 흰쌀로도 하는데 많이 하려고 하면은, 상에만 올리 려고 한 열 개쯤 만드는 건 그냥 그 ‘곤떡’할 것으로 잘라내서도 해서 하고, 이젠 또 찹쌀로 해서 한 되씩 해서 그냥 집에 식구들 지질 때는 맛있지. 그뎐, 한 되도 해.)

107075 @ 옛날에도 기름떡은 계속 해놔수과?(옛날에도 기름떡은 계속 했었습니 까?)

107075 #1 해난 생이라. 우리가 알아지는 거 보민.(했던 모양이야. 우리가 아는



거 보면.)

107075 @ 응, 할머니 어렸을 때도 해난?(응, 할머니 어렸을 때도 했었어?)

107075 #1 응. 해난.(응. 했었어.)

107075 @ 겐 지름떡은 아까 손으로 영영영 줍앙 후라이, 후라이팬 엇일 땐 무신거에 행 지저?(그래서 기름떡은 아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프라이, 프라이팬 없을 땐 무엇에 해서 지저?)

107075 #1 그 떡은이 지름떡이 아니니까 곤떡 삶아놔 곤떡 다 삶아나면은 그물에 들이쳐 그냥 오골오골 건져근엿에 영 브름 들면은 보들보들행 돼어.(그 떡은 기름떡이 아니니까 ‘곤떡’ 삶아놔서 ‘곤떡’ 다 삶고나면 그 물에 넣어서 그냥 ‘오골오골’ 건져서 이렇게 바람 들면은 보들보들해서 돼.)

107075 @ 아, 옛날에는 후라이팬 영 허지 안해근에 삶았구나예?(아, 옛날에는 프라이팬 이렇게 하지 않아서 삶았군요?)

107075 #1 후라이팬이 어디 서? 이제 후라이팬. 옛날은 영 그레에 굴앙 그물묵 짓젠 해도 숯, 숯 혈어분 숯두깅이.(프라이팬이 어디 있어? 이제 프라이팬. 옛날은 이렇게 맷돌에 갈아서 가루묵 만들려고 해도 숯, 숯 헌 숯뚜껑.)

107075 @ 응.(응.)

107075 #1 숯두깅이 막 곱게 다깅 낫다근에 지름 불르멍 곱게 행 낫당 그것이 후라이팬이라.(숯뚜껑 아주 곱게 닦아서 낫다가 기름 바르면서 곱게 해서 낫다가 그것이 프라이팬이야.)

107075 @ 응, 그든 그디서 지름떡을 험니까 아니민 아까추룩 그냥 삶읍니까?(응, 그러면 거기서 기름떡을 하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삶읍니까?)

107075 #1 지름떡은 그디서 후라이팬에서 지지주, 삶진 못허여.(기름떡은 거기서 프라이팬에서 지지지, 삶진 못하지.)

107075 @ 아까 삶은, 삶앙은.(아까 삶은, 삶아서는.)

107075 #1 그 곤쌀, 곤떡허는 그루론 물에 들이쳐 삶으곡.(그 흰쌀, 흰쌀하는 가루로는 물에 넣어서 삶고.)

107075 @ 아. 찹쌀.(아. 찹쌀.)

107075 #1 찹쌀은 물에 들이민 죽도 밥도 안 돼영 범벅돼 불어.(찹쌀은 물에 들면 죽도 밥도 안 되어서 범벅되어 버려.)

107075 @ 거난 찹쌀로 허게 돼민 아까 숯두깅이 거기서.(그러니까 찹쌀로 하게 되면 아까 숯뚜껑 거기서.)

107075 #1 응, 숯두깅이 허곡.(응, 숯뚜껑 하고.)

107075 @ 지름은 무신 지름 불량 해?(기름은 무슨 기름 발라서 해?)

107075 #1 그때는이 지름도이.(그때는 기름도.)

107075 @ 옛날엔 지름 엇이난.(옛날엔 기름 없으니까.)

107075 #1 참지름도 힘들어이.(참기름도 힘들어.)

107075 @ 응.(응.)

107075 #1 누물지름도 허곡이 이젠 콩지름이 어디서? 그때 콩지름이. 이제나 하 간 식용유여 무시거여 햐주.(나물기름도 하고 이젠 콩기름이 어디 있어? 그때 콩기름이. 이제나 온갖 식용유다 무어다 하고 있지.)

107075 @ 계란.(그러니까.)

107075 #1 춤지름 허민 흐뎡허영 그자 그거 흐뎡 영영 늑뵤 똑기 꿔어근에 그걸로 영영영영 불르멍.(참기름 하면 조금해서 그냥 그거 조금 이렇게 무 똑 잘라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서.)

107075 @ 경행 지름떡. 이젠 막 설탕도 뿌리는데 옛날에도 경혜?(그렇게 해서 기름떡. 이젠 막 설탕도 뿌리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해?)

107075 #1 아이고, 옛날 설탕이 어디 서게? 이제 옛날 우리 시집간 후제 상점에 가민 요만이 현 봉다리에 얼마씩 행. 설탕이 어디 서? 심들어.(아이고, 옛날 설탕이 어디 있어? 이제 옛날 우리 시집간 후에 상점에 가면 요만큼 한 봉지에 얼마씩 해서. 설탕이 어디 있어? 힘들어.)

107075 @ 그믐 지름떡에 설탕 안 넣 그냥 후라이팬에 지지기만 해?(그러면 기름떡에 설탕 안 놔서 그냥 프라이팬에 지지기만 해?)

107075 #1 아니 봐져실 거, 안 해져실 거라.(안 봤을 거, 안 했을 거야.)

107075 @ 옛날엔예. 그믐 막 부떠불지 안해? 찹쌀이난. 안 부터?(옛날엔요. 그러면 막 붙어버리지 않아? 찹쌀이니까. 안 붙어?)

107075 #1 식으민 아이 부터.(식으면 안 붙어.)

107075 @ 식으민 아이 부터.(식으면 안 붙어.)

107075 #1 이제도 잘만, 이제도 두루 식이민은 영 설탕 놓고 해도 막 부떠불어. 잘 건조시켜근에 그릇더레 톡톡 봐야지.(이제도 잘만, 이제도 덜 식으면 이렇게 설탕 놓고 해도 막 붙어버려. 잘 건조시켜서 그릇에 톡톡 봐야지.)

107075 @ 응. 지름떡은 이 저 떡 올려 놓 때 젤 위에 올려 놓는 거지예?(응. 기름떡은 이 저 떡 올려 놓을 때 젤 위에 올려 놓는 거지요?)

107075 #1 응. 다 곤떡 위에.(응. 다 ‘곤떡’ 위에.)

107075 @ 젤 위에. 맨 밋에 침떡.(제일 위에. 맨 밑에 시루떡.)

107075 #1 침떡 놓고.(시루떡 놓고.)

107075 @ 침떡 놓고.(시루떡 놓고.)

107075 #1 곤떡을 보기 좋게 봐놔.(‘곤떡’을 보기 좋게 봐서.)

107075 @ 곤떡 놓고.(‘곤떡’ 놓고.)

107075 #1 그 우트레 지름떡 놓고.(그 위에 기름떡 놓고.)

107075 @ 그 우트레 지름떡 놓고.(그 위에 기름떡 놓고.)

107075 #1 다른 떡이엔 현 건 다 골로로 떡 쟁반에는 다 놓지게. 곤떡도 놓고 만두떡<sup>195)</sup>도 요만씩 현 거 놓고. 다 떡이엔 현 건 다 흔 거에 놓지.(다른 떡이라고

195) ‘만두떡’은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팔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쪄낸 후 팔고물을 묻힌 떡이다.

한 건 다 골고루 떡 쟁반에는 다 놓지. ‘곤떡’도 놓고 ‘만두떡’도 요만큼씩 한 거 놓고. 다 떡이라고 한 건 다 한 거에 놓지.)

107078 @ 게민 아까 만두떡은 어떻 멘드는 거봐?(그러면 아까 ‘만두떡’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78 #1 만두떡은 옛날엔이 메밀로, 메밀ㄱ루로.(만두떡은 옛날엔 메밀로, 메밀가루로.)

107078 @ 응.(응.)

107078 #1 영 저 밀어.(이렇게 저 밀어서.)

107078 @ 뭘로 밀어?(뭘로 밀어?)

107078 #1 그때는이 저런 썬으로도 아니 밀어. 그 미는, 이제도 장에 푼는, 낭으로 썬 걸로.(그때는 저런 병으로 안 밀어. 그 미는, 이제도 장에 파는, 나무로 된 걸로.)

107078 @ 거 뭐엔 곤는 말 엇수과?(거 뭐라고 말하는 말 없습니까?)

107078 #1 그때는이 마께엔 허여 마께.(그때는 방망이라고 해서 방망이.)

107078 @ 그냥 마께.(그냥 방망이.)

107078 #1 마께로 밀영. 이거 밀어논 거민 영 꺼깁 조끄만헌 종제기로 푹 뜨민 요거 반달이 돼여이.(방망이로 밀어서. 그거 밀어놓은 거면 이렇게 꺾어서 조그마한 종지로 푹 뜨면 요거 반달이 돼.)

107078 @ 예.(예.)

107078 #1 반달 돼민 그거 이젠 물에 삶앙 것도 메밀ㄱ루니까. 것도 양꼬 놓고 그런.(반달 되면 그거 이젠 물에 삶아서 메밀가루니까. 그것도 소 놓고 그런.)

107078 @ 무신거 봐?(무엇 봐?)

107078 #1 숨메 봐.(소 봐.)

107078 @ 무신 숨메 봐?(무슨 소 봐?)

107078 #1 게메 풋. 풋이나.(그러게 팔. 팔이나.)

107078 @ 것도 풋?(그것도 팔?)

107078 #1 응, 풋 봐. 경행 해.(응, 팔 봐. 그렇게 해서.)

107078 @ 것도 식게 때 허는 거봐?(그것도 제사 때 하는 겁니까?)

107078 #1 응.(응.)

107078 @ 멩질 때나 식게 때?(명절 때나 제사 때?)

107078 #1 허는 집인 허지.(하는 집은 하지.)

107078 @ 아. 그믐 그거 행 삶아난 다음에, 풋? 우에도 숨메 또 무쳐?(아. 그러면 그거 해서 삶은 다음에, 끝? 위에도 고물 또 묻혀?)

107078 #1 아니, 숨메 건 옛날 떡. 느쟁이이.(아니, 고물 그건 옛날 떡. 나께.)

107078 @ 응.(응.)

107078 #1 느쟁이로 현 떡은 반달이 이만큼씩 크게 허민 풋 삶앙 꺾꺾 누르땡. 건 먹젠. 제사 때 올리쟁을 안 허고 그거 미쳐도 이 그거는 안, 제사에.(나께로 한

떡은 반달이 이만큼씩 크게 하면 팔 삶아서 꼭꼭 눌러서. 그건 먹으려고. 제사 때 올리려고 안 하고 그거 무쳐도 이 그거는 안, 제사에.)

107078 @ 만뒤떡을?('만뒤떡'을?)

107078 #1 만뒤떡 요만이 현 거는 아니 올리지.('만뒤떡' 요만큼 한 거는 안 올리지.)

107078 @ 아까 그 크게 현 건 이름 무신거라? 느쟁이로 현 거.(아까 그 크게 한 건 이름 뭐야? 느쟁이로 한 거.)

107078 #1 만뒤떡.('만뒤떡'.)

107078 @ 것도 만뒤떡?(그것도 '만뒤떡'?)

107078 #1 만뒤떡인디 커. 검고. 느쟁이 부땡 해부난.('만뒤떡'인데 커. 검고. 나 깨 붙어서 해버리니까.)

107078 @ 걸어?(걸어?)

107078 #1 검어, 검어.(검어, 검어.)

107078 @ 검어.(검어.)

107078 #1 요거 메밀가루로만 허든 해뚜룩행 노리롱헌디 그건 요만큼은 허민 쫓 미치고 허영 맛은 이서이.(요거 메밀가루로만 하면 해읍스름해서 노르스름한데 그건 요만큼은 하면 팔 묻히고 해서 맛은 있어.)

107078 @ 아.(아.)

107078 #1 양꼬 영 꼭꼭 누르며. 막 이 다라에 쫓, 다라엔 햐점저, 도고리에 쫓 놔놓민 그 삶아낸 그냥 영영 꼭꼭꼭꼭 누르땡 이것에 만딱 이제 오메기떡 무치는 식으로 다 무쳐.(소 이렇게 꼭꼭 눌러. 막 이 대야에 팔, 대야라고 하네, 함지박에 팔 놓으면 그 삶아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서 이것에 모두 이제 오메기떡 묻히는 식으로 다 묻혀.)

107078 @ 예, 그든 그 큰 만뒤떡에는 속에도 숨메 놓고 밖에도.(예, 그러면 그 큰 '만뒤떡'에는 속에도 소 놓고 밖에도.)

107078 #1 응. 건 속에 하영 들어.(응. 그건 속에 많이 들어.)

107078 @ 아, 숨메가 하영 들켜예.(아, 소가 많이 들쫓네요.)

107078 #1 커부니까 건 숨메가 하영 들어.(커서 그건 소가 많이 들어.)

107078 @ 건 먹을 걸로 허는 거구나예?(그건 먹을 걸로 하는 거군요?)

107078 #1 응.(응.)

107078 @ 작은 것도 만뒤떡이엔 곤고 큰 것도 만뒤떡이엔 곤고.(작은 것도 '만뒤떡'이라고 말하고 큰 것도 '만뒤떡'이라고 말하고.)

107078 #1 만두.('만두'.)

107078 @ 만두?('만두'?)

107078 #1 응, 만두. 거 큰 물떡<sup>196)</sup>.(응, '만두'. 그거 큰 '물떡'.)

107078 @ 아, 큰 건 물떡?(아, 큰 건 '물떡'?)

196) '물떡'은 메밀가루 등으로 반죽하여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이다.

107078 #1 물떡, 굴아가난.(‘물떡’, 말해 가니까.)

107078 @ 작은 건 만뒤.(작은 건 ‘만뒤’.)

107078 #1 만두. 제사 때 허는 건 요 반달식으로.(‘만두’. 제사 때 하는 건 요 반달식으로.)

107078 @ 그건 만뒤. 큰 건 물떡.(그건 ‘만뒤’. 큰 건 ‘물떡’.)

107078 #1 요것이 반달이민 요만큼씩 허여이. 건 물떡.(요것이 반달이면 요만큼씩 해. 그건 ‘물떡’.)

107078 @ 아, 그건 어디 영장밧디 가는 거 아니꽈?(아, 그건 어디 장지에 가는 거 아닙니까?)

107078 #1 영장밧디도 가. 친척덜 영장밧디 가민 고적이엔 행이 그냥 세여. 스무 개씩 허민 뗏 늬 197)이엔 허민 스무 늬이 해 왔저, 마흔 늬이 해왔저 행. 걸 다 집안 수끼덜이 그 떡해간 걸 문 죽아. 옛날 상웨떡헌 때도 누게네 집이 무시거, 무신 떡 다 해온 거 다 죽양. 막 큰큰헌 맥에 문 반양 비왕 영장밧디 거 문 그거 테와.(장지도 가. 친척들 장지에 가면 ‘고적’이라고 해서 그냥 해. 스무 개씩 하면 몇 ‘늬’이라고 하면 스무 ‘늬’ 해 왔다, 마흔 ‘늬’ 해왔다 해서. 그러 다 집안 식구들이 그 떡해 간 걸 모두적어. 옛날 상화떡헌 때도 누구네 집에 무엇, 무슨 떡 다 해온 거 다 적어서. 아주 큰 먹서리에 모두 받아서 부어서 장지에 거 모두 그거 나뉘.)

107078 @ 게난 그건 영장밧디 행 가는 물떡 아니? 물떡은? 그냥 집이서도 행 먹어?(그러니까 그건 장지에 해서 가는 ‘물떡’ 아니? ‘물떡’은? 그냥 집에서 해 먹어?)

107078 #1 집이서도 행 먹어.(집에서도 해서 먹어.)

107078 @ 아. 건 영장밧디만 가는 거카부텐.(아 그건 장지만 가는 걸까봐.)

107078 #1 아니, 아니. 제사 때도 허영덜 먹젠 허고, 집이서 하영은 안 해도 그자 먹을 만큼.(아니, 아니. 제사 때도 해서들 먹으려고 하고, 집에서 많이는 안 해도 그저 먹을 만큼.)

107067 @ 응. 게민 빙떡은 어떻 행 허는 거꽈?(응. 그러면 빙떡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67 #1 빙떡은게 메밀ㄱ루 온 메밀ㄱ루로 해영 옛날은 경 이제 ㄱ치 맛있게도 안해여이. 이제는 그거 허젠 허민이, 내가 건 선순디 이제 허는 밀, 참 저.(빙떡은 메밀가루 온 메밀가루로 해서 옛날은 그렇게 이제처럼 맛있게도 안 해. 이제는 그거 하려고 하면, 내가 그건 선순데 이제 하는 밀, 참 저.)

107067 @ 빙떡.(빙떡.)

107067 #1 빙떡은. 그것에 막 참지를 놓고 막 그저 어깨가 아프게시리 거 때려 놓민이 그 빙 지지명도이 영 벌러지질 안해여. 참지를 놓고.(빙떡은. 그것에 막 참기를 놓고 막 그저 어깨가 아프게 그거 저어 놓으면 그 빙떡 지지면서도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 참기를 놓고.)

---

197) ‘늬’은 ‘늬역’과 같은 말로 성인 한 사람 분 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7067 @ 아, 오래 때려야 되는구나예?(아, 오래 저어야 되는군요?)

107067 #1 응, 오래 때려야 거 물도 맞게 어느 정도 물도 맞게 허고 찹지름도 것에 낱 허곡 허면은 빙떡이. 앙꼬가 그때는 쫄을 우리 두린 땀 쫄 논 걸 먹어봤어. 이제는 쫄 논 거 굿어.(응, 오래 저어야 그거 물도 맞게 어느 정도 물도 맞게 하고 찹지름도 그것에 봐서 하고 하면 빙떡이. 소가 그때는 팔을 우리 어린 땀 팔을 놓은 걸 먹었었어. 이제는 팔 놓은 거 나빠.)

107067 @ 예. 무수 논 거.(예. 무 놓은 거.)

107067 #1 무수 양념 맛있게 시민 무수가 막 맛종주.(무 양념 맛있게 있으면 무가 아주 맛있지.)

107067 @ 옛날엔 쫄으로?(옛날엔 팔을?)

107067 #1 응, 쫄으로. 옛날 쫄으로 한 건 봐놔. 이제는 쫄은 아니 봐.(응, 팔으로. 옛날 팔으로 한 건 봤었어. 이제는 팔은 안 봐.)

107067 @ 예.(예.)

107067 #1 이젠 무수 봐야 맛종주, 나가 해도 무술 양념만 맛있게 메왕 허주. 그치록베핀 아니주. 옛날도 빙도 이젠 빙은이 요 지레기민 요만씩허는디 그때는 이만큼씩 술랑술랑.(이젠 무 봐야 맛있지, 내가 해도 무를 양념만 맛있게 해서 하지. 그렇게밖엔 아니지. 옛날도 빙떡도 이제 빙떡은 요 길이면 요만큼씩 하는데 그때는 이만큼씩 기름기름.)

107067 @ 크게?(크게?)

107067 #1 응, 툭툭 쟁반에 접시에 걸쳐지게시리.(응, 툭툭 쟁반에 접시에 걸쳐지게끔.)

107067 @ 그든 그것도 아까 솟두쟁이에서 지지는가?(그러면 그것도 아까 솟두쟁이에서 지지는가?)

107067 #1 응. 솟두쟁이에서. 이제 무신 저런 불이 이서, 무신 솟불에 헐 거라. 그저 요만씩헌 낭끼기 불이. 설피<sup>198)</sup>, 설피엔 해 것이.(응. 솟두쟁이에서. 이제 무슨 저런 불이 있어, 무슨 솟불에 한 거야. 그냥 요만큼씩 한 나무때기 불이. ‘설피’, ‘설피’라고 해 그것이.)

107067 @ 요만씩헌 낭끼기 불이 설피?(요만씩 한 나무때기 불이 ‘설피’?)

107067 #1 설피, 설피해당 묵깃젠 허민 그. 영헌 솟덕 안네서 그 불 베롱베롱 습으멍 그 빙떡을 짓젠허민 빙떡이 좋을 거라? 이제 사름 그거 행 주민 안 먹을 거라.(‘설피’, ‘설피’ 해다가 묵 쭈려고 하면 그. 이렇게 한 봇돌 안에서 그 불 ‘베롱베롱’ 불때면서 그 빙떡을 만들려고 하면 빙떡이 좋겠니? 이제 사름 그거 해서 주면 안 먹을 거야.)

107067 @ 하하하.(하하하.)

107067 #1 더럽허게 험젠이. 불치도 올라갈 거 아냐? 암만 깨끗이 허노렌 해도 불치도 가.(더럽게 한다고. 재도 올라갈 거 아니냐? 암만 깨끗이 하노라고 해도 재

198) ‘설피’는 ‘섬비’라고도 하는데 잡목을 베어 ‘군불’의 빨갛으로 쓰는 잡목 일체를 말한다.

도 가.)

107067 @ 예.(예.)

107067 #1 갱 그걸로 경행 지저낫주.(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해서 지졌었지.)

107067 @ 응.(응.)

107067 #1 이제는 저영 곤, 재가 하나 시카, 먼지가 올라가카? 질에 앓아도 돼 곡 베끗되 앓아도 돼고 다 돼는디 옛날은 그 브름 불어도 불치 불령 안 돼카부텐, 막 바끗되로 강 막 가마니 틀영 강 영 막아주고.(이제는 저렇게 고운, 재가 하나 있을까, 먼지가 올라갈까? 길에 앓아도 괴고 밖에 앓아도 되고 다 되는데 옛날은 그 바람 불어도 재 날려서 안 될까봐, 막 바깥으로 가서 막 가마니 뜯어서 가서 이렇게 막아주고.)

107067 @ 불치 불리카부텐?(재 날릴까봐?)

107067 #1 안 돼지게.(안 되지.)

107068 @ 그른 상웨떡은?(그럼 상화떡은?)

107068 #1 상웨떡도 그거.(상화떡도 그거.)

107068 @ 상웨떡은 무신 ㄱ루로?(상화떡은 무슨 가루로?)

107068 #1 이제는이 메밀ㄱ루, 메밀ㄱ루허는디이 옛날은 이디가 만든 밀로이 막 돌ㄱ레에 곁앙이 막 청이 중디떡<sup>199)</sup> 있고, 상웨떡 있고, 췌기떡<sup>200)</sup> 있고, 떡을 밀 곤 것이 떡을 세 가질 멘들아.(이제는 메밀가루, 메밀가루하는데 옛날은 여기서 만든 밀로 막 돌멩이에 갈아서 막 찌서 ‘중디떡’ 있고, 상화떡 있고, ‘췌기떡’ 있고, 떡을 밀 간 것이 떡을 세 가지를 만들어.)

107068 @ 잠깐, 중디떡.(잠깐, ‘중디떡’.)

107068 #1 췌기떡.(‘췌기떡’.)

107068 @ 췌기떡.(‘췌기떡’.)

107068 #1 그다음에 그 앞에는 곤 거라.(그다음에 그 앞에는 간 거야.)

107068 @ 상웨떡?(상화떡?)

107068 #1 상웨떡은 이 앞이 거 곤 거라. 중디떡은 가운데 있고.(상화떡은 이 앞에 거 간 거야. ‘중디떡’은 가운데 있고.)

107068 @ 아, 젤 앞이가 상웨떡?(아, 젤 앞이가 상화떡?)

107068 #1 응.(응.)

107068 @ 상웨떡부터.(상화떡부터.)

107068 #1 중디떡.(‘중디떡’.)

107068 @ 중디떡.(‘중디떡’.)

107068 #1 췌기떡.(‘췌기떡’.)

107068 @ 그거 무신 순서파?(그거 무슨 순서입니까?)

107068 #1 건이 요건 아주 좋은 ㄱ루로 만든 거고이.(그건 요건 아주 좋은 가루

199) ‘중디떡’은 밀가루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는 상화떡을 만들고, 마지막 남은 밀기울을 뺀 중간 가루로 만든 것이 ‘중디떡’이다.

200) ‘췌기떡’은 밀가루를 갈로 나온 밀기울을 손으로 꼭꼭 쥐어서 만든 떡이다

로 만든 거고.)

107068 @ 아, 상웨떡이 아주 좋은 ㄱ루로.(아, 상화떡이 아주 좋은 가루로.)

107068 #1 이건 두 번쨌 ㄱ루로 만든 거고이. 이건 쥬.(이건 두 번째 가루로 만든 거고. 이건 쥬.)

107068 @ 말짜?(말썰?)

107068 #1 막떡<sup>201)</sup> 쥬.(‘막떡’ 됐어.)

107068 @ 쥬 안 좋은 가루로 만든 거? 이거 밀가루로 허는 거 아니?(쥬 안 좋은 가루로 만든 거? 이거 밀가루로 하는 거 아니?)

107068 #1 밀 곶앙보민 이디 토백이 밀 곶아나민 체로 치고 체로 치고 허단 남은 건 쥬기떡.(밀 갈아보면 여기 토박이 밀 갈고나면 체로 치고 체로 치고 하다가 남은 건 ‘쥬기떡’.)

107068 @ 쥬기떡. 게문 이건 반죽해근에 어떻습니까?(‘쥬기떡’. 그러면 이건 반죽해서 어떻게 합니까?)

107068 #1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07068 @ 어떻?(어떻게?)

107068 #1 쥬기떡은이 영영 쥬어, 영영. 경행 큰큰허게, 큰큰허게 허민 요 정돈 뉘게 멘들아이.(‘쥬기떡’은 이렇게 이렇게 쥐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큼직하게, 큼직하게 하면 요 정돈 되게 만들어.)

107068 @ 응.(응.)

107068 #1 그거 행 삶으민덜 것도 맛종텐 막 먹어.(그거 해서 삶으면들 그것도 맛있다고 막 먹어.)

107068 @ 응.(응.)

107068 #1 중디떡엔 흐끔 숨메도 낱 허곡이.(‘중디떡’엔 조금 소도 빠져 하고.)

107068 @ 아, 쥬기떡엔 숨메 안 봐?(아, ‘쥬기떡’엔 소 안 봐?)

107068 #1 안 봐.(안 봐.)

107068 @ 아.(아.)

107068 #1 풀이 엇주게이, 만딱 진국 다 빼앗아부니까, 이거. 껌데기라, 거 대부분.(풀이 없지, 모두 진국 다 빼앗아가버니까, 이거. 껌데기야, 그거 대부분.)

107068 @ 아, 거의 껌데기로.(아, 거의 껌데기로.)

107068 #1 거의 껌데기 뉘.(거의 껌데기 뉘.)

107068 @ 상웨떡은 밀 ㄱ루에 숨메는 무시거 놓니까? 이것도 쫓?(상화떡은 밀가루에 소는 뭐 놓습니까? 이것도 팔?)

107068 #1 쫓이나이 여름에는이 막 한여름엔이 콩잎, 콩 그때 하영덜 같지. 콩잎 뜯어당 떡 쉬지 못허게. 콩잎 뜯어당 걸 앙꼬ㄱ치록 봐.(팥이나 여름에는 막 한여름엔 콩잎, 콩 그때 많이들 같지. 콩잎 뜯어다가 떡 쉬지 못하게. 콩잎 뜯어다가 그걸 소처럼 봐.)

---

201) ‘막떡’은 마지막 떡이라는 뜻으로 떡을 만들다 남은 마지막 조각을 가지고 만든 떡이다.



107068 @ 아, 상웨떡 안에 콩잎을 놔?(아, 상화떡 안에 콩잎을 놔?)

107068 #1 응. 앙꼬ㄴ치록. 팻 놓면은 하루, 오뉴월썸에는 팻 놓민 하루만 넘으면.(응. 소처럼. 팔 놓으면은 하루, 오뉴월썸에는 팔 놓으면 하루만 넘으면.)

107068 @ 쉬어 불어.(쉬어 버려.)

107068 #1 쉬영 는작는작허지 안 허여게. 정허지 안 허게시리 콩잎 툇아당 뱅뱅 몽크령 그레 꼭 담앙.(쉬어서 ‘는작는작’하지 않아. 그렇게 안 하게시리 콩잎 뜯어다가 뱅뱅 몽크려서 그리 꼭 담아서.)

107068 @ 아, 이거 처음 들으멘마씨. 아, 상웨떡 안에 숨메로.(아, 이거 처음 들어요. 아, 상화떡 안에 소로.)

107068 #1 아무 때나 것도 아니주게. 콩잎도 아무 때나 엇곡. 더움도 아무 때나 안 더우니까 질 한방 더운 때.(아무 때나 그것도 아니지. 콩잎도 아무 때나 없고. 더움도 아무 때나 안 더우니까 제일 ‘한방’ 더운 때.)

107068 @ 응.(응.)

107068 #1 질 한방 더운 땀 상웨떡에 놓고 정 안헌 땀 숨메 놓지, 팻.(젤 ‘한방’ 더운 땀 상화떡에 놓고 그렇게 안한 땀 소 놓지, 팔.)

107068 @ 팻숨메 놓고. 상웨떡은 영 동글락헌 거주예?(팔소 놓고. 상화떡은 이렇게 동그란 거지요?)

107068 #1 영영 만들앙 이젠 그레 팻 낱 또 즈앙 영영허영 흐꿈 요영허영 이레 포 아래 밋밋 길앙 굴목을 진어.(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젠 그리 팔 놔서 또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요렇게 해서 요리 포 아래 ‘밋밋’ 깔아서 ‘굴목’을 때.)

107068 @ 예.(예.)

107068 #1 굴목 진은 디레 드신 디레 놔사 제기 북삭허게 웰 거니까. 게문 츠츠 츠츠 드신 디레만 떡을 요 정돈 뒬게 땀들앙 놔두민이 저디 드신 디 강 놔두민 요 정돈 부풀어이. 그때민 앗앙강 솟디 강 징 놔.(‘굴목’ 땀 데 따듯 디로 놔야 빨리 폭신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차차차차 따듯한 디로만 떡을 요 정도는 되게 만들어서 놔두면 저기 따듯한 디 가서 놔두면 요 정도는 부풀어. 그때면 가져가서 술에 가서 경그레 놔.)

107068 @ 밑에 징 낱예.(밑에 경그레 놔서요.)

107068 #1 징 낱 혼 징짜리도 잇고 그 우이 또 두 징 허민 두 징으로 놔, 큰 솟디는. 경허민 앗앙강 처. 으덥 개도 들어가고 열, 우에는 또 열 개도 들어가고 허는 떡이 이서.(경그레 놔서 한 켜짜리도 잇고 그 위에 또 두 켜 하면 두 켜로 놔, 큰 술에는. 그러면 가져가서 썬. 여덥 개도 들어가고 열, 위에는 또 열 개도 들어가고 하는 떡이 있어.)

107068 @ 밑에 징은 무신걸로 놓는 거짜? 놓는 거 이서?(밑에 경그레는 무엇으로 놓는 겁니까? 놓는 거 있어?)

107068 #1 요만큼 현이 그 나 체, 쳇테기<sup>202</sup>. 쳇테기 그거 허영 그거에 아래 놔

냥 그 우이 영 이추룩 꾸며.(요만큼 한 그 나 체, ‘챗데기’. ‘챗데기’ 그거 해서 그거 아래 놔서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꾸며.)

107068 @ 응.(응.)

107068 #1 뱅동글락허게 요추룩 낭으로 허영 동글랑허게 끼영 그레 이젠 험벅 톱 꿀앙 상웨떡 톱톱 앓다 놔.(동그랗게 요렇게 나무로 해서 동그랗게 끼워서 그리 이젠 형죵 톱 갈아서 상화떡 톱 톱 가져다 놔.)

107068 @ 아.(아.)

107068 #1 또 두 단 멘들젠, 이 단 멘들젠 허민 또 우이도 이추룩 현 것도 영 냥 발 든정 아래 영 발 든정 이거 놓민 걸쳐지게.(또 두 단 만들려고, 이 단 만들려고 하면 또 위에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놔서 발 달려서 아래 이렇게 발 달려서 이거 놓으면 걸쳐지게.)

107068 @ 발 든진 게 이서마씨?(발 달린 거 있어요?)

107068 #1 건 멘들아.(건 만들어.)

107068 @ 아, 멘들아.(아, 만들어.)

107068 #1 쉼줄로덜 어떻어떻행.(쇠줄로들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7068 @ 무신거엔 이름 굳는 건 엇고?(뭐라고 이름 말하는 건 없고?)

107068 #1 징.(징그레.)

107068 @ 그게 그냥 징?(그게 그냥 징그레?)

107068 #1 응. 이 밑에 거 깔아져 불카부덴 걸 동글락헌 것에 이 알로 영 발을 든져, 영. 이레 톱 놓민 영 세와지게.(응. 이 밑에 그거 깔아져 버릴까봐 그걸 동그란 것에 이 아래로 이렇게 발이 달려서, 이렇게 이리 톱 놓으면 이렇게 세워지게.)

107068 @ 예. 아, 게민 밑에 물 낵예.(예. 아, 그러면 밑에 물 놔서요.)

107068 #1 겨믄 삶으민.(그러면 삶으면.)

107068 @ 징 낵.(징그레 놔서.)

107068 #1 떡 낵.(떡 놔서.)

107068 @ 떡 낵, 또 징 낵, 우에 또 떡 낵 이층으로?(떡 놔서, 또 징그레 놔서, 위에 또 떡 놔서 이층으로?)

107068 #1 응. 두까리 더꺼.(응. 두껍 더어.)

107068 @ 두까리 더껍.(두껍 더어.)

107068 #1 정혜영 삶으민.(그렇게 해서 삶으면.)

107068 @ 경허민 상웨떡 똤는 거예?(그렇게 하면 상화떡 되는 거요?)

107068 #1 응. 상웨떡이 요멘씩 들앙 멘들앙 저 득신 디 굴묵<sup>203)</sup> 짚는 안자리 강 놔두민이, 경행 우이 톱 더껍 놔두민, 광목으로라도 우이 톱 더껍 놔두민 이만이 불어나. 게민 떡이 튼튼 안 행 복삭복삭허지.(응. 상화떡 요만큼씩 반죽해서 만들어 거 저 따듯한 데 ‘굴묵’ 때는 안자리 가서 놔두면, 그렇게 해서 위에 톱 덮어서 놔

202) ‘챗데기’는 탕건을 걷는 연장의 하나로, 탕건을 걸을 때 탕건골을 받치는 데 쓰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경그레 용도로 사용되는 체를 말한다.

203)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를 말한다.

두면, 광목으로라도 위에 툇 덮어서 놔두면 이만큼 불어나. 그러면 떡이 단단하지 않고 폭신폭신했지.)

107068 @ 상웨떡엔 아까 밀가루에 무신, 북삭허게 허젠 허민 무신거 놓는 거 아니?(상화떡엔 아까 밀가루에 무슨, 폭신폭신했 하려고 하면 뭐 놓는 거 아니?)

107068 #1 기주<sup>204)</sup> 이서. 기주.(기주 있어. 기주.)

107068 @ 기주예.(기주요.)

107068 #1 기주엔 현 건 밥이. 밥행 누룩 농곡 헤영이 시큼허게 멘들앙이 그거 시큼해가민 걸 걸러.(기주라고 한 건 밥이. 밥해서 누룩 놓고 해서 시큼하게 만들어서 그거 시큼해가면 그걸 걸러.)

107068 @ 응.(응.)

107068 #1 체로, 걸르곡 상웨떡은 맛있게 허젠 허민이 감저 쳐.(체로, 거르고 상화떡 맛있게 하려고 하면 감자 찌.)

107068 @ 응.(응.)

107068 #1 껍데기 다 뱃경 막 그냥 손으로 민직영 밀가루레 이젠 또 버물영 떡을 허민 떡 잘 몰르지도 안허곡 맛도 좋고.(껍데기 다 벗겨서 막 그냥 손으로 문질러서 밀가루에 이젠 또 버물여서 떡을 하면 떡 잘 마르지 않고 맛도 좋고.)

107068 @ 아, 밀가루허고 감저를 삶아근예.(아, 밀가루하고 고구마를 삶아서.)

107068 #1 감저 삶앙.(고구마 삶아서.)

107068 @ 걸 서꺼마씨?(그걸 섞어요?)

107068 #1 응, 경헤영 흐끔 구멍이 널른 체가 이서이. 대체<sup>205)</sup>엔 현 거.(응, 그렇게 해서 조금 구멍 넓은 체가 있어. ‘대체’라고 한 거.)

107068 @ 예.(예.)

107068 #1 그걸로 영영허민 아래 줌지롱헌 거 문딱 누리우민 ㄴ찌 그것에 반죽허고 그 기주해 논 것도 그 ㄴ룰러레 농곡 허영 반죽허민.(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래 자잘한 거 모두 내리면 같이 그것에 반죽하고 그 기주해 놓은 것도 그 가루에 놓고 해서 반죽하면.)

107068 @ 아.(아.)

107068 #1 반죽 맞게시리 허영 다라에 영행 놔두민 그것도 북삭이 켜 가민, 떡 문 거 올라와 켜연 올라왔젠 그뻘 끈으멍 멘듬 시작허민 또 그놈으 켜 것이 까져불면은 또 멘들앙 저디 놓민 북삭허게 올라오민 그때는 치레 가.(반죽 맞게끔 해서 대야에 이렇게 놔두면 그것도 폭신폭신했 괴어 가면, 떡 모두 그거 올라와 괴어 올라왔다고 그뻘 자르면서 만들기 시작하면 또 그놈의 켜 것이 까져버리면 또 만들어서 저기 놓으면 폭신폭신했 올라오면 그때는 찌러 가.)

107068 @ 아.(아.)

107068 #1 그냥 멘들아 논 거 강 쳐도 안 올라와.(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가서 찌

204) ‘기주’는 증편 같은 것을 만들 때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술이다.

205) ‘대체’는 울이 굵고 구멍이 큰 체다.

도 안 올라와.)

107068 @ 하하하.(하하하.)

107068 #1 그냥 돌툼박ㄴ치 요만씩 허여. 북삭허게 퀘야 올라오주.(그냥 돌동백 처럼 요만씩 해. 폭신하게 괴어야 올라오지.)

107069 @ 거른 제사할 때는 보통 무신 떡 아까 무신 떡, 무신 떡한다고마씨?  
(그러면 제사할 때는 보통 무슨 떡, 무슨 떡한다고요?)

107069 #1 곤떡하고.(‘곤떡’하고.)

107069 @ 곤떡하고.(‘곤떡’하고.)

107069 #1 시리떡하고.(시루떡하고.)

107069 @ 시리떡하고.(시루떡하고.)

107069 #1 제에는 경베끼 안 한다.(제에는 그렇게 밖에 안 한다.)

107069 @ 제에는 시리떡하고 곤떡허고 지름떡?(제에는 시루떡하고 ‘곤떡’하고 기름떡?)

107069 #1 만뒤떡허고 지름떡허고.(‘만뒤떡’하고 기름떡하고.)

107069 @ 만뒤떡허고 지름떡허고.(‘만뒤떡’하고 기름떡하고.)

107069 #1 상웨떡은이 벨도로이 요만큼 허는 낭푼에라도이 혼 열댓 개 영 읍더 레 올려.(상화떡은 별도로 요만큼 하는 양푼에라도 한 열댓 개 이렇게 옆에 올려.)

107069 @ 아.(아.)

107069 #1 상드레 안 낱.(상에 안 놔서.)

107069 @ 상드레 안 놓고.(상에 안 놓고.)

107069 #1 상 읍드레라도 읍드레 놔.(상 옆에라도 옆에 놔.)

107069 @ 응, 거른 제사 때도 상웨떡도 허긴 허는구나예?(응, 그러면 제사 때도 상화떡도 하긴 하는군요.)

107069 #1 이녁도 먹곡게 어디 보낼 디도 보내고. 날라 가젠 허민.(자기도 먹고 어디 보낼 데도 보내고. 날라 가려고 하면.)

107069 @ 거른 혼 다섯 개 정도 허는구나, 제사 땀예, 떡을예.(그러면 한 다섯 개 정도 하는구나, 제사 땀요, 떡을요.)

107069 #1 응, 허젠 허든 경 해야, 떡을 안 험은 해도 험은 그걸 해야지.(응,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떡을 안 하기는 해도 하면 그걸 해야지.)

107070 @ 응. 영장밧디 갈 때. 영장 난 때는 떡을 다섯 개보다 더 허는가?(응. 장지에 갈 때. 상 닳을 때는 떡을 다섯 개보다 더 하는가?)

107070 #1 더 허지.(더 하지.)

107070 @ 무신 떡 더 험니까?(무슨 떡 더 험니까?)

107070 #1 몰라 건. 송에기떡<sup>206)</sup>이엔 행 요만씩 행 영 마주 부짱도 허고 쏴랑 쏴랑헌 것도 허고 만두 새끼 또 요멘씩 허고.(몰라 그건. ‘송에기떡’이라고 해서 요만큼씩 해서 이렇게 마주 붙여도 하고 기름기름한 것도 하고 ‘만두’ 새끼 또 요만큼

206) ‘송에기떡’은 ‘절벤’과 비슷하게 두 개를 붙인 모양인데 크기가 작은 떡이다.

씩 하고.)

107070 @ 이름 다시 한 번 곱아봅서. 송에기 무신거?(이름 다시 한 번 말해보세요. ‘송에기’ 뭐?)

107070 #1 송에기떡이엔 해영이 꼭 요만씩 현 거 동골락 동골락행 또 영 마주 부짱 영 톱 부찌민 두 개가 돼여이.(‘송에기떡’이라고 해서 꼭 요만큼씩 한 거 동글 동글해서 또 이렇게 마주 붙여서 이렇게 톱 붙이면 두 개가 돼.)

107070 @ 예.(예.)

107070 #1 허곡 또 요건 무시거엔 헐 거니 몰라. 요만이 현 거 행 영 수제 즈락으로 영영 두 그릇 톱톱 기성 멘들아 놓고 또 만두떡이엔 현 거 요만이 허게 쪼끌락허게 거.(하고 또 요건 무엇이라고 할 건지 몰라. 요만큼 한 거 해서 이렇게 수저 자루로 이렇게 이렇게 두 금 톱톱 그러서 만들어 놓고 또 ‘만두떡’이라고 한 거 요만큼 하게 조그맣게 그거.)

107070 @ 아, 아까 해난 만두떡 비슷하게 현 건디 쪼끌락허게 메밀로.(아, 아까 했던 ‘만두떡’ 비슷하게 한 건데 조그맣게 메밀로.)

107070 #1 쪼끌락허게. 메밀로 안 행 그냥 곤솔로.(조그맣게. 메밀로 안 하고 그냥 흰쌀로.)

107070 @ 아, 건 곤솔로?(아, 그건 흰쌀로?)

107070 #1 곤솔로 허여.(흰쌀로 해.)

107070 @ 아, 영장 난 때는?(아, 상 냈을 때는?)

107070 #1 아니, 집이도 엇인 땐 옛날에 그 메밀가루로 했주. 그거 울영은 그걸 안 허주게. 그거 곤솔 곤떡 허단 걸로 흐뎡씩 영 끈영 제에 올릴 것만. 제사 땐 게 난 영장 때는 성복제엔 해영 성복에 못 얻어먹은 초상은 저싱 가도 못 얻어먹넨 행떡 이름은 다 해영 놓는 거 닮아.(아니, 집에도 없을 땐 옛날에 그 메밀가루로 했지. 그거 위해서는 그걸 안 하지. 그거 흰쌀 ‘곤떡’ 하던 걸로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제에 올릴 것만. 제사 땐 그러니까 상 냈을 때는 성복제라고 해서 성복에 못 얻어먹은 초상은 저승 가도 못 얻어먹는다고 해서 떡 이름은 다 해서 놓는 거 같아.)

107073 @ 아. 이 동네 솔벤 절벤 이런 거 안 허지예?(아. 이 동네 솔편 절편 이런 거 안 하지요?)

107073 #1 저렌 솔벤 절벤해도이 이젠 솔벤 절벤 말이 엇어.(저리는 솔편 절편 해도 이젠 솔편 절편 말이 없어.)

107073 @ 옛날에도 할머니네 안 해낫수과?(옛날에도 할머니네 안 했었습니까?)

107073 #1 우린 안 해.(우린 안 해.)

107073 @ 함덕은?(함덕은?)

107073 #1 저 동더레나 저 서구포 쪽더렌 가민이 반달떡이.(저 동쪽으로나 저 서귀포 쪽에 가면 반달떡이.)

107073 @ 예, 거니까.(예, 그러니까.)

107073 #1 그런 것도 엇어, 이디.(그런 것도 없어, 여기.)

107073 @ 아, 이딘 그런 거 엇구나예.(아, 여긴 그런 거 없군요.)

107073 #1 먹어남은 헛주게. 그디서덜 이레 반양온 것덜 앓양온 것덜 먹어남은 헛주.(먹어나기는 했지. 거기서들 이리 받아서 온 것들 가져온 것들 가져온 것들 먹기는 했지.)

107072 @ 할머니넨 안 하고예. 은절미<sup>207)</sup>엔 현 떡도 이서낫수과?(할머니넨 안 하고요. ‘은절미’라고 하는 떡도 있었습니까?)

107072 #1 은절미 엇어. 이제나 은절미 잇주.(‘은절미’ 없어. 이제나 ‘은절미’ 있지.)

107072 @ 이제나 잇주, 옛날에 은절미엔 현 거 엇어난예. 혹시 모뎀ㄱ루로 니귀 방장허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허는 떡 엇수과?(이제나 있지, 옛날에 ‘은절미’라고 한 거 없었었어요. 혹시 메밀가루로 네모반듯하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하는 떡 없습니까?)

107076 #1 돌레떡? 그런 건 제에 안 올리지.(도래떡? 그런 건 제에 안 올리지.)

107076 @ 아, 돌레떡은 언제 허는 거파?(아, 도래떡은 언제 하는 겁니까?)

107076 #1 그냥 먹젠 해도 돌레떡 행 모뎀 돌레떡 행 먹젠 허믄.(그냥 먹으려고 해도 도래떡 해서 메밀 도래떡 해서 먹으려고 하면.)

107076 @ 아, 건 동글락허게 행 허는 거 아니?(아, 그건 동그랗게 해서 하는 거 아니?)

107076 #1 응, 두덥게 허고.(응, 두껍게 하고.)

107076 @ 두덥게. 숨메 엇이에?(두껍게. 소 없어요?)

107076 #1 엇이. 이 두겐 돼여. 요 손 두께. 영영영영 행 요만큼은 허게 행 청덜 먹어. 돌레떡이엔 행.(없어. 이 두께는 돼. 요 손 두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하게 해서 찌서들 먹어. 도래떡이라고 해서.)

107076 @ 아, 경행 처근예.(아, 그렇게 해서 찌서.)

107076 #1 곧 현 때는 맛있어. 메밀ㄱ루로 허민.(곧 한 때는 맛있어. 메밀가루로 하면.)

107076 @ 거 메밀, 모뎀ㄱ루만 논 거 아니?(그거 메밀, 메밀가루만 놓은 거 아니?)

107076 #1 응, 메밀ㄱ루. 떡 질이 저레가 하, 저 남군더레가.(응, 메밀가루. 떡 종류가 저리가 많아, 저 남군으로가.)

107076 @ 남군더레가 하예. 게민 혹시 저 집에서 굿허거나 아니면 당에 갈 때 행가는 떡은 무신 떡이파?(남군으로가 많아요. 그러면 혹시 저 집에서 굿하거나 아니면 당에 갈 때 해서 가는 떡은 무슨 떡입니까?)

107076 #1 이디서 돌레떡 그것이.(여기서 도래떡 그것이.)

107076 @ 아, 그게 돌레떡. 무신걸로 현 돌레떡?(아, 그게 도래떡. 무엇으로 한 도래떡?)

207) ‘은절미’는 메밀이나 쌀로 만든 정사각형 모양의 떡이다.

107076 #1 곤떡으로.(‘곤떡’으로.)

107076 @ 아, 곤떡으로.(아, ‘곤떡’으로.)

107076 #1 곤쌀로, 곤쌀로.(흰쌀로, 흰쌀로.)

107076 @ 곤쌀로. 당에 갈 때는 돌레떡 흰쌀로?(흰쌀로. 당에 갈 때는 도래떡 흰쌀로?)

107077 #1 집이 일 냉길 때도 그거.(집에 일 넘길 때도 그거.)

107077 @ 아, 집이 일 냉길 때도.(아, 집에 일 넘길 때도.)

107077 #1 그 돌레떡허고 메밀ㄱ루로 영 네모나게 해영이 영 기억나게 끈으민 이제 반착으로 벌렁 허고 또 요만헌 보시 해근에 그 쌀ㄱ루 막 밀영 시리떡ㄱ추룩 그거 허고.(그 도래떡하고 메밀가루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기억자로 자르면 이제 반쪽으로 나눠서 하고 또 요만한 보시기 해서 그 쌀가루 막 밀어서 시루떡 처럼 그거 하고.)

107077 @ 건 무신 떡이엔 곶아?(그건 무슨 떡이라고 말해?)

107077 #1 보시떡<sup>208</sup>.(‘보시떡’.)

107077 @ 아, 그건 보시떡.(아, 그건 ‘보시떡’.)

107077 #1 친떡 닥지 건.(시루떡 같지 그건.)

107077 @ 침떡 닥은 건디예, 영.(시루떡 같은 건데요, 이렇게.)

107077 #1 보시. 꼭꼭 쌀ㄱ루 막 밀어근엥에 그추룩 헐 보시가 이서. 굽도 ㄱ쟁 현 거 행 꼭꼭 누르명 강 어명 어명 행 강 솟더레 강 톱 비우민 것이 오고쟁이 벗 어져이.(보시기. 꼭꼭 쌀가루 막 밀어서 그렇게 할 보시기가 있어. 굽도 나란한 거 해서 꼭꼭 눌러서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서 솥에 가서 톱 비우면 그것이 고스란히 벗겨져.)

107077 @ 응.(응.)

107077 #1 거 밋에 속지 잇지이. 그런 속지 톱 길아근엥이 그 ㄱ루 꼭꼭 낱 영 영 행 꼭꼭 낱 강 솥째기 솟디 강 비우민 그냥 종이라부난에 톱허게 벗어져. 게민 하영은 못 낱. 그 보시 어프는 거라부난 톱허민 해싸져 불카부덴.(그거 밑에 속지 있지. 그런 속지 톱 깔아서 그 가루 꼭꼭 낱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꼭 낱서 가서 살짝 솥에 가서 비우면 그냥 종이라서 톱하게 벗겨져. 그러면 많이는 못 낱. 그 보시기 얹는 거라서 톱하면 무너져 버릴까봐.)

107077 @ 예.(예.)

107077 #1 게민 혼 으섯 개, 다섯 개쯤 베피 솥 헉나에 못 낱. 이 집이 곳을 허 나, 집이 일을 냉기나 허젠 헐 때 허는 사름은 경 허고.(그러면 한 여섯 개, 다섯 개쯤 밖에 솥 하나에 못 낱. 이 집에 곳을 하나, 집에 일을 넘기거나 하려고 할 때 하는 사름은 그렇게 하고.)

107077 @ 아, 보시떡 그건예.(아, ‘보시떡’ 그건요.)

107077 #1 보시떡.(‘보시떡’.)

208) ‘보시떡’은 보시기에 쌀가루를 넣고 찜통에서 찌낸 떡이다.

107077 @ 거난 돌레떡허고 보시떡허고 두 개 허는구나예, 어디 뭐 당에 가거나  
굿할 땐예.(그러니까 도래떡하고 ‘보시떡’하고 두 개 하는군요, 어디 뭐 당에 가거나  
굿할 땐요.)

107077 #1 응. 대개 이제나 저제나 거베끼 혈 일이 엇주게.(응. 대개 이제나 저  
제나 그거밖에 할 일이 없지.)

107078 @ 거 말고는 다른 아까 말해난 떡 말고 다른 떡은 엇수과?(그거 말고는  
다른 아까 말했던 떡 말고 다른 떡은 없습니까?)

107078 #1 다른 떡이 무신 떡이 이서?(다른 떡이 무슨 떡이 있어?)

107078 @ 떡을 다 곶아져신가?(떡을 다 말했나?)

107078 #1 친떡허고 상웨떡허고 곤떡허고 만두떡허고 허난 엇주. 좁쌀친떡허  
고.(시루떡하고 상화떡하고 ‘곤떡’하고 ‘만두떡’하고 하니까 없지. 좁쌀시루떡하고.)

107078 @ 혹시 곶채떡이엔 헌 것도 이수과?(혹시 ‘곶채떡’이라고 한 것도 있습  
니까?)

107078 #1 몰라.(몰라.)

107078 @ 그건 몰라예. 상웬데 상웨떡이엔 안행 밀상웨엔도 곶아낫수과? 그냥  
상웨떡?(그건 몰라요. 상화인데 상화떡이라고 안하고 밀상화라고도 말했었습니까?  
그냥 상화떡?)

107078 #1 상웨떡이엔 허민 밀로 멘든 건 다 아는 거난 그자 밀이엔 안 곶아도  
상웨떡이엔. 옛날 상웨떡, 이제 상웨떡ㄴ치 먹음직 해서? 토백이 밀 곶앙 박박허민  
시커멍헌 것도 경 맛이 이서.(상화떡이라고 하면 밀로 만든 건 다 아는 거니까 그저  
밀이라고 안 해도 상화떡이라고. 옛날 상화떡. 이제 상화떡처럼 먹음직 했어? 토박  
이 밀 갈아서 박박하면 시꺼먼 것도 그렇게 맛이 있어.)

107078 @ 그믐 주로 떡을 해먹는 게 식게 때허고, 멍질 때허고, 그다음 영장 난  
때허고.(그러면 주로 떡을 해먹는 게 제사 때하고, 명절 때하고, 그다음 상 낫을 때  
하고.)

107078 #1 옛날 대상, 소상혈 때.(옛날 대상, 소상할 때.)

107078 @ 대상, 소상혈 때영 그다음에, 굿할 때영예. 주로 떡허는 게 그거구나  
예?(대상, 소상할 때랑 그다음에, 굿할 때랑요. 주로 떡하는 게 그거군요?)

107078 #1 떡할 때 떡도 일허는 집인 하영도 허주게. 영장 난 때, 영장 나나민  
이제는 그냥 영장 낱 물어불민 꺾인디 삭망허젠 이녁이 흐뭇 생각행 허젠 허민 떡  
흐뭇씩 허여. 하영은 아니라도.(떡할 때 떡도 일하는 집은 많지도 하지. 상 낫을 때,  
상 나면 이제는 그냥 상 나서 물어버리면 끝인데 삭망하려고 이젠 조금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 떡 조금씩 해. 많이는 아니라도.)

107078 @ 삭망 때도?(삭망 때도?)

107078 #1 응. 삼 년을 허거든. 나가 죽으면 혼 해 넘꼭 두 해는 해살 거난예  
그 두 해 허젠 허민 떡은 자꾸자꾸 만들어. 이제는 그자 꺾넝 설러부난.(응. 삼 년  
을 하거든. 내가 죽으면 한 해 넘고 두 해는 해야할 거니까 그 두 해 하려고 하면



떡은 자꾸자꾸 만들어. 이제는 그저 끝내서 그만뒀버리니까.)

### 소와 고물

107079 @ 게민 그 아까 떡 숨메는 종류가 어떤 어떤 거 이서마씨? 숨메 종류.  
(그러면 그 아까 떡 소 종류가 어떤 어떤 거 있어요? 소 종류.)

107079 #1 숨메는 풋허고.(소는 팔하고.)

107079 @ 풋허고.(팔하고.)

107079 #1 녹두허는 사름 녹두허고 거 메기지.(녹두하는 사람 녹두하고 그거뿐이지.)

107079 @ 녹디허고. 거 메기?(녹두하고. 그거뿐?)

107079 #1 옛날은 거지. 이제는 설탕 낱 꿰 낱 해도 이젠, 옛날은 그런 식이 었어.(옛날은 그거지. 이제는 설탕 놔서 깨 놔서 해도 이젠, 옛날은 그런 식이 없어.)

107079 @ 옛날엔 그런 거 었어난예. 두 개만예.(옛날은 그런 거 없었어요. 두 개만요.)

107079 #1 꿰사 싯주만은 설탕이 경 안 허지.(깨야 있지만 설탕이 그렇게 안 하지.)

107080 @ 게민 아까 그 바꿨디, 속안에 담으는 숨메 말고 영 침떡추룩 베꿨디 무치는 숨메도.(그러면 아까 그 밖에, 속안에 담는 소 말고 이렇게 시루떡처럼 밖에 묻히는 고물도.)

107080 #1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07080 @ 풋?(팔?)

107080 #1 응. 녹두론 안해. 베꿨된.(응. 녹두로는 안 해. 밖엔.)

107080 @ 예, 안 허주예. 이거는 베꿨디 미치는 건 풋만예?(예, 안 하지요. 이거는 밖에 묻히는 건 팔만요?)

107080 #1 풋만. 안네 놓는 것도 대강 풋이고. 녹두 숨메허기도 힘들지.(팔만. 안에 놓는 것도 대강 팔이고. 녹두 고물하기도 힘들지.)

107081 @ 혹시 이렇게 떡할 때 이렇게 하면 안 웬다. 아까 침떡 칠 때 어떻 뭐 허민 안 웬텐 거 이서낫수게?(혹시 이렇게 떡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시루떡 찔 때 어떻게 뭐하면 안 된다고 그거 있었잖아요?)

107081 #1 잘 이디도 막 시리 영헌 디 ㄱ루로 뱅뱅뱅뱅 막당도이 떡이 숭이 나젠 허믄이 막 그 부쩍 딜로 김이 나. 김이 나가민 일로 막당 봐도 팡 터지고, 절로 막당 봐도 팡 터지민 그 떡이 즐바로 웨질 안해.(잘 여기도 막 시루 이렇게 한 데 ㄱ루로 뱅뱅뱅뱅 막다가도 떡이 흥이 나려고 하면 막 그 붙인 데로 김이 나. 김이 나면 이리로 막다가 봐도 팡 터지고, 저리로 막다가 봐도 팡 터지면 그 떡이 제대로 되질 않아.)

107081 @ 응.(응.)

107081 #1 게민 그 떡이 흐루 종일 삶아도 생전 ㄱ를 안 익어.(그러면 그 떡이

하루 종일 삶아도 생전 가루 안 익어.)

107081 @ 아.(아.)

107081 #1 경허당 허당 버치민 그 시릴 내어붙어. 게문이 흔착은 익곡 흔착은 안 익곡. 요디 징은 익고 우에 징은 설곡 우에 징 익어도 또 아래 징도 안 익곡 그런 숭이 서났어.(그러다가 하다가 부치면 그 시루를 꺼내버려. 그러면 한쪽은 익고 한쪽은 안 익고. 요기 켜는 익고 위에 켜는 설고 위에 켜 익어도 또 아래 켜도 안 익고 그런 흥이 있었어.)

107081 @ 아.(아.)

107081 #1 게민이 떡 맛이 었어.(그러면 떡이 맛이 없어.)

107081 @ 거난 떡혈 때는 어디 안 강 그 앞이 직해야 헌텐 허멍.(그러니까 떡 할 때는 어디 안 가서 그 앞에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107081 #1 응. 거난 누게. 옛날은 조왕에 앓인 사름 혼자만 앓아, 혼자만 앓앙, 혼자만 앓아. 그디 누게 잡사름 텅경 무신 허떡헌 말, 것도 무신 방서산디 몰라. 허떡헌 말 곁으민 그 떡이 무신 조끔사 타카부덴 헤신디사이. 누게 혼자만 강 습아. 게민 짐 올라가민이, 그 떡 우이로 시리 우이로 짐 올라가민 그뎨 사름도 드러 텅기고.(응. 그러니까 누구. 옛날은 ‘조왕’에 앓은 사람 혼자만 앓아, 혼자만 앓아서, 혼자만 앓아. 거기 누구 잡사람 다녀서 무슨 허튼 말, 그것도 무슨 방사인지 몰라. 허튼 말 하면 그 떡이 무슨 조금이야 탈까봐 했는지야. 누가 혼자만 가서 때. 그러면 김이 올라가면, 그 떡 위로 시루 위로 김 올라가면 그뎨 사람도 마구 다니고.)

107081 @ 아, 그때는 다녀도 돼?(아, 그때는 다녀도 돼?)

107081 #1 응. 이 짐 안 올르기 전인이 잘 사름 못 가게 헤여. 못 오게도 허고 가쟁도 안 허곡, 정성시리.(응. 이 김 안 오르기 전엔 잘 사름 못 가게 했어. 못 오게도 하고 가려고도 안 하고, 정성스럽게.)

107081 @ 정성으로.(정성으로.)

107081 #1 응, 겐디 이 떡 우이로 ㄴ루 위로 김이 풍풍 나가민 다른 사름도 이 부엌에 드러.(응, 그런데 이 떡 위로 가루 위로 김이 풍풍 나면 다른 사람도 이 부엌에 마구.)

107081 @ 응, 그 시리는 옛날에는 뭘로, 무신 시리마씨? 거멍헌 시린가?(응, 그 시루는 옛날에는 뭘로, 무슨 시루요? 거먼 시루가?)

107081 #1 응.(응.)

107081 @ 거 무신 시리엔 곁읍니까?(그거 무슨 시루라고 말합니까?)

107081 #1 무신 시리라? 모르주. 육지, 육지서는 그런 시리 잘 었어. 제주에가. (무슨 시루야? 모르지. 육지, 육지서는 그런 시루가 잘 없어. 제주에가.)

107081 @ 거난 제주도만 응.(그러니까 제주도만 응.)

107081 #1 제주도도.(제주도도.)

107081 #2 허벽시리엔도 허고.(‘허벽’시루라고도 하고.)

107081 @ 허벽시리?(‘허벽’시루?)

107081 #1 아니, 건 아니우다.(아니, 그건 아닙니다.)

107081 #2 고소리술.(‘고소리술’.)

107081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81 #1 아니우다, 건 고수리주 무사.(아닙니다, 그건 소줏고리지 왜.)

107081 @ 떡, 떡. 시리떡.(떡, 떡. 시루떡.)

107081 #1 시리떡. 이 옛날은 허벅도이 과영허벅 잇고 지세허벅이엔 허영이 지세로 어떻 것이 흑으로 익현에 경 까망게 멘든 거 다했어. 지세주게. 지세시리라 것이.(시루떡. 이 옛날은 동이도 ‘과영허벅’ 잇고 ‘지세허벅’이라고 해서 질로 어떻게 그것이 흑으로 익혀서 그렇게 까망게 만든 거 같아. 질이지, 질 시루야 그것이.)

107081 @ 아, 지세시리. 거멍헌 게? 응.(아, 질시루. 거먼 게? 응.)

107081 #1 육지서 온 시린 보민이 저디 푸는 우리 망데기<sup>209)</sup>덜 그런 색깔로 옛날은 시리도 육지서도 이디 웅기장시 올 땐 와났어. 겐디 그런 건 잘 안 씌고 제주도 그.(육지서 온 시린 보민이 저기 푸는 우리 ‘망데기’들 그런 색깔로 옛날은 시루도 육지서도 여기 웅기장수 올 땐 왔었어. 그런데 그런 건 잘 안 쓰고 제주도도 그.)

107081 @ 거멍헌.(거먼.)

107081 #1 거멍헌 시리로 떡을 잘 쳐났어. 경헌디 그 시리 아무디나 었어. 동네 일 나면 그 시리가 막 빌레 텅겨.(거먼 시루로 떡을 잘 찼었어. 그런데 그 시루 아무데나 없어. 동네 일 나면 그 시루가 막 빌러 다녀.)

107081 @ 하영 었어부난. 그게 떡이 더 잘 뽕니까?(많이 없어서. 그게 떡이 더 잘 뽕니까?)

107081 #1 잘 뽕는 생인<sup>210)</sup>라 그 떡을, 그 시리베핀 또 었주. 중간에는 이문<sup>210)</sup>으로도 멘들고이.(잘 되는 모양인지 그 떡을, 그 시루밖엔 또 없지. 중간에는 ‘이문’으로도 만들고.)

107081 @ 무신걸로?(무엇으로?)

107081 #1 그 장에 푸는 이문으로 아레미.(그 장에 푸는 ‘이문’으로 알루미눔.)

107081 @ 응.(응.)

107081 #1 그런 걸로 멘들양 나왕 또 요만헌 것도 나민 우리 하르방네 돌아가신 때는 삭망허젠 허민 하영 안허난 혼 뽕막헌 거 두 뽕만 곁아오민 곤떡하고 그 요만헌 시리 하나 놓민 삭망 때는 충분허당도 실퍼이.(그런 걸로 만들어서 나와서 또 요만한 것도 나면 우리 할아버지네 돌아가신 때는 삭망하려고 하면 많이 안하니까 한 되한 거 두되만 곁아오면 ‘곤떡’하고 그 요만한 시루 하나 놓으면 삭망 때는 충분하다가도 남아.)

107081 @ 응.(응.)

107081 #1 그런 시리가 나는데 옛날은 그런 것이 었어.(그런 시루가 나는데 옛날은 그런 것이 없어.)

209)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아니한 웅기다.

210) ‘이문’은 알루미눔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107081 @ 응.(응.)

### 별식

107082 @ 계민 이번엔예 순대 만들어 볼 건디예, 순대, 수웨, 순대엔 험니까, 수웨엔 험니까?(그러면 이번엔요 순대 만들어 볼 건데요, 순대, ‘수웨’, 순대라고 합니까, ‘수웨’라고 합니까?)

107082 #1 순대. 수웨, 수웨.(순대. ‘수웨’, ‘수웨’.)

107082 @ 수웨엔 헤낫주, 옛날엔예. 잔치허젠 허민 수웨도 헤낫수게. 건 어떻 만드는 거마씨?(‘수웨’라고 했었지, 옛날엔요. 잔치하려고 하면 순대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7082 #1 어떻 만들어. 그때 경 수웨 하영 만들앗어? 도새길 하영 잡아야 수웨, 배설이 하서 수웨 하영 멘들주. 어떻 옛날 이제 식으론 허민 이제 ㄴ치 맛 좋게도 안 허지. 무신.(어떻게 만들어. 그때 그렇게 순댓 많이 만들었어? 돼지를 많이 잡아야 순대, 창자가 많아서 순대 많이 만들지. 어떻게 옛날 이제 식으로는 하면 이제처럼 맛있게도 안 하지. 무슨.)

107082 @ 무신 ㄴ루 놔?(무슨 가루 놔?)

107082 #1 밀, 아, 메밀.(밀, 아, 메밀.)

107082 @ 아, 메밀 ㄴ루 놔, 옛날에.(아, 메밀가루 놔, 옛날에.)

107082 #1 응, 보릿 ㄴ루. 보리쫄 곶앙.(응, 보릿가루. 보리쌀 갈아서.)

107082 @ 보리쫄 곶앙 보리쫄 ㄴ루.(보리쌀 갈아서 보리쌀 가루.)

107082 #1 짓도 허끄고.(그것도 섞고.)

107082 @ 아, 허꺼. 모뎀쫄허고 보리쫄허고.(아, 섞어. 메밀쌀하고 보리쌀하고.)

107082 #1 허꺼.(섞어.)

107082 @ 허썸.(섞어서.)

107082 #1 돼지 잡는 디 피 받아.(돼지 잡는 데 피 받아.)

107082 @ 예.(예.)

107082 #1 피 받으고 그디 저 메역귀<sup>211)</sup>영 간썸<sup>212)</sup>이영 그 돼야지 배설에서 메역귀, 간썸이 이서이.(피 받고 거기 저 ‘메역귀’랑 ‘간썸’이랑 그 돼지 내장에서 ‘메역귀’, ‘간썸’이 있어.)

107082 @ 무신거마씨?(뭐라고요?)

107082 #1 이 도새기 내장에 메역귀 잇고.(이 돼지 내장에 ‘메역귀’ 잇고.)

107082 @ 메역?(미역?)

107082 #1 응, 간썸 잇고.(응, ‘간썸’ 잇고.)

107082 @ 간썸?(‘간썸’?)

107082 #1 응. 그런 거를이 거 배설 문 꼬아저난 거라. 이거 놔둬서루 배설을

211) ‘메역귀’는 돼지 내장 중 횡경막의 한 부위로 도래창이라고도 한다.

212) ‘간썸’은 돼지 내장 중 횡경막의 한 부위다.

다 뱅뱅 멘들앙 이거 지동으로 내분 거 닥아이. 그거 똥 배설 다 떼어사난 이거 곱닥허여. 게민 이런 것덜이 막 돛배에 낱이 칼로 난도질헤영 이젠 그 반죽더레 낱막 꺾여. 마늘 농곡 그때도 고치도 흥끔 농곡, 이제ㄴ치 양념 치렌 안 헤여.(응. 그런 거를 그거 내장 모두 꼬아졌던 거야. 이거 놔두고 내장을 다 뱅뱅 만들어서 이거 지동으로 내버린 거 같아. 그거 똥 내장 다 떼어야하니까 이거 고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도마에 놔서 칼로 난도질해서 이젠 그 반죽에 놔서 막 반죽해. 마늘 넣고 그때도 고추도 조금 넣고, 이제같이 양념 치레는 안 해.)

107082 @ 예.(예.)

107082 #1 정혜영 그거 이젠 도새기 배설 허민 이젠 하도 ㄴ쿨이 씻어부난 헌디 옛날은 ㄴ쿨이 씻지 못했어. 냄새가 나,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스몫 저 커피 놔근에 그냥 허곡 밀ㄴ루 쳐 담아놔 걸 밀민 순대를 하영 허영 좋는디 도새기 두 마리치 잘허민 도새기 잔치 때도 두 마리 더 잡질 못허지. 그것에 안칩이 얼마나 헐거라게.(그래서 그거 이젠 돼지 내장 하면 이젠 하도 깨끗이 씻어버리니까 한테 옛날은 깨끗이 씻지 못했어. 냄새가 나,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사몫 저 커피 놔서 그냥 하고 밀가루 쳐 담아놔서 그걸 밀면 순대는 많이 해서 좋은데 돼지 두 마리어치 잘하면 돼지 잔치 때도 두 마리 더 잡질 못하지. 그것에 안칩이 얼마나 할 거야.)

107082 @ 응.(응.)

107082 #1 게민 그걸로 순대 담으민 그거뿐이주. 마늘 농곡 무신 이제ㄴ치 당근 농곡 파 농곡 허지도 안헤.(그러면 그걸로 순대 담으면 그거뿐이지. 마늘 넣고 무슨 이제처럼 당근 넣고 파넣고 하지도 않아.)

107082 @ 하하하, 예. 쟁 그레 답아?(하하하, 예. 그래서 그리 답아?)

107082 #1 응, 그레 답아. 그레 답앙 영 무신 실로 끌랭이 무끄고 어느 정도 담으민 또 위로도 실 행 톱 무끄곡 행. 도새기 삶아난 국물러레 또 드리청 거 삶아. 그거 삶아나쁜이.(응, 그리 답아. 그리 답아서 이렇게 무슨 실로 꼬리 묶고 어느 정도 담으면 또 위로도 실 해서 톱 묶고 해서. 돼지 삶았던 국물에 또 들여놔서 그거 삶아. 그거 삶고나면.)

107082 @ 응.(응.)

107082 #1 이 순대 삶아나쁜이 그 물에 무신 몹국이나 못 끌려.(이 순대 삶고나면 그 물에 무슨 모자반국이나 못 끓여.)

107082 @ 아, 냄새가 나.(아, 냄새가 나.)

107082 #1 냄새 나.(냄새 나.)

107082 @ 아.(아.)

107082 #1 이제도 경허여. 이제 먹지도 안허주만은 이제도 순대 삶아난 국물이 냄새가 나.(이제도 그래. 이제 먹지도 않지만 이제도 순대 삶았던 국물이 냄새가 나.)

107082 @ 아, 배설이라부난.(아, 창자라서.)

107082 #1 응. 이제 것사 막 깨끗이 허여도.(응. 이제 것이야 막 깨끗이 해도.)

107082 @ 아까 굴 때 메역허고 간썸은 어떤 거?(아까 말할 때 ‘메역’하고 ‘간썸’은 어떤 거?)

107082 #1 메역 간썸ㄱ라 뭐엔 허는 거파?(‘메역’, ‘간썸’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107082 #2 무신거?(뭐?)

107082 @ 메역 간썸이 뭐마씨?(‘메역’, ‘간썸’이 뭐예요?)

107082 #2 메역 간썸?(‘메역’, ‘간썸’?)

107082 #1 도새기 안네 메역귀이여 간썸이여 허지 안헉니까?(돼지 안에 ‘메역귀’다 ‘간썸’이다 하지 않습니까?)

107082 @ 거 무신거파?(그거 뭐니까?)

107082 #2 배설에 잇는, 창자에 잇는 건데 간썸이여 메역귀여 뭐여 뭐여 허주만은.(내장에 잇는, 창자에 잇는 건데 ‘간썸’이다 ‘메역귀’다 뭐다 뭐다 하지만은.)

107082 @ 그냥 배설 안에 이신 거?(그냥 내장 안에 잇는 거?)

107082 #1 배설이 그거 주장 삼양 그거에 뱅뱅 부떠 간 거 다향.(내장이 그거 주로 삼아서 그거에 뱅뱅 붙어 간 거 같아.)

107082 @ 아.(아.)

107082 #1 아, 부떠가, 배설이. 영 도새기 잡는 디 보믄.(아, 붙어가, 내장이. 이렇게 돼지 잡는 데 보믄.)

107082 #2 똥창은 대창이엔 허고.(똥창은 대창이라고 하고.)

107082 @ 대창 무신거?(대창 무엇?)

107082 #1 똥창.(똥창.)

107082 @ 예, 똥창은 대창이엔 허고. 작은배설은?(예, 똥창은 대창이라고 하고. 작은창자는?)

107082 #2 작은배설이엔 허주게.(작은창자라고 하지.)

107082 @ 그냥 작은배설.(그냥 작은창자.)

107082 #1 작은배설은 삶아 먹고 메역귀 간썸 못아냥 순대에 담아. 경혜사 맛도 잇고.(작은창자는 삶아서 먹고 ‘메역귀’, ‘간썸’은 마 놔서 순대에 담아. 그래야 맛도 잇고.)

107082 @ 메역귀 간썸?(‘메역귀’, ‘간썸’?)

107082 #1 응.(응.)

107082 #2 간썸, 북부기.(‘간썸’, 허파.)

107082 @ 북부기는?(허파는?)

107082 #2 이제 이디 간도 아니고.(이제 여기 간도 아니고.)

107082 @ 허파?(허파?)

107082 #1 허파, 허파.(허파, 허파.)

107082 @ 북부긴 허파고.(‘북부기’는 허파고.)

107082 #1 허파. 그거 못아냥.(허파. 그거 마 놔서.)

107082 @ 메역귀, 간썸은 뭔지 몰르켜.('메역귀', '간썸'은 뭔지 모르겠어.)

107082 #1 그것이 맞아서.(그것이 맛있어.)

107082 @ 이게 맛있어.(이게 맛있어.)

107082 #1 김치가, 김치찌개에도 맛있고, 간썸이. 레기 잘 안 먹는 사람도 그런 건 먹어져. 우리도 고기는 먹긴 먹어도 추미 냉 먹지 안허는디 이런 거 삶양 먹어. (김치가, 김치찌개에도 맛있고, '간썸'이. 고기 잘 안 먹는 사람도 그런 건 먹을 수 있어. 우리도 고기는 먹긴 먹어도 치미 내어서 먹지 않는데 이런 거 삶아서 먹어.)

107082 #2 지금은 결혼식을 돈만 시민 허는디 이 할망 육남매 다 집안에서만. (지금은 결혼식을 돈만 있으면 하는데 이 할망 육남매 다 집에서만.)

107082 @ 집에서 다 잔치헐?(집에서 다 잔치했어?)

107082 #2 정말 고생했주.(정말 고생했지.)

107082 #1 이제 순대사 맛좋지. 찹쌀밥 해놓곡 스몫 마늘 양념 다 놓곡 행 북부기 간썸 다 썰어놓곡 딱딱 찍어놓곡 피 놓곡 허민 막 문득영 뭐 일천 양념 다 놓민 이제 허민 맛좋지.(이제 순대야 맛있지. 찹쌀밥 해놓고 사몫 마늘 양념 다 놓고 해서 허파, '간썸' 다 썰어 놓고 딱딱 찍어 놓고 피 놓고 하면 막 문대서 뭐 일천 양념 다 놓으면 이제 하면 맛있지.)

107082 @ 이젠 맛좋지예.(이젠 맛있지요.)

107082 #1 이젠 맛좋아. 옛날은 맛이 었어.(이젠 맛있어. 옛날은 맛이 없어.)

107083 @ 그믐 두부도 집에서 해놋주예?(그러면 두부도 집에서 했었지요?)

107083 #1 응.(응.)

107083 @ 두분 어떻 행 허는 거파?(두부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83 #1 두분 이녁집이 콩 간 거난이, 아이 옛날 두부 허멍 헤샤? 우리 아기 폴 때나 두부 헐주.(두부는 자기집에 콩 간 거니까, 아니 옛날 두부 하면서 했니? 우리 아이 팔 때나 두부 했지.)

107083 @ 아, 옛날에 할머니네 헐 때는 두부 안 해난?(아, 옛날에 할머니네 할 때는 두부 안 했었어?)

107083 #1 두부 어떻게사 헐 헤신디 몰르크라, 건. 참 우리 아이덜 폴 때나 두부 헐주.(두부 어떻게야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참 우리 아이들 팔 때나 두부 했지.)

107083 @ 아이덜 폴 때는 집에서 둬비헐수과? 둬비엔 곱읍니까?(아이들 팔 때는 집에서 두부했습니까? '둬비'라고 말합니까?)

107083 #1 두부.(두부.)

107083 @ 그냥 두부.(그냥 두부.)

107083 #1 두부허젠 허민 넬 모리 잔치민이 어치낙부터 그 콩을 막 끼어놓고, 막 솟 장만허곡, 주머니 장만허곡, 그 찰 거 장만허곡, 통도 다 장만해다 놓곡.(두부 하려고 하면 넬 모래 잔치면 엇저녁부터 그 통을 막 반죽해놓고, 막 솟 장만하고, 주머니 장만하고, 그 찰 거 장만하고, 통도 다 장만해다 놓고.)

107083 @ 콩을 갈아? 삶아?(콩을 갈아? 삶아?)

107083 #1 콩 바르르하게 검평 그 체 껌데기.(콩 바르르하게 벗겨서 그 겨 껌데기.)

107083 @ 껌피는 건 어떻 행 바르르 껌퍼?(벗기는 건 어떻게 해서 바르르 벗겨?)

107083 #1 공장에 강.(공장에 가서.)

107083 @ 아, 공장에 강.(아, 공장에 가서.)

107083 #1 우리 헐 때는.(우리 할 때는.)

107083 @ 공장이 엇일 때는.(공장이 없을 때는.)

107083 #1 공장 엇을 때는 돌궤로라도 박박.(공장 없을 때는 돌멩이로라도 박박.)

107083 @ 아, 돌궤로라도 헐근에 검평.(아, 돌멩이로라도 해서 벗겨.)

107083 #1 우리 헐 때는 공장에 강 해여.(우리 할 때는 공장에 가서 해.)

107083 @ 응.(응.)

107083 #1 게민 공장에서도이 푸는체로 그 껌데기 다 불려뵈 쓸만. 콩쓸만 복작허게 안 갈아. 흐뭇 굵으롱허게 갈양 집이 와서 그것에서 놀려가민 콩에 주머니에 놔근엿에 두부 짜는 주머니로 짜면 글로 삶아. 두불 짜. 짜는 국물 또 두부가 흐뭇 사락지카부텐 즘질게 허젠 요거 짜난 국물 또 솟더레 놀 때는 또 큰 주머니 행 또 짜고.(그러면 공장에서도 키로 그 껌데기 다 날려두고 쌀만. 콩쌀만 ‘복작’하게 안 갈아. 조금 굵게 갈아서 집에 와서 그것에서 움직여 가면 콩에 주머니에 놔서 두부 짜는 주머니로 짜면 그리로 삶아. 두부를 짜. 짜는 국물 또 두부가 조금 사락거릴까 봐 잘게 하려고 요가 찼던 국물 또 솥에 놓을 때는 또 큰 주머니 해서 또 짜고.)

107083 @ 그믄 그 물 짜난 걸로 삶으는 거짜?(그러면 그 물 찼던 걸로 삶는 겁니까?)

107083 #1 삶아가민 두부가 돼여. 경허민이 바당물에 강 허백이로 강 물을 질어와.(삶아 가면 두부가 돼. 그러면 바당물에 가서 동이로 가서 물을 길어와.)

107083 @ 응.(응.)

107083 #1 질어왕이 부글부글 췌와가민, 정 안허민 부껍 돌아나불어.(길어와서 부글부글 끓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넘쳐서 달아나버려.)

107083 @ 응.(응.)

107083 #1 보글보글 췌가민 이거 박세기면은 췌는 디레 고망 베롱베롱 올라오는 디 물을 조금조금 낫당 또 올라와가민 또 물 흐뭇, 그 춘물.(보글보글 끓어가면 이거 바가지면 끓는 데로 구멍 ‘베롱베롱’ 올라오는 데 물을 조금조금 낫다가 또 올라오면 또 물 조금, 그 찼물.)

107083 @ 응.(응.)

107083 #1 춘물을 놔가민 두붓물이 노리롱허게이 콩은 콩대로 복작허게 두부 떠올르고 두붓물은 노리롱허게시리 골라앗앙 톱 더껍 놔두민 두부가 지각허게 올라



와이.(짬물 놔가면 두부물이 노르스름하게끔 가라앉아서 툇 떨어져 놔두면 두부가 잔뜩 올라와.)

107083 @ 응.(응.)

107083 #1 지각허게 올라오민 이제 큰 이제 물박으로 거리멍 찰 것더레, 찰 것더레 낱 짜민 거 꺾. 것도.(잔뜩 올라오면 이제 큰 이제 물바가지로 뜨면서 찰 것에, 찰 것에 놔서 짜면 그거 끝. 그것도.)

107083 @ 응. 아까 처음에 콩을 갈앙 왕 그다음에.(응. 아까 처음에 콩을 갈아서 그다음에.)

107083 #1 물에 막 끼어.(물에 막 반죽해.)

107083 @ 물에 막 끼엉?(물에 막 반죽해서.)

107083 #1 거 혼 솟 혈만씩.(그거 한 솥 할 만큼씩.)

107083 @ 예, 혼 솥 혈만이 끼엉. 이 건더기는?(예, 한 솥 할 만큼 반죽해서. 이 건더기는?)

107083 #1 게메, 건더기는 이젠 흐뭇 얹지근이 끼어논 건 물 낱 끼어놓민 이젠 주머니에 막 짜.(그러게, 건더기는 이젠 조금 얹게 반죽해 놓은 건 물 놔서 반죽해 놓으면 이젠 주머니에 막 짜.)

107083 @ 예, 짜.(예, 짜.)

107083 #1 짱 이젠 또 그 꺾데기 또 이 다라레 낱 또 짱, 세벌까지 짜.(짜서 이젠 또 그 꺾데기 또 이 대야에 놔서 또 짜서. 세벌까지 짜.)

107083 @ 아, 세벌까지 짜.(아, 세벌까지 짜.)

107083 #1 게믄 이 국물도 두벌은 걸러. 솥더레 놀 때 걸르꼭 이디서 짜고.(그러면 이 국물도 두벌은 걸러. 솥에 놓을 때 거르고 여기서 짜고.)

107083 @ 응.(응.)

107083 #1 경헝 불 솥아 가면은 뒤흔.(그렇게 해서 불 때어 가면은 돼.)

107083 @ 물만 놔근에 솥으논 거구나예?(물만 놔서 삶는 거군요?)

107083 #1 주신 데껴붙어야, 꺾데기.(찌꺼기 던져버려야, 꺾데기.)

107083 @ 주신 뭇 헝 먹는 거 엇어?(찌꺼기 뭇 해서 먹는 거 엇어?)

107083 #1 하도 짜 앓아부난 맛도 엇어. 도새기나 소나베끼.(하도 짜 가져버리니까 맛도 없어. 돼지나 소나뺨에.)

107083 @ 응.(응.)

107083 #1 게민 그 국물이 멀쩡헌 물 닳아이. 히뚜룩허게 물 닳은디 큰 가메솥 디 강 솥아가민 부글부글부글 고망이 가운딜로 뿔룩뿔룩 나가민 박세기로 춘물 영영 허꼭 또 솥아가민 또 부글부글헝 나가민 이 국자, 국자로 꼭꼭 누르며 가민 콩 오꼴 터불민 누렁물이. 그 물이 곱을 갈라지는 거라. 두분 두부대로 뒤흔 물은 물대로. 누렁헌 물이 곱랑 꼭꼭 누르며 가민 이젠 불을 쳐붙어.(그러면 그 국물이 멀쩡한 물 같아. 희끄무레하게 물 같은데 큰 가마솥에 가서 삶아가면 부글부글부글 구멍이 가운데로 볼룩볼룩 나가면 바가지로 짬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삶아가면

또 부글부글해서 나가면 이 국자, 국자로 꼭꼭 눌러 가면 콩 그만 떠버리면 누런 물이. 그 물이 나뉘져 갈라지는 거야. 두부는 두부대로 되고 물은 물대로. 누런 물이 가라앉아 꼭꼭 눌러 가면 이제 불을 꺼버려.)

107083 @ 무신걸?(무얼?)

107083 #1 불을 꺼붙어.(불을 꺼버려.)

107083 @ 아, 불을 꺼붙어.(아, 불을 꺼버려.)

107083 #1 불 켜 두깻 툇 더깬 놔두민 속까지 북삭히게 올라왕 이서. 혼 십 분 놔두민이 짹 차. 그냥 두부가 짹 차. 그때는 이디 영 두부 짜는 하꼬리레 영 포 낵 이걸로 이제 거려놓멍 짱. 또 막 무신 옛날은 그레착이엔 허주. 그레착 행 딱 지들 황 놔두민 물 빠지민 혼 이십 분 빠지민 두부가 뉘여. 그때는 요것만씩 다 비어. 이만씩 비고 요만씩 비민 그자 영영행 두부 멘들멍 또 이만씩 현 것도 비어는 거 영 두 번에 딱 벌렁 두 모만 만들게 헤영, 앓아 텅기기 좋게.(불 꺼서 뚜껑 툇 덮어서 놔두면 속까지 폭신하게 올라와서 있어. 한 십 분 놔두면 짹 차. 그냥 두부가 짹 차. 그때는 여기 이렇게 두부 짜는 상장에 이렇게 포 놔서 이걸로 이제 떠놓으면서 짜서. 또 막 무슨 옛날은 맷돌짝이라고 하지. 맷돌짝 해서 딱 지질러서 놔두면 물 빠지면 한 이십분 빠지면 두부가 돼. 그때는 요것만씩 다 베어. 이만큼씩 베고 요만큼씩 베면 그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부 만들면서 또 이만큼씩 한 것도 베어놓은 거 이렇게 두 번에 딱 벌려서 두 모만 만들게 해서, 가져 다니기 좋게.)

107083 @ 아.(아.)

107083 #1 지 두부만씩 끈지 안허영 그자 요거 기면은 요만씩, 요만씩 현 거더 레 둘에 딱 벌렁, 그릇더레 다 소쿠리더레 다 놔서, 그거 꺾. 짓도.(자기 두부만큼씩 잘라서 안 하고 그저 요거 그거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거에 둘을 딱 갈라서, 그릇에 다 소쿠리에 다 놔서, 그거 끝. 그것도.)

107083 @ 이제 두부보단 흥뽀 땅땅허지예?(이제 두부보다 조금 딱딱하지요?)

107083 #1 맛이 서. 그루 두부가, 우리가 허는 두부가 맛이 서.(맛이 있어. 가루 두부가, 우리가 하는 두부가 맛이 있어.)

107083 @ 응. 콩이 하영 들어가난.(응. 콩이 많이 들어가니까.)

107083 #1 콩도 하영 듬 몰라도 저 이제 마트에 그튼 거 폭는 두분 이것만이 맛었어.(콩도 많이 든 것은 몰라도 저 이제 마트에 같은 거 파는 두분 이것만큼 맛 없어.)

107083 @ 심심해예.(심심해요.)

107083 #1 흐랑흐랑허곡 이건 토랑토랑허곡 씹어가는 냥 베지근해.(흐물흐물하고 이건 단단하고 씹어가는 대로 ‘베지근’해.)

107083 @ 아.(아.)

107083 #1 거든 혼 번 잔치허젠 허민 콩 열 말도 갈곡 으답 말도 갈곡.(그러면 한 번 잔치하려고 하면 콩 열 말도 갈고 여덟 말도 갈고.)

107083 @ 두부헐 걸로예?(두부할 걸로요?)

107083 #1 응, 그때는 경 해야 돼여. 수끼도 하곡 동네사람도 막 동네도 다 담 아들곡.(응,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 식구도 많고 동네사람도 막 동네도 다 달려들 고.)

107083 @ 하하하.(하하하.)

107083 #1 이제는이 그추록 헐 콩이 었어. 이 개인에서 헐 콩이. 저디 멘드는 콩은 무신 콩인지 몰라도 그때는 팔월베 아니민 두부가 맛도 었넌 허곡, 었어. 이젠 그런 콩이 었어. 우리대로 헐 두부 콩이.(이제는 그렇게 할 콩이 없어. 이 개인에서 할 콩이. 저기 만드는 콩은 무슨 콩인지 몰라도 그때는 ‘팔월베’ 아니면 두부가 맛도 없다고 하고, 없어. 이젠 그런 콩이 없어. 우리대로 할 두부 콩이.)

107084 @ 게민 이번엔예 메밀묵. 모뎀썰로 묵혀주예?(그러면 이번엔요 메밀묵. 메밀썰로 묵하지요?)

107084 #1 우린 ㄴ루묵<sup>213</sup>을 안 해뵈.(우린 가루묵을 안 해뵈어.)

107085 @ 청묵<sup>214</sup>?(‘청묵’?)

107085 #1 응, 청묵만 행.(응, ‘청묵’만 해서.)

107085 @ 아, 청묵은 어떻 행 허는 거파?(아, ‘청묵’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85 #1 청묵은 나 허는 디는 혼 관뵈 헐 거믄이 그냥 예를 들엉 아침이 혼 여덥 시쯤에 크면은 혼 시간썸 컷당 우리 먹는 저 저런 밥해 먹는 썸이 요만이만 ㄴ썸 커, 이레.(‘청묵’은 나 하는 데는 한 되 할 거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여덥 시쯤에 크면 한 시간썸 담갔다가 우리 먹는 저 저런 밥해 먹는 썸이 요만큼만 같이 담가, 이리.)

107085 @ 아, 썸도 같이?(아, 썸도 같이?)

107085 #1 응. 해썸만 허영, 이 모뎀.(응. 조금만 해서, 이 메밀.)

107085 @ 아, 모뎀썸이영?(아, 메밀썸이랑?)

107085 #1 모뎀썸을 잘 까지게.(메밀썸이 잘 벗겨지게.)

107085 @ 아.(아.)

107085 #1 팡팡허잖아, 이 우리 밥해 먹는 썸은. 그거 해영 그 찰리에 ㄴ썸 컷당 찰리 담양 놓민 그 모믄이 아니 뿌서지도 안허고 잘 빠져. 게민 두부도, 찜 두부엔 헌다. 묵도 하. 잘 짜민.(단단하잖아, 이 우리 밥해 먹는 썸은. 그거 해서 그 자루에 같이 담갔다가 자루 담아서 놓으면 그 메밀이 안 부서지지도 앓고 잘 빠져. 그러면 두부도, 찜 두부라고 한다. 묵도 많아. 잘 짜면.)

107085 @ 거 어떻 영영?(그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107085 #1 주머니가 이서.(주머니가 있어.)

107085 @ 주머니에 헤근에 막 어떻?(주머니에 해서 마구 어떻게?)

107085 #1 막 놀려, 영영.(마구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213) ‘ㄴ루묵’은 메밀을 갈아서 가루로 쏜 묵이다.

214) ‘청묵’은 물에 불린 메밀을 자루에 담아 짜서 그 물로 쭈어 굳힌 묵이다.

107085 @ 막 놀려. 거 막 힘들던데.(마구 움직여. 그거 막 힘들던데.)

107085 #1 힘들어. 네불만 짜민이 곱닥허게 빠져버려. 이디 꺾데기베핀 엇어, 파랑헌 꺾데기베핀 메밀은.(힘들어. 네벌만 짜면 곱게 빠져버려. 여기 꺾데기밖엔 없어, 파란 꺾데기밖엔 메밀은.)

107085 @ 응.(응.)

107085 #1 게민 그거 이젠 낱 쭈는 거라. 어느 정도로 알루카 허면은 그 막물 짜난 거는이 낱당 알루면은 안 놓고 뒤편은 그 물 또 낱 쭈가민 죽이, 죽이엔 헌다, 목이 딱 맞앙 토랑토랑허여.(그러면 그거 이젠 놔서 쭈는 거야. 어느 정도로 얹을까 하면 그 마지막 쭈던 거는 낱다가 얹으면 안 놓고 뒤편은 그 물 또 놔서 쭈어가면 죽이, 죽이라고 한다, 목이 딱 맞아서 단단해.)

107085 @ 응.(응.)

107085 #1 쟁해 놓민 소금 흥뽀 낱 무신 그릇에 네모난 것에 푹 거렁 놔두민 반듯헿, 톤톤헿 좋주. 이제 아이덜ㄱ라 허렌 허민 허도 안허여. 나 죽어불민 식게헿 때 묵허지 말렌 헿주. 나.(그렇게 해 놓으면 소금 조금 놔서 무슨 그릇에 네모난 것에 푹 떠서 놔두면 반듯해서, 단단해서 좋지. 이제 아이들보고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아. 나 죽어버리면 제사할 때 묵허지 말라고 헿지.)

107085 @ 난 사당 헿니다. 사당, 그냥 마트에 파는 묵 그거 사당. 우리 시어머니도 그거에 다 옛날에 문데겨근에 허드라고마씨. 난 못 허켄, 난 못 허कु다 헿.(난 사다가 헿니다. 사다가, 그냥 마트에 파는 묵 그거 사다가. 우리 시어머니도 그거요 다 옛날에 문대서 하더라고요. 난 못 하겠다고, 못 하겠습니까고 해서.)

107085 #1 잘헿저.(잘헿다.)

107085 @ 쟁 그냥 사당 허कु다 헿.(그래서 그냥 사다가 하겠습니까고 해서.)

107085 #1 쟁허민이 혼 뒤편 주민 막 하. 잘 놀려불민 이걸 잘 놀리민. 두루 놀리민 묵도 죽고 이거를이 썰을 요멘이만 낱 ㄱ찌 컷당 밀민이 썰ㄱ루도 이서부난 썰도 푸닥진 거니까 진기도 이서이. 거 흥뽀 질기는 거. 헤싸지는 것도. 그 토랑토랑.(그러면 한 되 주면 아주 많아. 잘 움직이면 이걸 잘 움직이면. 덜 움직이면 묵도 적고 이거를 썰을 요만큼만 놔서 같이 컷다가 밀면 쌀가루도 있어버리니까 썰도 끈적한 거니까 진기도 있어. 그거 조금 질긴 거. 갈라지는 것도. 그 ‘토랑토랑’.)

107085 @ 아, 흥뽀 덜 헤싸져.(아, 조금 덜 갈라져.)

107085 #1 응, 토랑져.(응, 단단해.)

107085 @ 이 젓는 것도 한 방향으로만 저어야 된다고.(이 젓는 것도 한 방향으로 저어야 된다고.)

107085 #1 아니, 아무렇게라도.(아니, 아무렇게라도.)

107085 @ 아니.(아니.)

107085 #1 젓임도 잘 젓어야 놀지 안허지.(젓기도 잘 저어야 놀지 않지.)

107085 @ 흥뽀 놀어불민 탄내 낭예.(조금 놀어버리면 탄내 나세요.)

107085 #1 탄내 날 거 아니고 것이이 우선 막 웰 동안은이 계속 젓어줘야 뒤편.

그자 흠뿔만 영 젓당 네불민 아랜 튼튼하고 우인 물이 출랑출랑허민은 안 돼고, 그 냥. 그 물 출랑출랑힐 동안은 동드레 젓억, 서드레 젓억 걸 잘 젓어 쥘 풀풀헌 때는 그뻔 흠뿔 어깨도 쉬꼭 영 잔잔히 젓어주민 돼여.(탄내 날 거 아니고 그것이 우선 막 될 동안은 계속 저어줘야 돼. 그저 조금만 이렇게 젓다가 내버리면 아래는 단단 하고 위에는 물이 출렁출렁하면 안 되고, 그냥. 그 물 출렁출렁할 동안은 동쪽을 젓 고, 서쪽으로 젓고 그걸 잘 저서 줘서 풀기가 생길 때는 그뻔 조금 어깨도 쉬고 이 렇게 천천히 저어주면 돼.)

107084 @ 하하하. 그믐 ㄱ루묵은 이디서 안합니까?(하하하. 그러면 가루묵은 여 기서 안합니까?)

107084 #1 우린 ㄱ루묵 안 해봤어.(우린 가루묵 안 해봤어.)

107084 @ ㄱ루묵 안 해봤어. ㄱ루로도 묵 청묵, 아니 모믈묵 허긴 허지예?(가루 묵 안 해봤어. 가루로도 묵 ‘청묵’, 아니 메밀묵 하긴 하지요?)

107084 #1 시집 완 보난이 시어멍이 그 꺼멍헌 솟디서이 그 메밀ㄱ를 난 막 젓 어. 막 젓어난 쑤언에 이젠 다라에 그때는 다라도 아니고 도고리.(시집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까만 술에서 그 메밀가루를 놔서 마구 저어. 막 저어놔서 쑤어서 이 젼 대야에 그때는 대야도 아니고 함지박.)

107084 @ 응, 도고리. 낭도고리에.(응, 함지박. 나무함지박요.)

107084 #1 남도고리 요만헌 것에 거런게 튼튼허난 요만씩 끈어내언 적힐 땐 보 난 꼭 요만씩이 요만씩 요만씩 끈언 고지에 꿰연.(나무함지박 요만한 것에 떠서 단 단하니까 요만큼씩 잘라내서 산적할 땐 보니까 꼭 요만큼씩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 라서 꼬치에 끼워.)

107084 @ 목적?(목산적?)

107084 #1 응, 목적. 꿰연에 찹지름에 장물에 꿰터럭 이만인 헌 거헨 이젠 적지 멍 돌, 그뻔 돌화리 이서.(응, 목산적. 끼워서 찹지름에 장물에 꿰털 이만큼 한 거라 고 해서 이젠 적시면서 돌, 그뻔 돌화루 있어.)

107084 @ 예.(예.)

107084 #1 돌화리에 적쇄도 엇어. 그 쇠 이만씩 헌 적쇄가 이서. 그런 적쇄 이 만이 헌 거 돌화리에 걸쳐지는 거 영 걸친 헌디 장물을 술술술 데싸냥도 불르고 노 다쌍도. 그 꺾데기가 칸 것이 노릿노릿허게이 보글보글 올라와이.(돌화로에 석쇠도 없어. 그 쇠 이만큼씩 한 석쇠가 있어. 그런 석회 이만큼 한 거 돌화로에 걸쳐지는 거 이렇게 걸쳐서 한데 간장을 술술술 뒤집어놔서도 바르고 바르게 놔서도. 그 꺾 데기가 탄 것이 노릿노릿하게 보글보글 올라와.)

107084 @ 응.(응.)

107084 #1 경헌 거 그거 그때 나 혼 번 봐 닳어, 거는.(그런 거 그거 그때 나 한 번 봤었어.)

107084 @ 아.(아.)

107084 #1 돌화리에. 돌화리도 일로 이만큼은 헌 화리, 영 술랑헌 거, 경허민 솟

으로, 숯 낱.(돌화로에. 돌화로도 이리로 이만큼은 한화로, 이렇게 기름한 거, 그러면 숯으로, 숯 놔서.)

107084 @ 응. 할머니가 헐 땀 그런 거 안 해봤구나예?(응. 할머니가 할 땀 그런 거 안 해봤군요?)

107084 난 안 해봤. 겨고 또 젊은 때난산디 청묵이 좋주이 가루묵은 안 좋아 베여.(난 안 해봤어. 그리고 또 젊은 때니까인지 ‘청묵’이 좋지 가루묵은 안 좋아 보여.)

107084 @ 나도 청묵이 좋더라.(나도 ‘청묵’이 좋더라.)

107084 #1 응, 청묵이 좋아 베여. 가루묵은 아니 해봤.(응, ‘청묵’이 좋아 보여. 가루묵은 안 해봤어.)

107086 @ 그다음에는 개역.(그다음에는 미숫가루.)

107086 #1 아이고, 개역도 기계에 강 허는디 이 오월 장마 저가문이 보리 2실허 당 이젠 쉬는 브름에 이젠 그냥 숯강알에 강 지들커 또 마 저불민 막 젖엉 허지 못 허는디 그 보리 보깁. 부엌에서이, 정지.(아이고, 미숫가루도 기계에 가서 하는데 이 오월 장마 저가면 보리장만하다가 이젠 쉬는 바람에 이젠 그냥 술 아래에 가서 땀 감 또 장마 저버리면 아주 젖어서 하지 못하는데 그 보리 볶아서. 부엌에서, 부엌.)

107086 @ 응, 정지서.(응, 부엌에서.)

107086 #1 정지서 2랫방석에 도고리도 아니 2랫방석에서 거 골명 체로 치명 또 주시는 또 그 2레에 낱 영영 골명.(부엌에서 2랫방석에 함지박도 아니 2랫방석에서 그거 갈면서 체로 치면서 또 찌꺼기는 또 그 2트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갈면서.)

107086 @ 흔 번 더 골곡?(한 번 더 갈고?)

107086 #1 응, 2트 번 곱아. 2트 번 곱앙 그 아랫 건, 이젠 개역만이 안 돼여.(응, 2트 번 곱아. 2트 번 곱아서 그 아래 건, 이제 미숫가루만큼 안 돼.)

107086 @ 응.(응.)

107086 #1 훑으고 아명 찢다 해도이.(굽고 아무리 찢는다고 해도.)

107086 @ 아, 보리로?(아, 보리로?)

107086 #1 응, 보리 살오리로.(응, 보리 쌀보리로.)

107086 @ 살오리로. 경혜근에 후라이판, 아니 숯디서.(쌀보리로. 그래서 프라이팬, 아니 솥에서.)

107086 #1 보까.(볶아.)

107086 @ 보까.(볶아.)

107086 #1 보깁 작박으로 박박 굽어. 작박이엔 현 거 요만은 현 작박으로 박박 굽엉 이레 농곡 이레 농곡 허영 또. 굽어땡 또 낱 비치락 씨던 몽그레기 요만이 현 거 낱 그걸로 막 젖이곡 허당 또 보끄젠 허민 잘 보까지도 안허여. 경해도 굽게 보까지질 안허여. 아명 잘허노렌 해도.(볶아서 쪽박으로 박박 굽어. 쪽박이라고 한 거 요만큼은 한 쪽박으로 박박 굽어서 이리 놓고 이리 놓고 해서 또. 굽어두고 또 놔

서 빗자루 쓰던 모지랑이 요만 한 거 놔서 그걸로 막 젓고 하다가 또 볍으려고 하면 잘 볍아지지도 않아. 그래도 곱게 볍아지지도 않아. 아무리 잘하노라고 해도.)

107086 @ 응.(응.)

107086 #1 그거 행 푸는체로 그 보리 껍데기도 하나씩 신 거 문 퍼뒤근에 그뎨 그레에 곴아. 그레에 곴멍 치멍 주신 또 우이 낱 또 곴멍.(그거 해서 키로 그 보리 껍데기도 하나씩 있는 거 모두 퍼두고 그뎨 맷돌에 곴아. 맷돌에 곴면서 치면서 찌꺼긴 또 위에 놔서 또 곴면서.)

107086 @ 예, 주시를 또 곴아?(예, 찌꺼기를 또 곴아?)

107086 #1 또 곴아. 흔꺼번에 줌질이 복작 못 곴아지지. 정혜불민 또 영영 곴단 쳐단 우이 거는 또 곴고.(또 곴아. 한꺼번에 잘게 ‘복작’ 못 곴지.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이렇게 이렇게 곴다가 쳐다가 위의 것은 또 곴고.)

107086 @ 또 곴고. 경헨 그 가루를 솟디 놔근에 영 보끄민 그게 개역이구나예? (또 곴고. 그렇게 해서 그 가루를 술에 놔서 이렇게 볍으면 그게 미숫가루군요?)

107086 #1 보리 그 보끈 곴 곴민.(보리 그 볍은 곴 곴면.)

107086 @ 아, 보리 보깡 그다음 또 곴아.(아, 보리 볍아서 그다음 또 곴아.)

107086 #1 보깡 곤 거지, 보깡. 보까낱 곴지, 그루론 못 보끄지, 옛날도.(볶아서 곤 거지, 볍아서. 볍아놔서 곴지, 가루로는 못 볍지, 옛날도.)

107086 @ 아. 보리부터, 젤 처음 다시 보리를.(아. 보리부터, 젤 처음 다시 보리를.)

107086 #1 보깡, 파삭 들렁.(볶아서, 바삭 말려서.)

107086 @ 보까.(볶아.)

107086 #1 그때 허젠 허민이 보리를 춘물에 강 씻어와. 발렘으로.(그때 하려고 하면 보리를 찼물에 가서 씻어와. 바래는 것으로.)

107086 @ 바당에 강?(바다에 가서?)

107086 #1 응, 춘물에 강 씻영이 바삭 들렷당 장마 지면은 곴 솟디 낱 흔 작박이 요거민 반 작박 더 낱 솟디서 보끄민 잘 튼텐.(응, 찼물에 가서 씻어서 바삭 말렸다가 장마 지면 그걸 술에 놔서 한 쪽박이 요거면 반 쪽박 더 놔서 술에서 볍으면 잘 튼다고.)

107086 @ 예.(예.)

107086 #1 그 보까지지 안허젠 허영케 잘 튼텐 춘물에 발렘헨 헤여. 경헨 발렘왕 보까낱 이젠 돌그레에 그는 거라. 흔 말쑼 보끄민 다 보까놔사 돌그레에서 둘이 가 앓앙 그찌 곴아.(그 볍아지지도 앓으려고 하얏게 잘 튼다고 찼물에 바렌다고 해. 그래서 바래어서 볍아놔서 이젠 돌맷돌에 가는 거야. 한 말쑼 볍으면 다 볍아놔야 돌맷돌에서 둘이 앓아서 곴이 곴아.)

107086 @ 응.(응.)

107086 #1 다 곴아 놓민 이젠 쳐가멍 또 주시 나민 또 곴고 게민 것이 개역.(다 곴아 놓으면 이젠 찌가면서 또 찌꺼기 나면 또 곴고 그러면 그것이 미숫가루.)

107086 @ 것이 개역.(그것이 미숫가루.)

107086 #1 계민 그때는 우리 할 때도 거 설탕이 아니고 사각린, 사각린 낱 골 아.(그러면 그때는 우리 할 때도 그것 설탕이 아니고 사카린, 사카린 놔서 갈아.)

107086 @ 아, 골 때 ㄱ찌 놔. 햏썸 들렌.(아, 갈 때 같이 놔. 조금 달라고.)

107086 #1 어느 정도 ㄱ 맞게. 설탕 놓고 소금도 낱, ㄱ찌 낱 ㄱ루에 골아불고. (어느 정도 ㄱ 맞게. 설탕 놓고 소금도 놔서, 같이 놔서 가루에 갈아버리고.)

107086 @ 혹시 콩으로도 헉니까, 개역은? 보리로만 헉니까?(혹시 콩으로도 헉니까, 미숫가루는? 보리로만 헉니까?)

107086 #1 콩 들어야 개역이 맛있주. 쿠셔. 이제도 개역에 콩 놔사 맛이 서.(콩 들어가야 미숫가루가 맛있지. 고소해. 이제도 미숫가루에 콩 놔야 맛이 있어.)

107086 @ 거른 서꺼? 보리영 콩이영 서꺼.(그러면 섞어? 보리랑 통이랑 섞어.)

107086 #1 응, 서경 골아. 그때는 ㄱ레베피 안 ㄱ니까게 서경 베피 못 골지. 이제는 토티로 골앙 ㄱ루 허꺼도 돼는디.(응, 섞어서 갈아. 그때는 맷돌밖에 안 가니까 섞어서 밖에 못 갈지. 이제는 따로 갈아서 가루 섞어도 되는데.)

107086 @ 그른 보리영 콩이영 서꺼근에 갈아가지고 개역을 만드는 거구나예.(그러면 보리랑 콩이랑 섞어서 갈아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드는 거군요.)

107086 #1 불쌍허게시리.(불쌍하게끔.)

107086 @ 개역은 언제 먹는 거짜?(미숫가루는 언제 먹는 겁니까?)

107086 #1 그냥 허멍 허는 즉시 먹어. 보리밥에 그 ㄱ루 낱 막 부병 맛 좋게 먹는 거. 것이 막 맛.(그냥 하면서 하는 즉시 먹어. 보리밥에 그 가루 놔서 막 비벼서 맛 좋게 먹는 거. 그것이 막 맛.)

107086 @ 보리밥에 개역을 낱 부병 먹어. 물 타근에 영.(보리밥에 미숫가루를 막 비벼서 먹어. 물 타서 이렇게.)

107086 #1 물 탕도 먹곡. 밧디 갈 때는 물에 타근에 그냥 사발에 탕 혼 사발 확 먹으면 배도 분덴 허멍 밧디 갈 때도 개역 앳앙 가고 물이영 강 물에 타먹젠.(물 타서도 먹고. 밧에 갈 때는 물에 타서 그냥 사발에 타서 한 사발 확 먹으면 배도 부른다고 하면서 밧에 갈 때도 미숫가루 가져서 가고 물이랑 가서 물에 타 먹으려고.)

107086 @ 우리 옛날에 그릇에 물 햏썸만 놔근에 영영 굶으명도 먹어나신디.(우리 옛날에 그릇에 물 조금만 놔서 이렇게 이렇게 굶으면서도 먹었었는데.)

107086 #1 ㄱ루 이디 시민 물 햏썸 놓민 우이 것만 물 해영 먹어동 또 아래 ㄱ루대로 이서이.(가루 여기 있으면 물 조금 놓으면 위의 것만 물 해서 먹어두고 또 아래 가루대로 있어.)

107086 @ 예.(예.)

107086 #1 ㄱ루대로 막 먹당 나머진 또 밥 부레기 ㄱ치 스락스락 현 건 또 그대로 먹고.(가루대로 막 먹다가 나머지 또 밥 ‘부레기’처럼 사락사락한 건 또 그대로 먹고.)

107086 @ 예.(예.)



107086 #1 옛날엔 그렇게.(옛날엔 그렇게.)

107086 @ 또 우리 어릴 땐 이런 거 종이에다가예, 여기 개역 담아근에 다니명도 먹고 막 경해나신디.(또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종이에다가요, 여기 미숫가루 담아서 다니면서도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107086 #1 장난, 장난으로 아이덜.(장난, 장난으로 아이들.)

107087 @ 잔치 때나 이런 때 지지미도 해놔수과?(잔치 때나 이런 때 부침개도 했었습니까?)

107087 #1 지지미도 허긴 해놔지. 그냥 밀가루로게. 경헌디 무신 하간 거 다 쳐놔 허지 안허여, 그냥. 지지미여 무시거여 헛자게 벨로. 옛날사 순대허고 두부허고 이 고기 석 점만 놓민 잔치라.(부침개도 하긴 했었지. 그냥 밀가루로. 그런데 무슨 온갖 거 다 쳐 놔서 하지 않아, 그냥. 부침개다 뭐다 해도 별로. 옛날이야 순대하고 두부하고 고기 석 점만 놓으면 잔치야.)

107087 @ 응.(응.)

107087 #1 고기 요만씩 헌 거 세 갠 돼, 접시에 가는 거. 혼 사름 직시가이. 순대 혼 점 놓고 두부 혼 점 놓민 것이 잔치. 그디 또 메밀가루로나이 요만한 전 지정.(고기 요만큼씩 한 거 세 개 되, 접시에 가는 거. 한 사람 몫이. 순대 한 점 놓고 두부 한 점 놓으면 그것이 잔치. 거기 또 메밀가루로나 요만한 전 지저서.)

107087 @ 응.(응.)

107087 #1 전 지정 그레 톡 놓민.(전 지저서 그리 톡 놓으면.)

107087 @ 메밀가루로?(메밀가루로?)

107087 #1 응. 전을 지저, 걸로.(응. 전을 지저, 그걸로.)

107087 @ 아, 아까 식게힐 때 계란 전.(아, 아까 제사할 때 계란전.)

107087 #1 계란전도 허주게.(계란전도 하지.)

107087 @ 계란전은 어떻?(계란전은 어떻게?)

107087 #1 건 적갈 우이 놓지.(그건 산적 위에 놓지.)

107087 @ 응.(응.)

107087 #1 계란은.(계란은.)

107087 @ 그 우이, 속에 뭐 놓니까? 고사리?(그 위에, 속에 뭐 놓니까? 고사리?)

107087 #1 고사리도 놓곡, 파 이파리도 놓고.(고사리도 놓고, 파 이파리도 놓고.)

107087 @ 아, 옛날에도 쪽파도 놔놔수과?(아, 옛날에도 쪽파도 놔놔습니까?)

107087 #1 고사리만 놔.(고사리만 놔.)

107087 @ 옛날엔 고사리만.(옛날엔 고사리만.)

107087 #1 이제ㄴ찌 영, 영 놓도 안허여. 고사리도 놓민 뱅뱅.(이제처럼 이렇게, 이렇게 놓지도 않아. 고사리도 놓으면 뱅뱅.)

107087 @ 예, 거난.(예, 그러니까.)

107087 #1 계란 하나민이 계란, 그거 전이 멧 개 지지나, 다섯 개 지저저. 다섯

개 지지면 잘못 지졌젠, 족게 지졌젠.(계란 하나면 계란, 그거 전에 몇 개 지지거나, 다섯 개 지졌어. 다섯 개 지지면 잘못 지졌다고, 적게 지졌다고.)

107087 @ 그믐 뗏 개?(그럼 몇 개?)

107087 #1 거난게 우린 경 하영 못허영. 요만씩 지저도 다섯 개베끼 못 지저. 이제는 이만씩 계란도 지지는다.(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많이 못해서. 요만큼씩 지저도 다섯 개밖에 못 지저. 이제는 이만큼씩 계란도 지지는데.)

107087 @ 그거 계란전이엔 험니까, 정기엔 험니까?(그거 계란전이라고 험니까, '정기'라고 험니까?)

107087 #1 정기, 정기. 계란정기.(‘정기’, ‘정기’. ‘계란정기’.)

107087 @ 계란정기. 그거 식게할 때 꼭 해야 되는 거지예?(‘계란정기’. 그거 제사할 때 꼭 해야 되는 거지요?)

107087 #1 꼭 해여. 이제나 저제나 건 꼭 허는 생이라. 거는이 어른 곧는 거 보난 건이 제사 먹으려 오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포따리레. 그것이 전이. 그 포따리 커사 포따리 할망덜 하르방덜 반앙 갈 거엔 경 곶아, 경 곶아. 그걸 보아신디 말아신디 몰라도.(꼭 해. 이제나 저제나 그건 꼭 하는 모양이야. 그거는 어른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건 제사 먹으려 오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보자기래. 그것이 전이. 그 보자기 커야 보자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받아서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해. 그걸 봤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107087 @ 봐 집니까게? 쌍 가는 줄 어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싸서 가는 줄 어떻게 알아.)

107087 #1 할망덜 산 때 곧는 거 포따리엔. 이제도 우리 조케넨 허민 고모님 이거 포따리라부난양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쌍 갈 거. 커야 돼여, 커야 돼여 허멍. 전도 니 귀 문착허게 영 크게 지저.(할머니들 산 때 말하는 거 보자기엔. 이제도 우리 조카네는 하먼 고모님 이거 보자기라서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싸서 갈러. 커야 돼, 커야 돼 하면서. 전도 네 귀 ‘문착’하게 이렇게 크게 지저.)

107088 @ 하하하. 이제는 옛날에 술 해난 거예, 오메기술 해납디가?(하하하. 이제는 옛날에 술 했던 거요, 오메기술 했었습니까?)

107088 #1 우린 술은 안 해났어.(우린 술은 안 했었어.)

107088 @ 안 해난.(안 했었어.)

107088 #1 우리 시대는 술 헛자, 두려부난. 허는 건 영 대강은 봐신디 술 만들어 보진 안허연, 우리 그런 거.(우리 시대는 술 해도, 어려버리니까. 하는 건 이렇게 대강 봤었는데 술 만들어 보지는 않았어, 우리 그런 거.)

107088 @ 응, 만들어 보진 안헐. 집에서 옛날에 만들어근에 잔치도 허고 해났덴 헨게만은.(응, 만들어 보지는 않았어. 집에서 옛날에 만들어서 잔치도 하고 했었다고 하던데만은.)

107088 #1 응, 집에서 만들앙 해신디, 우린 그런 거는 몰르주.(응, 집에서 만들어서 했었는데, 우린 그런 거는 모르지.)

107088 @ 아, 할머니 어렸을 때라부난.(아, 할머니 어렸을 때라서.)

107088 #1 술허는 집이 강 마창이.(술하는 집이 가서 맞춰서.)

107088 @ 아, 술허는 집이 강 마창.(아, 술하는 집에 가서 맞춰서.)

107088 #1 혼 허벅이 마주켜, 대바지가 이서, 허벅 다음에 거 대바지라이.(한 동이 맞추겠다, 작은 동이가 있어, 동이 다음에 것 작은 동이야.)

107088 @ 응.(응.)

107088 #1 그 멧 돼, 멧 꿩 드는 대바지 헤영 그걸로 줍센 헤영 앓이당 잔치허고.(그 멧 돼, 멧 병 드는 작은 동이 해서 그걸로 주라고 해서 가져다가 잔치하고.)

107088 @ 잔치허젠 허민 술은 게민 열만이나 헤사 돼는 거라?(잔치하려고 하면 술은 그러면 열만쯤이나 해야 되는 거야?)

107088 #1 거 뭐 사름, 그 집이 집안에 뭘 테주, 소님에 메고, 건. 거난 두량 못헤. 우리집이 셋아덜 풀젠 허난 맥주 스물세 박스 앓아다 낱 먹듯이 먹는 건 혼을 못헤.(그거 뭐 사람, 그 집에 집안에 따르겠지, 손님에 따르고, 그건. 그러니까 측정 못헤. 우리 집에 둘째아들 팔려고 하니까 맥주 스물세 박스 가져다 와서 먹듯이 먹는 건 한을 못헤.)

107088 @ 게난예. 그 옛날에 술은 춘이에.(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술은 술동이에.)

107088 #1 술춘.(술동이.)

107088 @ 술춘.(술동이.)

107088 #1 춘이 정 황당허게 잊지 안허주. 허벅이도이 육깃 옹기 님은 걸로 만든 허베기가 이서. 그거, 그거주. 춘은 잊기야 잊지. 건 멧 돼사 드는 거사 몰라도. 요 부레긴 현 거 요 높인 현 거 이서. 이제 우리 옥상에도 이서.(술동이 그렇게 황당하게 잊지 않아. 동이도 육지 옹기 같은 걸로 만든 동이가 있어. 그거, 그거지. 술동이는 잊기야 잊지. 그건 멧 돼야 드는 건지 몰라도. 요 부피 한 거 요 높인 한 거 있어. 이제 우리 옥상에도 있어.)

107088 @ 옛날에 거?(옛날에 거?)

107088 #1 응. 춘이. 겐디.(응. 술동이. 그런데.)

107088 @ 춘이?(술동이?)

107088 #1 응, 영 흥쎄 영 주둥이만 이 바우만 달라져빚지, 춘이 이서.(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둥이만 이 가장자리만 잘라내 버렸지, 술동이 있어.)

107088 @ 가명 봐사켜.(가면서 봐야겠어.)

107088 #1 들러 가불젠?(들고 가버리려고?)

107088 @ 아니 보젠, 보젠. 사진만 찍젠.(아니 보려고, 보려고. 사진만 찍으려고.)

107088 #1 경헌디 것이 영 들르는 코가 요만큼은 현 건디 코도 털어볼고 그 속에 뭐 담젠 곱닥허게 영 바우를 달라붙었어. 춘이니까 요만현 건디 술 놓는 거니까.(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드는 코가 요만큼은 한 건데 코도 떨어져 버리고 그 속에

뭐 담으려고 곱게 이렇게 가장자리를 잘라내 버렸어. 술동이니까 요만한 건데 술 놓는 거니까.)

107088 @ 예.(예.)

107088 #1 이젠 술덜 안허고들 어른덜 쓰단 거난 요만인 달라분 거라. 곱닥허게 향아리ㄱ찌 씨젠.(이젠 술들 안하고들 어른들 쓰던 거니까 요만큼 잘라내 버린 거야. 곱게 향아리터럼 쓰려고.)

107088 @ 응, 향아리로 쓰젠.(응, 향아리로 쓰려고.)

107088 #1 거 있어. 우리.(그거 있어. 우리.)

107088 @ 한 번도 안 봐난마씨. 옛날에 담아놔젠 헐게만은. 겐 술은 집에서 안 담가나고예.(한 번도 안 봤었는데요. 옛날에 담았었다고 하던데만은. 그래서 술은 집에서 안 담갔었고요.)

107089 @ 쉼다린 담가나실 거 아니, 헐나실 거 아니?('쉼다리'는 담갔었을 거 아니, 했었을 거 아니?)

107089 #1 밥 쉬민 쉼다리주게. 밥 쉬민 쉼다리 해근앵에.(밥 쉬면 '쉼다리'지. 밥 쉬면 '쉼다리' 해서.)

107089 @ 밥 쉬민 그거 무시거 봐 ㄱ치?(밥 쉬면 그거 뭐 봐 같이?)

107089 #1 개역이라도 놓민 돼고이 아무 ㄱ루라도 놓민 복삭이 올라와이. 또 누룩이 시민 종주만은 누룩 안 해도 돼여. 이 개역이라도 놓민 복삭허게 올라놔이. 새콤들콤허여이. 새콤들콤허민 생차 먹으면 배 아픈텐 저 솟디 낱 삶아. 혼불 삶앙 먹어.(미숫가루라도 놓으면 되고 아무 가루라도 놓으면 폭신하게 올라와. 또 누룩이 있으면 좋지만 누룩 안 해도 돼. 이 미숫가루라도 놓으면 폭신하게 올라와서. 새콤달콤해. 새콤달콤하면 생채 먹으면 배 아픈다고 저 술에 놔서 삶아. 한벌 삶아서 먹어.)

107089 @ 응. 밥 먹당 막 남아서예, 그믄 그걸 어떻 해여, 물려?(응. 밥 먹다가 막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말려?)

107089 #1 쉬어, 쉬어. 쉬면은 걸로 쉼다리 멘들아.(쉬어, 쉬어. 쉬면 그걸로 '쉼다리' 만들어.)

107089 @ 어떻 멘들아? 밥이 쉬엇어.(어떻게 만들어? 밥이 쉬었어.)

107089 #1 밥이 쉼 것더레 ㄱ를 흥끔 영 놔두민 복삭허게 올라와, 궤영.(밥 쉼 것에 가루를 조금 이렇게 놔두면 폭신하게 올라와, 궤어서.)

107089 @ 응, 궤영 올라오민.(응, 궤어서 올라오면.)

107089 #1 경허민 영 줍아 먹어보민 들크름해.(그러면 이렇게 집어 먹어보면 달콤해.)

107089 @ 예, 그믄 그다음에 끌려?(예, 그러면 그다음에 끓여?)

107089 #1 끌령을 먹든지 생찰 먹든지 해.(끓여서 먹든지 생채 먹든지 해.)

107089 @ 물은 어디 서?(물은 어디 있어?)

107089 #1 밥 녹아가민 물이 돼여. 물 쪼끔 놓민.(밥 녹아가면 물이 돼. 물 조금

만 놓으면.)

107089 @ 물도 흐썸 그레 비웁니까?(물도 조금 그리 비웁니까?)

107089 #1 응, 물도 쪼썸 놓민 밥이, 찜 저 쉰다리가 돼여.(응, 물도 조금 놓으면 밥이, 찜 저 ‘쉰다리’가 돼.)

107089 @ 쉰다린 나 먹은 건 무슨 물만.(‘쉰다리’는 나 먹은 건 무슨 물만.)

107089 #1 물만 잊지. 거 늘려부니까. 하영 만들젠 물을 하영 놔부니까. 옛날 보리밥에는이 물 흐썸만 놓고 하민 한 대로, 밥이 하민 한 대로 물을, 밥에 맞게 물 놔시킬 테주. 흐썸 놓면은 아무 그루나 누룩이라도 요만큼만 누룩 그루 행 영 놔불민 북삭이 올라와.(물만 잊지. 그거 늘려버리니까. 많이 만들려고 물을 많이 놔버리니까. 옛날 보리밥에는 물 조금만 놓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물을, 밥에 맞게 물 놔쥬지. 조금 놓으면 아무 가루나 누룩이라도 요만큼만 누루 가루 해서 이렇게 놔버리면 폭신하게 올라와.)

107089 @ 아. 누룩은 사당 허는 거?(아. 누룩은 사다가 하는 거?)

107089 #1 그때는 썬는 디가 잊어.(그때는 파는 데가 없어.)

107089 @ 그믐 어떻 해, 누룩은?(그럼 어떻게 해, 누룩은?)

107089 #1 이녁 집이서덜 어디 동네서덜 허민 빌어당도 허곡이. 또 골.(자기 집에서들 어디 동네서들 하면 빌려서도 하고. 또 엿기름.)

107089 @ 응.(응.)

107089 #1 골 잊지. 골 그루 놓민 더 좋아, 쉰다리. 더 돌아.(엿기름 잊지. 엿기름 가루 놓으면 더 좋아, ‘쉰다리’. 더 달아.)

107089 @ 보릿골?(보리 엿기름?)

107089 #1 골. 응, 보리 그루로. 골이 이서.(엿기름. 응, 보리 가루로. 엿기름이 있어.)

107089 @ 건 어떻 내는 거파?(그건 어떻게 내는 겁니까?)

107089 #1 맥주맥, 옛날은 것보리엔 허여이. 그 것보리가이 옛날엔 엿을 만들젠 허민 썬엿이고 득엿이고 만들젠 허민 골을이 큰 도고리에 낵이, 도고리나 향아리에 낵이 보릴 물 적지명 순을 내와. 발도 박삭허게 나고 순도 요만씩 뽕족뽕족 나.(맥주보리, 옛날은 겉보리라고 해서. 그 겉보리가 옛날엔 엿을 만들려고 하면 썬엿이고 닭엿이고 만들려고 하면 엿기름을 큰 함지박에 놔서, 함지박이나 향아리에 놔서 보리를 물 적시면서 순을 내워. 발도 박삭하게 나고 순도 요만큼씩 뽕족뽕족 나.)

107089 @ 응.(응.)

107089 #1 그때는 막 혼 덩어리 저불어, 그 발덜 엉크러정. 거민 저추룩헌 벳디 낵 문 찢어.(그때는 막 한 덩어리 저버려, 그 발들 엉클어져서. 그러면 저렇게한 벌에 놔서 모두 찢어.)

107089 @ 응.(응.)

107089 #1 그 발도 다 동그려지고 순 요멘씩 난 것도 몰라가민 다 털어지민 돌 쿳레라도 골아이. 걸 엿을 만들젠 허민 그거 놔사 엿이 돼여.(그 발도 다 잘라지고

순 요만큼씩 난 것도 말라가면 다 떨어지면 돌멩이이라도 같아. 그걸 엿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 봐야 엿이 돼.)

107089 @ 그게 골예?(그게 엿기름요?)

107089 #1 그것이 골. 그것이 엿.(그것이 엿기름. 그것이 엿.)

107089 @ 그른 그걸로 아까 저 쉼다리에.(그럼 그걸로 아까 저 ‘쉼다리’에.)

107089 #1 쉼다리로 건 하영 안 해. 쪼끔 봐도 보글보글행 들고.(‘쉼다리’도 그건 많이 안 해. 조금 봐도 보글보글해서 달고.)

107089 @ 아.(아.)

107089 #1 엿날 엿 멘들젠 허민 그놈으 골이 주장 삼았주게. 골은 잘 봐. 하간 집이덜, 엿할 때. 엿날 영양제가 엿배피 엿었어. 허영 먹을 것이.(엿날 엿 만들려고 하면 그놈의 엿기름을 주로 삼았지. 엿기름은 잘 봐. 온갖 집들, 엿할 때. 엿날 영양제가 엿밖에 없었어. 해서 먹을 것이.)

107091 @ 게민 엿은 어떤 엿, 어떤 엿 행 먹어놔수과?(그러면 엿은 어떤 엿, 어떤 엿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91 #1 줍쌀 주로, 거멍헌 줍쌀.(줍쌀 주로, 거먼 줍쌀.)

107091 @ 응, 꺼먼 줍쌀허고.(응, 까만 줍쌀하고.)

107091 #1 누룩허고.(누룩하고.)

107091 @ 누룩허고.(누룩하고.)

107091 #1 그거뿐.(그거뿐.)

107091 @ 아, 그것만 해?(아, 그것만 해?)

107091 #1 응. 돼지고길 낱 허쟁 해도 그걸로 해엿당 밥해낱 그 곧 골아져라. 저, 뭐냐. 에 곧 골아된 잇어부러졌저.(응. 돼지고길 놔서 하려고 해도 그걸 했다가 밥해놔서 그 곧 말해지던데. 저, 뭐냐. 에 곧 말해두고 잇어버렸어.)

107091 @ 도새기궤기?(돼지고기?)

107091 #1 아니.(아니.)

107091 @ 누룩?(누룩?)

107091 #1 누룩. 누룩이 아니고.(누룩. 누룩이 아니고.)

107091 @ 골.(엿기름.)

107091 #1 골. 골ㄱ를 놓면은 가르르헤여, 것이. 막 물 웨여와, 얼른.(엿기름. 엿기름 가루를 놓으면 ‘가르르’해, 그것이. 막 물 되어, 얼른.)

107091 @ 아.(아.)

107091 #1 밥허영이 영 영 그자 영 영 ㅼ듯 막 세게 젓일 정도로 밥을 허영 막 밥을 익게 허영 물 낱 영 남죽으로 영 젓일 정도로 낱 영 손 등가보민 바싹 때불민 안 웨여이.(밥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저 이렇게 이렇게 빠듯 막 세게 저을 정도로 밥을 해서 막 밥을 익게 해서 물 놔서 이렇게 죽젓개로 이렇게 저을 정도로 놔서 이렇게 손 담가보면 ‘바싹’ 뜨거워서 안 돼.)

107091 @ 응.(응.)

107091 #1 골이 익어불어.(엿기름이 익어버려.)

107091 @ 아.(아.)

107091 #1 영 손 디물러뵈 뎡지롱허민 그 ㄴ루를 뵈 영영 젓어가민 게끔이 부글락부글락해. 게민영행 더경 놔두민 어디 흐끔 요디 갓당 왕 보민이 물은 우이 동그랑이 땡이 그 밥이 쑥 글라앗아.(이렇게 손 들이밀어봐서 따듯하면 그 가루를 놔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가면 거품이 부글부글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덮어서 놔두면 어디 조금 요기 갔다 와서 보면 물은 위에 동그랑게 떠서 그 밥이 쑥 가라앗아.)

107091 @ 응.(응.)

107091 #1 글라앗앙 흐 땡 분 잇당, 흐 시간쫘 잇당이 그놈으 걸 막 꺾어.(가라앉아서 한 땡 분 있다가, 한 시간쫘 있다가 그놈의 걸 막 반죽해.)

107091 @ 밥을?(밥을?)

107091 #1 응, 밥이영 그 저 누룩, 아니 누룩이엔만 해점저.(응, 밥이랑 그 저 누룩, 아니 누룩이라고만 하고 있다.)

107091 @ 골.(엿기름.)

107091 #1 골. 골ㄴ루 논 거 놓난 쑥 빠져분 거라. 게민이 줍쌀도이 꺾데기베끼 엿어.(엿기름. 엿기름 가루 놓은 거 놓으니까 쑥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줍쌀도 꺾데기밖에 없어.)

107091 @ 밥을 조팍을 현 거주예?(밥을 조밥을 한 거지요?)

107091 #1 응, 조팍.(응, 조밥.)

107091 @ 응, 경행?(응, 그렇게 해서?)

107091 #1 그걸 막 이젠 놀리당 짜. 줍지라불곡 국물은 솟더레 짜 놔불고. 또 이젠 또 막 놀려근에 허민 골주시허고 조팍, 조쌀 ㄴ루, 흐린, 거멍헌 것이 흐린줍쌀이엔 헤이.(그걸 막 이젠 움직이다가 짜. 짜버리고 국물은 술에 짜버리고. 또 이제 또 막 움직여서 하면 엿기름 찌꺼기하고 조밥, 줍쌀가루, 차진, 거먼 것이 차줍쌀이라고 해.)

107091 @ 예.(예.)

107091 #1 흐린줍쌀도 주시, 꺾데기도 엿어. 막 문드레기 빠져불어.(차줍쌀도 찌꺼기, 꺾데기도 없어. 아주 ‘문드레기’ 빠져버려.)

107091 @ 아.(아.)

107091 #1 경허민이 흐 땡 시간 딸려가민 큰 솟딜로 꺼멍헌 큰 솟딜로 딸려가민 죽이, 첨 엿.(그러면 한 땡 시간 달이면 큰 술으로 꺼먼 큰 술으로 달이면 죽이, 첨 엿.)

107091 @ 엿이.(엿이.)

107091 #1 죽만이 돼여가이. 죽보단 또 더 돼여가면 그디 썰엿을 허젠 허민 썰엿을 뽕앙, 저 뽕앙이 놓든지 돼지고길 가당 요만씩 썰엿을 놓든지.(죽만 되여가. 죽보다 또 더 되여가면 거기 썰엿을 하려고 하면 썰엿을 뽕아서, 저 마서 놓든지 돼지고길 가다가 요만큼씩 썰어서 놓든지.)

107091 @ 아.(아.)

107091 #1 것이 오래 팔려불민이 썰영 못 씹어.(그것이 오래 달이면 세어서 못 씹어.)

107091 @ 아.(아.)

107091 #1 거 어느 정도 옛이 즈까, 어느 정도 켜 거라사 켜이던 돼지고기던 놔야 그 고기도 씹어지지. 그 옛 흐뎡 알뜰덴 막 즈까불면은이.(그거 어느 정도 옛이 달여, 어느 정도 된 거라야 켜이든 돼지고기든 놔야 그 고기도 씹을 수 있지. 그 옛 조금 얹게 막 달이면.)

107091 @ 응. 너무 세여?(응. 너무 세어?)

107091 #1 고기가 썰영 못 먹어.(고기가 세서 못 먹어.)

107091 @ 아.(아.)

107091 #1 정허민 다 켜는 거 것도.(그러면 다 되는 거 그것도.)

107091 @ 그민 어디 영 덜어놔야 켜 거 아니?(그러면 어디 이렇게 덜어놔야 켜 거 아니?)

107091 #1 응, 굽영 통에. 옛 놀 통도 잇주. 어디 줄 디덜은 사발로 거리멍 마직 마직 주민 들긴 달아. 것이 골이 하영 들어부니까.(응, 굽어서 통에. 옛 놓을 통도 있지. 어디 줄 데들은 사발로 뜨면서 가득가득 주면 달긴 달아. 그것이 골이 많이 들어버리니까.)

107091 @ 게민 도새기나 켜으로 보통 옛헛구나예?(그러면 돼지나 켜으로 보통 옛헛군요?)

107091 #1 영양제가 그거라. 옛날에는 득옛이나, 흐뎡허민 득옛, 켜옛.(영양제가 그거야. 옛날에는 닭옛이나, 조금하면 닭옛, 켜옛.)

107091 @ 득옛이나, 득옛, 켜옛, 도새기궤기옛. 요거 세 개 안 놓고 그냥 아까 그 골허고 줍쌀로만도 허고?(닭옛이나, 닭옛, 켜옛, 돼지고기옛. 요거 세 개 안 놓고 그냥 아까 그 골허고 줍쌀로만도 하고?)

107091 #1 응, 게민 벨로 큰 영양이 옛주. 득에 켜에 영양이 잇게끄름 허는 거 주.(응, 그러면 벨로 큰 영양이 없지. 닭에 켜에 영양이 잇게끔 하는 거지.)

107091 @ 아, 그건 보통 겨울에 허는 거짜, 옛은?(아, 그건 보통 겨울에 하는 겁니까, 옛은?)

107091 #1 아무 때라도 해도 켜여, 허쟁만 허민, 골만 이시민 재료만 이시민 아무 때라도 해여.(아무 때라도 해도 돼. 하려고만 하면, 옛기름만 있으면 재료만 있으면 아무 때라도 해.)

107091 @ 아.(아.)

107091 #1 옛을 헤시민 우리도 먹어지크라, 건 맛종양.(옛을 하면 우리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건 맛있어서.)

기타



107092 @ 감주도 해낫수과?(감주도 했었습니까?)

107092 #1 감주 해신디 우린 안 해봤어. 감주헌 건, 헌 건 먹어봤지.(감주 했는데 우린 안 해봤어. 감주한 건, 한 건 먹어봤지.)

107092 @ 감주도 골로 허는 거 아니?(감주도 옛기름으로 하는 거 아니?)

107092 #1 골로, 골, 골. 계난 주로 집집마다 옛날은 것보리 해영은엔에 골을 하영 놔난 거 닳아.(옛기름으로, 옛기름, 옛기름. 그러니까 주로 집집마다 옛날은 곶보리 해서 옛기름을 많이 냈던 거 같아.)

107092 @ 응.(응.)

107092 #1 나도 전이 이디 용시혈 때는 것보리헨에. 옛을 잘 멘들아나난에 이제도 중간에 헌 거 저디, 이제도 골ㄴ루 이서, 냉장고에.(나도 전에 여기 농사할 때는 곶보리해서. 옛을 잘 만들었어서 이제도 중간에 한 거 저기, 이제도 옛기름 가루 있어, 냉장고에.)

107092 @ 아.(아.)

107092 #1 이제논이 줍쌀 사기도 힘들고이 값이 하나까.(이제는 줍쌀도 사기도 힘들고 값도 많으니까.)

107092 @ 응.(응.)

107092 #1 줍쌀 농민이 옛 뿐도 었어.(참쌀 놓으면 옛 품도 없어.)

107092 @ 아.(아.)

107092 #1 밀그릇해영.(‘밀그릇’해서.)

107092 @ 줍쌀로 해야예?(줍쌀로 해야요?)

107092 #1 검은 줍쌀로 농민이 었도 감시근헌 게 진짜 맛있엄직이 불고롱허고 감으롱 허는디 줍쌀로 옛을 허민 한덴 해도이, 었이 한덴 해도 뿐도 었어.(검은 줍쌀로 놓으면 었도 ‘감시근’한 게 진짜 맛있음직 불그스름 하고 검은스름한데 참쌀로 옛을 하면 한다고 해도, 옛을 한다고 해도 ‘뿐’이 없어.)

107092 @ 계난 줍쌀, 아까 줍쌀허고, 흐린줍쌀허고 보릿골.(그러니까 줍쌀, 아까 줍쌀하고, 차줍쌀하고 보리옛기름.)

107092 #1 골ㄴ루.(옛기름가루.)

107092 @ 보리로 만든 골ㄴ루예?(보리로 만든 옛기름가루요?)

107092 #1 응.(응.)

107092 @ 그거 말고 또 혹시 이제까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음식들 옛날에 행 먹어난 거 이수과?(그거 말고 또 혹시 이제까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음식들 옛날에 해서 먹었던 거 있습니까?)

107092 #1 거 무시거 옛날사 무시거 해영 떡곡, 비나 오민 개역이나 해영 먹고 거 막 정성시리 허젠 허민 었이나 딸리고 허주.(그거 뭐 옛날에야 뭐 해서 먹고, 비나 오면 미숫가루나 해서 먹고 그거 막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면 었이나 달이고 하지.)

107092 @ 이 동네서 특별히, 여기 바닷가랑 가까우니까 바닷고기랑 관련돼서

행 먹는 거 잊어났수과?(이 동네서 특별히, 여기 바닷가랑 가까우니까 바닷고기랑 관련되어 해서 먹는 거 없었습니까?)

107092 #1 에이구 행 먹는 거 무시것이 이서? 여름 때나 자리물회나 가끔 한번 허민 막 베실만이 알앙 그거 행 먹주.(아이고 해서 먹는 거 무엇이 있어? 여름 때나 자리물회나 가끔 한 번 하면 막 벼슬만큼 알아서 그거 해서 먹지.)

107092 @ 뭐 만이 알앙?(뭐 만큼 알아서?)

107092 #1 그걸 허민 막 기뻐, 자리회 헛저, 자리회 헛저 행 그거나 먹주. 경하고 경 한글허게, 이제는 한글허게 살아도이 바빔 그런 거 허젠, 자리물회 허젠 해도 바빠.(그걸 하면 막 기뻐서, 자리회 했다, 자리회 했다 해서 그거나 먹지. 그리고 그렇게 한가하게, 이제는 한가하게 살아도 바빠서 그런 거 하려고, 자리물회 하려고 해도 바빠.)

107092 @ 응.(응.)

107092 #1 양념도 이제 ㄴ추룩 귀긱임을 허카?(양념도 이제처럼 다 갖춰지길 할까?)

107092 @ 하하하.(하하하.)

107092 #1 고치장이 시카, 고치 ㄴ루나 쪼끔 농민 뒸는 거.(고추장이 있을까, 고춧가루나 조금 놓으면 되는 거.)

107092 @ 아까 딸 애기헌 고등어젓이 할머니 특별이지예? 이 동네 특별이 아니고예?(아까 딸 애기한 고등어젓이 할머니 특별이지요? 이 동네 특별이 아니고요?)

107092 #1 이 동네 것덜 고등어젓 허는 중 몰라.(이 동네 것들 고등어젓 하는 줄 몰라.)

107092 @ 이 집이 할머니가 특별히 허는 거지예, 고등어젓은예? 다른 집이도, 함덕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만 특별히 하는 거지예?(이 집에 할머니가 특별히 하는 거지요, 고등어젓은요? 다른 집에도, 함덕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만 특별히 하는 거지요?)

107092 #1 아니 해여. 고등어젓. 불그룽허게 익어 농민 맛도 좋고.(안 해. 고등어젓. 불그스름하게 익어 놓으면 맛도 좋고.)

107092 @ 그믄 특별히 이 동네서 맛있게 해먹거나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하는 거는 마땅히 생각나는 거 잊고예?(그러면 특별히 이 동네서 맛있게 해먹거나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하는 거는 마땅히 생각 나는 거 없고요?)

107092 #1 잊어. 우린 또 바당에도 잘 안 텅겨불고, 그냥 해녀 ㄴ뜨민이 바당에 어떻 내영 어떻 허는 거주만은 그런 것도 몰라.(잊어. 우린 또 바다에도 잘 안 다녀 버리고, 그냥 해녀 같으면 바다에 어떻게 내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몰라.)

107092 @ 응.(응.)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집 지었던 경험이 있으면.(집 지었던 경험이 있으면.)

108001 #1 집 진 경험은 었고 이 집 일고 이 이름은 굴렌 허민 굴아도.(집 짓은 경험은 없고 이 집 일고 이 이름은 말하라고 하면 말해도.)

108001 @ 집을 직접 짓진 안해났지예?(집을 직접 짓지는 않았었지요?)

108001 #1 집 짓기는 이 집은 이녁, 직접 우리대로 한 거지.(집 짓기는 이 집은 자기, 직접 우리대로 한 거지.)

108001 @ 옛날 초집힐 때.(옛날 초가집할 때.)

108001 #1 옛날 집은 몰라.(옛날 집은 몰라.)

108001 @ 응.(응.)

108001 #1 옛날은 정 집을, 이제난 집덜 정 쉬웁게 화닥화닥 지섯주.(옛날은 그렇게 집을, 이제니까 집들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지었지.)

108002 @ 옛날에는 초집 잇고, 그다음 또 무슨 집이 십니까?(옛날에는 초가집 잇고, 그다음 또 무슨 집이 있습니까?)

108002 #1 지에집, 지에집이엔 허여.(기와집, 기와집이라고 해.)

108002 @ 지에집은 어떤 거?(기와집은 어떤 거?)

108002 #2 기와집, 기와집.(기와집, 기와집.)

108002 #1 기와집ㄴ라 지에집, 지에집.(기와집보고 ‘지에집’, ‘지에집’.)

108002 @ 아, 기와집ㄴ라.(아, 기와집보고.)

108002 #1 초가집허고 그거베끼 안 들어봤어, 우리도.(초가집하고 그거 밖에 안 들어봤어, 우리도.)

108002 #2 기와집, 이제 쓰레트.(기와집, 이제 슬레이트.)

108002 @ 응, 이제야.(응, 이제야.)

108002 #1 에이구 이제야 것도 이제사 난 말이주. 옛날 이 쓰레트 난 초가집 멘 들앗수과? 쓰레트 엇기 전이 초가집 나왔주.(아이고, 이제야 그것도 이제야 난 말 이지. 옛날 이 슬레이트 나서 초가집 만들었습니까?)

108003 @ 게믄 이추록 집이 영 이시민 이딘 안거리.(그러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으면 여긴 안채.)

108003 #1 밧거리.(바깥채.)

108003 @ 거긴 밧거리.(거긴 바깥채.)

108003 #1 저디 우리 문 헌 디는.(저기 우리 문 한 데는.)

108003 @ 대문 이신 디는.(대문 있는 데는.)

108003 #2 먼문.(‘먼문’.)

108003 #1 먼문거리<sup>215</sup>.(문간채.)

215) ‘먼문거리’는 안마당으로 드나드는 대문이 달려 있는 고아 비슷한 집채다.

108003 @ 먼문거리, 먼문간?('먼문거리', '먼문간?')

108003 #1 응, 먼문간. 요디 또 집이.(응, 문간채. 요기 또 집이.)

108003 @ 응, 요건?(응, 요건?)

108003 #1 네 모살이까지 다 잇는 집은이 모커리. 밧그레.(네 모서리까지 다 잇는 집은 결채. 바깥채.)

108003 @ 아, 요디는 모커리.(아, 요기는 결채.)

108003 #1 요거 밧그레, 모커리, 먼문거리.(요거 바깥채, 결채, 문간채.)

108003 @ 먼문거리, 응.(문간채, 응.)

108003 #2 먼문간.(문간채.)

108003 #1 먼문간인디 먼문거리고.(‘먼문간’인데 ‘먼문거리’고.)

108003 #2 그것이 거주.(그것이 그거지.)

108003 @ 응. 게문 저 먼문간에는 집처럼 돼 잇엇잖아예?(응. 그러면 저 문간채에는 집처럼 되어 있잖아요?)

108003 #1 응, 그디 소, 소도 질루고.(응, 거기 소, 소도 기르고.)

108003 #2 몰도 질루고.(말도 기르고.)

108003 #1 말도 질루고 소막도 잇고.(말도 기르고 외양간도 있고.)

108003 @ 아, 먼문간에.(아, 문간채에.)

108003 #1 이제ㄴ추룩 사름 들어 뎡기는 입구 잇고. 저기는 대문이라곤 해서.(이제처럼 사람 들어 다니는 입구 잇고. 저기는 대문이라고 해서.)

108003 @ 그문 모커리엔 무신거 이신 거짜?(그럼 결채엔 무엇 잇는 겁니까?)

108003 #1 사름 살아, 그디는.(사람 살아, 거기는.)

108003 @ 아, 그디도 사름 살아.(아, 거기도 사람 살아.)

#1 사름 살고 저디도 사름 살고.(사람 살고 저기도 사람 살고.)

108003 @ 안거리 밧거리 모커리에는 사름 살고.(안채, 바깥채, 결채에는 사람 살고.)

108003 #1 이녁이 안 살면은 늬이라도 다 빌런 살아.(자기가 안 살면 남이라도 다 빌려서 살아.)

108004 @ 아. 그문 이런 옛날에 초집은 이칸집, 삼칸집 이런 말헬게만은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마씨?(아. 그러면 이런 옛날에 초가집은 이칸집, 삼칸집 이런 말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8004 #1 응, 스칸집, 이칸집.(응, 사칸집, 이칸집.)

108004 @ 어떻게 나누는 거?(어떻게 나누는 거?)

108004 #1 이 앞이 이것이 앞 아니?(이 앞이 이것이 앞 아니?)

108004 @ 예.(예.)

108004 #1 이제 저 우리 부엌이 잇고 요것은 하나, 두 개, 세 개 가민 이칸집, 삼칸집, 스칸집. 스칸집이 쥔 큰 집.(이제 저 우리 부엌이 잇고 요것은 하나, 두 개, 세 개 가면 이칸집, 삼칸집, 사칸집. 사칸집이 쥔 큰 집.)

108004 @ 아, 계난 방, 마루, 요기도 방, 저쪽에 부엌 이시민.(아, 그러니까 방, 마루, 요기도 방, 저쪽에 부엌 있으면.)

108004 #1 거 ㄱ트민 부엌이 아니고 이제 칸을 세는 디는.(그거 같으면 부엌이 아니고 이제 칸을 세는 데는.)

108004 @ 응. 칸을 셀 때는.(응. 칸을 셀 때는.)

108004 #1 멧 칸 집, 멧 칸 집, 스칸집이엔 헛 것이 마지막.(멧 칸 집, 멧 칸 집, 사칸집이라고 한 것이 마지막.)

108004 @ 응, 켈 큰 집. 그믐 보통은 멧 칸 집이라낫어?(응, 켈 큰 집. 그러면 보통은 멧 칸 집이었었어?)

108004 #1 삼칸집.(삼칸집.)

108004 @ 보통 삼칸집예. 요렇게 방 두 개 마루 이렇게 잇게.(보통 삼칸집요. 요렇게 방 두개 마루 이렇게 잇게.)

108004 #1 요거허고 요 방허고 요거 부엌 요건 들어가는 디 이건 마루 들어오는 디. 이디서 그자 방, 큰방, 작은방뿐.(요거하고 요 방하고 요거 부엌 요건 들어가는 데 이건 마루 들어오는 데. 여기서 그저 방, 큰방, 작은방뿐.)

108004 @ 방 두 개?(방 두 개?)

108004 #1 응. 방 세 개 허는 디가 힘들어. 경 널르켈 안 허주게.(응. 방 세 개 하는 데가 힘들어. 그렇게 넓게 안 하지.)

108005 @ 응. 그다음에 집 헛 때예, 요 밋에 난간 밑에 돌.(응. 그다음에 집 할 때요, 요 밑에 난간 밑에 돌.)

108005 #1 잇돌.(디딤돌.)

108005 @ 잇돌. 잇돌은 신발 벗는 디?(디딤돌. 디딤돌은 신발 벗는 데?)

108005 #1 신발이 아니고, 비 오라나도 글로 바라뎡기주게<sup>216)</sup>. 신발 벗는 딴 집 안네 요런 난간이 이서이. 난간 아래 신은 벗는디 저거 허는 건 잇돌.(신발이 아니고, 비 왔었어도 그리고 ‘바라뎡기지’. 신발 벗는 덴 집 안에 요런 난간이 있어. 난간 아래 신은 벗는데 저거 하는 건 디딤돌.)

108005 @ 아, 저 바깥디 잇는 건 잇돌. 그거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쪽에 잇는 거?(아, 저 밖에 잇는 건 디딤돌 그거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쪽에 잇는 거?)

108005 #1 베끗디 거.(밖의 거.)

108005 @ 베끗디 거.(밖의 거.)

108005 #1 이 지붕으로 떨어지는 물 베끗디 건 잇돌. 이 안네 거는 신 벗곡 난간 맨들고.(이 지붕으로 떨어지는 물 밖의 건 디딤돌. 이 안에 거는 신 벗고 난간 맨들고.)

108005 @ 신 벗는 돌은 무신 돌이엔 곱아?(신 벗는 돌은 무슨 돌이라고 말해?)

108005 #1 그디 돌이라? 이 안네난애.(거기 돌이야? 이 안에니까.)

108005 @ 아, 그딘 돌은 안 놓고.(아, 거긴 돌은 안 놓고.)

216) ‘바라뎡기다’는 담 위 같은 데를 걸어다니는 뜻이다.

108005 #1 저 이제 저영 바라가는 거이, 저거는 잇돌.(저 이제 저렇게 ‘바라가는’ 거, 저거는 디딤돌.)

108005 @ 그다음에 그 기둥이 영 이시민 기둥 밋에 돌 영 낡은에 그 우에 기둥 영 세우주예?(그다음에 그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 밑에 돌 이렇게 놔서 그 위에 기둥 이렇게 세우지요?)

108005 #1 그건 이름 몰르키여.(그건 이름 모르겠다.)

108005 @ 그건 이름은 몰르크라.(그건 이름은 모르겠어.)

108005 #1 생각은 나는데. 그 지동 세우는 돌 아래 그 남 석어불카부덴 영 돌 지동 논 거.(생각은 나는데. 그 기둥 세우는 돌 아래 그 나무 섞어버릴까봐 이렇게 돌 기둥 놓은 거.)

108005 #2 받침돌, 받침돌.(받침돌, 받침돌.)

108005 @ 그냥 받침돌.(그냥 받침돌.)

108005 #2 난 썩지 못허게.(나무 썩지 못하게.)

108005 #1 난 썩지 못허게, 난 물어불민.(나무 썩지 못하게, 나무 물어버리면.)

108005 #2 썩어불주. 그 안에 크게 낡은 굽으로 썩어불어.(썩어버리지, 그 안에 크게 놔서는 밑으로 썩어버려.)

108005 @ 예.(예.)

108005 #1 이름이 벨미가, 벨호가 시카부덴.(이름이 별미가, 별호가 있을까봐.)

108005 #2 받침돌이 표준어도 되고, 그건 뭐 정상적인 이야기주.(받침돌이 표준어도 되고, 그건 뭐 정상적인 이야기지.)

108005 @ 옛날에 초집은 이디 영 무신 영.(옛날에 초가집은 여기 이렇게 무슨 이렇게.)

108005 #1 므로가 이서이.(마루가 있어.)

108005 @ 응.(응.)

108005 #1 영 돼여.(이렇게 돼.)

@ 계민 영 돼민 이디 무신 영영 기둥도 잇고 영 가로로 웬 것도 이수과?(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무슨 이렇게 이렇게 기둥도 잇고 이렇게 가로로 된 것도 있습니까?)

108005 #1 기둥은 엇어. 나무로 영 똥이 집 서리엔 헤영이 요만 거리만썩이 이레 저까지 다 집가지가 되는 거라.(기둥은 없어. 나무로 이렇게 돼서 집 서까래라고 해서 요만큼한 거리만큼썩 여기서 저까지 다 처마가 되는 거야.)

108005 @ 응.(응.)

108005 #1 요 중심에서 꼬작헌 나무 해당 영 걸청 영영허민 서리가 돼여이.(요 중심에서 곧은 나무 해다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하면 서까래가 돼.)

108005 @ 예, 여긴 서리.(예, 여긴 서까래.)

108005 #1 요만 새에 틈은이 낭트늘. 요런 낭행 새에 걸쳐, 우리로 흑질허면 이 집 더끄게, 흑질 허면은.(요만큼 새에 틈은 나무틈. 요런 나무해서 새에 걸쳐, 우리

도 흙질하면 이 집 덮게, 흙질 하면.)

108005 @ 예.(예.)

108005 #1 안네는 막 흑도 쳐, 뺏아. 뺏앙 쳐근엔에 이제 세멘 ㄱ추룩 뎡썩허게 해. 세멘 허는 식으로.(안에 막 흑도 쳐, 뺏아. 뺏아 쳐서 이제 시멘트처럼 매끈하게 해. 시멘트하는 식으로.)

108005 @ 응.(응.)

108005 #1 정헛다근에 종일 불르나 옛날엔 백회엔 현 거가 이서.(그랬다가 종일 바르거나 옛날엔 백회라고 한 것이 있어.)

108005 @ 무신거?(무엇?)

108005 #1 백회, 세멘 닮은 거.(백회, 시멘트 같은 거.)

108005 @ 응.(응.)

108005 #1 백회엔 해, 것이. 해영케 불라, 세멘허듯이.(백회라고 해, 그것이. 하얗게 발라, 시멘트하듯이.)

108005 @ 아.(아.)

108005 #1 게문이 이런 고랑이 다 이서. 영 서리 걸쳐난 새가 이만씩 나면은 이 새는 해영현 거 불르고 요건 서리 놔. 또 요 새에도 해영케 불르민 요것도 서리나 고.(그러면 이런 고랑이 다 있어. 이렇게 서까래 걸쳐던 새가 이만큼씩 나면 이 새는 하얀 거 바르고 요건 서까래 놔. 또 요 새에도 하얗게 바르면 요것도 서까래 나 고.)

108005 @ 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해영허게 불르는 거마씨?(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하얗게 바르는 거요?)

108005 #1 응, 흑 칠해 낱 그 우이, 흑이니까. 세멘허는 식으로 곱게. (응, 흙 칠해 놓고 그 위에, 흙이니까. 시멘트하는 식으로 곱게.)

108005 @ 응.(응.)

108005 #1 경헛당 또 허기 실프민은 방도 그 종이로이, 종이로 불라부는 수도 잇고.(그랬다가 또 하기 싫으면 방도 그 종이로, 종이로 발라버리는 수도 있고.)

108005 @ 응.(응.)

108005 #1 이제 ㄱ썩 이런 거 안해.(이제같이 이런 거 안 해.)

108005 @ 응, 기주마씨, 옛날엔예.(응, 그렇지요, 옛날엔요.)

108005 #1 이 집도 정혜난 집, 옛날 이신 때.(이 집도 그랬던 집, 옛날 있을 때.)

108006 @ 응, 옛날에 저 초집허젠 허민 마당에서 흑 꾸어근에 해낫텐 헨게만은 그건 어떻 허는 거마씨?(응, 옛날에 저 초가집하려고 하면 마당에서 흙 이겨서 했었다고 하던데만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8006 #1 이 우에 막 사 식으로이, 사식으로 영 낱 걸쳐이.(이 위에 막 아까 식으로, 아까식으로 이렇게 나무 걸쳐서.)

108006 #2 낱 놓민 서리라고 낱 요만썩 현 거, 낱 좋은 걸로 뽑아당 이젠 그걸

걸쳐 놓면은 멧 메다 걸쳐 놓민 나무로 연결시켜. 감아. 경행 그 우에 흑히고. 블라 놓민 것이 연결웨영 집도 돼고 내중엔 다 우이 더퍼난 다음에 새행 더퍼난 다음에 내중에 백헨가 무신 흰 그루 블랑.(나무 놓으면 서리라고 나무 요만큼씩 한 거, 나무 좋은 걸로 뽑아다가 이젠 그걸 걸쳐 놓으면은 몇 미터 걸쳐 놓으면 나무로 연결시켜. 감아. 그렇게 해서 그 위에 흑하고. 발라 놓으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집도 되고 내중엔 다 위에 덮은 다음에 떠 해서 덮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백헨가 무슨 흰 가루 발라서.)

108006 #1 그땐 마당에. 그거 아니우다게. 준둥머리<sup>217</sup>로 곤지 맵서게.(그땐 마당에. 그거 아닙니다. ‘준둥머리’로 말하지 마세요.)

108006 @ 하하하.(하하하.)

108006 #1 마당에 흑. 막 그때는이 구루마.(마당에 흑. 마구 그때는 달구지.)

108006 @ 예.(예.)

108006 #1 구루마로 이 마당에 흑 해다냥 보리 해난 찢.(달구지로 이 마당에 흑 해다냐서 보리 했던 짚.)

108006 @ 응, 보리냥.(응. 보릿대.)

108006 #1 보리냥 찢 해놓고, 동네 사람 이 집이 흑질헨젠, 집 짓언 흑질헨젠 허민이 예를 들영 우리라도 물허벅 정 왕 이디 막 물덜을 지어. 흑을 영 파가명 영 물 넘어나지 못허게 담 당, 이 안네 막 허영 보리냥 담아놓고 그냥 막 블라, 그거를.(보릿대 짚 해놓고, 동네 사람 이 집에 흑질 한다고, 집 지어서 흑질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라도 물동이 저 와서 여기 막 물들을 저. 흑을 이렇게 파가면서 이렇게 물 넘치지 못허게 담을 쌓아서, 이 안에 막 해서 보릿대 담아놓고 그냥 막 밟아, 그거를.)

108006 @ 발로?(발로?)

108006 #1 응, 흑으로 보리냥에 막 감아지게.(응, 흑으로 보릿대에 막 감기게.)

108006 @ 응.(응.)

108006 #1 막 감으민 이젠 쉼시렁.(막 감으면 이젠 쇠스랑.)

108006 @ 응.(응.)

108006 #1 쉼시렁으로 이만씩 들렁 이젠 이레 막 데껴.(쇠스랑으로 이만큼씩 들어서 이젠 이리 막 던져.)

108006 @ 지붕 우트레?(지붕 위에?)

108006 #1 응, 지붕 우트레 허젠 허민 흑도 하영 들지. 이 지붕을 다 그추록 헨 걸로 더끄젠 허민 힘들어. 막 그냥 큰 일이라 것이. 그냥 밥덜도 행 맥이곡 동네사람덜 다 물덜토 질어오고.(응, 지붕 위에 하려고 하면 흑도 많이 들지. 이 지붕을 다 그렇게 한 걸로 덮으려고 하면 힘들어. 막 그냥 큰 일이야 그것이. 그냥 밥들도 해서 먹이고 동네사람들 다 물들도 질어오고.)

108006 @ 예.(예.)

217) ‘준둥머리’는 물건의 허리 쪽 부분을 낮춰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말을 앞뒤 없이 중간부터 한다는 뜻이다.



108006 #1 경혜영 이제 몰르민 이젠 어떻 어떻 이 서리 걸친 디도 요 무시것이  
이서. 영 얹으는 것가 무시거여만은.(그래서 이제 마르면 이젠 어떻게 어떻게 이 서  
리 걸친 테도 요 무엇이 있어. 이렇게 얹는 것이 무엇이다만은.)

108006 #2 무시거 다 이 꼬명 다 낫주.(무엇 다 이 꼬면서 다 낫지.)

108006 #1 게메 그거 일름이 몰르크라. 곧 골아점직헌디.(글쎄 그거 이름 모르  
겠다. 곧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8006 @ 경행?(그래서?)

108006 #1 정행 허민 이젠 다 웬 거라. 경허민 이젠 이런 디덜토 이런 칸베기덜  
토 요 문살ㄴ치룩 다 영영 싸. 경혜사 이젠 안팍들로 흙을 발라. 이추룩 헌.(그렇게  
하면 이젠 다 된 거야. 그러면 이젠 이런 데들도 이런 칸들도 요 문살처럼 다 이렇  
게 이렇게 싸. 그래야 이젠 안팍으로 흙을 발라. 이렇게 한.)

108006 @ 낭으로?(나무로?)

108006 #1 응, 낭으로 몬 영글영글<sup>218</sup>허게 이상케 행 몬 칙이라도 걷어당이 이  
나무를 떨어지지 못허게 막 얹어.(응, 나무로 모두 ‘영글영글’하게 이상하게 해서 모  
두 칙이라도 걷어다가 이 나무를 떨어지지 못하게 막 얹어.)

108006 @ 예.(예.)

108006 #1 흙질도 마주 영영 해주고.(흙질도 마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108006 @ 아.(아.)

108006 #1 게민 몰라.(그러면 말라.)

108006 @ 그 나무를 뭐엔 곧는 건 엇수과?(그 나무는 뭐라고 말하는 건 없습니  
까?)

108006 #1 게메, 이 나무 얹으는 것이.(글쎄, 이 나무 얹는 것이.)

108006 #2 서실<sup>219</sup>이엔 해, 서실이엔.(산자라고 해, 산자라고.)

108006 @ 서실.(산자.)

108006 #1 아, 서실, 서실. 이건 저 서리고 이건 서실.(아, 산자, 산자. 이건 저  
서까래고 이건 산자.)

108006 @ 아, 서실.(아, 산자.)

108006 #1 이거 영 그 거친 흙 막 수세<sup>220</sup>로 보리낭께기 헌 걸로 블라낭 저 해  
놓민 또 줌진줌진 흙 쳐.(이거 이렇게 그 거친 막 ‘수세’로 보릿대 한 걸로 밟아놔  
서 저 해놓으면 자잘한 흙 쳐.)

108006 @ 응.(응.)

108006 #1 청 이레 멘짝허게 세멘ㄴ찌 블라, 두벌을.(쳐서 이리 매끈하게 시멘  
트처럼 발라, 두벌을.)

108006 @ 응.(응.)

218) ‘영글영글’은 성긴 모양이다.

219) ‘서실’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다.

220) ‘수세’는 흙을 이길 때 섞는 벧짚이나 띠 등을 말한다. 이것을 섞어야 벽이나 지붕에 바른 흙이 떨어지지  
않는다.

108006 #1 저 지붕에는 안 해도 이디는.(저 지붕에는 안 해도 여기는.)

108006 @ 이디는.(여기는.)

108006 #1 이디 허민은 곱닥해낫어. 종이 불르주. 이디 안네니까.(여기 하면 고왔었어. 종이 바르지. 여기 안이니까.)

108006 @ 손으로 험니까? 아니민 무신거 영 허는 거 이수과?(손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엇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108006 #1 손이로, 그 첫번은 손이로 해도 말째는 무신걸로 허여, 곱게 흐꿈. 더 틀더틀 안허게. 첫번엔 기냥 손이로 그냥 이것만 부쨌 막.(손으로, 그 첫 번째는 손으로 해도 말째는 무엇으로 해, 곱게 조금. 울통불통 얹게. 첫 번째는 그냥 손으로 그냥 이것만 붙여 막.)

108006 @ 아.(아.)

108006 #1 두 번째 흑도 막 뺏이멍, 열멩이로 쳐.(두 번째 흑도 막 뺏으면서, 어레미로 쳐.)

108006 @ 흑도?(흑도?)

108006 #1 멘작헌 흑이라사 더틀더틀 안 행 이추룩 멘작해사 종이도 불를 거라 부난. 서실, 서실 잊어불언.(매끈한 흑이라야 울통불통 안 해서 매끈해야 종이도 바를 거라서. 산자, 산자 잊어버렸어.)

108007 @ 게민 아까 방은 큰방허고 족은방이 보통 이신 거예?(그러면 아까 방은 큰방하고 작은방이 보통 있는 거요?)

108007 #1 응, 저레 간 딴 정지. 정지 부튼 딴 고팡.(응, 저리 간 덴 부엌. 부엌 불은 덴 고팡.)

108007 @ 게민 이 집이라, 영허민 이디가 큰방?(그러면 이 집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큰방?)

108007 #1 응.(응.)

108007 @ 큰방. 족은방은 어디?(큰방. 작은방은 어디?)

108007 #1 족은방은 저디.(작은방은 저기.)

108007 @ 요디. 예. 그다음에 정진?(요기. 예. 그다음에 부엌은?)

108007 #1 정진 이거.(부엌은 이거.)

108007 @ 정진 이거. 이 뒤엔 고팡.(부엌은 이거. 이 뒤엔 고팡.)

108007 #1 고팡.(고방.)

108007 @ 그든 방 하나, 큰방, 족은방. 그다음에 이디 정지.(그럼 방 하나, 큰방, 작은 방. 그다음에 여기 부엌.)

108007 #1 고팡, 정지.(고방, 부엌.)

108007 @ 이딘 마리?(여긴 마루?)

108007 #1 찻방<sup>221)</sup>. 응, 찻방도.(‘찻방’. 응, ‘찻방’도.)

108007 @ 찻방은 어디짜?(‘찻방’은 어디니까?)

---

221) ‘찻방’은 마루와 부엌 사이에 조그마한 마루를 말한다.

108007 #1 정지레 가는 디가 또 찻방이렌 헨 디가 이서.(부엌으로 가는 데가 또 ‘찻방’이라고 한 데가 있어.)

108007 @ 이게 정지민 정지레 가는 디?(이게 부엌이면 부엌으로 가는 데?)

108007 #1 응, 정지에 가는, 밥도 먹고 소소한 때는이. 그디 앓앙 요추룩 요추룩 허게 놔져.(응, 부엌에 가는, 밥도 먹고 소소한 때는. 거기 앓아서 요렇게 요렇게 놔.)

108007 @ 아, 그게 찻방?(아, 그게 ‘찻방’?)

108007 #1 찻방.(‘찻방’.)

108007 @ 이딘 그 그른 저 안방. 요기가 안방이민, 큰방이민 큰방도 딱뚫헨 디가 잇고.(이런 그 그러면 저 안방. 요기가 안방이면, 큰방이면 큰방도 따뜻한 데가 잇고.)

108014 #1 굴묵.(‘굴묵’.)

108014 @ 굴묵은 저 베끗디로 짚을 거 아니파예?(‘굴묵’은 저 밖으로 땔 거 아닙니까요?)

108014 #1 베끗딜로 짚어.(바깥으로 땔.)

108014 @ 이 앞으로 험니까, 저 베끗디로?(이 앞으로 험니까, 저 밖으로?)

108014 #1 저 두깡으로 강.(저 뒤로 가서.)

108014 @ 저 두깡으로 강 굴묵을 짚으민 할으부지 저 앓은 딴 딱뚫헨 거 아니예, 이쪽은 흐끔 써능허고예.(저 뒤로 가서 ‘굴묵’을 땔면 할아버지 저 앓은 데는 따뜻할 거 아닙니까, 이쪽은 조금 싸늘하고요.)

108014 #1 굴묵이 잘 땔면은이 일로 굴묵을 절로 이레 짚어네이.(‘굴묵’이 잘 땔면은 이리로 ‘굴묵’을 저리로 이리 땔서.)

108014 @ 예.(예.)

108014 #1 이것이 구들이면은이 이 주에는 다 뜻아.(이것이 방이면 이 주위에는 다 따뜻해.)

108014 @ 응.(응.)

108014 #1 뜻이니까 그 굴묵을 짚영, 혼자만 뜻지 안헐 이불 꿔우민 다 놀레 오는 사름덜도 다 이불 소곶에 발 찢렁 앓아.(따뜻하니까 그 ‘굴묵’을 땔서, 혼자만 따뜻하지 않고 이불 펴면 다 놀러 오는 사름덜도 다 이불 속에 발 찢려서 앓아.)

108014 @ 아.(아.)

108014 #1 이제는 아무디나 영 다 뜻앙 좋은디.(이제는 아무데나 이렇게 다 따뜻해서 좋은데.)

108014 @ 이젠 보일러 허난게예. 기름으로게 보일러 허난.(이젠 보일러 하니까요. 기름으로 보일러 하니까.)

108014 #1 게믄이 그놈으 굴묵 짚젠 해도 성가셔이. 굴묵 짚영, 이런 마레 알로 중이 툀라불민 절로 굴묵 짚영 불 부찌민 그냥 일로도 내 나고 절로도 내 나고이.(그러면 그놈의 ‘굴묵’ 땔러 해도 성가셔. ‘굴묵’ 땔서, 이런 마루 아래로 쥐 뚫어버

리면 저리로 ‘굴목’ 때서 불 붙이면 그냥 이리로도 연기 나고 저리로도 연기 나고.)

108014 @ 하하하.(하하하.)

108014 #1 아이고, 진짜. 그 내도 또 굴목 째어나믄이 구들 공기 안 나가게, 듯이게. 굴목 문지락 들어가는 데 잇고 이젠 그 입구 막젠 허민 이만큼헌 돌이 이서 이.(아이고, 진짜. 그 연기도 또 ‘굴목’ 때나면 방 공기 안 나가게, 따뜻하게. ‘굴목’ 먼지 들어가는 데 잇고 이젠 그 입구 막으려고 하면 이만큼 한 돌이 있어.)

108014 @ 예.(예.)

108014 #1 막 불치에이 물 데경.(막 재에 물 묻혀서.)

108014 @ 응.(응.)

108014 #1 그 돌도 막 막아. 떡 막듯이.(그 돌도 막 막아. 떡 막듯이.)

108014 @ 응.(응.)

108014 #1 막아사 그 이디 공기 안 나가서이 구들이 듯일 거난.(막아야 그 여기 공기 안 나가서 방이 따뜻할 거니까.)

108014 @ 예.(예.)

108014 #1 경혜나민 손도 딱딱 벌러정이.(그리고 나면 손도 딱딱 갈라져서.)

108014 @ 아까 무신걸로 막아?(아까 무엇으로 막아?)

108014 #1 불치, 그디. 불 때난 거 이디가 ㄴ득으면은 영.(재, 거기. 불 때난 거 여기가 가득차면 이렇게.)

108014 @ 예, 불치 꺼냄.(예, 재 꺼내서.)

108014 #1 쉼시렁 닳은 걸로 꼬집어낸 이레 낫당 또 굴목 영 담아나민 불 부쨌 텅 이 돌로 영 더끄민 이 물이라도 쨌 이걸 영 이 구멍을 다 떡시리 막듯 이딜 문 막아사.(쇠스랑 같은 걸로 꺼내서 이리 났다가 또 ‘굴목’ 이렇게 담고 나면 불 붙여 뒤서 이 돌로 이렇게 덮으면 이 물이라도 쨌서 이걸 이렇게 이 구멍을 다 떡시루 막듯 여길 모두 막아야.)

108014 @ 불치로?(재료?)

108014 #1 응. 불치 흔 줌씩 심영 짹짹 막주, 건. 곤 것도 아니난에. 경행.(응. 재 한 줌씩 잡아서 짹짹 막지, 그건. 고운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108014 @ 흐뎡 오래 듯이렌?(조금 오래 따뜻하라고?)

108014 #1 응, 오래 듯이게. 오래 듯일 것도이 쉼뚱이나 뭉뚱 놓민 더 오래 가고 ㄴ시락만 째영은이 재기 부떠불민 재기 구들도 식으고.(응, 오래 따뜻하게. 오래 따뜻할 것도 소뚱이나 말뚱 놓으면 더 오래 가고 까끄라기만 때서는 빨리 붙어 버리면 빨리 방도 식고.)

108014 #2 그 우에 새로 더퍼, 지붕.(그 위에 새로 덮어, 지붕.)

108014 @ 굴목 우이마씨?(‘굴목’ 위예요?)

108014 #1 아니. 이 지붕 말 굴암주.(아니. 이 지붕 말 하고있지.)

108014 @ 아, 지붕. 방에 시렁이나 백장도 이서낫수과?(아, 지붕. 방에 ‘시렁’이나 백장도 있었습니까?)

108014 #1 백장 잇주. 골방도 잇고.(벽장 있지. 골방도 잇고.)

108014 @ 건 어떻게 거파?(그건 어떤 겁니까?)

108014 #1 백장 우이이 이것이 백장이면은이 이거 구들이면 백장 우이 이런 문을 달아.(벽장 위에 이것이 벽장이면 이거 방이면 벽장 위에 이런 문을 달아.)

108014 @ 응.(응.)

108014 #1 퀘도 이디 놓고 이불도 이디 놓곡 해여. 이거 골방.(퀘도 여기 놓고 이불도 여기 놓고 해. 이거 골방.)

108014 @ 아.(아.)

108014 #1 영 더경 구들이라도.(이렇게 덮어서 방이라도.)

108014 @ 계민 이디가 안방이민 백장은 어느쪽에, 이디 큰방엔 어디 이수과?(그러면 여기가 안방이면 벽장은 어느 쪽에, 여기 큰방에는 어디 있습니까?)

108014 #1 저레, 저 굴묵 진으는, 굴묵 이신 펜더레.(저리, 저 ‘굴묵’ 때는, ‘굴묵’ 있는 편에.)

108014 @ 굴묵 이신디, 아. 흥끔 영 노프게 허는 거지예?(‘굴묵’ 있는데, 아. 조금 이렇게 높게 하는 거지요?)

108014 #1 뭇이, 굴묵이?(뭇이, ‘굴묵’이?)

108014 @ 아니, 백장이.(아니, 벽장이.)

108014 #1 백장, 응.(벽장, 응.)

108014 @ 영 올라가게예.(이렇게 올라가게요.)

108014 #1 퀘도 놓곡.(퀘 놓고.)

108014 @ 그걸 백장이렌 허주예?(그걸 벽장이라고 하지요?)

108014 #1 그때 그 식으로 살았주.(그때 그 식으로 살았지.)

108014 @ 그른 백장에 퀘도 놓고.(그러면 벽장에 퀘도 놓고.)

108014 #1 응, 이불도 놓고.(응, 이불도 놓고.)

108014 @ 이불도 놓곡. 혹시 이불상이엔 현 것도 이서낫수과?(이불도 놓고. 혹시 이불상이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까?)

108014 #1 이불상<sup>222)</sup> 잇주.(이불상 있지.)

108014 @ 이불상은.(이불상은.)

108014 #1 백장 엇인 집에는이 저런 구들에이 요런 구들에 이불상이 커, 다른 상보단.(벽장 없는 집에는 저런 방에 요런 방에 이불상이 커. 다른 상보다.)

108014 @ 응.(응.)

108014 #1 요만 지레긴 현 거 요 높인 현, 그자 이불 개 놓는. 이불을 그레 개냥.(요만한 길이 한 거 요 높이는 한, 그저 이불 개어 놓는. 이불을 그리 개어 놔서.)

108014 @ 개 놓는 거. 경행 이불상예. 모양은 그냥 상이영 똑ㄴ타?(개어 놓는 거. 그렇게 해서 이불상요. 모양은 그냥 상이랑 똑같아?)

222) ‘이불상’은 이불을 개어서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상으로 발이 조금 굽고 단단하며 밥상보다 높다.

108014 #1 아니, 헛꿈 돈나게 좋아.(아니, 조금 단단하게 좋아.)

108014 @ 아. 경해도 그냥 상추록 생긴 거예?(아. 그래도 그냥 상처럼 생긴 거지?)

108014 #1 발도 툄히고, 상발.(발도 투박하고, 상발.)

108014 @ 툄해? 뚜꺼워?(투박해? 두꺼워?)

108014 #1 슬져.(살져.)

108008 @ 아, 슬져. 그다음 게민 이 마리는 그때도 영 낭으로?(아, 살져. 그다음 그러면 이 마루는 그때도 이렇게 나무로?)

108008 #1 그때는 이, 요런 거는 이서이. 이런 구킬<sup>223</sup>이라곤이.(그때는 이, 요런 거는 있어. 이런 ‘구킬’이라고.)

108008 @ 응.(응.)

108008 #1 이것ㄴ란 구킬. 낭 요만씩 허여이.(이것보고는 ‘구킬’. 나무 요만큼씩 해.)

108008 @ 응.(응.)

108008 #1 걸 그냥 훑은 훑은허게 놔. 이추록 안 놔. 정행 대패로 밀엇자 이추록 안헤여. 더털더털더털허지. 게민이 마리도 안 맞앙 디디민 궁글락궁글락허고.(그걸 그냥 게 굵게 놔. 이렇게 안 놔. 그렇게 해서 대패로 밀어도 이렇게 안 해. 울통불통하지. 그러면 마루도 안 맞아서 디디면 ‘궁글락궁글락’하고.)

108008 @ 하하하. 궁글락.(하하하. ‘궁글락’.)

108008 #1 오랜 집덜이라부난 또 삭앙 또 이거 빠져 봄도 허고.(오랜 집들이라서 또 삭아서 또 이거 빠져버리기도 하고.)

108008 @ 게문 아까 이거 무신거라 구킬?(그러면 아까 이거 뭐야, 구킬?)

108008 #1 구킬, 구킬.(‘구킬’, ‘구킬’.)

108008 @ 구킬?(‘구킬’?)

108008 #1 응.(응.)

108008 @ 아, 구킬에다가 요기다 요렇게 널.(아, ‘구킬’에다가 요기다 요렇게 널.)

108008 #1 물려, 물려.(물려, 물려.)

108008 @ 응.(응.)

108008 #2 막 그것도 잘사는 집이라사 낭을 놓주. 난간.(막 그것도 잘사는 집이라야 나무를 놓지. 난간.)

108008 @ 낭으로 허는 거주예, 그거예.(나무로 하는 거지요, 그거요.)

108008 #2 다 나무주, 무신.(다 나무지, 무슨.)

108008 #1 이제 옛날 집덜 뜯어분 집은이 이런 낭도이 좋은 걸로덜이 춤낭으로 해불민이 집 뜯으는 디 강 낭장시허는 사름 이것덜 다 사가. 춤낭이라.(이제 옛날 집들 뜯어버린 집은 이런 나무도 좋은 걸로들 참나무로 해버리면 집 뜯는 데 가서

223) ‘구킬’은 정확한 어원은 모르겠으나 제보자는 마루청을 ‘구킬’이라고 했다.

나무장사 하는 사람 이것들 다 사가. 참나무야.)

108008 @ 아.(아.)

108008 #1 참나무 다 굴무기 ㄴ쁜 거 사오기 ㄴ쁜 거.(참나무가 다 느티나무 같은 거, 사오기 같은 거.)

108008 @ 이디가 마리가 नी이면예 요 앞인 난간예?(여기가 마루가 नी이면요 요 앞에 난간예요?)

108008 #1 난간.(난간.)

108008 @ 저 뒤에는?(저 뒤에는?)

108008 #1 뒤투똥<sup>224</sup>.(‘뒤투똥’.)

108008 @ 뒤투똥?(‘뒤투똥’?)

108008 #1 응. 뒤투 저건.(응. 뒤투 저건.)

108008 @ 뒤투 잇고. 뒤투 뒤에도 난간 이서?(뒤투 잇고. 뒤투 뒤에도 난간 잇어?)

108008 #1 엇어.(없어.)

108008 @ 난간은 엇고 그냥 뒤투?난간은 없고 그냥 뒤투?

108008 #1 것도 잇돌 박아정 영 돌덜 끝아근예.(그것도 디딤돌 박혀서 이렇게 돌들 깔아서.)

108008 @ 잇돌은 영 집 다 돌아가명 박아?(디딤돌은 이렇게 집 다 돌아가면서 박아?)

108008 #1 아니, 아니. 이 앞이만, 마당에.(아니, 아니. 이 앞에만, 마당에.)

108008 @ 앞이만. 혹시 뒤에 뭐 화리 같은 건데 마리 속에 영 파근에 화리 허고 허는 건 이 동넨 안 허지예?(앞에만. 혹시 뒤에 뭐 화로 같은 건데 마루 속에 이렇게 파서 화루 하고 하는 건 이 동넨 안 하지요?)

108008 #1 아, 봉덕<sup>225</sup>.(아, ‘봉덕’.)

108008 @ 응. 봉덕.(응. 봉덕.)

108008 #1 이렌 엇어.(이리는 없어.)

108008 @ 이렌 엇어예.(이리는 없어요.)

108008 #1 저 남군더렌 봉덕, 봉덕허는디, 봉덕방행. 부엌에도 봉덕 판덴 그딘. (저 남군쪽엔 ‘봉덕’, ‘봉덕’하는데, ‘봉덕’방해서. 부엌에도 ‘봉덕’판다고 거긴.)

108008 @ 아.(아.)

108008 #1 요만인 헤여근예.(요만큼 해서.)

108008 #2 불 추곡게.(불 쪼고.)

108008 @ 예, 거난. 이딘 그런 거 엇지예?(예, 그러니까. 여긴 그런 거 없지요?)

108008 #1 이렌 봉덕방이 엇어.(이리는 ‘봉덕’방이 없어.)

108008 @ 응.(응.)

224) ‘뒤투똥’은 뒤편에 있는 문이나 출입구 등의 의미이다.

225) ‘봉덕’은 마루나 부엌을 파서 돌화로를 설치한 난방 기구를 말한다.

108008 #2 남군더렌 이실티 몰라.(남군쪽엔 있을지 몰라.)

108008 #1 남군더렌 이실티 아니고 이서낫수게게. 웃드르, 저 이 산중드레도 이서낫어. 이바른 산중드레도.(남군쪽엔 있을지 아니고 있었었습니다. 중산간, 저 이 산중 쪽에도 있었었어. ‘이바른’ 산중으로도.)

108008 @ 아.(아.)

108008 #1 산간에.(산간에.)

108008 @ 추우니까.(추우니까.)

108008 #1 응.(응.)

108009 @ 게민 이제 이디 아까 고팡이엔 곶앗주예?(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곶방이라고 말했지요?)

108009 #1 응.(응.)

108009 @ 곶방 들어가민 곶팡문.(곶방 들어가면 곶팡문?)

108009 #1 곶팡문 일로 그냥 가.(곶팡문 이리로 그냥 가.)

108009 @ 일로 강 그냥 들어가.(이리로 가서 그냥 들어가.)

108009 #1 쫄 거렁 와근엥에 이디 부엌더러 강.(쫄 떠서 나와서 여기 부엌으로 가서.)

108009 #2 널문. 문은 널문이라고 해서 이만인 넓이로 해서 문 들앙.(널문. 문은 널문이라고 해서 이만큼 한 넓이로 해서 문 달아서.)

108009 #1 저딘 가민 뒷문이엔 행 이런 큰 나무 진 거 요만 쪼가리 헛 거, 진 거 부뜨민 두 개 부찌나 세 개 부찌나 행, 문을 영 열고 이추룩 헛 문이 아니.(저긴 가면 뒷문이라고 해서 이런 큰 나무 진 거 요만한 쪼가리 한 거, 긴 거 붙으면 두 개 붙이거나 세 개 붙이거나 해서,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한 문이 아니.)

108009 @ 응.(응.)

108009 #1 영 낭문이난 영 더갯당 영 올앙.(이렇게 나무문이니까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열어서.)

108009 @ 낭으로 웬 거예?(나무로 된 거요?)

108009 #1 낭으로 웬 거.(나무로 된 거.)

108009 @ 그믐 고팡에 그 뭐 쌀이영 이런 거 다 놔두는 거잖아예, 항에 담앙 놔두는 거?(그러면 곶방에 그 뭐 쌀이랑 이런 거 다 놔두는 거잖아요, 항에 담아 놔두는 거?)

108009 #1 항에 다. 항이엔 헛 항은 다 가. 용시 하영 허여도 그 속에 다 담아.(항에 다. 항이라고 한 항은 다 가. 농사 많이 해도 그 속에 다 담아.)

108009 @ 응.(응.)

108009 #1 이제 ㄴ찌 막 폴젠도 안 허여. 보리가 예를 들영 열 섬을 해도 다 물리멍 고팡에 항아리 속에 가.(이제처럼 막 팔려고도 안 해. 보리가 예를 들어서 열 섬을 해도 다 말리면서 곶방에 항아리 속에 가.)

108009 @ 응. 고팡에 창문 같은 것도 이수과?(응. 곶방에 창문 같은 것도 있습



니까?)

108009 #1 이서, 창꿈<sup>226)</sup>이, 볍게. 창꿈.(있어, ‘창꿈’이, 볍게. ‘창꿈’.)

108009 @ 응.(응.)

108009 #1 요만헌 디 창꿈 내민은이 고양이라도 들어오카부텐이 이추룩 살을 박아. 고양이 못 들어오게.(요만한 데 ‘창꿈’ 내면은 고양이라도 들어올까봐 이렇게 살을 박아. 고양이 못 들어오게.)

108009 @ 예.(예.)

108009 #1 요만헌. 요쪽으로 터지민 저쪽으로도, 두 밧디 터. 볍게.(요만한. 요쪽으로 터지면 저쪽으로도.(요만한. 요쪽으로 터지면 저쪽으로도, 두 군데 뚫어. 볍게.)

108009 @ 두 밧디, 아.(두 군데, 아.)

108009 #1 이제ㄴ찌 경 전기 비취주곡 안허난에 볍게.(이제같이 그렇게 전기 비취주고 안 하니까 볍게.)

108009 @ 아, 볍으렌. 바람도 통허고.(아, 볍으라고. 바람도 통하고.)

108009 #1 응. 볍게시리, 거. 창구망.(응. 볍게끔, 그거. 창구멍.)

108009 @ 창꿈?(‘창꿈’?)

108009 #1 창꿈. 창꿈 두 밧디만 내라 영행.(‘창꿈’. ‘창꿈’ 두 군데만 내라 이렇게 해서.)

108009 @ 그 고팡에 제 지내고 영도 해낫수과?(그 고팡에 제 지내고 이렇게도 했었습니까?)

108009 #1 고팡에 제는 제사 때 해나면은 그디 강 올려. 이 용시허는 사름은 이.(고팡에 제는 제사 때 하고나면 거기 가서 올려. 이 농사하는 사름은.)

108009 @ 응.(응.)

108009 #1 제석할망<sup>227)</sup> 직시로.(‘제석할망’ 뭇으로.)

108009 @ 제석할망?(‘제석할망’?)

108009 #1 응, 밧디. 밧디 가민 제석할망 직시로 이디 해나민 농사허는 창고니 까게.(응, 밧에. 밧에 가면 ‘제석할망’ 뭇으로 여기 하고나면 농사하는 창고니까.)

108009 @ 예.(예.)

108009 #1 우선 안넬 거려. 이제도 그디 그렌 몰라도 안네<sup>228)</sup> 명질 때 거려놔. 안네엔 허영.(우선 ‘안네’를 떠. 이제도 거기 그리는 몰라도 ‘안네’ 명질 때 떠놔. ‘안네’라고 해서.)

108009 @ 상 출릴 때?(상 차릴 때?)

108009 #1 응. 이제는 대강 이디도 안네 안 거려놔.(응. 이제는 대강 여기도 ‘안

226) ‘창꿈’은 ‘창꿈, 창꿈, 창꿈’이라고도 하며 고팡 등에 바람을 통하게 하려고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것이다.

227) ‘제석할망’은 농업을 관장하고 보호하는 풍농의 신이다.

228) ‘안네’는 고팡에 모시는 칠성신으로 ‘안칠성’, 또는 ‘고팡할망’이라고도 한다. 이 신들을 위한 제는 풍농과 고팡 안의 곡식을 잘 지켜 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명절이나 제사 때 주부가 메·채소 등을 차린 재물을 안칠성의 거처인 고팡의 쌀독 뚜껑 위에 차려 놓는다.

네' 안 떠냐.)

108009 @ 안네는 어떻 행 거려놓는 거파?('안네'는 어떻게 해서 떠놓는 겁니까?)

108009 #1 식게 멍질허듯 다 그대로 거려 놓는디 이제는 안네허는 디가 벨로 었어. 무신 농살 험서, 무시거 험서? 옛날 콩 보리덜 막 할 땐 안네엔 헤영 저레 문 용시도 고팡에 강 데미곡 허난 안네 찍시로.(제사 명절하듯 다 그대로 떠 놓는데 이제는 '안네'하는 데가 별로 없어. 무슨 농사를 하고 있어, 무엇 하고 있어? 옛날 콩 보리들 막 할 땐 '안네'라고 해서 저리 모두 농사도 고팡에 가서 쌓고 하니까 '안네' 뭉으로.)

108009 @ 그믐 그거는 상을 고팡에 왕 찰리는 거파?(그러면 그거는 상을 고팡에 와서 차리는 겁니까?)

108009 #1 아니. 이디 낫당 제 파제혈 때는 영 끈어 논 거이, 끈어 논 것만 쥔 큰 항 두깁드레 강 영 비와불어.(아니. 여기 왔다가 제 파제할 때는 이렇게 잘라 놓은 거, 잘라 놓은 것만 제일 큰 항아리 뒷쪽에 가서 이렇게 부어버려.)

108009 @ 아, 큰 항 두깁에?(아, 큰 항아리 뒷쪽에?)

108009 #1 두에더레.(뒷쪽에.)

108009 @ 아. 그믐 상은 그냥 제사 지내는 그 큰 상에다, 옆에다가? 바닥에?(아. 그러면 상은 그냥 제사 지내는 그 큰 상에다, 옆에다가? 바닥에?)

108009 #1 그냥 이거 큰 상 놓민 요 아래 놔.(그냥 이거 큰 상 놓으면 요 아래 놔.)

108009 @ 바닥에?(바닥에?)

108009 #1 응.(응.)

108009 @ 상을 따로 찰리는 건 아니고.(상을 따로 차리는 건 아니고.)

108009 #1 안네, 안네 찍시.('안네', '안네' 뭉.)

108009 @ 그냥 안네 찍시.(그냥 '안네' 뭉.)

108009 #1 그것이 안네. 고팡 초상 나시주, 것이. 예를 들르면은. 농사 잘 돼 쥔 쉰 허는 거 다향. 이젠 생각을 행 보면은.(그것이 '안네'. 고팡 조상 뭉이지, 그것이. 예를 들면. 농사 잘 돼 달라고 하는 거 같아. 이젠 생각을 해 보면.)

108009 @ 할머니네 집도 헤납디가, 그거?(할머니네 집도 했었습니까, 그거?)

108009 #1 우리도 헤난. 우리도 재작년7지도 안넬 거려놔났어이, 멍질혈 때는. 식게 때도 안네 놓고 멍질혈 때도 안네 거려놓는디 이제 우리 집안에 설러불겐 헨 에 설러불언. 혼 삼 년 땡어, 아니 거려 논 거.(우리도 했었어. 우리도 재작년까지도 '안네'를 떠놔었어, 명절할 때는. 제사 때도 '안네' 놓고 명절할 때도 '안네' 떠놓는데 이제 우리 집안에 그만두자고 해서 그만뒀버렸어. 한 삼 년 땡어, 안 떠 놓은 거.)

108009 @ 안네는 문전추록 똑ㄴ치 다.('안네'는 문전처럼 똑같이 다.)

108009 #1 응.(응.)

108009 @ 출린 거 다 행 놓는 거지예?(차린 거 다 해서 놓은 거지요?)

108009 #1 출린 거 다. 메도 ㄴ치 다 꼭ㄴ치.(차린 거 다. 밥도 같이 다 똑같이.)

108009 @ 우리 시집이도 그거 하는데.(우리 시집도 그거 하는데.)

108009 #1 이제도?(이제도?)

108009 @ 예, 이제도. 큰 상 영 해팅 문전상 잇고 그다음 바닥에다가.(예, 이제도. 큰 상 이렇게 해두고 문전상 잇고 그 다음 바닥에다가.)

108009 #1 안네.(‘안네’.)

108009 @ 예, 안네상이엔 해가지고 다 차리드라고마씨.(예, ‘안네상’이라고 해가지고 다 차리더라고요.)

108009 #1 경해여.(그렇게 해.)

108009 @ 그믐 그거 툇아근에 그거 쌀통 우트레 놔두라 영해근에.(그러면 그거 뜯어서 그거 쌀통 위에 놔두라 이렇게 해서.)

108009 #1 응. 제 헛당 우린 그냥 안네 가민 고평, 큰 항 두까리더레. 이제ㄴ지 허당 그냥 부엌 저편쪽더레 슬허게 비와불어. 이제는 아니 해도.(응. 제 했다가 우린 그냥 ‘안네’ 가민 고평, 큰 항아리 뒤에. 이제까지 하다가 그냥 부엌 저쪽 편에 살짝이 부어버려. 이제는 안 해도.)

108009 @ 이제는 안 해도.(이제는 안 해도.)

108009 #1 이제는 안네고 무신 곡식 안 허난 설러불자 헨에 집안에서덜 다 설러부난 안 해도.(이제는 ‘안네’고 무슨 곡식 안 하니까 그만두자 해서 집안에서들 다 그만두니까 안 해도.)

108009 @ 우리 시집이 안네상을 허민 안네상에 건 갈랑 먹는 거 아니고 그 제사 출린 사름만 먹는 거엔 허명 늬 주지 말앙 느네만 먹으렌 우리 시어머니 경 곱읍디다.(우리 시집에 ‘안네상’을 하면 안네상에 건 갈라서 먹는 거 아니고 그 제사 차린 사람만 먹는 거라고 하면서 남 주지 말고 너희만 먹으라고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108009 #1 몰라, 그런 건 몰라.(몰라, 그런 건 몰라.)

108009 @ 그런 건 몰라.(그런 건 몰라.)

108009 #1 늬 주지 말라 허는 건이 애기나 아팡이 애기 할망상에 놔난 거는이 늬를 안 줘.(남 주지 말라 하는 건 아기가 아파서 아기 ‘할망상’에 났던 거는 남을 안 줘.)

108009 @ 아.(아.)

108009 #1 건 본인이. 걸 늬 주지 말렌 헛주. 안네 놔난 건 늬 주지 말렌 안 들어뵈. 그 애기 상에 거 놔난 거는 누게 주지 말렌, 늬 주지 말렌 허여.(그건 본인이. 그걸 남 주지 말라고 했지. 안네 났던 건 남 주지 말라고는 안 들어뵈어. 그 아기 상에 젓 났던 거는 누구 주지 말라고, 남 주지 말라고 해.)

108009 @ 아.(아.)

108009 #1 건 정혜사 맞일 차례라. 이녁 애기니까. 늙이. 이녁 찬상이니까 늙 주지 말렌 허는 식으로. 안네 놔난 건 그런 건 몰르고 애기 헐 때 건 늙 주지 말렌 행 아니 줘.(그건 그래야 맞을 차례야. 자기 아기니까. 남이. 자기 조상이니까 남 주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안네’ 났던 건 그런 건 몰르고 아기 할 때 것은 남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줘.)

108010 @ 게민 이제 정지레 가보게예. 정지엔 무신거 무신거 이수과?(그러면 이제 부엌에 가봐요. 부엌엔 무엇무엇 있습니까?)

108010 #1 정지에 가면은 꺼멍헌 솥, 막 솥 치장허젠 허면이 두말치, 외말치, 닻뒤치기. 경혜영 서너니깬 앓져.(부엌에 가면 까만 솥, 막 솥 치장하려고 하면 두말들이, 외말들이, 닻뒤들이 그렇게 해서 서너 개를 안쳐.)

108010 @ 무신거 우이 앓져?(뒤 위에 안쳐?)

108010 #1 그냥 솥덕도이 돌챙이 빌영이 이추록 곱게 깎아.(그냥 붓돌도 석수장이 빌어서 이렇게 곱게 깎아.)

108010 @ 예.(예.)

108010 #1 솥 하나에 세 개씩. 두에 바투고 앞이 두 개씩.(솥 하나에 세 개씩. 뒤에 받치고 앞에 두 개씩.)

108010 @ 예.(예.)

108010 #1 정허민 그 우터레 톡톡 앓져.(그러면 그 위에 톡톡 안쳐.)

108010 @ 솥덕예.(붓돌요.)

108010 #1 응, 것이 솥덕이라. 게민이 요 솥 앓져난 디는이 요 솥은 두 개만 해도 뒤여. 요 솥 핑계에 요레 걸쳐볼민.(응, 그것이 붓돌이야. 그러면 요 솥 안쳤던 데는 요 솥은 두 개만 해도 돼. 요 솥 핑계에 요리 걸쳐버리면.)

108010 @ 아, 가운데 건 양옆으로 다 걸쳐지난.(아, 가운데 건 양 옆으로 다 걸쳐지니까.)

108010 #1 요것만 세 개 걸지이. 영 가민은 요거만 세 개 가고 요 솥 앓질 디는 요 덕더레 요거 영 걸쳐볼민 두 개베끼 아니라.(요것만 세 개 걸지. 이렇게 가면 요거만 세 개 가고 요 솥 안칠 데는 요 붓돌에 요거 이렇게 걸쳐리면 두 개밖에 아니야.

108010 @ 응. 경행 게민 그 우터레 솥 앓지고예. 그게 솥덕허고. 그다음 또 무신거 이십니까?(응.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위에 솥 얹히고요. 그게 붓돌이고. 그다음 또 무엇 있습니까?)

108010 #1 거기 가민 거베끼 엇지. 거민 그 그릇 놓는 거.(거기 가면 그거밖에 없지. 그러면 그 그릇 놓는 거.)

108010 @ 그릇 놓는 건 무신거엔?(그릇 놓는 건 무엇이라고?)

108010 #1 살레.(찬장.)

108010 @ 살레.(찬장.)

108010 #1 살레에 가민 삼단이 살레가 삼단이라이.(찬장에 가면 삼단이 살레가

삼단이야.)

108010 @ 응.(응.)

108010 #1 삼단이민 대로 이추록 이거보단 헝뎀 족게 현 대로 이디 징 놓듯이 영 놔근앵이 사발 어프는 디.(삼단이면 대로 이렇게 이거보단 조금 적게 한 대로 이거 켜 놓듯이 영 놔서 사발 얹는 데.)

108010 @ 물 빠지게?(물 빠지게.)

108010 #1 응, 물 빠지게, 징이 이성. 또, 것도 낭문 해영 영 올앗다가 영 더껏 다가.(응, 물 빠지게, 켜가 있어서. 또, 그것도 나무문 해서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덮었다가.)

108010 @ 응.(응.)

108010 #1 거 문도. 살렛문도.(그거 문도. 찬장문도.)

108010 @ 아, 그게 삼단으로 이서마씨?(아, 그게 삼단으로 있어요?)

108010 #1 응.(응.)

108010 @ 문도 그른 세 개 이서, 아니민 문은 하나?(문도 그러면 세 개 있어, 아니민 문은 하나?)

108010 #1 문도 다 이서, 세 개. 다 그 지 칸만씩.(문도 다 있어, 세 개. 다 그 자기 칸만큼씩.)

108010 @ 지 칸만씩.(자기 칸만큼씩.)

108010 #1 삼 단 칸에 다 문이 이서. 더끌 때는 영 더끄곡 올 때는 영 올곡.(삼 단 칸에 다 문이 있어. 덮을 때는 이렇게 덮고 열 때는 이렇게 열고.)

108010 @ 아. 영 여는 걸로.(아. 이렇게 여는 걸로.)

108010 #1 영 더끄곡 영 올곡.(이렇게 덮고 이렇게 열고.)

108010 @ 또 살레 말고.(또 찬장 말고.)

108010 #1 건 엇어.(그건 없어.)

108010 @ 물항도.(물항아리도.)

108010 #1 물항. 그릇 씻는, 물항 조꼳디, 요것이 물항이면은 그릇 씻는 것도 요만헌 저 뭐냐?(물항아리. 그릇 씻는, 물항아리 곁에, 요것이 물항아리면 그릇 씻는 것도 요만큼한 저 뭐냐?)

108010 @ 도고리?(함지박?)

108010 #1 장탱이.(장태.)

108010 @ 장탱이.(장태.)

108010 #1 장탱이 물항 조꼳디 낫당 밥 먹어난 거 그디서만 씻어.(장태 물항 곁에 낫다가 밥 먹어난 거 거기서만 씻어.)

108010 @ 아.(아.)

108010 #1 그릇 씻엇당 어떻행사 저 살렌 간 어퍼져신디 몰르크라.(그릇 씻어다가 어떻게 해야 저 찬장에 가서 얹어졌는지 모르겠다.)

108010 @ 하하하.(하하하.)

108010 #1 그릇 시킨 걸 살레에 강 어퍼야.(그릇 씻은 걸 찬장에 가서 얹어야.)

108010 @ 살레에 강 어플 거 아니예.(찬장에 가서 얹어 거 아니요.)

108010 #1 어퍼야지. 장탱이.(얹어야지. ‘장탱이’.)

108010 @ 아, 게민 아까 찻방에서는 보통 밥 먹어?(아, 그러면 아까 ‘찻방’에서는 보통 밥 먹어?)

108010 #1 밥도 먹고 그자 큰일 땀이 그디서 하간 거 만듬도 만들고 그럭저럭해 가.(밥도 먹고 그저 큰일 땀 거기서 온갖 거 만듬도 만들고 그럭저럭해 가.)

108010 @ 찻방에도 뭐 무신 찻장이라도 이십니까?(‘찻방’에도 뭐 무슨 찻장이라도 있습니까?)

108010 #1 아이구, 찻장이 무신 찻장이 이서게. 살레엔 현 거, 발 돋은 거, 진진 현 거 요만이 현 거 세우민 그것이 찻장이 되고 살레가 되고 다 했주.(아이구, 찻장이 무슨 찻장이 있어. 찬장라고 한 거, 발 돋은 거, 긴긴한 거 요만큼 한 거 세우면 그것이 찻장이 되고 살레가 되고 다 했지.)

108010 @ 건 정지에만 이신 거? 흥나?(그건 부엌에만 있는 거? 하나?)

108010 #1 또 마리엔 가민이 저 뒷문 발라 골방.(또 마루에는 가면 저 뒷문 쪽에 골방.)

108010 @ 응.(응.)

108010 #1 골방이엔 현 딴 젓그릇덜이 쟁반도 놓고 하간 좇대도 놓고 제에 쓰는 그릇은 그 골방 속에 놔.(골방아라고 한 댜 제기들이 쟁반도 놓고 온갖 좇대도 놓고 제에 쓰는 그릇은 그 골방 속에 놔.)

108010 @ 이디가 저 아까 고팡인디 골방은 어디파?(여기가 저 아까 고팡인데 골방은 어디니까?)

108010 #1 골방은 저 뒷문더레 가는 디.(골방은 저 뒷문으로 가는 데.)

108010 @ 뒷문드레 가는 디? (뒷문으로 가는 데?)

108010 #1 뒷문더레 가는 디 옆이 놔.(뒷문으로 가는 데 옆에 놔.)

108010 @ 고팡 옆이?(고팡 옆에?)

108010 #1 응, 저 뒷문더레 가는 옆이. 이거 고팡이면은 저 옆이 놔.(응, 저 뒷문을 가는 옆에. 이거 고팡이면은 저 옆에 놔.)

108010 @ 아, 그디가 골방. 젓상이영.(아, 거기가 골방. 제상이랑.)

108010 #1 젓상은 못 놔. 젓그릇만.(제상은 못 놔. 제기만.)

108010 @ 아. 젓그릇덜만.(아. 제기들만.)

108010 #1 그디가 골방.(거기가 골방.)

108010 @ 게난 그 그릇을 다 어떻 그 살레에 어뵈신고 했지.(그러니까 그 그릇을 다 어떻게 그 찬장에 얹고 있나 했지.)

108010 #1 젓그릇 이디 임시 먹는 것만 살레에 놔지, 젓그릇은 저디 놔지. 접시고 뒤흐고 다, 수제고.(제기 여기 임시 먹는 것만 찬장에 놔지, 제기는 저기 놔지. 접시고 뒤흐고 다, 수저고.)

108010 @ 냉장고도 엇고.(냉장고도 없고.)

108010 #1 냉장고?(냉장고?)

108010 @ 어디다가 놔뒀냐수과? 이젠 다 냉장고에 담읍니까?(어디다가 놔뒀었습니까? 이젠 다 냉장고에 담잖습니까?)

108010 #1 이젠. 다 시어불엄주, 그때는게 먹단계.(이젠. 다 쉬어버리지, 그때는 먹던 것이.)

108010 @ 먹당 남으민.(먹다 남으면.)

108010 #1 팔월 추석 해나민 오늘 허민 출 비레 가젠 허민 출 비레 앳앙 강 문 딱 시민 그냥 데껴붙어. 먹을 것도. 밤이라도 행 냉장고에 낫당 아침이 앳앙가도 좋을 거주만은 놀 디가 엇거든.(팔월 추석 하고나면 오늘 하면 꼴 베러 가려고 하면 꼴 비러 가져 가서 모두 쉬면 그냥 던져버려. 먹을 것도. 밤에라도 해서 냉장고에 놔다가 아침에 가져가도 좋을 거지만 놓을 데가 없거든.)

108012 @ 게민 이제 문예, 문. 이런 문 옛날에도. 이 앞이 이신 큰 문은 무신 문이라?(그러면 이제 문요, 문. 이런 문 옛날에도. 이 앞에 있는 큰 문은 무슨 문이야?)

108012 #1 대문.(대문.)

108012 @ 이딘 대문.(여긴 대문.)

108012 #1 이 문은 이거 대문.(이 문은 이거 대문.)

108012 @ 대문도 낭으로 영 열엇닥 허는 문이파?(대문도 나무로 이렇게 열었다가 하는 문입니까?)

108012 #1 응, 사 식으로 ㄱ사 살렛문ㄴ짜. 영 집안터렌 영 더갯당 을 땀 이 베 꺾더레 자쳐붙고.(응, 아까 식으로 아까 찬장문같이. 이렇게 집안으론 이렇게 덮었다가 열 땀 이 바깥에 젓혀버리고.)

108012 @ 자쳐근에.(젓혀서.)

108012 #1 이 문으로 영 더끄고 저 문 이레 더갯당 을 때는 또 이레 영 자치고 저레 영 자치고.(이 문으로 이렇게 덮고 저 문 이리 덮었다가 열 때는 또 이리 이렇게 젓히고 저리 이렇게 젓히고.)

108012 @ 게민 이 대문 옆에 요런 건 뭇렌 험니까?(그러면 이 대문 옆에 요런 건 뭇라고 험니까?)

108011 #1 지둥. 입쟁이. 문입쟁이.(기둥. 문설주. 문설주.)

108011 @ 어느 게 입쟁이?(어느 것이 문설주?)

108011 #1 이게.(이게.)

108011 @ 이게 입쟁이?(이게 문설주?)

108011 #1 응, 문입쟁이.(응, 문설주.)

108011 @ 우에, 우에도?(위에, 위에도.)

108011 #1 응, 것도 문지둥.(응, 그것도 문기둥.)

108011 @ 어느 게 지둥이파?(어느 게 기둥입니까?)

108011 #1 지동은 옛날엔 여기 세와났는디 이거 문지동.(기둥은 옛날엔 여기 세웠었는데 이거 문기둥.)

108011 @ 이게 문지동. 양쪽에 두 개?(이게 문기둥. 양쪽에 두 개?)

108011 #1 다, 다. 이디 거 다 기라.(다, 다. 여기 그거 다 그거야.)

108011 @ 입쟁이는?(문설주는?)

108011 #1 문입쟁이 게메, 지동은 베꿏디 하나 세와. 베꿏디.(문설주 글썽, 기둥은 밖에 하나 세어. 밖에.)

108011 @ 입쟁이는 요거 저 우이깁지 다 행 입쟁이?(문설주는 요거 저 위에까지 다 해서 문설주.)

108011 #1 응. 문입쟁이 이거 다.(응. 문설주 이거 다.)

108011 @ 그문 아까 문 저 영 더뜨민 종그는 건 무신거마씨?(그러면 아까 문 저 이렇게 덮으면 잠그는 건 뭐예요?)

108011 #1 무신거 엇어. 돌.(무엇 없어. 돌.)

108011 @ 돌쩌귀?(돌쩌귀?)

108011 #1 돌치기는 요디 왕 부뜨는 게 돌체기고. 영 더깁 종그는 거는 문고리 텔 건가?(돌쩌귀는 요기 와서 붙는 게 돌쩌귀고. 이렇게 덮어서 잠그는 거는 문고리 될 건가?)

108011 @ 문고리.(문고리.)

108011 #1 무시거. 통쇄 종그는 건디 것이. 통쇄 종그는디 걸 잊어부렁 골아지 크라?(무엇. 자물쇠 잠그는 건데 그것이. 자물쇠 잠그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말할 수 있겠나?)

108011 @ 게민 요거 또 물어보젠.(그러면 요거 또 물어보려고.)

108011 #1 대문 더깁 영 어디 가젠 허민 영 열쇄 걸영, 열쇄 종그는 것가 무시거? 영 동글락헌 거 썩와진 거.(대문 덮어서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면 이렇게 열쇠 걸어서, 열쇠 잠그는 것이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썩워진 거.)

108011 #2 나도 몰르크라.(나도 모르겠어.)

108011 #1 나도 생각, 골아짐은 해도 몰르크라.(나도 생각, 말해짐은 해도 모르겠어.)

108011 @ 하하하. 게민 요거는 지방이엔 허는가?(하하하. 그러면 요거는 문지방 이이라고 하는가?)

108011 #1 이건 지방.(이건 문지방.)

108011 @ 지방예.(문지방요.)

108011 #1 문지방.(문지방.)

108011 @ 문홈베기는 뭐라?(문홈은 뭐야?)

108011 #1 이것이 홈베기고, 문지방이고.(이것이 홈이고, 문지방이고.)

108011 @ 똑ㄱ튼 거라?(똑같은 거야?)

108011 #1 응. 홈베기 이거 다. 홈베기 문홈베기.(응. 홈 이거 다. 홈 문홈.)



108011 @ 문얼굴이엔 현 것도 이수과?(문얼굴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까?)

108011 #1 못 들어봤.(못 들어봤어.)

108011 @ 건 못 들어봤예. 옛날에 그믐 이 앞에 대문은 낭으로 켜 문이고 이 방에 문은 무신 문, 창호지로 붙은 문인가? 옛날 초집인.(그건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 앞에 대문은 나무로 된 문이고 이 방에 문은 무슨 문, 창호지로 바른 문인가? 옛날 초가집엔.)

108012 #1 밀창, 밀창.(미단이, 미단이.)

108012 @ 밀창.(미단이.)

108012 #1 밀창인디 저 방에 문은이 문 칸이 이만씩 해영이 이만씩 짱이 또 이치록 영 살 백영 창문을 불러이. 창문 베끗디레 보젠 허믐 요거 혼 칸은이 이런 유리 해당 영 부젓당 베끗디레 영 봐.(미단인데 저 방에 문은 문 칸이 이만큼씩 해서 이만큼씩 짜서 또 이렇게 이렇게 살 박아서 창문을 발라. 창문 밖에 보려고 하면 요거 한 칸은 이런 유리 해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밖으로 이렇게 봐.)

108012 @ 그거 무신거렌 굴읍니까?(그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8012 #1 건 무시거엔 허는디 이거 베끗디레 보젠 허난 요만씩 현 영현 것에 영현 칸에, 혼 칸에.(그건 뭐라고 하는데 이거 밖으로 보려고 하니까 요만큼씩 한 이렇게 한 것에 이렇게 한 칸에, 한 칸에.)

108012 @ 유리로 박앙예.(유리로 박아서요.)

108012 #1 유리 박앙 베끗디레 보이게.(유리 박아서 밖으로 보이게.)

108012 @ 봐지게, 응. 게믐 그거 일름은 잘 모르겠고예?(볼 수 있게, 응. 그러면 그거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108012 #1 그냥 이거 창문 불르, 팔월 나가믐이 막 방덜 불르는 사름 불르젠. 창문, 우선 방은 안 불러도 창문은 불러야. 문 터져노난.(그냥 이거 창문 바르, 팔월 나가면 막 방들 바르는 사름 바르려고. 창문, 우선 방은 안 발라도 창문은 발라야. 모두 터져 놓으니까.)

108012 @ 응.(응.)

108012 #1 얼 거니까. 팔월 나가믐 창문 불르젠 허믐 막 창호지덜 사당 문을 다. 이거 이제 유리라부난 안 불르는디.(추울 거니까. 팔월 나가면 창문 바르려고 하면 막 창호지들 사다가 문을 다. 이거 이제 유리라서 안 바르는데.)

108012 @ 그믐 이 방에 문은 영 여는 문이파? 아니민 영 여는 문이파? 방에 문도.(그러면 이 방에 문은 이렇게 여는 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는 문입니까? 방에 문도.)

108012 #1 방에 문도 이추록 살 줌진줌진해영이 아까 식으로 허는 문도 잇고이 그냥 영 여는 문은 드물어.(방에 문도 이렇게 살 자잘해서 아까 식으로 하는 문도 잇고 그냥 이렇게 여는 문은 드물어.)

108012 @ 그건 드물어예.(그건 드물어요.)

108012 #1 그것이 영 더젓당이 영 여는 문이 드물어.(그것이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여는 문이 드물어.)

108012 @ 다 그냥 밀렸닥.(다 그냥 밀렸다가.)

108012 #1 이추룩 이런, 지게, 것ㄴ라 지게문.(이렇게 이런, 지게, 그것보고 지게 문.)

108012 @ 아, 지게문.(아, 지게문.)

108012 #1 지게문 이추룩 짜. 이추룩 짜근앵에 영.(지게문 이렇게 짜. 이렇게 짜서 이렇게.)

108012 @ 창호지 불량예, 그게 지게문이구나예. 게민 뭐 이런 데 마리에도 지둥이 이수과?(창호지 발라서요, 그게 지게문이군요. 그러면 뭐 이런 데 마루에도 기둥이 있습니까?)

108005 #1 마리에 집이 땔라질 디가, 지둥 이것이 다 지둥이 돼주, 이걸로 바뵤 지난.(마루에 집이 무너질 데가, 기둥 이것이 다 기둥이 되지, 이걸로 받쳐지니까.)

108005 @ 아. 그냥 마리에 큰 지둥이 잇거나 이렇겐 안 해?(아. 그냥 마루에 큰 기둥이 있거나 이렇게는 안 해.)

108005 #1 대게 보민이 베끗디 난간이. 난간에 이만 부레긴 현. 아, 인척이 곁은 거 주춧돌.(대게 보면 밖에 난간이. 난간에 이만한 부피는 한. 아, 먼저 말한 거 주춧돌.)

108005 @ 주춧돌, 밑에 거.(주춧돌, 밑의 거.)

108005 #1 응, 주춧돌.(응, 주춧돌.)

108005 @ 이제 생각난.(이제 생각났어.)

108005 #1 그런 거 행 이디 세와. 앞이 두 밧디나 세 밧디나 집에 따랑. 그 주춧돌을 돌도 이만인 곱닥허게 까깁이 그 우터레 지둥을 세와.(그런 거 해서 여기 세워. 앞에 두 군데나 세 군데나 집에 따라서. 그 주춧돌을 돌도 이만큼 곱게 깎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워.)

108005 @ 지둥을 세와.(기둥을 세워.)

108005 #1 이 지둥을 흙에 가면은 재기 석어볼 거니까, 이 주춧돌 우터레 놔.(이 기둥을 흙에 가면은 빨리 썩어버릴 거니까, 이 주춧돌 위에 놔.)

108005 @ 그문 그게 주춧돌이 몇 개나 이십니까, 앞이, 이 앞이.(그러면 그게 주춧돌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앞에, 이 앞에.)

108005 #1 지둥 세울 딴 놔야지.(기둥 세울 텐 놔야지.)

108005 @ 거난 지둥이 보통 삼칸집이민 지둥은 몇 개?(그러니까 기둥이 보통 삼칸집이면 기둥은 몇 개?)

108005 #1 두 개 돼어. 두 개.(두 개 되어. 두 개.)

108005 @ 두 개.(두 개.)

108005 #1 저 구석에 이 구석에 다 구역마다 놔 줘야지. 주춧돌은 다 놔줄 거라. 든든허게.(저 구석에 이 구석에 다 구역마다 놔 줘야지. 주춧돌은 다 놔줄 거야. 단단하게.)

108005 @ 네 개, 그럼?(네 개, 그럼?)

108005 #1 뿐이 아니라도. 경 안 허민 것이 땀라지지. 지둥이 엇이면은.(폼이 아니라도.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무너지지. 기둥이 없으면.)

108005 @ 그든 그 귀에 네 개 있고. 네 개는 이서야 땀 거 아니예?(그러면 그 귀에 네 개 있고. 네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108005 #1 경해도 걸 앞이는 보여도 두에는 아니 보게 돈돈허게 땀들앗지. 우리 생각으로.(그래도 그걸 앞에는 보여도 뒤에는 안 보게 단단하게 만들었지. 우리 생각으로.)

108005 @ 예, 딱 보이지.(예, 딱 보이지.)

108005 #1 앞이는 주춧돌 멋지게 까까근앵에 허영 세왕 놓는다.(앞에는 주춧돌 멋있게 깎아서 해서 세워 놓는데.)

108005 @ 응.(응.)

108005 #1 아, 이거 말 곧기도 힘들다. 주춧돌을, 생각을.(아, 이거 말하기도 힘들다. 주춧돌을, 생각을.)

108005 @ 계난예, 주춧돌이 생각 안 났.(그러니까요, 주춧돌이 생각 안 나서.)

108015 @ 그면 여기 비 들이치지 말렌 이디 뭐 영.(그러면 여기 비 들이치지 말라고 여기 뭐 이렇게.)

108015 #1 이 난간에. 이거는 대문이니까 이거 난간이지.(이 난간에. 이거는 대문이니까 이거 난간이지.)

108015 @ 응.(응.)

108015 #1 이디 집가지가 브디주게 이디이. 게민 물 떨어지카부덴 난간, 이 안 터레도 대문드레 비 빠카부덴 무시거 발, 발이 아니고, 뜸, 뜸.(여기 처마가 가깝지 여기. 그러면 물 떨어질까봐 난간, 이 안으로도 대문으로 비 뿌릴까봐 무엇 발, 발이 아니고, 뜸, 뜸.)

108015 @ 뜸, 응.(뜸, 응.)

108015 #1 뜸 헤여근앵에 요 지둥에 이만 부레긴헌 낭 행 영 세우고 저레도 강 헤영 그 뜸을 바쳐줘. 물 이레 빠지 안허게, 비 안 빠게. 뜸.(뜸 해서 요 기둥에 이만한 부피한 나무 해서 이렇게 세우고 저리도 가서 해서 그 뜸을 받쳐줘. 물 이리 뿌리지 않게, 비 안 뿌리게. 뜸.)

108015 @ 건 비 올 때만 영 치는 거파?(그건 비 올 때만 이렇게 치는 겁니까?)

108015 #1 응. 정허고 또 이디 다른, 이제도 남군더렌 어디 가시리 그 뜸 딴이 무신 용으로 그거 헌 집 이서, 풍채 돌아, 풍채.(응.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다른, 이제도 남군으론 어디 가시리 같은 덴 무슨 용으로 그거 한 집 있어, 차양 달아, 차양.)

108015 @ 이던 풍채 안 됩니까?(여긴 차양 안 됩니까?)

108015 #1 이던 풍채 든 집 엇어. 옛날엔 이서났지, 가끔. 우리 두린 때 본 건디. 이제는 그런 거 엇어. 이제 민속촌에나 또 그런 거 잇지, 엇어 다른 디도.(여긴

차양 단 집 없어. 옛날엔 있었었지, 가끔. 우리 어린 때 본 건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 이제 민속촌에나 또 그런 거 있지, 없어 다른 데도.)

108015 @ 옛날에 할머니네 살 때도 풍채 행은에 달아놔수과?(옛날에 할머니네 살 때도 차양 해서 달았었습니까?)

108015 #1 허여놔어.(했었어.)

108015 @ 뚝은 어떻. 풍채 대신에 허는 거?(뚝은 어떻게. 차양 대신에 하는 거?)

108015 #1 비 올 때만 현 거. 비 아니 오면은 걷어불고.(비 올 때만 한 거. 비 안 오면은 걷어버리고.)

108015 @ 뚝은 위에다가 하는 거 아니파? 밑에다가 허는 거파?(뚝은 위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밑에다가 하는 겁니까?)

108015 #1 풍채는 위에다.(차양은 위에다.)

108015 @ 풍채는 위에다 허는 거고.(차양은 위에다 하는 거고.)

108015 #1 소소한 비 온 때는 그냥 돼고 바람 분 때는 뚝을 쳐야 돼.(소소한 비 온 때는 그냥 되고 바람 불 때는 뚝을 쳐야 돼.)

108015 @ 뚝은 그믐 어디로 어디 지동으로 붙영 영 돌아?(뚝은 그러면 어디로 어디 기동으로 붙여서 이렇게 돌아?)

108015 #1 이거 지동이면은 이레 이만큼 현 그췌한 냥이 이서. 게민 그디 무끄고 이디 무끄고 저디 무끄민. 이레 창문더레도 비 안 빠게 허곡이 마리, 대문더레도 안 빠게 거.(이거 기동이면 이리 이만큼 한 끝은 나무 있어. 그러면 거기 묶고 여기 묶고 저기 묶으면. 이레 창문으로도 비 안 뿌리게 하고 마루, 대문으로도 안 뿌리게 그거.)

108015 @ 아. 뚝을 치는 거.(아. 뚝을 치는 거.)

108015 #1 뚝을 짜.(뚝을 짜.)

108015 @ 뚝도 이디서 집이서 짜놔수과?(뚝도 여기서 집에서 짚었습니까?)

108015 #1 사지, 사.(사지, 사.)

108015 @ 저디 성산드레 가난 뚝 차놔텐 굴안게만은.(저기 성산으로 가니까 뚝 짚었다고 말하던데.)

108015 #1 뚝 차. 옛날 하르방덜은 유자 멘드는 하르방덜은 짚 수도 이서놔어. 정 곱겔 안 짜지. 대충 우리 시아바님 산 때도이 돌멩이, 그 베덜 다 돌아메명 이디 데싸 놓고 이디 데싸 놓고 허명 그 뚝을 짜더라.(뚝 짜. 옛날 할아버지들은 유자 만드는 할아버지들은 짚 수도 있었었어. 그렇게 곱게 안 짜지. 대충 우리 시아버님 산 때도 돌멩이, 그 베들 다 달아매서 여기 뒤집어 놓고 여기 뒤집어 놓고 하면서 그 뚝을 짜더라.)

108015 @ 응. 그믐 그 뚝은 비 올 때 영 여기만 두르는 용으로만 쓰는 거파? 다른 용으로는 안 써?(응. 그러면 그 뚝은 비 올 때 이렇게 여기만 두르는 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다른 용으로는 안 써?)

108015 #1 다른 용 쓸 디가 어디 서? 혹시 몰라. 보리 마당질, 콩 마당질할 때는 콩이 영 두드려 가민 뛰어 나가카부텐이 바우를 빙허게 세와 불민 그 베끗더 레는 안 가지. 이 안트레만.(다른 용 쓸 데가 어디 있어? 혹시 몰라. 보리 마당질, 콩 마당질할 때는 콩이 이렇게 두드려 가면 뛰어 나갈까봐 가장자리를 빙허게 세워 버리면 그 바깥에는 안 가지. 이 안으로만.)

108015 @ 예.(예.)

108015 #1 그런 사용으로.(그런 사용으로.)

108015 @ 아, 그런 용으로 사용은 해도예.(아, 그런 용으로 사용은 해도요.)

108015 #1 마당질은 정 계속허는 것도 아니주게. 철에 따랑만 해불민, 비는, 비사 원 어느 때까지라도 눈 크게 와도 치고, 여름에 비 하영 와도 그 바람 불, 바람 안 불 때사 안 치주만은 바람이나 불어가민 건 쳐야지.(마당질은 그렇게 계속하는 것도 아니지. 철에 따라서만 해버리면, 비는, 비야 원 어느 때까지라도 눈 크게 와도 치고, 여름에 비 많이 와도 그 바람 불, 바람 안 불 때야 안 치지만은 바람이나 불어가면 그건 쳐야지.)

108016 @ 게민 물팡?(그러면 ‘물팡’.)

108016 #1 저 부엌 저곳디 물팡이 이서.(저 부엌 곁에 ‘물팡’이 있어.)

108016 @ 응.(응.)

108016 #1 이만인 현 거. 정허민이 돌이 정 납지록, 요만 두께 현 거. 큰 거 이서, 발치록. 게민 이 돌을 그 우트레 강 걸쳐. 걸치민 이젠 이던 굴이 생겨. 그던 하간 거 히어뜩현 거 해당 담양 내불어이.(이만큼 한 거. 그렇게 하면 돌이 그렇게 납작, 요만한 두께는 한 거. 큰 거 있어, 발처럼. 그러면 이 돌을 그 위에 가서 걸쳐. 걸치면 이젠 여긴 굴이 생겨. 거긴 온갖 거 허튼 거 해다가 담아서 내버려.)

108016 @ 예.(예.)

108016 #1 물 질영 왕 물허벅 영 행 물 비와냥 물질 안 갈 때는 그 물팡 우이 왕 부리는 거.(물 길어 와서 물동이 이렇게 해서 물 부어와서 물질 안 갈 때는 그 ‘물팡’ 위에 와서 부리는 거.)

108016 @ 아, 허벅을.(아, 허벅을.)

108016 #1 응, 허벅을. 물구덕차 그냥 이레 그냥 부령 놔두는 거.(응, 동이를. ‘물구덕’째 그냥 이리 그냥 부려서 놔두는 거.)

108016 @ 응, 옛날에 물 지는 게 물 질레 가는 게 잘도 힘들어났지예?(응, 옛날에 물 끄는 게 물 길러 가는 게 아주 힘들었었지요?)

108016 #1 거 으레 경허는 거난 뭐 힘들명 말명 박세기 앓앙 강 대배기에 물 질영 왕, 집이 왕 이젠 영허영 그냥 지어. 지영 향아리더레 비와.(그거 으레 그러는 거니까 뭐 힘들면서 말면서 바가지 가져서 가서 작은 허벅에 물 길어 와서, 집에 와서 이젠 이렇게 그냥 저. 저서 향아리에 부어.)

108016 @ 정지에 이신 물향더레?(부엌에 있는 물독에?)

108016 #1 응, 그거주. 거민 따시 물질 안 갈 때는 이 물팡더레 왕 허벅이영 다

부러볼곡.(응, 그거지. 그러면 다시 물질 안 갈 때는 이 ‘물팡’에 와서 동이랑 다 부러버리고.)

108016 @ 허벅은 보통 구덕이 잇고 구덕 안에.(허벅은 보통 바구니가 잇고 바구니 안에.)

108016 #1 구덕 말고 물구덕이 서.(바구니 말고 ‘물구덕’이 있어.)

108016 @ 거난 물구덕에. 물구덕은 구덕이영 흐끔 트납니까?(그러니까 ‘물구덕’에. ‘물구덕’은 바구니랑 조금 다릅니까?)

108016 #1 구덕허고는 ㄴ뜨게 짜긴 짜는디 스랑허게 짜.(바구니하고는 갈게 짜기는 짜는데 기름하게 짜.)

108016 @ 아, 길이가.(아, 길이가.)

108016 #1 응, 영 스랑허게 짜면은 허벅 들어가고 물박세기 이디 놓고 허영 텅 기게시리.(응, 이렇게 기름하게 짜면은 허벅 들어가고 물바가지 여기 놓고 해서 다니게끔.)

108016 @ 응. 갱 그디 허벅허고 물박세기만 놔?(응. 그래서 거기 동이하고 물바가지만 놔?)

108016 #1 응.(응.)

108016 @ 갱 뭇로 영 지.(그래도 뭇로 이렇게 지.)

108016 #1 지어, 베로 지어.(저, 바로 저.)

108016 @ 베로 지영예.(바로 저서요.)

108016 #1 물구덕 창에 밑에는이.(‘물구덕’ 바닥에는 밑에는.)

108016 @ 무신거 깔아?(무엇 깔아?)

108016 #1 보리낭도 꿀곡이 그 바로 구덕 밑에 요만씩 현 왕대가 이서이.(보릿대도 깔고 그 바로 구덕 밑에 요만큼씩 한 왕대가 있어.)

108016 @ 예.(예.)

108016 #1 이제 교래리쫘 가민 대덜 잇잖아, 훑은 거. 그런 거 짹 짹 깨민 이 구덕 지레기만이 깨영 물구덕 바대 놔줘. 썩지, 썩. 이 물구덕 대는 알루니까 물 허민 썩어불민 빠져 불카부덴 이만씩 현 대를 물구덕 창에 쫘. 대로 영 쉼줄로라도 영 예껴냥 요만큼은 예껴냥 이제.(이제 교래리쫘 가면 대들 잇잖아, 굵은 거. 그런 거 짹 짹 쫘개면 이 바구니 길이만큼 쫘개서 ‘물구덕’ 받침 놔줘. 썩지, 썩. 이 ‘물구덕’ 대는 얇으니까 물 하면 썩어버리면 빠져 버릴까봐 이만큼씩 한 대를 ‘물구덕’ 바닥에 짜. 대로 이렇게 쇠줄로라도 이렇게 엮어 놓고 요만큼은 엮어 놔서 이제.)

108016 @ 아.(아.)

108016 #1 물구덕 창을 받아줘.(‘물구덕’ 바닥을 받아줘.)

108016 @ 아. 구덕 빠지지 안허게.(아. 동이 빠지지 않게.)

108016 #1 물허벅 빠지지 안허게. 건 무시거엔 굴을 거여만은 잇어불영 못 굴으켜, 짓도.(물동이 빠지지 않게. 그건 무엇이라고 말할 거다만은 잇어버려서 못 말하겠어, 그것도.)

108016 @ 그민 대바진 무신거마썸?(그러면 ‘대바지’는 뭐예요?)

108016 #1 죽은 거, 죽은 거.(작은 거, 작은 거.)

108016 @ 애기덜.(아기들.)

108016 #1 커오는 아이덜 혼 열뒤 술 난 아이덜 저. 그때는 아이덜토 물을 저와 시난게. 그런 때는 그런 아이덜은 물구덕 었어. 이 차룽, 차룽이엔 힌 거. 제스 때 무신 옛날에 적도 놓고 떡도 낵 허여난 것덜 그런 거 혈어가민 그것에 낵. 물지는 거 배우렌. 그것에 영 지어, 대바지. 대바지도 잇고 쎽도 잇고, 허벅도 잇고.(커오는 아이들 한 열두어 살 난 아이들 저. 그때는 아이들도 물을 저왔으니까. 그런 때는 그런 아이들은 ‘물구덕’ 었어. 이 채룽, 채룽이라고 한 거. 제사 때 무슨 옛날에 적도 놓고 떡도 낵서 했었던 것들 그런 거 혈어가면 그것에 낵서. 물 지는 거 배우라고. 그것에 이렇게 저서, ‘대바지’. ‘대바지’도 잇고 병도 잇고, 동이도 잇고.)

108016 @ 쎽은 뭐라?(병은 뭐야?)

108016 #1 쎽은 이 옛날 감주병 님은 거. 영 흐뎡 우 쫄아지고 영 방탕헌 것이 이서. 그런 건 어린 아이덜이 또 힘에 맞게 멘든 거산디.(병은 이 옛날 감주병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위 줄어들고 이렇게 ‘방탕’한 것이 있어. 그런 건 어린 아이들이 또 힘에 맞게 만든 것인지.)

108016 @ 그거에 물 질영 오는 거?(그거 물 길어서 오는 거?)

108016 #1 응. 또 대바진 또 허벅 님아, 꼭 허벅 님은디 흐뎡 죽게 만든 거.(응. 또 ‘대바지’는 또 동이 같아, 꼭 동이 같은데 조금 작게 만든 거.)

108016 @ 그민 더 죽은 아이들은 쎽에 강 질어오는 거꽈?(그러면 더 작은 아이들은 병에 가서 길어오는 겁니까?)

108016 #1 응. 지네 재미로 질레 가.(응. 자기네 재미로 길러 가.)

108016 @ 재미로?(재미로?)

108016 #1 응. 베도 질 충 몰랑 영 헤도.(응. 바로 질 줄 몰라서 이렇게 헤도.)

108018 @ 응. 게민 이제 아까 이문간 이섯수게, 먼문간.(응. 그러면 아까 대문간 있었잖아요, 문간채.)

108018 #1 먼문간.(문간채.)

108018 @ 먼문간. 먼문간 바꿨디서 영 골목이 이시민 그걸 올레, 올레엔 곤지 예?(문간채. 문간채 밖에서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 그걸 ‘올레’, ‘올레’라고 말하나요?)

108017 #1 골목집이.(골목집에.)

108017 @ 골목집?(골목집?)

108017 #1 응, 율타리. 율타리, 율타리. 골목집이 저 안골목집이 가라, 강 오라 게 영행.(응, 율타리. 율타리, 율타리. 골목집이 저 안골목집에 가라, 가서 와라 이렇게 해서.)

108017 @ 아, 안골목집.(아, 안골목집.)

108017 #1 요디 이디ㄴ라 안골목집.(요기 여기보고 안골목집.)

108017 @ 계민 이 골목이 영 이시민예, 이 올레에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영 험니까예? 그른 그 골목은.(그러면 이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올레’에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골목은.)

108017 #1 무신 골목 이름이 엇어.(무슨 골목 이름이 없어.)

108017 @ 아, 올레는 무신거라 계민?(아, 올레는 뭐야 그러면?)

108017 #1 이디 나가민 올레. 이제도.(여기 나가면 ‘올레’. 이제도.)

108017 @ 이디 나가민, 대문 나가민?(여기 나가면, 대문 나가면?)

108017 #1 이제 우리도 얼른 곶아져. 저 올레 강 보라게, 아이덜 ㄴ라.(이제 우리도 얼른 말해져. 저 ‘올레’ 가서 보라, 아이들보고.)

108017 @ 계난.(그러니까.)

108017 #1 것이 올레.(그것이 ‘올레’.)

108017 @ 올레가 거난 대문 베끗디?(‘올레’가 그러니까 대문 밖에?)

108017 #1 응, 대문 베끗디 올레.(응, 대문 밖에 ‘올레’.)

108017 @ 그 길?(그 길?)

108017 #1 응. 길에가 영 나가면은 올레. 저 올레 나강 보라게, 싸왓시냐, 어떻 험시냐 그런 말을 잘 곶아져, 이제도. 이제도 경 곶아져.(응. 길에 이렇게 나가면 ‘올레’. 저 ‘올레’ 나가서 보라, 싸우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말을 잘 말해져, 이제도. 이제도 그렇게 말해져.)

108017 @ 그른 요 대문 바끗디 그 길 이신 거는 올레?(그러면 요 대문 밖에 그 길 있는 거는 ‘올레’?)

108017 #1 응, 올레. 올레 베끗디 나가민 이 문간 베끗디 나가민 올레.(응, ‘올레’. ‘올레’ 밖에 나가면 이 문간 밖에 나가면 ‘올레’.)

108018 @ 응. 아까 처음에 그 먼문간에는 크게 짓어근에 아까 쉼막도 거기다가 하는 거고.(응. 아까 처음에 그 문간채에는 크게 지어서 아까 외양간도 거기다가 하는 거고.)

108018 #1 흔착은. 이것이 먼문간이면은 일론 사름 땡기고 일론 쉼막허고 요디 또 칸행, 하난 소막 하난 물막.(한쪽은. 이것이 문간채면 이리론 사람 다니고 이리로 외양간하고 요기 또 칸 해서, 하나는 외양간 하나는 마구간.)

108018 @ 계문 그 뭐 잠데영 이런 건 어디 놔둡니까?(그러면 그 뭐 쟁기랑 이런 건 어디 놔둡니까?)

108018 #2 우이.(위에.)

108018 #1 이런 디.(이런 데.)

108018 @ 쉼막 우이?(외양간 위에?)

108018 #2 응, 서리 아래.(응 서까래 아래.)

108018 #1 먼문간에도이 이제 ㄴ찌 깨끗허지 안행 이 먼문간에도 무신 못덜 박양 그 가린석이여 무시거여 다 그레 돌아매어.(문간채에도 이제같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 문간채에도 무슨 못들 박아서 그 고삐다 무엇이다 다 그리 달아매.)



108018 @ 아, 그디 다 돌아매어. 베끗디 창곤 엇수과?(아, 거기 다 달아매. 밖에 창고는 없습니까?)

108018 #1 베끗디 창고가 엇주게. 저실에 메나민 그 쉼막이 창고도 돼고.(밖에 창고가 없지. 겨울에 매고나면 그 외양간이 창고도 되고.)

108018 @ 아.(아.)

108018 #1 무시거 돼주.(무엇 되지.)

108019 @ 게민 이 집 영 앓이민 이디 어디 놀 늑니까? 놀 늑젠 허민.(그러면 이 집 이렇게 앓으면 여기 어디 가리 가릅니까? 가리 가리려고 하면.)

108019 #1 놀? 이디도 두 개 이서나고이.(가리? 여기도 두 개 있었었고.)

108019 @ 응.(응.)

108019 #1 또 요디 ㄴ시락도 허고이.(또 요기 까끄라기도 하고.)

108019 @ ㄴ시락 놀?(까끄라기 가리?)

108019 #1 ㄴ시락 굴묵 진을 거 요만은 헌 디 막 데며근앵이 막 도당 허영 더 끄곡 행 헤낫주.(까끄라기 ‘굴묵’ 땔 거 요만은 한 데 막 쌓아서 막 함석 해서 덮고 해서 했었지.)

108019 #2 도당이 어디 서?(함석이 어디 있어?)

108019 #1 도당이 어디 서? 저 무신 허뜩헌 거 행.(함석이 어디 있어? 저 무슨 어지러운 거 해서.)

108019 @ ㄴ람지 .(이영.)

108019 #1 더끄민 석어근앵에 굴묵 진젠 허민 젓영 몰르레 텅긴다 무시거 헌 다.(덮으면 썩어서 ‘굴묵’ 때려고 하면 젓어서 말리러 다닌다 무엇 한다.)

108019 @ 예, 요딘 ㄴ시락 놀 놀고. 이디 놀 두 개 놀고.(예, 요긴 까끄라기 가리 가리고. 여기 가리 두 개 가리고.)

108019 #1 혼 집이 늑굽 서너 개 신 디가 힘들어.(한 집에 ‘늑굽’ 서너 개 있는 데가 힘들어.)

108019 @ 아.(아.)

108019 #1 요디도 늑굽 두 개, 저 울안 베끗디도 늑굽 허곡 헤낫주, 우리.(요기도 ‘늑굽’ 두 개, 저 울안 밖에도 ‘늑굽’ 하고 했었지, 우리.)

108019 @ 응. 게민 그 놀 허민 놀.(응. 그러면 그 가리 하면 가리.)

108019 #1 출늑도 놀고 진을커도 행 놀고. 다 해. 출늑도 하나 두 개라? 조침늑도 잇곡 콩늑도 잇곡 헤불민.(꿀가리도 가리고 땔감도 해서 가리고. 다 해. 꿀가리도 하나 두 개니? 조침가리도 있고, 콩대 가리도 있고 해버리면.)

108019 @ 응.(응.)

108019 #1 그냥 소 먹이는 산전에 풀, 거 출도 비어당 늑곡 허민 늑굽이 엇어가 민 이젠 그 우터레 포도 막 자리 크게 행 크게 놀어 가고. 게민 뺨만 성가시지. 출이 빠젠 허민.(그냥 소 먹이는 산전에 풀, 그거 풀도 베어다가 가리고 하면 ‘늑굽’이 없어가면 이젠 그 위에 포도 막 자리 크게 해서 크게 가려 가고. 그러면 빠기만 성

가시지. 꿀 빼려고 하면.)

108019 @ 하하하. 아이덜 저 곱을락힐 땐 놀.(하하하. 아이들 저 숨바꼭질할 땐 가리.)

108019 #1 트명에 강 잘 곱아.(틈에 가서 잘 숨어.)

108019 @ 트명에 강 곱곡예.(틈에 가서 숨고요.)

108019 #1 경해.(그렇게 해.)

108019 #2 잘 알았어.(잘 알고 있네.)

108019 @ 나도 해놔주마씨게. 나도 이제 마흔다섯인디게. 이 집이 족은뜰만이 현디.(나도 했었지요. 나도 이제 마흔다섯인데. 이 집에 작은딸만큼 한테.)

108019 #1 족은뜰도 거 막 잘도 착해. 하르방 산 때 하르방, 학교 땡기멍 우리 밧디 땡겨불민 동끄랑이<sup>229)</sup> 밧행 드리고 다 해난.(작은딸도 그거 막 잘도 착해. 할 아버지 살 때 할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우리 밧에 다녀버리면 ‘동끄랑이’ 밧해서 드리고 다 했었어.)

108020 @ 게민 이 집이 영 이시민 통신 어느 짝에 이서낫수과?(그러면 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 돼지우리는 어느 쪽에 있었었습니까?)

108020 #1 통시 저디.(돼지우리 저기.)

108020 @ 저디 저.(저기 저.)

108020 #1 일로 영 밧그레 두에.(이리로 이렇게 바깥채 뒤에.)

108020 @ 밧그레 뒤에.(바깥채 뒤에.)

108020 #1 그디가 처음엔 곳사 말적 아니라도 올레라낫주게. 두에가.(거기가 처음엔 아까 말마따나 ‘올레’였었지. 뒤에가.)

108020 @ 응.(응.)

108020 #2 우리가 이디 사오멍 막아불엇주.(우리가 여기 사오면서 막아버렸지.)

108020 #1 건디 우리가 산 오멍 그디 문로가 곳텐헨 일로 문을 낸.(그런데 우리가 사서 오면서 거기 문로가 곳다고 해서 이리로 문을 냈어.)

108020 @ 응. 게민 그 저 올레 저곳되가 통시라난?(응. 그러면 그 저 ‘올레’ 곁에가 돼지우리였어?)

108020 #1 응.(응.)

108020 @ 통시에는 도새기 집이 따로 잇주예?(돼지우리에는 돼지 집이 따로 있지요?)

108020 #1 도새기 집 잇주게. 요만이 담 당 그 우이 막 조침대고 막 무시거 영 놀어근예.(돼지 집 있지. 요만큼 담 쌓아서 그 위에 막 조짚이고 막 무엇 이렇게 가려서.)

108020 @ 예, 놀영예. 도새기 집 잇고. 그다음예.(예, 가려서. 돼지 집 잇고. 그 다음예.)

108020 #1 그디도 또 놀굽 하나 이서낫저, 첨.(거기도 또 ‘놀굽’ 하나 있었었어,

229) ‘동끄랑이’는 짐을 꾸리거나 차림을 짜임새 있게 잘 해놓는다는 뜻이다.

참.)

108020 @ 예?(예?)

108020 #1 통시 즈끗되도 놀굽 하나.(돼지우리 곁에도 ‘놀굽’ 하나.)

108020 @ 통시 즈끗되도 놀굽.(돼지우리 곁에도 ‘놀굽’.)

108020 #1 경허른 질레로 보리낭 시경 그디 막 크게 보리낭놀 놀엇당 거름 내 나민 거 빠멍 통시더레 놓고.(그러면 길에도 보릿대 실어서 거기 막 크게 보릿대 가 리 가렸다가 거름 내고 나면 그거 빼면서 돼지우리에 놓고.)

108020 @ 통시더레 놓고. 게민 도새기 집 이신 거 말고 그 통시 안네 도새기 밥 먹는 거는?(돼지우리에 놓고. 그러면 돼지 집 있는 거 말고 그 통시 안에 돼지 밥 먹는 거는?)

108020 #1 돛도고리<sup>230</sup>.(‘돛도고리’.)

108020 @ 돛도고리.(‘돛도고리’.)

108020 #1 돛항<sup>231</sup>.(‘돛항’.)

108020 @ 예?(예?)

108020 #1 돛항.(‘돛항’.)

108020 @ 돛항이 뭐?(‘돛항’이 뭐?)

108020 #1 도새기 굿인 물 놓는, 굿인 물, 우리가 그릇 씻어나고 보리쌀 씻어난 물 다 하영 허멍 도새기 맥이젠 막 쳐 낱 씻영 그 항아리에 낯당 것 줄 때는 채 주고 그 물 퍼주고.(돼지 굿은 물 놓는, 구정물, 우리가 그릇 씻었었고 보리쌀 씻었던 물 다 많이 하면서 돼지 먹이려고 막 많이 놔서 씻어서 그 항아리에 댔다가 먹이 줄 때는 겨 주고 그 물 퍼주고.)

108020 @ 그믐 돛도고리는 채 놓는 디고 항, 돛항은 물 놓는 디?(그러면 ‘돛도고리’는 겨 놓는 데고 항아리, ‘돛항’은 물 놓는 데?)

108020 #1 물 놓는 디.(물 놓는 데.)

108020 @ 그믐 도고리 닳은 게 두 개 이수과?(그러면 함지박 같은 게 두 개 있습니까?)

108020 #1 아니, 하나. 돛도고리가이 커. 그 것 주는 거 어디 밧되나 가젠 허민 보리고 채고 하영 주젠 허민 이만큼은 헌 거, 움막허게 파진 것이 잇주게.(아니, 하나. ‘돛도고리’가 커. 그 먹이 주는 거 어디 밧에나 가려고 하면 보리고 겨고 많이 주려고 하면 이만큼은 한 거, 움푹하게 파진 것이 있지.)

108020 @ 돌로 웬 거. 경허고.(돌로 된 거. 그렇게 하고.)

108020 #1 경허민 이젠.(그러면 이젠.)

108020 @ 아까 물 놓는 건?(아까 물 놓는 건?)

108020 #1 통시, 이거 통시민 이거 담 베끗된 물 놓는 돛항.(돼지우리, 이거 돼지우리면 이거 담 밖에 물 놓는 ‘돛항’.)

230) ‘돛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이다.

231) ‘돛항’은 그릇 씻거나 쌀 씻었던 물을 돼지 먹이려고 모아 놓은 항아리이다.

108020 @ 아, 돛항, 배끗디. 게민 그걸 거디서 콧인물 모아 낫뿔당 땡 주는 거.  
(아, ‘돛항’. 밖에. 그러면 그걸 거기서 구정물 모아 낫뿔다가 떼서 주는 거.)

108020 #1 응.(응.)

108020 @ 응. 게민 나도 저 그 도새기 질루는 통시에 가근에 앓아근에 오줌 싸고 해나신디. 저 돌로 이렇게 팡 영 낵예.(응. 그러면 나도 저 그 돼지 기르는 통시에 가서 앓아서 오줌 싸고 했었는데. 저 돌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낵서요.)

108020 #1 이추룩헌 돌 영 낵 이레 걸쳐 앓앙 이디 도새기 똥 먹으렌 싸주.(이렇게 한 돌 이렇게 낵서 이리 걸터 앓아서 여기 돼지 똥 먹으라고 싸지.)

108020 @ 거난 경허당 보민 도새기 왕 막 영.(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돼지 와서 막 이렇게.)

108020 #1 아이덜 노랭 가도 안허고.(아이들 놀래서 가지도 앓고.)

108020 @ 예.(예.)

108020 #2 아니, 이제 그 봐낫어?(아니, 이제 그 봤었어?)

108020 @ 예, 나도 봐낫수다.(예, 나도 봤었습니다.)

108020 #1 통시사 봐야주.(돼지우리야 봐야지.)

108020 #2 마흔다섯에?(마흔다섯에?)

108020 @ 예.(예.)

108020 #1 메<sup>232)</sup>, 통시 봤수다. ○○네도 다 봐낫주, 통시.(‘메’, 통시 봤습니다. ○○네도 다 봤었지, 돼지우리.)

108020 @ 예, 우리 할으부지네, 우리 집은 엇어나고예 할으부지네 집인 이서낫수다, 우리도. 경행 그디 가민 화장실 안 가구정 허덴 행은에 자꾸.(예, 우리 할아버지네, 우리집은 없었었고요 할아버지네 집엔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화장실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자꾸.)

108020 #1 므스왕덜 아이덜 가젠도 안헤여. 도새기가 나쁜 행실머리 ㄴ져근에 요 돌 우터레 칙 올라사부난 노래영 가젠도 안헤여.(무서워서들 아이들 가려고도 안해. 돼지가 나쁜 행실머리 가져서 요 돌 위에 ‘칙’ 올라서머리니까 놀래서 가려고도 안해.)

108020 @ 게민 나는 경은 안 해낫수다만은 낭대기로.(그러면 나는 그렇게도 안했었습니다만은 막대기로.)

108020 #1 두들명. 막대기도 해다 낵. 요만인 현 거 깎는 깎는 현 거, 진 거 해다낫당. 도새기 오지 못허게 막 두들명. 옛날은 도새기 질좌사 돈도 똥꼭 경 해놓난 도새기도 욕심허영 질루고.(두드리면서. 막대기도 해다 낵. 요만큼 한 거 가는 가는 한 거, 진 거 해다 낵다가. 돼지 오지도 못허게 막 두드리면서. 옛날은 돼지 길러야 돈도 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돼지도 욕심해서 기르고.)

108020 @ 도새기 질좌사 돈이 똥다고?(돼지 길러야 돈이 된다고?)

108020 #1 집집마다 통시가 이시난 그런 거 허민이 퀘기도 어롭긴 어루와이. 판

232) ‘메’는 기가 막힐 때 내는 소리로 ‘메게라, 메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매히는 사람이 막 도새기 사례 텅기지, 집집마다. 나는 도새기 새끼도 하영 내와났저.(집집마다 돼지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고기도 어렵긴 어려워. 판매하는 사람이 막 돼지 사러 다니지, 집집마다. 나는 돼지 새끼도 많이 냈었지.)

108020 @ 도새긴 새끼 하영 나잖아, 한꺼번에예.(돼지는 새끼 많이 낳잖아, 한꺼번에요.)

108020 #1 하영 내왔어, 나가. 일 년이민 뒤 번, 서너 번 내우멍 폴아, 돈이 되게.(만이 냈어, 내가. 일 년이면 두어 번, 서너 번 내면서 팔아, 돈이 되게.)

108020 @ 응.(응.)

108020 #1 이녁냥으로 다 새끼 내웁곡 허영.(자기대로 다 새끼 내고 하면서.)

108023 @ 거난 아까 뛰는 여기 헛간하고 외양간이 나오는데 헛간하고 외양간 따로 없이 아까 먼문간에 그냥 같이 돼있다고 하는 거지예?(그러니까 아까 뛰는 여기 헛간하고 외양간이 나오는데 헛간하고 외양간 따로 없이 아까 문간채에 그냥 같이 돼있다고 하는 거지요?)

108023 #1 외양간은 거 창고 말. 창고 말 아니?(외양간은 그거 창고 말. 창고 말 아니?)

108023 @ 아니, 쉼막.(아니, 외양간.)

108023 #1 쉼막이 그냥 부떠분 거.(외양간이 그냥 붙어버린 거.)

108023 @ 부떠분 거라예, 따로 엮고예?(붙어버린 거요, 따로 엮고요.)

108023 #1 응. 문, 사람 텅기는 먼문간 칸 갈랑 또, 또 반착 갈랑 뭉 혼착 메곡, 소 혼 착 메곡 우린 이디 경해난.(응. 문, 사람 다니는 문간채 칸 갈라서 또, 또 반쪽 갈라서 말 한쪽 매고, 소 한쪽 매고 우린 여기 그랬었어.)

108023 @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네 집은 쉼막이 따로 영 이서근에 먼문간에 엮고. 먼문간이 엮고. 올렛질이 질게 돼고예 갱 들어가민 밧거리 잇고 요쪽엔 저.(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네 집은 외양간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문간채에 없고. 문간채 없고. ‘올레’길이 길게 되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바깥채 있고 요쪽엔 저.)

108023 #1 소막.(외양간.)

108023 @ 쉼막이 이서낫주마씨. 게민 쉼막 안네 뭐 창고추록 무신것도 막 놓고.(외양간이 있었었지요. 그러면 외양간 안에 뭐 창고처럼 무엇도 막 놓고.)

108023 #1 응, 혼 칸 갈랏주. 이녁 용, 용 씨젠.(응, 한 칸 갈랏지. 자기 용, 용 쓰려고.)

108023 @ 예, 그렇게 해난 거 닳은디 이딘, 이 집인?(예,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여긴, 이 집은?)

108023 #1 이디도 이서낫주게. 글로 저딜로 쪼그만 창고가 이서낫어. 이제, 이제도 허여난 식으로 그디가 돼엿어.(여기도 있었었지. 거기서 저기로 쪼그만 창고가 있었었어. 이제, 이제도 했던 식으로 거기가 됐어.)

108023 @ 거난 먼문간 말고 또 창고가 이서낫수과?(그러니까 문간채 말고 또 창고가 있었습니까?)

108023 #1 이쪽으로 그 집은 집이다.(이쪽으로 그 집은 집인데.)

108023 @ 부터근에.(붙어서.)

108023 #1 소막 옆일로 이쪽으로 우리 마당 펜으로 텅기기 좋게, 쪼그만헌 널문 하나 행 흔착으로만 올았다 더꿔다 허는.(외양간 옆으로 이쪽으로 우리 마당 편으로 다니기 좋게, 쪼그마한 널문 하나 해서 한쪽으로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108023 @ 갱 그디 뭐 이것 저것.(그래서 거기 뭐 이것 저것.)

108023 #1 소소한 거 앓앙 텅기당 구덕도 놓고 뒤키것도 놓고.(소소한 거 가져다니다가 바구니도 놓고 무엇도 놓고.)

108023 @ 응, 계난 그건 아까 뒤킨 굴아?(응, 그러니까 그건 아까 뒤킨다고 말해?)

108023 #1 그냥 창고엔도 안허고 그디 저디 강 보랑 쉼막이영 부짱 굴아부난 쉼막이엔만 굴아.(그냥 창고라고도 안 하고 거기 저기 가서 봐서 외양간이랑 붙여서 말해버리니까 외양간이라고만 말해.)

108024 @ 쉼막 강 보라 영행. 계민 여기가 정진디 항은 어디다 놔둬니까?(외양간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부엌인데 항아리는 어디다 놔둬니까?)

108024 #1 무신 항?(무슨 항아리?)

108024 @ 똥장 항이영 뒤킨.(똥장 항아리랑 뒤킨.)

108024 #1 건 뒤에.(그건 뒤에.)

108024 @ 아, 뒤에.(아, 뒤에.)

108024 #1 이것이 뒤에니까.(이것이 뒤에니까.)

108024 @ 응, 아까 뒤킨이난예.(응, 아까 ‘뒤킨’이니까요.)

108024 #1 그디 가른 막 고운 돌 해다냥이 장항 놀 거.(거기 가면 아주 고운 돌 해다 놔서 장항아리 놓을 거.)

108024 @ 응.(응.)

108024 #1 또 장항덜 놀 거 그냥 곱닥헌 돌덜 해당 낫당 그디 툭툭 낫당. 장 거려당 일로 왕 거려당 부엌더레 강 먹고.(또 장항아리 놓을 거 그냥 고운 돌들 해다 놔다가 거기 툭툭 놔다가. 장 떠다가 이리로 와서 떠다가 부엌으로 가서 먹고.)

108024 @ 응.(응.)

108024 #1 또 정 안헌 집이는 부엌으로 절로 또 뒤킨이 이서이, 또 뒤킨이. 부엌 뒤킨. 글로 강 장 거려당 일로 돌아왕 장국도 끌령. 아이고 그놈으 장국.(또 그렇게 안한 집은 부엌으로 저리로 또 뒤킨이 있어, 또 뒤킨이. 부엌 뒤킨.)

108024 @ 하하하. 그른 장항은 보통 똥장 놓는 항 하나, 간장 놓는 항 하나.(하하. 그러면 장항아리는 보통 똥장 놓는 항아리 하나, 간장 놓는 항아리 하나.)

108024 #1 응, 간장은 하나에 놀 수 이서도 똥장은 두서너 개에 놔야 돼.(응, 간장은 하나에 놓을 수 있어도 똥장은 두서너 개에 놔야 돼.)

108024 @ 똥장 두 개 계민. 간장 하나. 그른 뒤에 항이 세 개는 이서사켜예.(똥장 두 개 그러면, 간장 하나. 그러면 뒤에 항이 세 개는 있어야겠네요.)

108024 #1 응.(응.)

108024 @ 다른 작은 항덜 작은 단지덜은.(다른 작은 항아리들 작은 단지들은.)

108024 #1 단지덜토 잇곡 하. 건디 지시도 담양 농곡이 그런 것덜이 이서.(단지덜도 있고 많아. 그런데 장아찌도 담가서 놓고 그런 것들이 있어.)

108024 @ 맞아, 멜치토 담양 놓고.(맞아, 멀치젓도 담가서 놓고.)

108024 #1 멜치 담앗자 그늘 초당이라.(멀치젓 담가도 그늘 ‘초당’이야.)

108024 @ 아, 그건 그늘.(아, 그건 그늘.)

108024 #1 이디 집이 옛날 큰 땡유지 낭도 쏜고 나스미짱 낭도 시난이 그냥 그 그늘더레 가. 이 젓같은 벧 맞이민 녹아불어이. 거난 그늘 좇앙 그늘더레 가. 낭 알르레.(여기 집이 옛날 큰 땡유자 나무도 있고 하귤나무도 있으니까 그냥 그 그늘로 가. 이 젓같은 벧 맞으면 녹아버려. 그러니까 그늘 찾아서 그늘로 가. 나무 아래로.)

108024 @ 젓같은 낭 알르레 놓고.(젓같은 나무 아래 놓고.)

108024 #1 웬장은 벧 맞아도 좋은 거니까 그냥 벧 맞는 냥.(된장은 벧 맞다도 좋은 거니까 그냥 벧 맞는 대로.)

108024 @ 아까 돌로는 요기 요기가 장항들 놓젠 허민 밑에 돌을 다 깔아? 이젠 세멘햄주만은.(아까 돌로는 요기 요기가 장항아리들 놓으려고 하면 밑에 돌을 다 깔아? 이젠 시멘트하고 있지마는.)

108024 #1 옛날은 맷돌이 못 씨는 맷돌이 이서낫어이. 거 못 씨는 거 해당 장항 굽<sup>233</sup>드레 놔.(옛날은 맷돌이 못 쓰는 맷돌이 있었었어. 그거 못 쓰는 거 해다가 ‘장항굽’에 놔.)

108024 @ 아, 장항굽드레 그걸 놔.(아, ‘장항굽’에 그걸 놔.)

108024 #1 그거 영 놔 놓민 그 우트레 장항 놓고 또 해다 놓민 그런 것덜 놔. 그것이 돌이주.(그거 이렇게 놔 놓으면 그 위에 장항아리 놓고 또 해다 놓으면 그런 것들 놔. 그것이 돌이지.)

108024 @ 따로 뭐 허는 거 엇고예. 이제야 세멘 햄은에 딱 허주만은예.(따로 뭐 하는 거 없고요. 이제야 시멘트 해서 딱 하지만요.)

108024 #1 그 맷돌, 대게 장항 놓는 딴 맷돌 못난 거 헤영 그레 다 놔.(그 맷돌, 대게 장항아리 놓는 텐 맷돌 못난 거 해서 그리 다 놔.)

108024 @ ㄴ레착?(맷돌짜?)

108024 #1 응, ㄴ레착. ㄴ레착.(응, 맷돌짜. 맷돌짜.)

108025 @ ㄴ레착예. 다른 데는 물 잘 안 나는 데는 춤이엔 행 춤향이엔 해근에 그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해근에 물, 비 오, 빗물 받는 그런 것도 이선계만은 혹시 이런 거 이수과?(맷돌짜요. 다른 데는 물 잘 안 나는 데는 ‘춤’이라고 해서 ‘춤향’이라고 해서 그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불, 비 오, 빗물 받는 그런 것도 있던데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108025 #1 빗물?(빗물?)

233) ‘장항굽’은 장독을 받치기 위해 넓적한 돌을 놓은 것을 말한다.

108025 @ 빗물을 저 새끼줄 같은 거 짜서 거기서 물 똑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항에 받아가지고 먹는 물을. 물 강 질어오기만 했지예, 이기서 빗물 받아근에 뭐 허진 안협니까?(빗물을 저 새끼줄 같은 거 짜서 거기서 물 똑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항아리에 받아 가지고 먹는 물을. 물 가서 질어오기만 했지요, 여기서 빗물 받아서 뭐 하지는 않습니까?)

108025 #1 아니, 우린 질어오곡 그냥 빨래덜은 저 고돛물<sup>234)</sup>에나 소레물<sup>235)</sup>에나 이제 고돛물, 소레물 해도 몰람주만은 저 해수욕장 옆이. 이젠 해수욕 해부난 햄주, 그땐 물이 막 좋아.(아니, 우린 질어오고 그냥 빨래들은 저 ‘고돛물’에나 ‘소레물’에나 이제 ‘고돛물’. ‘소레물’ 해도 모르지만 저 해수욕장 옆에. 이젠 해수욕 해버리니까 하지, 그땐 물이 아주 좋아.)

108025 @ 거기 맞아, 목욕하는 디도 잇잖아마씨.(거기 맞아, 목욕하는 데도 잇잖아요.)

108025 #1 여자통, 남자통헤영이 그디 물이 세 개라. 세 개민 그디덜 강 요디 거리가 멀어도 시원헤여, 물이.(여자통, 남자통해서 거기 물이 세 개야, 세 개면 거기들 가서 요기 거리가 멀어도 시원해, 물이.)

108025 @ 집에서 빗물 영 받앙 뭐허고 허는 건 엇어?(집에서 빗물 이렇게 받아서 뭐하고 하는 건 엇어?)

108025 #1 엇어. 옷드리 ㄱ뜨민이 물 받앙 통, 물통을 헐다근에 우 더끄고. 이제 과수원에 그런 물통덜 이서낫저만은 옷드리 집에서는 그런 거 하. 물 엇영 이녁냥으로 받앙 먹어.(엇어. 중산간 같으면 물 받아서 통, 물통을 헐다가 위 덮고. 이제 과수원에 그런 물통들 있었었지만은 중산간 집에서는 그런 거 많아. 물 엇어서 자기대로 받아서 먹어.)

108025 @ 이딘 물이 하난, 물이 좋으난 그런 건.(여긴 물이 많으니까, 물이 좋으니까 그런 건.)

### 초가 지붕 이기

108026 @ 이번엔 지붕에 새 이는 거. 그거 혈 건디예.(이번엔 지붕에 띠 이는 거. 그거 할 건데요.)

108026 #1 살단 집 이젠 삼 년에 혼 번 일어이. 혼 헐 놀고 혼 헐 더끄고 겐디 이제는 그런 새왓이 엇어도 옛날은 새왓을 주로 막 멍심헤여. 새왓디 강 검질도 매고 새가 좋아야 집을 잘, 좋을 거난.(살단 집 이젠 삼 년에 한 번 이어. 한 해는 덮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띠발이 엇어도 옛날은 띠발을 주로 아주 멍심해. 띠발에 가서 검도 매고 띠가 좋아야 집을 잘, 좋을 거니까.)

108026 @ 응.(응.)

108026 #1 좋은 새로 더끄곡 헤사. 졸른 새 요만씩 현 샌 해당 줄 내어.(좋은

234) ‘고돛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물 이름이다. ‘고도물’이라고도 한다.

235) ‘소레물’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구의 샘물 이름이다.



띠로 덮고 해야. 짧은 띠 요만큼씩 한 띠는 해다가 줄을 만들어.)

108027 @ 졸른 새 무신거엔 곱읍니까?(짧은 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8027 #1 각단<sup>236</sup>).('각단'.)

108027 @ 각단.('각단'.)

108027 #1 좋은 새는 새.(좋은 띠는 띠.)

108027 @ 좋은 긴 건 새.(좋은 긴 건 띠.)

108027 #1 응. 좋은 새론 일고.(응. 좋은 띠론 이고.)

108027 @ 각단으론?('각단'으론?)

108027 #1 각단으론 줄 뽑아근엿에 영 줄 매는 거.('각단'으론 줄 뽑아서 이렇게 줄 매는 거.)

108028 @ 응. 이거 이건 무신거라?(응. 이거 이건 뭐야?)

108029 #1 줄호랭이<sup>237</sup>).('줄호랭이'.)

108029 @ 줄호랭이. 줄호랭이로 영영영현 다음에 또다시 영 현텐 헨게만은. 그건 무신거라?('줄호랭이'. '줄호랭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건 무엇이야?)

108029 #1 건 아이고 이름 잊어버려 못 곱으켜.(그건 아이고 이름 잊어버려서 못 말하겠어.)

108029 @ 뒤치기<sup>238</sup>)?('뒤치기'?)

108029 #1 뒤치기, 뒤치기.('뒤치기', '뒤치기'.)

108029 @ 뒤치기 맞아마씨?('뒤치기' 맞아요?)

108029 #1 응, 그레착에 그거 박아놔 막 돌려가민 앞이서도 영영 해가꼭 뒤에서도 영영해가민 배가 자연히 꼬아져이.(응, 맏돌쪽에 그거 박아놔서 막 돌려가면 앞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 뒤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바가 자연히 꼬아져.)

108029 @ 응, 영 두 개로 영 꼬아정예. 게민 흐끔 두꺼워정. 그추룩 행 집줄 멘드는 거?(응,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꼬아져서요. 그러면 조금 두꺼워져서. 그렇게 해서 '집줄' 만드는 거?)

108029 #1 그것이 집줄 만드는 거.(그것이 '집줄' 만드는 거.)

108029 @ 집줄은 이디 영 새 논 다음에.('집줄'은 여기 이렇게 띠 놓은 다음에.)

108028 #1 새 다, 경허난 븐<sup>239</sup>) 날만 츠은 거. 브름 안 부는 날만. 그 줄 안 매 불민 돌아나, 새가 불리카부텐.(띠 다, 그러니까 ' 븐' 날만 짜는 거. 바람 안 부는 날만. 그 줄 안 매버리면 달아나. 띠가 날려버릴까 봐.)

108028 @ 무신 날? 브는 날?(무슨 날? ' 븐' 날?)

108028 #1 븐 날. 브름 안 부는.(' 븐' 날. 바람 안 부는.)

108028 @ 븐 날이 브름 안 부는 날?(' 븐' 날이 바람 안 부는 날?)

236)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다.

237) '줄호랭이'는 초가지붕을 이는 새끼줄을 꼰 때 쓰는 도구다.

238) '뒤치기'는 이미 꼬아 놓은 두 개의 줄을 마주대어 더 굵은 줄을 꼰 수 있게 하는 도구다.

239) ' 븐'은 날씨가 좋다는 뜻의 제주어다.

108028 #1 응.(응.)

108028 @ 븐 날 좇앙.(‘ 븐’ 날 좇아서.)

108028 #1 븐 날 헤영 새 뱅뱅뱅뱅 돌아가멍 물매 나게 몬 더꿇당, 다음 이제 힘 존 사름덜 그냥 베 꼬아논 거 동글동글허게 헤 낫당 쪽쪽 꼬리민 받앙 즈근즈근 낫당 이젠, 이 켓데 가고, 저 켓데 가고, 이 켓데 가고, 저 켓데 가고 네 모사리에 사름이 하나씩 다 돌아.(‘ 븐’ 날 해서 떠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물매 나게 모두 덮었다가, 다음 이제 힘 좋은 사람들 그냥 바 꼬아놓은 거 동글동글하게 헤 났다가 쪽쪽 꾸리면 받아서 차근차근 났다가 이젠, 이 끝에 가고, 저 끝에 가고, 이 끝에 가고, 저 끝에 가고 네 모서리에 사람이 하나씩 다 달려.)

108028 @ 응.(응.)

108028 #1 일로 가민 일로 두루 매지고, 영 가민 올로 두루 매지곡 허멍 줄을 매민.(이리로 가면 이리고 덜 매지고, 이렇게 가면 요리로 덜 매지고 하면서 줄을 매면.)

108030 @ 어디 무릅니까?(어디 묶습니까?)

108030 #1 거왕이엔 현 거 이서. 줄 이디 왕 요추록 현 거 이거 매엇당 이레 다 매어.(평고대라고 한 거 있어. 줄 여기 와서 요렇게 한 거 이거 땀다가 이리 다 매.)

108030 @ 아.(아.)

108030 #1 이 서리더레. 거왕대 허영. 서리더레 이 줄을 다 즐라맹 낫당 집 일젠 허민 이것도 삭앙 다 털어져 불민이 또 새로 곶앙.(아 서까래에. 평고대 해서. 서까래에 이 줄을 다 즐라매서 났다가 집 일러고 하면 이것도 삭아서 다 떨어져 버리면 또 새로 갈아서.)

108030 @ 거왕대를 새로?(평고대를 새로?)

108031 #1 응, 새로 곶앙 또 그 줄 등기멍 그레 맏당 이는 날은 대충 헛당 그새가 또 지붕에서 틈 자면은 제라허게 줄 매멍 앞이 줄도 다 끈어불고 인 날은 그 앞이 눈썹<sup>240)</sup>이엔 행 호미 느슬게 행 이디 거 아이덜 단발머리ㄴ찌 앞이 곱닥허게 비어주고.(응, 새로 갈아서 또 그 줄 당기면서 그리 땀다가 이는 날은 대충 땀다가 그 띠가 또 지붕에서 뜸 들이면 제대로 줄 매서 앞에 줄도 다 잘라버리고 인 날은 그 앞에 눈썹이라고 해서 호미 날카롭게 해서 여기 그거 아이들 단발머리같이 앞에 곱게 잘라주고.)

108031 @ 새?(띠?)

108031 #1 응, 새 앞이 지랑지랑허주게.(응, 띠 앞이 치렁치렁하지.)

108031 @ 앞이. 아, 이렇게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졸르난. 눈썹 ㄴ슨다고?(앞이. 아, 이렇게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으니까. 눈썹 자른다고?)

108031 #1 눈썹. 앞이 눈썹 저거 끈으라, 끈으라 행 곱닥허게 영행 뱅뱅허게 끈어가. 네모사리가 다 돌아가게.(눈썹. 앞에 눈썹 저거 잘라라, 잘라라 해서 곱게 이렇게 뱅뱅하게 잘라. 네 모서리가 다 돌아가게.)

240) ‘눈썹’은 초가지붕에 띠를 덮었을 때 처마 쪽으로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게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108031 @ 아.(아.)

108031 #1 새 이파리 영 나온 거. 영영영영 더꺼가난게 이디 이파리가 질게 나갈 거주게.(띠 이파리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덮어가니까 여기 이파리가 질게 나갈 거지.)

108031 @ 예, 어떤 건 질고, 어떤 건 졸르고.(예,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108031 #1 아니, 어떤 거 질고 보단도 하영 나가. 영허민 문착허게 영 뱅뱅 둥고려 갈 거지.(아니, 어떤 거 길고 보다도 많이 나가. 이렇게 하면 ‘문착’하게 이렇게 뱅뱅 ‘둥고려’ 갈 거지.)

108031 @ 아, 그걸 눈썹 졸르렌 곱습니까?(아, 그걸 눈썹 자른다고 말합니까?)

108031 #1 눈썹 비어볼라, 눈썹 비어볼라.(눈썹 베어버려라, 눈썹 베어버려라.)

108031 @ 눈썹 비어볼라. 응.(눈썹 베어버려라. 응.)

108031 #1 지붕은 이젠 그거 허민 다 뒤텔주. 이젠 눈썹 비어볼고 줄 매어볼고.(지붕은 이젠 그거 하면 다 뒤텔. 이젠 눈썹 베어 버리고 줄 매어 버리고.)

108031 @ 게민 저 아까 그 새가 흐뎡 영 틈 자민 다시 당겨가지고 무끄멍은예 그 전인 집줄 영 질게 영 행 놔둡니까?(그러면 저 아까 그 띠가 조금 이렇게 뜸 들이면 다시 당겨가지고 묶으면 그 전엔 ‘집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놔둡니까?)

108031 #1 진진허게 그냥 뽕만 행 내볼어. 임시 걸쳐짐만 허게.(긴긴하게 그냥 뽕만 해서 내버려. 임시 걸쳐지지만 하게.)

108031 @ 응.(응.)

108031 #1 그자 영 땡경 영 꿰어근에 이레 꼭 찢렁 내빋당, 집이 흐뎡 틈 장 시간 나곡 허민 그 줄을 이젠 쫑긋쫑긋 둥기멍.(그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꿰어서 이리 꼭 찢려서 내버렸다가, 집에 조금 뜸 들어서 시간 나고 하면 그 줄을 이젠 ‘쫑긋쫑긋’ 당기면서.)

108031 @ 세게 당겨.(세게 당겨.)

108031 #1 잘 매영 이제 코걸이 내영 혹 등겨똥 끈을 때는.(잘 매어서 이제 코내어서 혹 당겨두고 자를 때는.)

108031 @ 찢라 볼어?(찢라 버려?)

108031 #1 찢라 볼어.(찢라 버려.)

108032 @ 그 썬난 그 집줄은 무신거 험니까?(그 썬더 그 ‘집줄’은 무엇 합니까?)

108032 #1 볼 때지.(볼 때지.)

108032 @ 아, 볼 때. 그 뭘 방식도 만든덴 험게만은.(아, 볼 때. 그 뭘 방식도 만든다고 하던데만은.)

108032 #1 그 줄이 질게 빠난 줄은이 부엌에 가든 길양 앓이는 방식. 그거 영 빠진 거 두 개민이 하나 진 거 요 두 개더레 영영영영 허멍 이걸 영 예껴. 질게 예껴놓민 이젠 뱅뱅뱅뱅 돌렁 방식을.(그 줄이 길게 뻗던 줄은 부엌에 가면 깔아 앓는 방식. 그거 이렇게 빠진 거 두 개면 하나 진 거 요 두 개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엮어. 길게 엮어 놓으면 이제 뱅뱅뱅뱅 돌려서 방석을.)

108032 @ 동글락허게.(동그랗게.)

108032 #1 동글락허게 멘들앙 낭끼기 허영 요디 흐썸 영 버쳐진 거 허영 요건 꼴랭이 멘들앙 그걸 일로 닥닥 들민 그것이 영 몰아오당 쫓깁이가 이디 강 박아불민 톱 부떠불민 그냥 동글락헤여. 경허민 또 무신 아무 그니롱헌 베이.(동그렇게 만들어서 막대기 해서 요기 조금 이렇게 ‘버쳐진’ 거 해서 요건 꼬리 만들어서 그걸 이리로 닥닥 들면 그것이 이렇게 말아오다가 꼬트머리가 여기 가서 박아버리면 톱 붙어버리면 그냥 동그래. 그러면 또 무슨 아무 가느다란 바.)

108032 @ 예.(예.)

108032 #1 뱃줄 헤영 또 영 든든하게 무꺼줘.(뱃줄 해서 또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줘.)

108032 @ 응.(응.)

108032 #1 것이 방석. 방석도 막 치레허젠 허여, 부엌에. 그런 방석도 곱게 멘들앙.(그것이 방석. 방석도 막 치레하려고 해, 부엌에. 그런 방석도 곱게 만들어서.)

108032 @ 아.(아.)

108032 #1 겐디 잘 예껴젓저게, 방석이여 무시거여.(그런데 잘 엮어졌어, 방석이 다 뭐다.)

108026 @ 응, 게민 요 새, 새를 아까 삼 년에 한 번 헌다고마씨?(응, 그러면 요 띠, 띠를 아까 삼 년에 한 번 헌다고요?)

108026 #1 응. 올리 일어나민인 내년은 쉬엇당 우멍년은 허여.(응. 올해 일어나면 내년은 쉬었다가 다음해는 해.)

108026 @ 아, 그믐 이 년에 한 번이네.(아, 그러면 이 년에 한 번이네.)

108026 #1 혼 헨 놀고.(한 해는 놀고.)

108026 @ 혼 헨 놀고. 그 다음해에 또 허고예. 이디가 안거리도 잇고 밧거리도 이시민 이디 혼 해 헛당 저디 혼 해 헛당 영 헛니까 아니면 그찌 다 헛니까?(한 헨 놀고. 그 다음해에 또 하고요. 여기가 안채도 있고 바깥채도 있으면 여기 한 해 헛다가 저기 한 해 헛다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같이 다 합니까?)

108026 #1 그찌 허젠 허민 복잡허영이 트로트로 헤지민 트로 허젠 허여. 흠치허게 돼민 새도 힘들고.(같이 하려고 하면 복잡해서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면 따로 하려고 해. 함께하게 되면 띠도 힘들고.)

108026 @ 게난.(그러니까.)

108028 #1 줄 내기도 바짝헌디 줄 내, 것그라 줄 내는 거엔 헤이. 줄 냄도 폴 아프고 힘들어.(줄 내기도 빠듯한데 줄 내, 그것보고 줄 내는 거라고 해. 줄 내기도 팔 아프고 힘들어.)

108028 @ 줄은 그믐 이디 마당에서 행은에 만듭니까?(줄은 그러면 여기 마당에서 해서 만듭니까?)

108028 #1 집에 맞게 허젠 허민이 마당 족은 사름은 질에 그썸헌 질에 질 혼착

에서.(집에 맞게 하려고 하면 마당 작은 사람은 길에 곧은 길에서 길 한쪽에서.)

108028 @ 그 집줄은 어떻 영영?(그 ‘집줄’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108028 #1 아, 꺾사게 뒤치고 앞으로.(아, 아까 ‘뒤치고’ 앞으로.)

108028 @ 그 허기 전인 영 꼬아, 손으로?(그 하기 전엔 이렇게 꼬아, 손으로?)

108028 #2 아, 아니 줄호랭이로.(아, 아니 ‘줄호랭이’로.)

108028 @ 줄로만 호랭이로만?(줄로만 ‘호랭이’로만?)

108028 #1 줄호랭이로 영영 비어당 지겟가지에 강 그걸 꼭 빼명 낫당 또 왕 비어당 또 지겟가지에 낫당 두 번 비어간 건 이젠 또꼬냥으로 합쳐 이젠 이디서도 줄내는 사람이 낫당 말젠 줄을 어울리젠 허민 이디도 줄호랭이 꿰국 저디도 줄호랭이 꿰국 뒤치는 사람은 꿰엇다근에 앞으로도 비국 두에도도 비국. 가운디 사람은 또 영 심영 영영영영 예껴가고.(‘줄호랭이’로 이렇게 이렇게 꼬아다가 지겟가지에 가서 그걸 꼭 빼면서 낫다가 또 와서 꼬아다가 또 지겟가지에 낫다가 두 번 꼬아간 건 이젠 똥구멍으로 합쳐서 이젠 여기서도 줄 만드는 사람이 낫다가 나중에 줄을 ‘어울리려고’ 하면 여기도 ‘줄호랭이’ 끼우고 저기도 ‘줄호랭이’ 끼우고 ‘뒤치는’ 사람은 끼웠다가 앞으로도 꼬고 뒤로도 꼬고. 가운데 사람은 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엮어가고.)

108028 @ 아, 그네 네 사람은 이서사켜예.(아, 그러면 네 사람은 있어야겠네요.)

108028 #1 딱 네 사람.(딱 네 사람.)

108028 @ 허젠 허민예, 혼자선 못 허는 거구나.(하려고 하면요, 혼자선 못 하는 거구나.)

108028 #1 팔 아파, 팔 아파.(팔 아파, 팔 아파.)

108028 @ 팔 아파.(팔 아파.)

108028 #1 응, 혼자만 그 줄 비젠 해도 막 땡기명 비젠 허민 팔 아파.(응, 혼자만 그 줄 꼬려고 해도 막 당기면서 꼬려고 하면 팔 아파.)

108028 @ 호랭인 게민 집집마다 다 이십니까? 줄호랭이.(‘호랭이’는 그러면 집집마다 다 있습니까? ‘줄호랭이’.)

108028 #2 아, 이신 던 잇고 엇인 던 빌어당.(아, 있는 덴 있고 없는 덴 빌어다가.)

108028 #1 홀어멍칩이도 엇이곡이.(홀어머니집에도 없고.)

108028 @ 하하하.(하하하.)

108028 #1 것도 만들앙 헐 사람이, 줄 놓는 사람도 시고 헤사주, 것도. 빌어당 허여. 빌어당 허는 사람 빌어당 허고. 빌어당 하영 허주.(그것도 만들어서 할 사람이, 줄 놓는 사람도 있고 해야지, 그것도. 빌어다가도 해. 빌어다가 하는 사람 빌어다가 하고. 빌어다가 많이 하지.)

## 연장

108033 @ 응. 게민 집 짓젠 허든 저 여러 가지 연장들이 필요합니께. 톱도 이서

야 되고 뭐. 건 다 저기.(응. 그러면 집 지으려고 하면 저 여러 가지 연장들이 필요하잖아요. 톱도 있어야 되고 뭐. 그건 다 저기.)

108033 #1 그런 것사 천지만지로 건 목시신디 다 신 거난.(그런 것이야 ‘천지만지’로 그건 목수에게 다 있는 거니까.)

108033 @ 목시신디만 이신 거라? 집인 엇어?(목수에게만 있는 거야? 집엔 없어?)

108033 #1 집인 소소하게 써는 거게. 못도 박젠 허민 독독허는 망치 ㄴ뚝 거, 자구 ㄴ뚝 거 그런 거 이서낫주.(집엔 소소하게 쓰는 거. 못도 박으려고 하면 독독하는 망치 같은 거, 자귀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었지.)

108033 @ 자균 어떤 거라?(자귀는 어떤 거야?)

108033 #1 자구? 이것이 낭이면은이 자구로 영영영영 두드령 까끄는 거. 자구.(자귀? 이것이 나무면 자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서 깎는 거. 자귀.)

108033 @ 그 자구는 흔 종류베끼 엇수과?(그 자귀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까?)

108033 #1 응. 도치는 또 나무 깨는 것이 도치고.(응. 도끼는 또 나무 쪼개는 것이 도끼고.)

108033 @ 아, 나무 깨는 건 도치고.(아, 나무 쪼개는 건 도끼고.)

108033 #1 이건 자구고.(이건 자귀고.)

108033 @ 요건 자구고.(요건 자귀고.)

108033 #2 장호미, 망치, 끌.(나대, 망치, 끌.)

108033 @ 하하하. 장호민 무신거봐?(하하하. 나대는 뭘니까?)

108033 #1 호미라도이 낫이라도 영 곳짝 해근에 이디 손잡이만 잇고 그자 착 찍으곡 착 찍으곡 허는 거.(호미라도 낫이라도 이렇게 곧게 해서 여기 손잡이만 있고 그저 착 찍고 착 찍고 하는 거.)

108033 @ 건 무시거 허는 거?(그건 뭐 하는 거?)

108033 #1 장호미. 나무허레 가도.(나대. 나무하러 가도.)

108033 @ 아, 호미로 험니까?(아, 호미로 함니까?)

108033 #1 우리 낫보다도 그 장호미가 흔 번 탁 찍으면은 탁 끈어져.(우리 낫보다도 그 나대가 한 번 탁 찍으면 탁 잘라져.)

108033 #2 안 봐나시냐? 우리 이디 이서. 장호미.(안 봤었니? 우리 여기 있어. 나대.)

108033 @ 이게 긴 건가? 대가?(이게 긴 건가? 대가?)

108033 #1 아니, 아니. 요만베끼 안 허여. (아니, 아니. 요만큼밖에 안 해.)

108033 #2 안 봐난 생이여.(안 봤던 모양이야.)

108033 #1 요만허민 요디 손 심는 디, 요건 늘.(요만하면 요기 손 잡는 데, 요건 날.)

108033 @ 응.(응.)

108033 #2 장호미 나 베와주주.(나대 나 보여주지.)  
 108033 @ 흐뎡 잇당 갈 때랑.(조금 있다가 갈 때랑.)  
 108033 #1 내뽐서게. 다른 거 다 해나걸랑.(내버리세요. 다른 거 다 해나면.)  
 108033 @ 다 해난 갈 때랑.(다 해나서 갈 때랑.)  
 108033 #1 장호민.(나댄.)  
 108039 @ 그 흑질혈 때 손으로 안 하고 영 받앙 영 허는.(그 흑질할 땐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108039 #1 손, 췌손?(손, 쇠손?)  
 108039 @ 아, 췌손. 응.(아, 쇠손. 응.)  
 108039 #1 이디 그 줌진 흑으로 혈 땐이 췌손으로 해도이 그 거친 흑은이.(여기 그 자잘한 흑으로 할 땐 쇠손으로 해도 그 거친 흑은.)  
 108039 @ 다 손으로?(다 손으로?)  
 108039 #1 수세<sup>241)</sup> 이서부난이. 그디 수세가 이서부난 보리냥이영. 게난 고망 새에만 막앗당 그땐 줌진 흑 혈 땐.(‘수세’ 있어버리니까. 거기 ‘수세’가 있어버리니까 보릿대랑. 그러니까 구멍 사이에만 막았다ㄹ 그땐 자잘한 흑 할 땐.)  
 108039 @ 췌손으로?(쇠손으로?)  
 108039 #1 그때는 줌진 흑에는이 ㄹ시락이, ㄹ시락도 얼멩이로 청 그 줌진 흑에 버물여사 풀이 잘 부땡 이레 탁탁 잘 부땡.(그때는 자잘한 흑에는 까끄라기, 까끄라기도 어레미로 쳐서 그 자잘한 흑 버물여야 풀이 잘 붙어서 이리 탁탁 잘 붙어.)  
 108039 @ 경혈 때는 이거 영허는 게 췌손?(그럴 때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쇠손?)  
 108039 #1 췌손. 췌손ㄹ라 뭇엔 혈 거? 췌손뿐인가?(쇠손. 쇠손보고 뭇라고 할 거? 쇠손뿐인가?)  
 108039 #2 췌손사 췌손이주, 무신.(쇠손이야 쇠손이지, 무슨.)  
 108039 @ 흑손이엔은 안해마씨?(흑손이라고는 안해요?)  
 108039 #1 흑손은 아니고 췌손.(흑손은 아니고 쇠손.)  
 108039 #2 췌손.(쇠손.)  
 108039 @ 췌손. 그믐 이디 영 받는 건? 이렇게 영 받앙 영 허는 거 아니? 이건 무신거라?(쇠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받는 건?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건 무엇이야?)  
 108039 #1 응.(응.)  
 108039 #2 낭판?(나무판.)  
 108039 @ 그냥 낭판?(그냥 나무판?)  
 108039 #2 받침, 받침, 받침.(받침, 받침, 받침.)  
 108039 @ 받침.(받침.)  
 108039 #2 응, 즈룩 심영 영.(응, 자루 잡아서 이렇게.)

241) ‘수세’는 흙을 이길 때 벗짚이나 떠 등을 말하고 이것을 섞어야 벽이나 지붕에 바른 흙이 떨어지지 않는다.

108039 @ 즈룩 심어.(자루 잡아.)

108039 #1 세멘힐 때 영.(시멘트할 때 이렇게.)

108039 @ 세멘힐 때예, 세멘힐 때 봐나신디.(시멘트할 때요, 시멘트할 때 봤었는데.)

108039 #1 그것에 그것에 받침이 거베끼 안 돼지.(그것에 그것에 받침이 그거밖에 안 되지.)

108039 @ 응. 옛날 거난 흙질할 때도 그거영 비슷하게 했구나예?(응. 옛날 거니까 흙질할 때도 그거랑 비슷하게 했군요?)

108039 #1 그거 했주게, 손에 심영 텅경은 못허지. 거 받아사 벽에 강 영영 칠힐 거.(그거 했지, 손에 잡아서 다녀서는 못하지. 그거 받아야 벽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칠할 거.)

108039 @ 세멘허는 건 봐나주마씨. 흙질허는 거야 못 봤주만은.(시멘트하는 건 봤었지요. 흙질하는 거야 못 봤지만은.)

108039 #1 우리는 흙질허는 건 대강 봐나도. 흙질 물까지 질어났어, 우리도. 허벽으로.(우리는 흙질하는 건 대강 봤어도. 흙질 물까지 길었었어, 우리도. 허벽으로.)

108038 @ 응. 먹통하고 먹줄은 무신거마씨?(응. 먹통하고 먹줄은 뭐예요?)

108038 #1 건 목시신디 잊지.(그건 목수에게 있지.)

108038 @ 뭐허는 거파? 그건.(뭐하는 겁니까? 그건.)

108038 #1 이 낭이라도이 그땐 이젠 기계난 싹허게 기계가 돌아오민 돼는디 먹술에 먹통이엔 현 건이 저디 강 요 곳드레 받곡 요 곳드레 받앙 꼬작허게 먹술 놓는 거. 것이 먹술.(이 나무라도 그땐 이젠 기계니까 싹하게 기계가 돌아오면 되는데 먹줄에 먹통이라고 한 건 저기 가서 요 끝에 받고 요 끝에 받아서 곧게 먹줄 놓는 거. 그것이 먹줄.)

108038 @ 응.(응.)

108038 #1 영혜영 그 실에 검은 물이 들어져이. 거민 먹술이 꾸작허민 요것이 툭 튕겨주민 이 낭에 다 혼 일제로 쪽 굿어져. 것이 먹통.(이렇게 그 실에 검은 물이 들어. 그러면 먹줄이 곧으면 요것이 툭 튕겨주면 이 나무에 다 한일자로 쪽 굿어져. 그것이 먹통.)

108038 @ 아, 아. 목시덜 들렁 다니는 거구나예?(아, 아. 목수들 들고 다니는 거군요?)

108038 #1 건 목시, 목시.(그건 목수, 목수.)

108036 @ 대패나 이런 거?(대패나 이런 거?)

108036 #1 대패도 목시.(대패도 목수.)

108036 @ 아.(아.)

108036 #1 소소현 디도 잊기야 잊주만은 목시가 주로 잊주.(소소한 데도 잊기야 있지만은 목수가 주로 있지.)



108035 @ 못, 아니 망치.(못, 아니 망치.)

108035 #1 망치.(망치.)

108035 @ 못 박는 건 망치 아니? 무신거엔 굴읍니까?(못 박는 건 망치 아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8035 #1 망치.(망치.)

108035 @ 망치엔 굴읍니까?(망치라고 말합니까?)

108035 #1 응.(응.)

108035 @ 그거 저 망치도 여러 종류 잇수과?(그거 저 망치도 여러 종류 잇습니까?)

108035 #1 여러 종류 잇지게. 박젠 허민 자구 등어리로도 박고이.(여러 종류 잇지. 박으려고 하면 자귀 등으로도 박고.)

108035 @ 응.(응.)

108035 #1 그 무시거 못빼기? 못빼기허는 것ㄴ라 뭐엔 헌다만은. 그걸로도 박고.(그 무엇 못빼기? 못빼기하는 것보고 뭐라고 한다만은. 그걸로도 박고.)

108035 @ 한쪽은 못빼기고 한쪽은 망치고 이렇게 돼잇는 거?(한쪽은 못빼기고 한쪽은 망치고 이렇게 돼잇는 거?)

108035 #1 아니.(아니.)

108035 @ 그냥 못빼기로만 댜 거?(그냥 못빼기로만 댜 거?)

108035 #1 못빼기로만 댜 것도 이서.(못빼기로만 댜 것도 있어.)

108035 @ 응, 이걸로 어떻 못 박아?(응, 이걸로 어떻게 못 박아?)

108035 #1 이디가 곱지 이디가 영영 갈라져도 이디는 곱와.(여기가 곱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도 여기는 곱와.)

108035 @ 아, 요디.(아, 요기.)

108035 #1 영 들러 심영 바쁜 때는 그냥. 망치 앓이지, 그걸로도 허고. 자구질 허당도 또 못 박게 댜민 자구 등어리로 요거 자구가 영 댜 거민 요 등어리로 독독 박아줘.(이렇게 돌려 잡아서 바쁜 때는 그냥. 망치 가지지, 그걸로도 하고. 자귀질 하다가도 또 못 박게 되면 자귀 등으로도 요거 자귀가 이렇게 댜 거면 요 등으로 독독 박아줘.)

108035 @ 아.(아.)

108035 #1 박아주고.(박아주고.)

108035 @ 게메, 박고. 이제 집도 다 짓엇고예.(글쎄, 박고. 이제 집도 다 짓엇고요.)

108035 #1 멧 거리 짓엇어? 모커리로 밧거리로.(멧 거리 지엇니? 곁채로 바깥채로.)

108035 @ 예, 안거리도 잇고 밧거리도 잇고.(예, 안채도 있고 바깥채도 있고.)

## 9. 신앙

109001 @ 그다음에는 곳, 당에도 다녀났수과?(그다음에는 곳, 당에도 다녔었습니까?)

109001 #1 우린 당에 탕기는 딴 었어.(우린 당에 다니는 덴 없어.)

109001 @ 집에서 뭐?(집에서 뭐?)

109001 #1 일은 냉기지, 철갈이로.(일은 넘기지, 철갈이로.)

109001 @ 그건 언제 허는 거파?(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109001 #1 건이 정월로 삼월ㄱ지 가.(그건 정월로 삼월까지 가.)

109001 @ 아무 때나 해도 돼여?(아무 때나 해도 돼?)

109001 #1 응, 아, 날 봐야 돼지 것도. 이녀 날 뵙 좋은 날 택행.(응, 아, 날 봐야 되지 그것도. 자기 날 봐서 좋은 날 택해서.)

109001 @ 그건 어떻 행 허는 거파?(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9001 #1 게 아기덜토 편안허곡 집안 다 온 수끼가 다 편안허게 허렌 허는 식 일테주. 우린 해났어. 옛날 어른덜 식으로 부모네 헤어나난 그 식으로 대 내려온 거.(그러게 아기들도 편안하고 집안 다 온 식구가 다 편안하게 하라고 하는 식이겠지. 우린 했었어. 옛날 어른들 식으로 부모네 했었던 그 식으로 대 내려온 거.)

109001 @ 집이 저 심방 불령?(집에 저 무당 불려서?)

109001 #1 응, 심방 불려사지.(응, 무당 불려야지.)

109001 @ 그른 심방 불령 밤이 험니까? 아침에?(그러면 무당 불려서 밤에 합니까? 아침에?)

109001 #1 밤에, 밤에.(밤에, 밤에.)

109001 @ 밤이. 심방 불려근에 이디서 그냥?(밤에. 무당 불려서 여기서 그냥?)

109001 #1 응, 제 벌영 다.(응, 제 벌여서 다.)

109001 @ 제 벌영 아까 그 저 무신 보시떡허고, 돌레떡허고 해근에?(제 벌여서 아까 그 저 무슨 ‘보시떡’하고, 도래떡하고 해서?)

109001 #1 응. 과일덜 다 해근에 대추랑, 비자랑, 밤이랑, 그린. 이런 디 허는 데는 그런 대추, 비자, 밤 거 들어.(응. 과일들 다 해서 대추랑, 비자랑, 밤이랑, 그린. 이런 데 하는 데는 그런 대추, 비자, 밤 그거 들어.)

109001 @ 아, 우리도예 초에 해났수다. 결혼 초에 우리 시어머니가 조천 쪽이니 까 집에 심방 불령 함덕 심방 불령. 옛날 큰 심방 이서났수게. 나이 많은, 돌아가셨지예? 그 심방 불령 집이 해난 거 생각남저.(아, 우리도 초에 했었습니다. 결혼 초에 우리 시어머니가 조천 쪽이니 까 집에 무당 불려서 함덕 무당 불려서. 옛날 큰 무당 있었잖아요. 나이 많은, 돌아가셨지요? 그 무당 불려서 집에 했던 거 생각난다.)

109001 #1 남자?(남자?)

109001 @ 여자. 아덜도 잇곡.(여자. 아들도 있고.)

109001 #1 맞이큰게. 이제도 그 심방 이서.(맞겠네. 이제도 그 무당 있어.)

109001 @ 안 죽었수과? 막 나이 드신.(안 죽었습니까? 아주 나이 드신.)

109001 #1 우리보단 아주 알.(우리보다는 아주 아래.)

109001 @ 아니, 남자는 알인데 할머니가 또.(아니, 남자는 아랜데 할머니가 또.)

109001 #1 게메, 우리 하르방네영 동갑짜리. 저 만보 각시엔 행.(그러게, 우리 할아버지네랑 동갑짜리. 저 만보 각시라고 해서.)

109001 @ 응. 나이 드신 분. 흐뭇 솔치고.(응. 나이 드신 분. 조금 살찌고.)

109001 #1 곱닥해나신디 막 솔쩍 죽어신디 몰라, 이젠. 함덕은 안 살아.(고왔었는데 막 살찌서 죽었는지 몰라, 이젠. 함덕은 안 살아.)

109001 @ 아, 함덕 아니파?(아, 함덕 아닙니까?)

109001 #1 함덕인디 시집이도 함덕 굶인디 그 사람이 성이 이가고 현디 아덜 들란 어디 갓텐 험게.(함덕인데 시집도 함덕 ‘굶’인데 그 사람이 성이 이가고 한테 아들 데리고 어디 갔다고 하던데.)

109001 @ 아덜도 ㄴ찌 그거 허던데.(아들도 같이 그거 하던데.)

109001 #1 이만큼 몸이 막 불언. 막 불어난 헤신디 원 죽고 삶을 몰르크라.(이만큼 몸이 막 불어서. 막 불어나서 했었는데 원 죽고 삶을 모르겠다.)

109001 @ 할머니네 어디 심방 불러당 해낫수과?(할머니네 어디 무당 불러다가 했었습니까?)

109001 #1 우린 큰 굿이 아니니까이 큰 굿할 때는 큰 심방 빌어당 허는디 소소한 심방 해도 족게 허는 거난 아무 심방이라도 빌영.(우린 큰 굿이 아니니까 큰 굿할 때는 큰 무당 빌어다가 하는데 소소한 무당 해도 작게 하는 거니까 아무 무당이라도 빌어서.)

109001 @ 그믄 그건 매해 해마다 해야 되는 거마씨?(그러면 그건 매해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9001 #1 삼 년에 혼 번 허는 이도 있고. 이제 안 해도 어떻 안 험신게. 우리 안 행 설러불언.(삼 년에 한 번 하는 이도 있고. 이제 안 해도 어떻게 안 하고 있네. 우리 안 하고 그만뒀버렸어.)

109001 @ 언제까지 헛수과? 그건.(언제까지 했습니까? 그건.)

109001 #1 우리 저 손지 봉그젠 허난 나가 공들임으로 사흘을 굿헛어. 큰 심방 빌언이.(우리 저 손주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공들임을 사흘을 굿헛어. 큰 무당 빌어서.)

109001 @ 셋아덜에 손지?(둘째아들의 손주?)

109001 #1 응, 그걸 봉그젠 허난. 그거 허여나건이 저 손지 나완.(응, 그거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 하고나니까 저 손주 나왔어.)

109001 @ 아, 효과 있네.(아, 효과 있네.)

109001 #1 뜰이이 열세 살 나도록 그 아래 었어. 원 솟아나질 안헤. 게난 아이가 요디 앓안 놀단 어디 강 들으민양 아덜 성젠 잇젠 험디다 허는 말에 그냥 나가

정신이 바짝 난 거라이.(딸이 열세 살 나도록 그 아래 없어. 원 솟아나질 않아. 그러니까 아이가 요기 앉아서 놀다가 어디 가서 들으면요 아들 형제 있다고 합니다 하는 말에 그냥 내가 정신이 바짝 난 거야.)

109001 @ 응.(응.)

109001 #1 아, 그땐 아 나가 케민 공이라도 들이주 헨 사흘을 할망굿헨에 불도 굿헨에 저거 삼 년 만이 저거 나완, 컨.(아, 그땐 아 내가 그러면 공이라도 들이지 해서 사흘을 ‘할망굿’해서 ‘불도굿’해서 저거 삼 년 만에 저거 나왔어, 커서.)

109001 @ 아.(아.)

109001 #1 나가 거난 이제 골아져. 나가 공들인 값으로 이 손진 생전 아니 심영, 생전 심언 땡기켜.(내가 그러니까 이제 말해. 내가 공들인 값으로 이 손주 생전 안 잡아서, 생전 잡아서 다니겠어.)

109001 @ 하하하.(하하하.)

109001 #1 셋아덜이 아덜 엇이난이 죽은아덜, 큰아덜 아덜 서도이 셋아덜 앞이 선이 그 아기름이 나가 암만 아까와도이 반갑게 못 안더라고. 가심 아판.(둘째아들이 아들 없으니까 작은아들, 큰아들 아들 있어도 둘째아들 앞에선 그 아기를 내가 아무리 아까워도 반갑게 못 안더라고. 가슴 아파서.)

109001 @ 아.(아.)

109001 #1 겐디 저거 나부난 이젠 저것덜은 이제 늙언.(그런데 저거 낡으니까 이제 저것들은 이제 늙언.)

109001 @ 오지도 안해.(오지도 않아.)

109001 #1 응, 이것만 얘기 답아.(응, 이것만 얘기 같아.)

109001 @ 하하하. 켈 늦게 나난예. 그 집 짓은 다음에 성주도 내립니까?(하하하. 켈 늦게 낡으니까요. 그 집 지은 다음에 성주도 내립니까?)

109001 #1 거 큰 심방 빌영.(그거 큰 무당 빌어서.)

109001 @ 그건 어땡 허는 거마씨?(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9001 #1 건이 낭도 구신이 잇는 생이라이.(그건 나무도 귀신이 잇는 모양이야.)

109001 @ 응.(응.)

109001 #1 이 목석 구신이엔 행 낭구신도 풀어주고, 이 땅구신도 풀어주곡이, 집안도 편안허곡이, 집 짓영 후탈 엇게시리 헤도렌 그 곳이라. 아메도.(이 목석 귀신이라고 해서 나무 귀신도 풀어주고, 이 땅 귀신도 풀어주고, 집안도 편안하고, 집 지어서 후탈 없게끔 해달라고 그 곳이야. 아무래도.)

109002 @ 성주 허는 게.(성주 하는 게.)

109002 #1 성주굿<sup>242</sup>이.(‘성주굿’이.)

109002 @ 성주굿이.(‘성주굿’이.)

109002 #1 이 낭에 다 구신이 부땃다 허는 거라, 옛날에.(이 나무에 다 귀신이

---

242) ‘성주굿’은 집의 수호신으로 성주를 새로 모시는 곳이다. 주로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뒤 하는 곳이다.

붙었다 하는 거야, 옛날에.)

109002 @ 그 집이서 일 넘기는 건 어떻 행 허는 거마씨?(그 집에서 일 넘기는 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109002 #1 새해 돌아와가민이 집이 곳인이 살기 곳인 살을 다 막기 위행 그 일을 넘기는 거라 것은이. 우리 굽은 몰르는데 허여오는 역서가 옛날 역서가 집안 다 수끼고 누게고 다 좋게 허곡 집안이 편안허게.(새해 돌아오면 집에 굽은, 살기 굽은 살을 다 막기 위해 그 일을 넘기는 거야 그것은. 우리 유래는 모르는데 해오는 역사가 옛날 역사가 집안 다 식구고 누구고 다 좋게 하고 집안이 편안하게.)

109002 @ 응, 수끼가 뭐? 식구?(응, ‘수끼’가 뭐? 식구?)

109002 #1 가족, 가족.(가족, 가족.)

109002 @ 그거 뭐 일본말인가?(그거 일본 말인가?)

109002 #1 이녀 수끼.(자기 식구.)

109002 @ 이녀 수끼 경 곱아마씨?(자기 식구 그렇게 말해요?)

109002 #1 가족이엔 해도 좋고.(가족이라고 해도 좋고.)

109002 @ 응, 가족이엔 해도 좋고.(응, 가족이라고 해도 좋고.)

109002 #1 수끼엔 해도 좋고. 이녀 수꾸. 그 집이 수꾸가 몇 개? 영행 잘 들어.(‘수끼’라고 해도 좋고. 자기 식구. 그 집 식구가 몇 개? 이렇게 해서 잘 물어.)

109002 @ 아.(아.)

109002 #1 그 식이주.(그 식이지.)

109001 @ 이 집이도 여러 명 신이 막 이신가? 무신 신, 무신 신, 조왕신, 무신 신.(이 집에도 여러 명 신이 막 있나? 무슨 신, 무슨 신, 조왕신 무슨 신.)

109001 #1 조왕도 신이 잇젠 허고 문전도. 그때는 조왕제도 허고 문전제<sup>243)</sup>도 허고.(조왕도 신이 있다고 하고 문전도. 그때는 조왕제도 하고 문전제도 하고.)

109001 @ 문전제도 허고.(문전제도 하고.)

109001 #1 고팡에 그 고팡이엔 허지, 옛날은. 그디 그거도 허고.(고방에 그 고팡이라고 하지, 옛날은. 거기 그것도 하고.)

109001 @ 고팡엔 무슨 신이라? 칠성신?(고방엔 무슨 신이야? 칠성신?)

109001 #1 안네, 안칠성<sup>244)</sup>이엔 해, 안칠성.(‘안네’, 안칠성이라고 해, 안칠성.)

109001 @ 안칠성. 안칠성허고 조왕.(안칠성. 안칠성하고 조왕.)

109001 #1 조왕제허고 문전제허고 그거라.(조왕제하고 문전제하고 그거야.)

109001 @ 세 개.(세 개.)

109001 #1 응, 큰 곳이나 안 허민. 큰 굽은 이녀 초상 올영이 집안에 누게가 굽텐 허나 아프나 허민이 그 초상 올영 막 사흘 나흘을 굽을 허여. 그것이 큰 굽이고.(응, 큰 곳이나 안 하면. 큰 굽은 자기 조상 위해서 집안에 누가 나쁘다고 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 조상 위해서 막 사흘 나흘을 굽을 해. 그것이 큰 굽이고.)

243) ‘문전제’는 마루문 앞에서 문전신을 위해 지내는 제를 말한다.

244) ‘안칠성’은 고팡(庫房)에 모시는 여자 귀신으로 뱀의 화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109001 @ 응.(응.)

109001 #1 해 돌아가명 허는 거는 삼 년에 혼 번 허는 집도 있고 연연이 정월이나 삼월 까지는 허는 디도 있고.(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삼 년에 한 번 하는 집도 있고 해마다 정월이나 삼월까지는 하는 데도 있고.)

109001 @ 그건 무신 날 해야 돼거나 이렇게 정해진 건 엇어마씨?(그건 무슨 날 해야 되거나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109001 #1 날이 엇어. 이녁 날에 그 이녁 굿사 식으로 수끼에이 맞인 날짜 좇아 근에 날보는 디 강 봐당.(날이 엇어. 자기 날에 그 자기 아까 식으로 식구에 맞은 날짜 찾아서 날 보는 데 가서 봐서.)

109003 @ 응. 문전은 제 어떻 지내는 거마씨?(응. 문전은 제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109003 #1 이디 쥬 벌여. 하간 거 떡이락<sup>245)</sup> 제숙<sup>246)</sup>이락 실과락 굿사 술이락 밥이락 다 해낭 지내어. 좇불 싸냥.(여기 제 벌여서. 온갖 거 떡이랑 ‘제숙’이랑 실과랑 아까 술이랑 밥이랑 다 해놔서 지내. 좇불 켜서.)

109003 @ 멧질 때도 허고.(멧질 때도 하고.)

109003 #1 멧질 때도 이 문전제는 우선 제 보단도 문전쥬 문여 하나사 쥬 헤여.(멧질 때도 이 문전제는 우선 제 보단도 문전제를 먼저 하고나야 쥬 해.)

109003 @ 게난예 제사 때도 문전제 허고예. 그거 말고도 그냥 문전만 제도 지냅니까?(그러니까요 제사 때도 문전제 하고요. 그거 말고도 그냥 문전만 제도 지냅니까?)

109003 #1 문전만은게 그 이제 굿사 식으로 집이 해 돌아가명 헤여 가는 것이 문전제, 조왕제 경. 문전제허고 조왕제 헤사주이 영.(문전만은 그 이제 아까 식으로 집에 해 돌아가면서 해 가는 것이 문전제, 조왕제 그렇게. 문전제하고 조왕제 해야 지 이렇게.)

109003 @ 아, 그문 집에 일 냉기는 거 헐 때 문전제허고 조왕제허는 거파?(아, 그러면 집에 일 냉기는 거 할 때 문전제하고 조왕제하는 겁니까?)

109003 #1 응.(응.)

109005 @ 게민 아까 안칠성은 저.(그러면 아까 안칠성은 저.)

109005 #1 고팡.(고방.)

109005 @ 고팡이고 밧칠성도 이수과?(고방이고 ‘밧칠성’도 있습니까?)

109005 #1 몰라, 밧칠성은 몰르고 그디 안칠성에 밥 거려놓는 건이 멧질 때고 식게 때고 안네 거는 거려놔이. 구들 이런 예염에, 상도 안 놓고이.(몰라, ‘밧칠성’은 몰르고 거기 안칠성에 밥 떠놓는 건 멧질 때고 제사 때고 ‘안네’ 것은 떠놔. 방 이런 옆에, 상도 안 놓고.)

109005 @ 예.(예.)

245) ‘락/이락’은 ‘랑/이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246) ‘제숙’은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제육’의 제주어다.

109005 #1 경해낭 제 끝나면은 그디 거 톨아당 고평 우이 강 놓는 거. 고평 향 뚜까리 위에 강.(그렇게 해놔서 제 끝나면 거기 그거 뜯어다가 고평 위에 가서 놓는 거. 고평 향아리 뚜껑 위에 가서.)

109005 @ 아니, 어디 저 뒷, 뒷마당에.(아니, 어디 저 뒷, 뒷마당에.)

109005 #1 뒷할망<sup>247</sup>?('뒷할망'?)

109005 @ 응, 그건 뭐?(응, 그건 뭐?)

109005 #1 뒷할망. 건 몰라. 뚫할망<sup>248</sup>이엔 헤영이 일 넘길 때도 그디 강 심방 빌영 강 허여. ('뒷할망'. 그건 몰라. '뒷할망'이라고 해서 일 넘길 때도 거기 가서 무당 빌어서 가서 해.)

109005 @ 어디 어디 허는 거봐, 그건?(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그건?)

109005 #1 건 그디 뒷할망, 뒷할망 허난 뒷할망 놀이 뭔지. 이 집적인 생이라. 집 직허는 사람.(그건 거기 '뒷할망', '뒷할망' 하니까 '뒷할망'이 뭔지. 이 집 지키미인 모양이야. 집 지키는 사람.)

109005 @ 뒷할망?(('뒷할망'?)

109005 #1 응, 뚫할망.(응, '뚫할망'.)

109005 @ 뚫할망.(('뚫할망'.)

109005 #1 게민 놀ㄴ찌 돼여. 영 헤영 주지 헤영 주지 췌왕.(그러면 놀처럼 돼. 이렇게 해서 주저리 해서 주저리 씌워서.)

109005 @ 거난.(그러니까.)

109005 #1 것이 뚫할망.(그것이 '뚫할망'.)

109005 @ 할머니네 집도 해낫수과? 이서낫수과?(할머니네 집도 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109005 #1 해낫어. 이 집 뜯으난이 이 집 뜯어가난 거 뜯어단 어디 저 고운 디 강 모산 내부난 이제 허지 안허여.(했었어. 이 집 뜯으니까 이 집 뜯어가니까 그거 뜯어다가 어디 저 고운 데 가서 모셔서 내버리니까 이제 하지 않아.)

109005 @ 건 뚫할망이엔 허는구나예.(그건 '뚫할망'이라고 하는군요.)

109005 #1 응.(응.)

109005 @ 뭐 통시에도 신이 이신가?(뭐 돼지우리에도 신이 있나?)

109005 #1 그건 몰라.(그건 몰라.)

109005 @ 그건 엇어?(그건 엇어?)

109005 #1 건 엇어. 건 안 해낫어. 우리 해난 거는 이디 허고 조왕제허고 안칠성허고 저 뚫할망. 세 가지, 네 가지.(그건 없어. 그건 안 했었어. 우리 했던 거는 여기 하고 조왕제하고 안칠성하고 저 '뚫할망'. 세 가지, 네가지.)

109005 @ 아. 뒷할망은 따로 상을 찰리는 건 아니고 뭐 강 뒤희는 거봐?(아. '뒷할망'은 따로 상을 차리는 건 아니고 뭐 가서 뒤희는 겁니까?)

247) '뒷할망'은 '뱃칠성'이라고도 하며 뱀신이며, 여신이다. 풍농과 가족의 안녕을 관장한다.

248) '뚫할망'은 '뚫할망', '칠성'이라고도 하며 제주 무속신화에 나오는 '뱃칠성'을 모시는 작은 날가리다.

109005 #1 바구리, 차롱 바구리가 이서이. 그거 트로 낚당 못까갈 때 그디 강 입담해똥 낚당 와.(바구니, 채롱 바구니가 있어. 그거 따로 낚다가 끝나갈 때 거기 가서 '입담'해두고 끝나서 와.)

109005 @ 아.(아.)

109005 #1 저 두에, 저 낭 아래 모사낚어. 우리도.(저 뒤에, 저 나무 아래 모셨어. 우리도.)

109005 @ 계난예, 아. 그 듯할망은 무신거 해준다 이런 거 었어?(그거니까요, 아. 그 '듯할망'은 무신거 해준다 이런 거 없어?)

109005 #1 었어. 우리는 몰라도 그 듯할망늘에이 이제 그뜨민 베움이.(없어. 우리는 몰라도 그 '듯할망'에 이제 같으면 뱀이.)

109005 @ 아, 응.(아, 응.)

109005 #1 베움이 그디 사는 거 닳아. 이 집직이.(뱀이 거기 사는 거 같아. 이 집 지킴이.)

109005 @ 아.(아.)

109005 #1 어떤 땐 보민이 우리 집이는 그런 걸 나 눈엔 안 보인디이 노랑헌 뱀덜토 하. 요만씩 한 거. 다른 집인 보면.(어떤 땐 보면 우리 집에는 그런 걸 내 눈엔 안 보였는데 노란 뱀들도 많아. 요만큼씩 한 거. 다른 집엔 보면.)

109005 @ 예.(예.)

109005 #1 우리 집인 었어도 영 보통으론 이제는 하간 약덜 쳐부난이 살충제덜 을 쳐부난 그런 디 베크되도 이런 디도 잘 텅기지 그런 것이.(우리 집엔 었어도 이렇게 보통으로는 이제 온갖 약들 쳐버리니까 살충제들을 쳐버리니까 그런 데 밖에도 이런 데도 잘 다니지 그런 것이.)

109005 @ 응.(응.)

109005 #1 이런 큰 거 구렁이 썸은 텅기민 아이고 건들지 말라. 집직이 텅검저, 집 직허는 거 텅검저 행 건들지도 못행 내불어, 거.(이런 큰 거 구렁이 썸은 다니면 아이고 건드리지 말라. 집 지키는 거 다닌다 해서 건드리지도 못해서 내버려, 그 거.)

109005 @ 할머니는 어디 절간에 다니십니까? 아니민.(할머니는 어디 절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109005 #1 절간에 텅기단 설러불엇지, 이젠. 나이도. 조금 텅기단 설러불언. 나이 들어가고.(절에 다니다가 그만뒀 버렸지, 이젠. 나이도. 조금 다니다가 그만뒀 버렸어. 나이 들어가고.)

109005 @ 당에는?(당에는?)

109005 #1 당에는 었고.(당에는 없고.)

109005 @ 당엔 안 다녀낚수과?(당엔 안 다녔었습니까?)

109005 #1 우린 당에. 이 집이 제 지내 허민이 허는 집인이 당엘 가. 당에도 이 날 본 날에 흠치 당에도 가고 바당에 제 지내레도 가고. 우린 바당에 제 지내는 것



도 엇고 당에 가는 것도 엇어. 집 안네만 해놔주.(우린 당에. 이 집에 제 지내서 하면 하는 집은 당에 가. 당에도 이 날 본 날에 함께 당에도 가고 바다에 제 지내러도 가고. 우린 바다에 제 지내는 것도 없고 당에 가는 것도 없어. 집 ‘안네’만 했었지.)

109005 @ 아, 집 안네만. 일 년에 한 번씩, 뭐 이 년에 한 번씩.(아, 집 ‘안네’만. 일년에 한 번씩, 뭐 이 년에 한 번씩.)

109005 #1 일 년에 혼 번이든 삼 년에 혼 번이든.(일 년에 한 번이든 삼 년에 한 번이든.)

109005 @ 모셔와근에 허는 거?(모셔와서 하는 거?)

109005 #1 심방 빌어당 허고.(무당 빌어다가 하고.)

109005 @ 그것만.(그것만.)

109005 #1 늬으 집이 허는 집인이 침 곳사 식으로 바당에도 가곡 당에도 가곡.(남의 집에 하는 집은 참 아까 식으로 바당에도 가고 당에도 가고.)

109005 @ 거난. 그건 안 해보고?(그러니까. 그건 안 해보고?)

109005 #1 안 해보고. 바당에 텅기는 사름 시민 대게 가는 생이라.(안 해보고. 바다에 다니는 사람 있으면 대게 가는 모양이야.)

109005 @ 아.(아.)

109005 #1 요양 나시엔 해근에.(용왕 뭍이라고 해서.)

109005 @ 요왕 나시?(용왕 뭍?)

109005 #1 응.(응.)

109005 @ 옛날에 할머니네 어렸을 때 어머니네 당에 안 다녀놔수과?(옛날에 할머니네 어렸을 때 어머니네 당에 안 다녔었습니까?)

109005 #1 안 텅겨놔어.(안 다녔었어.)

109005 @ 안 텅겨난. 애기 아플 때 뭐 이런 때도?(안 다녔었어. 아기 아플 때 뭐 이런 때도?)

109005 #1 애기 아플 땐 그자 아프면은 애기 뉘나시카부텐<sup>249)</sup> 할망이나 빌어당 빌어나 주고. 거뿐이주.(아기 아플 땐 그저 아프면 아기 ‘뉘났’을까봐 할머니나 빌려다가 빌어나 주고. 그거뿐이지.)

109005 @ 응.(응.)

109005 #1 애기 아프나 안 아프나 일 년이 돌아와 가민 정월에나 정월로 삼월 새에 그 사이에 날 뵙 일을 허젠 허민 해도.(아기가 아프나 안 아프나 일 년이 돌아와 가면 정월에나 정월로 삼월 사이에 그 사이에 날 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해도.)

109005 @ 응, 그것만예.(응, 그것만요.)

---

249) ‘뉘나다’는 어린 아이의 육체 속에 뉘이 고정되지 않아 잘 놀라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육체에서 뉘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상을 ‘뉘났다’고 한다. 한편 육체에서 뉘이 빠져나가면 아이는 평상시와 달리 깜짝깜짝 잘 놀라거나 자다가 일어나 몹시 울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앓게 된다. 그래서 혼이 빠져 나간 시일과 장소를 확인하여 육체에서 빠져나간 뉘을 다시 불러들여 육체에 고정시키면 병이 치료된다고 믿는 현상을 ‘뉘들이’라고 한다.

## 10. 통과 의례

### 출생

112001 @ 게민 이젠 옛날에 애기 낳고 해난 거 물어보쿠다예.(그러면 이젠 옛날에 아기 낳고 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112001 #1 응.(응.)

112001 @ 그 이제는 막 애기 가지민 병원에도 가고 좋은 노래도 듣고 뭐 좋은 것도 먹곡 허는디 옛날에 할머니넨 그런 거 못해낳수게예?(그 이제는 막 아기 가지면 병원에도 가고 좋은 노래도 듣고 뭐 좋은 것도 먹고 하는데 옛날에 할머니넨 그런 거 못했었잖습니까?)

112001 #1 아이가 지집아인지 소나이, 이젠 지집아이, 소나이 구별험젠이.(아이가 계집아인지 사내아이, 이젠 계집아이, 사내아이 구별한다고.)

112001 @ 예, 병원에 가근에.(예, 병원에 가서.)

112001 #1 그런 것이 어디 서?(그런 것이 어디 있어?)

112001 @ 게난.(그러니까.)

112001 #1 애기가 배영 다섯 돌, 석 돌이 돼어도 애기 곱게 서는 사름은 입덧 안 허는 사름은 몰랑 덩기당 보민 배가 불어사 애기 배진 거 아는디. 경 안형은 몰라.(아기 배어서 다섯 달, 석 달 되어도 애기 곱게 서는 사름은 입덧 안 하는 사름은 몰라서 다니다 보면 배가 불러야 아기 뱌 거 아는데. 그렇게 안해서는 몰라.)

112001 @ 응.(응.)

112001 #1 우리는 애기 설어도 막 굶어불민이 그냥 춤만 착착 바끄명이 잘도 굶게 살아난. 애기 서는 것도.(우리는 아기 서도 아주 굶어버려도 그냥 침만 착착 빨으면서 아주 굶게 살았었어. 아기 서는 것도.)

112001 @ 거 무신 말이파?(그거 무슨 말입니까?)

112001 #1 애기 배는 것도 이제는 입덧헌텐 허는디 우리는 애기 설젠 허면은 입맛이 엇영 막 그냥 죽어가. 이제도 경허는디 굶게 서는 사름은 애기 굶게 서는 사름은.(아기 배는 것도 이제는 입덧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기 서려고 하면 입맛이 없어서 막 그냥 죽어가. 이제도 그러는데 굶게 서는 사름은 아기 굶게 서는 사름은.)

112001 @ 할머니도 경해낳수과?(할머니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112001 #1 응, 우리도 경해난.(응,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

112001 @ 뭐 먹지 못허고.(뭐 먹지도 못하고.)

112001 #1 먹지 못해. 석 돌 동안은 무시거 먹지 못해.(먹지 못해. 석 달 동안은 뭐 먹지 못해.)

112001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12001 #1 투투 꿈만 바끄명.(투투 침만 빨으면서.)

112001 @ 무신거만 바끄명?(무엇만 빨으면서?)

112001 #1 춤만 바끄멍 투투허멍 춤만 바끄멍.(침만 빨으면서 투투하면서 침만 빨으면서.)

112001 @ 무사 춤 바깹니까?(왜 침 빨습니까?)

112001 #1 무산디 몰라. 먹기 실패가난 입이 쓰니까 춤만.(왜인지 몰라. 먹기 싫어가니까 입이 쓰니까 침만.)

112001 @ 아, 입이 쓰니까.(아, 입이 쓰니까.)

112001 #1 음식을 먹어야 그 춤도 안 날 건디.(음식을 먹어야 그 침도 안 날 건데.)

112002 @ 응. 그믐 애기 나젠 허민 애기 어떻게 준비허는 거 이수과?(응. 그러면 아기 낳으려고 하면 아기 어떻게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112002 #1 준비허는 거 엇어. 탕기당 그자 밋디로 가당도 애기빠 맞추민 집이 들어와불고 경해낫주.(준비하는 거 엇어. 다니다가 그저 밋에도 가다가 아기빠 맞추면 집에 들어와버리고 그랬었지.)

112002 @ 애기 나젠 허민게 뭐 지성귀도 준비헤사고.(아기 낳으려고 하면 뭐 기저귀도 준비해야되고.)

112002 #1 그런 것사게 대충은 헤영 내불지. 봇저고리여 무신 봇디적삼행 그런 건 내불어도. 지성귀 무시거 이제 이때 우리갓지는 지성귀, 살바도이 밀ㄴ루 푸대 옛날은.(그런 것이야 대충은 해서 내버리지.(그런 것이야 대충은 해서 내버리지. 배냇저고리다 무슨 배냇저고리해서 그런 건 내버려도. 기저귀 무엇 이제 이때 우리까지는 기저귀, 살바도 밀가루 푸대 옛날은.)

112002 @ 응.(응.)

112002 #1 그거 막 글 써진 거이.(그거 막 글 써진 거.)

112002 @ 예.(예.)

112002 #1 제헤영 무신 이제ㄴ치 비누 미치곡 헤영? 막 솟앙 걸 뱃경이 걸로 살지성궐 헤낫어이.(제해서 무슨 이제같이 비누 묻히고 해서? 막 삶아서 그걸 뱃겨서 그걸로 살 기저귀를 했었어.)

112002 @ 응.(응.)

112002 #1 지금은 시라목<sup>250)</sup> 허단 버치난 이젠 또 그냥, 걸로 허는디. 경 어리석은 짓을 했어, 옛날에.(지금은 ‘시라목’ 하다 부치니까 이젠 또 그냥, 그걸로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 옛날에.)

112002 @ 엇이난게, 뭐 헐 게예.(없으니까요, 뭐 할 게요.)

112002 #1 엇임도 허곡 그런 거 나도 안 허고 또.(없기도 하고 그런 거 나도 안 하고 또.)

112002 @ 맞아.(맞아.)

112002 #1 나질 안헛지. 그 밀ㄴ루로 애기 살발 허민 것도 막 좋았어. 정안허민 이추룩 입단 이런 가달 하나 끈영도 애기 강알에 대주고. 이런 거 끈영도 헤주고.

250) ‘시라목’은 무명천의 한 종류로 아기 기저귀 천을 말한다. ‘시렁목’이라고도 한다.

입단 현 옷으로 그추룩.(나지를 았았지. 그 밀가루로 아기 살바를 하면 그것도 아주 좋았어. 그렇게 안하면 이렇게 입던 이런 가랑이 하나 잘라서도 아기 다리에 대주고. 이런 것 잘라서도 해주고. 입던 현 옷으로 그렇게 )

112002 @ 아.(아.)

112002 #1 이제나 저 무신 그런 살바도 아니고, 시라목 살바도 아니고 고만이 잇당 흐나 아정강 강알 안에만 툭툭 대침주.(이제나 저 무슨 그런 살바도 아니고, ‘시라목’ 살바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 가져가서 다리 안에만 툭툭 대주고 있지.)

112002 @ 그게 더 안 좋앙예 별경해마씨, 강알이, 아기 강알이.(그게 더 안 좋아서요 별경게 돼요, 다리가, 아기 다리가.)

112002 #1 그렇지, 혼에 안 곁아주면은.(그렇지, 한에 안 곁아주면은.)

112002 @ 거난 그냥예 천 기저귀가 시라목으로 현 게 좋텐.(그러니까 그냥요 천 기저귀가 ‘시라목’으로 한 게 좋다고.)

112002 #1 이제도 정성허는 딴 것이 좋은 거.(이제도 정성하는 텐 그것이 좋은 거.)

112002 @ 예, 이제도예 애기안텐 그게 좋텐 그걸로 험디다.(예, 이제도요 아기한테는 그게 좋다고 그걸로 하던데요.)

112002 #1 경해도 경 험서?(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

112002 @ 빨젠 허민 실퍼.(빨려고 하면 싫어서.)

112002 #1 간세덜 헤영.(게으름들 피워서.)

112002 @ 나도 경 험수다. 어디 갈 땐 그거. 근디 비싸.(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갈 땐 그거. 비싸.)

112002 #1 비싸지. 점점 비싸는 걸로 나오는 생이라.(비싸지. 점점 비싸는 걸로 나오는 모양이야.)

112002 @ 거난 그거 비싸가지고 아까왕 안 곁아주당 보민.(그러니까 그거 비싸가지고 아까워서 안 곁아주다 보면.)

112002 #1 닳고.(닳고.)

112002 @ 별경허고.(별경고.)

112002 #1 닳아불곡.(닳아버리고.)

112002 @ 응.(응.)

112002 #1 애기 못 전디는 생각 안행 돈 아까운 생각만 허는 거지.(아기 못 건디는 생각 안하고 돈 아까운 생각만 하는 거지.)

112002 @ 거난 그냥 그 시라목 기저귀로 지성귀로 행은에 집에서 이실 땐.(그러니까 그냥 그 ‘시라목’ 기저귀로 기저귀로 해서 집에 있을 땐.)

112002 #1 우리 이디 막둥이도이 키운 거이 시라목이 이만이 포따리에 쌍 이서. 거 뭐할 거니?(우리 여기 막둥이도 키운 거 ‘시라목’ 이만큼 보자기에 싸서 있어. 그거 뭐할 거니?)

112002 @ 응.(응.)

112002 #1 그거 허단 옥아가난 이젠 어명도 바쁘고 다 해가난 이젠 종이 살바 해부난에 그건 쌍 이서. 거 행 무시거 헐 거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 필요 엇인 거 어지러운 거 데껴볼젠.(그거 하다가 커가니까 이젠 어머니도 바쁘고 다 해가니까 이젠 종이 살바 해버리니까 그건 싸서 있어. 아무것도 아니 필요 없는 거 어지러운 거 던져버리려고.)

112002 @ 시라목?('시라목?')

112002 #1 응, 시라목. 기저귀 허는 거.(응, '시라목'. 기저귀 하는 거.)

112002 @ 이젠 병원에서들 애기 낳는디 옛날엔 집에서 낳주예?(이젠 병원에서들 아기 낳는데 옛날엔 집에서 낳지요?)

112002 #1 병원에가 어디 서? 우리 아이덜은 병원에 안 가봤주. 병원에 간 적도 엇고. 애기 무신 애기도 몰르고. 그자 배 아파가민 애기 낳 건가, 배 불어가민 애기 배신가만 헛주.(병원이 어디 있어? 우리 아이들은 병원에 안 가봤지.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아기 무슨 아기도 모르고. 그저 배 아파가면 아기 낳을 건가, 배 불러가면 아기 뺐나만 헛지.)

112002 @ 집에서 애기 낳젠 허민 혼자서 못헉니께? 누게가 도와줘?(집에서 아기 낳으려고 하면 혼자서 못하잖습니까? 누가 도와줘?)

112002 #1 정해가민 신호가 돼영 어디 다 알아가. 할망도 어디 안 가곡이.(그렇게 해가면 신호가 되어서 어디 다 알아가. 할머니도 어디 안 가고.)

112002 @ 아, 집이 시어머니?(아, 집에 시어머니?)

112002 #1 그냥 금방 아팠 나는 것이 아니라부난.(그냥 금방 아파서 나는 것이 아니라서.)

112002 @ 응. 그믐 애기 누게가 받아줬수과?(응. 그러면 아기 누가 받아줬습니까?)

112002 #1 시어명도 받고 원어명도 친정어명도 받고.(시어머니도 받고 원래 어머니도 받고.)

112002 @ 아.(아.)

112002 #1 우린 할망 하르방 다 귀긋아부난이 애기 받는 건 걱정 엇어.(우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귀긋아'버리니까 아기 받는 건 걱정 없어.)

112002 @ 무사 애기 받는 할망덜도 싣지 안헉니까?(왜 아기 받는 할머니들도 있지 않습니까?)

112002 #1 삼싱할망.(삼승할머니.)

112002 @ 응.(응.)

112002 #1 그런 할망도 엇이 헛어, 우리.(그런 할머니들도 없이 헛어, 우리.)

112002 @ 아, 엇이.(아, 없이.)

112002 #1 그런 할망도 오민 값이 서사지. 값도 엇인 여에 또 우린 또 애기 남이 쉬와부난 그런 할망을 안 빌언 헛어.(그런 할머니도 오면 값이 있어야지. 값도

없는 터에 또 우린 또 아기 낳기가 쉬워버리니까 그런 할머니를 안 빌어서 했어.)

112002 @ 아. 게민 애기 낳 때 무사 뱃또롱줄, 탯줄 자르고 험니께?(아. 그러면 아기 낳을 때 왜 탯줄, 탯줄 자르고 하잖습니까?)

112002 #1 응. 우리네이 요것이 애기튼은이 탯줄을이 애기신더레 영 훑어뒀이 시어머니가 정성껏. 걸 애기 어멍 니빨로 끈으렌 해이.(응. 우리는 요것이 아기면 탯줄을 아기에게 이렇게 훑어두고 시어머니가 정성껏 그걸 아기 어머니가 이빨로 자르라고 해.)

112002 @ 애기 어멍?(아기 어머니?)

112002 #1 응. 나가. 애기 난 어멍ㄴ라.(응. 내가. 아기 낳은 어머니보고.)

112002 @ 직접?(직접?)

112002 #1 응, 직접. 이걸로 것도 정성인 생이라. 이걸 니빨로 끈으렌 해영 무경 싹헛당 입쪽 것도, 이디 끈은 디 것도 무꺼불곡 입쪽 것도 무꺼.(응, 직접. 이걸로 그것도 정성인 모양이야. 이걸 이빨로 자르라고 해서 묶어서 싹해다가 입쪽 그것도, 여기 자른 데 것도 묶어버리고 입쪽 것도 묶어.)

112002 @ 응.(응.)

112002 #1 경행 끈은 건 애기 배더레 영 놔근앵에 무신 험벅이라도 작 길게 찢어근에 걸 그레 낵 무꺼불어. 털어질 동안 무꺼.(그렇게 해서 자른 건 아이 배에 이렇게 놔서 무슨 형겼이라도 짝 길게 찢어서 그걸 그리 놔서 묶어버려. 떨어질 동안 묶어.)

112002 @ 응.(응.)

112005 #1 이제ㄴ치 그냥 아침이 금진 애기 저녁에도 목욕시키고 저녁에 금진 애기 아침에도 허지 안허여.(이제같이 그냥 아침에 감긴 아기 저녁에도 목욕시키고 저녁에 감긴 아기 아침에도 하지 않아.)

112005 @ 예.(예.)

112005 #1 그때도 사흘 뒤민 목욕시키고, 애기 어멍도 사흘 뒤사 목욕허고.(그때도 사흘 되면 목욕시키고, 아기 어머니도 사흘 돼야 목욕하고.)

112005 @ 아, 애기도 삼일 후제, 어멍도 삼일.(아, 아기도 삼일 후에, 어머니도 삼일.)

112005 #1 난 때 목욕시키믄은 삼일 뒤가사 쑥 삶아당이 그 물로.(낳은 때 목욕시키면 삼일 되어가야 쑥 삶아다가 그 물로.)

112005 @ 아, 애기마씨?(아, 아기요?)

112005 #1 애기도 굵지곡 어멍도이 밋에도 저 무시거허카부덴. 뒤냐 것ㄴ라 무시거헨 그거영 딱뚝허게 허영 곶앙 앓아났어.(아기도 감기고 어머니도 밋에도 저 무엇할까봐. 뒤냐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그거랑 따듯하게 해서 깔아서 앓았었어.)

112005 @ 좌욕 뒤 이런 거?(좌욕 뒤 이런 거?)

112003 @그믄 탯줄은 어디 강 묻습니까? 데껴?(그러면 탯줄은 어디 가서 묻습니까? 던져?)

112003 #1 방식?(방식?)

112003 @ 응?(응.)

112003 #1 애기방식?(태반?)

112003 @ 응, 애기방식. 응.(응, 태반. 응.)

112003 #1 우린이 챗 번에 슬아났어.(우린 챗 번에 살랐었어.)

112003 @ 응.(응.)

112003 #1 슬아나신디 멧 개는 그냥이 텃방석을 무신 강통에이 그런 것에 싸근  
엥에 막 쌍 그냥 막 끈에기로 막 무경 바당에 강 데껴불언, 계속.(살랐었는데 멧 개  
는 그냥 태반을 무슨 강통에 그런 것에 싸서 막 싸서 그냥 막 끈으로 막 묶어서 바  
다에 가서 던져버렸어, 계속.)

112003 @ 아, 바당에 강? 저 슬아분덴 헨게만은, 바다에 강도 데끼는구나예?  
(아, 바다에 가서? 저 살라버린다고 하던데, 바다에 가서도 던지는군요?)

112003 #1 응, 멧 개는 슬아나신디 이췌 아기덜이 저 병원에 강 나도 텃, 좇아  
오젠 허민 이녁냥으로 좇아당 바당에 강 막 잘 헤싸지지 안 허게이.(응, 멧 개는 살  
랐었는데 이제 아기들이 저 병원에 가서 낳아도 텃, 좇아오려고 하면 자기대로 좇  
아다가 바다에 가서 막 잘 흠어지지 않게.)

112003 @ 응.(응.)

112003 #1 무신 중싱 그 바당 중싱이라도 안 부끄게. 먹어불카부덴. 경헿 데껴  
비어. 이제도 경헿여, 손지덜 나도 다 바당에 강 데껴불언. 어디 튼 방<sup>251)</sup> 막은  
방<sup>252)</sup>허는 식으로이.(무슨 짐승 그 바다 짐승이라도 안 일게. 먹어버릴까봐. 그렇게  
해서 던져버려. 이제도 그렇게 해, 손주들 나도 다 바다에 가서 던져버렸어. 어디  
'튼 방', '막은 방' 하는 식으로.)

112003 @ 예, 예.(예, 예.)

112003 #1 튼 방 좇앙 강 데껴불어.(‘튼 방’ 좇아 가서 던져버려.)

112003 @ 응.(응.)

112003 #1 옛날에는 다 슬아났지.(옛날에는 다 살랐지.)

112003 @ 기지예?(그렇지요?)

112003 #1 옛날에는 다 슬아났젠 헤여.(옛날에는 다 살랐었다고 해.)

112003 @ 집이서 스는 거봐, 아니민 어디 강 슬읍니까?(집에서 사르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사릅니까?)

112003 #1 어디 베끗되 고운 디 강이 슬아난. 스는 거 봐났어, 우리가.(어디 밖  
에 고운 데 가서 살랐었어. 사르는 거 봤었어, 우리가.) )

112003 @ 아, 기봐?(아, 그렇습니까?)

112003 #1 애깃방식 스는 거.(태반 사르는 거.)

112003 @ 애깃방식. 아까 그 텃줄은 뱃또롱줄이엔 곶아?(태반. 아까 그 텃줄은

251) ‘튼 방’은 뚫린 방향이라는 뜻으로 사주에서 삼살방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방향을 말  
한다.

252) ‘막은 방’은 막힌 방향이라는 뜻 사주에서 삼살방위로 모든 일이 막히는 방향을 말한다.

‘뱃또롱줄’이라고 말해?)

112003 #1 응.(응.)

112003 @ 그냥 땃줄?(그냥 땃줄?)

112003 #1 땃줄, 땃줄.(땃줄, 땃줄.)

112003 @ 그냥 땃줄?(그냥 땃줄?)

112003 #1 뱃똥줄, 뱃똥줄 해. 뱃똥줄.(‘뱃똥줄’, ‘뱃똥줄’ 해. ‘뱃똥줄’.)

112003 @ 뱃똥줄, 뱃똥줄.(‘뱃똥줄’, ‘뱃똥줄’.)

112003 #1 뱃똥줄 끈엉.(땃줄 잘라서.)

112004 @ 응. 게민 애기 나나민 애기 어멍은 무슨거 먹으민?(응. 그러면 아기 낳고나면 아기 어머니는 무엇 먹으면?)

112004 #1 옛날엔이 이 메밀가루가 막 주로 큰 거라이. 그거 흐뎡 물 하영 낳 물탁하게 톨앙이 잘 익히도 안헤여이. 그냥 끈어진 등 만 등 허게 행 혼 사발 앓다 줘. 거민 그것이 배에 궂인 피를이 다 내리게끔 막 메밀가루를 익히지 안행.(옛날 엔 이 메밀가루가 아주 주로 큰 거야. 그거 조금 물 많이 놔서 ‘물탁’하게 반죽해서 잘 익히지도 앓아. 그냥 잘라지는 등 마는 등 하게 해서 한 사발 가져다줘. 그러면 그것이 배에 궂은피를 다 내리게끔 아주 메밀가루를 익히지 앓아서.)

112004 @ 응.(응.)

112004 #1 흐뎡 설 듯허게 행 그걸 줘. 걸 혼 낭푼이 헤다낱 쥬 먹으라, 먹으라 행. 먹기도 실푼 걸 먹으라, 먹으라.(조금 선 듯하게 해서 그걸 줘. 그걸 한 양푼 헤 다놔서 줘서 먹으라, 먹으라 해서. 먹기도 싫은 걸 먹어라, 먹어라.)

112004 @ 그거 모뎡쫄만 놔? 다른 거 안 놔?(그거 메밀쌀만 놔? 다른 거 안 놔?)

112004 #1 메역허고. 메역허고 그 메밀가루 허영 수제비까지룩 그자 죽도 똬고 밥도 똬고 허영 애기 난 땀 거 헤영 맥여.(미역하고, 미역하고 그 메밀가루 해서 수제비처럼 그저 죽도 되고 밥도 되고 해서 아기 낳은 땀 그거 해서 먹여.)

112004 @ 응, 이젠 막 미역국을 막 계속 먹고 영헉니께?(응, 이젠 막 미역국을 막 계속 먹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112004 #1 그때도 메역국을 주로 헛주게이.(그때도 미역국을 주로 헛지.)

112004 @ 응.(응.)

112004 #1 허여도 그 메밀묵에는 그 메역 흐뎡 빨아놓고 허영 설 듯허게 그루 헤영, 속에 피 삭아, 궂인 피 다 내리게끔 헌텐 행 걸 행 맥여. 먹기도 실푼 걸 먹으라, 먹으라 행.(해도 그 메밀묵에는 그 미역을 조금 빨아놓고 해서 선 듯하게 가루 해서, 속에 피 삭아, 궂은피 다 내리게끔 한다고 해서 그걸 해서 먹여. 먹기도 싫은 걸 먹어라, 먹어라 해서.)

112004 @ 그건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매날 먹는 거짜?(그건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땀날 먹는 겁니까?)

112004 #1 아니, 거 생각나민 허여주민 그때는 애기 어멍 배에 헉숙<sup>253</sup>헌텐이



낮이도 허영 줄 때도 있고, 중석으로 건. 점심 말고도 중석으로.(아니, 그거 생각나면 해주면 그때는 아기 어머니 배에 ‘헉숙’한다고 해서 낮에도 해서 줄 때도 있고, 간식으로 그건. 점심 말고 간식으로.)

112004 @ 중석은 점심이 아니라 간식?(‘중석’은 점심이 아니라 간식?)

112004 #1 응, 간식. 이제는 간식인디 그때는 중석.(응, 간식. 이제는 간식인데 그때는 ‘중석’.)

112004 @ 옛날엔 중석예.(옛날엔 ‘중석’요.)

112004 #1 중석으로 행 쥐. 일주일ㄱ진 중석을 잘 해줘, 아기 어멍. 배가 너미 허헨덴.(간식으로 해서 쥐. 일주일까진 간식을 잘 해줘, 아기 어머니. 배가 너무 허하다고.)

112004 @ 아.(아.)

112004 #1 아기가 뽕뽕헛단 배가 애기 빼불민 헉숙헨덴, 너미 허헨덴 거.(아기가 뽕뽕헛던 배가 아기 빼버리면 ‘헉숙’한다고, 너무 허하다고 그거.)

112004 @ 응.(응.)

112004 #1 이녁 식사 웨에도 그런 중석을 행 쥐, 간식을.(자기 식사 외에도 그런 간식을 해서 쥐, 간식을.)

112006 @ 그 애기 처음 입는 거 뭐, 붓딧적삼?(그 아기 처음 입는 거 뭐, 배냇저고리?)

112006 #1 응.(응.)

112006 @ 건 어멍 만드는 거파?(그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12006 #1 그냥 이디 우리 입는 옛날 저고리ㄱ치룩 짓 만들앙 이 오른쪽 곱을 질게 행 영 들르곡 이쪽은 영해당 졸라매어.(그냥 여기 우리 입는 옛날 저고리처럼 짓 만들어서 이 오른쪽 곱을 길게 해서 이렇게 두르고 이쪽은 이렇게 해다가 졸라매.)

112006 @ 아. 짓 요 짓, 뭐 곱름?(아. 짓 요 짓, 뭐 곱름?)

112006 #1 짓이 이서, 짓.(짓이 있어, 짓.)

112006 @ 응, 짓이 잇고.(응, 짓이 잇고.)

112006 #1 짓 조꼳딧 곱 들앙 영 등따리로 돌령.(짓 곁에 곱름 달아서 이렇게 등으로 돌려서.)

112006 @ 곱이 헉꼳 질어?(곱름이 조금 길어?)

112006 #1 응, 질게. 요만큼은 질게 허고 요짝 건 요만큼은 행 영 무끄기 좋게, 그거.(응, 길게. 요만큼은 길게 하고 요쪽 건 요만큼은 해서 이렇게 묶기 좋게, 그거.)

112006 @ 응, 소매는?(응, 소매는?)

112006 #1 소매도게 영행 손 아니 나게.(소매도 이렇게 해서 손 안 나오게.)

112006 @ 질게?(길게?)

---

253) ‘헉숙’은 ‘헉숙’하다의 어근으로 가득찼던 것이 없어져서 허전한 모양을 말한다.

112006 #1 응, 질게.(응, 질게.)

112006 @ 응. 이제 거는 영예 소매 영 싸지게 뒀거든마씨.(응. 이제 거는 이렇게요 소매 이렇게 쌀 수 있게 뒀거든요.)

112006 #1 이제 거는 메리야쓰 행 영 장갑ㄴ치 찢엉 나오는다. 그땐 그런 것이었어.(이제 거는 메리야스 해서 이렇게 장갑처럼 찢어서 나오는데. 그땐 그런 것이 없어.)

112006 @ 옛날엔 질게 해가지고.(옛날엔 길게 해가지고.)

112006 #1 메리야쓰 샤쓰가 어디 서?(메리야스 셔츠가 어디 있어?)

112006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06 #1 미녕으로. 아, 곧 난 때는 그 베로.(무명으로. 아, 곧 낳은 때는 그 베로.)

112006 @ 아, 곧 난 땐 베로?(아, 곧 낳은 때는 베로?)

112006 #1 베로. 붓딛적삼이렌 헨에 베로.(베로. 배넛저고리라고 해서 베로.)

112006 @ 응.(응.)

112006 #1 거 무사 경험시넨, 베로 그, 저슬에 나도 베로.(그거 왜 그러냐고, 베로 그, 겨울에 나도 베로.)

112006 @ 추운디?(추운데?)

112006 #1 응. 경험도게 베꺃딛론 듯이게 끼려도 속에는 베적삼을 입져.(응. 그래도 바깥으로는 따뜻하게 꾸려도 속에는 베적삼을 입혀.)

112006 @ 무사 경험신고?(왜 그렇게 하는가?)

112006 #1 애기가 옥아가문이 막 등 굵어도렌 헌덴이.(아기가 커가면 막 등 굵어달라고 한다고.)

112006 @ 아.(아.)

112006 #1 지냥으로 등 굵어진덴 행 그 베적삼을 헨 입진 거라. 속에, 베꺃딛는 듯이게 끼려줘도 저슬엘 나도.(자기대로 등 굵어지다고 해서 그 베적삼을 해서 입힌 거야. 속에, 밖에는 따뜻하게 꾸려줘도 겨울에 나도.)

112006 @ 응.(응.)

112006 #1 그 붓딛적삼은 그걸 꼭 이서.(그 배넛저고리는 그걸 꼭 있어.)

112006 @ 아, 베로 해야 된다고. 미녕으로 안 허고?(아, 베로 해야 된다고. 무명으로 안 하고.)

112006 #1 미녕이 아니고 베. 느신 걸로. 베가 느실지 미녕보다.(무명이 아니고 베. 날카로운 걸로. 베가 날카롭지 무명보다.)

112006 @ 애기 슬 막 여린다.(아기 살 아주 여린데.)

112006 #1 여러도 그걸 등 굵어도렌 헌덴. 커가민 등 굵어 도렌 헌덴 그걸 행 입져났어.(여러도 그걸 등 굵어달라고 한다고. 커가면 등 굵어 달라고 한다고 그걸 해서 입혔었어.)

112006 @ 계민 그건 그 저고리는.(그러면 그건 그 저고리는.)

112006 #1 일주일 넘어가민 뱃겨붙어이. 다른 거 찜 굿사 식으로 미녕이든 복삭 현 걸 허영 소미 질게 헤영 입저.(일주일 넘어가면 뱃겨버려. 다른 거 찜 아까 식으로 무명이든 복삭한 걸 해서 소매 길게 해서 입혀.)

112006 @ 건 일주일 입지는 거구나예.(그건 일주일 입히는 거군요.)

112006 #1 경행 입져붙어.(그렇게 해서 입혀버려.)

112006 @ 그른 건 놔뒀당은에 또 다른 애기 나민 또.(그러면 그건 놔뒀다가 또 다른 아기 낳으면 또.)

112006 #1 다른 애기도 입지고 아기 잘 키와난 사름은 애기 나가 다 낳나시민 땀 사름 거 빌어가. 스망 인 디 애기엔 허영. 아기 잘 키와난 디 애기, 땀, 이 집이 서가 왕 빌어가.(다른 애기도 입히고 아기 잘 키웠던 사름은 아기 내가 다 낳고 나면 다른 사름 거 빌려가. 사망 인 데 아기라고 해서. 아기 잘 키웠던 데 아기, 땀, 이 집에서 와서 빌려가.)

112006 @ 아, 늬의 집이서.(아, 남의 집에서.)

112006 #1 늬의 집이서도 빌어가고 켜당도 앓아가고. 경.(남의 집에서도 빌려가고 권당도 가져가고. 그렇게.)

112006 @ 그거 경행 잘 큰 아이 거 빌영 입지민 애기도 건강헌텐 허는 건가? 자기 애기도.(그거 그렇게 해서 잘 큰 아이 거 빌어서 입히면 애기도 건강하다고 하는 건가? 자기 애기도.)

112006 #1 잘 큰텐 허는 거지게. 거 이치적으로 곶아실 테주. 경헛젠 잘 클 리가 이서?(잘 큰다고 하는 거지. 그거 이치적으로 말했을 테지. 그렇게 했다고 잘 클 리가 있어?)

112007 @ 경해도게 이왕이민. 그민 혹시 할망상도 출립니까?(그래도 이왕이면. 그러면 혹시 ‘할망상’도 차립니까?)

112007 #1 할망상 출려. 미녕도 혼 필 놓고이, 종이도 일곱 장 놓고이, 그때는 애기 나면은 우선 할망상 출령이 쏘도 놓고, 물도 놓고, 수제비 행 먹을 때 수제비도 그레 놓고 그것이 할망상. 것도 일주일 돼민 앓아붙어.(‘할망상’ 차려. 무명도 한 필 놓고, 종이도 일곱 장 놓고. 그때는 아기 낳으면 우선 ‘할망상’ 차려서 쌀도 놓고, 물도 놓고, 수제비 해서 먹을 때 수제비도 그리 놓고 그것이 ‘할망상’. 그것도 일주일 되면 가져버려.)

112007 @ 일주일 동안 허는 거? 그건 애기 잘 키와도렌 허는 거지예?(일주일 동안 하는 거? 그건 아기 잘 키워달라고 하는 거지요?)

112007 #1 몰라, 그건. 우리 그건 자세히 몰라도 그 식은 허여.(몰라, 그건. 우리 그건 자세히 몰라도 그 식은 해.)

112007 @ 할망상 출리는 건 허여?(‘할망상’ 차리는 건 해?)

112007 #1 응. 미녕도 혼 필 놓고 헛당 미녕은 낫당 곱게 쌍 놔뒀. 그디 쏘도 놓고, 종이도 놓고이 종이에 이추룩 곱게 개영 쏘도 그 애기 클 때까지 그 쏘를 께에 놔뒀져. 우리도 이제사 치와 붙었어. 말제 난 애기덜.(응. 무명도 한 필 놓고 헛

다가 무명은 왔다가 곱게 싸서 놔둬. 거기 쌀도 놓고, 종이도 놓으면 이 종이에 이 처럼 곱게 개어서 쌀도 그 아기 클 때까지 그 쌀을 께에 놔둘 수 있어. 우리도 이제야 치워버렸어. 말째 난 아기들.)

112007 @ 아, 할망상은 일주일 잇당 앓아붙어도 그 졸은.(아, ‘할망상’은 일주일 있다가 가져버려도 그 쌀은.)

112007 #1 미녕하고 졸허고 그디 애기 걸레친이엔 허여이. 걸레, 애기 업는 친이라이 걸레친.(무명하고 쌀하고 거기 아기 띠라고 해. 띠, 아기 업는 끈이라 띠.)

112007 @ 예.(예.)

112007 #1 걸레친허고 혜영은이 그것에 ㄴ찌 혼 볼로. 세트로 건 출렁 놔두고 졸은 속지 하나 행 곱게 혼 줌 논 거 싸근엥에 실허고.(아기띠하고 해서 그것에 같이 한 벌로. 세트로 그건 차려서 놔두고 쌀은 속지 하나 해서 곱게 한 줌 놓은 거 싸서 실하고.)

112007 @ 응.(응.)

112007 #1 실허고 그디 돈도 올려이. 돈 올려난 거 돈도 하영은 안해도 흐끔이라도 돈은 세 갠 놔. 돈을 세 개이.(실하고 거기 돈도 올려. 돈 올렸던 거 돈도 많이 안 해도 조금이라도 돈은 세 개를 놔. 돈을 세 개.)

112007 @ 응.(응.)

112007 #1 삼싱할망 찍시로사 것산디 세 개 낱 곱게 개엥낫당 또 다음 애기 나도 그거 안녕 또 할망상을 걸로 출려.(삼싱할머니 깃으로 그것인지 세 개 놔서 곱게 개어놔다가 또 다음 아기 낱아도 그거 드러서 또 ‘할망상’을 그걸로 차려.)

112007 @ 아, 그걸로?(아, 그걸로?)

112007 #1 응, 그거 낫당, 잘 낫당. 애기 막 낱 때까지 그 미녕은 써.(응, 그거 왔다가, 잘 왔다가. 아기 막 낱을 때까지 그 무명은 써.)

112007 @ 아.(아.)

112007 #1 게민 그 졸이 어떻허당 좀 먹을 수 이시면은 그것만 곱아놓지. 이녀 아기 낱 때까지 써. 이젠 병원에 강 나부난 할망상이 뭐인지.(그러면 그 쌀이 어떻게 하다가 좀 먹을 수 있으면 그것만 곱아놓지. 자기 아기 낱 때까지는 써. 이젠 병원에 가서 낱아버리니까 ‘할망상’이 뭔지.)

112007 @ 게난.(그러니까.)

112007 #1 수제비가 뭐인지 그냥 설렁 데껴불고. 경 안해도 애기 잘 크지 안헐서. 옛날 복잡허게시리 험뿐이지.(수제비가 뭔지 그냥 그만둬 버리고. 그렇게 안 해도 아기 잘 크지 않니. 옛날 복잡하게끔 함뿐이지.)

112007 @ 아이구게, 옛날엔 병원도 엇곡 허난게 아멩해도 정성으로.(아이고, 옛날엔 병원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성으로.)

112007 #1 정성으로.(정성으로.)

112008 @ 애기 머리는 배안넛머리?(아기 머리는 배넛머리?)

112008 #1 뱃속, 배넛머리.(뱃속, 배넛머리.)

112008 @ 배넷머리?(배넷머리.)

112008 #1 배속엣머리.(배넷머리.)

112008 @ 배속엣머리. 그건 언제 찰르는 거마씨?(배넷머리. 그건 언제 자르는 거예요?)

112008 #1 돌 돌아와도 이 사월 초파일 돼민이 초파일날 까끈텐 허영이 까끄는 사름은 까끄고 안 까끄는 사름은 안 까끄는디.(돌 돌아와도 이 사월 초파일 되면 초파일날 째는다고 해서 째는 사름은 째고 안 째는 사름은 안 째는테.)

112008 @ 응.(응.)

112008 #1 요디 머리 꼭 요만이 넣겨. 요 꼭두메기.(요기 머리 꼭 요만큼 남겨. 요 ‘꼭두메기’.)

112008 @ 건 무사 경험신고?(그건 왜 그렇게 하는가?)

112008 #1 건 몰르크라.(그건 모르겠어.)

112008 @ 무신거엔 험니까, 그건?(뭐라고 험니까, 그건?)

112008 #1 거 무신 밋단산디사 몰르크라. 나도 이름을 몰라. 우리가 애기 낳 사월초파일 텡 머리 까끌 때민 꼭 머리꼭 서너 겹은 이디 낳 내불어. 무사산디사.(거 무슨 밋단인지야 모르겠어. 나도 이름을 몰라. 우리가 아기 낳아서 사월초파일 돼서 머리 째을 때면 꼭 머리털은 서너 가닥은 여기 봐서 내버려. 왜인지.)

112008 @ 응.(응.)

112008 #1 게민 머리 커가민 ㄱ찌 어우리정 몰라.(그러면 머리 커가면 같이 어 올려서 몰라.)

112008 @ 응. 게민 애기 머리는 그 초파일날 찰를 때 누게가 찰라? 찰라줘.(응. 그러면 아기 머리는 그 초파일날 자를 때 누가 잘라? 잘라줘.)

112008 #1 그때는이 집이서라도이 애기들 자, 옥은 첫돌에는 못 까까이.(그때는 집에서라도 아기들 자, 자란 첫돌에는 못 째아.)

112008 @ 응.(응.)

112008 #1 다음 돌 돼어가민 까까도. 그때는이 머리 까끄는 기계가 이서서. 이런 골동품에 나와신디 몰라도.(다음 돌 되어가면 째아도. 그때는 머리 째는 기계가 있어. 이런 골동품에 나왔는지 몰라도.)

112008 @ 예.(예.)

112008 #1 까끄는 게 영영영영 해가민 그자 짹짹짹 올라가고 짹짹짹 올라가는 것이 서.(까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그저 짹짹짹 올라가고 짹짹짹 올라가는 것이 있어.)

112008 @ 바리깡?(바리깡?)

112008 #1 몰라, 뭇산디. 머리 까끄는 기계, 기계 해영 어느 정도 집이 대강은 이서. 애기덜 질루는 디.(몰라, 뭇인지. 머리 째는 기계, 기계 해서 어느 정도 집에 대강은 있어. 아기들 기르는 데.)

112008 @ 집집마다 흥나씩 이서?(집집마다 하나씩 있어?)

112008 #1 집집마다 아니, 잇는 집인 이서. 그것이, 그 머리 까끄는 것이.(집집마다 아니, 잇는 집은 있어. 그것이, 그 머리 깎는 것이.)

112008 @ 계민 아이들 클 때까지 그냥 집이서 어무니나 아버지가 까까주는 거 파?(그러면 아이들 클 때까지 그냥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깎아주는 겁니까?)

112008 #1 어디 학교 갈 땐 그땐 이발소에도 가꼭 그땐 이발이 영 하진 안해도 이발소가 있주게. 그디 머리 까끄는 디 강 까깁 학교라도 보내젠 허민 곱게 행 보내고.(어디 학교 갈 땐 그땐 이발소에도 가고 그땐 이발이 이렇게 많지는 았아도 이발소가 있지. 거기 머리 깎는 데 가서 깎아서 학교라도 보내려고 하면 곱게 해서 보내고.)

112008 @ 응.(응.)

112008 #1 대강은 머리 민작 까까붙어. 그때 당시에는.(대강은 머리 깨끗이 깎아버려. 그때 당시는.)

112009 @ 계난예, 다예. 계른 혹시 애기덜 클 때 뭐 홍역이나 천연두나 이런 거 협니께? 마누라?(그러니까요, 다요. 그러면 혹시 아기들 클 때 뭐 홍역이나 천연두나 이런 거 하잖아요? 마누라?)

112009 #1 마누라.(마마.)

112009 @ 마누라헐 땐 어떻게 낫수과?(마마할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09 #1 마누라헐 때는이 애기가이 마누라허는 중 감기험스카부텐 아프덴 행 보민이 막 열이 올라이. 열 올랑 이젠 분시 몰른 사름은 분실 알아도 알아도 몰랑 헤지지. 감기약들 맥여불고 허민 애기가 그놈으 열을 핍젠 허는 열인디 약 맥여불민 그 열이 꺼져갈 거 아니? 경허민 그 애기만 못 전디는 거라.(마마할 때는 아기가 마마하는 중 감기인가 해서 아프다고 해서 보면 막 열이 올라. 열 올라서 이젠 분수 모른 사름은 분수를 알아도 알아도 몰라서 하지. 감기약들 먹여버리고 하면 아기가 그놈의 열을 피우려고 하는 열인데 약 먹여버리면 그 열이 꺼져갈 거 아니? 그러면 그 아기만 못 견디는 거야.)

112009 @ 응.(응.)

112009 #1 그냥 영 대강 눈치 뵈 이 동네라도 홍역이, 마누라 들어왔젠 허여, 그땐이. 누게네 집이 마누라험젠 허민 이녀이 애기 어멍이 알앗당, 아이고 어디도 영 마누라 왔젠 허는디 우리 애기가 열이 나가난 그거나 허젠 험신가 행 약 안 맥 영 놔두민 그 식이 돌아와.(그냥 이렇게 대강 눈치 봐서 이 동네라도 홍역이, 마누라 들어왔다고 해, 그땐. 누구네 집에 마마한다고 하면 자기 아기 어머니 알았다가, 아이고 어디도 이렇게 마마 왔다고 하는데 우리 애기가 열이 나가니까 그거나 하려고 하는가 해서 약 안 먹여서 놔두면 그 식이 돌아와.)

112009 @ 응.(응.)

112009 #1 열이 나가민이 막 열 낭 눈에 쫄사리덜이, 그놈으 홍역을 허젠 허민이. 계른 영 보민이 대강 가심팩이부터 피어. 경 안 허민 이 손바닥에 허고. 발바닥에 보고 손바닥에 보민 홍역허는 걸 알아져.(열이 나가면 막 열 나서 눈에 눈썹들

이, 그놈의 홍역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강 가슴팍부터 피어. 그렇게 안 하면 이 손바닥에 하고. 발바닥에 보고 손바닥에 보면 홍역하는 걸 알게돼.)

112009 @ 응.(응.)

112009 #1 경허당 보민이 벌겅게 몸에 짝 피어. 그거 이시민 메칠 서가민 그냥 기여들어불면은 저 마누라 손<sup>254</sup> 내켄 행이.(그러다가 보면 벌겅게 몸에 짝 피어. 그거 있으면 며칠 있어가면 그냥 기여들어버리면 저 ‘마누라 손’ 내졌다고 해서.)

112009 @ 무신거라?(뭐라고?)

112009 #1 마누라 손 내켄 허민 무신건지 몰라. 마누라 손 내켄 헤영 이추룩헌 차롱바구리 옛날은 차롱 이시민 막 영 대덜 꽃이고 파랑 험벅, 붉은 험벅, 노랑 험벅이 색색이 물 거 허영이 종이 다 귀사리에 들아매곡 허영 돈 농곡 쓸 농곡 헤영 이 저디 강 모상 내불어.(‘마누라 손’ 내졌다고 하면 뭘지 몰라. ‘마누라 손’ 내졌다고 해서 이렇게 한 채롱바구니 옛날은 채롱 있으면 막 이렇게 대들 꽃고 파란 형겅, 붉은 형겅, 노랑 형겅이 색색이 물 그거 해서 종이 다 귀통이에 달아매고 해서 돈 놓고 쌀 놓고 해서 저기 가서 모셔서 내버려.)

112009 @ 어디?(어디?)

112009 #1 저 아무 베끗디, 가름 베끗디 강 밧디라도 아무 밧디라도.(저 아무 밖에, 마을 밖에 가서 밧에라도 아무 밧에라도.)

112009 @ 아.(아.)

112009 #1 갱 내불민이 아이덜 장난허는 아이덜은이 그디 강 돈도 봉가오곡이.(그렇게 내버리면 아이들 장난하는 아이들은 거기 가서 돈도 주워오고.)

112009 @ 응.(응.)

112009 #1 떡도 그냥 먹고 이거 굶인 거 아니니까.(떡도 그냥 먹고 이거 굶은 거 아니니까.)

112009 @ 응.(응.)

112009 #1 이 집이 애기만 내치는 걸 했주. 굶인 거 아니랑 막 아이덜 주로 먹고 다 해났어, 옛날에.(이 집에 아기만 내치는 걸 했지. 굶은 거 아니라서 막 아이들 주로 먹고 다 했었어, 옛날에.)

112009 @ 응, 집이서 마누라, 애기가 마누라허민 그거를.(응, 집에서 마마, 애기가 마마하면 그거를.)

112009 #1 마누라 손 내영.(‘마누라 손’ 내어서.)

112009 @ 마누라 손.(‘마누라 손’.)

112009 #1 마누라 손을 내어불어사 그 애기 마누라헤난 애기 한글헌텐 허영 재기 마누라 손을 내쳐불어.(‘마누라 손’을 내어버려야 그 아기 마마했던 아기 한가하다고 해서 재게 ‘마누라 손’을 내쳐버려.)

112009 @ 마누라 손을 내치는 거, 응.(‘마누라 손’을 내치는 거, 응.)

112009 #1 소님을 이젠 내쳐분 거. 소님이 다 헤나난. 경헤난 거.(손님을 이젠

254) ‘마누라 손’은 마마 귀신을 말하는 것으로 손님으로 온 마마를 보내는 무속 제의다.

내쳐버린 거. 손님이 다 했었어. 그렇게 했던 거.)

112009 @ 응, 그것도 큰마누라, 죽은마누라 험니까?(응, 그것도 큰마마, 작은마마 험니까?)

112009 #1 응.(응.)

112009 @ 건 어떻 트납니까?(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112009 #1 큰마누란 우리 몰르는데 이 저 얹은 사름 잊지? 옛날 당시.(큰마마는 우리 모르는데 이 저 얹은 사람 잊지? 옛날 당시.)

112009 @ 예.(예.)

112009 #1 그것이 큰마누라.(그것이 큰마마.)

112009 @ 응.(응.)

112009 #1 얹어본 것이. 큰마누라행이 숭 뵙이 그 애기가, 숭을 잘 봐난 생이라, 그 마누라가. 굶어불면 그놈으 딱지 물 부뜨멍 물 부멍 해불민 양지가 막 곰보가 돼분 거라.(얹어버린 것이. 큰마마해서 흥 봐서 그 아기가, 흥을 잘 봤던 모양이야, 그 마마가. 굶어버리면 그놈의 딱지가 물 붙으면서 물 붙어서 해버리면 얼굴이 막 곰보가 되어버린 거야.)

112009 @ 응.(응.)

112009 #1 함덕도 곰보 두 개 이서. 그런 곰보. 나이든 사름, 이제 혼 칠십다섯 쯤 난 사름인디.(함덕도 곰보 두 개 있어. 그런 곰보. 나이든 사람, 이제 한 칠십다섯 쯤 난 사람인데.)

112009 @ 거난 그땐 약도 엇고게, 예. 어디 병원이.(그러니까 그땐 약도 없고, 예. 어디 병원이.)

112009 #1 약이 서도 좀 행 타도 안허여, 이제는.(약이 있어도 좀 해서 타지도 않아, 이제는.)

112009 @ 병원도 못 가고게, 어떻.(병원도 못 가고, 어떻게.)

112009 #1 병원이 어디 서. 그냥 지 집에 몰랑 설러 간 거지.(병원이 어디 있어. 그냥 자기 기운에 말라서 그만두게 되는 거지.)

112009 @ 무신거에 몰랑?(뭘에 말라서?)

112009 #1 지 집에.(자기 기운에.)

112009 @ 자기 집에?(자기 기운에?)

112009 #1 그냥 지 집에 떼영. 지 집에 떼영. 병원이 엇어부난게 그냥 집이서베 피 물을 수 엇거든게. 어디 갈 디도 엇고. 어디 일 낭 침 이력찬 사름드레 우리 아긴 영영험젠 허민 그디 가민 영영 곁아주민 곁아준 대로도 허고, 곁아준 거를 들어도 아기도 아니 좋앙 또. 그런 소님에 많이 죽었지, 옛날에는.(그냥 자기 기운에 떼어서. 자기 기운에 떼어서. 병원이 없어버리니까 그냥 집에서밖에 마를 수 없거든.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일 나서 참 ‘이력찬’ 사람에게 우리 아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 가면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면 말해준 대로도 하고, 말해준 거를 들어도 아기도 안 좋아서 또. 그런 손님에 많이 죽었지, 옛날에.)



112009 @ 거난예.(그러니까요.)

112009 #1 이 홍역에 많이 죽었어, 애기덜. 우린 애기 그런 거엔 죽으는 법을 안 봐신디. 저디 아기 다 키워팅 저디 밧디 간 이제 출 걸으레 강 보몬이 요만씩 현 무덤, 요만씩 현 무덤 묻는 장소가 또 이서.(이 홍역에 많이 죽었어, 아기들. 우린 아기 그런 거엔 죽는 법을 안 봤었는데. 저기 아기 다 키워두고 저기 밧에 가서 이제 풀 걸으러 가서 보면 요만큼씩 한 무덤, 요만큼씩 한 무덤 묻는 장소가 또 있어.)

112009 @ 애기 묻는 애기무덤? 응.(아기 묻는 애기무덤? 응.)

112009 #1 장소덜이. 강 보민이 그 애기 질화난이 옛날은 대구덕<sup>255</sup>이지.(장소들이. 가서 보면 그 애기 길렀던 옛날은 ‘대구덕’이지.)

112009 @ 응.(응.)

112009 #1 이제는 췌구덕<sup>256</sup>허고 영 밀리는 거 해도 대구덕도 그 애기 질화난 거는 그냥 그 애기 무덤 위에 강 더경 내불고 경허여.(이제는 ‘쇠구덕’하고 이렇게 밀리는 거 해도 ‘대구덕’도 그 애기 길렀던 거는 그냥 그 애기 무덤 위에 가서 덮어서 내버리고 그렇게 해.)

112009 @ 응. 게몬 그거 심방 빌어당도 허곡 헌텐 헨게만은 그런 건 안 해?(응. 그러면 그거 무당 빌려다가 하고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안 해?)

112009 #1 게메, 심방 빌어당 마누라 손을 내쳐분 거라.(글쎄, 무당 빌려다가 ‘마누라 손’을 내쳐버린 거야.)

112009 @ 아, 그게 심방 빌어당 허는 거?(아, 그게 무당 빌려다가 하는 거?)

112009 #1 것도 심방 빌어당. 마누라 소님을 내치젠 허민.(그것도 무당 빌려다가. 마마 손님 내치려고 하면.)

112009 @ 아, 집이서도 뭐 허고?(아, 집에서도 뭐 하고?)

112009 #1 집이서, 애기 구들에서. 막 그 차룽에 그 물색 종이도 오호호호 오호호호허멍 돈 내쳐. 게민 그 할망이 앓앙 강 저디 강 고운 디 강 놔팅 와.(집에서, 아기 방에서. 막 그 채룽에 그 물색 종이도 오호호호 오호호호하면서 모두 내쳐. 그러면 그 할머니가 가져다가 가서 저기 가서 고운 데 가서 놔두고 와.)

112009 @ 아.(아.)

112009 #1 것이 마누라 손 내치는 거.(그것이 ‘마누라 손’ 내치는 거.)

112009 @ 마누라 손 내치는 거.(‘마누라 손’ 내치는 거.)

112009 #1 다 잊어버릴 거여만은 곱아가난 줄줄 곱아점저. 시작을 못 했주, 곱아가난 곱아점저게.(다 잊어버릴 거다만은 말해가니까 줄줄 말해지네. 시작을 못 했지, 말해가니까 말해지네.)

112009 @ 거난예. 응. 마누라 말고는 애기덜 클 때 크게 아프고 허는 게 엇수과?(그러니까요. 응. 마마 말고는 아기들 클 때 크게 아프고 하는 게 없습니까?)

255) ‘대구덕’은 대로 만든 바구니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대로 만든 아기 요람을 말한다.

256) ‘췌구덕’은 쇠로 만든 바구니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쇠로 만든 아기 요람을 말한다.

112009 #1 그거베끼 그거 아픈 것이 켈 큰 거지.(그거밖에 그거 아픈 것이 켈 큰 거지.)

112009 @ 그게 켈 큰 거예.(그게 켈 큰 거요.)

112009 #1 무시거엔 말도. 아이고 느네 집이 소님 들어시냐? 마누라 들어시냐? 영 행 마누라가 켈 큰 손님이 생이라.(무엇이라고 말도. 아이고 너희 집에 손님 들어왔니? 마마 들어왔니? 이렇게 해서 마마가 켈 큰 손님인 모양이야.)

112009 @ 아.(아.)

112009 #1 홍역이 켈 큰 병인 생이라.(홍역이 켈 큰 병인 모양이야.)

112009 @ 그때는 집에서 무슨 꿍지도 굽지 말라 경해?(그때는 집에서 무슨 고기도 굽지 말라 그렇게 해?)

112009 #1 안 구워. 그때허민이 할망이 마누라 할망이 숭 뽕이 그 애기 막 덩살을 저 못 견디게 굴어. 막 고기도 귀나민이, 애기 이제도이 곧 난 때는이 저 밧그레 아기 나고 이디서 거는 삼일 안네는이 귀가민이 애기가 숭보민이 그냥.(안 구워. 그때하면 할머니가 마마 할머니가 흥 봐서 그 아기 막 ‘덩살’을 저 못 견디게 굴어. 막 고기는 굽고 나면, 아기 이제도 곧 낳은 때는 저 바깥채 아기 낳고 여기서 그거는 삼일 안에는 구워가면 아기 흥보면 그냥.)

112009 @ 아, 마누라할 때 말고도?(아, 마마할 때 말고도?)

112009 #1 응, 술이 뿔룩뿔룩뿔룩 튀어나기 붕물어.(응, 살이 불룩불룩불룩 튀어나서 물집이 잡혀.)

112009 @ 아.(아.)

112009 #1 그럴 수가 이서. 소님 할 때는 특히 더허영 걸 막스왕 집에서 굽도 안허여. 소님 허는 애기가이 혼 댕 설이나 나쁜이 동네 식게허는 걸 다 알아. 제사허는 거.(그럴 수가 있어. 손님 할 때는 특히 더해서 그걸 무서워서 지에서 굽지도 았아. 손님 하는 아기가 한 댕 살이나 나면 동네 제사하는 걸 다 알아. 제사하는 거.)

112009 @ 응.(응.)

112009 #1 누게네 집이 강 곤떡<sup>257)</sup> 빌어다 도라, 누게네 집이 강 콩, 콩나물.(누구네 집에 가서 ‘곤떡’ 빌려다 달라, 누구네 집에 가서 콩, 콩나물.)

112009 @ 어떻 알아?(어떻게 알아?)

112009 #1 게메 겨난 이디 침 마누라 할망이 큰 할망이난 구신이라. 경허민이 아기 어명이 식게침이 강이 아이고 아기가 영영험수다 허민 그디 초상보다 우선 켓 쥐. 콩나물도.(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참 마마 할머니가 큰 할머니니까 귀신이라. 그러면 아기 어머니가 제삿집에 가서 아이고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 거기 초상보다 우선 쥐, 콩나물도.)

112009 @ 애기가 마누라할 때?(아기가 마마할 때?)

112009 #1 응. 마누라할 때 가민 아기가 영영험 제사에 영영 험텐 허민 곤떡도

257) ‘곤떡’은 보통 흰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데 제보자는 송편을 ‘곤떡’이라고 말했다.

먹켄 현 거 다 주고 콩나물 도렌 현 것도 다 주곡.(응. 마마할 때 가면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사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흰떡도 먹겠다고 한 거 다 주고 콩나물 달라고 한 것도 다 주고.)

112009 @ 아.(아.)

112009 #1 다 빌영왕 줘. 지네 집이 제사해도 우로 안 해팅 그냥 이디 줘, 건. 건 의례 경허여.(다 빌려와서 줘. 자기네 집에 제사해도 위로 안 해두고 그냥 여기 줘, 그건. 그건 으레 그렇게 해.)

112009 @ 응.(응.)

112009 #1 무신 내 남저, 무신 내 남저. 애기가 끝나, 누계네 집이 강 보렌 다 곶아.(무슨 냄새 난다, 무슨 냄새 난다. 아기가 말한다, 누구네 집에 가서 보라고 다 말해.)

112009 @ 아.(아.)

112009 #1 두린 애긴디도 옥양 혼 예술곱 술 난 아기 허는 거.(어린 아기데도 커서 한 예닐곱 살 난 아기 하는 거.)

112009 @ 아.(아.)

112009 #1 아니 곧는 애긴 아니 곧주만은 그런 할망이 그렇게 시검사신디사이 늑으 집이 식게허고 늑으 집이 뭐 허는 걸 어떻 알아져?(아니 말하는 아긴 안 말하지만 그런 할머니는 그렇게 시키는지 남의 집에 제사하고 남의 집에 뭐 하는 걸 어떻게 알아?)

112009 @ 계난.(그러니까.)

112009 #1 그 경행 강 빌어당 이 애길 맥여났어, 옛날에.(그 그렇게 해서 가서 빌려다가 이 아길 먹였었어, 옛날에.)

112009 @ 계난 바닷게기 곱지 말렌 허는 거짜?(그러니까 바닷고기 곱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112009 #1 으게. 구워 가면은 그 냄새로사 험신디 그 숭을 봐, 숭을 봐.(응. 구워 가면 그 냄새로야 하는지 그 흥을 봐, 흥을 봐.)

112009 @ 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건 상관없고?(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건 상관없고?)

112009 #1 이것도 경 그 순간은 흐뎡 주의해 줘. 손님 나갈 동안은.(이것도 그렇게 그 순간은 조금 주의해 줘. 손님 나갈 동안은.)

112009 @ 아.(아.)

112009 #1 이제는 홍역이여 허영 병원에도 가고 주사 놔불민 열도 꺼져불곡 허는다. 그때는 그 열을 몸에서만 핏젠 헤노난 힘든 거라.(이제는 홍역이다 해서 병원에도 가고 주사 놔버리면 열도 꺼져버리고 하는데. 그때는 그 열을 몸에서만 피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112010 @ 응. 혹시 애기, 애기 가지면 무신거 허민 안 좋은다, 뭐 허민 안 웬다 영허는 거 이수과?(응. 혹시 아기, 아기 가지면 무엇 하면 안 좋다, 뭐 하면 안 된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112010 #1 그런 건 몰라.(그런 건 몰라.)

112010 @ 애기 가졌을 때 무신거 허지 말라, 뭐 지방 넘어가지 말라 무신 뭐.  
(아기 가졌을 때 무엇 하지 말라, 뭐 문지방 넘어가지 말라 무슨 뭐.)

112010 #1 지방 안 넘엉 어디 놀앙 땡기느냐? 이 지방 안 넘엉.(문지방 안 넘어서 어디 날아서 다니니? 이 문지방 안 넘어서.)

112010 @ 하하하. 아니, 아니. 불르지 말라, 지방.(하하하. 아니, 아니. 뽀지 말라, 문지방.)

112010 #1 지방 불르지 말라?(문지방 뽀지 말라?)

112010 @ 아니민 뭐 애기 가지민 우린 막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아기 가지면 우린 막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막 이런 거.)

112010 #1 아, 밀가루 음식은 애기 받은 둘 똥민, 이 둘에 날 거면은 혼 열흘, 십오일 앞두지 안헤이?(아, 밀가루 음식은 아기 낳는 달 되면, 이 달에 낳을 거면 한 열흘, 십오일 앞두지 않아?)

112010 @ 응.(응.)

112010 #1 그 ㄱ루 음식을 먹으믄이 애기 낳 보믄이 머리굽<sup>258</sup>)에고 무시거고 다 ㄱ루 문영이 모옥 시키기가 힘들어.(그 가루 음식을 먹으면 아기 낳아서 보면 ‘머리굽’에고 무엇에고 다 가루 문어서 목욕시키기가 힘들어.)

112010 @ 아.(아.)

112010 #1 그 ㄱ를 몬 머리에 넣어. 애기 날 무렵 똥은 그 ㄱ루 음식을 주의행 안 먹어.(그 가루를 모두 머리에 넣어. 아기 낳을 무렵 똥서는 그 가루 음식을 주의해서 안 먹어.)

112010 @ 응, 먹지 말렌 허드라고마쎄.(응,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12010 #1 정헤여. 머리에 막 기냥 몸에고 무시거고 모옥 시키기가 궂어, 애기. 찌닥찌닥 넣어.(그렇게 해. 머리에 막 그냥 몸에고 똥에고 목욕 시키기가 나빠, 아기. 끈적끈적 넣어.)

112010 @ 응. 뭐 무슨 닭고기도 먹지 말라 영협니까?(응. 뭐 무슨 닭고기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까?)

112010 #1 독고기 설 때 먹으민, 이 술이 독술 잇고 참술 이서이, 독고기 먹으민 독술 똥 왕상헌텐 독고기 먹지 말렌 헤서.(닭고기 설 때 먹으면, 이 살이 닭살 잇고 참살 있어, 닭고기 먹으면 닭살 돼서 양상한다고 닭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112010 @ 계난예, 그런 말도 나도 들어난 거 닮아마쎄. 그런 비슷한 거 또 엇수과?(그러니까요, 그런 말도 나도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런 비슷한 거 또 없습니까?)

112010 #1 독도 애기가. 우린 그런 일 엇어도 들은 말이주, 거는. 독께기, 애기 설 때 독께기 먹으민 독술 똥텐 왕상헌텐 그런 말 들어났어.(닭도 아기가. 우린 그런 일 엇어도 들은 말이지, 그거는. 닭고기, 아기 선 때 닭고기 먹으면 닭살 된다고

258) ‘머리굽’은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두피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양상한다고 그런 말 들었었어.)

112010 @ 아, 경해도 애기 가진 어명은 어디 영장 난 디나 이런 디도 가지 말  
꼭 해사주예, 흥꿈예 조심.(아, 그래도 아기 가진 어머니는 어디 상 난 테나 이런  
테도 가지 말고 해야지요, 조금요 조심.)

112010 #1 에에, 우리 무테기로 텅것어.(에에, 우리 무작정 다녔어.)

112010 @ 아.(아.)

112010 #1 정성허는 집인 몰라도.(정성하는 집은 몰라도.)

112010 @ 응.(응.)

112010 #1 게민 영장허는 집이 가지 말민 이녀 부모나 초상이나 죽으면 어떻.  
(그러면 상 난 집에 가지 말면 자기 부모나 조상이나 죽으면 어떻게.)

112010 @ 아니게, 당부몬 흘 수 엇고게. 어디 늬이 집이게.(아니, 당부몬은 할  
수 없고. 어디 남의 집에.)

112010 #1 정도 허지. 정성으로 안 가는 사름. 그릴 수도 이서.(그렇게도 하지.  
정성으로 안 가는 사람. 그릴 수도 있어.)

112010 @ 경은 안허고예, 할머니넌 경 해보진 안허고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할머니넌 그렇게 해보진 았고요.)

## 혼례

112011 @ 이번엔 결혼할 때, 할머니 결혼할 때 옛날 신식 결혼 말고 구식 결혼  
은 결혼은 허젠 허민 어떻 어떻 어떻 행은에 허는 거파?(이번엔 결혼할 때, 할머니  
결혼할 때 옛날 신식 결혼 말고 구식 결혼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서 하는 겁니까?)

112011 #1 우리 옛날, 옛날 우리 결혼할 땐, 우리 결혼허기 전인 몰라.(우리 옛  
날, 옛날 우리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기 전엔 몰라.)

112011 @ 응.(응.)

112011 #1 그땐 가메, 그디 새시방칩이서 가메 아상왕 모사 가불민 꾀난 거주.  
보리밥해 먹고 보리밥에 쌀, 팥 농곡 해근에 밥해영. 돛레기 납작납작허게, 돛레기.  
(그땐 가마, 거기 새신랑집에서 가마 가져와서 모셔 가버리면 끝난 거지. 보리밥해  
먹고 보리밥에 쌀, 팥 놓고 해서 밥해서. 돼지고기 납작납작하게, 돼지고기.)

112011 @ 예.(예.)

112011 #1 돼지고기 아니 돛레기.(돼지고기 아니 ‘돛레기’.)

112011 @ 돛레기.(‘돛레기’.)

112011 #1 영 생 세 개. 접시에 요만씩 놓고 순대 하나 농곡, 두부 농곡, 메밀궂  
루로 전 지정 건 하나 톱 더끄고.(이렇게 세서 세 개. 접시에 요만큼씩 놓고 순대  
하나 놓고, 두부 놓고, 메밀가루 전 지저서 그건 하나 톱 덮고.)

112011 @ 응.(응.)

112011 #1 그것이 고기반이고. 잔칫집이 가민 뒷 보리밥에 에에.(그것이 고기

반기고 잔칫집에 가면 뭐 보리밥에 에에.)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1 그거주.(그거지.)

112011 @ 저, 경해도 순서가 도새기 잡는 날 있고 가문잔치 있고 옛날도 경해 나지 안헤수과?(저, 그래도 순서가 돼지 잡는 날 있고 가문잔치 있고 옛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12011 #1 도새기 잡은 날이 가문잔치가 돼. 오늘 도새기 잡으면.(돼지 잡은 날이 가문잔치가 돼. 오늘 돼지 잡으면.)

112011 @ 오늘이 가문 잔치?(오늘이 가문잔치?)

112011 #1 응, 넌이 잔치고 오늘 저녁인 막 도새기 배설 솥국 행덜, 도새기 배설 칼칼 쓴 거 뽏사 먹을 거 산디.(응, 넌이 잔치고 오늘 저녁엔 막 돼지 내장 삶고 해서들, 돼지 내장 칼칼 쓴 거 뽏 먹을 건지.)

112011 @ 옛날엔 먹을 거 엇이난.(옛날엔 먹을 거 없으니까.)

112011 #1 간 솥국 그디 안칩 다 솥양. 그거 혼 점, 반 점. 도새기 잘허민 하나 쫘 잡양 잔치허는 잔치가 무시것이 할 거라게.(간 삶고 거기 내장 다 삶아서. 그거 한 점, 반점. 돼지 잘하면 하나쫘 잡아서 잔치하는 잔치가 무엇이 많을 거야.)

112011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11 #1 이멘씩이라도 다허민 가문잔치엔 행 먹영.(이만큼씩이라도 다하면 가문잔치라고 해서 먹어.)

112011 @ 도새기 잡는 날이 가문잔치?(돼지 잡는 날이 가문잔치?)

112011 #1 응. 그날. 오늘 잡으면은 오늘 저녁이 허고, 뽏날은 잔치허고.(응. 그날. 오늘 잡으면 오늘 저녁에 하고, 뽏날은 잔치하고.)

112011 @ 잔치고.(잔치고.)

112011 #1 모리 잔치민 오닐은 두부해불고 뽏날은 뽏 잡고 뽏 출리국 허민 뽏날은 잔치.(모래 잔치면 오늘은 두부해버리고 뽏날은 돼지 잡고 모두 차리고 하면 뽏날은 잔치.)

112011 @ 게문 잔치 쫘나나근에 또 사둔잔치엔 헛 건 무신거과? 사둔칩이 가는 거.(그러면 잔치 끝나고 나서 또 사둔잔치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사둔집에 가는 거.)

112011 #1 게메, 사둔칩이 가는 건 사둔칩이 가는 건디 당일허는 집도 있고 잔칫날이 까까운 디는이. 또 먼 디는 뽏날 사둔칩이 가는. 이뽏 사둔도 가고.(그러게, 사둔집에 가는 건 사둔집에 가는 건데 뽏이라는 집도 있고 잔칫날이 까까운 데는. 또 먼 데는 뽏날 사둔집에 가는. 여기 사둔도 가고.)

112011 @ 그디 사둔도 오고.(거기 사둔도 오고.)

112011 #1 응, 경해도. 갱 서로가 다대기민 오지맙센 허민 아니도 오는 수 있고. 새시방칩이서가 여자집일 뽏여 와.(응, 그래도. 그래서 서로가 부뽏치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수도 있고. 새시방집에서가 여자 집엘 뽏저 와.)

112011 @ 응.(응.)

112011 #1 그때도 무신 고기 놓고 쓸 농곡 행 아상 와.(그때도 무슨 고기 놓고 쌀 놓고 해서 가져와.)

112011 @ 그게 사돈잔치?(그게 사돈잔치?)

112011 #1 이제 그뜨민 사돈열맹허는 식이라.(이제 같으면 사돈연맹하는 식이야.)

112011 @ 응, 옛날엔 경 잔치 듯날 해근에 저 새서방이영 새서방 아방이영.(응, 옛날엔 그렇게 잔치 뒷날 해서 저 새신랑이랑 새신랑 아버지랑.)

112011 #1 새각시영.(새색시랑.)

112011 @ 새각시영 행 새각시 집이 가는 거?(새색시랑 해서 새색시 집에 가는 거?)

112011 #1 응.(응.)

112011 @ 새각시침이서도 새서방침이 읊니까?(새색시 집에서 새신랑 집에 읊니까?)

112011 #1 경 가야될 건디 사돈끼리 연락헤영 아니 갈 걸로 약속을 치네. 우린 경헤낫어.(그렇게 가야될 건데 사돈끼리 연락해서 안 갈 걸로 약속을 하네. 우린 그렇게 했었어.)

112011 @ 아, 할머니넨 경행 약속헤근에 안 가고.(아, 할머니넨 그렇게 약속해서 안 가고.)

112011 #1 동네라도 아니 했어.(동네라도 안 했어.)

112011 @ 할머니넨 경헤도 흠뾰 신식인게. 그것도 다 헤낫덴 헨게만은.(할머니라고 그래도 조금 신식이네. 그것도 다 그랬었다고 하던데.)

112011 #1 신식은 신식돼낫지. 가메를 안 타니까.(식식은 신식 됐었지. 가마를 안 타니까.)

112011 @ 너무 가까우난 안 탄 거 아니?(너무 가까우니까 안 탄 거 아니?)

112011 #1 가까웁도 허고 가메를 안 탔어, 우리는.(가깝기도 하고 가마를 안 탔어, 우리는.)

112011 @ 다른, 할머니 친구 다른 사름덜도 가메 안 탄?(다른, 할머니 친구 다른 사람들도 가마 안 탔어?)

112011 #1 안 해서. 우리 두린 때는이 혼 열 설에 열댓 설 난 땀이 새각시 가메 타는 걸 봐낫어. 막 그 유리로 강 영행 새각시 보젠 두린 때 멍청허게시리. 집이 돌아오민 또 그냥 이런 창문에, 창문이라 이것이야.(안 했어. 우리 어린 때는 한 열 살에 열댓 살 난 때는 새색시 가마 타는 걸 봤었어. 막 그 유리로 가서 이렇게 해서 새색시 보려고 어린 때 멍청하게끔. 집에 데려오면 또 그냥 이런 창문에, 창문이야 이것이야.)

112011 @ 예, 예.(예, 예.)

112011 #1 창문에덜 새각시 보레덜 강 막 사고.(창문에들 새색시 보러들 가서

막 사고.)

112011 @ 예.(예.)

112011 #1 경해낫주.(그랬었지.)

112011 @ 나도 해난 거 닳수다게, 무사.(나도 했던 거 같습니다, 왜.)

112011 #1 새각시 보래?(새색시 보러?)

112011 @ 예, 새각시 보래.(예, 새색시 보러.)

112011 #1 새각시 보래 가문이 이제는 젊은 사름 새각시 친구, 새시방 친구. 새시방 방이 있고 새각시 방도 이시는데 옛날은이 그 집안에 웃댓어른으로부터 새시방 즈꿏덜 다 앓쳐가문이. 새각시 집이 와도 웃어른. 새각시 보래 가문이 이 존존헌 것덜 창문에 돌아정이 새각시 보래 가문이 이디 곤밥덜이영 고기덜이영 농민이 할 망덜이 손지덜을 뽕 늬으 손지라도 뽕 걸 먹어질 거라게? 수까락으로 툽툽 끈으멍 손 받으라, 손 받으라 행 흥 손바닥씩 툽툽 끈어줘. 경 우리도 먹어났어, 그거를.(새색시 보러 가면 이제는 젊은 사름 새색시 친구, 새신랑 친구. 새신랑 방이 있고 새색시 방도 있는데 옛날은 그 집안에 윗대어른으로부터 새신랑 곁엘 다 가져가면. 새색시 집에 와도 웃어른. 새색시 보러 가면 이 자잘한 것들 창문에 달아져서 새색시 보러 가면 여기 흰밥들이랑 고기들이랑 놓으면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봐서 남의 손지라도 봐서 그걸 먹을 수 있니? 숟가락으로 툽툽 자르면서 손 받아라, 손 받아라 해서 한 손바닥씩 툽툽 잘라줘. 그렇게 우리도 먹었었어, 그거를.)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1 새각시 보래 가시든 할망덜이. 독새기도 벌렁. 벌렁 주라, 벌렁 주라 행 흥꼼씩 다 줘 먹어났어.(새색시 보러 갔으면 할머니들이. 달걀도 쪼개서. 쪼개서 줘라, 쪼개서 줘라 해서 조금씩 다 줘서 먹었었어.)

112012 @ 응. 게민 중매 서는 건. 중매 서는 사름이 이십니까?(응. 그러면 중매 서는 건. 중매 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112012 #1 옛날사 다 중매주, 이제난 경 안 해도.(옛날이야 다 중매지, 이제니까 그렇게 안 해도.)

112012 @ 게난예. 중진허는 사름이 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집도 알고 저 집도 알면 그냥.(그러니까요. 중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집도 알고 저 집도 알면 그냥.)

112012 #1 중진허는 사름이 이섯어.(중매하는 사람이 있었어.)

112012 @ 허는 사름이 이션.(하는 사람이 있어서.)

112012 #1 우리 헐 때 연애라 헐 것이 었엇어.(우리 할 때 연애라 한 것이 없었어.)

112012 @ 게난.(그러니까.)

112012 #1 중진해야지.(중매해야지.)

112012 @ 중진. 아니 할으부지추록 뭐 우리 손지영 느네, 아니 우리 아덜이영 느네 딸이영 결혼시키게 영해근에 아버지들끼리 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도 허는 사



름이 있는 거지예?(중매. 아니 할아버지처럼 뭐 우리 손주랑 너희, 아니 우리 아들이랑 너희 딸이랑 결혼시키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들끼리 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112012 #1 겐디 우리 우리네이 까까운 거리니까이 이쪽 하래비나 저쪽 하르방이나 그찌덜 놀몬이 장난 비스름이 곧당 보난 우리는 사돈이 댜 거라. 계난 중진도 엇어.(그런데 우리 우리는 가까운 거리니까 이쪽 할아버지나 저쪽 할아버지나 같이 들 놀면 장난 비슷하게 말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사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중매도 엇어.)

112012 @ 아, 할머니네 헐 땀 그렇게 땀.(아, 할머니네 할 때 그렇게 해서.)

112012 #1 경해도 중진도 엇어신디 우리 고모덜은이 중진 엇이 험젠 새서방침 일 어땡헌 집이넌 영 곁으로 강 다 울타리 둘러뵘 그때는 도새기 통시에 질렀거든. (그래도 중매도 엇었는데 우리 고모들은 중매 없이 한다고 새신랑집을 어떻게 한 집이냐고 이렇게 곁으로 가서 다 울타리 둘러뵘 그때는 돼지 돼지우리에 길렀거든.)

112012 @ 예.(예.)

112012 #1 도새기 풀 거 엇수와 행 새시방도 보러 가고 사돈 허는 행동도 보러 가곡 경해났어.(돼지 팔 거 없습니까 해서 새신랑도 보러 가고 사돈 하는 행동도 보러 가고 그렇게 했었어.)

112012 @ 아, 어떤 집인가 행 보래.(아, 어떤 집인가 해서 보러.)

112012 #1 응, 고모덜은. 우리 아버지덜은 다 아는 처지니까 하고.(응, 고모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다 아는 처니까 하고.)

112012 @ 응, 응.(응, 응.)

112012 #1 그디 가문, 그디 고몬 간 잘살안, 그디 동기간덜 간 못 살앗젠. 그런 가문, 그것이 가문이라. 고모덜토 간 몬 간 잘살아. 그디 죽은아방덜토 잘살아. 그디 죽은 아방덜토 못살아. 그디 동기간덜 새각시 성이나 오라방이라도 못살아 허는 그 곁 탐색허레 텅기는 거라, 고모덜은.(거기 가문, 거기 고모는 가서 잘살았어, 거기 형제간들은 가서 못 살았대. 그런 가문, 그것이 가문이야. 고모들도 가서 모두 가서 잘살아. 거기 작은아버지들도 잘살아. 거기 작은아버지들도 못살아. 거기 작은아버지들도 못살아. 거기 형제간들 새색시 형이나 오빠라도 못살아 하는 그 곁 탐색하러 다니는 거야, 고모들은.)

112012 @ 혼 동네난 다 알지 안허여?(한 동네니까 다 알지 않아?)

112012 #1 고모덜은 멀리 살았거든게. 여기서 신흥<sup>259)</sup>도 가고, 신훈<sup>260)</sup>도 잇고 이, 조천<sup>261)</sup>도 잇고 고모덜이. 오라방 아기 폭는디<sup>262)</sup> 고모덜이 뵘 간섭헐 거니만 은이.(고모들은 멀리 살았거든. 여기서 신흥도 가고, 신훈도 잇고, 조천도 잇고 고모

259) '신흥'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를 말한다.

260) '신훈'은 제주시 조천읍 신훈리를 말한다.

261) '조천'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를 말한다.

262) '아기 풀다'는 직역하면 '아기 팔다'라는 말이지만 '아기를 결혼시키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제주어다.

들이. 오빠 아기 파는데 고모들이 무슨 간섭할 거니만은.)

112012 @ 게메예.(그러게웁.)

112012 #1 이제 그뜨민 간섭 안 허지. 잔칫날 어느 날이우텐 허든 강 먹음뿐 만.(이제 같으면 간섭 안 하지. 잔칫날 어느 날이라고 하면 가서 먹기만.)

112012 @ 먹음만 허주예.(먹기만 하지요.)

112012 #1 경 간섭을 잘 했어. 우리 고모덜 경해났어. 우리 풀 때 우리 시집이 도새기 풀 거 이수과헨 간 그디 내용 다 알아완.(그렇게 간섭을 잘 했어. 우리 고모 들 그랬었어. 우리 팔 때 우리 시집에 돼지 파 거 있습니까 해서 가서 거기 내용 다 알아봤어.)

112012 @ 강 뵙 완. 탐색헨 완.(가서 봐서 왔어. 탐색해서 왔어.)

112012 #1 탐색을 헨 거라.(탐색을 한 거야.)

112012 @ 경 안 허민 보통은 중매 서는 사름, 중진.(그렇게 안 하면 보통은 중 매 서는 사름, 중매.)

112012 #1 중매허는 사름도.(중매하는 사람도.)

112012 @ 중진 허는 사름?(중매하는 사람?)

112012 #1 중진허는 사름 서도이 중진해도이 새각시 보나 새시방 보나이 그 집 이 내용을 알젠이 춤 곱사 식으로 술 풀 거 이수젠을 허든지 그디 내용 빠레 다 텅 겨났어. 이디서 저 서구폰이 잘 아니 풀젠 허여.(중매하는 사람 있어도 중매해도 새 색시 보나 새신랑 보나 그 집에 내용을 알려고 참 아까 식을 소를 팔 거 있냐고 하 든지 거기 내용을 빠레 다 다녔었어. 여기서 저 서귀포는 잘 안 팔려고 해.)

112012 @ 몰르난.(모르니까.)

112012 #1 몰름도 허고이 서구포더렌이 이 초상이 핫젠. 당 님은 디가 핫덴 행 이 정의당 모관당 허는 식으로이 사돈덜을 허젠 안해났어, 잘. 이젠 막 느나 헐 거 엇이.(모르기도 하고 서귀포쪽엔 이 초상이 많았대. 당 같은 데가 많았다고 해서 정 의당, 모관당 하는 식으로 사돈들을 하려고 안했었어, 잘. 이젠 막 너나 할 거 없 이.)

112012 @ 육지 메뉴리도 잇고 무신 웨국 메뉴리도 이신디 무신?(육지 며느리도 잇고 무슨 외국 며느리도 있는데 무슨?)

112012 #1 이젠 그거 엇어불엇지. 우리 시집가기 전이도 그런 걸 막 구별헸어. 정의 초상 돌아다뵈어 어떻 허젠 허명. 그디 새각시 허민 이디 들랑 온덴 허여, 그디 초상이.(이젠 그거 없어버렸지. 우리 시집가기 전에도 그런 걸 막 구별헸어. 정의 초상 데려다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거기 새색시 하면 여기 따라 온다고 해, 거 기 초상이.)

112012 @ 그디 초상이, 아, 뽕 같은 거마씨?(거기 초상이, 아, 뽕 같은 거요?)

112012 #1 응. 들랑 온덴 허여. 저디 사돈을 허젠 안허여. 그자 이 북군 관례에 서만, 그런 엇인디, 경헌디 이디도.(응. 따라 온다고 해. 저기 사돈을 하려고 안 해. 그저 이 북군 관할에서만, 그런 없는데, 그런데 여기도.)

112012 @ 무사 이디 김녕도.(왜 여기 김녕도.)

112012 #1 김녕도 돛당 잇고, 덕천도 돛당 잇고 경허여.(김녕도 ‘돛당’ 잇고, 덕천 ‘돛당’ 잇고 그렇게 해.)

112012 @ 김녕 사람이영은 잘 결혼 안 허젠 허여?(김녕 사람이랑은 잘 결혼 안 하려고 해?)

112012 #1 아, 그거는 글로 그레는 이 북군 관례는 그런 거 엇고.(아, 그거는 그리로 그리는 이 북군 관할은 그런 거 없고.)

112012 @ 어떻 안 허고?(어떻게 안 하고?)

112012 #1 저 남군 새각시 헤 오젠 허민 그런 일이 잇더라고.(저 남군 새색시 해오려고 하면 그런 일이 잇더라고.)

112012 @ 응.(응.)

112012 #1 이제는 엇어. 이제 경 골앗당 뺨이나 맞아.(이제는 없어. 이제 그렇게 말했다가 뺨이나 맞아.)

112013 @ 하하하. 막펜진<sup>263</sup> 무신거파?(하하하. ‘막펜지’는 뭡니까?)

112013 #1 응?(응?)

112013 @ 막펜지.(‘막펜지’.)

112013 #1 막펜지가 뭘고? 들어나지 안헌디.(‘막펜지’가 뭘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112013 @ 결혼허기 전이.(결혼하기 전에.)

112013 #1 문우장<sup>264</sup>?(‘문우장’?)

112013 @ 결혼하기 전에 무슨 생년월일 써진 거예.(결혼하기 전에 무슨 생년월일 쓰여 있는 거요.)

112013 #1 이디 새각시칩이 앓아오는 거?(여기 새색시집에 가져오는 거?)

112013 @ 응.(응.)

112013 #1 문우장.(‘문우장’.)

112013 @ 무슨 장?(무슨 장?)

112013 #1 문우장.(‘문우장’.)

112013 @ 문우장? 그건 어떤.(‘문우장’? 그건 어떤.)

112013 #1 그디 아버지 이름도 놓고 신랑 새각시 이름도 다 놓고 행이 그 집이 딸을 강 사오는이 증거를 이디 앓다줘. 이 새각시칩이.(거기 아버지 이름도 놓고 신랑 새색시 이름도 다 놓고 해서 그 집에 딸을 가서 사오는 증거를 여기 갖다 줘. 이 새색시 집에.)

112013 @ 아.(아.)

112013 #1 것이 증거렌.(그것이 증거라고.)

112013 @ 그게 문우장?(그게 ‘문우장’?)

263)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측에서 정식으로 신부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다. 혼인의 성사를 알리는 내용이 적혀 있다

264) ‘문우장’은 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로 혼서를 말하는 듯하다.

112013 #1 응. 돈 쥘 사가는 거라. 이 집이 새각시를 그 식이라 이것이야.(응. 돈 쥘서 사가는 거야. 이 집에 새색시를 그 식이야 이것이야.)

112013 @ 계민 돈도 쥘, 새각시 집이?(그러면 돈도 쥘, 새색시 집에?)

112013 #1 아닌디, 그 문우장이 증거.(아닌데, 그 ‘문우장’이 증거.)

112013 @ 아, 증거. 문우장 가불민 이제 결혼식은 안 해도 그 집이 메누리가 돼 부는 거라?(아, 증거. ‘문우장’ 가버리면 이제 결혼식은 안 해도 그 집에 며느리가 돼버리는 거야?)

112013 #1 완전 쥘 거지. 이제 약혼해 불민 그 집이 사름 쥘는 식으로 경헌디 이제 약혼만 해불민 그 집이 사름이라.(완전 쥘 거지. 이제 약혼해 버리면 그 집의 사람이 되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약혼만 해버리면 그 집의 사람이야.)

112013 @ 이 문우장 주는 게 약혼하는 거파?(이 ‘문우장’ 주는 게 약혼하는 겁니까?)

112013 #1 문우장이 잔칫날사 앓아와.(‘문우장’이 잔칫날이야 가져와.)

112013 @ 아, 잔칫날 앓아와?(아, 잔칫날 가져와?)

112013 #1 응, 날짜 본 거 말고 날짜 본 거 따로. 날짜 본 거는 미릿 앓다쥘 부난.(응, 날짜 본 거 말고 날짜 본 거 따로. 날짜 본 거는 미리 가져다쥘 버리니까.)

112013 @ 날짜 본 거 미리 앓다 주는 건 뭐라?(날짜 본 거 미리 가져다 주는 건 뭐야?)

112013 #1 몰라. 거는 몰라. 거는 문서 앓다쥘 거난 날짜만 쥘 거난 간단허지. 이 문우장에는 어멍 아방 다 놓고 다혜영 제라허게 쥘근앵에 박사신디 강 쥘당 새각시 집이 앓아와. 잔칫날에 우선 흥세.(몰라. 그거는 몰라. 그거는 문서 가져다쥘 거니까 날짜만 쥘 거니까 간단하지. 이 ‘문우장’에는 어머니 아버지 다 놓고 다해서 제대로 쥘서 박사에게 가서 쥘다가 새색시 집에 가져와. 잔칫날에 우선 혼서.)

112013 @ 예, 흥세.(예, 혼서.)

112013 #1 흥세에 이거 문우장 논 것이 흥세라.(혼서에 이거 ‘문우장’ 놓은 거이 혼서야.)

112013 @ 아.(아.)

112013 #1 경허민 이걸 막 크게 혜영 저 웨상 크게 혜영근앵에 벌경헌 것에 영쥘은 거 영 이 새각시 집이 영행 막 문전상 출려낭 받아. 경행 영 상 받아근에 걸 믱사다 낭 그것이 쥘, 그건.(그러면 이걸 막 크게 해서 저 외상 크게 해서 벌건 것에 이렇게 쥘은 거랑 이 새색시 집에 이렇게 해서 막 문전상 차려놔서 받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 받아서 그걸 모셔다 놔서 그것이 쥘, 그건.)

112013 @ 그게 그거? 막 잘못 쥘민 다시 쥘렌 허고 막 허는 거?(그게 그거? 막 잘못 쥘면 다시 쥘라고 하고 막 하는 거?)

112013 #1 쥘 허는디 어느 정도민 그 사돈 물려질 거 아닌디 그냥 무마시쥘 내불지.(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면 그 사돈 물려질 거 아닌데 그냥 무마시켜서 내버리지.)

112013 @ 아, 그게 문우장.(아, 그게 ‘문우장’.)

112013 #1 알아 온 집이 가문은이 그걸 꼭 따져. 그 문우장을 익어봐.(알아 온 집에 가면 그걸 꼭 따져. 그 ‘문우장’을 읽어봐.)

112013 @ 경허는 집 이서낫젠 허명.(그렇게 하는 집 있었다고 하면서.)

112013 #1 정 있어. 겐디 우리 동네도 이서. 연날 아니라도 이런 일은 있었어.(그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 동네도 있어. 옛날 아니라도 이런 일은 있었어.)

112014 @ 게민 이버지는 어떻게?(그러면 이바지는 어떻게?)

112014 #1 옛날이 우리 시집가기 전에 우리 언니네도 이버질 받아났어. 새시방 집이서이 듯 혼 마리허고 계란 오십 개허고 술 혼 춘이 아니고 허백.(옛날 우리 시집가기 전에 우리 언니네도 이바지를 받았었어. 새신랑 집에서 돼지 한 마리하고 계란 오십 개하고 술 한 ‘춘이’ 아니고 허백.)

112014 @ 아, 혼 허백?(아, 한 허백?)

112014 #1 혼 허백 오는 것이.(한 허백 오는 것이.)

112014 @ 그게 이버지?(그게 이바지?)

112014 #1 이버지 받는 거.(이바지 받는 거.)

112014 @ 아, 거 잔치할 때 쓰렌 주는 건가?(아, 그거 잔치할 때 쓰라고 주는 건가?)

112014 #1 경허는 거라 아멩헤도. 것이 이버지. 골아가난 다 골아접시네. 이버지도 생각도 안 낫져.(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래도. 그것이 이바지. 말해가니까 다 말해지네. 이바지도 생각도 안 낫어.)

112014 @ 신랑칩이서 신부칩이 주는 거라예.(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주는 거예요.)

112014 #1 응, 신랑칩이서.(응, 신랑 집에서.)

112014 @ 이제 돈 주는 거추룩예? 이젠 돈으로 막 천만 원이여, 이천만 원이여.(이제 돈 주는 거처럼요? 이젠 돈으로 막 천만 원이다, 이천만 원이다.)

112014 #1 그거라.(그거야.)

112014 @ 게난 그거추룩.(그러니까 그거처럼.)

112014 #1 그거 주민 새각시가 침 새시방칩이 선물허젠 허민 선물허고 다 허는 건디. 건 이젠 먹을 것사 다 앓아오는 목산디. 듯 혼 마리허고.(그거 주면 새색시가 참 새신랑 집에 선물하려고 하면 선물하고 다 하는 건데. 그건 이젠 먹을 것이야 다 가져오는 뭇인지. 돼지 한 마리하고.)

112014 @ 계란 오십 개허고.(계란 오십 개하고.)

112014 #1 계란 오십 개는 건 나는 대로 앓아와. 건 나 곤는 대로 곤는 거주. 술 혼 허베기허고 앓아와.(계란 오십 개는 그건 나는 대로 가져와. 그건 나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지. 술 한 허백하고 가져와.)

112014 @ 그거 받으민 새각시도 새시방칩이 뭐 줘사 돼여?(그거 받으면 새색시도 새신랑 집에 뭐 줘야 돼?)

112014 #1 그런 건 있어. 이버지 받아, 이버지 받아. 걸 낚 이버지 받아, 받아 허는 거라. 아무 것도 아닌 건디.(그런 건 없어. 이바지 받아, 이바지 받아. 그걸 놔서 이바지 받아, 받아 하는 거야.)

112014 @ 건 언제 쫘에 가져오는 거파?(그건 언제 쫘에 오는 겁니까?)

112014 #1 잔치 웨어가민 까까와 가민 앓아와.(잔치 웨어가면 가까워 가면 가져와.)

112015 @ 잔치 가까와 가민. 게문 새각시가 새서방칩이 갈 때는 무신거 이불이 영 무신거 무신거 행 가?(잔치 가까워 가면. 그러면 새색시가 새신랑 집에 갈 때는 무엇 이불이랑 무엇 무엇 해서 가?)

112015 #1 이불하고. 옛날엔 이불도 못행 갖젠 헤여. 우리 언니네 갈 때도 이불 두 개하고 요 하나하고 베개하고 꿰 그거 하나하고 정대엔 허영이 거울이. 그거허 곡 행 갖지.(이불하고. 옛날엔 이불도 못해서 갔다고 해. 우리 언니네 갈 때도 이불 두 개하고 요 하나하고 베개하고 꿰 그거 하나하고 경대라고 해서 거울. 그거하고 해서 갔지.)

112015 @ 아.(아.)

112015 #1 또 요강.(또 요강.)

112015 @ 응. 요강은 맞아, 요강은 꼭 가져간텐 헤라.(응. 요강은 맞아, 요강은 꼭 가져간다고 하더라.)

112015 #1 요강허고 요광 속에 불곽 놓고이.(요강하고 요광 속에 성냥 놓고.)

112015 @ 아, 요강 속에?(아, 요강 속에?)

112015 #1 성냥, 성냥. 그거 놓곡 세수허는 셋다리, 셋사리. 세수허는 거.(성냥, 성냥. 그거 놓고 세수하는 세숫대야, 세숫대야. 세수하는 거.)

112015 @ 응, 응.(응, 응.)

112015 #1 그거 영 단지 놓곡 불곽 놓곡 행 그 가메 속에 낚 가.(그거 이렇게 단지 놓고 성냥 놓고 해서 그 가마 속에 놔서 가.)

112015 @ 어. 언니네 헐 때 경헤낫수과?(어. 언니네 할 때 그랬었습니까?)

112015 #1 응.(응.)

112015 @ 막 잘 출령 갖저 허민 무신거.(막 잘 차려서 갔다 하면 무엇.)

112015 #1 그것이 보통이라. 잘 출리고 못 출릴 것도 있어. 그걸 못행 가는 디가 하.(그것이 보통이야. 잘 차리고 못 차릴 것도 없어. 그걸 못해서 가는 데가 많아.)

112015 @ 못허민 최소한 무신건 헤야 돼? 이불허고.(못하면 최소한 무엇이든 헤야 돼? 이불하고.)

112015 #1 이불이라도 행 가야 텔 건디 것도 못.(이불이라도 해서 가야 될 건데 그것도 못.)

112015 @ 아뻤 못해도 이불은 행 갖추예, 혼 채는예.(아무리 못해도 이불은 해서 갖지요, 혼 채는요.)

112015 #1 두 채 못해도 혼 채는 행 가야 될 건디게, 그게 그거지.(두 채는 못해도 한 채는 해서 가야 될 건데, 그게 그거지.)

112015 @ 끌레이볼도 해놔던 헨게만은.(누비이볼도 했었다고 하던데.)

112015 #1 끌레이볼, 끌레이볼도 허여사 늦인, 늦어사덜 허긴 헛지. 옛날에는 끌레이볼이 어디 서게? 잇기사 잇엇지. 이녀 집이 더끄는 끌레이볼이나 멧진 거 잇지. 우리 집이도 끌레이볼 멧진 거 서. 요만씩 누벼정 쪽 누벼진 거.(누비이볼, 누비이볼도 해야 늦은, 늦어야들 하긴 헛지. 옛날에는 누비이볼이 어디 있어? 잇기야 잇지. 자기 집에 덮을 누비이볼이나 멧잇는 거 잇지. 우리 집에도 누비이볼 멧잇는 거 있어.)

112015 @ 응.(응.)

112015 #1 곱게 누벼진 거주만은.(곱게 누벼진 거지만.)

112015 @ 건 더프는 거지예?(그건 덮는 거지요?)

112015 #1 여름에.(여름에.)

112015 @ 여름에 더프는 거?(여름에 덮는 거?)

112015 #1 여름에 더프는 거. 몸에 가민 스락스락해. 너무 줌질이 누벼노니까. 몸에 안 붙으니까 스락스락.(여름에 덮는 거. 몸에 가면 사락사락해. 너무 자잘하게 누벼놓으니까. 몸에 안 붙으니까 사락사락.)

112015 @ 아. 건 미녕으로 허는 거짜, 아니민 광목?(아. 그건 무명으로 하는 겁니까, 아미면 광목?)

112015 #1 그땐 광목이 아니고이 그거 이름이 청목이엔 허더라고.(그땐 광목이 아니고 그거 이름이 청목이라고 하더라고.)

112015 @ 청목?(청목?)

112015 #1 응, 청목 기지로 멘들앗덴. 이제 잉크색 비스름허게시리 허영, 색으로 허영, 빨간 걸로 영 짓 놓곡.(응, 청목 천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잉크색으로 비스름하게끔 해서, 색으로 해서, 빨간 걸로 이렇게 짓 놓고.)

112015 @ 응.(응.)

112015 #1 해근엥에 막 누벼. 그것이 끌레이볼.(해서 막 누벼. 그것이 누비이볼.)

112015 @ 아, 그른 방식도 행 갑니까?(아, 그러면 방식도 해서 갑니까?)

112015 #1 방식 행 가는 딴 해 가낫지. 우리 갈 때는 방식 다 가서, 우리도.(방식 해서 가는 덴 해서 갔엇지. 우리 갈 때는 방식 다 갔어, 우리도.)

112015 @ 아, 할머니 할 때는? 옛날에 혹시 베개를 뭐 긴 베개 행은에 가낫저 허는 말도 헨 게만은 그런 말은 안 들어보디가?(아, 할머니 할 때는? 옛날에 혹시 베개를 뭐 긴 베개 해서 갔었다 하는 말도 하던데 그런 말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112015 #1 베개 이만큼헌 거 행 가. 우린 안 행 가낫어. 이만이헌 베개가 이서.(베개 이만큼 한 거 해서 가. 우린 안 해서 갔엇어. 이만큼 한 베개가 있어.)

112015 @ 거난 긴 거예? 그거 무신거짜?(그러니까 긴 거요? 그거 뭇니까?)

112015 #1 무신 베개, 베개엔만 헤여. 거 둘이사 베렌 경 베겔 헤신디사.(무슨 베개, 베개라고만 해. 그거 둘이야 베라고 그렇게 베겔 했는지야.)

112015 @ 둘이 ㄴ치 베렌 허는 건가?(둘이 같이 베라고 하는 건가?)

112015 #1 그 식으로 헤신테주. 질게 헤여. 모물채 담곡 허영.(그 식으로 했겠지. 길게 해. 메밀채 담고 해서.)

112015 @ 건 옛날에 할머니 언니네나 뭐 누게 동네사름 허는 거 봐났수과?(그 건 옛날에 할머니 언니네나 뭐 누구 동네 사람 하는 거 봤었습니까?)

112015 #1 아니, 아니. 집이 멘들아당 베는 거 봐났어. 베는 거.(아니, 아니. 집에 만들어다가 베는 거 봤었어. 베는 거.)

112015 @ 아, 집에 이신 거. 그른 할머니네 어머니가 시집올 때 행 온 건가?(아, 집에 있는 거. 그러면 할머니네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서 온 건가?)

112015 #1 헤영 오곡 만들곡 멘들민 돼곡 모물겹데기 담으민 돼는 거난.(해서 오고 만들고 만들면 되고 메밀겹데기 담으면 되는 거니까.)

112015 @ 모물채예. 베개 그거 헸나 허젠 허민 모물채 열만이 들어가는고?(메밀겨요. 베개 그거 하나 하려고 하면 메밀겨는 열만큼 들어가는가?)

112015 #1 베개에 매지, 찰리에 매주, 것사. 헸 말 더 들어. 거 막 그 마께 닳은 거 행 꺽꺽 찢르멍 누워가민 빨아져 불민.(베개에 따르지, 자루에 따르지, 그거야. 한 말 더 들어. 그거 막 그 방망이 같은 거 해서 꺽꺽 찢르면서 누워가면 줄어들어 버리면.)

112015 @ 까진텐?(꺼진다고?)

112015 #1 납작헸 거난 그냥 막 그냥 마께로 그냥 막 징곡 일로도 징곡 허멍 꼭 담앙 놔두민 정해도 부러져. 브사, 더워가민 ㄴ루도 돼어불곡 허민.(납작할 거니까 그냥 방망이로 그냥 막 찢고 이리로 찢고 하면서 꼭 담아서 놔두면 그래도 부러져. 부서져, 더워가면 가루도 되어버리고 하면.)

112015 @ 응.(응.)

112015 #1 갱 듯해 썸은 깔아가민 납작해 불민 헸쫌 요자기, 대체로이 그 아래 ㄴ루쳐똥 또 새 모물채 그레 또 담아줘.(그래서 뒷해 썸은 깔아가면 납작해 버리면 조금 요마적, 대체로 그 아래 가루쳐두고 또 새 메밀겨 그리 또 담아줘.)

112015 @ 아.(아.)

112015 #1 정해나믄 듯해는 막 버물어가민 또이 모물채가 엇어부난 허지 그때는 하서. 이제는 어루와도이 물에 씻어. 땀내 나, 베개에 땀내 나난.(그렇게 하고 나면 뒷해는 막 더러워져 가면 또 메밀겨가 없어버리니까 하지 그때는 많아. 이제는 어려워도 물에 씻어. 땀 냄새 나, 베개에 땀 냄새 나니까.)

112015 @ 아.(아.)

112015 #1 씻영 파썩 물렁 또 담아 주곡 헤난.(씻어서 바싹 말려서 또 담아 주고 하니까.)

112015 @ 모물채 베개가 좋은 거 닳아예.(메밀겨 베개가 좋은 같아요.)



112015 #1 좋아.(좋아.)

112015 @ 이젠 다 숨으로들 해도예.(이젠 다 숨으로들 해도요.)

112015 #1 누민 이디 건 벽석, 누민 벽석 난 안 좋아.(누우면 여기 건 ‘벽석’, 누우면 ‘벽석’ 난 안 좋아.)

112015 @ 아멩해도 모들채 베개가 좋아.(아무래도 메밀 겨 베개가 좋아.)

112015 #1 모들채 베개 서너 개 이서, 우리 집이도 이디도.(메밀겨 베개 서너 개 있어, 우리 집에도 여기도.)

112015 @ 응.(응.)

112015 #1 옛날 우리 시집가고 우리 아이덜 풀 때깃지도 메밀 껌데기 헨에 걸 푸는 것이 이서.(옛날 우리 시집가고 우리 아이들 팔 때까지도 메밀 껌데기 해서 그 걸 푸는 것이 있어.)

112015 @ 모들채로.(메밀겨로.)

112015 #1 이제는 벨 거 다 이서도 이제는 숨 닳은 거 놔볼민 베개 닳지도 안 해, 뉘당 보민 멜씩 까져불고.(이제는 벨 거 다 있어도 이제는 숨 닳은 거 놔버리면 베개 닳지도 않아, 누웠다가 보민 ‘멜씩’ 까져버리고.)

112016 @ 아까 그 문우장 가정 아침이 들어오민 올 땐 어떻 해?(아까 그 ‘문우장’ 가져서 아침에 들어오면 올 땐 어떻게 해?)

112016 #1 문우장. 새시방이 저 올레 세와팅이, 느 알카? 느람지 낄아.(‘문우장’. 새신랑이 저 ‘올레’ 세워두고. 그 이영 알카? 이영 낄아.)

112016 @ 응.(응.)

112016 #1 이것이 대문이민 저 먼문간에서 이깃지 느람질 낄아.(이것이 대문이민 저 먼문간에서 여기까지 이영을 낄아.)

112016 @ 응.(응.)

112016 #1 새시방이 저디 문우장 ㄱ정은 사름도 친족이나 스촌썸은 벨 거라이. 그걸 영 막 공순허게 ㄱ상와.(새신랑이 저기 ‘문우장’ 가져온 사람도 친척이나 사촌 썸은 될 거야. 그걸 영 막 공순하게 모셔와.)

112016 @ 흥세함?(혼서함?)

112016 #1 흥세함을. 문우장 담은 거를. ㄱ상오민 이디 이쪽에서 새색시집이서 들어오렌 허는 신호가 이서이.(함을. ‘문우장’ 담은 거를. 모셔오면 여기 이쪽에서 새색시집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

112016 @ 응.(응.)

112016 #1 손으로 영 허민 츄츄츄츄 이 무똥깃지 들어왕 요디 왕 탁 사. 요레 왕 사면은 요기는 상을 출려, 도새기 머리 놓고, 무시거헤 낵 출려낵 이시민. 이쪽에서 문우장 받아낵 곱게 상 우이서 깡 거 어떻어뎡 쓴 걸 익어보는 거라. 쟁 어떻 페라운 거썸은 어느 정도로 누르뎡 무안허게시리 그걸 까는 사름은 까.(손으로 이렇게 하면 차차차차. 이 ‘무똥’까지 들어와서 요기 와서 탁 서. 요리 와서 서면은 요기는 상을 차려, 돼지 머리 놓고, 뉘해 놔서 차려놔서 있으면. 이쪽에서 ‘문우장’ 받아

놔서 곱게 서서 위에서 까서 그거 어떻게 어떻게 쓴 걸 읽어보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까다로운 거쯤은 어느 정도로 눌러서 무안하게끔 그걸 까는 사람은 까.)

112016 @ 예.(예.)

112016 #1 그것이 그거 들었 이 팽풍도 이디 걷어볼고 다 해볼민 새시방.(그것이 그거 들어서 이 팽풍도 여기 걷어버리고 다 해버리면 새신랑.)

112016 @ 그때야 들어오는 거?(그때야 들어오는 거?)

112016 #1 들어오는 거.(들어오는 거.)

112017 @ 가문잔치할 때는 누게누게 영 집에 오는 거짜?(가문잔치할 때는 누구 누구 이렇게 집에 오는 겁니까?)

112017 #1 건 동네 사름도 오고 혼 엇어. 집안 사름 엇어도 돼고 집안 사름 서도 돼고 동네 사름덜 막 잔치덜 출리당 앓앙 가문잔치 먹으레 가켄 행 동네 사름덜 토.(그건 동네 사람도 오고 한 없어. 집안 사람 없어도 되고 집안 사람 있어도 되고 동네 사람들 막 잔치들 차리다가 앓아서 가문잔치 먹으러 가자고 해서 동네 사람들 도.)

112017 @ 게민 주로 돛 솜은 걸로.(그러면 주로 돼지 삶은 걸로.)

112017 #1 응, 도새기 배설로 그냥 어땡어땡 해. 아무것도 아닌 걸 가문잔치 먹으레 가켄행덜.(응, 돼지 창자로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문잔치 먹으러 가자고 해서들.)

112017 @ 응. 이젠 잔치 전날 먹는 날이 가문잔치로 헨에 이젠예 다들예.(응. 이젠 자니 전날 먹는 날이 가문잔치로 해서 이젠요 다들요.)

112017 #1 가문잔치도 엇고 이름도 엇고 전날 먹는 거다 행 설러부럼주, 이제사 무신. 가문잔치여 무신 힌 잔치여 험서, 그냥 험주, 이제사.(가문잔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전날 먹는 거다 해서 그만뒀 버리고 있지, 이제야 무슨. 가문잔치다 무슨 흰 잔치다 하고 있니, 그냥 하지, 이제야.)

112017 @ 하하하, 흰 잔치.(하하하, 흰 잔치.)

112017 #1 가문잔치여 검은 잔치여 헐 필요 엇지, 이제는.(가문잔치다 검은 잔치다 할 필요 없지, 이제는.)

112018 @ 하하하. 우시는 누게 어뜬 사름이 가는 거짜?(하하하. 위요는 누가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112018 #1 우시도 막 굴렁 가이. 홀아방도 안 가곡이 어느 정도 살만이 사는 사름.(위요도 막 가려서 가. 홀아비도 안 가고 어느 정도 살 만큼 사는 사름.)

112018 @ 응.(응.)

112018 #1 여자 쪽에서는 임신 웬 사름 새각시 우시로 보내도 안허여.(여자 쪽에서는 임신한 사람 새색시 위요로 보내지도 않아.)

112018 @ 아.(아.)

112018 #1 거 아기에사 탈이 신 건지 어땡산디 임신웬 사름 우실 안 보내. 겐디 우리 시집갈 때 스촌 동세가이 임신웬 와신디 애기 난도 죽어볼엇텐 허여.(그거 아

기에야 탈이 있는 건지 어떻게 임신한 사람 위요를 안 보내. 그런데 우리 시집갈 때 사촌 동서가 임신해서 왔는데 아기 낳아서도 죽어버렸다고 해.)

112018 @ 아.(아.)

112018 #1 경허난 임신헌 사름 우실 안 간덴, 이거 나 생각으로 곤는 말이라, 거는.(그러니까 임신한 사람 위요를 안 간다고, 이거 나 생각으로 하는 말이야, 그 거는.)

112018 @ 응.(응.)

112018 #1 나영 동갑이고 현디 우잇동서가 이서, 셋아방 메누리가.(나랑 동갑이고 한테 위의 동서가 있어, 둘째아버지 며느리가.)

112018 @ 응.(응.)

112018 #1 젠디 우시 와나신디 그 애기 난 혼 일곱 술쫘 나난 엇어불언.(그런데 위요 왔었는데 그 아기 낳은 한 일곱 살쫘 낳으니까 없어버렸어.)

112018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12018 #1 경허난 정혜부난 이제 나.(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나.)

112018 @ 생각으로. 응.(생각으로. 응.)

112018 #1 생각으로. 정허난 애기 벤 사름 우실 안 보낸 건가 헐.(생각으로. 그러니까 아기 벤 사람 위요를 안 보낸 건가 해서.)

112018 @ 아.(아.)

112018 #1 저쪽에나 이쪽에나 가근헌 켤당으로 어느 정도로 사는 사름으로 짝 글른 사름은 아니고 짝 맞은 사름으로 보내어. 우리도이 시집간 후에 아기 다 나도 이 우리 친구네 애기들을 풀쟁 허난 나가 어느 정도로 그만 허민 살도 못 살도 안 헌 쟁인ㄴ라이. 새각시 이불을 허쟁 허믄이 아이고 느가 와근앵이 이불 숨 놔도라. (저쪽에나 이쪽에나 가굼나 권당으로 어느 정도로 사는 사름으로 짝 없는 사름은 아니고 짝 맞은 사름으로 보내. 우리도 시집간 후에 아기 다 낳아도 우리 친구네 애기들은 팔려고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그만 살면 살지도 못 살지도 았은 모양이야. 새색시 이불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네가 와서 이불 숨 놔 달라.)

112018 @ 응.(응.)

112018 #1 숨을 놔사 이불 끼울 거난 느가 왕 숨 놓라, 숨 놓라, 멧 밧되 강 숨 은 놔놋어, 나.(숨을 놔야 이불 끼울 거니까 네가 와서 숨 놓아라, 숨 놓아라, 멧 군데 가서 숨은 놔졌어, 나.)

112018 @ 아, 새각시 이불힐 때. 그때도 저 잘사, 결혼행 잘사는 사름.(아, 새색시 이불힐 때. 그때도 저 잘사, 결혼해서 잘사는 사람.)

112018 #1 건 새각시 어멍 생각이지. 골류왕 허젠, 경해도 그 딸이 죽어불드라고.(그건 새색시 어머니 생각이지. 가려서 하려고, 그래도 그 딸이 죽어버리더라고.)

112018 @ 아이고.(아이고.)

112018 #1 살단 아기영 막 나고 해도 어멍보다 먼저 죽어불언.(살다가 아기랑 막 낳고 해도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112018 @ 아이고, 아이고. 계난 아까 우시는 몇 명쯤 가는 거파?(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위요는 몇 명쯤 가는 겁니까?)

112018 #1 새각시 우시 두 개, 새시방 우시 두 개. 그에 들랑 올 사름은 들랑 오고. 경 안헌 사름은 말고.(새색시 위요 두 명, 새신랑 위요 두 명. 그에 따라서 올 사름은 따라서 오고. 그렇게 안 한 사름은 말고.)

112018 @ 응.(응.)

112018 #1 우시 오젠 허민 네 갠 와. 새시방 펜이 성펜, 웨펜 허민이 웨펜도 가고 허경 보내어. 웨펜도 가곡 성펜도 가곡 두 개씩.(위요 오려고 하면 네 명이 와. 새신랑 편에 성편, 외편 하면 외편도 가고 섞어서 보내. 외편도 가고 성편도 가고 두 개씩.)

112018 @ 여자도.(여자도.)

112018 #1 여자도 그렇고. 응?(여자도 그렇고. 응?)

112018 @ 남자 여자 다 가?(남자 여자 다 가?)

112018 #1 남저 펜이서도이 남저 두 개, 여저 두 개 허민 웨펜 성펜 이쪽에서도 경해여. 여저쪽에서도.(남자 편에서도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하면 외편, 성편 이쪽에서도 그렇게 해.)

112018 @ 응. 할머니도 우시 가냇주예?(응. 할머니도 위요 갔었지요?)

112018 #1 잘 텅겨났어, 나.(잘 다녔었어, 나.)

112018 @ 할머니네 게 아이덜도 잘 크곡게 할아버지도 허고 허난 글렌 해실 거 답아예.(할머니네 그러게 아이들도 잘 크고 할아버진 하고 하니까 가자고 했을 거 같아요.)

112018 #1 집안에 우시도 잘 가고 동기간 팔 때도 잘 가오고. 옛날 어두운 때난 멍청허게시리 다 헌 거주게.(집안에 위요도 잘 가고 형제간 팔 때도 잘 갔다오고. 옛날 어두운 때니까 멍청하게끔 다 한 거지.)

112018 @ 무사게. 우시 가민 맛좋은 것도 먹고 허는 거 아니?(왜. 위요 가면 맛 좋은 것도 먹고 하는 거 아니?)

112018 #1 누게 말적 아니라도 득새기도 먹곡 곤밥도 먹곡. 그뻔.(누가 말한 거 아니라도 돼지도 먹고 흰밥도 먹고. 그뻔.)

112018 @ 한복 입영 가야 돼지 안해?(한복 입어서 가야 되지 않아?)

112018 #1 응.(응.)

112019 @ 대반은 무신거마씨, 대반?(대반은 무엇이에요, 대반?)

112019 #1 새각시 저디 앓지면은이 우리가 새각시 대반상 출리라 출리라 허는 거는 우시 조름에 가는 것이 대반상. 우시 조름에 간 사름덜 상 놓는 것이 대반상 이라.(새색시 저기 앓으면 우리가 새색시 대반상 차리라, 차리라 하는 거는 위요 뒤에 가는 것이 대반상. 위요 뒤에 간 사름들 상 놓는 것이 대반상이야.)

112019 @ 우시 조름에 간 사름들은.(위요 뒤에 간 사름들은.)

112019 #1 새각시 조름에 이쪽에나 새시방 쪽에서 놓면 대반상 출령 저레 들어

가라 이녀 친척덜이라도 이디 앓인 건 다 친척이라. 우시 온 사름 어디 보낸 거 몰라. 새색시 조꼳디 앓이나 새시방 조꼳디 앓인 거 이녀 친척에서 웃대 우이 웬 사름.(새색시 뒤에 이쪽에나 새신랑 쪽에서 놓으면 대반상 차려서 저리 들어가라 자기 친척이라도 여기 앓은 건 다 친척이야. 위요 온 사름 어디 보낸 거 몰라. 새색시 곁에 앓으나 새신랑 곁에 앓은 거 자기 친척에서 웃대 위에 된 사름.)

112019 @ 그 사름이 대반 계민?(그 사름이 대바 그러면?)

112019 #1 응, 것이 대반상. 우잇 어른으로.(응, 그것이 대반상. 위의 어른으로.)

112019 @ 나이, 웃어른이 앓이는 거마써? 새각시 옆이?(나이, 웃어른이 앓는 거예요?)

112019 #1 응.(응.)

112019 @ 아, 그계 대반?(아, 그계 대반?)

112019 #1 응, 것이 대반상. 그때 당시 우시는 어디 뜯 방사 출런 앓져붙어신디 예편이고 남저고 이딜 앓저. 새각시 조름에, 새시방 조름에덜. 대반상, 대반상 집안에 사름 대반 앓정 대반상 출령. 그것이 대반상.(응, 그것이 대반상. 그때 당시 위요는 어디 다른 방에야 차려서 앓혀버렸는지 여편네고 남자고 여길 앓혀. 새색시 뒤에, 새신랑 뒤에들. 대반상, 대반상 집안에 사름 대반 앓혀서 대반상 차려서. 그것이 대반상.)

112019 @ 새시방 대반도 잇고 새각시 대반도 이신 거라?(새신랑 대반도 잇고 새색시 대반도 잇는 거야?)

112019 #1 건 지네 집안에 따라 헐 테지. 아메도 이서.(그건 자기네 집안에 따라 할 테지. 아무래도 있어.)

112019 @ 계난 만약에 할머니가 이 집이 시집왔잖아. 그믄 새각시가 들어왔어, 집이 왕 앓이민 할머니 조꼳되는 누계가 왕 앓이는 거라?(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이 집에 시집왔잖아. 그러면 새색시가 들어왔어, 집에 와서 앓으면 할머니 곁에는 누가 와성 앓는 거야?)

112019 #1 누젠지 몰라. 할망은 할망인디.(누군지 몰라. 할머니는 할머니데.)

112019 @ 이 집이 할망 아니? 할머니.(이 집의 할머니 아니? 할머니.)

112019 #1 아니, 집안에 할망이지. 나가 집안에 어떻 알아? 그자 이디 할망이 앓아신가, 웃어른이 앓아신가 헛지. 계민 이 구들에 숨뺄 웃어른덜 앓아 가.(아니, 집안에 할머니지. 내가 집안을 어떻게 알아? 그저 여기 할머니 앓았나, 웃어른 앓았나 헛지. 그러면 이 구들에 가득 웃어른들 앓아 가.)

112019 @ 응.(응.)

112019 #1 앓일 이 엇이민 그냥 손지덜토 왕 앓곡 영 헤가주.(앓을 이 없으면 그냥 손자들도 와서 앓고 이렇게 헤가지.)

112019 @ 그믄 대반은 혼 사름이 아니고 여러 사름이파?(그러면 대반은 한 사름이 아니고 여러 사름입니까?)

112019 #1 응, 그디 앓이민 대반. 그디 갓젠 다 먹을 수도 엇고 다 맛쁘게 날라

가. 대반상 몇 상 chili라 영행.(응, 거기 앉으면 대반. 거기 갔다고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같게 날라 가. 대반상 몇 상 차려라 이렇게 해서.)

112019 @ 아, 몇 상 chili라 영 해? 계민 중방<sup>265</sup>이엔 현 건 무신거봐?(아, 몇 상 차려라 이렇게 해? 그러면 중방이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112019 #1 중방이엔 현 거 굿사게 이 저 홍세 들른 사름이. 영 들어오는.(중방이라고 한 거 아까 이 저 혼서 든 사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112019 @ 들어웁센 허는 거?(들어오라고 하는 거?)

112019 #1 것이 새시방 영 오렌 허는 것도 중방, 이 무시것고 홍세 앗앙 온 사름도 영 허는 것이 중방.(그것이 새신랑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도 중방, 이 무엇인가 혼서 가져 온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중방.)

112019 @ 아, 홍세 앗앙 온 사름을 이레 안트레 들어오렌 허는 사름?(아, 혼사 가져 온 사름을 이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름?)

112019 #1 요까지 오민 그 홍셀 우리가 받젠 허민 새에서 요디 사뭇서 영 허민 그 사름이 영 들렁 오고생이 공손허게 들렁 이디 앗앙 와.(요까지 오면 그 혼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사이에서 요기 서서 이렇게 하면 그 사름이 이렇게 들어서 고스란히 공손하게 들어서 여기 가져 와.)

112019 @ 응.(응.)

112019 #1 또 새서방도 들어오민 베끗의 마당에라도 샷당 영허민 새시방도 줄 줄 오고.(또 새신랑도 들어오면 바깥에 마당에라도 섰다가 이렇게 하면 새신랑도 줄 줄 오고.)

112019 @ 그게 중방?(그게 중방?)

112019 #1 그것이 중방.(그것이 중방.)

112019 @ 중방은 계민 어떤 사름이 허는 거라?(중방은 그러면 어떤 사름이 하는 거야?)

112019 #1 건 몰라. 아무라도 헐 거라. 건 이녁 친척에.(그건 몰라. 아무라도 할 거야. 그건 자기 친척에.)

112019 @ 남자가 허는 거지예, 그건예?(남자가 하는 거지요, 그건요?)

112019 #1 응. 남저가 허는 건디 친척별이 돼야 헐 거라.(응. 남자가 하는 건데 친척별이 돼야 할 거야.)

112019 @ 계민 새각시 상 새서방 상엔 맛좋은 거 하영 올립니까?(그러면 새색시 상, 새신랑 상엔 맛있는 거 많이 올립니까?)

112019 #1 하영이명 그것이 그거라.(많이면서 말면서 그것이 그거야.)

112019 @ 옛날에 할머니네 헐 땐 무시거 올려놔수과?(옛날에 할머니네 할 땐 뭘 올렸었습니까?)

112019 #1 독새기고 돛레기허고 그거 무슨 채소 닮아진 것도 벨로 엇엇어. 이젠 상이 문어나게시리 출려 가는디.(달걀하고 돼지고기하고 그거 무슨 채소 같은 것도

---

265) ‘중방’은 결혼 때 신부집에서 신랑을 맞아들이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로 없었어. 이젠 상이 무너지게끔 차려서 가는데.)

112019 @ 옛날에 할머니네 할 땐 독새기가.(옛날에 할머니네 할 땐 달걀이.)

112019 #1 독새기가 선산ㄱ라. 독새기 먹으레 가켜, 독새기 먹으레 가켜. 걸라 나 조름에 오라, 독새기 받아주마, 할망덜은 영 곤고.(달걀이 선사인지. 달걀 먹으러 가겠다, 달걀 먹으러 가겠다. 가자 나 뒤에 와라, 달걀 받아주마,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고.)

112019 @ 독새긴 게난 새각시 상에 몇 개나 올라갑니까?(달걀은 그러니까 새색시 상에 몇 개나 올라갑니까?)

112019 #1 세 개 올라가신가?(세 개 올라갔나?)

112019 @ 아.(아.)

112019 #1 새각시 밥을 먹어? 이거 밥사발이민 밥 세 수가락 아니민 두 수가락 툷는 체 마는 체해근에.(새색시 밥을 먹어? 이거 밥그릇이면 밥 세 숟가락 아니면 두 숟가락 뜨는 체 마는 체해서.)

112019 @ 무사, 무사?(왜, 왜?)

112019 #1 몰라, 걸. 안 먹어.(몰라, 그걸. 안 먹어.)

112019 @ 할머니도 못 먹었수과?(할머니도 못 먹었습니까?)

112019 #1 못 먹지. 어떻 비끄러왕 걸 밥을 경 음막음막 먹을 거라. 게난 그자 브듯허게.(못 먹지.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걸 밥을 그렇게 꿀꺽꿀꺽 먹을 거니. 그러니까 그저 바듯하게.)

112019 @ 배고프민.(못 먹지.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걸 밥을 그렇게 꿀꺽꿀꺽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듯하게.)

112019 #1 배고프민, 그날랑 춤고.(배고프면, 그날이랑 참고.)

112019 @ 곤밥은 언제 먹어볼 거파게, 그런 때나 먹주.(흰밥은 언제 먹어볼 겁니까, 그런 때나 먹지.)

112019 #1 게메게. 경해도 안 먹어. 나 느나할 거 엇이 밥 하영 먹어샤, 족게 먹어샤 해.(그러게. 그래도 안 먹어. 나 너나할 거 없이 밥 많이 먹었니, 적게 먹었니 해.)

112019 @ 무사?(왜?)

112019 #1 게메, 주위에 들으민. 그 새각시 밥도 하영 먹어라, 그 새각시 밥 원 안 먹언게 영 곤곡 경.(그러게, 주위에 들으면. 그 새색시 밥도 많이 먹더라, 그 새색시 밥 원 안 먹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112019 @ 하하하. 그 아까 할머니들이 먹을 것도 주주만은 새각시 밥 먹어난 거 해근에 그거 밥을.(하하하. 그 아까 할머니들이 먹을 것도 주지만 새색시 밥 먹었던 거 해서 그거 밥을.)

112019 #1 그거 해당 아이들 요디 무똥에 조랑조랑 산 아이덜 밥도 끓어주고 무시것도 다 주고 갈라주고.(그거 해다가 아이들 요기 ‘무똥<sup>266)</sup>’에 ‘조랑조랑<sup>267)</sup>’ 선

266) ‘무똥’은 문이나 출입구를 뜻한다.

아이들 밥도 잘라주고 무엇도 다 주고 갈라주고.)

112019 @ 새각시 상엿 거?(새색시 상의 거?)

112019 #1 응.(응.)

112019 @ 손가락에, 손에 영 받아근에 밥 먹어났젠 허멍은에예.(손가락에, 손에 이렇게 받아서 밥 먹었었다고 하면서요.)

112019 #1 게메게, 손에 솜박 끓여주민 요디 산 아이들. 밥 요만씩 끓여주민. 요 보다 흐뎡 낫일 거라.(그러게, 손에 가득 잘라주면 요기 선 아이들. 밥 요만큼씩 잘라주면. 요보다 조금 나올 거야.)

112019 @ 경해도 곤밥 아니? 새각시밥은?(그래도 흰밥 아니? 새색시밥은?)

112019 #1 아이고 살락헌 산뒤썰밥, 이제 ㄴ뜨민 나룩썰이라도 헐 티.(아이고 사락사락한 발벼썰밥, 이제 같으면 뽕썰이라도 할 건데.)

112019 @ 산뒤썰밥.(발벼썰밥.)

112019 #1 말이 곤밥이주.(말이 흰밥이지.)

112020 @ 옛날에는 돈도 없고 허난 부주는 무신걸로 헛수과? 그런 잔치헐 때. (옛날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부조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런 잔치할 때.)

112020 #1 부주는 부주로 헛지 하질 안허지. 이 새각시 가근헌이 새시방 가근헌, 새각시가 나근에 이 집이 오면은 셋어멍이나 큰어멍이나 시누이나 시고모나는 이 옷으로 해줘.(부조는 부조로 헛지 많지 않지. 이 새색시 가근한 새신랑 가근한, 새색시가 나서 이 집에 오면 둘째어머니나 큰어머니나 시누이나 시고모는 옷으로 해줘.)

112020 @ 아.(아.)

112020 #1 다른 부주덜은, 집안 덩덜<sup>268</sup> 부주들은이 하나 족으나 돈으로. 무신 돈인지 몰르크라. 그뎡 종이 돈인지, 종이 돈일 거라. 헤끄만헌 거. 그때덜은 일 원 짜리덜 이서나신.(다른 부조들은, 집안 친척 부조들은 많으나 적으나 돈으로.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 그뎡 종이 돈인지, 종이 돈일 거야. 조그마한 거. 그때들은 일 원 짜리들 있었는데.)

112020 @ 덩덜 부주?(친척 부조?)

112020 #1 응.(응.)

112020 @ 덩덜이 뭐?('덩덜'이 뭐?)

112020 #1 이녁 집안.(자기 집안.)

112020 @ 아. 게민 방상은 무신거라?(아. 그러면 '방상'은 뭐야?)

112020 #1 방상이 집안이고 덩덜이 방상이라.('방상'이 집안이고 '덩덜'이 '방상'이야.)

112020 @ 아, 똑ㄴ튼 말이파? 흐뎡 트나지 안허고?(아, 똑같은 말입니까? 조금 다르지 않고?)

267) '조랑조랑'은 아이들이 많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양이다.

268) '덩덜'은 친척의 뜻으로 '방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12020 #1 아니, 아니. 그 집안에 그 덩달에 그것이 그 말.(아니, 아니. 그 집안이 그 ‘덩달’에 그것이 그 말.)

112020 @ 응. 뭐 옛날에는 쫄 부주, 쫄 부주로 해놔서, 경도 헨게만은.(응. 뭐 옛날에는 쌀 보조, 쌀부조로 했었지, 그렇게도 하던데.)

112020 #1 건 몰라 막 옛날산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그런 건 몰라.(그건 몰라. 막 옛날인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건 몰라.)

112020 @ 응. 할머니 생각나는 건 그냥 돈으로 부주해난예?(응. 할머니 생각나는 건 그냥 돈으로 보조했었어요?)

112020 #1 돈으로 허고 이.(돈으로 하고 이.)

112020 @ 가까운 친척은.(가까운 친척은.)

112020 #1 막 이 시고모, 죽은시아방, 큰시아방, 이녀 시누이, 동서 그런 사름덜은 옷으로 해줘. 옷이 좋은 옷이든 궂은 옷이든 옷 한 벌씩 해줘. 정허민 이제 새각신 이제 시집가서, 이 달에 가신디 겨울 들어가면은이 그 옷 해다준 디 광목 발레고 미녕 발레영이 보선을 한 베씩 다 돌아강 해여 가. 양말 하나, 아방신되는 양말 하나 놓고 어멍신되는 보선 한 베씩 해영 그. 새각시 부주가 또 그레 그 오빠들 값을 물어주는.(막 이 시고모, 작은시아버지, 큰시아버지, 자기 시누이, 동서 그런 사람들은 옷으로 해줘. 옷이 좋은 옷이든 궂은 옷이든 옷 한 벌씩 해줘. 그러면 이제 새색시는 이제 시집가서, 이 달에 갔는데 겨울 들어가면 그 옷 해다준 데 광목 바래고 무명 바래어서 버선을 한 켄레씩 다 돌아가서 해 가. 양말 하나, 아버지께는 양말 하나 놓고 어머니께는 버선 한 켄레씩 해서 그. 새색시 부조가 또 그리 그 오빠들 값을 물어주는.)

112020 @ 그때 바로 하지 안 하고 좀 이따가?(그때 발 하지 않고 좀 이따가.)

112020 #1 응, 이 연말 돼민, 멩질 때 돌아오민 그걸로 해영 다 앓아가.(응, 이 연말 되면, 멩질 때 돌아오면 그걸로 해서 다 가져가.)

112020 @ 아, 시집 오기 전이 행은에 가정오는 게 아니고.(아, 시집오기 전에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112020 #1 아니, 아니. 시집 왕.(아니, 아니. 시집 와서.)

112020 @ 시집 왕.(시집 와서.)

112020 #1 그때는이 흥세이, 흥셋미녕, 흥셋미녕 행이 그 미녕이 그 흥세 곽에 이서이. 문우장 논 흥세. 그걸 새각시 주는 거라이.(그때는 혼서, 혼서 무명, 혼서 무명 해서 그 무명이 그 혼서 상자에 있어. ‘문우장’ 놓은 혼서. 그걸 새색시 주는 거야.)

112020 @ 예.(예.)

112020 #1 주어불면은 그거 낫당 발레영 보선 안 놓곡 광목은 꿇어당 발레영 꺾데기 멘들곡.(줘버리면 그거 낫다가 바래서 버선 안 놓고 광목은 잘라다가 바래어서 꺾데기 만들고.)

112020 @ 발레는 건 어떻 허는 거?(바래는 건 어떻게 하는 거?)

112020 #1 삶앙이 하얏게 이제 ㄱ뜨민 사라시<sup>269)</sup> 헤불민 락스 놔불민 헤양허는 디 그런 것이 엇어부난 삶앙 멧 번 물에 강 막 마께로 영행 두들멍 빨앙 멧 번 발레민 헤양허여이.(삶아서 하얏게 이제 같으면 ‘사라시’ 해버리면 락스 놔버리면 하얀데 그런 것이 없어버리니까 삶아서 몇 번 물에 가서 막 방망이로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서 빨아서 몇 번 바래면 하애.)

112020 @ 아.(아.)

112020 #1 헤영케 발렘으로 헤엇당 이젠 발레낭 풀 헤영 이젠 막 다듬이 헤영.(하얏게 바래게 했다가 이젠 바래놔서 풀 해서 이젠 막 다듬이 해서.)

112020 @ 응.(응.)

112020 #1 다듬이 헤영 이젠 다듬이 허민 꼬작 폐와지지게. 그때는 잘 개영 낫당 보선 들르멍.(다듬이 해서 이젠 다듬이 하면 곧게 퍼져. 그때는 잘 개어서 낫다가 버선 마르면서.)

112020 @ 아, 그 흥세함에 이신 흥세 미녕으로.(아, 그 함에 있는 혼서 무명으로.)

112020 #1 그걸 다 못허민 또 광목 해당 그걸로 발레곡 헤여난 거. 시집가는 건 그것이 그거지.(그걸 다 못하면 또 광목 해다가 그걸로 바래고 했었던 거. 시집가는 건 그것이 그거지.)

112021 @ 혹시 암창개엔 헌 말 들어봣디가?(혹시 ‘암창개’라고 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112021 #1 응.(응.)

112021 @ 그건 무신 말이파?(그건 무슨 말입니까?)

112021 #1 암창개엔 헌 건이 난 새각시고이 이 집이 사름은이 새시방이라이.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어불어이. 날짜는 딱 맞춰놓고이 장개가는 날을 맞췄거든. 예를 들민 새달에 갈 거민 새달 아니 일 년이 가도 날을 딱 봐는 상태에서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어불은 이 새각실 그냥 복 입정 들어가. 게민 잔치도 엇이 그냥 살아가는 거라.(‘암창개’라고 한 건 난 새색시 이 집의 사람은 새신랑이야. 어머니나 아버지나 죽어버려. 날짜는 딱 맞춰놓고 장가가는 날을 맞췄거든. 예를 들면 새달에 갈 거면 새달 아니 일 년이 가도 날을 딱 봐 놓은 상태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죽어버리면 이 새색시를 그냥 상복 입혀서 데려가. 그러면 잔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112021 @ 복옷 입정?(상복 입혀서?)

112021 #1 응.(응.)

112021 @ 장옷도 안 입정?(장옷도 안 힌혀서?)

112021 #1 장옷 입힐 시간이 이서게? 상젠디, 상제든 췌인이라이. 췌인이 그냥 돌아당 그냥 상제 베치메든 베웃이든 그냥 입져불은 것이 암창개.(장옷 입힐 시간이 있어? 상제인데, 상제면 죄인이야. 죄인이 그냥 데려다가 그냥 상제 베치마든 베웃이든 그냥 입혀버리면 그것이 ‘암창개’.)

269) ‘사라시’는 일본어 ‘さらす’에서 온 말로 하얏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12021 @ 아. 게민 그 결혼할 때 새각신 무신 옷 입어근에. 아까 장옷 입었 할머니 옛날에는.(아. 그러면 그 결혼할 때 새색신 무슨 옷 입어서. 아까 장옷 입어서 할머니 옛날에는.)

112021 #1 암창개 안 행 그냥 갈 때는?(‘암창개’ 안 해서 그냥 갈 때는?)

112021 @ 예, 그냥 갈 때는.(예, 그냥 갈 때는.)

112021 #1 그냥 갈 때는게 저 고장중의라는 중의 입고이. 또 바지나 중의나 입지곡이. 속치마 입지곡, 치마 입지곡, 저고리 입지민 이녀 초상이나 시민 호상을 옛날들은 잘 해놔거든. 반호장 끼명 호상을 해영 놔.(그냥 갈 때는 저 고장중의라는 중의 입고. 또 바지나 중의나 입히고. 속치마 입히고, 치마 입히고, 저고리 입히면 자기 조상이나 있으면 수의를 옛날들은 잘 해놔거든. 반회장 끼면서 수의를 해 놔.)

112021 @ 반호장? 반호장이 뭐?(반회장? 반회장이 뭐?)

112021 #1 이 색동.(이 색동.)

112021 @ 아.(아.)

112021 #1 색동으로 소매 흰 장옷이 이서이. 거 빌어당 새각시 입정 족두리 씌와. 그것이 새각시.(색동으로 소매를 한 장옷이 있어. 그거 빌어다가 새색시 입혀서 족두리 씌워. 그것이 새색시.)

112011 @ 머리로 영 어떻게?(머리도 이렇게 어떻게?)

112011 #1 머리 그냥 그때 우리 할 땐 아니라도 영 해불민이 들리<sup>270)</sup>엔 현 머리가 이서이.(머리 그냥 그때 우리 할 땐 아니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들리’라고 한 머리가 있어.)

112011 @ 들리?(‘들리’?)

112011 #1 들리. 머리 옛날 머리털은 막 질게 키웠당이 끈영 이디 요 부레긴 안 해도 요 부레긴 깨늘고 요 부레기보다 술치게 행 이디 예쁘게 막 실로 뺏쳐. 뺏정 들리가 이서. 이녀 머리에 그 들리를 예껴근영에 다와가. 질게 다와당 그땐 비네 찢렁 낱잘 헛거든.(‘들리’. 머리 옛날 머리들은 막 길게 길렀다가 잘라서 여기 요 부피는 안 해도 요 부피는 가늘고 요 부피보다 살찌게 해서 여기 예쁘게 막 실로 ‘뺏쳐’. ‘뺏쳐’서 ‘들리’가 있어. 자기 머리에 그 ‘들리’를 엮어서 땡아. 길게 땡아다가 그땐 비네 찢려서 낱자를 헛거든.)

112011 @ 응.(응.)

112011 #1 그것이 새각시 머리라.(그것이 새색시 머리아.)

112011 @ 낱자는 어떻게 머리파?(낱자는 어떻게 한 머리입니까?)

112011 #1 그것이 낱자지. 이제 배우덜 무시거할 때 이만큼 비네 찢렁 나오는 낱자잖아. 그거, 그거 그추룩 해여.(그것이 낱자지. 이제 배우들 뭐할 때 이만큼 비네 찢려서 나오는 낱자잖아. 그거, 그거 그렇게 해.)

112011 @ 응, 이디 영 막 크게.(응, 여기 이렇게 막 크게.)

112011 #1 족두리.(족두리.)

270) ‘들리’는 쪽찌는 머리 속에 넣는 다른 머리털을 말한다.

112011 @ 이거 현 건 뭐라? 머리 영 크게 허는 거.(이거 한 건 뭐야? 머리 이렇게 크게 하는 거.)

112011 #1 건지.(판머리.)

112011 @ 아, 건 건지. 여기 영 허는 건 남자.(아, 그건 판머리. 여기 이렇게 하는 건 남자.)

112011 #1 응. 우리 현 댐 건지, 머리가 족으나 하나 돌리 들으멍 어디 먹으레나 가젠 허는디는 우리 어머님네 신 때도 보른 머리 양 가달로 영 일로도 다우고 일로도 영 지와똥 이디 왕 영영 허영 꼭 찢렁 영 허민 건지가 뉘어이.(응. 우리 한 댐 판머리, 머리가 적으나 많으나 ‘돌리’ 들으면서 어디 먹으러나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네 있을 때도 보면 머리 양 갈래로 이렇게 이리로도 땡고 이리로도 이렇게 지워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꼭 찢려서 이렇게 하면 판머리가 돼.)

112011 @ 응.(응.)

112011 #1 그것이 건지. 시집가는 새각신 낭즈, 빈네 이만인 나오게 허고 이디 배우덜 나오는 식으로. 그디 이녁 머리도 아니주 건. 이녁 머리가 그때는 이제 ㄴ찌 찢르진 안해도 영 질어도, 이녁 머리로만은 낭즈 못허지.(그것이 판머리. 시집가는 새색시는 판머리, 비녀 이만큼 나오게 하고 여기 배우들 나오는 식으로. 거기 자기 머리도 아니지 그건. 자기 머리가 그때는 이제같이 자르진 았아도 이렇게 길어도, 자기 머리로만은 판머리 못 하지.)

112011 @ 못허주예.(못 하지요.)

112011 #1 돌리로 허영 꼬아근에 막 길게 다와당 낭즈헤영 그 빈넬 찢르지.(‘돌리’로 해서 꼬아서 막 길게 땡아다가 판머리해서 그 비녀 찢르지.)

112011 @ 낭자헤근에.(판머리해서.)

112011 #1 이 중간에 우리 갈 댐 그것에서 쪽두리 씨영 해난.(이 중간에 우리 갈 댐 그것에서 족두리 써서 했었어.)

112011 @ 쪽두리 썩 할머니 혈 때는 쪽두리 썩 험디가?(족두리 써서 할머니 할 때는 족두리 써서 했습니까?)

112011 #1 쪽두리 엇어, 우리 혈 때는.(족두리 없어, 우리 할 때는.)

112011 @ 멘사포 씨수과, 할머니도?(면사포 썼습니까, 할머니도?)

112011 #1 ㅼ더 부난.(가까워 버리니까.)

112011 @ ㅼ디민 댐 무신.(가까우면 댐 무슨.)

112011 #1 게메 ㅼ더 부난산디 멘사포 썩.(그러게 가까워 버리니까인지 면사포 썼어.)

112011 @ 멘사포가 신식 아니?(면사포가 신식 아니?)

112011 #1 신식인디. 그때 처음 날 땡 거라.(신식인데 그때 처음 날 때일 거야.)

112011 @ 게난예.(그러니까요.)

112011 #1 ㅼ도 엇인 멘사포덜이. 이제난 ㅼ이라도 잇게 멘드는다.(폼도 없는 면사포들이. 이제니까 폼이라도 잇게 만드는데.)

112011 @ 그만.(그러면.)

112011 #1 그때 잔치할 때 무신 사진을 쳐서? 멍텅구리 사진, 멍텅구리 잔치.  
(그땐 잔치할 때 무슨 사진을 쳐서? 멍텅구리 사진, 멍텅구리 잔치.)

112011 @ 옷은 게민 무신 옷 입어?(옷은 그러면 무슨 옷 입어?)

112011 #1 게메 굿사 곧듯이.(그러게 아까 말하듯이.)

112011 @ 아까 뭐 하얀 색깔 옷 입어?(아까 뭐 하얀 색깔 옷 입어?)

112011 #1 아니라. 속에 곧 옷 입어. 안에 예를 들어 우리 시집갈 땐이 요런 치메에이 유동이라고 헐.(아니야. 속에 고운 옷 입어. 안에 예를 들어 우리 시집갈 땐 요런 치마에 유동이라고 해서.)

112011 @ 유동치메.(유동치마.)

112011 #1 유동치메에 이젠 꽃분홍 저고리. 양단으로. 그거 입은 우인.(유동치마에 이젠 꽃분홍 저고리. 양단으로. 그거 입은 위에는.)

112011 @ 아까.(아까.)

112011 #1 할망덜 입은 그.(할머니들 입은 그.)

112011 @ 장옷.(장옷.)

112011 #1 장옷. 죽을 때 입는 장옷.(장옷. 죽을 때 입는 장옷.)

112011 @ 응. 이디 영 영 뭐도 쓰는가? 얼굴 안 보이게도 영도 해?(응.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뭐도 쓰는가? 얼굴 안 보이게도 이렇게도 해?)

112011 #1 건 남저가 지. 남저가 영 들르는 거.(그건 남자가 지. 남자가 이렇게 드는 거.)

112011 @ 영 들르는 거, 입 막아지는 거?(이렇게 드는 거, 입 막는 거?)

112011 #1 응, 영.(응, 이렇게.)

112011 @ 그건 무신거라?(그건 뭐야?)

112011 #1 건 몰라, 건.(그건 몰라, 그건.)

112011 @ 부채 닮은 거예?(부채 닮은 거요?)

112011 #1 부채 닮은 거. 기지로 영 웬 거 조락만 심영 영.(부채 닮은 거. 천으로 이렇게 된 거 자루만 잡아서 이렇게.)

112011 @ 거 말고 그냥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민 어디 갈 때 새각시털은 우에 옷 영 써근예.(그거 말고 그냥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디 갈 때 새색시들은 위에 옷 이렇게 써서.)

112011 #1 그런 건 우리 안 봐난.(그런 건 우리 안 봤었어.)

112011 @ 아, 그런 건 안 봐난.(아, 그런 건 안 봤었어.)

112011 #1 청실홍실허영이 병아리도 이레 갔다가 저레 갔다가 허는 거는 그런 건 우리 안 봐. 텔레비에나 봤지, 안 봐봤.(청실홍실해서 병아리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는 그런 건 우리 안 봤어. 텔레비전에나 봤지, 안 봤었어.)

112011 @ 응, 갱 새각시 들앙 오민 무사 이디 마당에서 무신 뭐 절허고 이런 것도 안해?(응, 그래서 새색시 데리고 오면 왜 여기 마당에서 무슨 뭐 절하고 이런

것도 안 해?)

112011 #1 안 해. 우린 그런 시댁 못 봐서. 그 전이 해났지.(안 해. 우린 그런 새대를 못 봐서. 그 전에 했었지.)

112011 @ 계민 강 새각시 들앙 오민 그냥 집드레 그냥 들어와 부는 거?(그러면 가서 새색시 데리고 오면 그냥 집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

112011 #1 요까지 오면은 가메 탄 사람은 이까지 왕 가메 톡 놓민이 가메 이녀 부모가이 영 올라주민 일로 영 기영 나와. 기영 나오민 저 구들러레 앓당 돌아당 앓지주. 펑풍 치고. 그 선사 옷덜은 펑풍에 다 뿌다가리도 엇인 옷덜 다 걸어지고. (요까지 오면 가마 탄 사람은 이까지 와서 가마 톡 놓으면 가마 자기 부모가 이렇게 열어주면 이리로 이렇게 기어서 나와. 기어서 나오면 저 방에 가져다 데려다가 앓히지. 병풍 치고. 그 선사 옷들은 펑풍에 다 ‘뿌다가리’도 없는 옷들 다 걸려있고.)

112011 @ 하하하.(하하하.)

112011 #1 계민 이녀 집에서 밥 먹어나고 다 허면은 이녀 집에서 옷은 우잇옷은 다 벗겨두고 속엿옷에, 속엿옷은 그냥 입지고 시어멍 해준 옷을 또. 보통은 흥끔 좋은 걸로 했지. 그것 또 입져. 딱시 낭자도 흥끔 족게 만들고. 시집올 때까지 안 행.(그러면 자기 집에서 밥 먹었었고 다 하면 자기 집에서 옷은 윗옷은 다 벗겨두고 속옷에, 속옷은 그냥 입히고 시어머니 해준 옷을 또. 보통은 조금 좋은 걸로 했지. 그것 또 입혀. 다시 판머리도 조금 적게 만들고. 시집올 때같이 안 해서.)

112011 @ 응. 거난 마당에서 저 절하고 영 허는 건 안 해났구나예.(응. 그러니까 마당에서 저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했었군요.)

112011 #1 몰라. 봐나도 안해났어, 생펜이로.(몰라. 보지도 앓았었어, 생으로.)

112011 @ 아, 할머니 다른 사람 허는 것도 안 봐난?(아, 할머니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안 봤었어?)

112011 #1 안 봐난. 텔레비에 나오는 거 막.(안 봤었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막.)

112011 @ 나도 텔레비에 나오는.(나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112011 #1 오리도 놓고. 막 주고 받고 허는 거. 건 못 봐.(오리도 놓고. 막 주고 받고 하는 거. 그건 못 봤어.)

112011 @ 아, 못 봐반. 할머니 헐 때 말고도 그 우이 사람 헐 때도?(아, 못 봤었어. 할머니 할 때 말고도 그 위 사람 할 때도?)

112011 #1 그 우이 헐 때도, 우리 언니네 풀 때도 엇었어.(그 위 할 때도, 우리 언니네 팔 때도 없었어.)

112011 @ 아.(아.)

112011 #1 이제 그런 거 엇었어. 우리 이제 스춘언니 이제 아흔 으섯인디 그런 거 엇어. 그 전이 아주 아주 옛날 때 그런 식이 이신 생이라.(이제 그런 거 없었어. 우리 이제 사춘언니 이제 아흔 여섯인데 그런 거 없어.)

112011 @ 신발은 무신거 신읍니까, 새각시? 신발도 시집이서 해줍니까?(신발은 무엇 신읍니까, 새색시? 신발도 시집에서 해줍니까?)

112011 #1 응. 그 가메 소꿉에 낵 와, 신을.(응. 그 가마 속에 낵서 와, 신을.)

112011 @ 아.(아.)

112011 #1 옛날엔이 창신이라고 헐이, 이 꺼먼 것에, 우이는 꺼먼 것에 아래는 쉼산디 박앙에 도글락도글락 소리 나는 신인디. 이제는, 우리 헐 땡 고무신. 가메 속에 새각시 신영 오랜 가메 속에 논 생이라. 가메 속에.(옛날엔 ‘창신’이라고 해서, 이 꺼먼 것에, 위에는 꺼먼 것에 아래는 쇠인지 박아서 ‘도글락도글락’ 소리 나는 신인디. 이제는, 우리 할 땡 고무신. 가마 속에 새색시 신어서 오라고 가마 속에 놓은 모양이야. 가마 속에.)

112011 @ 뭘 어떻 하얀 고무신, 꽃신?(뭘 어떻게 하얀 고무신, 꽃신?)

112011 #1 아니, 꽃신이 그땡 엇주. 하얀 고무신도 너무 좋주. 까망헌 고무신도 이서나신디. 하얀 고무신만 신어도 좋주.(아니, 꽃신이 그땡 없지. 하얀 고무신도 너무 좋지. 까만 고무신도 있었는데. 하얀 고무신만 신어도 좋지.)

112011 @ 새시방은 어떤 옷 입읍니까?(새신랑은 어떤 옷 입읍니까?)

112011 #1 새시방도 그 비는 옷이 이서. 새시방 옷, 관복이엔 헤영이 새시방 옷으로 등망머리도 무신거 부텡 너울 허곡, 이만인헌 금 띠 닳은 거 둘른 옷 행 그런 걸 입영 오지. 장화 닳은 또.(새신랑도 그 빌리는 옷이 있어. 새신랑 옷, 관복이라고 해서 새신랑 옷으로 등에 무엇 붙어서 너울 하고, 이만큼 한 금 띠 같은 거 두른 옷 해서 그런 걸 입어서 오지. 장화 같은 또.)

112011 @ 신발예.(신발요.)

112011 #1 신발 나 꺾사 곧듯이 무슨 도글락도글락 쉼 닳은 거 박아지고.(신발 나 아까 말하듯이 무슨 ‘도글락도글락’ 쇠 같은 거 박히고.)

112011 @ 그런 옷은 어디 셔근예.(그런 옷은 어디 있어서.)

112011 #1 건 빌리는 디가 이시는 생이라. 새시방 옷. 아, 그 가메 신디서 빌림 실 거라.(그건 빌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야. 새신랑 옷. 아, 그 가마 있는데서 빌리고 있을 거야.)

112011 @ 가메영 다 ㄴ치?(가마랑 다 같이?)

112011 #1 응.(응.)

112011 @ 마을에 거 허는 디가 잇구나예, 보뵈다근예예.(마을에 그거 하는 데가 있군요, 보뵈다가요.)

112011 #1 옛날 중간에 영장 나면은 그 화단이, ㅁ을에 제해영 빌리는 식으로이 것도 경헤실 거라.(옛날 중간에 상 나면 그 화단이, 마을에 제해서 빌리는 식으로 그것도 그렇게 했을 거야.)

112022 @ 응. 혹시 죽은 사람끼리 결혼 시키는 거 보뵈수과?(응. 혹시 죽은 사람끼리 결혼 시키는 거 보뵈었습니까?)

112022 #1 것도 잇지. 죽은 혼서.(그것도 있지. 사혼.)

112022 @ 죽은 혼서. 건 어떻게 하는 거마씨?(사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22 #1 새시방도 장개 안 간 죽고, 새각시도 시집 아니 강 죽으면이 어떻 어떻 새시방칩이서 그런 주문을 해여이.(새신랑도 장가 안 가서 죽고, 새색시도 시집 안 가서 죽으면 어떻게 어떻게 새신랑 집에서 그런 주문을 해.)

112022 @ 아.(아.)

112022 #1 어디 죽은 혼서혈 디 엇인가 혜영. 아덜 홀아방 안 만들젠이.(어디 사혼할 데 없나 해서. 아들 홀아버지 안 만들려고.)

112022 @ 응.(응.)

112022 #1 죽은 혼서혈 디 엇인가, 엇인가 허당 보면은 여녕도 비슷하고 그런 새각시가 나와. 허는 거 나가 봐났어. 경헌디 잔치허는 걸 봤주. 공동장에이 공동장에 강 그런 죽은 혼서들이 그디 영장을 파단 새각시를 그 신랑 조꼴디 완 묻고 막 잔치ㄴ추룩 막 허는 거.(사혼할 데 없나, 없나 하다 보면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 새색시가 나와. 하는 거 내가 봤었어. 그런데 잔치하는 걸 봤지. 공동묘지에 공동묘지에 가서 그런 사혼을 거기 영장을 파다가 새색시를 그 신랑 곁에 와서 묻고 막 잔치처럼 막 하는 거.)

112022 @ 어디 집이서 해, 아니민 어디서 해? 잔치는.(어디 집에서 해. 아니민 어디서 해?)

112022 #1 공동장에서.(공동묘지에서)

112022 @ 아.(아.)

112022 #1 경혜영 지네끼리는 어떻게 한 거 몰른디. 새각시 묻어나지 안해서? 예를 들어 묻어나시킨 새시방 조꼴디 왕 묻고 그디서 잔칠 이젠, 아메도 문셀 해실 거라이.(그렇게 해서 자기네끼리는 어떻게 한 거 모르는데. 새색시 묻어나지 않았어? 예를 들어 묻었으면 새신랑 곁에 와서 묻고 거기서 잔치를 이젠, 아무래도 문서를 했을 거야.)

112022 @ 문세가 뭐?(문서가 뭐?)

112022 #1 우리 둘이 혼인 신고하는 이런 문우장 닳은 거 산 앞이서 해실 거렌 말이주, 나 생각해. 그디 산을 앓당 물을 때는 혼인 신고를 해살 거 아니게.(우리 둘이 혼인 신고하는 이런 ‘문우장’ 같은 거 산소 앞에서 했을 거라는 말이지, 내 생각해. 거기 산소에 가져다 물을 때는 혼인 신고를 해야할 거 아니냐.)

112022 @ 응.(응.)

112022 #1 경 허는 건 봐났어. 죽은 혼서, 죽은 혼서.(그렇게 하는 건 봤었어. 사혼, 사혼.)

112022 @ 겐 그믐 그디서 산 앞이서들 뭐 먹을 거 해근에 먹고 합니까?(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산 앞에서들 뭐 먹을 거 해서 먹고 합니까?)

112022 #1 경해도 하영은 안 해 가선게. 집이선 허엄신디 몰라도, 산에 강, 이디 간 땀 사름 하도 안허고 정헬 허는 거 봤어. 정허민 이젠 그 새각신 이 집이 구신이 뉘분 거라, 이제. 어떻 칩이선 이젠 무관심, 생각나민 제사 때나 한 번이나 오고



말 거 아니? 우리 이치적으로. 그건 봐놔어.(그래도 많이는 안 해 갔더라. 집에서 하는지 몰라도, 산소에 가서, 여기 갔을 땐 사람 많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봤어. 그러면 이젠 그 새색시는 이 집의 귀신이 돼버린 거야, 이제. 어머니 집에서 이젠 무관심, 생각나면 제사 때나 한 번 오고 말 거 아니? 우리 이치가. 그건 봤었어.

112022 @ 응.(응.)

112022 #1 죽은 혼서하는 디도 해서, 옛날에는.(사혼하는 데도 많았어, 옛날에는.)

112023 @ 아.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 결혼 날 받으민 무신거 허지 말라 허는 거 잇수게? 어디 가지도 말고. 날 받은 사람은 어디 일 난 집이도 가지 말고 남의 잔치도 가지 말고 뭐 이런 거.(아.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 결혼 날 받으면 뭇서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잖아? 어디 가지도 말고. 날 받은 사람은 어디 일 난 집에도 가지 말고 남의 잔치도 가지 말고 뭐 이런 거.)

112023 #1 그때는 그런 말이 었인디 요 몇 년 전이네이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잔치하고 저 집이 잔치민 동네탓잔치라도, 예, 이녀 집이 잔치가 이제 둘 안네 들어가는디 남으 잔치집이 가지 말렌 행 아니 와.(그때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요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잔치하고 저 집에 잔치면 동네 잔치라도, 예, 자기 집 잔치가 이제 달 안에 들어가는데 남의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와.)

112023 @ 옛날엔 경 안 해놔수과?(옛날엔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112023 #1 옛날엔 그런 거 몰라. 이 중간에는 그런 말 이서. 나가 들어진 말.(옛날엔 그런 거 몰라. 이 중간에는 그런 말 있어. 내가 들었던 말.)

112023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23 #1 이 집이 잔치하고 저 안넛집이 잔치허민, 예, 이녀 집이 잔치디 동네탓잔치 먹지 말주. 둘 안네, 이녀 잔치 둘 안네 든디 경행 허는 말 들어난.(이 집에 잔치하고 저 안의 집 잔치하면, 예, 자기 집 잔치데 동네 잔치 먹지 말지. 달 안에, 자기 잔치 달 안에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말 들었었어.)

112023 @ 응.(응.)

## 상례

112024 @ 계민 이제 영장난 디예. 사름 죽으민 사름 죽은 건 어떻 확인해? 숨 안 쉬민.(그러면 이제 초상난 데요. 사름 죽으면 사름 죽은 건 어떻게 확인해? 숨 안 쉬면.)

112024 #1 숨 안 쉬민게 하간 디 버작허주게.(숨 안 쉬면 온갖 데 뺏뺏하지.)

112024 @ 어떻 영 손으로 영 해봐? 아니민 어떻 해봐?(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봐? 아니면 어떻게 해봐?)

112024 #1 사름도 알아? 죽는디 사름 엇일 리가 이서? 만간에 하나에나 그런 일이 잇주. 사름이 죽어가젠 허민 동네사름도 보곡 아기덜도 보곡 친족도 보젠 허

민 죽는 걸 다 알아지주.(사람도 알아? 죽는데 사람 없을 리가 있어? 만일 하나나 그런 일이 있지. 사람이 죽어가려고 하면 동네사람도 보고 아기들도 보고 친척도 보려고 하면 죽는 걸 다 알 수 있지.)

112024 @ 응.(응.)

112024 #1 경허민 예를 들렁 영 노인덜은 영 오그라졌당 뉘나민 목숨이 엇어가민 손을 안 봐주면은 바르게 눕지곡 막 그냥 애기덜이라도 영영 해가민 것이 쪽 폐와져.(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인들은 이렇게 오그라졌다가 눕고 나면 목숨이 없어지면 손을 안 봐주면 바르게 눕히고 막 그냥 아기들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그것이 쪽 퍼져.)

112024 @ 응, 응.(응, 응.)

112024 #1 경 안 행 혼자 죽었은이 이추록 요추록 현 대로 그냥 오그라져.(그렇게 안 해서 혼자 죽어서는 이렇게 요렇게 한 대로 그냥 오그라져.)

112024 @ 아, 안 폐와져?(아, 안 퍼져?)

112024 #1 응, 경허민 영장 낮저 행 강 보민 이 다리도 오그라지고 할망을 바르게 놓양 영 손을 보젠 허민 이눔으 다릴 안 폐와져.(응, 그렇게 안 하면 상 낮다 해서 가서 보면 이 다리도 오그라지고 할머니를 바르게 놓아서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하면 이눔의 다리를 안 퍼져.)

112024 @ 응.(응.)

112024 #1 안 폐와지민 이걸 폐웁젠 허민 똑똑 소리 난텐, 우린 안 들어도. 똑똑 소리 낭 이디 옛날엔 안반이엔 현 다듬이 현 것이 서.(안 퍼지면 이걸 퍼려고 하면 똑똑 소리 난다고, 우린 안 들어도. 똑똑 소리 나서 여기 옛날엔 안반이라고 한 다듬이 한 것이 있어.)

112024 @ 응.(응.)

112024 #1 돌이 아니고 낭으로 쥔 거. 그거 앓당 지들르고 돌멩이 앓당 영 누들르민 이것이 폐와진텐.(돌이 아니고 나무로 된 거. 그거 가져다가 지지르고 돌멩이 가져다가 이렇게 누르면 이것이 퍼진다고.)

112024 @ 아이고.(아이고.)

112024 #1 이디 요 동네도 그런 할망 이서났어.(여기 요 동네도 그런 할머니 있었어.)

112025 @ 아니, 죽으민 사름 영,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죽으민, 죽엇텐 해근에 무신 복 불르는 거 잇수과?(아니, 죽으면 사람 이렇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죽으면, 죽었다고 해서 무슨 복 부르는 거 있습니까?)

112025 #1 혼 불르는 거.(혼 부르는 거.)

112025 @ 혼 불르는 거파? 어떻?(혼 부르는 겁니까? 어떻게?)

112025 #1 죽으면은이 혼 시간 이상이 무경이, 나가 죽었다 경허민 이 뼈를 꼬작 낱이 다 무꺼, 베로. 베로 무경 창호지 행 얼굴 톱 더꺼뵤 일을 다허면은 상 칠리곡 체시상, 죽는 체시 나시 상을 낫당 그 상 우이 적삼도 놓곡 헛당 걸로 저 지

붕 우이 올라강 혼을 불러.(죽으면 한 시간 이상 묶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 뼈를 곧게 놔서 다 묶어, 베로. 베로 묶어서 창호지 해서 얼굴 톱 덮어두고 일을 다 하면 상 차리고 저승사자 상, 죽은 저승사자 깃 상을 봤다가 그 상 위에 적삼도 놓고 했다가 그걸로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혼을 불러.)

112025 @ 응.(응.)

112025 #1 나인 멧 슬이고 성은 무시거고 허영 혼 불령 내려와 나민 건 끄, 죽은 거. 갱 이젠 또 새로 날을 뺑.(나이는 몇 살이고 성은 무엇이고 해서 혼 불려서 내려오고 나면 그건 끝, 죽은 거. 그래서 이제 또 새로 날을 봐서.)

112025 @ 응.(응.)

112025 #1 성복 날, 입관 날, 무드레 가는 날. 경 보아 가는 거.(성복 날, 입관 날, 묻으러 가는 날. 그렇게 봐 가는 거.)

112025 @ 아, 아까 지붕 우이 올라강 허는 건 무신거엔 곱아?(아, 아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건 무엇이라고 말해?)

112025 #1 혼 불르는 거.(혼 부르는 거.)

112025 @ 혼 불르는 거, 응.(혼 부르는 거, 응.)

112025 #1 혼 불르는 거.(혼 부르는 거.)

112025 @ 저고리로 저고리.(저고리로 저고리.)

112025 #1 적삼, 적삼.(적삼, 적삼.)

112025 @ 아, 적삼을.(아, 적삼을.)

112025 #1 이런 적삼도이 혼 불르는 거는이 이 곱이 서도 곱도 다 끈어불곡 동전도 다 때불곡 허드라고. 그런 방법인 생인 7라.(이런 적삼도 혼 부르는 거는 이 곱이 있어도 곱도 다 잘라버리고 동전도 다 때버리고 하더라고. 그런 방법인 모양인지.)

112025 @ 경행 그걸로 영 해나민 그 저고린 어떻 해?(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고나면 그 저고린 어떻게 해?)

112025 #1 건 그디 낫당이 무드레 갈 땐 그 적삼으로 문 이것이 관이면은이, 관 우이 흑이 가잖아.(그건 거기 봤다가 묻으러 갈 땐 그 적삼으로 모두 이것이 관이면, 관 위에 흑이 가잖아.)

112025 @ 응.(응.)

112025 #1 흑 가민 그걸로 문 다까냥 그 옆드레 톱 놔.(흑 가면 그걸로 모두 닦아놔서 그 옆에 톱 놔.)

112025 @ 아, 그 묻는 디까지 가정가근에 그걸로.(아, 그 묻는 데까지 가져가서 그걸로.)

112025 #1 응, 그디 실이 오색실이엔 헤영 실도 다 이 우이 놓곡 멍전<sup>271)</sup>이.(응, 거기 실이 오색실이라고 해서 실도 다 위에 놓고 명정이.)

271) ‘멍전’은 ‘명정’의 제주어로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다. 일정한 크기의 긴 천에 보통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 지낼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에 널 위에 펴 묻는다.

112025 @ 응.(응.)

112025 #1 죽으면 관 우이 더끌 때 개관 더끄기 전이, 맹전, 우이 더꺼 놓는 거  
그라 맹전이엔 허고 맹전 더끄젠 허민 버물카부덴 흑더레 가는 거 버무나 어떻허리  
만은 그 적삼으로 영 그디 상제 등망머리 영 지랭이 돌아매는 베 닳은 걸로 그걸  
몬 다까뵤 개관 더꺼.(죽으면 관 위에 덮을 때 횡대 덮기 전에, 명정, 위에 덮어 놓  
는 거보고 명정이라고 하고 명정 덮으려고 하면 더러워질까봐 흙으로 가는 거 더러  
워 어떻게 할까만은 그 적삼으로 이렇게 거기 상제 등에 이렇게 길게 달아매는 베  
같은 걸로 그걸 모두 닦아뵤서 횡대 덮어.)

112025 @ 아, 그든 아까 그 저고린 돌아가신 분 입었던 거?(아, 그러면 아까 그  
저고리는 돌아가신 분 입었던 거?)

112025 #1 응, 돌아가신 거. 우리도 그 적삼은 놔뵤어. 우리도 죽으면 혼 불를  
걸로.(응, 돌아가신 거. 우리도 그 적삼은 놔뵤어. 우리도 죽으면 혼 부를 걸로.)

112025 @ 아, 혼 부르는 적삼이 따로 잇수과?(아, 혼 부르는 적삼이 따로 있습  
니까?)

112025 #1 응, 건 혼적삼<sup>272</sup>), 혼적삼.(응, 그건 ‘혼적삼’, ‘혼적삼’.)

112025 @ 아, 혼적삼.(아, ‘혼적삼’.)

112025 #1 응, 혼적삼.(응, ‘혼적삼’.)

112025 @ 응. 기구나예. (응. 그렇군요.)

112026 @ 계민 어떻 장지는 어떻?(그러면 어떻게 장지는 어떻게?)

112026 #1 장지 가민, 이 성복날 무드레 갈 날짜 보레 간 날 강 오민게 날 좋은  
날 반앙 장스 지낼 거 아니?(장지 가면, 이 성복날 묻으러 갈 날짜 보러 간 날 가서  
오면 날 좋은 날 받아서 장사 지낼 거 아니?)

112026 @ 계난 그 장지, 어디 강 물을 건지 결정허는 거는 무사.(그러니까 그  
장지, 어디 가서 물을 건지 결정하는 거는 왜.)

112026 #1 이녁 땅이 시면은 이녁 밧디 가고, 경 안허민.(자기 땅이 있으면은  
자기 밧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112026 @ 엇이민?(없으면?)

112026 #1 공동장에 가고.(공동묘지에 가고.)

112026 @ 거 보는 사름 잇수게? 땅 보는 사름.(그거 보는 사름 있잖아요? 땅  
보는 사름.)

112026 #1 정시.(지관.)

112026 @ 응, 정시신디 가근에.(응, 지관에게 가서.)

112026 #1 정실, 아무디 갈 값에 정신 들앙 가.(지관을, 아무데 가든지 지관을  
데리고 가.)

112026 @ 아.(아.)

112026 #1 공동장엘 갔던 이녁 공동장엘 갔던 이녁 옛날은 공동장 엇이 이녁

---

272) ‘혼적삼’은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적삼이다.

밭디덜을 잘 묻지. 이녁 밭이 시면은. 밭 엇인 사름 저 산에 강 보민 군 땅덜 닳은 디, 이상헌 디 강 또 정시 들앙 강 뽕와근엿에 요디가 좋다 허민, 요디 영. 고지<sup>273)</sup>엔 헌 건 대막대기 앓앙 강 꼽아줘. 올로 요 사이에 영장 묻을 디를 고지 꼽앙.(공동묘지엘 갔든 자기 공동묘지에를 갔든 자기 옛날은 공동묘지 없이 자기 밭에들을 잘 묻지. 자기 밭이 있으면. 밭 없는 사람 저 산에 가서 보면 남는 땅들 같은 데, 이상한 데 가서 또 지관 데리고 가서 보여서 요기가 좋다 하면, 요기 이렇게. ‘고지’ 이라고 한 건 대막대기 가져 가서 꼽아줘. 요기로 요 사이에 시체 묻을 데를 ‘고지’ 꼽아서.)

112026 @ 아, 고지 꼽는 거엔 곱읍니까?(아, ‘고지’ 꼽는 거라고 말합니까?)

112026 #1 정시가 강 고지 꼽아줘.(지관이 가서 ‘고지’ 꼽아줘.)

112026 @ 정시가 강. 계민 일단 누구 돌아가시민.(지관이 가서. 그러면 일단 누구 돌아가시면.)

112026 #1 정실 들앙 가.(지관을 데리고 가.)

112026 @ 정시를 돌아근에 어디 강 묻을 건지를예?(지관을 데리고가서 어디 가서 묻을 건지를요?)

112026 #1 어느 방향으로 가곡이.(어느 방향으로 가고.)

112026 @ 응.(응.)

112026 #1 동더레 갈 거냐, 서드레 갈 거냐.(동으로 갈 것이냐, 서로 갈 것이냐.)

112026 @ 응, 거니까.(응, 그러니까.)

112026 #1 죽은 사름 가는 방향도 이서이. 산 사름 동이 가지 말라, 서이 가지 말라 허는 식으로.(죽은 사람 가는 방향도 있어. 산 사람 동에 가지 말라, 서에 가지 말라 하는 식으로.)

112026 @ 응.(응.)

112026 #1 죽은 사름 멩에도 죽어도 그디 못 갈 방우가 이서.(죽은 사람도 멩에도 죽어도 거기 못 갈 방위가 있어.)

112026 @ 응.(응.)

112026 #1 갹 그런 거 뽕와근엿에 방우 좇앙 산도 쓰고 그런.(그래서 그런 거 뽕서 방위 찾아서 산도 쓰고 그런.)

112027 @ 응. 관하고 이런 건 어떻 만들어마씨?(응. 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만 들어요?)

112027 #1 관?(관?)

112027 @ 응.(응.)

112027 #1 관은게 저런, 이제는이 베니다 나부난 그런 것이 엇주. 옛날은 이만 큼헌 소나기.(관은 저런, 이제는 합관 나버리니까 그런 것이 없지. 옛날은 이만큼한

273) ‘고지’는 가늘고 길면서 끝이 뽕족한 쇠나 나무 따위의 물건인 꼬챙이를 말하는데 지관이 산소로 쓸 곳을 표시하기 위해 꼽는 꼬챙이를 말한다.

소나무.)

112027 @ 응.(응.)

112027 #1 소낭허민 곳당 사름 지레기만인 허게 끈엉.(소나무하면 가져다가 사람 길이만큼 하게 잘라서.)

112027 @ 응.(응.)

112027 #1 무시거나, 기계로 강이.(무엇이나, 기계로 가서.)

112027 @ 응.(응.)

112027 #1 싸.(켜.)

112027 @ 응.(응.)

112027 #1 요만이 요 뚜게씩은 쌍 물리왓당 막덜 데와진 디 놔도 안 돼. 영 펜 안헌 디 놔사 낭도 올바르게 몰랑, 그걸로 관을 짜는 거지. 목시덜 빌어당 막 올레 덕석 폐와농곡 허영. 목시 빌영 짜.(요만큼 요 두게씩은 켜서 말렸다가 막들 비틀어진 데 놔도 안 돼. 이렇게 편안한 데 놔야 나무도 바르게 말라서, 그걸로 관을 짜는 거지. 목수들 빌어다가 막 ‘올레’ 멍석 퍼 놓고 해서. 목수 빌어서 짜.)

112027 @ 그 낭은 미리 마련행 놔뉘? 이녁이?(그 나무는 미리 마련해서 놔뉘? 자기가?)

112027 #1 응. 어디 마련행 엇이민 그때는 푸는 디가 하.(응. 어디 마련해서 없으면 그때는 파는 데가 많아.)

112027 @ 응.(응.)

112027 #1 그거 해당 이젠 올레덜 덕석 폐와농곡 행, 집 죽은 사름은 올레서 짱 관 다 짜민 막 그 검은 무신 숯가루 닮은 거 미청, 방드레 아사오민 것이 웬 거라. (그거 해다가 이젠 ‘올레’들 멍석 퍼놓고 해서, 집 작은 사람은 ‘올레’에서 짜서 관 다 짜면 막 그 검은 무슨 숯가루 같은 거 무쳐서, 방에 가져오면 그것이 된 거야.)

112027 @ 응. 횡대는 뭘고? 횡대?(응. 횡대는 뭘가? 횡대.)

112027 #1 횡대가 뭐라?(횡대가 뭐야?)

112028 @ 수의 그믐 저 죽은 사름 입을 옷이영 상복은 그날 그디서 다 만들어, 옛날엔예? 이제사 뭐 돈만 주민 다 나오주만은.(수의 그러면 저 죽은 사람 입을 옷 이랑 상복은 그날 거기서 다 만들어, 옛날엔예? 이제야 뭐 돈만 주면 다 나오지만.)

112028 #1 멘들앙, 돈 쥐도 이녁냥으로 멘드는 사름은 멘들지. 맞질 안 헤여. 치메 예를 들영 나가 죽었다, 치메다 허믈이 이녁냥으로 꼬작 녹진 디 치메 꾸이 요 깎지 오면은 톱 부뎡 존디. 요만이드 몸에 맞질 안허여.(만들어서, 돈 쥐도 자기대로 만드는 사람은 만들지. 맞지를 앓아. 치마 예를 들어 내가 죽었다, 치마다 하면 자기대로 끈게 늑힌 데 치마 끝이 요까지 오면은 톱 붙어서 좋은데. 요만큼도 몸에 맞지 앓아.)

112028 @ 호상, 호상이엔 험니까?(수의, 수의라고 험니까?)

112028 #1 호상.(수의.)

112028 @ 호상 미리 다 만들영 놔두지예? 죽기 전이예.(수의 미리 다 만들어서

놔두지요? 죽기 전에요.)

112028 #1 그 정도에 따라 허지.(그 정도에 따라서 하지.)

112028 @ 할머니 건 해놔수과?(할머니 건 해놔습니까?)

112028 #1 응. 우린 돈 헨 놔두고.(응. 우린 모두 해서 놔두고.)

112028 @ 할아버지 거영?(할아버지 거랑?)

112028 #1 할아버지 것도.(할아버지 것도.)

112028 @ 건 무슨 언제 허민 좋넌 허는?(그건 무슨 언제 하면 좋다고 하는?)

112028 #1 윤달 들 때가.(윤달 들 때가.)

112028 @ 윤달 들 때예.(윤달 들 때요.)

112028 #1 응, 그때가 날 뵙 허는 거.(응, 그때가 날 봐서 하는 거.)

112028 @ 건 무슨 천으로 허는 거와?(그건 무슨 천으로 하는 겁니까?)

112028 #1 멍주.(명주.)

112028 @ 멍주. 아, 게문 호상은 경허고 상제들 입을 옷은? 두건이영게 치메 영.(명주. 아, 그러면 수의는 그렇게 하고 상제들 입을 옷은? 두건이랑 치마랑.)

112028 #1 상제는이 이제는 해도 그때는이 중의.(상제는 이제는 해도 그때는 중의.)

112028 @ 응.(응.)

112028 #1 남저도, 남저옷으로이, 중의.(남자도, 남자옷으로, 중의.)

112028 @ 응.(응.)

112028 #1 우이도 저고리. 여자도 그냥 여자는 여자니까 그냥 그땐 몸뻘<sup>274)</sup>도 엇지. 바지 중의라. 그거 허민 여자는 베치메 우인 또 그 베로 상복이엔 허영 그. (위에도 저고리. 여자도 그냥 여자는 여자니까 그냥 그땐 일 바지도 없지. 바지 중의야. 그거 하면 여자는 베치마 위에 또 그 베로 상복이라고 해서 그.)

112028 @ 응.(응.)

112028 #1 남저는 그 우이 그 상복 입어불민 꾀난 거.(남자는 그 위에 그 상복 입어버리면 끝난 거.)

112028 @ 거난 그 상복도 집이서 다 만드는 거와?(그러니까 그 상복도 집에서 다 만드는 겁니까?)

112028 #1 옛날은 다 만들어나신디 이젠 다 사오지 안허나?(옛날은 다 만들었는데 이젠 다 사오지 않니?)

112028 @ 계난, 이젠 다 사오주.(그러니까, 이젠 다 사오지.)

112028 #1 옛날은 다 만들야.(옛날은 다 만들어.)

112028 @ 집이서?(집에서?)

112028 #1 응.(응.)

112028 @ 동네 사름덜 와근에?(동네 사람들 와서?)

112028 #1 동네 사름덜 왕. 오늘이 입관험젠 허민이 동네서 막 담아들영이 막

274) ‘몸뻘’은 일본어 ‘もんぺ’에서 온 말로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의 하나다.

미성도 앓다 놓고이 손바농질도 허곡 다 허여. 그날 다 멘들 수도 있어. 상제 한 딘  
다 못 만들야. 상제 옷덜 다.(동네 사람들 와서. 오늘이 입관한다고 하면 동네서 막  
모여들어서 막 재봉틀도 가져다 놓고 손바느질도 하고 다 해. 그날 다 만들 수도  
있어. 상제 많은 텐 다 못 만들어. 상제 옷들 다.)

112028 @ 계난. 상제가 막.(그러니까. 상제가 막.)

112028 #1 한 딘.(많은 텐.)

112028 @ 식구가 막, 형제가 아홉 명이여 영 허민 거 다 만들젠 허민.(식구가  
막, 형제가 아홉 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만들려고 하면.)

112028 #1 아기만 만들엄시민 허주만은 동기간덜도 잇고, 시누이도 잇곡.(아기  
만 만들면 하지만 형제간들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112028 @ 맞아, 맞아.(맞아, 맞아.)

112028 #1 동세도 잇곡 해가든 막 하든 다 못 만들어.(동서도 있고 해가면 아주  
많아지면 다 못 만들어.)

112028 @ 응.(응.)

112028 #1 당헌 상제 것만 그날 만들야도 권복<sup>275)</sup>덜은이. 권복이엔 헌 건 촌이  
흐끔 나간 디이.(당한 상제 것만 그날 만들어도 친척들은. 친척들이라고 한 건 촌이  
조금 나간 데.)

112028 @ 아, 아.(아, 아.)

112028 #1 그디덜은 듯날 멘들멍 지네덜 쥬 내불어도 지네대로도 만들앙 입을  
수 잇고.(거기들은 뒷날 만들면서 자기제들 쥬서 내버려도 자기네대로도 만들어서  
입을 수 잇고.)

112029 @ 응. 그 저 상제 앞이 뭐 이렇게.(응. 그 저 상제 앞에 뭐 이렇게.)

112029 #1 쥼텡이<sup>276)</sup>?(쥼동?)

112029 @ 응.(응.)

112029 #1 거 무신 방법으로 놓는 건지 몰르크라. 방장대여.(그거 무슨 방사로  
놓는 건지 모르겠어. 상장이다.)

112029 @ 예, 방장대여.(예, 상장이다.)

112029 #1 쥼텡이여.(쥼동이다.)

112029 @ 응.(응.)

112029 #1 건 무신 것도이, 삼 년 넘으믄이, 삭망혈 때도이 저 상 아래 강 다  
놋당, 삼 년 허영 다 놋당이 삼 년 넘영, 대상 넘으믄 것도 다 술아 부는디 방장대  
영, 다 술아 부는디.(그건 무슨 그것도, 삼 년 넘으면, 삭망제할 때도 저 상 아래 가  
서 다 놋다가, 삼 년 해서 다 놋다가 삼 년 넘어서, 대상 넘으면 그것도 다 살라 버  
리는데 상장이랑, 다 살라 버리는데.)

112029 @ 응. 방장대.(응. 상장.)

275) '권복'은 아들 딸 상제 외에 조금 촌수가 먼 상제를 의미한다고 제보자가 설명하고 있다.

276) '쥼텡이'는 쥼단을 모아 한 덩이로 만든 묶음으로 상제들의 상례 때 상장과 함께 사용한다.



112029 #1 상제 지평 놓는 거.(상제 짚어서 놓는 거.)

112029 @ 응.(응.)

112029 #1 그거영 흠치 술아 부는디. 쥼텡이는 몰르크라 무신 이유로. 베영사, 상제 베영사 누렌 멘든 건지.(그거랑 함께 살라 버리는데. 쥼동은 모르겠어 무슨 이유로. 베어서야, 상제 베어서야 누우라고 만든 건지.)

112029 @ 하하하.(하하하.)

112029 #1 그건 들어보도 안히고 저거 어떻게 하는 거넌 방법도 안 들어봐져. 방장대는 그냥.(그건 들어보지도 았고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방법도 안 물어 보게 돼. 상장은 그냥.)

112029 @ 방장대는 지팡이 닮은 거지예?(상장은 지팡이 같은 거지요?)

112029 #1 응.(응.)

112029 @ 그거 무사 어머니 죽었을 때영 아버지 죽었을 때영.(그거 왜 어머니 죽었을 때랑 아버지 죽었을 때랑.)

112029 #1 틀려. 손지 방장대 틀리고.(달라. 손자 상장 다르고.)

112029 @ 어떻 틀린 거파?(어떻게 다른 겁니까?)

112029 #1 손지 방장대는이 그냥 수리대엔 현 거 저런 대이.(손자 방장대는 그냥 이대라고 한 거 저런 대.)

112029 @ 응.(응.)

112029 #1 저런 대 허고. 어머니 죽은 때는 왕대.<sup>277)</sup>(저런 대 하고. 어머니 죽은 때는 왕대.)

112029 @ 응.(응.)

112029 #1 어명이 아멩해도 힘이 존 생이라. 므디므디 생각나게 왕대로 방장대 허고.(어머니가 아무래도 힘이 좋은 모양이야. 마디마디 생각나게 왕대로 상장하고.)

112029 @ 응.(응.)

112029 #1 아방은 머구냥이엔 현 낭이 이서이. 그걸로 스나이 방장대는 어멍 죽은 때는 이거 꺾사도, 왕대로 허고 아방 죽은 때는 머구냥으로 방장대허고. 손지덜은 방장대 큰 손지로 허는 건 저런 수리대 끈어당 방장대.(아버지는 머귀나무라고 한 나무가 있어. 그걸로 사나이 상장은 어머니 죽은 때는 이거 아까도, 왕대로 하고 아버지 죽은 때는 머귀나무로 상장하고. 손자들은 상장 큰 손잘 하는 건 저런 이대 잘라다가 상장.)

112029 @ 그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엇이 그냥?(그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그냥?)

112029 #1 응.(응.)

112029 @ 수리대로?(이대로?)

112029 #1 경 아무나 방장댄 안 주주게. 사우허고, 큰손지허고. 사우덜은 쥐, 방

---

277) 제보자는 어머니가 죽을 때는 왕대 아버지가 죽을 때는 머귀나무를 상장으로 쓴다고 했으나 제주에서는 반대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왕대, 어머니가 죽었을 때 머귀나무를 쓴다. 제보자가 혼동하여 잘못 말한 듯하다.

장대. 저런 곳사 골은 수리대로.(그렇게 아무나 상장은 안 주지. 사위하고, 큰손자하고. 사위들은 쥐, 상장. 저런 아까 말한 이대로.)

112029 @ 아, 사위덜도 수리대로.(아, 사위들도 이대로.)

112029 #1 응. 게른 당헌 아덜덜은 왕대나 머구낭이나.(응. 그러면 당헌 아들들은 왕대나 머귀나무나.)

112029 @ 어무니 아버지에 따라서?(어머니 아버지에 따라서?)

112029 #1 어멍 죽으민 믋디 믋디 요런 왕대 다 믋디 믋디 잇잖아?(어머니 죽으면 마디마디 이런 왕대 다 마디마디 잇잖아?)

112029 @ 믋디므디 생각난다고?(마디마디 생각난다고?)

112029 #1 믋디므디 생각남으로. 무사 우리 들음을 이거 무사 어멍 죽은 땐 왕대하고 아방 죽은 땐 머구낭으로 험수젠 들으난 경 곧드라고. 어멍 죽으민 아메도 아방보단 썸이 더 이서나신디. 믋디므디 생각나게 험으로 영험젠 골안.(마디마디 생각나기에. 왜 우리 듣기를 이거 왜 어머니 죽은 땐 왕대하고 아버지 죽은 땐 머귀나무로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머니 죽으면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생각이 더 있었었는지. 마디마디 생각나게 함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

112029 @ 아방은, 머구낭은 어땡?(아버지는, 머귀나무는 어떻게?)

112029 #1 아방은 죽으민 멩혜사신디사 머구낭.(아버지는 죽으면 멩했는지 머귀나무.)

112029 @ 하하하.(하하하.)

112029 #1 멩허영.(멍해서.)

112029 @ 머구낭은 가시 이신 거 아니꽈?(머귀나무는 가시 있는 거 아닙니까?)

112029 #1 가시 선 켜켄헌 가실 거라. 이젠 그런 낭도 잘 엇어.(가시 있어서 자잘한 가시일 거야. 이젠 그런 나무도 잘 없어.)

112029 @ 응.(응.)

112029 #1 정해도이 이 상제 옷 꺾는 디는이 그런 거 어디사 강 해당 놓는디 해다놔, 이제도.(그래도 이 상제 옷 꺾는 데는 그런 거 어디야 가서 해다 놓는데 해다 놔, 이제도.)

112029 @ 이제도 게난 그거에 맞춰근예예.(이제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요.)

112030 @ 그다음에 두건하고 복치메?(그다음에 두건하고 복치마?)

112030 #1 복치메도 다게 동기간에 가고. 두건은이 웬만헌 사름은 동네 사름덜은 친허면은이 다 이 영장 논 구들에 다 낯당 절허젠 허민 두건 흥나씩 주멍.(복치마도 다 형제간에 가고. 두건은 웬만한 사름은 동네 사름들은 친하면 다 이 시체 놓은 방에 다 왔다가 절하려고 하면 두건 하나씩 주면서.)

112030 @ 그 두건은 그때 쓸, 절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집이 가정옴디다예?(그 두건은 그때 쓸, 절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집에 가져오던데요?)

112030 #1 가정 와도 좋고, 이제는, 옛날은 가정 가는디 이제는 절할 때 써 나민 또 벗어동 놔동 가.(가져서 와도 좋고, 이제는, 옛날은 가져 가는데 이제는 절할

때 쓰고 나면 또 벗어두고 놔두고 가.)

112030 @ 옛날은 집이 가정오민 그거 무신거 허는 거파?(옛날은 집에 가져오면 그거 무엇 하는 겁니까?)

112030 #1 그거 허민 아기 적삼도 맨들고 무시거이. 그 시간이 넘은 저 상제 옷이니까. 상제 거난 베로 뺄스도 만들곡이.(그거 하면 아기 적삼도 만들고 무엇. 그 시간이 넘은 저 상제 옷이니까. 상제 거니까 베로 팬티도 만들고.)

112030 @ 아.(아.)

112030 #1 요만헌 거 풀면은 자 두 치난 요만이 허주. 거 풀면은 뺄스 여자덜도 뺄스 요추룩 오게 행 입어, 스락스락. 경혜영 만들앙 입다근엥에 풀도 허민 또 과지락행 또.(요만한 거 풀면 자 두 치니까 요만큼 하지. 그거 풀면 팬티 여자도 패니 요렇게 오게 해서 입어, 사락사락.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입다가 풀도 하면 또 ‘과지락’해서 또.)

112030 @ 응. 복치멘, 옛날엔 복치메로 헛수과? 몸빼 같은 걸로 안행.(응. 복치마는, 옛날엔 복치마로 했습니까? 일 바지 같은 걸로 안 하고.)

112030 #1 이제사 몸빼주, 복치메주.(이제야 일 바지지, 복치마지.)

112030 @ 이젠 몸빼바지.(이젠 일 바지.)

112030 #1 당헌 상제만 이젠 복치메 입고 복치메 소꿉에도 상제가 몸빼 입엄주. 이젠 권복덜은 시누이 아지망덜은이 다 몸빼로 쥐불어.(당한 상제만 이젠 복치마 입고 복치마 속에도 상제가 일 바지 입고있지. 이젠 친척들은 시누이 아주머니들은 다 일 바지로 쥐버려.)

112030 @ 계난. 나도 가민 몸빼 주드라고마씨.(그러니까. 나도 가면 일 바지 주더라고요.)

112030 #1 복치메 대신.(복치마 대신.)

112030 @ 복치메 대신에예. 권복은 또 무신거파? 아까.(복치마 대신에요. ‘권복’은 또 뭘니까?)

112030 #1 권복은. 당헌 상제 웨에.(‘권복’은. 당헌 상제 외에.)

112030 @ 응.(응.)

112030 #1 나가 아지망이 죽으면 시누이가 권복 될 거 아니? 당헌 아기는 제라헌 상제고 다음 사람은 권복.(내가 아주머니 죽으면 시누이가 ‘권복’ 될 거 아니? 당헌 아기는 제대로 된 상제고 다음 사람은 ‘권복’.)

112030 @ 아, 권당이나 그런 말허고 비슷한 거파?(아, 권당이나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겁니까?)

112030 #1 응, 경헌 거.(응, 그런 거.)

112030 @ 그 권복은 상제, 상 낫을 때만 영장 낫을 때만 권복이엔 곧는 거파?(그 ‘권복’은 상제, 상 낫을 때만 상 낫을 때만 ‘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112030 #1 그때만게 권복. 권복이난 경 아니 가도 좋주게 영 곧는 사람도 잇곡게.(그때만 ‘권복’. ‘권복’이니까 그렇게 안 가도 좋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112030 @ 아.(아.)

112030 #1 바빔이. 그때 당시 바쁘민.(바빠서. 그때 당시 바쁘면.)

112030 @ 이 저 상 낫을 때 꾹죽 쑤는 거 이수게?(이 저 상 낫을 때 팔죽 쑤는 거 있잖습니까?)

112030 #1 응.(응.)

112031 @ 옛날은 꾹죽덜 막 썬근에 가정 와낫수게.(옛날은 팔죽들 막 쑤어서 가져왔었잖아요.)

112031 #1 이제도 썬. 옛날엔, 나가 우리 예를 들엉 시어명이. 우리 동기간덜이 막 핫거든.(이제도 쑤어. 옛날엔, 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우리 형제간들이 아주 많거든.)

112031 @ 응.(응.)

112031 #1 어명도 잇고 오라방 각시도 잇곡, 성도 잇곡, 죽은어명도 잇곡 허민 그 수정이 다 죽 쑤어와, 이디를.(어머니도 있고 오라버니 부인도 있고, 형도 있고, 작은어머니도 있고 하면 그 숫자가 다 죽 쑤어와, 여기를.)

112031 @ 어.(어.)

112031 #1 죽이 먹당도 남으민이 듯날ㄱ지도 먹곡 동네 노인덜신티도 다 날라 가곡 경혜난.(죽이 먹다가도 남으면 뒷날까지도 먹고 동네 노인들에게도 다 날라가고 그렇게 했었어.)

112031 @ 아. 그건 계난 사둔칩이서 행 오는 거라?(아. 그건 그러니까 사돈집에서 해서 오는 거야?)

112031 #1 사둔칩이서 허는 거주. 우리 언니덜, 어머니네 다 쑤는 거. 사돈 죽으민 으레 그거.(사돈집에서 하는 거지. 우리 언니들, 어머니네 다 쑤는 거. 사돈 죽으면 으레 그거.)

112031 @ 응.(응.)

112031 #1 죽 혼 통에 쥬 혼 말에 부주가.(죽 한 통에 쥬 한 말에 부조가.)

112031 @ 아, 사둔칩이 부주가?(아, 사돈집에 부조가?)

112031 #1 응.(응.)

112032 @ 아. 성복제는 어떻 허는 거마씨?(아. 성복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32 #1 성복제는이 오닐 입관헌텐 말 들어낫지. 입관헤 나면은 그 조름에 어둑음 부짱 성복허는 거난.(성복제는 오늘 입관한다고 말 들었었지. 입관하고 나면 그 뒤에 어두움 붙여서 성복하는 거니까.)

112032 @ 아.(아.)

112032 #1 성복이 뭇인디 몰라. 이젠 구신이 다 이젠 생인이 안 댜 구신이 댜다 허는 거 닻아 나 이치로는. 그것가 성복이고.(성복이 뭇지 몰라. 이젠 귀신이 다 이젠 생인이 안 된 귀신이 댜다 하는 거 같아 나 이치로는. 그것이 성복이고.)

112032 @ 관, 입관헤 나민?(관, 입관하고 나면?)

112032 #1 응.(응.)

112033 @ 그믐 일포제는?(그러면 일포제는?)

112033 #1 일포제는 이제 몰라, 하직제 지내는 건가? 일포제 끝나면 이젠 듯날은 묻으려 가불지 안햐서제?(일포제는 이제 몰라, 하직제 지내는 건가? 일포제 끝나면 이젠 뒷날은 묻으려 가버리지 않고 있니?)

112033 @ 건 일포제 저녁에 허는 건가? 일포제는?(그건 일포제 저녁에 하는 건가? 일포제는?)

112033 #1 일포제 저녁에 다섯 시 돼가면 일포제 지내어.(일포제 저녁에 다섯 시 돼가면 일포제 지내.)

112033 @ 저녁 다섯 시 돼 가민.(저녁 다섯 시 돼 가면.)

112033 #1 네 시 넘어가면 일포제 출리라 영 허여.(네 시 넘어가면 일포제 차리라 이렇게 해.)

112033 @ 아. 일포제가 거난 켈 그 켈 큰 켈가? 누구 돌아가시민?(아. 일포제가 그러니까 제일 그 제일 큰 제인가? 누구 돌아가시면?)

112033 #1 사름 하나가 죽으면은이 제가 하도 많아.(사람 하나가 죽으면 제가 하도 많아.)

112033 @ 응.(응.)

112033 #1 나가 예를 들렁 죽으면은 성복제, 일포제, 몸제<sup>278</sup>.(내가 예를 들어서 죽으면 성복제, 일포제, ‘몸제’.)

112033 @ 몸제?(‘몸제’?)

112033 #1 이 몸제.(이 ‘몸제’.)

112033 @ 그건 무신거짜?(그건 무엇입니까?)

112033 #1 몰라, 몸제엔 허여이, 몸제. 또 집이 토신제<sup>279</sup>. 저 산에 가면은 입관제, 하직제, 으섯 번을 해여, 제가. 나가 하나 죽으면은.(몰라, ‘몸제’라고 해, ‘몸제’. 또 집에 토신제. 저 산에 가면 입관제, 하직제, 여섯 번을 해, 제가. 내가 하나 죽으면.)

112033 @ 아.(아.)

112033 #1 경 복잡허는디 이제는 축으로 허영이 대충만. 성복제, 일포제, 하관제 경만 허여 이젠. 허는 거 보민.(그렇게 복잡한데 이제는 축으로 해서 대충만. 성복제, 일포제, 하관제 그렇게만 해 이젠. 하는 거 보면.)

112033 @ 아, 이제는 세 번만.(아, 이제는 세 번만.)

112033 #1 옛날 할 때는 일곱 번, 으섯 번 해.(옛날 할 때는 일곱 번, 여섯 번 해.)

112033 @ 아.(아.)

112033 #1 게민 복잡허여. 영장 난 디. 다 제물도 다 지만씩 허곡.(그러면 복잡해. 상 난 데. 다 제물도 다 자기만큼씩 하고.)

278) ‘몸제’는 상례의 제차 중의 한 종류이다.

279) ‘토신제’는 무덤을 만들 땅에 지내는 제이다.

112033 @ 제물을 지만씩 헌다고?(제물을 자기만큼씩 헌다고?)

112033 #1 제물은 일푼젠 일푼제 때 허고. 다 곱아놔.(제물은 일포제는 일포제 때 하고. 다 말해놔.)

112033 @ 아, 응. 그믐 그때 성복제허나 일푼제헐 뎡 무신거 무신거 올립니까? 밥이영 국이영.(아, 응. 그러면 그때 성복제하나 일포제할 뎡 뭘 뭘 올립니까? 밥이랑 국이랑.)

112033 #1 응. 떡이영 다 헌 거 다 올려. 고기고 적갈이고 모든 거 다. 헌다 허는 떡은 다 올려. 우리 제사 때 허는 떡은 다 허영 올려.(응. 떡이랑 다 한 거 다 올려. 고기고 적이고 모든 거 다. 한다 하는 떡은 다 올려. 우리 제사 때 하는 떡은 다 해서 올려.)

112033 @ 특별하게 뭘 하는 건 엇고마씨?(특별하게 뭘 하는 건 없고요?)

112033 #1 특별 허는 거 엇어.(특별 하는 거 없어.)

112034 @ 응. 이 저 영장 난 디 부주도 할머니네 헐 뎡 다 돈으로 했주예?(응. 이 저 상 난 데 부조도 할머니네 할 뎡 다 돈으로 했지요?)

112034 #1 돈으로.(돈으로.)

112034 @ 떡도 행 갓잖아마씨?(떡도 해서 갓잖아요?)

112034 #1 떡도. 이 친족 집이 영장 나쁜 떡으로 고적<sup>280)</sup>.(떡도. 이 친척 집에 상 나면 떡으로 ‘고적’.)

112034 @ 응.(응.)

112034 #1 고적이엔 허영 스무 놈으<sup>281)</sup> 해갓저, 마흔 놈으 해갓저 행 다 문서에 즉앙. 맥더레 다 떡을 받아놔 영장밧디.(‘고적’이라고 해서 스무 ‘놈으’ 해갓어, 마흔 ‘놈으’ 해갓어 해서 다 문서에 적어서. 먹서리에 다 떡을 받아놔 장지에.)

112034 @ 그거 상웨떡 아니민 물떡<sup>282)</sup>?(그거 상화떡 아니면 ‘물떡’.)

112034 #1 상웨떡이던, 상웨떡이고 물떡이고 경행 두 가지 행 그 집이서 영장 난 때 친떡 청 가민 친떡 끈어 놓고.(상화떡이든, 상화떡이고 ‘물떡’이고 경행 두 가지 해서 그 집에서 상 냈을 때 시루떡 찌서 가면 시루떡 잘라 놓고.)

112034 @ 아, 친떡도 가정가?(아, 시루떡도 가져가?)

112034 #1 응. 그 문 떡구덕에 다 쥐, 것을. 경헤낫어.(응. 그 모두 떡 바구니에 다 쥐, 그것을. 그랬었어.)

112034 @ 주로 이 영장난 디 행 가는 부주떡은, 고적은 무신 떡으로 합니까?(주로 이 상 난 데 해서 가는 부조떡은, ‘고적’은 무슨 떡으로 합니까?)

112034 #1 상웨떡이 주로 돼주.(상화떡이 주로 되지.)

112034 @ 상웨떡이 주로예. 집이서들 해근예.(상화떡이 주로요. 집에서들 해서.)

112034 #1 응.(응.)

280) ‘고적’은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친척이 만들어 가는 부조 떡이다.

281) ‘놈으’는 고적 떡을 세는 분량으로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하는 것 같다.

282) ‘물떡’은 메밀이나 쌀가루로 반죽하여 팔소를 넣어 삶은 반달 모양의 떡으로 일반적인 떡보다 크기가 크다. 부조를 위한 떡으로 사용된다.

112034 @ 상웨떡은 보릿상웨지예?(상화떡은 보리상화지요?)

112034 #1 밀 곶앙.(밀 갈아서.)

112034 @ 밀상웨.(밀상화.)

112034 #1 옛날 토백이 밀. 곤떡<sup>283</sup>허곡 행 갓당 다 귀긋창 떡구덕에도 다 놔 줘.(옛날 토박이 밀. ‘곤떡’하고 해서 갔다가 다 갖춰서 떡 바구니에도 다 놔 줘.)

112034 @ 집이 올 때 가정장 먹으렌?(집에 올 때 가져가서 먹으라고?)

112034 #1 응, 그 떡해 간 거 무시거 헐 거라? 영장밧디덜 다 떡 행 간 것덜게 다. 옛날 식게칩이 가민 식게 툼물 담앙 주듯이 경행 다 주주.(응, 그 떡해 간 거 뭐 할 거야? 장지들 다 떡 해서 간 것들 다. 옛날 제사집에 가면 제사 툼물 담앙 주듯이 그렇게 해서 다 주지.)

112034 @ 반 테우듯이.(반기 나눠주듯이.)

112035 @ 아까 토신제 얘기헐게만은 토신젠 어떻 허는 거짜?(아까 토신제 얘기 하던데 토신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35 #1 산예?(산소에?)

112035 @ 응.(응.)

112035 #1 게메, 나가 죽영 이디 묻으레 가젠 허민이 산제<sup>284</sup> 지내곡, 거 땅, 땅 임제 직시.(그러게, 내가 죽어서 여기 묻으러 가려고 하면 봉분제 지내고, 그거 땅, 땅 임자 갓.)

112035 @ 아, 그 묻을 땅?(아, 그 묻을 땅?)

112035 #1 응. 또 토신제엔 헌 건 이녀 몸 직시 제 묻곡. 산에 강도 멧 밧디 제를, 산 하나에이 일곱 번을, 산 하나엔 헌다, 사름 하나에 일곱 번.(응. 또 토신제라고 한 건 자기 몸 갓 제 묻고. 산에 가셔도 몇 군데 제를, 산소 하나에 일곱 번을, 산소 하나에는 한다, 사름 하나에 일곱 번.)

112035 @ 아까 일곱 번 헌덴 헐게마는.(아까 일곱 번 한다고 하던데.)

112035 #1 일곱 번 해.(일곱 번 해.)

112035 @ 토신젠 그른 영장밧디 강 허는 거짜?(토신제는 그러면 장지에 가서 하는 겁니까?)

112035 #1 응. 산젠 몸도 안 곳힌 사름이.(응. 산제는 몸도 안 곳은 사름이.)

112035 @ 응.(응.)

112035 #1 영장칩이 안 텡겨난 사름 빌영. 돈도 하영 들어. 밤중이사 강 허곡.(상갓집에 안 다녔던 사름 빌어서. 돈도 많이 들어. 밤중에 가서 하고.)

112035 @ 제를 밤중에 지내?(제를 밤중에 지내?)

112035 #1 응. 쥐도 개도 다 잠들어 분 때. 췌 소리도 말소리도 안 난 때 강 밤중이 강 열두 시, 혼 시쯤에 강 산제, 산제는 그 땅 값.(응. 쥐도 개도 다 잠들어버린 때. 췌 소리도 말소리도 안 날 때 가서 밤중에 가서 열두 시, 한 시쯤에 가서 산

283) ‘곤떡’은 보통 흰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데 제보자는 송편을 ‘곤떡’이라고 말했다.

284) ‘산제’는 무덤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제, 산제는 그 땅 값.)

112035 @ 응.(응.)

112035 #1 땅 직시 강 제 지내뵈 와. 건 산제 허는 사름 돈도 하영 줘야 돼.(땅  
깃 가서 제 지내두고 와. 그건 산제 하는 사름 돈도 많이 줘야 돼.)

112035 @ 매 사름이 다 허는 건 아니고마씨, 산제는?(모든 사름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산제는?)

112035 #1 아니, 죽으면 다 그디 가는 디 강 해줘야 돼.(아니, 죽으면 다 거기  
가는 데 가서 해줘야 돼.)

112035 @ 아.(아.)

112035 #1 산제라고.(산제라고.)

112035 @ 그믄 토신제는 다른 거지예? 아까.(그러면 토신제는 다른 거지요?)

112035 #1 토신제는 이녁 그디 가믄 이녁 들어가는 땅 값.(토신제는 자기 거기  
가면 자기 들어가는 땅 값.)

112035 @ 거난 그거는 언제 허는 거라?(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하는 거야?)

112035 #1 건 들어강 산 다 써놔 올 때.(그건 들어가서 산소 다 써놓고 올 때.)

112035 @ 아.(아.)

112035 #1 몸제 지내곡 또 산제 지내두곡 행 와.(‘몸제’ 지내고 또 산제 지내두  
고 해서 와.)

112035 @ 응.(응.)

112035 #1 경허난 일곱 번인가 돼여.(그러니까 일곱 번인가 돼.)

112035 @ 아.(아.)

112035 #1 이 역스도 몰르는 사름은.(이 역사도 모르는 사름은.)

112035 @ 계난.(그러니까.)

112035 #1 사름 하나에 제를 몇 번 지내는 것도 몰라, 몰르는 사름이 천지라.  
(사름 하나에 제를 몇 번 지내는 것도 몰라, 모르는 사름이 천지야.)

112035 @ 계난 산 다 헐에 봉분 다 해뵈근에 제 지내는.(그러니까 산소 다 해  
서 봉분 다 해뵈서 제 지내는.)

112035 #1 집이 오젠 허민.(집에 오려고 하면.)

112035 @ 집이 오젠 헐 때 지내는 제.(집에 오려고 할 때 지내는 제.)

112035 #1 몸제. 마지막 제.(‘몸제’, 마지막 제.)

112035 @ 아, 그게 마지막 제. 토신젠 게민 언제 허는 거라?(아, 그게 마지막  
제. 토신제는 그러면 언제 하는 거야?)

112035 #1 토신제는 게 산제, 산제주. 산제는 영장도 가기 전이.(토신제는 그러  
게 산제, 산제지. 산제는 송장도 가기 전에.)

112035 @ 아까 밤이 허는 게 토신제?(아까 밤에 하는 게 토신제?)

112035 #1 산제.(산제.)

112035 @ 건 산제. 게민 토신제는?(그건 산제. 그러면 토신제는?)



112035 #1 토신제는 이디 우리 가민 관 파지 안허냐, 그디 팔 때 토신제를.(토신제는 여기 우리 가면 광중 파지 않니, 거기 팔 때 토신제를.)

112035 @ 아, 관 파기 전에?(아, 광중 파기 전에?)

112035 #1 응, 파사게 우리가 관을 들여놓을 거 아니냐?(응, 파야 우리가 관을 들여놓을 거 아니냐?)

112035 @ 예, 예.(예, 예.)

112035 #1 토신제, 산제.(토신제, 산제.)

112035 @ 아.(아.)

112035 #1 막 봉분해 텅 올 땐 몸제 지내텅 마지막으로.(막 봉분해 두고 올 땐 ‘몸제’ 지내두고 마지막으로.)

112035 @ 몸제, 아.(‘몸제’, 아.)

112036 @ 그 저 관 들르는 사름덜은 누게가 들러마씨?(‘몸제’, 아. 그 저 관 드는 사름들은 누가 들어요?)

112036 #1 복친<sup>285)</sup>덜이. 복친이엔 현 건 조케덜이나 손지덜이나.(복친들이. 복친이라고 한 건 조카들이나 손자들이나.)

112036 @ 아.(아.)

112036 #1 엇이민 아무라도 들르주만은이 손지덜 조케덜 쓰게 낭덜 한 사름덜은이.(없으면 아무라도 들지만 손자들 조카들 쓰게 나무들 많은 사름들은.)

112036 @ 응.(응.)

112036 #1 그런 복친이 다. 복친이 다 두건을 써이.(그런 복친이 다. 복친이 다 두건을 써.)

112036 @ 예.(예.)

112036 #1 그 두건 썬 사름덜이 그 관을 들러. 혼쪽에 서이썬 너이썬인가? 서이.(그 두건 쓴 사름들이 그 관을 들어. 한쪽에 세 명썬 네 명썬인가? 세 명.)

112036 @ 응.(응.)

112036 #1 서이썬 들러.(세 명썬 들어.)

112036 @ 게민 뭐 저 이 관 들르는 사름은 무신거엔 곶아마씨?(그러면 뭐 저 이 관 드는 사름은 뭐라고 말해요?)

112036 #1 복친.(복친.)

112036 @ 그냥 복친?(그냥 복친.)

112036 #1 응, 복친덜이 들러.(응. 복친들이 들어.)

112036 @ 복친덜이 들러. 들르는 사름 따로 무신 뭐 상여꾼이여 영허는 말은 안 허고?(복친들이 들어. 드는 사름 따로 무슨 뭐 상여꾼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안 하고?)

112036 #1 아니, 아니. 이제는 그냥 아무라도 들르고 그냥 빌영 간 사름 봉분 싸고 해도. 그때는 막 귀긫아<sup>286)</sup>.(아니, 아니. 이제는 그냥 아무라도 들고 그냥 빌려

285) ‘복친’은 초상났을 때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

서 간 사람 봉분 쌓고 해도. 그때는 막 다 갖추어.)

112037 @ 케민 이거 관 들렁 집에서, 옛날은 집에서 했으니까.(그러면 이거 관 들어서 집에서, 옛날은 집에서 했으니까.)

112037 #1 구들에서.(방에서.)

112037 @ 응, 집에서 저 문으레 갈 때까지는 어떻 허는 거라?(응, 집에서 저 문으러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112037 #1 케메 그때도. 그때까지 제 지내는 것이 일곱 번이라.(그러게 그때도. 그때까지 제 지내는 것이 일곱 번이야.)

112037 @ 아니 영 어떻 옛날엔 영 매근에 가고 해났수게?(아니 이렇게 어떻게 옛날엔 이렇게 매서 가고 했었습니까?)

112037 #1 아, 상장틀<sup>287)</sup> 매영, 그디 놓양, 옷둑지에 둘러멩덜 가는 거.(아, 상여틀 매서, 거기 놔서, 어갯죽지에 둘러매서들 가는 거.)

112037 @ 아, 이게 상장터?(아, 이게 상장터?)

112037 #1 응, 상장틀.(응, 상여틀.)

112037 @ 상장틀.(상여틀.)

112037 #1 이추록 짜 놓은 거라, 이추록. 이추록 허는 디 관을 논 거라.(이렇게 짜 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 관을 놓은 거야.)

112037 @ 응, 경혜근에 여러 사름덜이 아까 복친덜이 들릴 거 아니?(응,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까 복친들이 들 거 아니?)

112037 #1 복친 아니, 거는이 늬이 해줘.(복친 아니, 그거는 남이 해 줘.)

112037 @ 아. 복친덜은 그디 가져가는 거까지만.(아. 복친들은 거기 가져가는 거까지만.)

112037 #1 응, 이디만 복친덜이 앓다놓지, 이 조름에 동네 사름 그뻔 막 영장밧디 백 명 가서라, 이백 명 가서라 막 하영 가이.(응, 여기만 복친들이 가져다 놓지, 이 뒤에 동네 사람 그뻔 막 장지 백 명 갔더라, 이백 명 갔더라 아주 많이 가.)

112037 @ 응.(응.)

112037 #1 복친덜이 아니고 동네사름, 상제가 나상. 널 영장헐 거민 나가 상제민 삼춘이엔 허든지 아시엔 허든지 널 장밧디 가줍서헐 상제덜이 땡기멍 빌어.(복친들이 아니고 동네 사람, 상제가 나서서. 내일 장지에 갈 거면 내개 상제면 삼춘이라고 하든지 아우라고 하든지 내일 장지에 가주십시오해서 상제들이 다니면서 빌려.)

112037 @ 아. 그믐 이거 그거 들르는 사름은 무신거엔 곶아?(아. 그러면 이거 그거 드는 사름은 무엇이라고 말해?)

112037 #1 그 빌려온 사름덜이 이걸 들러 메여.(그 빌려온 사람들이 이걸 매?)

112037 @ 아, 쟁 노래도 불르명은에예.(아, 그래서 노래도 부르면서요.)

112037 #1 응.(응.)

286) ‘귀곶다’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고루 갖추어 있다는 뜻이다.

287) ‘상장틀’은 2개의 장강과 5개의 연춍대로 꾸민 상여의 틀을 말한다.

112037 @ 그디 막 무신거 막 천도 막 영허고 막.(거기 막 무엇 막 천도 막 이렇게 하고 막.)

112037 #1 천도 허고 꽃 화단<sup>288)</sup>이라고.(천도 하고 꽃 ‘화단’이라고.)

112037 @ 응.(응.)

112037 #1 화단을, 꽃에 돌아매. 저추룩헌 함박꽃덜 행 막 화단에 돌아매어.(‘화단’을, 꽃을 달아매. 저렇게 한 함박꽃들 해서 막 ‘화단’에 달아매.)

112037 @ 응.(응.)

112037 #1 그거 씨왕 가민 곳이라.(그거 씨워서 가면 끝이야.)

112037 @ 꽃도 다 멘들아야 돼여?(꽃도 다 만들어야 돼?)

112037 #1 멘들아. 건이 이녁 집이서 누게 빌영 만들젠 허민 허고 화단만 씨우는 사람은 그 화단만 씨와이. 그 씨왕 관에 씨우는 것만 허고 또 집이서 흥뽀 허는 사람은 꽃을 다 만들양 그 화단에 문 끼어.(만들어. 그건 자기 집에서 누구 빌려서 만들려고 하면 하고 ‘화단’만 씨우는 사람은 그 ‘화단’만 씨워. 그 씨워서 관에 씨우는 것만 하고 또 집에서 조금 하는 사람은 꽃을 다 만들어서 그 ‘화단’에 모두 끼워.)

112037 @ 화단이엔 헌 건 천?(‘화단’이라고 한 건 천?)

112037 #1 천이 아니고 집, 예를 들르민 집 짓는 거주.(천이 아니고 집, 예를 들면 집 짓는 거지.)

112037 @ 아, 집추룩?(아, 집처럼?)

112037 #1 집 닳은 거, 이거 관 이디 놓지 안허여?(집 같은 거, 이거 관 여기 놓지 않아?)

112037 @ 예.(예.)

112037 #1 게민 영해영 씨우는 거.(그러면 이렇게 해서 씨우는 거.)

112037 @ 아.(아.)

112037 #1 땡글땡글 소리 나고. 양 귀에 종 돌아매 불민 동글동글 소리 나고.(딸랑딸랑 소리 나고. 양 모퉁이에 종 달아매 버리면 딸랑딸랑 소리 나고.)

112037 @ 아, 그게 화단.(아, 그게 ‘화단’.)

112037 #1 것이 화단.(그것이 ‘화단’.)

112037 @ 응. 경행 그거 들렁 이제.(응. 그렇게 해서 그거 들어서 이제.)

112037 #1 장지에 가민 이젠 문 트덩 이젠 문 개어 가는 거라, 이제. 꽃난 걸로.(장지에 가면 이젠 모두 뜯어서 이젠 모두 개어 가는 거야, 이제. 끝난 걸로.)

112037 @ 응.(응.)

112037 #1 상장틀이엔 헌 건 이것이 상장틀이라.(상여틀이라고 한 건 이것이 상여틀이야.)

112037 @ 응.(응.)

112037 #1 이것도 문 트덩 그자 이거 큰 거 두 개 무끄고, 이 존 것덜도 무끄

---

288) ‘화단’은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다.

고.(이것도 모두 뜯어서 그저 이거 큰 거 두 개 묶고, 이 잔 것들도 묶고.)

112038 @ 아. 계문 이제 가져가근에 관 입관 해나민. 아니 관 그예, 거기 무신 거 판덴 험니까? 그디, 관 들어갈 디.(아. 그러면 이제 가져가서 관 입관하고 나면. 아니 관 그요, 거기 무엇 판다고 험니까? 거기, 관 들어갈 데.)

112038 #1 개광.(광중.)

112038 @ 개광.(광중.)

112038 #1 개광 광.(광중 파서.)

112038 @ 개광 광예, 관 낭 그다음엔 개관?(광중 파서요, 관 놔서 그다음엔 횡대?)

112038 #1 그다음엔 막 곱게 영 멘작허게 해낭 곱닥허게 낭 개, 저 멧전 더경.(그다음에 막 곱게 이렇게 매끈하게 해놔서 곱게 놔서 개어, 저 멧정 덮어서.)

112038 @ 멧전 더경 그다음엔 개관?(멧정 덮어서 그다음엔 횡대?)

112038 #1 개관 더경.(횡대 덮어서.)

112038 @ 더경 흑?(덮어서 흑?)

112038 #1 그다음에, 그다음엔 흑이 더경. 원 못 볼 것덜.(그다음에, 그다음에 흑을 덮어서. 원 못 볼 것들.)

112038 @ 갱 경행 봉분허는 거예? 봉분도 허는 사름 빌어사주예?(그래서 그렇게 해서 봉분하는 거요? 봉분도 하는 사람 빌어야지요?)

112038 #1 동네서 그땐 옛날은. 이제는 다 산, 상조에서 참 저 장의사에서 다 허는디.(동네서 그땐 옛날은. 이제는 다 산, 상조에서 참 저 장의사에서 다 하는데.)

112038 @ 응, 해주주만은.(응, 해주지만.)

112038 #1 옛날엔이 경허젠 허민 막 봉토 째 사름은이 막 그냥 잘 행 맥이곡 이.(옛날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막 봉토 째은 사람은 막 그냥 잘 해서 먹이고.)

112038 @ 아.(아.)

112038 #1 뭇 닻아. 그디 산에 썬난이 고기고 무시거고 고급으로만 다 앓다 낭 덜 맥이고 경헤.(무엇 같아. 거기 산소에 썬던 고기고 뭇고 고급으로만 다 가져다 놔서들 먹이고 그렇게 해.)

112038 @ 응.(응.)

112038 #1 게나민 이젠 와불민 메기주.(그렇게 하고나면 이젠 와버리면 끝이지.)

112038 @ 그 우에 무신 잔디 닻은 것도, 테?(그 위에 무슨 잔디 같은 것도, 떼?)

112038 #1 테, 테 입정.(떼, 떼 입혀서.)

112038 @ 테 입정예.(떼 입혀서요.)

112038 #1 봉분 뿐도 영행 곱게 멘들앙 앞이 제전 놓고 다 행.(봉분도 품도 이렇게 곱게 만들어서 앞에 제단 놓고 다 해서.)

112038 @ 무신거 놓고?(무엇 놓고?)

112038 #1 제전.(‘제전’.)

112038 @ 제절?('제절'?)

112038 #1 이것이 산이면은 영 돼지 안헛어? 영 돼민 이 앞이는 우리가 밥을 행 가도 요 앞이 영 올리는 건 제전.(이것이 산소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이 앞에는 우리가 밥을 해서 가도 요 앞에 이렇게 올리는 건 제단.)

112038 @ 제절? 그건 뭐 대리석 같은 거 돌로 해근에 앞에 놓는 거짜?(제절? 그건 뭐 대리석 같은 거 돌로 해서 앞에 놓는 거짜?)

112038 #1 이젠 다 대리석으로 허주만은 옛날엔 흑으로 영 놔놔 그 우터레 테역 입져불민 봉분이나 비슷해도 흐끔 영 요만하게 상 뿐이 나와.(이젠 다 대리석으로 하지만 옛날엔 흑으로 이렇게 놓고 나서 그 위에 떼 입혀버리면 봉분이나 비슷해도 조금 이렇게 요만하게 상 품이 나와.)

112038 @ 아. 그 테 입지는 것도 잘 안, 예쁘게 안 돼가지고예.(아, 그 떼 입히는 것도 잘 안, 예쁘게 안 돼가지고요.)

112038 #1 다 예쁘게 돼여.(다 예쁘게 돼.)

112038 @ 아니, 그날은 예뻐도 그게 테가 잘 안 입는다고.(아니, 그날은 예뻐도 그게 떼가 잘 안 입는다고.)

112038 #1 테 죽어불카부덴?(떼 죽어버릴까봐?)

112038 @ 응.(응.)

112038 #1 막 정성껏이 물도 강 주는 사름 이서.(막 정성껏 물도 가서 주는 살마 있어.)

112038 @ 아.(아.)

112038 #1 ㄴ물이나 허민 테를 그냥 막.(가물기나 하면 떼를 그냥 막.)

112038 @ 그니까.(그니까.)

112038 #1 막탱이로, 저 무신 마께 닳은 거로 테 부뜨렌이 막 산을 막 두드려이.(막대기로, 저 무슨 방망이 같은 거로 떼 붙으라고 막 산소를 막 두드려.)

112038 @ 응.(응.)

112038 #1 두르려도 너무 ㄴ물면은 죽을 수 시카부덴. 테역은 웬만허민 살주만은 물도 강 막 주어. 테 벗어불카부덴.(두드려도 너무 가물면은 죽을 수 있을까봐. 잔디는 웬만하면 살지만은 물도 가서 막 줘. 떼 벗어버릴까봐.)

112038 @ 응. 그것도 테역마씨? 테?(응. 그것도 잔디요? 떼?)

112038 #1 테.(떼.)

112038 @ 테. 그냥예, 테예.(떼. 그냥요, 떼요.)

112038 #1 테엔 곱아. 테역 죽어불영.(떼라고 말해. 떼 죽어버려.)

112038 @ 아. 테 죽어불영?(아. 떼 죽어버려?)

112038 #1 테 죽어불카부덴 물 주는 거.(떼 죽어버릴까봐 물 주는 거.)

112038 @ 응, 강 풀도 뽑아주곡게예.(응, 가서 풀도 뽑아주고요.)

112038 #1 풀 안 뽑아주민 테 잘 안 살아.(풀 안 뽑아주면 떼 잘 안 살아.)

112038 @ 거난 다른 풀들이 막.(그러니까 다른 풀들이 막.)

112038 #1 그해는 해도 이제 이제 묻엇당 새봄 나가믄이 검질을 자꾸 뽑아줘야 돼. 게사 산도 고와.(그해는 해도 이제 이제 묻었다가 새봄 나가면 김을 자꾸 뽑아줘야 돼. 그래야 산소도 고와.)

112038 @ 응.(응.)

112038 #1 그자 묻영, 그자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영 묻엇젠 그냥 내불민이 검질 제와가곡 허믄이 테도 잘 안 입어. 잘 안 살아.(그저 묻어서,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나 죽어서 묻으려고 그냥 내버리면 김 겨워가고 하면 떼도 잘 안 입어. 잘 안 살아.)

112038 @ 계난 죽어불영예.(그러니까 죽어버려서요.)

112038 #1 죽어불영.(죽어버려서.)

112039 @ 그 호충이엔 현 건.(그 ‘호충’이라고 한 건.)

112039 #1 골충?(골충?)

112039 @ 아니 호충. 그 무사 물을 때 보지 못허는 사름 이수계?(아니 호충. 그 왜 물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112039 #1 응, 무신 생, 무신 생.(응, 무슨 생, 무슨 생.)

112039 @ 응.(응.)

112039 #1 말떨 보지 말렌 허나 뱀떨 보지 말렌 허는 거.(말띠를 보지 말라고 하나 뱀띠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

112039 @ 거난.(그러니까.)

112039 #1 무신 생 잇소, 무신 생 잇소, 해도 그건 나도 딱라지게 몰르크라. 안 보는 건 이서. 무신 해치가 이디 입관허는 디 보지 말라 허민.(무슨 생 잇소, 무슨 생 잇소 해도 그건 나도 똑똑하게 모르겠어. 안 보는 건 있어. 무슨 띠가 여기 입관하는 데 보지 말라 하면.)

112039 @ 예.(예.)

112039 #1 그디 허는 사름이 무신 생 잇소 허민 지냥으로 없소 허고. 허는 것이 이서. 건 이름은 몰르크라.(거기 하는 사람이 무슨 생 잇소 하면 자기대로 없소 하고. 하는 것이 있어. 그건 이름은 모르겠어.)

112040 @ 응. 다음에 영장밧되서 그 일해난 사름 음식은?(응. 다음에 장지서 그 일했던 사람 음식은?)

112040 #1 영장밧디 강 밥행 강 막 맥이고, 떡행 맥이민 걸로 꿏이주.(장지 가서 밥해서 가서 막 먹이고, 떡해서 먹이면 그걸로 끝이지.)

112040 @ 거난 밥, 미리 가근에 저 밥도 그디 가근에 해, 이디서 행 가정 가? (그러니까 밥, 미리 가서 저 밥도 거기 가서 해, 여기서 해서 가져 가?)

112040 #1 허고 국은 그디 강 끌리고.(하고 국은 거기 가서 끓이고.)

112040 @ 아. 국은 그디 강 끌리고.(아. 국은 거기 가서 끓이고.)

112040 #1 막 밥을 허민 옛날엔이 맥에이, 맥에 그것에 해영 잘 쌍 가. 이제는 하영 먹도 안허고 옛날은 보리밥이라부난 하영도 먹곡 하영도 행 갖어게.(막 밥을

하면 옛날엔 먹서리에, 먹서리에 그것에 해서 잘 싸서 가. 이제는 많이 먹지도 않고 옛날은 보리밥이라서 많이도 먹고 많이도 해서 갔어.)

112040 @ 떡도 막 하영 행 갓주예?(떡도 아주 많이 해서 갔지요?)

112040 #1 하영 허멍 말멍 그디 제 썬난 거 허고 흐썸 영장 낫다 허믄이 쏘이 멧 말 켕 그 물고랑에 강 곶양 동네 사름덜 강 다 곶양 그 체로 다 치멍 왕 떡허여.(많이 하면서 말면서 거기 제 썬던 거 하고 조금 상 낫다 하면 쌀이 몇 말 담가서 그 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동네 사람들 가서 다 갈아서 그 체로 다 치면서 와서 떡해.)

112040 @ 응. 경해근에.(응. 그렇게 해서.)

112040 #1 떡허민 것이 낫나. 경허민 막 동네 사름덜이 모다들영. 영장밧디도 앓양 가고.(떡하면 그것이 끝나.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장지도 가져 가고.)

112040 @ 응.(응.)

112040 #1 다 행 가민 먹당 남은 건 갈랑덜 문 오고. 구덕에도 낱 오고. 들구 떡행 간 구덕에.(다 해서 가면 먹다 남은 건 갈라서들 모두 오고. 바구니에도 놔서 오고. 계속 떡해서 간 구덕에.)

112041 @ 이 저 영장밧디서 특별히 수고헌 사름안테 따로 챙겨주고 합니까?(이 저 장지에서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따로 챙겨주고 합니까?)

112041 #1 옛날은 그런 챙겨주는 거 었어. 그냥이라, 일반이 오듯 와불거주. 이젠 허민이 특별히 속은 사름은이 집이 와도 손사레<sup>289</sup>)를 잘 닻암직이 해 가지.(옛날 그런 챙겨주는 거 없어. 그냥이야, 일반이 오듯 와버릴 거지. 이젠 하면 특별히 고생한 사람은 집에 와도 사례를 잘 그럴싸하게 해 가지.)

112041 @ 무신거 손사레?(무엇 ‘손사레’?)

112041 #1 쓰는 거를 무시거 공 가프는 거를이 닻암직이 이디 와도 너무 속앗다 행 해가주만은 옛날은 그런 거 었어.(쓰는 거를 무엇 공 갇는 거를 그럴싸하게 여기 와도 너무 고생했다 해서 해가지만 옛날은 그런 거 없어.)

112041 @ 지금도 무사 그건 합니께, 수건이영 뭐, 담배영.(지금도 왜 그건 하잖아여, 수건이랑 뭐, 담배랑.)

112041 #1 그런 건 이젠 보통으로 그건 허는 거.(그런 건 이젠 보통으로 그건 하는 거.)

112041 @ 옛날엔 그거 대신에 무신거 해낫수과?(옛날엔 그거 대신에 무엇 했었습니까?)

112041 #1 거 었어낫어, 게메. 그런 것이.(그거 없었었어, 글썸. 그런 것이.)

112041 @ 아.(아.)

112041 #1 장갑이 시카, 뭇이 서? 아무것도 었주. 맨손으로.(장갑이 있을까, 무엇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맨손으로.)

289) ‘손사레’는 고생한 사람들에게 공을 갚는 것으로 사례를 한다는 의미이다.

112041 @ 응. 영장밧디 갈 때는.(응. 장지 갈 때는.)

112041 #1 이제야 허지.(이제야 하지.)

112041 @ 하얀 수건하고 막.(하얀 수건하고 막.)

112041 #1 담배허고.(담배하고.)

112041 @ 담배허고.(담배하고.)

112041 #1 장갑허고.(장갑하고.)

112041 @ 응, 그거 싸근에 다 테우더라고마씨.(응, 그거 싸서 다 나눠주더라고  
요.)

112041 #1 이제는 경허는디 옛날은 그런 것이 었어. 이제는 다 이제는 안 허민  
숭이 낭 안 웨여.(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옛날은 그런 것이 없어. 이제는 다 이제는  
안 하면 흥이 나서 안 돼.)

112041 @ 거난, 근디 옛날엔 그런 거 었어난마씨?(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엔 그  
런 거 없었어요?)

112041 #1 장갑덜도 어디 서? 눈이 와도 그냥 눈 우이도 손으로 쓰곡 다했지.  
이제는 뭐 호강이지. 장갑 주고, 수건 주고, 담배 주고 다 행.(장갑들도 어디 있어?  
눈이 와도 그냥 눈 위에도 손으로 쓰고 다했지. 이제는 뭐 호강이지. 장갑 주고, 수  
건 주고, 담배 주고 다 해서.)

112041 @ 응. 답레품 같은 건 옛날에 었어낫수게예?(응. 답레품 같은 건 옛날에  
없었잖아요?)

112041 #1 답레품이 어디 서게, 었주게.(답레품이 어디 있어, 없지.)

112041 @ 그냥 떡이나 싸주민.(그냥 떡이나 싸주면.)

112041 #1 걸로 끝이지.(그걸로 끝이지.)

112041 @ 막 영장밧디서도 답레품도 테우고 험디다.(막 장지에서서도 답레품도  
나눠주고 합디다.)

112041 #1 이젠 이제 허여.(이젠 이제 해.)

112041 @ 누게 적시, 누게가 험수다 막 영허명.(누구 깃, 누가 합니다 막 이러  
게 하면서.)

112041 #1 응, 어느 상제가 험수다, 어느 손지가 험수다 경허는.(응, 어느 상제  
가 합니다, 어느 손자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

112041 @ 응.(응.)

112041 #1 넉넉헌 집이덜은 경허여, 이제도.(넉넉한 집들은 그렇게 해, 이제도.)

112041 @ 거 옛날엔 그런 거 었어낫수과?(그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습니까?)

112041 #1 아이고, 아이고. 일헌 사름 장갑 하나 사주지도 안헤신디.(아이고, 아  
이고. 일한 사람 장갑 하나 사주지도 았았는데.)

112041 @ 하하하.(하하하.)

112042 @ 상식은 어떻게 하는 거마씨?(상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42 #1 오늘 물어뵈 오민.(오늘 물어두고 오면.)



112042 @ 응.(응.)

112042 #1 오닐 물어뵈 오민 널 아척 초우제엔 현 제 지내여이.(오늘 물어두고 오면 내일 아침 초우제라고 한 제 지내어.)

112042 @ 응.(응.)

112042 #1 아기덜 다 모다들엉 왕 또 제 지내고. 또 이틀도이 이틀찾날 아침이 또 또 이 제를, 삼우제 행 또 지내어이.(아기들 다 모여들어서 와서 또 제 지내고. 또 이틀도 이틀째날 아침에도 또 이제를, 삼우제 해서 또 지내.)

112042 @ 응.(응.)

112042 #1 지내나민 이젠 상을 이젠 완전히 설러볼 거 아니?(지내고나면 이젠 상을 이젠 완전히 그만뒀버릴 거 아니?)

112042 @ 응.(응.)

112042 #1 설러볼 때는 섭섭하니까 이거 이 방에 장이 서나면은 옛날 백장 있지, 백장 영.(그만뒀버릴 때는 섭섭하니까 이거 이 방에 장이 있고나면 옛날 백장 있지, 백장 이렇게.)

112042 @ 응.(응.)

112042 #1 이만헌 칸이 생기면은 그레 조그만헌 상 냥이, 상도 발 지와뵈.(이만헌 칸이 생기면 그리 조그마한 상 놔서, 상도 발 접어두고.)

112042 @ 아, 발 지와뵈?(아, 발 접어두고?)

112042 #1 발을 영 눅저뵈. 펜펜허게.(발을 이렇게 눅혀두고, 편편하게.)

112042 @ 응.(응.)

112042 #1 백장 우이 냥 이녁 밥 먹을 때마다 국, 잘 행 먹어진 땀 잘 놓곡 못 행 먹을 땀 못행 놓고. 국허고 장, 국허고 밥만 거려논 때도 있고 경허영, 그것이 상식.(백장 위에 놔서 자기 밥 먹을 때마다 국, 잘 해서 먹은 땀 잘 놓고 못해서 먹을 땀 못해서 놓고. 국하고 장, 국하고 밥만 떠놓은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상식.)

112042 @ 응.(응.)

112042 #1 춤상식<sup>290)</sup>은이 상제가 떠나지 안허여. 이 두건도 안 벗어. 옛날은 우린 그런 건 안 봐도. 두건도 막 그냥 때가 눌엉 이디가 시커멓게 석도록 빨도 안헌텐 해났어, 옛날에.(‘춤상식’은 상제가 떠나지 않아. 이 두건도 안 벗어. 옛날은 우린 그런 건 안 봐도. 두건도 막 그냥 때가 눌어서 여기가 시커멓게 썩도록 빨지도 않는다고 했었어, 옛날에.)

112042 @ 응.(응.)

112042 #1 겐디 우리, 우리 시아버지 죽건 디도 상에 놔도 그자 먹는 밥. 살아신 때 먹는 식으로 그추룩 허연 삼 년을 헌 거라.(그런데 우리, 우리 시아버지 죽은 데도 상에 놔도 그저 먹는 밥. 살아계신 때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삼 년을 헌 거야.)

290) ‘춤상식’은 상복을 벗지 않고 부모의 상을 지키면서 상식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112042 @ 아, 상식을 삼 년 합니까?(아, 상식을 삼 년 합니까?)

112042 #1 대상 끝날 때까지. 일 년이면 소상, 이 년 되면 삼 년, 삼 년하면 담제. 담제까지 허민 끝날 듯헤레 식계로 들어가.(대상 끝날 때까지. 일 년이면 소상, 이 년 되면 삼 년, 삼 년하면 담제. 담제까지 하면 끝나서 다음해에 제사로 들어가.)

112042 @ 아니 뭐 어디 갓당도 상식 때문에.(아니 뭐 어디 갔다가도 상식 때문에.)

112042 #1 응, 저녁 덕분에 어디 갓당도 혼에 와사.(응, 저녁 때문에 어디 갔다가도 혼에 와야.)

112042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42 #1 놓당 아니 놓지도 못허고.(놓다가 안 놓지도 못하고.)

112042 @ 응.(응.)

112042 #1 경행 이녁이 못 허면은 애기덜이라도 시민 강 영 밥허영 영 상에 거려놓라 영도 허고. 이녁이 못 올 형편이민.(그렇게 해서 자기가 못 하면 아기들이라도 있으면 가서 이렇게 밥해서 이렇게 상에 떠 놓아라 이렇게도 하고. 자기가 못 올 형편이민.)

112043 @ 응, 응. 계민 이제 경 해나민 삭망합니까?(응, 응.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나면 삭망하잖아요?)

112043 #1 계메, 삭망은 이젠 보름 되면 삭망.(그러게, 삭망은 이젠 보름 되면 삭망.)

112043 @ 응.(응.)

112043 #1 그때민 또 상제덜이, 애기덜이 못 오는 애긴 못 오고 오는 애기덜은 다 참여 못허민. 또 상제웃을 입어이, 또. 여저는 또 복치메 입곡 행 메 거려놓곡 아이고 아이고 허곡 허영 끝나민.(그때면 또 상제들이, 아기들이 못 오는 애긴 못 오고 오는 아기들은 다 참여 못하고. 또 상제웃을 입어, 또. 여자는 또 복치마 입고 해서 메 떠놓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해서 끝나면.)

112043 @ 계난 그건.(그러니까 그건.)

112043 #1 경해나민 또 초하루 되면.(그리고 나면 또 초하루 되면.)

112043 @ 예.(예.)

112043 #1 초하루 되면 또 굿사 굳는 식으로 또 허곡 그거.(초하루 되면 또 아까 말한 식으로 또 하고 그거.)

112043 @ 매달 초하루허고 보름 허는 거?(매달 초하루하고 보름 하는 거?)

112043 #1 매달 두 번, 매달 두 번.(매달 두 번, 매달 두 번.)

112043 @ 아.(아.)

112043 #1 초하루허고, 보름허고.(초하루하고, 보름하고.)

112043 @ 걸 삼 년?(그걸 삼 년?)

112043 #1 걸 삼 년.(그걸 삼 년.)

112043 @ 아이고.(아이고.)

112043 #1 아이고, 징그러워.(아이고, 징그러워.)

112043 @ 계난 어디 밧디 가지쿠과? 시간 엇영. 그거 허젠 허민.(그러니까 어디 밧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 없어서. 그거 하려고 하면.)

112043 #1 밧디 가져, 그거 허져.(밧에 가랴, 그거 하랴.)

112043 @ 찰리져예.(차리랴요.)

112043 #1 삭망허젠 허민이 나는 옛날이 아니라도 요만헌 시리행 떡도 흐끔 치고이.(삭망하려고 하면 나는 옛날이 아니라도 요만한 시루해서 떡도 조금 찌고.)

112043 @ 응.(응.)

112043 #1 하영은 안 해도.(많이는 안 해도.)

112043 @ 계난.(그러니까.)

112043 #1 상에 올릴 거 계속허젠 허민 넌 삭망이면은 오닐은 밧디 못 가.(상에 올릴 거 계속하려고 하면 내일 삭망이면 오늘은 밧에 못 가.)

112043 @ 응.(응.)

112043 #1 하나 죽으나 걸 찰리젠 허민.(많으나 적으나 그걸 차리려고 하면.)

112043 @ 해야 돼는디예.(해야 되는데요.)

112043 #1 경헤낫주.(그렇게 했었지.)

112043 @ 응.(응.)

112043 #1 삼 년을 헛주. 어멍은 죽으면은이.(삼 년을 헛지, 어머니는 죽으면은.)

112043 @ 응.(응.)

112043 #1 어멍이 몬여 죽으면은 일 년에 쫓나고이.(어머니 먼저 죽으면 일 년에 끝나고.)

112043 @ 응?(응.)

112043 #1 어멍은, 아방 산 때.(어머니는, 아버지 산 때.)

112043 @ 응, 어멍이 먼저 죽으면?(응, 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112043 #1 일 년에 쫓나. 일 년에 쫓나는 건 무신거엔 혈 거여만은 잊어불언. 연제<sup>291)</sup> 들여부난.(일 년에 끝나. 일 년에 끝나는 건 무엇이라고 할 거다만은 잊어버렸어. ‘연제’ 들어버리니까.)

112043 @ 응.(응.)

112043 #1 아방 살아부난에 허는 말인디, 연제 들여부난에 준 거. 흐 육 개월 돼민 소상허영이 제도 돌아오민 대상 텍이라. 일 년 돼면은 복을 다 벗영 쫓나는 거.(아버지 살아버리니까 하는 말인데, ‘연제’ 들어버리니까 준 거. 한 육 개월 되면 소상해서 제도 돌아오는 대상인 셈이야. 일 년 되면 상복을 다 벗어서 끝나는 거.)

112043 @ 응.(응.)

112043 #1 경 헤놓민 담제헤불민 완전 쫓나는 거. 아방은 죽으면은 이제 또 삼

291) ‘연제’는 일 년에 한 번 지내는 제를 말한다.

년을 해가는 거라.(그렇게 해 놓으면 담제해버리면 완전 끝나는 거. 아버지 죽으면 이제 또 삼년을 해가는 거야.)

112043 @ 잠깐만예. 아까 어디까지? 삭망허는 거예, 이젠 이제 삭망은 이젠 안 허주예, 잘예?(잠깐만요. 아까 어디까지? 삭망하는 거요, 이젠 이제 삭망은 이젠 안 하지요, 잘요?)

112043 #1 아이고 삭망도 아무것도 안허. 영장밧디서 헨다 허는 제 이름은 다 지왕 그자 그디서.(아이고 삭망도 아무것도 안 해. 장지에서 한다 하는 제 이름은 다 지워서 그저 거기서.)

112043 @ 흙치?(한꺼번에?)

112043 #1 상제웃도 벗어두고 머리창<sup>292)</sup>도 빼두고. 우린 삼 년을 머리창을 들 영 땡기당 일러먹으민 그 머리창 좇으레 막 돌아땡기고 해나신디 이제는 그런 거 엇어. 산에서 다 흙치 해불민 삭망도 안 허고 무시것고? 아까 곶아전게.(상제웃도 벗어두고 ‘머리창’도 빼두고. 우린 삼 년을 ‘머리창’을 들어서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그 ‘머리창’ 좇으러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엇어. 산소에서 다 함께 해버리면 삭망도 안 하고 무어냐? 아까 말했는데.)

112043 @ 상식.(상식.)

112043 #1 상식도 안 허고.(상식도 안 하고.)

112043 @ 상식도 안 허고.(상식도 안 하고.)

112043 #1 죽으민 곳.(죽으면 끝.)

112044 @ 아, 경해도 뭐 하던데? 사십구제, 이제는.(아, 그래도 뭐 하던데? 사십구제, 이제는.)

112044 #1 게메 이젠 사십, 삼 년 대상 소상 허는디 사십구제로 끝나는 디 있고, 백일제로도 끝낭 이젠 완전 설러불고. 경안헌 디 산에서 그냥 막 완전 끝나부는 사름.(그러게 이젠 사십, 삼 년 대상 소상 하는데 사십구제로 끝나는 데 있고, 백일제로도 끝나서 이젠 완전 그만뒀버리고. 그렇지 않은 데 산소에서 그냥 막 완전 끝내버리는 사름.)

112044 @ 예, 산에서 다 끝내불고예.(예, 산에서 다 끝내버리고요.)

112044 #1 경허여.(그렇게 해.)

112044 @ 옛날에 비해서 간단해졌주예, 이젠예.(옛날에 비해서 간단해졌지요, 이젠요.)

112044 #1 간단허게.(간단하게.)

112044 @ 흙꿈 썩썩허진 안해?(조금 썩썩하지는 않아?)

112044 #1 아이고 썩썩 안 해게? 이젠 식게도 할망 하르방 혼디 해불고, 명칭허 게시리.(아이고 썩썩 안 하니? 이젠 제사도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해버리고, 명칭하게.)

112044 @ 하하하. 합제해불고.(하하하. 합제해버리고.)

---

292) ‘머리창’은 부녀자들이 머리에 넣어 땅을, 긴 형짚오리다.

112044 #1 명칭현 새끼덜이라.(명칭한 새끼들이야.)

112044 @ 하하하.(하하하.)

112044 #1 예를 들렁 난 곱아. 느네 어멍 죽영 식게도 허지 말라, 혼디 느네 아방이영 해불영. 다른 딴 경 곱으민 아멩허민 식게 안 햄수과 해도. 느네 집이 왕이 스무남은에 와근에 죽도록 종년질허고 애기 나주곡, 예를 들렁 재산 늘려주곡이 죽은 날도 몰르곡, 식겔 안 해불민.(예를 들어서 난 말해. 너희 어머니 죽어서 제사도 하지 말라, 함께 너희 아버지랑 해버려서. 다른 덴 그렇게 말하면 아무러면 제사 안 하고 있습니까 해도. 너희 집에 와서 스무나문 살에 와서 죽도록 종년질하고 아기 낳아주고, 예를 들어서 재산 늘려주고 죽은 날도 모르고, 제사 안 해버리면.)

112044 @ 하하하.(하하하.)

112044 #1 어멍 죽은 날 식게허는디.(어미니 죽은 날 제사하는데.)

112044 @ 아방 죽은 날 흠치?(아버지 죽은날 함께?)

112044 #1 흠치 해불민 어멍 죽은 날은 언제 죽어신디 삼 년만 셔보라, 어멍 식게날도 그냥 넘어분다.(함께 해버리면 어머니 죽은 날은 언제 죽었는지 삼 년만 있어봐라, 어머니 제삿날도 그냥 넘어가버린다.)

112044 @ 응.(응.)

112044 #1 난 것이 쥔 썩썩허여, 이제도.(난 그것이 제일 썩썩해, 이제도.)

112044 @ 하하하.(하하하.)

112044 #1 이디 왕 죽도록 늙으 집이 왕 종노릇 다 허곡, 애기 나주곡, 지네덜 공부시켜주곡 다 해신디 어멍 죽영 식게 안행 아방 식게에 해불민 어멍 죽은 날이 어느제산디 편편.(여기 와서 죽도록 남의 집에 와서 종노릇 다 하고, 아기 낳아주고, 자기네들 공부시켜주고 다 했는데 어머니 죽어서 제사 안하고 아버지 제사에 해버리면 어머니 죽은 날은 언제인지 편편.)

112044 @ 하하하.(하하하.)

112044 #1 건 나 애원헤지크라. 썩썩해, 너무.(그건 나 애원하겠어. 썩썩해, 너무.)

112044 @ 응.(응.)

112044 #1 이제 젊은 사름덜은 예, 거 좋아, 좋아 해도, 지네 한글허난. 옛날 삼 년 현 사름이나, 이제 일 년에 혼 번 허는 사름이나, 원 아니현 사름이나 똑같아. 똑같지, 우리 못 전디게 현 사름도. 산에서 흠치 막 지넹 와분 사름이나, 경허당 무신 집도 밧도 못 사명덜 경 못웜 짓덜을.(이제 젊은 사람들은 예, 그거 좋아, 좋아 해도. 자기네 한가하니까. 옛날 삼 년 한 사름이나, 이제 일 년에 한 번 하는 사름이나, 전혀 안 한 사름이나 똑같아. 똑같지, 우리 못 견디게 한 사름도. 산소에서 함께 막 지내 와버린 사름이나, 그렇게 하다가 무슨 집도 밧도 못 사면서들 그렇게 못된 짓들을.)

112044 @ 하하하.(하하하.)

112044 #1 난 조케덜 식겔 우리 어머님네 식겔 모되분네에 나 생전엔 못 현다,

안 해볼면은 어멍 죽은 날도 몰랑 식게 먹으레 안 오킨, 나 생전엔 못한다, 나 죽어 불거들랑 허렌 나 어멍 식게도 모듬지 못허여 나, 아방 식게에.(난 조카들 제사를 우리 어머님네 제사를 모아버리자는데 나 생전엔 못 한다, 안 해버리면 어머니 죽은 날도 몰라서 제사 먹으러 안 오면, 나 생전엔 못한다, 나 죽어버리거들랑 하라고 나 어머니 제사도 모으지 못해 나, 아버지 제사에.)

112044 @ 아, 어머니 아버지 식게를, 응, 합제허지 말라고.(아,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응. 합제하지 말라고.)

112044 #1 합제허지 말렌. 어멍 죽은 날도 몰랑 넘어볼 거 아냐, 잠만 부루 잘 거 아냐냐, 경허영 조케덜도 말 잘 들영 안허여.(합제하지 말라고. 어머니 죽은 날도 몰라서 넘어가버릴 거 아냐냐, 잠만 계속 잘 거 아냐냐. 그래서 조카들도 말 잘 들어서 안 해.)

112044 @ 게문 당일제협니까? 아니민 밤이 열.(그러면 당일제합니까? 아니면 밤에 열.)

112044 #1 우리?(우리?)

112044 @ 응.(응.)

112044 #1 우리 이 집이는 당일제.(우리 이 집은 당일제.)

112044 @ 응.(응.)

112044 #1 낼 헐 거 오늘 해불어, 아니.(내일 할 거 오늘 해버려, 아니.)

112044 @ 오늘 헐 거 낼 허는 거지.(오늘 할 거 내일 하는 거지.)

112044 #1 오늘 헐 거 낼 해불어.(오늘 할 거 내일 해버려.)

112044 @ 예, 예.(예, 예.)

112044 #1 우린 낼 해불어, 이 집이. 당일제, 모듬지는 안허여.(우린 내일 해버려, 이 집에. 당일제, 모으지 않아.)

112044 @ 모듬진 안허고 당일제로는 허고.(모으진 않고 당일제로는 하고.)

112044 #1 당일제.(당일제.)

112044 @ 친정에도 당일제협니까? 아니 저.(친정에도 당일제합니까? 아니 저.)

112044 #1 아니.(아니.)

112044 @ 친정엔 열두 시에 허여?(친정엔 열두 시에 해?)

112044 #1 그냥 옛날 식으로 그냥.(그냥 옛날 식으로 그냥.)

112044 @ 옛날 식으로. 옛날 식이 좋아봬?(옛날 식으로. 옛날 식이 좋아보여?)

112044 #1 좋나 마나 무신 당일제도 그날 밤 헛자 날이 건증 들어가살 거 뉘, 그냥 옛날식 해도 열두 시까지 해가민 끝나볼 거. 아무것도 아난디 하루 앞서 허고 말째 허는 거 뿐인디. 무시거.(좋으나 마나 무슨 당일제도 그날 밤 해도 날이 거의 들어가야 거 뉘, 그냥 옛날식 해도 열두 시까지 해가면 끝나버릴 거. 아무것도 아난데 하루 앞서 하고 말째 하는 거 뿐인디. 무엇.)

112044 @ 경해도 당일젠 흐뎡 빨리 협니까?(그래도 당일제는 조금 빨리 하잖아요?)

112044 #1 게메 아홉 시 돼민 쫓나는다.(그거게 아홉 시 되면 끝나는데.)

112044 @ 응. 아홉 시 돼민, 응.(응. 아홉 시되면, 응.)

112044 #1 바빠, 식게, 큰 식게덜은 허젠 허민 막 바빠.(바빠, 제사, 큰 제사들은 하려고 하면 막 바빠.)

112044 @ 밥 먹영 바로 또 메해야 돼.(밥 먹어서 바로 또 메해야 돼.)

112044 #1 젓상 놔둑 제사 먹으레 온 사름덜 밥 해놓당 보민.(제상 놔두고 제사 먹으러온 사람들 밥 해놓다 보면.)

112044 @ 밥 맥영.(밥 먹어서.)

112044 #1 밤이 메헐 시간도 엇어. 이젠 옛날 ㄴ치 불 안 솜양 허는디 그자 썸으민 허는 밥덜이고 솟덜 하난 햐쥬. 바빠.(밤에 메할 시간도 없어. 이젠 옛날 같이 불 안 살라서 하는데 그저 썸으면 하는 밥들이고 술들 많으니까 하지. 바빠.)

112044 @ 바빠, 밥허젠 허민, 맞아.(바빠, 밥하려고 하면, 맞아.)

112044 #1 저실에게 식게 찰리젠 허민이 집안 한 수끼덜은이 막 바빠. 정월, 우린 정월 식게, 이월 식게덜이라부난 막 바빠.(겨울에 제사 차리려고 하면 집안 많은 식구들은 막 바빠. 정월, 우린 정월 제사, 이월 제사들이라서 막 바빠.)

112045 @ 응. 토롱은 어떻허는 거마씨? 토롱은 무신거?(응. 토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45 #1 우리 토롱 말은 들어도이 토롱은 허는 거 안 봐난.(우리 토롱 말은 들어도 토롱은 하는 거 안 봤었어.)

112045 @ 어떻허는 건디마씨, 토롱은? 임시로 묻는 건가?(어떻게 하는 건데요, 토롱은? 임시로 묻는 건가?)

112045 #1 토롱은이 저 남군더레가이.(토롱은 저 남군에가.)

112045 @ 아.(아.)

112045 #1 남군더레가 잘 허여.(남군에가 잘 해.)

112045 @ 이쪽엔 안 험니까? 잘.(이쪽엔 안 합니까? 잘.)

112045 #1 이쪽엔 토롱허는 디가 엇어, 엇어났어. 우리 옥양 보건디는. 남군더레는.(이쪽엔 토롱하는 데가 없어, 없었었어. 우리 커서 보니까. 남군에는.)

112045 @ 응, 아니 뭐 허다근에 뭐 칠일제, 칠일장이여, 팔일장이 영 나민. 그 칠일 팔일 동안 그 영장을 어떻허여?(응, 아니 뭐 하다가 뭐 칠일제, 칠일장이다, 팔일장이 이렇게 나면 그 칠일 팔일 동안 그 시체를 어떻게 해?)

112045 #1 이디?(여기?)

112045 @ 응.(응.)

112045 #1 그냥 이서.(그냥 있어.)

112045 @ 그냥 방에 모셔?(그냥 방에 모셔?)

112045 #1 응. 저렌이 윈 칠일장이던 삼일장이던이 토롱허는 쟁이라.(응. 저리는 윈 칠일장이든 삼일장이든 토롱하는 모양이야.)

112045 @ 응. 경헌텐 허더라고마씨.(응.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12045 #1 남군더렌, 남군더렌 경허는 거 다향.(남군엔, 남군엔 그러는 거 같아.)

112045 @ 아, 이딘 경 안 허는구나예?(아, 여긴 그렇게 안 하는군요?)

112045 #1 게믄이 집안으로도 이 울안<sup>293</sup>이 시면이 울안에 강 땡이 임시 중싱 이라도 부끄카부텐이 막 그 관을 잘 썬텐.(그러면 집안으로도 이 ‘울안’ 안에 있으면 ‘울안’에 가서 뉘서 임시 짐승이라도 모일까봐 막 그 관을 잘 썬대.)

112045 @ 응.(응.)

112045 #1 게민 이디 할망이 예를 들어 할망이나 하르방이 죽어 나민 이디덜 다 소님은 이디 와도 할망은 저 구석에 앓당 데껴뒀 헌텐, 고만이 구들에 뉘당 강 당신 모실 디강 모시민 좋을 건디 저 남군더레. 이젠 그런, 그디도 엇어.(그러면 여기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다 손님은 여기 와도 할머니는 저 구석에 가져다 던져두고 한다고, 가만히 방에 뉘다가 가서 당신 모실 데 가서 모시면 좋을 건데 저 남군엔. 이젠 그런, 거기도 엇어.)

112045 @ 예.(예.)

112045 #1 흥끔허민 이젠 삼일장허는 그자 술아불고 무시거 허난 그런 일 엇어. 이젠 막 만고 편안이라 이제.(조금하면 이젠 삼일장하는 그저 살라버리고 무엇 하니까 그런 일 엇어. 이젠 막 만고 편안이야.)

112046 @ 하하하. 게민 묘 읍기는 거 이수게?(하하하. 그러면 묘 읍기는 거 있잖습니까?)

112046 #1 천리?(면레?)

112046 @ 응, 천리. 천린 어떻?(응, 면레. 면렌 어떻게?)

112046 #1 천리도게 그거주게. 이제 가족 공동장덜 막 해놓난 문딱 천리덜, 어디 느나 집힐 거 엇이 공동장헌 집덜은 다 산을 모아불엄주게. 우리도, 우린 우리 직계가족만 해부난 허고.(면리도 그거지. 이제 가족 공동묘지들 막 해놓으니까 모두 면레들, 어디 너나 집 할 거 엇이 공동묘지한 집들은 다 산을 모아버리고 있지. 우리도, 우린 우리 직계가족만 해버리니까 하고.)

112046 @ 응.(응.)

112046 #1 우리 친정에는 또 전체 가족 허난 문딱 혼디 큰 공동장에 뉘 비석 세우고, 이긴 할망 비석, 요건 하르방 비석행 문딱 잔디 깔고 육지 대리석으로 문 해부난 좋음도 허여, 이제. 술지도 안행 그냥 파단이.(우리 친정에는 또 전체 가족 하니까 모두 함께 큰 공동묘지에 노서 비석 세우고, 이긴 할머니 비석, 요건 할아버지 비석해서 모두 잔디 깔고 육지 대리석으로 모두 해버리니까 좋기도 해, 이제. 태우지도 앓고 그냥 파다가.)

112046 @ 응.(응.)

112046 #1 요만헌 관을 짜이. 관을 짱 발로 조그조근 영 좇어당 머리만 영 앓정. 스는 거 보단 뉘지.(요만한 관을 짜. 관을 짜서 발로 자근자근 이렇게 주워다가

293) ‘울안’은 울타리 안이라는 뜻으로 ‘우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머리만 이렇게 얹혀서. 사르는 것보단 낫지.)

112046 @ 아, 봉분은 안 허고?(아, 봉분은 안 하고?)

112046 #1 응. 영행 이 땅을 팡 이젠 육지 대리석 육지 돌이.(응. 이렇게 해서 이 땅을 파서 이젠 육지 대리석 육지 돌이.)

112046 @ 응, 응.(응, 응.)

112046 #1 이레 영 더경.(이리 이렇게 덮어서.)

112046 @ 아.(아.)

112046 #1 막 이 바우.(막 이 가장자리.)

112046 @ 게른 더 많이 할 수 있겠다예?(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112046 #1 응.(응.)

112046 @ 봉분허민 막 하영 차지합니께.(봉분하면 아주 많이 차지하잖아요.)

112046 #1 봉분 하나민 두서너 개 들어가고.(봉분 하나면 두서너 개 들어가고.)

112046 @ 응. 거니까.(응. 그러니까.)

112046 #1 겨난 땅이 널를 수밖에 엇지. 겨난 천리 다, 천리 해불라, 천리 해불라, 슬아불라, 슬아불라 험신디 몰라.(그러니까 땅이 너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먼 레 다, 먼레 해버려라, 살라버려라, 살라버려라 하는지 몰라.)

112046 @ 아.(아.)

112046 #1 게난 펜안은 험주.(그러니까 편안은 하지.)

112046 @ 벌초도 안 해도 돼켜.(벌초도 안 해도 되겠다.)

112046 #1 예, 벌초 무사 안 허여. 막 간 보난 막 이 산 앞이 검질이영 하. 비석도.(예, 벌초 왜 안 해. 막 가서 보니까 막 이 산 앞에 김이랑 많아. 비석도.)

112046 @ 경해도 흥쑤 쉽주게. 봉분허는 거보다.(그래도 조금 쉽지. 봉분하는 거보다.)

112046 #1 것사게 막이, 아주 쉽주. 그 수정, 예를 들렁 스물두 자리 요자기 험신디, 스물두 자리 허젠 허민 이틀이나 해사.(그거야게 막. 아주 쉽지. 그 숫자에, 예를 들어서 스물두 장 요마적 했는데, 스물두 장 하려고 하면 이틀이나 해야.)

112046 @ 응.(응.)

112046 #1 이디 하나, 저디 하나.(여기 하나, 저기 하나.)

112046 @ 게난.(그러니까.)

112046 #1 정의 하나, 모관 하나 해불건디 흠치 해부난 좋아.(정의 하나, 모관 하나 해버릴 건데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좋아.)

112046 @ 응. 것도 날 뺑 해사주예.(응. 그것도 날 봐서 해야지요.)

112046 #1 그치, 날 봐야주. 하나도 날 봐사, 열 개도 날 봐사. 수정 한 딴 보기도 힘들어이. 그 생덜 맞추젠 허민. 상제 수정이 맞추젠 허민 힘든디.(그렇지, 날 봐야지. 하나도 날 봐야, 열 개도 날 봐야. 숫자 많은 덴 날 보기도 힘들어. 그 생들 맞추려고 하면. 상제 숫자에 맞추려고 하면 힘든데.)

112046 @ 게민 복웃은 그 상.(그러면 상복은 그 상.)

112046 #1 그런 땀 복옷 벗어. 당헌 상제나 두건이나 손지덜이나 두건 땀 개 행 쓰고 벗어.(그런 땀 상복 없어. 당헌 상제나 두건이나 손자들이나 두건 땀 개 해서 쓰고 없어.)

112046 @ 아.(아.)

112046 #1 땀 년, 오대, 칠대.(땀 년, 오대, 칠대.)

112046 @ 계난 오래 땀 거난예.(그러니까 오래 된 거니까요.)

112046 #1 혼 육대, 칠대까지 다 해서 모사가는다.(한 육대, 칠대까지 다 해서 모셔가는데.)

112047 @ 계믄 저 그 상제 그 옷은 언제 벗어근에 술아부는 거마씨?(그러면 저 그 상제 그 옷은 언제 벗어서 살라버리는 거예요?)

112047 #1 천리혈 때 거?(면례할 때 그거?)

112047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2047 #1 옛날에?(옛날에?)

112047 @ 응.(응.)

112047 #1 삼 년 넘으면 술지 안헤. 이제는이 납골당에 가도 그냥 그디서 벗영 술아불언게, 다.(삼 년 넘으면 사르지 않아. 이제는 납골당에 가도 그냥 거기서 벗어서 살라버리던데, 다.)

112047 @ 옛날에 삼 년 후에? 대상 곳냥?(옛날에 삼 년 후에? 대상 끝나서?)

112047 #1 삼 년 후에 술지 안헤여.(삼 년 후에 사르지 않아.)

112047 @ 그믄?(그러면?)

112047 #1 그 째뎡이, 방장대 그런 거나 술주. 스는 거 엇엇어.(그 째뎡, 상장 그런 거나 사르지, 사는 거 없엇어.)

112047 @ 그믄 그 옷은 뭇해?(그러면 그 옷은 뭇해?)

112047 #1 입어.(입어.)

112047 @ 아니. 대상 곳나민?(아니. 대상 끝나면?)

112047 #1 상제옷도 게메 입어 다. 새로 만들멍 또 뿔멍.(상복도 그러게 입어 다. 새로 만들면서 또 뿔면서.)

112047 @ 아, 뜯어근에 다른 겐로 만들어 아니민?(아, 뜯어서 다른 겐로 만들어 아니면?)

112047 #1 그대로 헤여도 입을 수가 이서. 그 기지로 맨들앙 스락스락 다른 겐로도 맨들고, 옛날에. 기지도 어려웠거든게, 옛날에.(그대로 해도 입을 수가 있어. 그 천으로 만들어서 사락사락 다른 겐로도 만들고, 옛날에. 천도 어려웠거든, 옛날에.)

112047 @ 게메예, 응.(그러게요, 응.)

112047 #1 이제는 그냥 그날 복을 벗엇다 허민 몬 술아뵤 그디서 오는디.(이제는 그냥 그날 복을 벗엇다 하면 모두 살라두고 거기서 오는데.)

112047 @ 그냥 불에만 영 기슬령도 허던데.(그냥 불에만 이렇게 그을려서도 하

던데.)

112047 #1 그때는이 머리창 ㄴ쁜 거이 ㄴ 벗영이 ㄴ뽕이 ㄴ 술 때 강 옷덜을 영영 애기시렁<sup>294</sup>만 와. 다 입어.(그때는 ‘머리창’ 같은 거 모두 벗어서 ㄴ동 사를 때 가서 옷들을 이렇게 이렇게 ‘애기시렁’만 와. 다 입어.)

112047 @ 계난예.(그러니까요.)

112047 #1 다 입어났어.(다 입었었어.)

112047 @ 머리창 같은 건 다 태우고? (‘머리창’ 같은 건 다 태우고?)

112047 #1 응.(응.)

112047 @ 죽은 건 다 태우고 옷은 그냥 기시리기만.(작은 건 다 태우고 옷은 그냥 그을리기만.)

112047 #1 슬아불 건 슬아불어도 다 입어, 입어. 그 옷도이 또 ㄴ당이 또 어멍이나 안 죽으면은이 그 복옷이 잘 행 ㄴ당이 어멍 죽으나.(살라버릴 건 살라버려도 다 입어, 입어. 그 옷도 또 ㄴ다가 또 어머니나 안 죽으면 그 상복을 잘 해서 ㄴ다가 어머니 죽거나.)

112047 @ 헐 때 또 입어.(할 때 또 입어.)

112047 #1 예를 들렁 아방이 죽으나 할망이 죽으나 또 입어.(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으나 할머니가 죽으나 또 입어.)

112047 @ 응.(응.)

112047 #1 복옷은 경해.(상복은 그렇게 해.)

112048 @ 그믐 이 영장 날 때 뭐 조심해야 돼거나 허지 말라 허는 것은 뭐가 이신고마씨?(그러면 이 상 날 때 무 조심해야 되거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112048 #1 건 보지 말라 허는 사름이나 베뀔 조심헐 것이 엇주게. 예를 들렁 이 구들에 정 ㄴ당이 영 나가젠 허민이 관이라도 영 잘못 돌당 건드려 불카부텐 조심허라, 조심허라, 다른 건 조심헐 것이 엇주게.(그건 보지 말라 하는 사름이나 밖에 조심할 것이 없지.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저서 ㄴ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관이라도 이렇게 잘못 돌다가 건드려 버릴까봐 조심해라, 조심해라, 다른 건 조심할 것이 없지.)

112048 @ 아니, 우리 집이 상 모시민 다른 집이 상, 영장 난 디 안 갑니까?(아니, 우리 집에 상 모시면 다른 집에 상, 상 난 데 안 갑니까?)

112048 #1 무사 안 가?(왜 안 가?)

112048 @ 아, 가?(아, 가?)

112048 #1 가야지. 그 사름도 이디 와나신디 우리도 그 집이 가주.(가야지. 그 사름도 여기 왔었는데 우리도 그 집에 가지.)

112048 @ 하하하.(하하하.)

제례

294) ‘애기시리다’는 ‘애’와 ‘기시리다’의 결합형으로 살짝 그을리는 것을 말한다.

112049 @ 게민 이제 식게예, 식게. 식게허젠 허민 뭐뭐뭐 준비해사 됩니까?(그러면 이제 제사요, 제사.(그러면 이제 제사요, 제사. 제사하려고 하면 뭐뭐뭐 준비해야 됩니까?)

112049 #1 그건 ㄴ나마나 다 마찬가지라. 그제나 이제나. 옛날이사게 이제ㄴ치 청묵<sup>295)</sup>허고 무시거 허여? 그냥게 어떻 보리라도 영 박박 맏돌로 곶아근엥에 채로 치명 솟, 옛날 쉼 솟 뚜꺼리 영 가르청 그디 지름 불랑 푸푸 불명 불 꺼지민 불치 반작, 예에.(그건 말하나마나 다 마찬가지야. 그제나 이제나. 옛날이야 이제처럼 ‘청묵’하고 무엇해? 그냥 어떻게 보리라도 이렇게 박박 맏돌로 갈아서 채로 치면서 솟, 옛날 쇠솟 뚜껑 이렇게 뒤집어서 거기 기름 발라서 푸푸 불면서 불 꺼지면 재 반, 예에.)

112049 @ 갱 보리 갈앙 무시거 허여?(그래서 보리 갈아서 뭐해?)

112049 #1 그거 묵허영.(그거 묵해서.)

112049 @ 보리로?(보리로?)

112049 #1 보릿ㄴ루.(보릿가루.)

112049 @ 보릿ㄴ루로도 묵합니까?(보릿가루로도 묵합니까?)

112049 #1 옛날 정.(옛날 찢어서.)

112049 @ 청묵말고?('청묵'말고?)

112049 #1 정 이서. 쉬와? 것도 어럽주, 경허난 보리쌀 곶아근엥에 청 낫당 식게에 그냥 지지는 묵을 허여. 이젠 부침ㄴ루로 지저도 잘 먹지도 안허는다.(그렇게 있어. 쉬워? 그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보리쌀 갈아서 쳐 놔다가 제사에 그냥 지지는 묵을 해. 이젠 부침가루로 지저도 잘 먹지도 않는데.)

112049 @ 응. 아, 보릿ㄴ루로 지지는 묵을 허여?(응. 아, 보릿가루로 지지는 묵을 해?)

112049 #1 밀ㄴ루도 곶앙이 그냥 부침이가 아니고 묵이라, 것ㄴ라 묵이엔 허여.(밀가루도 갈아서 그냥 부침이 아니고 묵이야, 그것보고 묵이라고 해.)

112049 @ 아.(아.)

112049 #1 이젠 부침이여 무시거여 해도.(이젠 부침이다 뭐다 해도.)

112049 @ 응.(응.)

112049 #1 그걸로 묵 지지고 돼지고기나 사당 그냥 꿔영, 삶앙 꿔어근엥에 구는 책허고.(그걸로 묵 지지고 돼지고기나 사다가 그냥 꿔어서, 삶아서 꿔어서 굽는 책하고.)

112049 @ 응.(응.)

112049 #1 호박허영 또 요만씩 요만씩허게 해영 적꼬지에 꿔영 호박적허고, 그거.(호박해서 또 요만큼씩 요만큼씩하게 해서 적꼬지에 꿔어서 호박적하고, 그거.)

112050 @ 제물은?(제물은?)

112050 #1 제물이게 곤떡허고 저 무시거 만뒤떡<sup>296)</sup> 요몐이헌 거 허곡 곤떡허민

295) '청묵'은 메밀쌀을 자루에 담아 물에 눌러서 나온 맑은 물로 쭈어서 만든 묵이다.

제물이고. 설기떡, 이제 ㄱ뜨민 설기떡 치당보민 아니도 익영 지랄허곡.(제물은 ‘곤떡’하고 저 무엇 ‘만뒤떡’ 요만큼한 거 하고 흰떡하면 제물이고. 백설기, 이제 같은 백설기 찌다 보면 안 익어서 지랄하고.)

112050 @ 설기떡이 침떡?(백설기가 시루떡?)

112050 #1 곤쫄로 멘든 설기떡. 것이 설기떡.(흰쌀로 만든 백설기. 그것이 백설기.)

112050 @ 설기떡은 어떤 거?(백설기는 어떤 거?)

112050 #1 이제 우리 치는 것이 설기떡. 햐영헌 쌀로 만든 것이, 것이 설기떡.(이제 우리 찌는 것이 백설기. 햐얀 쌀로 만든 것이, 그것이 백설기.)

112050 @ 햐양헌 쌀로 만든.(햐얀 쌀로 만든.)

112050 #1 응, 우리 시리떡 잇잖아게.(응, 우리 시루떡 있잖아.)

112050 @ 시리떡, 침떡?(시루떡, ‘침떡’?)

112050 #1 응, 침떡으로 거 시리떡, 설기떡.(응, ‘침떡’으로 그거 시루떡, 백설기.)

112050 @ 아, 햐양헌 거. 백설기.(아, 햐얀 거. 백설기.)

112050 #1 백설기가 시리떡.(백설기가 시루떡.)

112050 @ 그게 설기떡?(그게 백설기?)

112050 #1 응. 그거뿐이주게.(응. 그거뿐이지.)

112050 @ 거난 제물로, 제물은 주로 그런 떡하고.(그거니까 제물로, 제물은 주로 그런 떡하고.)

112050 #1 그거 메기지.(그거 끝이지.)

112052 @ 그다음 제숙은?(그다음 제육은?)

112052 #1 제숙은게, 옛날은이 갈치로도 제숙해나고이.(제육은, 옛날은 갈치로도 제육했었고.)

112052 @ 응.(응.)

112052 #1 볼락도 허곡이. 들이가 엇엇어.(볼락도 하고. 제한이 없었어.)

112052 @ 갈친 비늘 엇이난 안 허는 거 아니?(갈치는 비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

112052 #1 게메, 우리도 정 햐신디 갈치로도 허고 우럭도 햐여근에 몰류민이, 줌 일어 볼카부덴이 바싹 물렁 보리덜을 햐영 향아리 속에 놓민이 그 향아리 속에 강 묻어뒤.(그러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갈치로도 하고 우럭도 햐서 말리면, 줌 일까봐 바싹 말려서 보리들 햐서 향아리 속에 놓으면 그 향아리 속에 가서 묻어뒤.)

112052 @ 응, 보리 사이에?(응, 보리 사이에?)

112052 #1 응, 보리 새에 강 그 제숙 햐, 날썰 존 ㄱ리에이.(응, 보리 사이에 가서 그 제육 햐, 날썰 좋은 때썰에.)

---

296) ‘만뒤떡’은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들어 안에 팔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찌낸 후 팔고물을 묻힌 떡이다.

112052 @ 응.(응.)

112052 #1 봄에 물러사주, 여름엔 허민이 벌거지 일곡 안 좋난이 봄이 곱게 물  
러당 종이 툭 쌍 보리항 속에 강 묻어둬.(봄에 말려야지, 여름엔 하면 벌레 일고 안  
좋으니까 봄에 곱게 말렸다가 종이 툭 싸서 보리항아리 속에 가서 묻어둬.)

112052 @ 아.(아.)

112052 #1 경헛당 제스 때민 흠과내영 쓰곡.(그랬다가 제사 때면 흠과내서 쓰  
고.)

112052 @ 제숙은 바닷고기를 제숙이엔 허는 거파?(제육은 바닷고기를 제육이라  
고 하는 겁니까?)

112052 #1 그것도 제숙, 돼지고기도 제숙.(그것도 제육. 돼지고기도 제육.)

112052 @ 돼지고기도 제숙?(돼지고기도 제육?)

112052 #1 그거라, 제숙이엔 현 건. 소고기 적 허는 딴 잇곡, 안 허는 딴 안 허  
곡. 이제도 허는 딴 허고. 소고기 먹지 안허는 사람은 안 허여.(그거야, 제육이라고  
한 건. 소고기 적 하는 텐 하고, 안 하는 텐 안 하고 이제도 하는 텐 하고. 소고기  
먹지 않는 사람은 안 해.)

112053 @ 그믐 적은 무신거 무신거?(그러면 적은 무엇 무엇?)

112053 #1 그것이 적.(그것이 적.)

112053 @ 거난 적은 저 도새기, 돼야지고기허고, 소고기 허민 허는 거, 안 허민  
안 허고. 그다음에?(그러니까 적은 저 돼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하면 하는 거, 안  
하면 안 하고. 그다음에?)

112053 #1 갇되 거. 우력.(바닷가 거. 우력.)

112053 @ 우력도 적으로 허여? 굽지 안허영?(우력도 적으로 해? 굽지 않고?)

112053 #1 아니, 구영, 구영.(아니, 구워서, 구워서.)

112053 @ 굽는 거 말고 적은?(굽는 거 말고 적은?)

112053 #1 적은게, 나 안 곱아냐, 호박적도 잇고.(적은, 나 안 말했니, 호박적도  
잇고.)

112053 @ 호박적도 잇고, 묵적도 잇고.(호박적도 잇고, 묵적도 잇고.)

112053 #1 묵, 묵적 그 영 지지는 지지미ㄴ치 지지는 묵도 잇고 메밀ㄴ루로 쭈  
어근영에 요만씩, 요만씩 끈영 적꼬지에 꿰영 허는 것도 잇고 그것이 적이야.(묵,  
묵적 그 이렇게 지지는 지짐같이 지지는 묵도 잇고 메밀가루 쭈어서 요만큼씩, 요  
만큼씩 잘라서 적꼬치에 꿰어서 하는 것도 잇고 그것이 적이야.)

112053 @ 거난 아까 후라이팬에 영 지진 것도 영 잘랑, 묵추룩, 적추룩 꿰는 거  
파?(그러니까 아까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진 것도 이렇게 잘라서, 묵처럼, 적처럼 꿰  
는 겁니까?)

112053 #1 건 꿰지 못해여.(그건 꿰지 못해.)

112053 @ 건 안 끼워.(그건 안 끼워.)

112053 #1 그 묵 못헌 때는이 그거로 묵ㄴ치, 묵으로 썬. 부침개 우리 ㄴ뜨민

부침개가 묵으로 썬.(그 묵 못한 때는 그거로 묵처럼, 묵으로 썬어. 부침개 우리 같으면 부침개가 묵으로 썬어.)

112053 @ 그믐 그건 찰랑.(그러면 그건 잘라서.)

112053 #1 찰랑개.(잘라서.)

112053 @ 적꼬지에 끼는 거 아니고?(꼬치에 꿰는 거 아니고?)

112053 #1 안 끼어. 요만허게 행 요만 지레기씩 끈영. 요만씩 기냥, 건 그 적갈러레 툭툭 낱. 묵 놓듯이.(안 꿰어. 요만하게 해서 요만한 길이씩 잘라서. 요만큼씩 그냥, 그건 그 적에 툭툭 낱. 묵 놓듯이.)

112053 @ 아. 응. 아니 무신 우리 상어고기도 허고 오징어도 허고 막 헨 게만은.(아. 응. 아니 무슨 우리 상어고기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막 하던데.)

112053 #1 에이구, 에이구, 상어고기, 오징어고기가 그디 어디 셔게? 이시는 집이사 헤엿주만은게.(아이고, 아이고, 상어고기, 오징어고기가 거기 어디 있어? 있는 집이야 했지만은.)

112053 @ 예.(예.)

112053 #1 안 허는 집이사 보통은 안 허주. 이제사게 벨 거 무신 동그랑땡이여, 무신 땡이여, 무신 떡이여 무신. 소세지여 무시거 허멍 다 허는 척해도. 소세지가 어디 시고 동그랑땡이 어디 셔?(안 하는 집이야 보통은 안 하지. 이제야 벨 거 무슨 동그랑땡이다, 무슨 땡이다, 무슨 떡이다 무슨. 소시지다 무엇 하면서 다 하는 척해도. 소시지가 어디 있고 동그랑땡이 어디 있어?)

112053 @ 거난, 그민 옛날에는 돼지고기허고?(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돼지고기하고?)

112053 #1 그거, 그거. 호박적허고 또 요 봄이 제사할 때는 쪽파 마놓이.(그거, 그거. 호박적하고 또 요 봄에 제사할 때는 쪽파 마놓이.)

112053 @ 응.(응.)

112053 #1 까깁, 확 데우쳐근영에 뱅뱅 돌민 요만씩 헤여이.(깍아서, 확 데쳐서 뱅뱅 말면 요만씩 해.)

112053 @ 예.(예.)

112053 #1 경허민 무신 ㄴ루, ㄴ사 밀가루 닳은 거라도 토박이 밀ㄴ루 툭 적정 영영 적꼬지에 다섯 개씩 으섯 개씩 허민이 것도 맛이 서, 옛날은.(그러면 무슨 가루, 아까 밀가루 같은 거라도 토박이 밀가루 툭 적서서 이렇게 이렇게 적꼬치에 다섯 개씩 여섯 개씩 하면 그것도 맛이 있어, 옛날은.)

112053 @ 패마농 적?(쪽파 적?)

112053 #1 응. 패마농 적행 ㄴ루 미청 돌화리에 구민 가물가물 칸 디도 잇곡 아니 칸 디도 시민 그거 주로 헛주. 것도 철이 맞아사 허주, 철 안 맞으면 못허주, 마놓 적도.(응. 쪽파 적해서 가루 무쳐서 돌화로에 구우면 거뭇거뭇 탄 데도 있고 안 탄 데도 있으면 그거 주로 헛지. 그것도 철이 맞아야 하지, 철 안 맞으면 못하지, 마늘 적도.)

112054 @ 하하하. 게문 떡은 차례차례 영 돌아봅서. 쥔 밋에 무신거 놔?(하하하. 그러면 떡은 차례차례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일 밑에 무엇 놔?)

112054 #1 백시리떡 놓고게 놀 거 무시거. 옛날사 흐끔씩 놓민.(백시루 놓고 놓을 거 뭐. 옛날이야 조금씩 놓으면.)

112054 @ 아, 쫓 논 시리 안 허고 침떡 안허고 백시리헤여?(아, 팔 놓은 시루떡 안 하고 시루떡 안 하고 백설기해?)

112054 #1 그것에 백시리로. 쫓, 이제는 백시리 헛자 그때는 쫓을 낫지.(그것에 백설기로. 팔, 이제는 백설기 해도 그때는 팔을 낫지.)

112054 @ 쫓 논 침떡 놓고, 그다음.(팔 놓은 시루떡 놓고, 그다음.)

112054 #1 친떡이멍 말앙, 그거 백시리로 만든 거 허고 곤떡<sup>297)</sup> 놓고 보기 좋게만 논 거라. 그다음에 지름떡은.(시루떡이면서 말면서, 그거 백설기로 만든 거 하고 ‘곤떡’ 놓고 보기 좋게만 놓은 거야. 그다음에 기름떡은.)

112054 @ 지름떡 놓고.(기름떡 놓고.)

112054 #1 상웨떡 ㄴ튼 건 안 올라가?(상화떡 같은 건 안 올라가?)

112054 @ 그른 세 개만 놓는 거라? 세 칸?(그러면 세 개만 놓는 거야? 세 칸?)

112054 #1 세 칸 놔도게 보기 좋게 꾸며 간 거지.(세 칸 놔도 보기 좋게 꾸며 간 거지.)

112054 @ 다시예, 침떡이엔 곱읍니까, 시리떡이엔 곱읍니까? 이 동네서, 옛날에.(다시요, ‘침떡’이라고 말합니까, ‘시리떡’이라고 말합니까? 이 동네서, 옛날에.)

112054 #1 시리떡.(‘시리떡’.)

112054 @ 시리떡예. 침떡이엔, 침떡은 ㄴ튼 건 아니?(‘시루떡’요. ‘침떡’이라고, ‘침떡’은 같은 건 아니?)

112054 #1 줍쌀, 줍쌀헌 거 친떡이엔.(줍쌀, 줍쌀한 거 ‘친떡’이라고.)

112054 @ 아, 줍쌀로 헌 게.(아, 줍쌀로 한 게.)

112054 #1 친떡.(‘친떡’.)

112054 @ 친떡. 친떡?(‘친떡’. ‘친떡’?)

112054 #1 응, 친떡.(응, ‘친떡’.)

112054 @ 응. 그다음에. 하얏헌 건 시리떡.(응. 그다음에. 하얀 건 시루떡.)

112054 #1 응. 경헌디 이거는 안 올리고 요것만 올려.(응. 그런데 이거는 안 올리고 요것만 올려.)

112054 @ 시리떡을 올려, 줍쌀 친떡은 안 허고.(시루떡을 올려, 줍쌀 시루떡은 안 하고.)

112054 #1 응.(응.)

112054 @ 그른 그냥 쌀인데, 저 흰 건 디 쫓 무친 건?(그러면 그냥 쌀인데, 저 흰 건 데 팔 묻힌 건?)

112054 #1 그것이 그거. 이제나이 헤영케 허주이. 옛날엔 다 숨메 놔서.(그것이

---

297) ‘곤떡’은 보통 흰쌀로 만든 떡을 말하는데 제보자는 송편을 ‘곤떡’이라고 말했다.



그거. 이제나 하얏게 하지. 옛날엔 다 고물 놓아서.)

112054 @ 게른 숨메 논 것도 시리떡?(그러면 고물 놓은 것도 시루떡.)

112054 #1 으게.(응.)

112054 @ 숨메 논 것도 시리떡.(고물 놓은 것도 시루떡.)

112054 #1 이제나 백시리로 돼주. 그때는 다 시리로 안 놔.(이제나 백설기로 되지. 그때는 다 시루로 안 놔.)

112054 @ 풋시리 논 것도 시리떡예.(팔시루 놓은 것도 시루떡요.)

112054 #1 그거 안 놓민 시리떡이 안 돼지. 백시리론 안 놔.(그거 안 놓으면 시루떡이 안 되지. 백시루론 안 놔.)

112054 @ 그른 친떡은 좁쌀로 현 것만 친떡예.(그러면 ‘친떡’은 좁쌀로 한 것만 ‘친떡’요.)

112054 #1 좁쌀친떡.(좁쌀‘친떡’.)

112054 @ 응. 거난 젤 밋에 시리떡 놓고.(응. 그러니까 제일 밑에 시루떡 놓고.)

112054 #1 곤떡 놓고.(송편 놓고.)

112054 @ 곤떡 놓고. 지름떡 놓고.(송편 놓고. 기름떡 놓고.)

112054 #1 지름떡.(기름떡.)

112054 @ 것만 놓민 꾀난 거예?(그것만 놓으면 끝난 거요?)

112054 #1 것도 보기 좋게 영 낫주게. 거 하나하나 낱사 무신 뿐이 날 거라게?(그것도 보기 좋게 이렇게 낫지. 그거 하나하나 놔서야 무슨 품이 날 거야?)

112055 @ 게난 여러 개 놔근예예. 과일은 몇 종 놓니까?(그러니까 여러 개 놔서요. 과일도 몇 종 놓습니까?)

112055 #1 삼 종 놔.(삼 종 놔.)

112055 @ 과일은 삼 종. 보통 사과, 배.(과일은 삼 종. 보통 사과, 배.)

112055 #1 땡우지. 그땐 미강도 엇어. 우리 제사 시작할 땐.(당유자. 그땐 꿀도 엇어. 우리 제사 시작할 땐.)

112055 @ 아, 그민 사과, 배, 땡우지?(아, 그러면 사과, 배, 당유자?)

112055 #1 땡우지.(당유자.)

112055 @ 사과 배도 엇이민 어떻허여?(사과 배도 없으면 어떻게 해?)

112055 #1 엇일 리가 이서, 것사.(없을 리가 있어, 그거야.)

112055 @ 경해도게.(그래도.)

112055 #1 어떻헤게, 시민 신 대로.(어떻게 해, 있으면 있는 대로.)

112055 @ 아니 겨울에 같은, 아니 뭐 여름에 같은 때 아직 안 익으면.(아니 겨울에 같은, 아미 뉘 여름에 같은 때 아직 안 익으면.)

112055 #1 시민 신 대로 올리지. 게민이 옛날엔이 뿌룽게<sup>298)</sup>. 뿌룽게 현 것도 이서낫어. 것도.(있으면 있는 대로 올리지. 그러면 옛날엔 ‘뿌룽게’. ‘뿌룽게’ 한 것

298) ‘뿌룽게’는 정확히 어떤 과일인지 모르겠으나 씨가 많고 포도처럼 열리는 과일로 제사상에 올렸었다고 제보자가 설명하고 있다.

도 있었어. 그것도.)

112055 @ 건 무신거봐?(그건 무엇입니까?)

112055 #1 거 몰라. 그것도 올리드라고. 씨만 막 한 거라, 거.(그거 몰라. 그것도 올리더라고. 씨만 아주 많은 거야, 그거.)

112055 @ 뿌룽게?(‘뿌룽게’?)

112055 #1 응. 그것도 올려나신디 건 매집이 허는 거 었엇어. 기냥 사과만, 땡우 지엔 해근에 거. 땡우지, 땡우지. 땡우진이 향기 존텐이 막 역부로 허여. 향기로.(응. 그것도 올렸었는데 그건 매집에 하는 거 없엇어. 그냥 사과만, 당유자라고 해서 그 거. 당유자, 당유자는 향기가 좋다고 해서 막 일부로 해. 향기로.)

112055 @ 응. 이젠 미깡으로 대신허는 건가?(응. 이젠 굴로 대신 하는 건가?)

112055 #1 이젠는 한라봉이 더 쿠싱허영 냄새가 쿠싱허영 좋주게. 이젠 미깡으로도 허고 그걸로도 허고 그거 이름 었언 못 올림주, 다. 과일 이름이 족아?(이젠는 한라봉이 더 고소해서 냄새가 고소해서 좋지. 이젠 굴로도 하고 그걸로도 하고 그 거 이름 없어서 못 올리고 있지, 다. 과일 이름이 적어?)

112055 @ 아까 무신거라고?(아까 뭐라고?)

112055 #1 뿌룽게.(‘뿌룽게’.)

112055 @ 뿌룽겐 어떤 종류마씨?(‘뿌룽게’는 어떤 종류예요?)

112055 #1 종류도 몰르크라, 건. 막 꼭지 짓엉 영 올라. 먹지도 못해 거 씨가 향.(종류도 모르겠어, 그건. 막 꼭지 지어서 이렇게 열어. 먹지도 못해 그거 씨가 많아서.)

112055 @ 씨가 하. 응.(씨가 많아. 응.)

112055 #1 먹지 못해 거.(먹지 못해 그거.)

112055 @ 미깡 님은 거봐? 이건.(굴 같은 겁니까? 그건.)

112055 #1 미깡 말고 요만씩 올라 그자 포도ㄴ찌 찌각 올라.(굴 말고 요만큼씩 열어서 그저 포도처럼 뽁뽁이 열어.)

112055 @ 포도ㄴ치 열아?(포도처럼 열어?)

112055 #1 응. 포도ㄴ치.(응. 포도처럼.)

112055 @ 미깡이 아니고?(굴이 아니고?)

112055 #1 응.(응.)

112056 @ 응. 그다음에 채소는?(응. 그다음에 채소는?)

112056 #1 채소.(채소.)

112056 @ 콩나물허고.(콩나물하고.)

112056 #1 콩나물허고 늑뽕 썰영 무치고. 고사리허고.(콩나물하고 무 썰어서 무치고. 고사리하고.)

112056 @ 늑뽕허고, 고사리허고.(무하고, 고사리하고.)

112056 #1 호박채도 헐 수 이서.(호박채도 할 수 있어.)

112056 @ 호박도 허고. 호박채?(호박도 하고. 호박채?)

112056 #1 채. 호박 보강 채허고.(채. 호박 볶아서 채하고.)

112056 @ 크게 안 썰고?(크게 안 썰고?)

112056 #1 이추룩 행 나폴나폴 썰엉이.(이렇게 해서 나폴나폴 썰어서.)

112056 @ 아, 나폴나폴 썰엉.(아, 나폴나폴 썰어서.)

112056 #1 물 해끔만 낱 삭삭 짓이민 것이 오실오실이 헤싸지지 안허여.(물 조금만 놔서 삭삭 저으면 그것이 고슬고슬 부서지지 않아.)

112056 @ 아.(아.)

112056 #1 게민 그것도 그자 툭툭 거러놓고.(그러면 그것도 그저 툭툭 떠놓고.)

112056 @ 응. 호박채허고. 뭐 다른 퍼렁헌 거 안 해? 미나리나.(응. 호박채하고. 뭐 다른 파란 거 안 해? 미나리나.)

112056 #1 에이구, 에이구.(아이고, 아이고.)

112056 @ 하하하. 시금치나 뭐.(하하하. 시금치나 뭐.)

112056 #1 시금추. 이제나 시금추 잊저, 미나리 잊저 험주.(시금치. 이제나 시금치 있다, 미나리 있다 하고 있지.)

112056 @ 하하하.(하하하.)

112056 #1 할망덜 노래영 허지도 안 헐 거여. 그때 당시.(할머니들 놀라서 하지도 않을 거야. 그때 당시.)

112056 @ 응. 게민 이거 음식 다 해놓민 진설은 누게가 됩니까?(응. 그러면 이거 음식 다 해놓으면 진설은 누가 됩니까?)

112056 #1 응?(응?)

112057 @ 진설. 상 차리는 거.(진설. 상 차리는 거.)

112057 #1 그디 식게 임제가 허지. 저 하르방.(거기 제사 임자가 하지. 저 할아버지.)

112057 @ 남저가 허여, 여저가 허여?(남자가 해, 여자가 해?)

112057 #1 남저가 허지, 올리는 것사.(남자가 하지, 올리는 것이야.)

112057 @ 남저가 올리지. 여자가 허진 안허지예? 여자 허는 집도 이서라.(남자가 올리지. 여자가 하진 않지요? 여자 하는 집도 있더라.)

112057 #1 여자 허는 집도 잊주게. 남저 잊영 올리는 이 잊이민 여자 허는 디도 잘해.(여자 하는 집도 있지. 남자 없어서 올리는 이 없으면 여자 하는 데도 잘해.)

112057 @ 응. 보통은 그 집이.(응. 보통은 그 집에.)

112057 #1 영 제법 봤당 잘 차례로 올리는 디 하, 여자도.(이렇게 제법 봤다가 잘 차례로 올리는 데 많아, 여자도.)

112057 @ 응. 보통은 이 집이선 할아버지가예, 아니민 큰아덜이.(응. 보통은 이 집에선 할아버지가요, 아니면 큰아들이.)

112057 #1 우린 몰라 제법 허는 거.(우린 몰라 제법 하는 거.)

112058 @ 응. 그믐 식게 때 밥은 메.(응. 그러면 제사 때 밥은 메.)

112058 #1 응.(응.)

112058 @ 국은 갱.(국은 갱.)

112058 #1 갱. 송냥.(갱. 송냥.)

112058 @ 송냥. 메하고 갱은 누계가 거리는 거마씨?(송냥. 메하고 갱은 누가 뜨는 거예요?)

112058 #1 그디 주장대로 큰메누리가, 큰메누리가 거리나.(거기 주로 큰며느리가, 큰며느리가 뜨거나.)

112058 @ 아.(아.)

112058 #1 나가 나 식게혈 때는 나가 거려신디 이젠 나 안 거려. 메누리덜이 거리주.(내가 나 제사할 때는 내가 뗏는데 이젠 나 안 떠. 며느리들이 뜨지.)

112058 @ 것도 죽은메누리가 거리민 안 돼고 큰메누리가 거려야 돼?(그것도 작은며느리가 뜨면 안 되고 큰며느리가 떠야 돼?)

112058 #1 왜곡 안 돼는 건 엇주만은 경해도 원칙으로 큰메누리가.(되고 안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원칙으로 큰며느리가.)

112058 @ 아, 원칙은 큰메누리가 거리는 거. 응. 계민 식게혈 때 무사 영 헌관 이엔 험니까? 그것도.(아, 원칙은 큰며느리가 뜨는 거. 응. 그러면 제사할 때 왜 이렇게 헌관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112058 #1 몰르크라.(모르겠어.)

112059 @ 식게혈 때 무사 영 이디 사람 사고 옆이 영 사고 해근에 제 영 절하고 험니까.(제사할 때 왜 이렇게 여기 사람 서고 옆에 이렇게 서고 해서 제 이렇게 절하고 하잖아요.)

112059 #1 아, 저 무시거. 제관. 제관이 아니고 제관인가? 집사질 허는 거.(아, 저 무엇. 제관. 제관이 아니고 제관인가? 집사질 하는 거.)

112059 @ 옆이 사는 사름이 집사예.(옆에 서는 사람이 집사요.)

112059 #1 응. 절허는 건 제관.(응. 절하는 건 제관.)

112059 @ 응. 절허는 건 제관.(응. 절하는 건 제관.)

112059 #1 것이 절허는 거난 제관이주.(그것이 절하는 거니까 제관이지.)

112059 @ 응. 갱 보통 그 제허젠 허민 뗏 사름은 이서사 돼여?(응. 그렇게 보통 그 제하려고 하면 뗏 사름은 있어야 돼?)

112059 #1 서이. 이디 절허는 인 서일 놓고, 엇이민 하나도 허주만은 이녁 즈손덜이 귀긋이고<sup>299)</sup> 아들덜이 귀긋이민 아덜이 세성제민 성으로 셋아시로 죽은아시로 저깅지 앓이민 안네 집사혈 이만 허민.(세 명. 여기 절하는 이는 세 명을 놓고, 없으면 하나도 하지만 자기 자손들이 갖춰지고 아들들이 갖춰지면 아들이 삼형제면 형으로 둘째동생으로 막내동생으로 저기까지 앓으면 안에 집사할 사람만 하면.)

112059 @ 누계가 집사허여?(누가 집사해?)

112059 #1 손자라도 허고 아무라도 허여. 이녁 직계 가족덜이.(손자라도 하고 아무라도 해. 자기 직계 가족들이.)

299) '귀긋다'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고루 갖추어 있다는 뜻이다.

112059 @ 아, 할머니네 집이 헐 땐 누가 집사허여?(아, 할머니네 집에 할 땐 누가 집사해?)

112059 #1 아무라도 허여. 셋아덜도 허곡 큰아덜은 못해.(아무라도 해. 둘째아들도 하고, 큰아들은 못해.)

112059 @ 아, 큰아덜은 안 허는 거?(아, 큰아들은 안 하는 거?)

112059 #1 아방은 이젠, 이젠 큰아덜은 절을 해야지. 큰아덜은 아방 대신. 죽은 아방 이서불고 셋성 이서부난 죽은아덜이 집서.(아버지는 이젠, 이젠 큰아들은 절을 해야지. 큰아들은 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 있고 둘째형 있어버리니까 막내아들이 집사.)

112059 @ 죽은아덜이 집서.(막내아들이 집사.)

112060 @ 게민 파제는 뭇 시에 허는 거라? 당일제혈 땐.(그러면 파제는 몇 시에 하는 거야? 당일제할 땐.)

112060 #1 아홉 시.(아홉 시.)

112060 @ 아홉 시. 그다음 늦게 헐 때는?(아홉 시. 그다음 늦게 할 때는?)

112060 #1 옛날에 열두 시 돼 가민, 열한 시 반만 돼민 메 올령 열두 시 돼 가민 끝나지.(옛날에 열두 시 돼 가면, 열한 시 반만 되면 메 올려서 열두 시 돼 가면 끝나지.)

112060 @ 열두 시 돼영 파제해여?(열두 시 되어서 파제해?)

112060 #1 응.(응.)

112061 @ 응. 이 제사헐 때도 문전제 험니까예?(응. 이 제사할 때도 문전제 하잖아요?)

112061 #1 문전제허고 안네<sup>300</sup>도 허고.(문전제하고 ‘안네’도 하고.)

112061 @ 문전제가 먼저 허는 거?(문전제가 먼저 하는 거?)

112061 #1 문여 해 뒤사 저디.(먼저 해 뒤야 저기.)

112062 @ 문전제헐 때 영 무신거 걷은덴 험니까? 다 끝난 다음에.(문전제할 때 이렇게 뭐 걷는다고 하잖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112062 #1 제 걷은 거이.(제반 걷은 거.)

112062 @ 제 걷은덴 곶아? 그거 어디 가근에 영.(제반 걷는다고 말해? 그거 어디 가서 이렇게.)

112062 #1 아무 디라도 강 놔불어. 난 저 뒷할망<sup>301</sup> 잇젠 곶앗지. 그디 강 놔났어.(아무 데라도 가사 놔버려. 난 저 ‘뒷할망’ 있다고 말했지. 거기 가서 뒷났어.)

112062 @ 아.(아.)

112062 #1 이디 안네 거는.(여기 ‘안네’ 것은.)

300) ‘안네’는 집 안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방인 ‘고방(庫房)’에 모시는 ‘안칠성’풍농을 기원하는 고방제를 말하는 것이다. 제사나 명절 때 고방의 쌀독 뚜껑에 제물을 차렸으나 후대에 와서는 본상 옆에 바닥에 상을 차리기도 한다.

301) ‘뒷할망’은 집 뒤 장독 곁에 모시는 ‘뒷칠성’을 이르는 말이다. 뒷칠성을 모시는 공간을 ‘칠성놀’이라 부르는데, 띠로 만든 주저리를 덮은 형태다.

112062 @ 안네상에 거는 조왕에?('안네'상에 것은 부엌에?)

112062 #1 저디 고팡 엇어부난 조왕 두깁에 저펜에 강.(저기 고팡 없어버리니까 부엌 뒤편에 저편에 가서.)

112062 @ 그디 강 놓고. 문전에 건 뒷할망드레 강 허고예. 그다음에 아까.(거기 가서 놓고. 문전에 건 '뒷할망'에 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112062 #1 안네 거.('안네' 거.)

112062 @ 안네 거는 경허고. 본상에 건 본상은 안합니까?('안네' 거는 그렇게 하고. 본상에 것은 본상은 안 합니까?)

112062 #1 본상은 안 건영.(본상은 안 건어서.)

112062 @ 아, 건 안 건읍니까?(아, 그건 안 건읍니까?)

112062 #1 본상에도 건기야 건지, 쪼끔씩. 승능더레 쪼끔 건어 놓지. 건 먹으나 어떻게야주, 거는.(본상에도 건기야 건지, 쪼끔씩. 승능에 쪼끔 건어 놓지. 그건 먹거나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112063 @ 응. 계민 지제<sup>302)</sup>는 어떻 허는 거마씨?(응. 그러면 '지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2063 #1 지제는 이제 차례 엇이 지제해 불엄신게.(지제는 이제 차례 없이 '지제'해 버리고 있네.)

112063 @ 아. 몇 대 허는 거 아니마씨?(아. 몇 대 하는 거 아니예요?)

112063 #1 계메, 몇 대 허는 건디. 대가 필요 엇어. 이젠 하도 때가 쉬운 때라노난. 우리 대에는 지제이, 우리 징손이니까이 아덜은 고손 아니?(그러게, 몇 대 하는 건데. 대가 필요 없어. 이젠 하도 때가 쉬운 때라서. 우리 대에는 지제, 우리 증손이니까 아들은 고손 아니?)

112063 @ 응.(응.)

112063 #1 고손더레 식계를 못 주거든. 고손 넘어가민.(고손에게 제사를 못 주거든. 고손 넘어가면.)

112063 @ 응.(응.)

112063 #1 자이네가 제살허젠 허난 우리가 징손을 지제허연에 자이네신더레 식겔 물러졌거든게.(재네가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증손을 '지제'해서 재네에게 제사를 물러졌거든.)

112063 @ 응.(응.)

112063 #1 지제는 뭐 식계, 식계 안 허는 게 영영행 축 행 식겔 영영헨 못헬수다 행 혼이 돼난 못헬수다 허민 것이 지제 돼난 꾀나분 거지. 그 지젠 이젠 안 해. (지제는 뭐 제사, 제사 안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 해서 제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이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이 '지제' 되니까 끝나버린 거지. 그 '지제'는 이젠 안 해.)

---

302) '지제'는 제사를 그친다는 뜻으로 삼대 이상의 조상의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고 묘제로 지내는 것을 말한다.

112063 @ 몇 대까지 제사햐수과?(몇 대까지 제사하고 있습니까?)

112063 #1 계난에 징조.(그러니까 증조.)

112063 @ 응.(응.)

112063 #1 아 당조<sup>303</sup>, 징조, 고조<sup>7</sup>진 해알 건디 나이가 들언 못허니까 이젠 지젤 해분 거라. 자이네 손에 가민 고조가 돼부난. 아덜네신디 가민 고조 돼난 식계를 안 해.(아, 당조, 증조, 고조까진 해야 할 건데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까 이젠 ‘지제’를 해버린 거야. 재네 손에 가면 고조가 되어버리니까. 아들에게 가면 고조 되니까 제사를 안 해.)

112063 @ 아, 그믄 지금, 이젠 식계 아덜네가 햐수과?(아, 그러면 지금, 이젠 제사 아덜네가 하고 있습니까?)

112063 #1 응.(응.)

112063 @ 아덜네가 제사햐민 할머니네 그 위에 할아버지.(아덜네가 제사햐면 할머니네 그 위에 할아버지.)

112063 #1 씨아방.(시아버지.)

112063 @ 시아버지, 시어머니 허고, 그다음.(시아버지, 시어머니 하고, 그다음.)

112063 #1 자이네에 하르방.(재네 할아버지.)

112063 @ 아.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아.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112063 #1 자이네는이 우리 시아버지가 자이네 당하르방.(재네는 우리 시아버지가 재네 당할아버지.)

112063 @ 응. 그다음.(응, 그다음.)

112063 #1 나에 시하르방은 징조하르방. 그거 메기.(나의 시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그거 끝.)

112063 @ 증조까지.(증조까지.)

112063 #1 고조는, 고조는 못 허지.(고조는, 고조는 못 하지.)

112063 @ 아, 고조는 안 허고. 할머니네가 지제 해불언.(아, 고조는 안 하고. 할머니네가 ‘지제’ 해버렸어.)

112063 #1 이젠 징조도 다 해불염서.(이젠 증조도 다 해버리고 있어.)

112063 @ 아, 증조도 이제 지제해불니까?(아, 증조도 이제 ‘지제’해버립니까?)

112063 #1 당조도 허는 둥 마는 둥.(당조도 하는 둥 마는 둥.)

112063 @ 하하하.(하하하.)

112063 #1 허는 거 보민 난 젤 그것이 부에 나. 초상덜을 무사 경 박해불염신고?(하는 거 보면 난 제일 그것이 화가 나. 조상들을 왜 그렇게 박해지고 있는가?)

112063 @ 아. 보통 옛날에는.(아. 보통 옛날에는.)

112063 #1 우리도 징조도이 재기 안 헐 건디 자이네신디레 우리가 팔십이.(우리도 증조도 빨리 안 할 건데 재네게 우리가 팔십이.)

112063 @ 식계 넘기젠 허난.(제사 넘기려고 하니까.)

303) ‘당조’는 조부모를 말한다.

112063 #1 팔십이 넘으난 식계를 자이네 주젠 허난 징조로. 자이 손에 가민 고조난에, 고손 뉘부난에 지제해 불언.(팔십이 넘으니까 제사를 재네 주려고 하니까 증조로. 저 애 손에 가면 고조니까, 고손 되어버리니까 지제해 버렸어.)

112063 @ 난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해놔수다.(난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했었습니다.)

112063 #1 응.(응.)

112063 @ 허단에, 처음에 허단에 몇 년 허난 지제해볼렌 허난.(하다가, 처음에 하다가 몇 년 하니까 ‘지제’해 버리라고 하니까.)

112063 #1 게, 이제 고손허젠, 게난 고손은 지넨 몇 번 안 해실 거라.(그러게, 이젠 고손하려고, 그러니까 고손은 지내서 몇 번 안 했을 거야.)

112063 @ 예, 몇 번 안 헨.(예, 몇 번 안 했어.)

112063 #1 몇 번 안 헨 해실 거여.(몇 번 안 하고 했을 거야.)

112063 @ 흠뎸 몇 년은 헨마씨.(조금 몇 년은 했어요.)

112063 #1 응, 몇 년 해실 거라게.(응. 몇 년 했을 거야.)

112063 @ 어무니네가 허단에 다 우리안티 허렌 해신디.(어머니네가 하다가 다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데.)

112063 #1 그때는 부모네가 생각을 못 헨 거라. 부모네 손으로 지제해여뎸 말 것율이.(그때는 부모가 생각을 못 한 거야. 부모 손으로 ‘지제’해두고 말 것율.)

112063 @ 게난. 우리안테 쥘예 우리가 흠뎸 허단예.(그러니까.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조금 하다가요.)

112063 #1 허여 가난 이젠 지제해볼렌.(해 가니까 이젠 ‘지제’해 버리라고.)

112063 @ 응.(응.)

112063 #1 부모네가 생각예, 부모네가 멧사 나신디 몰라도.(부모가 생각예, 부모가 멧이나 났는지 몰라도.)

112063 @ 하하하.(하하하.)

112063 #1 부모네 대에 애기덜 물릴 때는 고조 뉘가민 부모네가 지제해뎸 줘야 주.(부모네 대에 아기들 물릴 때는 고조 되어가면 부모네가 지제해두고 줘야지.)

112063 @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했었는데 지제헬젠 허멍은예, 헬젠 허멍 언제부턴가 안 허드라고마씨.(고조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했었는데 ‘지제’한다고 하면서, 했다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안 하더라고요.)

112063 #1 응. 게난이 이녁이 막 계속 시집오난 허단 제서도이 그 제삿날이 생각을 못헬 어뜬 뎸 잊어볼 때가 있어.(응.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계속 시집오니까 하던 제사도 그 제삿날이 생각을 못해서 어떤 뎸 잊어버릴 때가 있어.)

112063 @ 응, 맞아.(응, 맞아.)

112063 #1 생각이 나면은 허여 지랴만은 아, 오늘 제사라나신디 헨 생각이 안 들어불어. 게난 나 그 생각으로 어멍 죽어도 합제헬 어멍 죽은 날도 몰르랴 헨 생각이.(생각이 나면은 할 수 있으랴만은 아, 오늘 제사였었는데 한 생각이 안 들어버



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어머니 죽어도 합제해서 어머니 죽은 날도 모르랴 한 생각이.)

112063 @ 계난 절대 합제하지 말렌. 하하하.(그러니까 절대 합제하지 말라고. 하하하.)

112063 #1 응, 절대 합제, 나 대랑 합제하지 말렌. 외가에, 친정에도 합제하지 말렌 곶앙 쟁 안 해.(응, 절대 합제, 나 대는 합제하지 말라고. 외가에, 친정에도 합제하지 말라고 말해서 그래서 안 해.)

112064 @ 묘제는 언제 허는 거마씨?(묘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112064 #1 시월달에.(시월에.)

112064 @ 시월달에.(시월에.)

112064 #1 묘제 있고. 묘제는 삼월달에 허고.(묘제 있고. 묘제는 삼월에 하고.)

112064 @ 응.(응.)

112064 #1 시제는 시월달에 허고.(시제는 시월에 하고.)

112064 @ 아, 묘제 있고 시제 잇수과?(아, 묘제 있고 시제 있습니까?)

112064 #1 삼월에 허는 묘제가 잇고이 삼월에 허는 건 묘제. 시월에 허는 건 시제.(삼월에 하는 묘제가 잇고 삼월에 하는 건 묘제. 시월에 하는 건 시제.)

112064 @ 이진 둘 다 저 지제헌 조상들안테.(이진 둘 다 저 ‘지제’한 조상들에게.)

112064 #1 응, 응.(응, 응.)

112064 @ 제사 지내는 거 아니예? 그 어디 산에, 밭, 산에 가근에? 집에서?(제사 지내는 거 아내예요? 그 어디 산소에, 밭, 산소에 가서? 집에서?)

112064 #1 영허른이 이제는 그런 시제도 허는 디가 드물어이. 옛날엔 이 지제헌 산을이 어디 혼 딜로 가근에 허는 디가 제단이 이서나실 거라.(이렇게 하면 이제는 그런 시제도 하는 데가 드물어. 옛날엔 이 ‘지제’한 산소를 어디 한 군데로 가서 하는 데가 제단이 있었을 거야.)

112064 @ 아.(아.)

112064 #1 이제는 그냥 해도.(이제는 그냥 해도.)

112064 @ 이젠 집에서 합니까?(이젠 집에서 합니까?)

112064 #1 게. 이젠 지제, 지제허고 안 허는 건 몰르크라. 지제 안 허는 산은 이젠이 우리 친정에는이 지제헌 산은이 하거든게이.(게. 이젠 ‘지제’, ‘지제’하고 안 하는 건 모르겠어. ‘지제’ 안 하는 산소는 이젠 우리 친정에는 ‘지제’한 산은 하거든.)

112064 @ 응. 맞아.(응. 맞아.)

112064 #1 고조, 징조 막 우깁지 오대 육대깁지 가가문이 하난 벌초는 그냥 허거든.(고조, 증조 막 위까지 오대 육대까지 가가면 많으니까 벌초는 그냥 하거든.)

112064 @ 응.(응.)

112064 #1 벌초할 땐이 막 잘 출령 가. 시제 대신.(벌초할 땐 아주 잘 차려서 가. 시제 대신.)

112064 @ 아, 시제 대신 별초허는 날.(아, 시제 대신 별초하는 날.)

112064 #1 응, 소고기적허곡이 돼지적허곡 초상이 하니까 하루에 허는 거난 것도 좋은 거라. 과일도 막 무시거 떡도 그냥 다 허영 가. 떡 헌텐 허는 떡은 다 행가.(응, 소고기적하고 돼지적하고 초상이 많으니까 하루에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거야. 과일도 막 무엇 떡도 그냥 다 해서 가. 떡 한다고 하는 떡은 다 해서 가.)

112064 @ 응.(응.)

112064 #1 요번이도 경행 강 떡 처 앓안완 노인당에 나 다 앓다불언.(요번에도 그렇게 해서 가서 떡 찌서 가져와서 노인당에 나 다 가져다버렸어.)

112064 @ 별초할 때.(별초할 때.)

112064 #1 시제로 문 출령 팔월에난 계도 시제 뭇은 돼주. 계난 시제 못 할 거니까 생각나게 허느니 모든 초상덜 다 혼 날에덜 모영 이젠 가족 공동장 해놓고 허난 글로 간 다 해부난 종안게.(시제로 모두 차려서 팔월에니까 그래도 시제 뭇은 되지. 그러니까 시제 못할 거니까 생각나게 하느니 모든 조상들 다 한 날에들 모여서 이젠 가족 공동묘지 해놓고 하니까 그리로 가서 다 해버리니까 좋더라.)

112064 @ 옛날엔 그문 묘제나 시제 어떻게 해난마씨? 산도 다 다른 디 잇고.(옛날엔 그러면 묘제나 시제는 어떻게 해서 했었어요?)

112064 #1 우린 그런 거 안 해나부난 몰라. 집에서 해신가 몰르크라 건. 산도 따로 이서부난 우리 이번 허는 거 보난 종안게. 혼디덜 문, 옷대 즈손덜 문딱.(우린 그런 거 안 해버리니까 몰라. 집에서 했나 모르겠어 그건. 산도 따로 있어버리니까 우리 이번 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 함께들 모두, 윗대 자손들 모두.)

112064 @ 응, 응.(응, 응.)

112064 #1 참, 옷대 초상덜 혼디 모여다 농난에.(참, 윗대 조상들 함께 모여다 놓으니까.)

112064 @ 응. 그문 별초허듯이 산마다 찾아가근에 제사 지내는 건가?(응. 그러면 별초하듯이 산마다 찾아가서 제사 지내는 건가?)

112064 #1 옛날 시제 어떻게 해났수과?(옛날 시제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64 #2 뭐?(뭐?)

112064 @ 시제.(시제.)

112064 #1 옛날 시제 산으로 강 해나신가? 어떻 해신가? 그 하르방<sup>304)</sup>은 알아?(옛날 시제는 산으로 가서 했었나? 어떻게 했었나? 그 할아버지는 알아?)

112064 @ 알 거 님아, 할아버지는. 가냇수게. 시제나 묘제 이런 거.(알 거 님아, 할아버지는. 갓었잖아요. 시제나 묘제 이런 거.)

112064 #2 그 산에서 해난디.(그 산에서 했었는데.)

112064 @ 산에 강 해났수과?(산에 가서 했었습니까?)

112064 #1 시제 안 해봤어.(시제를 안 해봤어.)

112064 @ 아, 안 해봤.(아, 안 해봤어.)

304)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12064 #1 옷땀 하르방덜은 해도.(윗대 할아버지들은 해도.)

112064 @ 아.(아.)

112064 #2 일흔다섯에 제스도 인계해 부난 뭘 왁왁이주.(일흔다섯에 제사도 인계해 버리니까 뭘 캄캄이지.)

112064 @ 하하하.(하하하.)

112064 #1 아니, 그때사 왁왁허주만은 어린 때 저 시제허는 걸 어떻 험디젠.(아니, 그때야 캄캄이지만 어린 때 저 시제하는 걸 어떻게 했었냐고.)

112064 @ 거난 옛날에. 이제사 뭘.(그러니까 옛날에. 이제야 뭘.)

112064 #1 이제사 뭘 몰르주.(이제야 뭘 모르지.)

112065 @ 식게혈 때 뭘 조심해야 돼거나 하지 말아야 돼는 거.(제사할 때 뭘 조심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112065 #1 건 엇지. 이녁이 허자 허는 거난 다 해사지. 칠릴 것도 다. 허지 말아야 혈 건 엇주게.(그건 없지. 자기가 하자 하는 거니까 다 해야지. 칠릴 것도 다. 하지 말아야 할 건 없지.)

112065 @ 응. 경해도게 식게허젠 허민 곳인 디도 가지 말곡.(응. 그래도 제사하려고 하면 곳은 데도 가지 말고.)

112065 #1 아, 거 영장 난 디 몸 안 비리곡이.(아, 그거 상 난 데 몸 안 더럽히고.)

112065 @ 응.(응.)

112065 #1 개 죽은 것도 봐나민 아이고 나 몸 비리고렌 느가 혈 거 허렌 허곡이.(개 죽은 것도 보고나면 아이고 나 몸 더럽혔다고 네가 할 거 하라고 하고.)

112065 @ 음식 만드는 것도?(음식 만드는 것도?)

112065 #1 응, 건 정성해났어, 우리도. 베염 죽은 거 신 디 가도 아이고 몸 비리고렌 행이 이녁이 못 혈 정도면은이 막 상물 삶앙 손이고 머리고 다 곰앙 해났어.(응, 그건 정성했었어, 우리도. 뱀 죽은 거 있는 데 가도 아이고 몸 더럽혔다고 해서 자기가 못 할 정도면 막 향물 삶아서 손이고 머리고 다 감아서 했었어.)

112065 @ 아. 상물 삶아근에.(아. 향물 삶아서.)

112065 #1 건 그 몸 비린 거를 제거사 시켜신디사 그추록 허렌 헨 해났어. 누게 혈 이 엇이니까.(그건 그 몸 더럽힌 거 제거야 시켰는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었어. 누가 할 이 없으니까.)

112065 @ 아.(아.)

112065 #1 나가 해야 혈 거난 나가 몸은 곳어 놓고 허난 상물 삶앙 몸도 곰고 머리고 곰고 다 해났어. 아이고, 옛날 멍청하게시리.(내가 해야 할 거니까 내가 몸은 더럽혀 놓고 하니까 향물 삶아서 몸도 씻고 머리고 감고 다 했었어. 아이고, 옛날 멍청하게끔.)

112065 @ 무사게 멍청허파게? 다 잘 헛주게.(왜 멍청합니까? 다 잘 했지.)

112065 #1 그땐 그때대로 욕은 사름도 잊고 두린 사름도 잊고 이제도 그거, 마

찬가지 그때 삶이나, 이제 삶이나.(그땐 그때대로 사리에 밝은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이제도 그거, 마찬가지로 그때 삶이나, 이제 삶이나.)

112065 @ 응.(응.)

##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http://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